Charry의 기분 좋은 날

charry

소개글

목차

1 김동길교수의 국회 개혁안 *8*

2 고영주 부림무죄판결 서석구의 후회의눈물 *13*

3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산의 총액 *21*

4 [펌]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추악한 군상들 *29*

5 아빠요리 2013년4월22일 - More men don the apron - The Korea Herald *32*

6 Obladi Oblada 가사 *37*

7 대인 김지하 시인,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뭘 해낼 사람이다'." *39*

8 잘 살아보세 박정희 설계 '새마을 주택 1호' 가보니 *49*

9 [펌] 독재자 박정희는 어떤 일을 했을까 *51*

10 건강한 밥상이 都農 지킨다 / "감자옹심이 외국인에게도 소개할 것" *56*

11 민족사관 정립한 박정희 대통령 (朴正熙 大統領) [펌] *58*

12 [펌] 5.16은 혁명이고 [IMF는 매국이다] /석고대죄 해야 할 민주당과 비박이! *74*

13 박성백 투르드코리아 개인종합 우승 - 120429 - 나는 꼴지가 아니다 - 베이징올림픽 도로 경기 *79*

14 JMS 정명석 변호하는 신기남 전 의원 *80*

15 이명박의 北통과 가스관 인식, 국가安保 안보인다 - 천연가스와 엿바꿔 먹는 국가 안보 *84*

16 올릴 글 - 김영삼 그 근본 집권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의 갈래와 패악질 *86*

17 [펌] 박정희에 고해성사한 골수 좌파/ 나를 인간으로 바꾼 박정희 *88*

18 노무현의 딸 노정연과 집사인 문재인은 말하라! *99*

19 [펌] 준비된 도둑놈 김대중이 의 말.말/ YS 김영삼의 두가지 죄 *108*

20 독도에 관한 박정희와 김대중의 진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119*

21 박수근 그림이 박완서 구원했다/ 명화로 읽는 고전 6 · 25가 맺어준 기묘한 조우 *124*

22 [펌글] 利判死判 工事判 (이판사판 공사판) *137*

23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와 박정희대통령 [펌] *141*

24 이명박의 개헌음모과 반역질 [펌] *179*

25 박정희의 위대한 통찰력 / 박정희는 한국의 국부다 *184*

26 서서히 들통나는 이명박의 눈 속임/ 갈곳은 2평짜리 감옥뿐 198

27 박칼린이 고백하는 유년 시절과 특별한 가족 이야기 209

28 박정희 통치18년 역사인가? 신화인가? 214

29 [펌글] 박정희 욕하는 것들을 분석해보니... 222

30 모바일 저장 각종 정보와 메모 228

31 5 · 16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혁명이었다 - 박정희, 산업화 가장 기여 232

32 [펌] 손해복의 마늘 -오장육부 튼튼히 해주고 냉기풍증 없애 237

33 [펌] 4대강의 눈물...이게 강을 살리는 짓인가 240

34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실을 폭로/리모델링의 실체, 당신의 평생 재산을 노린다 243

35 故 박진희 기수의 유서 (전문)/ 동료 박금만 기수의 [진희를 보내며...] 257

36 [펌] 박진희기수의 언니 박진주님의 글/ 부경기수협회장 기수오영일 263

37 야후 네티즌 Poll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267

38 광주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10명 기소/랜딩비, PMS, 자문료, 강연료 등 269

39 박정희대통령 동양최고 공고를 만들라금오공고의 탄생/기능없이 첨단기술 277

40 '박정희 행정수도' 기획, 오원철경제수석/세종시 초안 30년전 계획만 못해 298

41 [펌] 박정희, 친일 사료는 없고 독립군 사료는 있다 315

42 [펌] 영원한 대통령 박정희 319

43 웃기는 네티즌댓글 NASA,달에 물 많다 위성 충돌 98리터 얼음 · 증기 검출. 334

44 [펌] 차인태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엣세이 342

45 신이 선택한 재즈 피아니스트 '티그랑 하마시안' 내한 공연 356

46 [펌]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의혹 너무 짙다/ 박정희 친일 매도의 본질 359

47 [펌] 인기보다 진실 추구한 지도자 박정희/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 아나? 378

48 한국 동물원 100년김진명 기자 385

49 [펌] 박정희,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하다/과학계, 박 전 대통령 기념관열풍 390

50 [펌] 이휘소 박사의 한국 核개발 참여 과정 399

51 [펌] 박정희, 김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 좌빨교수들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궤변 437
52 [펌] [BOOK 깊이읽기] ‘열광과 냉소 사이’ 박정희를 다시 본다 451
53 [펌] [박정희 사진] 너무나 인간적인 /좌발들의 댓글 패악질 455
54 [펌]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 /새마을 운동 현장 보기/ 박정희의 나무사랑 466
55 [펌] DJ(김대중)에게 십겁한 김상현 /김일성과 김대중과 박정희 493
56 [펌] [좋은글]인간 박정희와 그의 남자들/ 5천년 가난은 헛소리에 대한 506
57 [펌] 518광주폭동과 북한특수군부대/김대중은 누구인가 528
58 [펌] [박정희 사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7] 542
59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552
60 [스크랩] 생활을 건강하게! 식초의 지혜로운 변신 581
61 [펌] 박정희 유신을 제대로 /박정희 유신독재? /민주 민주 하는넘들 보거라 587
62 [펌] 〈 배용준과 유인촌 〉 600
63 [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 박정희 608
64 [펌] 박정희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누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610
65 [펌] 유머: 예수께서 가라사대 김대중 같은... 616
66 [[펌] 박정희와 대한민국 / 삼위일체—朴正熙/ 홍종국의 소설 620
67 가지마루팬다 – 나무분재 639
68 [펌] 전범 히로히토 일왕에게 절하는 김대중 642
69 [포토] 박근혜, 김대중 전 대표 빈소 조문 646
70 [펌] 이한구4대강강행,정치적위기 초래할 것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임 650
71 [펌] 4대강정비 눈먼돈, 지자체 100조요구/이러다간 다죽는다 의원들 항명 663
72 펌 – [이영미] 친절한 찬호씨에 매료되다 674
73 [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것에 대한 진실과 토론 694
74 [펌] 중국은 위구르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 알카에다 중국에 복수하겠다 764
75 [펌] 독도를 지킨 박정희.독도를 팔아 먹은 김대중 771

76 DMSO(Dimethyl Sulfoxide)와 D MS(Dimethyl Sulfide) 778
77 [펌]과소평가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거인 박정희의 지독한 사랑 787
78 [펌] 매실액기스를 만드는 법 . 809
79 [펌] 아고라에서의 노무현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819
80 [펌] 박정희의 공과(功過) 834
81 [펌] 조갑제-박정희가 진짜 민주 투사 였다 845
82 박근혜 대표가 30년전에 찾아가 참석한 곳/ 박정희대통령 최후일터 기념비 856
83 위대한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860
84 [펌] 죽은 박정희와 살아있는 김대중 870
85 [펌]박정희대통령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박대통령의 친형을/ 박정희가 왜? 878
86 [펌] 박정희와 김대중 /니들이 박정희와 노무현을 비교해? 894
87 [펌] 위대한 박정희 리더쉽/ 불쌍한 좌파 박정희가 존립의 근거인가 909
88 [펌] 박정희 덕분에 거품무는 당신들도 있다네 / 5.16과 유신 916
89 [펌] 진짜 민주 투사는 박정희다/하면 된다는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 922
90 박정희는 혁명을 했습니다 928
91 [펌] 저푸른 산맥의맥박을 들으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석 생가 풍경 940
92 재일동포 일본프로야구 선수 / 이휘소박사에게 보낸 박정희대통령의 편지 950
93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959
94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 구별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980
95 [퍼옴] MB프로젝트...이름풀이... 넘 웃겨요 983
96 [펌]대학의 등록금이 갑자기 비싸졌을까요/미국 CEO 연봉 근로자 임금의 988
97 [퍼옴] 김대중 왜 박근혜에 떼쓰나(조선일보에 게시) 996
98 색기(色氣)있는 女子 보는 방법 1000
99 [펌]박경리님에게 이명박이 한 망언/ 박경리씨 특별기고 청계천, 개발이었 1003
100 [펌] 사정을 위한 섹스는 하지 말라 1011

김동길교수의 국회 개혁안[6]

ㅅㅁㅎ(gkt***) 2015.10.19 17:17:02

크게 / 작게 조회 945 / 스크랩 0 / 찬성 211 / 반대 0

김동길교수가 제안한 '국회 개혁안'을

국민 서명운동으로 발전시켜 국회개혁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되시면 지인들께 널리 알려 주세요.

*** 국회 개혁안 ***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하고 돈은있으나

능력은 안된자들이 엄청난 돈으로 국회의원 금배지를 사려는 한심한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깡패. 성폭행.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등이 모여
싸움질 사기질 뇌물질 도둑질등... 할수있는것들은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최고의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그러면 금쪽같은 국민의 혈세를 60%~70% 이상을 줄일수 있습니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낙하산으로 하지말고 꼭.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해괴망측하고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완전히 없앱시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놀고 먹는 세금도둑을 가려내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여.야 합심히여 결정하는 이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민간인대표와 함께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여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확실히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먹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천인공노할 연금제도를
확실하게 뜯어고쳐 줄줄새는 혈세를 개선합시다.

KBS*

이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합시다

찬성 211 반대 0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6]

ㄱㄱㅅ(kimsy****) 2015.10.19 18:01:14 | 공감 12

선거때만되면 국민의 머슴 선거가 끝나면 국민에게 서슴없이 갑질하는 국회의원 늠
심지어 삼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행정부의 대표에 나오신 분에게
임법부를 무시하느냐고 갑질하는 국회의원 늠 들도 있으니 무용지물이다
공감 신고

ㅈㅅㅈ(cl****) 2015.10.19 17:49:33 | 공감 0

김동길 교수 답지 않게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 방안.
정당명부 비례 대표직 도입과 중.대선거구 도입에 따른 지역구 의원수 현실적 조정이 답.
의원수 100명은 유신시대 유정회를 연상시킴.
공감 신고

ㄱㄱㅅ(kimsy****) 2015.10.19 18:01:14 | 공감 12

선거때만되면 국민의 머슴 선거가 끝나면 국민에게 서슴없이 갑질하는 국회의원 늠
심지어 삼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행정부의 대표에 나오신 분에게
임법부를 무시하느냐고 갑질하는 국회의원 늠 들도 있으니 무용지물이다
공감 신고

ㅂㅈㅁ(embossi****) 2015.10.19 18:13:55 | 공감 8

김동길교수님께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많다고 항상 하신 말씀.저역시 공감을 해온 사람인데...
시실적으로 여야 100명은 너무 적습니다. 저는 300명에서반으로 줄인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없애야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현제 19대 국회의원들중에 비례대표들의 자격미달저질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도를 바꿀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공감 신고

ㅈㅎㅊ(totc****) 2015.10.19 18:44:16 | 공감 8

애국자 김동길의 고뇌에찬〈국회개혁안〉-국민서명 적극찬동한다
공감 신고

ㅇㅅㄱ(okoko****) 2015.10.19 19:36:54 | 공감 6

적극 호응합니다 , 국 개의원들 근본을 확바꿔야 합니다 ,
재산깨나있는넘들 갑질 경연대회가 선거아닐까요 , 국가에서 혈세보전 선거하지만 되고나면 갑질에
지들 똥배채우는 개판국회 우리백성들은 그기 들려리서는 격 ,,,,

김동길 교수님제안 전국민이 동참해서 국개의원들 박살냅시다

공감 신고

oo(k****) 2015.10.19 20:45:59 | 공감 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하원의원 53명 상원의원 2 명 총55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한반도의 약 2배 정도요 대한민국의 4 배입니다.

그럼 설명이 되나요? 100명도 많아요 그저 50명 정도면 됩니다.

〈 chosun 〉

고영주 부림무죄판결 서석구의 후회의눈물

2015.10.09 13:19

영웅고영주를 위해 눈물흘리는 서석구[4]

ㅊㅇㅇ 2015.10.09 06:27:30

크게 | 작게 조회 468 | 스크랩 0 | 찬성 100 | 반대 0

고영주 이사장을 위해 눈물흘리는 서석구 부림판사

이석기를 사면한 문재인의 정체성

"고영주 변호사의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기록할 것"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다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부림사건 수사검사 출신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지난 2005년, 서석구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자신의 '운동권 판결'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인터넷독립신문

부림사건 판결을 비롯한 자신의 ‘운동권 판결’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던 서 변호사는,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부터는 보수우파진영에서 활동하며
과거 자신으로부터 법적 수혜를 받았던 진보좌파진영과 투쟁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비판한 그는, 현재 이른바 ‘친북정치사제 명단'을 발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상임대표(세례명: 빈첸시오)로 활동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 변호사는 7일 가톨릭수호닷컴에 올린 글에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을 겨냥해 “왜 고영주 변호사님에게 시비를 거느냐?”고 따졌다.

◀ 고영주 이사장

그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고 그런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답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며

“더구나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발언은 호국영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적 망언” 이며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바친 새정치연합은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의 적인 위헌정당 통진당과 총선연대한 세력” 이라며, “민주주의의 적과 연대한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의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단죄하다니
기가 막힌다” 고 밝혔다.

또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대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고 지적한 후,

“민주주의의 적을 비호한 문재인 대표가 민주주의의 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한

국민적 영웅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불순한 정체가 의심스럽다” 고도 했다.

◀통진당대표 이정희와 눈빛교환 악수하는 문재인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당대표라니 과연 그런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표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지만 그는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한국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엽기적으로 바다에 버린 살인범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그들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며

“한국인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칼과 도끼로 난자했고, 선박 난간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찍어 익사시킨 사건임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고 단언했다.

아울러 “노무현정권시절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라고 상기시키며,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한 사형수는 노무현정권시절 무기로 감형 사면되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자신이 무죄판결을 내린 부림사건과 관련해서도 “영화 변호인에도 소개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이영희 교수의 북한비호 인터뷰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림사건 운동권 논리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부림사건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내 일부 좌편향 판결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족 유민아빠와 함께 동조단식하는 문재인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고영주 이사장을 돕는 우군(새누리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감장”이라며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불투명하고 불순한 정체성이 극적으로 들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주장한 서 변호사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애국심의 표현”이라며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란 말로 글을 맺었다.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찬성 100 반대 0

태그 부림무죄판결서석구의 후회의눈물 페이스북 트위터스크랩 | 신고

댓글[4]

ㅊㅇㅇ 2015.10.09 06:32:11 | 공감 12윗기사를 읽으시는 조선독자 여러분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위해 눈물흘리는 서석구 변호사님이십니다.
찬성 눌러주시어 고영주이사장님과 서석구 변호사님을 적극 응원하여
우리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엎드려 부탁드립니다.

ㅊㅇㅇ 2015.10.09 06:32:11 | 공감 12윗기사를 읽으시는 조선독자 여러분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제소할 것을 청원했던
국민적 영웅인 고영주 이사장님위해 눈물흘리는 서석구 변호사님이십니다.
찬성 눌러주시어 고영주이사장님과 서석구 변호사님을 적극 응원하여
우리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엎드려 부탁드립니다.
ㅇㅇㅇ 2015.10.09 06:46:54 | 공감 9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ㅊㅇㅇ님도 수고많으셨어요,^^*

ㅊㅇㅇ 2015.10.09 06:49:14 | 공감 6ㅇㅇㅇ님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 ㅇㅇㅇ님이십니다.
저는 대구 삽니다. 건필하세요 사랑합니다.

ㄱㅇㄱ 2015.10.09 07:37:35 | 공감 9"고영주 변호사의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기록할 것"//2.
맞습니다. 우국충정이 불타는 애국투사 고영주 이사장 같은 불굴의 투지를 가진 인재가
아직 자국에 존재하기에 자국이 위기에도 굳건히 유지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서석구 변호사나 그리고 늘 천정부지 고공의 애국심을 가슴에 안고 본 논장을 백주처럼 빛내 주시는
ㅊㅇㅇ님과 ㅇㅇㅇ님이 딱 버티고 있기에

결코 뻘족들에 의해서 자국은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 노구 전애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고영주 서석구 파이팅!....그리고 ㅊㅇㅇ님과 ㅇㅇㅇ님의 건승건필을 기원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산의 총액

2015.09.22 18:2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산의 총액?*[7]*

*김 순 규(lee***)* 2015.09.19 09:15:16

크게 / 작게 조회 698 / 스크랩 1 / 찬성 117 / 반대 0

〈!--[IF gte mso 9]〉〈XML〉 〈W:WORDDOCUMENT〉 〈W:VIEW〉Normal〈/W:VIEW〉
〈W:ZOOM〉0〈/W:ZOOM〉
〈W:DISPLAYHORIZONTALDRAWINGGRIDEVERY〉0〈/W:DISPLAYHORIZONTALDRAWINGGRIDEVERY〉
〈W:DISPLAYVERTICALDRAWINGGRIDEVERY〉2〈/W:DISPLAYVERTICALDRAWINGGRIDEVERY〉
〈W:COMPATIBILITY〉 〈W:SPACEFORUL/〉 〈W:BALANCESINGLEBYTEDOUBLEBYTEWIDTH/〉
〈W:DONOTLEAVEBACKSLASHALONE/〉 〈W:ULTRAILSPACE/〉 〈W:DONOTEXPANDSHIFTRETURN/〉
〈W:ADJUSTLINEHEIGHTINTABLE/〉 〈W:BREAKWRAPPEDTABLES/〉 〈W:SNAPTOGRIDINCELL/〉
〈W:APPLYBREAKINGRULES/〉 〈W:WRAPTEXTWITHPUNCT/〉 〈W:USEASIANBREAKRULES/〉
〈W:USEFELAYOUT/〉 〈/W:COMPATIBILITY〉
〈W:BROWSERLEVEL〉MicrosoftInternetExplorer4〈/W:BROWSERLEVEL〉 〈/W:WORDDOCUMENT〉〈
/XML〉〈![ENDIF]--〉

역대 가장 큰 도둑은 따로 있었다. 많은 지인들에게 보내주세요.

(金大中)차명계좌, 12조 6400만 원

이명박은 이런 어마어마한

김대중 돈을 국고에

환수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북한에 대해

이른바 '통 크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김정일은 1999년 김대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선전 선동 기관인한국민족 민주전선(한민전)은

1999년 7월 19일,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 행위를 고발한다"

는제목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A-4지 14쪽 분량으로 실려 있는 한민전의

고발내용을 요약한다.

노태우에게서 모두 1천2백여억 원을 받았다.

1982년 김대중은 미국망명 때 전두환에게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그 대가로 30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

92년 대선 직전 그는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전 평민당 창당자금으로 3백억 원을 받았고 6공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에게

그것을 유보한다는 대가로

5백억 원을 받았다.

노태우로부터 모두 1천2백여억 원을 받았다.

미국교포들이 모금해준 수백만 $를 자기 주머니에

60년대 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코카콜라를 끌어들이게 하고는

그것이 문제시되자 재빨리 국회에서 업자를

비판해 이에 분격한 업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얻어맞은 바 있다.

김대중은 미국교포들이

광주학살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기탁한 15만 달러와

한국 민주화운동에 써달라고 모금해준

수백만 달러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호화판 생활을 해 교포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87년부터 청와대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조성하여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온 비자금은

8천여억 원에 달한다.
집권하자마자 개혁의 구호를 들고 재벌들과
기업주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뜯어냈다.

「재벌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재벌들은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마다
돈뭉치를 들고 청와대로 찾아갔다.
H그룹회장은 1백5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렇게 기업주들로부터
챙긴 검은 돈이 5천억 원이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체들과 은행을 외국투자가들에게 매각하면서
또한 큰 돈벌이를 하고 있다.

김대중은 미국의 에이에스회사 한국화학의 발전
사업을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5백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한국의 유망 기간산업의 주식을 헐값으로
팔아넘기기로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소로스에게 단기채권시장을 내주고 서울증권을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4백억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외국 투자가들에게 온갖 이권을 보장해준
대가로 지금까지 받아먹은돈이 2천억 원이다.

1998년 10월,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황금어장을 팔아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다.

전두환, 노태우를 잘 보살펴주면서
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비자금 문제와 추징금 징수를 무마시켜주기로 하고는 그들로부터
각각 2천 원씩의 사례금을 받았다.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전두환에게 외교관 여권을 주어
방일 행각을 하도록 한 대가로 5백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금 모금운동] 돈벌이 대략 2억 달러..
[금 모금운동]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막대한 돈을 착복하였다.
국민들로부터 수집한 금붙이들 가운데
일반적인 금붙이는 금괴로 만들어 팔고 값비싼
금패물들은 그대로 외국의 보석상들에게 넘겨 돈벌이를 했는데
그 금액은 대략 2억 달러에 이른다.

인사는 곧 돈줄이었다.

김대중의 인사를 통한 돈 사냥은 주로
장남 김홍일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김홍일은 애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권은 물론 군과 검찰,
경찰의 인사권에까지 개입하여 돈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장성 별 한 개의 공정가격이 1억 원이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김대중 부자가 군과 경찰인사를 통해서만

착복한 돈이 6백억 원은 넘는다.

김대중의 여섯째 처남 이성호는 해외여행
알선업체인「평화관광」을 경영하면서
김대중을 등대고 해외 특혜여행을 미끼로
여행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걷어 들이는 한편 유학시절
미국 에리모 대학과 조지 워싱턴대학원에서

친교를 맺었던 인맥들과 짜고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재벌 업체들에게
이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막대한 돈을 뜯어내
김대중의 금고를 채워주고 있다.

이형택과 이세작 등 처조카들까지
발동해 막대한 비자금을 긁어 들이고 있다.

김대중의 처조카인 동화은행 영업1본부장
이형택은 금융계에 손을 뻗쳐 신탁통치로 인해
생사기로에 놓여있는
은행들과 종금사들을 살려주겠다는 담보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걷어들였다.
김대중의 둘째 처남 이경호의 차남인
이세작은 변호사의 간판을 걸고 각종 비리에
걸려든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을
살려준 대가로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였다.

김대중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소유한
재산이 9억4천만 원인 것으로 신고했고
대선 후의 재산공개 시에는 8억8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공개했지만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김대중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뜯어낸
돈을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자기의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놓았는데그 규모는 10여억 달러에
달한다.

*1999년 12월 5일, 북한 부주석 김병식이

김대중에게 쓴 편지를 폭로했다.

글/김용배 님

퍼온 글입니다.
이런 숨긴 돈의 비밀을 알아낸 상임 두 고문 김, 남씨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태동시킨 장본인이고, 10인 설립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탁받은 박원순은 철저하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등에 엎고 친북교과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삼성에서 9천억원을 받아낸 좌익성향의 장학재단, 안철수로부터 서울시장 권
탈취하는 노련한 솜씨는 보였다는 후문이 널리퍼져 있습니다.
사실이거나 말거나.

〈!--[IF gte mso 10]〉 〈![ENDIF]--〉
찬성 117 반대 0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7]*

이은노(dld****) 2015.09.19 11:04:04 | 공감 15

이 인간은 도대체 쳐먹은 돈이 얼마여~?

배터져서 죽은거야?

뭐? 죽으면서도 수의를 곤룡포로 입혀달라 했다며?

에이~! 더런 인간....!

공감 신고

이은노(dld****) 2015.09.19 11:04:04 | 공감 15

이 인간은 도대체 쳐먹은 돈이 얼마여~?

배터져서 죽은거야?

뭐? 죽으면서도 수의를 곤룡포로 입혀달라 했다며?

에이~! 더런 인간....!

공감 신고

이시영(intern****) 2015.09.19 14:42:04 | 공감 0

소설로 알려진 글을 지속적으로 퍼옵니까?

공감 신고

이복순(bok****) 2015.09.19 15:01:19 | 공감 7

김대중의 재산이 13조라고 회자 되고 있읍니다

이시영님 왜 김대중의 부정적인 말엔 못 믿으십니까?

박근헤에겐 민감 하면서,,,, 님도 김대중을 김대중 선생님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으로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타 전직 및 현대통령에겐 어찌 부르십니까?

공감 신고

하종호(kaa****) 2015.09.19 15:09:13 | 공감 4

모조리 파헤쳐야 한다.우파라고 뽑은 이명박,박근혜정부로는 부족하다.

그모든것을 파헤칠 강력한 정부를 수립해야한다.

공감 신고

김기성(kimsy****) 2015.09.19 16:21:23 | 공감 4

이시영씨의 댓글로 미루어 보면 반대쪽에 적어도 1명은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반대표가 한표도 없

네요

이글이 소설이면 사실을 밝히든지 반대를 하시든지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소설이라고 주장만 하시면 되나요

소설이라는 사실을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셔야지요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시영씨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공감 신고

김영훈(kyh****) 2015.09.20 06:42:44 | 공감 2

시어빠져서 먹지도, 쓸모도 없는 인간 이시영, 제발 이곳은 니놈이 댓글 달 공간이 아니거든,

인간이란 언제나 누울자리 보고 발 뻗으라고 했다.

아무 곳이나 기웃거리지 말라는 소리니 귀담아 듣도록,

공감 신고

김 순 규(leeyo****) 2015.09.20 12:32:55 | 공감 0

이시영씨는 김대중이가 IMF때 황금어장을 일본에 말아먹은 것 아십니까?

그래서 독도까지 팔아먹었지요.

황금어장에 독도가 포함된 것 아세요?

그래도 김대중 지지할 것입니까?

그래도 김대중이라면 인간이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추악한 군상들*[0]*

*김진호(jin***)* 2014.05.09 08:12:01

크게 / 작게 조회 174 / 스크랩 0 / 찬성 17 / 반대 0

세월호 참사로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꽃봉오리로 추악한 이단파인 종교와 더러운 황금만능 사상과 배금주의에 찌든 치졸한 기업에 의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기에 온 국민이 모두 슬픔에 잠기고 유가족의 위로에 한마음이 되어 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추악하고 추잡하게 악용하는 인간과 단체들이 있으니 과연 이들이 국민인가 아니 인간이기나 한가.

1. 통합진보당에 충성하는 '엄마의 노란 손수건'

국민의 혈세로 당을 운영하는 통진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종북 사상과 이념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작태로 박근혜 정부에 의하여 통진당 해산 청구안이 헌재에 계류되어 있다. 통진당은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란 조직을 만든 여편네들이 통진당의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살인자는 선장만이 아니란다. 선원만이 아니란다. 회사만도 아니란다. 해경만도 아니란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란다"** 며 넋두리를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수령인 정모여인이 바로 통진당 안산시당 소속이니 통진당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질 여편네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노동단체가 아닌 반정부 단체임을 외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산실이었고 자금줄이었던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또 순수한 노동자들의 조직이 아니라 종치적인 단체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정규직을 위하는 체 하면서 자기들의 잇속만 철저히 챙기는 저질들이 책임자가 되어 점점 국민들과 괴리되고 있다.

민노총이 순수한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적인 단체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참사현장인 진도의 팽목항에 어김없이 나타나 학생들이 즐겨먹는 간식거리들을 지저분하게 늘어 놓고는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이런 대통령(박근혜) 필요 없다"** 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며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귀족노조로서 노동자들에게 빨대를 꽂아 이익을 취하면서 과거의 민노당과 현재의 통진당의 숙주역할을 톡톡히 하는 조직이다.

3. 참교육이 아니라 사이비 교육을 전개하는 '전교조'

전교조는 홈페이지에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바침"이라는 성우의 목소리로 시작이 되는 '세월호 추모 영상'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진보를 가장한 추악하고 치졸한 저질 종북 좌파의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가 숨어있다. 동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나레이트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두 민주열사에 비유

"어쩌면 너희들은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

"어쩌면 너희들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욕조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인지도 몰라.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

나.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며 편협한 사고로 대통령 비평

"탄광 노동자였던 단란한 너희 가족을 도시공단에 노동자로 내몬 것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앞세운 노태우 정권이었다"

"여객선 운행 나이를 30살로 연장하여 일본에서 청춘을 보낸 낡은 배를 사도록 하고, 4대강 물장난으로 강산을 죽인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다. 이윤만이 미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협살이다"

다. 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너희들이 제주를 향해 떠나던 날, 이 나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은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래서 세월호의 파이를 이리 키우고 싶었던 걸까"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막말 배틀을 하는 나라.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단지 기념사진으로나 남기는 나라. 이미 국가가 아니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왕사발 라면을 아가리에 처넣는 자가 교육부 장관인 나라, 계란도 안 넣은 라면을 먹었다며 안타까워하는 자가 이 나라 조타실의 대변인인 나라"

"너희들 중 누군가가 정승집 아들이거나 딸이었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는 목멘 호소를 종북이라 했을까"

라. 현실을 비하하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문구

"(저 세상엔) 채증에는 민첩하나 구조에는 서툰 경찰도 없을 거야"

"구조보다 문책을, 사과보다 호통을 우선하는 대통령도 없을 거야"

이승만 · 전두환 · 노태우 ·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이 차례로 비판받았지만,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은 동영상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단체인 전교조를 합법화해주었고 또 같이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였으니 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니까!

김대중은 국부를 국민의 동의 없이 5억$(당시 환율로 약 6,500억 원)을 주적에게 진상하고 "약속은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쳤고. 노무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았기에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고 "북한에 마구 퍼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고 외치다 임기 끝나자 자신이 관련된 제반 문제의 책임이 무거워 자살을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가벼이 여긴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였고 6.15, 10.4 선언으로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까지 했기에 국민들은 종북 대통령으로 낙인을 했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원성과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은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그들의 정치선전 동영상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외한 것은 그들이 편파적이요 편향적이며 편협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모리배 집단이며, 전교조가 참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의 단체가 아니며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시정잡배들의 계모임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 유신독재라고 모질게도 짓밟아 뭉개고 물고 뜯으며 짓이기고 침을 튀기며 열을 올려 악평을 하던 박정희 정권과 IMF를 불러들여 국가 부도를 초래하였다고 온갖 원망과 원성을 퍼붓던 김영삼 정권을 빠뜨린 것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였나, 아니면 무식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 생각을 못한 것인가?

소위 참교육을 한다는 선생님(?)들이 조직한 전교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과연 이들을 순진하고 착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참교육이란 용어마저 일본의 교조들이 사용한 진교육(眞敎育)의 眞(참 진)자의 훈을 따서 변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전교조는 주체성도 정체성도 없이 종북 좌파 못지않기에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빙자한 요주의 인물들의 집합체로 단정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의 추태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단체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의 지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성장기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백년대계' 라고 했는데 전교조가 사이비 교육으로 백년대계를 허물어뜨리고 청소년의 진로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4. 기타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군상들

이들 단체 외에도 국민적인 슬픔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류가 하나둘이 아니다. **종편의 앵커, 인터넷 방송의 기자, 새민련 당원, 자기 사업 선전 광고하는 추악한 업자** 등 잡다한데 이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여 국민의 비판과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과 책임과 죄는 덮어둔 채로 권리만 주장하는 M모라는 추악한 저질 3류 광대처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 불려가 일일이 경위를 해명하는 게 귀찮아서 생략한다.

The Korea Herald

More men don the apron

Middle-aged and elderly men learn to cook as hobby or second career

Email Print

헤럴드 굿 뉴스, '마이뉴스' 설정으로

Published : 2013-04-26 20:58
Updated : 2013-04-26 20:58

When Han Jin-se enrolled in Le Cordon Bleu-Sookmyung last year, he had no cooking experience. Now, Han has mastered three levels and is completing the academy's final program this June.

An expert in the kitchen now, Han tosses out culinary lingo with ease, explaining how learning to cook not only helped prepare him to open his own restaurant, but also fostered family time with his son.

"I bring home the food that I cook in class and my son brings a bottle of wine," said Han, 61, an insurance broking firm chairman and soon-to-be restaurateur.

Not only does Han's newfound second career-hobby give him more quality time with his son, he finds it personally rewarding as well.

"I get this rush once I feel I have essentially mastered a dish," Han said.

Though Han said he was the only one among his friends who can cook, in the big picture, he is far from alone.

For instance, Lee Byung-wan, 61, started to learn how to cook for volunteer work purposes. Lee continued to learn how to make cake and bread and then enrolled into the Gangnam district-run Daddy's Cooking Class at the Long Learn Academy to further his culinary expertise.

Lee is one of over 15 fellow classmates who have signed up for the men-only cooking program held in Gaepo-dong every Monday evening.

Daddy's Cooking Class launched in 2009, according to Gangnam-gu Lifelong Learning team manager Moon E-seul, and currently holds two separate classes, one on Mondays and one on Wednesdays. Both are exclusively for men.

"It is very popular," said Moon, 27. "Our students are men in their late 40s to 60s who are facing

retirement or who have retired."

Daddy's Cooking Class is one of the programs throughout the nation that is geared specifically towards men, signaling that the class is not an anomaly but part of a growing trend.

Participants learn to cook at the male-only Daddy's Cooking Class at the Long Learn Academy in Gaepo-dong, Seoul, on Monday. (Ahn Hoon/The Korea Herald)

"I think there are two major reasons why more older men are cooking these days," food cable channel Olive team head Seo Won-yea, 36, said in a phone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Firstly, men who like to eat out, who are basically gourmands, take on cooking as a hobby to be able to make food that meets their own standards," Seo said.

That theory seems to apply, in part, to Le Cordon Bleu-Sookmyung student Han Jin-se.

"Insurance broking was no longer fun," said Han, explaining how after 18 years of work, he decided to try something different.

"Whenever I traveled abroad, I would visit an oyster bar," Han said. And when he realized there was a scarcity of oyster bars in Korea, he decided to open one himself.

To realize his dreams, Han enrolled at Le Cordon Bleu, where he would amass the know-how that would help him open a restaurant born of his own passion for oysters.

In essence, it was his own gourmet tastes that led him down the path to finding a second career. However, for Han, cooking is more than just a hobby — it is partly a profession, in that it will help him as a restaurateur.

Le Cordon Bleu-Sookmyung PR manager Yang Jin-won said that like Han, most men in their 50s or older who enroll at the academy are either interested in opening their own restaurant or are working in the food industry.

That used to be the case for another prominent South Korea-based culinary academy, tsuji+1. According to marketing team manager Park Sun-jung,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iddle-aged male students enrolling in classes as a hobby.

Park revealed that while middle-aged male students are primarily interested in French and Italian food, they are also interested in the academy's wine and food pairing gourmet classes. This shows that men seem to be, as Olive's Seo said, taking on cooking as a leisurely pastime that enables them to satisfy their own hunger for good grub.

In Seo's opinion, a new hobby prompted by a love of food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more men are entering the kitchen.

"The second reason comes from social circumstances, from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ose who eat alone," Seo said.

"Lots of men are living a single lifestyle," Seo explained. "For example, there are fathers whose families are living abroad or husbands who work in a different city than their spouses, so they need to cook for themselves."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re was a no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divorces in men in their late 50s and 60s and over between 2011 and 2012. There was an 8 percent increase in divorces of men in their late 50s and a 6.1 percent increase in men in their 60s and over divorcing. Furthermore, from 2000 to 2010 there was a 103.6 per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n living alone.

While the numbers point to a rise in the number of men who are likely leading the lifestyle of a singleton and who therefore may need to learn to cook as a necessity, Gangnam-gu Lifelong Learning's Moon stressed that societal perception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more men into the kitchen, with a society that upholds gender equality as the norm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men play within their families.

"My wife welcomes it," said Kang Tae-hong, 63, who enrolled at Daddy's Cooking Class after a few other men at his office started attending the program.

Kang, who runs his own business, explained how the class is also practical because now "I can make food when I am home alone."

Fellow student Kim Kon-seok, 69, revealed that after he quit his job two years ago, he ended up eating at home two to three times a week. Aware of the toll that cooking all those meals would take on his wife and of his own personal desire to be able to eat a wide variety of dishes throughout the week, he acted upon a relative's suggestion that he take a cooking class.

"So I came here, I tried it and it was not that hard," Kim said, adding that he plans to keep on going to Daddy's Cooking Class. "I feel happy when I cook my own food."

Gone are the ancient perceptions of the alpha male's role in society.

Jin Yang-ho, 60, a professor of food service and culinary management at the college of tourism sciences, Kyonggi University, recapped that age-old concept, explaining how in the past, "the older

generations saw the kitchen as no-man's territory."

That attitude has changed. Now, men are taking cooking on as a challenge, says Jin. The key, however, is that it is a challenge that is not too daunting. If cooking may have possessed an air of the formidable in the old days, now it is far more approachable and accessible.

"Now that many restaurants have open kitchens, people feel like they can do it themselves," Jin explained, adding that being able to see how the experts concoct dishes like pasta and steak makes cooking less of a myster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ready-made sauces and other such products has made cooking easier, said Jin.

"One can look up recipes online," Jin added.

While single-style living, gourmet tastes and the increased approachability of cooking may all play a key role in getting more men to cook, current trends towards holistic well-being and changes in how men in the kitchen are perceived seem to have also wielded some influence.

"Well-being, healing trends have made us a very health-conscious generation and cooking is a natural extension of that," said Jin.

Not only have trends like "well-being" and "healing" potentially spurr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n who cook, so has the way that men cooking are looked upon.

"Women no longer seem to harbor dreams of meeting a tough, macho alpha male," said Olive's Seo. "Now that women are working hard, they seem to harbor dreams of a guy who can whip up brunch in the morning."

By Jean Oh (oh_jean@heraldcorp.com)

Related Articles

'Meokbang' dissected

이 시각 인기기사 _ Bilingual News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0426000833

Obladi Oblada 가사

2013.02.04 21:31

Obladi Oblada

Desmond has a barrow in the market place
Molly is the singer in a band
Desmond says to Molly – girl I like your face
And Molly says this as she takes him by the hand.

Chorus: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la how the life goes on
Obladi Oblada life goes on bra
Lala how the life goes on.

Desmond takes a trolly to the jewellers stores
Buys a twenty carat golden ring
Takes it back to Molly waiting at the door
And as he gives it to her she begins to sing.

Chorus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Happy ever after in the market place
Desmond lets the children lend a hand
Molly stays at home and does her pretty face
And in the evening she's a singer with the band.

Chorus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Jones.

Happy ever after in the market place
Molly lets the children lend a hand
Desmond stays at home and does his pretty face
And in the evening she's a singer with the band.

Chorus

And if you want some fun – take Obladiblada.

대인 김지하 시인,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뭘 해낼 사람이다’.”

2013.01.18 21:34

내가 속으로 ‘18년 동안 자기 혼자 가슴 안에 칼을 세우고 혼자서 지켰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공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뭘 해낼 사람이다’.”

5060세대는 민주화운동과 산업화의 주체야.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국운이 바뀐 거야.
또 젊은 세대 34%가 박근혜를 지지했어. 이것이 국운을 움직인
힘이 아니면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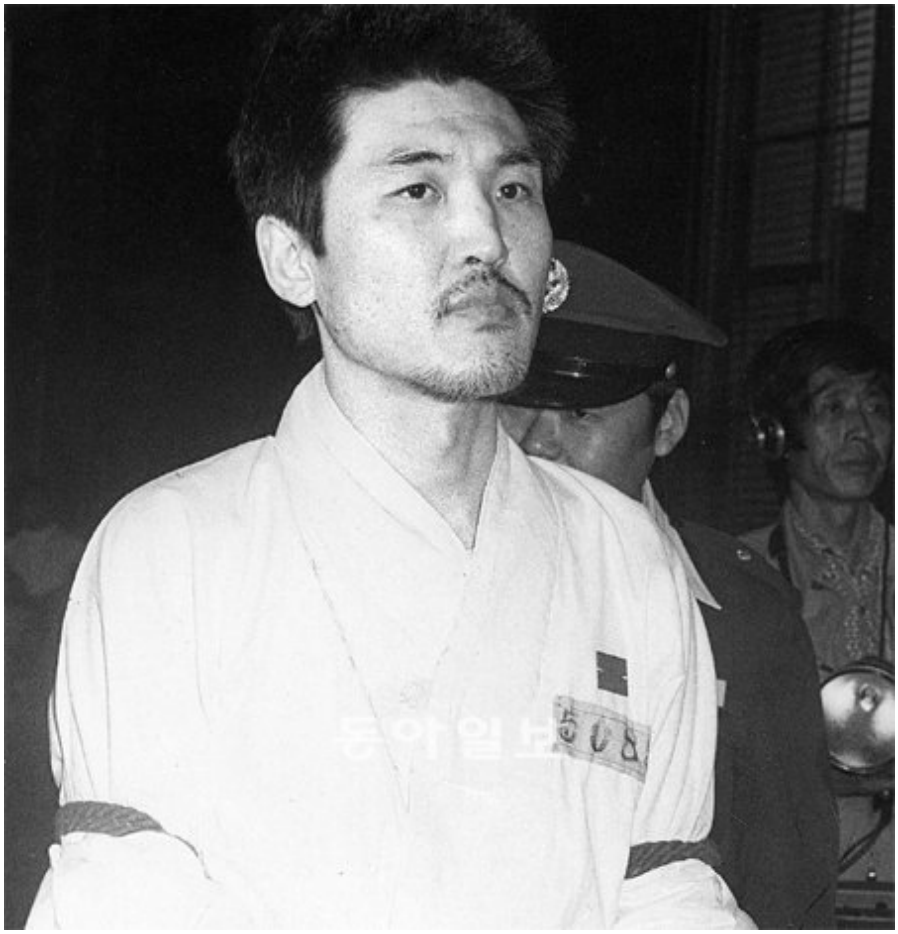
낮 12시에 교도소 방송에서 박정희가 죽었다고 나오는 거야.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
공(球)이 세 개가 떠올랐어. 그게 참선이야. 공마다 이름이 있었어.
첫째 공은 인생무상, 둘째 공은 안녕히 가십시오,
셋째 공은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누구는 제멋대로 떠들다가 27억 먹고 튀는 판이야. (이정희 의원이 대선후보 사퇴한다는)
기사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쥐새끼 같은 ×, OOO하고 자빠졌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
우습더라고. 하하하.”

그런데 국고금이라는 건 서민들이 헐벗어 바친 세금이야. 그걸 떼먹어?
죽여야지. 거기에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집권한 자들이) 돈을 쳐먹어?
스스로 혁명가라고 자부하는 목포 광주 한(恨)의 천재들이?
망월동 피값 받은 외에 또 받아?”

옛날에 백낙청한테도 이야기했어. 지금 우리나라 민중 형태는 밑바닥이다.
이쪽(민중)부터 들어올려야 한다.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배운
미국 문학을 하면 좋겠다. 문학은 고통의 산물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버드 갔다 온 걸로 사람들 겁주고, 가르치려 들면 안 되지.

이영희가 나한테 술 취해서 ‘김지하는 거지’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야말로 거지다’ 했지.
‘매일 프롤레타리아 만세를 부르고, 없는 사람 만세 부르면서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손 벌리는 게 뭐가 나빠. ‘ 당신이야말로 더러운 거지야. 사상(思想)거지,
당신 글 다 읽어봤는데 당신 창작물이 어디에 있어.
아사히신문,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인용한 것 외에 더 있나?’ 그랬더니 후배들이 낄낄 웃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주모자로 법정에 선 청년 김지하. 그의 나이 33세였다. 동아일보DB

사진 더 보려면 Click!

“국고는 서민이 헐벗어 바친 세금… 그걸 떼먹어? 죽여야지”

《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돼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39년 만인 이달 4일 무죄를 선고받은 김지하 시인(72)을 이튿날 강원 원주에서 만났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지지 선언을 했던 그는 인터뷰에서 1970년대 고초를 회고하며 박정희 시대와의 화해를 말했다. 인터뷰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비속어, 존칭 생략 등 그의 육성을 대부분 그대로 싣는다. (*)은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붙인 설명이다. 》

김지하 시인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인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시인이 귀가하는 대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TV에서는 김 시인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다. 느닷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 듣는 이를 당혹스럽게 했다. "27억 원씩 받고 도망간 여자(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지칭)도 있는데 사형선고 얻어터진 김지하가 몇 푼 받아서야 되겠느냐. 5억이 아니라 500억, 5000억 정도 주던가. 적어도 27억 이상은 줘야지." 그의 발언은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어울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김 시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기 싫다. 난 내일 (원주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문화관 구경이나 오든지" 하며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말을 들으며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청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으리라는 작은 기대가 생겼다.

이튿날 토요일(5일)에 길을 나섰다. 서울에서 두 시간여. 토지문화관에 들어서니 부인 김 관장이 있었다. 기자는 김 시인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꼼짝 못한다는 김 관장을 설득했다. 마침내 김 시인이 오후 7시경 문화관으로 들어섰다. "혼자 정선 아우라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때 돈 이야기만 하셔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간 떠든 게 민주주의였는데 민주주의 얘길 또 해? 지루하기 짝이 없지. 풍자? 그게 아니야. 누구는 제멋대로 떠들다가 27억 먹고 튀는 판이야. (이정희 의원이 대선후보 사퇴한다는) 기사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쥐새끼 같은 ×, OOO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 우습더라고. 하하하."

그의 호탕한 웃음을 따라 기자도 웃었다.

"나도 나이가 들었어. 법원 쪽에는 공손히 인사했어. 근데 기자들을 보니 뭔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느낌이 어떠냐길래 '아무 느낌 없다' 하니 실망한 눈치였어. '이 자식들이 왜 실망을 하지?' 다시 보니까 다 젊어. 똥구멍 같은 내 입에서 뭔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돈 이야기 했어. '나는 요즘 돈이 좋다. 왜? 돈이 나빠?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드는 사람 없데. 나는 옛날엔 돈을 악(惡)의 징표라 봤어. 오래 살다보니 돈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수단이야. 아들에게 돈 주려다가 안 주면 인상 쓴다구. 부자지간에도 그래.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민주투사가 속물 같아 보였습니다.

“공자도 돈 하면 눈이 커지는 사람이었어. 돈 많은 제자를 아꼈지(*자공 · 子貢을 말하는 듯). 나는 매일 돈 없어서 부인한테 ‘OOO’ 소리 들어.(김 관장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자 시인은 다시 껄껄 웃었다.) 은행 가서 몰래 돈 꺼내 택시 타고 다녀서 이 사람한테 혼나…. 실제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두 아들 놈 유학 보내 공부시켜야 해. 아들 둘이 대학엘 못 갔어.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 나오면 어디에 쓰나. ‘두 아들이 대학도 못 갔다’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 욕 안 하기로 맹세했지만 그럴 땐 ‘×발’ 소리가 절로 나와. ‘×발새끼들, 자기 자식들은 대학 졸업시켰으니까. 대학 못 보낸 부모 한(恨)을 모른다.’ 아이들 속에도 한이 맺혔을 거야. 나는 아비로서의 한이 또 있어.”

쩌렁쩌렁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김 관장이 “아니, 울려고 그러셔? 우는 건 또 처음 봤네” 하자 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다.

“안 울어. 내가 왜 울어…. 어떻든 그날 기자들 보니 갑자기 돈 이야기 한번 하자 생각이 들더라구. 근데 젊은 기자들 얼굴이 하나같이 ‘네가 돈 때문에 재심신청했구나’ 하는 표정이야. 그걸 보고 더 하기 시작했지. 내가 그런 면이 있거든. 남이 싫어하면 더 해. 하하하. 그런데 (회견 끝나고) 나오면서 후회가 들더라구.”

—(기자회견 내용이) 걱정이 되긴 되셨나 보네요.

“그럼, 나는 소심한 남자야.”

소년처럼 맑은 미소가 번졌다. 다시 거친 말이 이어졌다.

“내가 오적(五賊) 쓸 때도 사업가들이 뇌물 주는 건 욕하지 않았어. 하지만 국고금 빼먹은 놈은 찢어 죽여야 한다고 했어. 내 신념이야, 아니 민중의 신념이야. 장사꾼이 뇌물 주는 것은 상관없다 이거야. 그런데 국고금이라는 건 서민들이 헐벗어 바친 세금이야. 그걸 떼먹어? 죽여야지. 거기에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집권한 자들이) 돈을 쳐먹어? 스스로 혁명가라고 자부하는 목포 광주 한(恨)의 천재들이? 망월동 피값 받은 외에 또 받아?”

비록 욕설은 난무해도 그의 말은 받아 적으면 시가 될 듯, 발음도 정확하고 운율과 리듬까지 있어 몰입하게 했다. 김 시인은 이번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오적 판결(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눈치였다.

“스톡홀름대 한국문학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번역한 외국 문학이 오적이야. 나보고 참관하라 해서 스웨덴까지 갔잖겠어. 동양 최고 시인이 김삿갓 다음에 김지하라더군. 청중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 이런 비슷한 일이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서 있었어. 미친 생각이지만, 만약에 노벨상을 내게 준다면, 국가에서 오적을 유죄라고 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면 어떻게 돼. 나라 망신 아닌가. 물론 나는 반체제 작가로 영웅이 될 테지만(웃음)…. 나꼼수는 저질이야. 그런 것들로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고. 내가 썼으면 간이 덜덜 떨리게 쓴다. 근데 그런 글을 오적 이후 못 썼어.”

그가 먼저 선거 이야기를 꺼내길래 화제를 선거로 돌렸다.

—이번 선거 흐름을 어떻게 봤습니까.

"마르크스 읽지도 않은 자들이 마르크스를 말하는 세상이야.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권 반환 외에 한 것이 뭐야. 그것 도로 돌아갔어. 부동산도 완전히 실패했지. 그 다음에 NLL(서해 북방한계선) 취소? 김정일에게 돈 갖다 바친 것. 그것들 꽁무니 따라서 문재인이 또 튀어나왔어. 김대중이 흉내 냈지. 김대중은 돈 갖다 안 바쳤는가? 북에서 날아온 포탄은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돈은 우리 세금 아닌가? 문재인이 그 꽁무니 따라왔으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 이번 선거에서 원탁회의 어쩌구에서 안철수에게 장관 5개를 주고 누가 몇 개를 먹고. 그것을 지들이 결정해서 문재인에게 보고한다 해서, 까불지 말라 혼내려고 대장(아내)에게 물어봤어. 아내 말이 '조졔!' (웃음) 그래서 내가 원고를 신문사에 보냈어. 원고는 교정됐어. 원래는 그것보다 더 지독했어. 마침 신문에 (글) 나간 날이 원탁회의 하는 날이었더군. 나는 몰랐어."

그의 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자기 쇄신 안 하면 다 망해. 국민 모두가 이석기 이정희 하는 거 봤어. 앞으론 그런 행동 다시 못해. 다시 말해 간첩행동 못한다 이거야. 그렇다고 우파가 옳으냐, 그것도 아니야. 서경석 목사가 전화해서 수만 명이 모인 우파 집회에 나오라 하더군. 내가 왜 가냐 했더니 '박근혜 지지했잖아요' 이래. 그래서 '네 눈엔 그렇게 보이냐. 좌우를 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무슨 우파 집회야. 지금 우파, 좌파, 중간파가 어디에 있나. 이번 선거를 봐. 좌파 우파로 투표한 게 아니야. (국민들이) 속에 들어 있는 생각으로 찍은 거야."

—안철수 씨는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올까요.

"안철수는 깡통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전공이 뭔가. 융합과학이야. 그런데 그 사람 정치가 융합과학에 맞는 것인가? 지금 융합과학은 유전자까지 확대되고 있어. 하지만 확대할 때는 조건이 있어. '절제' 라는 동양적인 제약 사항을 끌어들여야 해. 정치에서 절제란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하는 거야.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전문영역과 정치의 관계도 모르고, 여야 관계도 몰라. 밑에서 박수 쳐 주니까 붕 뜬 거지. 그런 사람을 깡통 아니면 뭐라고 해."

—안철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 단련될 수 있을까요.

"끝났다니까. 정치란 게 하고 싶다고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냐. 배우하고 똑같아. 한번 찍히면 끝난 거야. 문재인 옆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안철수, 안철수' 한 거야. 게다가 개표 전날 미국으로 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문재인을 지지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아냐. 도대체 '선거' 라는 행위를 뭘로 보는 거야. 선거는 국민의 결정이지 자기들 결정이 아니야. 미국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정치 또 한다고 했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을 데려다 뭐에다 써먹어."

—왜 박 당선인을 지지했죠.

"남자의 시대가 가고 여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해온 말이야. 근데 박근혜 혼자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원집정제를 생각했지. 박근혜가 가능하려면 남자 중에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거야. 안철수 쪽에서 도와준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안철수가 깡통이야… 아내도 박근혜가 좋다 하더라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총탄에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18년 동안이나 고독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어떤 내적(內的) 상태가 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놀라서 대꾸를 못했어. 거기까진 생각 못했거든. 박근혜가 내공이 쌓였을 것이라고 결론 냈지. 내공이 뭐냐, 독한 마음이야. 뭔가를 하겠다는 독한 마음. 박근혜가 (지난해 12월 13일) 여기 토지문화관에 왔을 때 '당신 내공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어.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길 꺼냈지."

김 시인은 옛일이 주마등처럼 흐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미쳤었어. 참선을 지독하게 하면 치유 효과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시작했어. 잘 때도 가부좌를 틀 정도로 독하게 했지. 얼굴은 해골이 됐어. 참선 100일을 끝내고 101일째 되는 날이었어. 낮 12시에 교도소 방송에서 박정희가 죽었다고 나오는 거야.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 공(球)이 세 개가 떠올랐어. 그게 참선이야. 공마다 이름이 있었어. 첫째 공은 인생무상, 둘째 공은 안녕히 가십시오, 셋째 공은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껄껄 웃음이 나오더라구. 참선이 코미디야 코미디. 이튿날 12시에는 또 추모방송이 나와. 방송에 나온 김수환 추기경의 첫마디가 인생무상! 아따, 나 그렇게 소름 끼치기는 처음이네. 무서워서가 아니야. 내가 인생무상을 생각했는데 가톨릭의 거인이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니 소름이 끼친 거야."

▼ "정치가 뭐냐고? 모든걸 제자리에 앉히는거지" ▼

4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동안 김지하 시인은 피로한 기색이 없었다. 우주론 동학이론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넘나들었다. 원주=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인생무상이라… 그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죽었다는 통쾌함?

대인 김지하 시인,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뭘 해낼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야. 차원이 달라. 나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미워한 적이 없어. 참선을 하면서 박정희를 생각해 보니 '자기도 나라 먹여 살리려 애쓰다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전처럼 욕이 안 나와. 이 이야기를 박근혜 앞에서 했어. 그런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해. 눈물은커녕 웃음도 없어. 조금은 감동할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해. '김지하니까 경계해야겠다' 는 것도 아닌 거 같았어. 그냥 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18년 동안 자기 혼자 가슴 안에 칼을 세우고 혼자서 지켰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공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뭘 해낼 사람이다'."

—(박 당선인이) 앞으로 잘할까요.

"잘할 거야. 잘 안하면 설 자리가 없어. 가난한 사람 먹여 살려야 해. 지금 국운이 서 있어. 3000년 동안 남성이 여자를 억압해 왔어. 남성주의, 가부장제 역사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때는 대세가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이 바로 개벽기야. 음(陰) 개벽이야. 양(陽) 지배에서 음 지배로 넘어가는 때야. 이번에 5060세대가 움직였어. 5060세대는 민주화운동과 산업화의 주체야.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국운이 바뀐 거야. 또 젊은 세대 34%가 박근혜를 지지했어. 이것이 국운을 움직인 힘이 아니면 뭔가."

—만약 당선인이 잘못하면?

"알게 뭐야. 내게 책임 있어? 나는 책임 질 생각 없어. 내 할 일 하면 돼. 글 쓰면 돼."

다시 화제를 과거로 돌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미웠나요.

"지독했지. 가랑이를 찢어서 개한테 줄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렇게 얻어터졌는데. (기자를 보며) 불로 지지는 것만 고문이라고 알지? 그렇지 않아. 천장이 내려오고 벽이 다가들어와. 가끔 밑바닥도 올라와. 24시간 감시받으며 독방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정신착란에 빠져. 온몸을 뒤틀고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정보국에서 연락이 와. 항복하라고. 차(車) 사 준다 어쩌고 하면서 '각하에게 편지 한 통 쓰세요. 나라를 위해 같이 좀 일 좀 합시다. 뭐가 어렵습니까?' 나는 면회실에 걸린 태극기를 가리키며 '태극기가 왜 저렇게 생긴 줄 아세요?' 라며 딴청을 부렸지. 내가 (그들에게) 손들 수 있어? 손들 수 없지."

—인생무상을 깨닫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왜 그 뒤로도 마음고생을 했나요.

"(내가) 미쳤었다니까. (갑자기 호통을 치며) 한번 말하면 왜 못 알아들어. 정신병이었다고 정신병! 나는 미쳤었어. 10년 동안 정신병원을 열두 번이나 들어갔어. 지금은 약을 안 먹지만 항우울제 안정제 수면제로 폐인이 됐다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우울했어. 아내는 정보부와 OOO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세 번이나 살해될 뻔했어. 고생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언젠가 책을 쓸 테니 기다려. 신문에 쓸 내용은 아니야. 왜? 더러우니까. 돈이 나오고, 나한테 속임수를 쓰고, 간첩이 나오는데. 아직 (책 쓰기엔) 일러."

옆에 있던 김 관장이 조용히 말을 받았다.

"처음에 붙잡혀 간 후 1년 동안 면회도 안 됐다. 김지하 죽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로 백낙청, 이영희(*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1929~2010)를 말함.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등의 책으로 386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 김지하 욕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영희 집에 서슬이 퍼래서 쳐들어갔지. 이영희가 너무 놀라 담배를 거꾸로 물었을 정도였어. 김지하가 형무소에 들어간 초부터 백낙청과 이영희는 김지하를 씹었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다시 김 시인의 말이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시골에서 돈이 안 올라오면 강의실에서 잤거든. 그래서 우리 패거리 별명이 거지야(웃음). 근데 이영희가 나한테 술 취해서 '김지하는 거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야말로 거지다' 했지. '매일 프롤레타리아 만세를 부르고, 없는 사람 만세 부르면서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손 벌리는 게 뭐가 나빠. 당신이야말로 더러운 거지야. 사상(思想)거지, 당신 글 다 읽어봤는데 당신 창작물이 어디에 있어. 아사히신문,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인용한 것 외에 더 있나?' 그랬더니 후배들이 낄낄 웃고."

시인은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듯 아이처럼 깔깔댔다.

—얼마 전 신문 칼럼에서는 백낙청 교수를 비판하셨어요.

"내가 옛날부터 다 말했던 거야. 다만 (공개적으로) 참은 거지. 옛날에 백낙청한테도 이야기했어. 지금 우리나라 민중 형태는 밑바닥이다. 이쪽(민중)부터 들어올려야 한다.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배운 미국 문학을 하면 좋겠다. 문학은 고통의 산물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버드 갔다 온 걸로 사람들 겁주고, 가르치려 들면 안 되지. 심지어 (내가) 감옥에서 막 나온 뒤에 실천문학에서 나하고 백낙청 대담을 시켰어. 며칠 후 (당시 주간이었던) 이해찬(전 국무총리)이 전화를 했어. 백낙청이가 자기가 말한 부분을 수정한다고 원고를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내가 그랬지. 아니 대담 원고를 수정하는 놈도 다 있냐.

또 있어. 내가 장모(*소설가 박경리)를 만나기도 전이야. 백낙청이 장모 문학평을 썼어. '시장과 전장'이란 책이었어. 근데 이걸 완전히 멜로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시장과 전장'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야. 그걸 백낙청이 멜로드라마로 만든 거야. 이런 자가 평론가라고 나서고 대담원고를 수정해? 내가 그 동네 풍경을 잘 알아. 한국 문화를 알려면 한국 문학전통에 집착을 해야지. 배우지도 않고 미국 소설 몇 개를 읽고 들어와서 휘저으려고 하니. 그런 문학 지식이 지식이야? 이번에 쓴 칼럼이 그 이야기야."

문득 그에게 인생이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김 관장님은 아까 제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내가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아?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것만도 사실 무리야. (옆눈으로 김 관장을 보며) 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한 사람이 대게 마누라 한마디에 움찔해. '헤어집시다' 하면 바로 '안 돼'라고 말해.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할 것 아냐. 하하하."

—선생의 병을 고친 한의학자 장병두 할아버지가 선생을 보고 '서 푼짜리 분노를 집어치워라'고 했다던데 그 분노는 뭐였나요? 박정희였나요?

"모두 포함한 건데, 못났으니까 분노를 느낀 거야… 집안이 불행했지.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어. 기관총 들고 게릴라전까지 간 사람이야. 우익들이 나를 가마니에 넣고 목포 앞바다에 집어넣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니까 기관총 내던지고 하산했어. 자수한 거지. 굴욕이 심했을 거야. 자살 기도를 세 번이나 했어. 불행했어.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목포)으로 갈 수 있었겠나. 흘러 흘러 원주로 왔지. 판자로 지은 극장에 영사주임으로 있으면서 당시 열세 살이었던 나를 불러 원주에서 함께 살게 됐어."

그의 입에서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 그대로였다.

“굶지는 않았지만 가난했어. 돈이 생기면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 그래도 나를 서울대학까지 보낸 거야. 나는 외아들이었고. 이런 내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겠나. 공산주의에 개인은 없어. 내가 감옥 들어간 뒤 나더러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한 것은 다른 놈들이 만들어 붙인 거야. 4·19 이후부터 이상하게 자칭 마르크시스트들이 나를 대장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있는 거야. 나는 아닌데 말이야.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심심하면 전화를 해 ‘아무개가 형님 찍어 죽인다 했어요’라는 거야. 내가 뭐라 대꾸했는지 알아?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동지를 고자질하고, 뭐하는 새끼냐. 전화 또 하면 죽일 거야.’ 한국의 자칭 혁명가들이 잘하는 고자질,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이름이 왜 지하인줄 알아?”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기자는 “지초 지(芝)에 물 하(河)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그가 허허 웃었다.

“땅속에나 갈 놈이라는 뜻이야. 나중에 유식한 놈들이 한자를 붙인 거지. 한글로 그냥 ‘지하’야. 서울대 문리과대학 다닐 때 시화전을 했어. 그 당시 우리 세계에서는 시화전 한번 하면 이름이 나게 돼.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잖아. 내 본명이 김영일이야. 그런데 같은 이름이 5명이나 됐어. 그러던 참에 동아일보에 있던 선배 한 명이 술 사준다고 오라는 거야. 당시에 낮술 사주는 선배는 큰 선배였지. 얼큰하게 취해 학교로 가려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걸었어. 길가를 지나는데 ‘지하 이발소’ ‘지하 다방’ 옳다, 지하다. 그때부터 내 이름을 지하라고 한 거야… 더러운 이름이야.”

그의 말끝이 너무 쓸쓸해 기자 마음까지 쓸쓸해졌다.

문득 화제를 바꾸고 싶었다.

—뱀띠시죠?

“맞아.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워. 올해 (서민들은) 고통의 해야. 내년 봄까지도 안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이 고비만 넘기면 참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아. 물론 내 생각이니 믿지는 말고(웃음). 요즘 나는 무조건 아내 (생각) 따라가. 옛날에 나는 빠르고 단호했는데 지금은 안 맞아. 그래서 기다려야지, 신중해져야지 해. 박근혜에게 국민들 희망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안도였어. 이제 좀 살겠구나, 이제 나는 글만 쓰자. 나머지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이제 짐을 놓았어.”

—정치가 뭡니까?

“정치? 모든 것을 제자리에 앉히는 거지.”

역시 그다운 대답이었다. 저녁을 먹으러 인근 식당으로 옮겨서까지 진행된 4시간여 인터뷰 동안 그는 걸림과 막힘이 없었다. 기자는 그를 만나기 전 그의 모진 삶을 연민했다. 하지만 때로는 두 눈을 부릅뜨며 욕설과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으로 깔깔대는 모습을 보며 기자는 ‘태어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 김지하 시인은 ::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로 4개월 투옥

△1969년 ‘시인’ 지에 ‘황톳길’ 등 발표하며 작품 활동 시작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오적’ 으로 반공법 위반, 1개월 투옥

△1973년 ‘토지’의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와 결혼

△1974년 민청학련 주모자로 기소돼 사형 선고(긴급조치 4호 위반)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동아일보에 연재한 옥중수기 ‘고행 1974’와 관련해 재구속(반공법 위반), 노벨 문학상 · 평화상 후보로 추천

△1978년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1941년 목포 출생

△1959년 중동고등학교

△1966년 서울대학교 미학과(학사)

△1985년 미국 명예인권실천 박사

△1993년 서강대 명예문학박사

△명지대, 영남대, 동국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역임

△현재 원주 상지대 출강

"잘 살아보세" 박정희 설계 '새마을 주택 1호' 가보니

2013.01.07 11:22

출처 :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23501

"잘 살아보세" 박정희 설계 '새마을 주택 1호' 가보니

[JTBC] 입력 2012-12-28 21:18

[앵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 캐치프레이즈를 인용해 말했죠? 새마을운동의 상징으로 70년대 지어진 '새마을주택' 1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기자]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저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1970년대 전국적으로 짓기 시작한 새마을주택.

115㎡ 크기의 현대식 주택으로 당시 농촌 풍경을 바꿨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첫 모델인 '새마을주택 1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AD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이병화/거주자(전 국제농업개발원장) : (농민들과) 막걸리를 잡수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니까….]

1978년 청와대에서 가져온 다이얼식 전화기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사용했던 이 전화기를 이 집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침도 있었습니다.

[이병화/거주자(전 국제농업개발원장) : 박 대통령 흔적을 지우려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 집을) 곡괭이로 부순 적도 있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대학생 시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병화/거주자(전 국제농업개발원장) : 요즘 말로 하면 '엄친딸'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아저씨 농사 잘 지어주세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강조한 것도 '새마을 정신'.

새마을주택 1호에 새삼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박근혜를 팔아라'…대구는 지금 부녀 대통령 마케팅

[펌] 독재자 박정희는 어떤 일을 했을까

2012.09.10 05:41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22950

[펌글]

독재자 박정희는 어떤 일을 했을까 [1]

21시민운동 (chokd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판단기획국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 지시에 대한 復命(복명)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 부서의 실무자들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업무 추진 방향을 그때 그때 알 수 있었고 대통령의 마음가짐과 통치 스타일도 파악할 수 있었다.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朴 대통령 재임 시 10년 가까이 분석관이란 직책을 통하여 바라보고 느낀 박정희 대통령의 면모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를 간추려 보았다. 특히 中道실리라는 현실 안주를 선택한 李明博 대통령과 이념투쟁에 휩쓸려 좌고우면하는 朴槿惠씨, 대통령病(병)에 걸린 여러 정치인들이 朴 대통령의 애국심과 超人(초인)적인 면모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安保와 경제발전에 모든 정보역량 집중

朴 대통령 당시 국내 정보 파트에서 벌이는 업무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집중되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개발해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수시로 내려오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순발력 있게 복명하기란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다. 모든 보고서는 안보와 경제발전에 軸(축)을 두고 전개되어야 했다. 더욱이 대통령 자신이 多방면에 걸쳐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어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사실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모두가 뒤떨어진데다 항시 긴장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들을 추월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에 總力(총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그러나 반대와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정치 · 사회적 압력은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견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그만큼 정보 부담도 가중되었다.

모든 분석관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나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비록 실무자라 하더라도 강한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버텨 나갈 수 있었다. 朴 대통령에게서 풍기는 순수한 애국심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실천력 아래 직원들도 같이 호흡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보활용에 탁월한 솜씨 보여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는 국내분야만도 하루 평균 5~6건, 약 40페이지 내외가 됐다. 당시는 깨알 같은 활자로 植字(식자)를 했으므로 따져보면 엄청난 분량이었던 셈이다. 朴 대통령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고 의문스런 부분은 밑줄을 긋고 깨알 같은 글씨로 "재확인",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할 것", "나는 ~한 의견인 데 참고바람" 등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면서 날짜와 함께 '熙'라는 사인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알아야 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부, ○○청에 통보할 것", "00부처와 협의토록 할 것" 등으로 보고서에 지시를 附記(부기)한 후 복사분을 내려 보냈다.

마음에 드는 보고에 대하여는 "무척 고생했음", "잘된 보고" 라고 명시해 보고서 작성관의 사기를 올려 주었다. 믿기지 않거나 시행 가치가 있는 보고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재확인해 더 좋은 의견이 없는지를 체크하기도 했다. 따라서 적당한 보고나 허위보고는 아예 상상할 수 없었다. 또 보고된 정보를 직접 활용하지 않아 정보출처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분석관은 특정인을 의식할 필요없이 자신있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었다.

어떤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참고하라면서 아예 보고서를 그대로 넘겨주기도 했었다. 넘겨받은 쪽은 보고자에게 항의를 했으며, 이로 인해 소위 實勢(실세)들에 관한 보고서는 작성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朴 대통령이 "농업을 망쳤다"는 데 동의할 수 없어

朴 대통령은 농업경제와 농민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다. 이와 관련된 보고에는 여러 가지의 객관적 사례를 육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해야 하며 대책에는 학자 등 외부 전문가나 외국의 사례를 풍부하게 적시해야 했다. 그는 농민 출신답게 농업용수 개발,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난 해소, 새마을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다수확 품종과 특이 작물 종자 확보를 위해 꾸

준한 정보활동(세칭 '문익점 사업'이라 함)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부에서 朴 대통령이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망쳐 놓았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동 교육을 위해 연필 품질까지도 직접 확인

朴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부터 국산품을 사랑해야 한다며 국산 연필을 수집토록해 직접 깎아 보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다. 당시 가장 열악했던 교사 處遇(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모든 교육이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과외금지를 철저히 준수했다. 과외금지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보부로 하여금 공직자나 부유층의 私교육 실태를 은밀히 파악토록 지시했는데 자녀 과외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도 많았다.

朴 대통령은 어떤 강풍이 불어도 할 일은 하는 성격이었다. 예를 들면 釜馬(부마)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시국인데도 아동 만화가 어린이 정서 교육상 문제가 많다고 해 이를 수집 ·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보고 당일 10 · 26사태가 일어나 검토도 못 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합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시

한가지 정책이라도 반드시 여러 개의 부처가 관련되기 마련이다. 朴 대통령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토록 했다. 시행 계획에는 협의 부처와 부처별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이 정권安保를 위한 장치라고 비판이 많았으나 대부분이 억측이다. 金泳三 정권 시에는 안기부(중앙정보부의 後身)가 정보업무를 독주한다고 해 국내 정보기관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보조정협의회'마저 폐기하였다.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대한지는 안보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어지는 부처간 엇박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아 정책에 혼선을 빚는 愚(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들 위원회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옐로페이퍼' 제도 사회지도층 기강 잡아

朴 대통령은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인 등의 私생활에 매우 엄격한 자세를 요구하였다. 근검절약을 '제2의 경제'라 하여 생산활동 못지 않게 중시했고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해 호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嚴禁(엄금)하였다.

지도층의 호화생활이나 고급승용차 소유, 심지어 양담배 흡연까지도 엄격히 단속했다. 대상자의 反사회적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내용을 적시하고 국민 앞에 솔선수범할 것을 권고하는 경고문을 정보부를 통해 발송, 당사자가 직접 수령토록 했다.
일례로 휴가철에 제주행 여객기 좌석 구하기가 어려울 때, 모 재벌급 인사가 여객기를 전세 내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피서를 간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朴 대통령은 경고장(당시 옐로페이퍼라고 함)을 보내 기업인으로서 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라고 꾸짖었다.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기피에 대해선 명단과 직업을 언론에 발표하고 즉시 시정토록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인간적 실수에는 관대해

朴 대통령이 골치를 아파하는 야당의 모 의원이 미국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다 여권을 포함하여 지갑까지 모두 털린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해외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모 의원의 비판활동은 그대로 지속되었고 비밀은 유지되었다. 朴 대통령은 反안보적 反사회적 행위가 아닌 한 개인의 책임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했다. 만약 야권 지도층의 私생활과 취약점에 관련한 정보가 정치에 이용되었다면 좀 더 편히 政局(정국)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현 가능성 與否에 중점둬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경제와 인물 빈곤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왜', '어떻게'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왜'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중요했다. 돈과 인물이 부족한 與件(여건)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채택만 되면 그대로 시행이 가능했다.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부작용도 없었다. 그는 지금 정치인들처럼 국가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 정책 남발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 정권초기 '굴욕외교'라는 엄청난 저항 속에서도 '對日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것과 키스트(KIST: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한 인재 발굴 · 육성도 그 일환이었다.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론이나 인기에 무관하게 밀어 부치는 성격이라 독재자라는 汚名(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터 직접 물색하러 다녀

특히 지금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校舍 敷地(교사 부지)를 개발할 때 그는 서울대를 人才(인

재) 양성의 産室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당시 서울대는 단과 대학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고 건물들이 모두가 낙후돼 교육 ·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번듯하게 지어 선진국 대학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여러 번 했으며, 터를 잡기 위해 여러 곳을 물색하였다. 몇 곳을 정한 후 결정 시점에는 헬리콥터로 직접 대상처를 再확인한 후 지금의 관악으로 결정했다. 결정까지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서울대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구석에 몰아 넣는다고 오해해 서울대 통합이전 계획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朴 대통령의 집념을 꺾을 순 없었다.

철저한 확인행정주의

박대통령의 꼼꼼한 성격은 확인행정에서도 드러난다. 일단 정책이 시행단계에 이르면 그 진행 상황을 철저히 진단 · 독려하므로 대충이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확인은 상급 부처로만 국한하지 않고 중앙정보부를 시켜 다시 확인토록 했다.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부처에 문책이 뒤따랐다. 따라서 모든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빨리 빨리’란 말이 아마 여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속도주의가 오늘 날 不實(부실)공사, 요행심, 한탕주의, 편의주의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원인도 되었다.

朴正熙는 독재자인가?

가난에 찌든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중화학공업정책을 시행한 것 등은 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꿈 같은 소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1973년에 중화학공업기획단이 만들어지자 중앙정보부장실 등이 위치했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9층을 비워주느라 밤새워 이사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막강했던 정보부가 청와대에서 멀어진 것이다. '권력은 지도자와의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관심은 중화학공업에 있었지 정보부가 아니었다. 지구상에 어느 독재국가가 야당이 그 난리를 치고 市街地(시가지)는 연일 데모로 아수라장이 되는데 국가발전이 활발할 수 있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한정된 자원, 정치 혼란, 안보 불안 등 모든 악조건 속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현실을 돌아 봐야 한다. 그리고 朴 대통령의 遺産(유산) 중 이어 갈 것은 승계 ·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朴 대통령의 애국심을 그의 소박했던 사생활과 함께 反芻(반추)해 볼 때 과연 독재자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인지 훗날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건강한 밥상이 都農 지킨다 / “감자옹심이 외국인에게도 소개할 것”

2012.09.07 09:47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2401032124106003

[경제] 건강한 밥상이 都農 지킨다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24일(金)

“감자옹심이 외국인에게도 소개할 것”

마을 촌장 이재명 씨

고라데이 마을의 대표이자 ‘촌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56·사진)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살다가 귀촌한 외지인 출신이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시골에 천마 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이 마을의 농지를 구입했던 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됐다.

심어놓은 천마를 돌보기 위해 한두 달에 한 번 들르다가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인심과 편안한 마을 풍경에 차츰 매료된 그는 “농촌에 들어가 제대로 된 인간적 삶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마침 그의 아내도 “언젠가 귀농할 생각이라면 적극 검토해보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단체에서 청소년 스포츠를 지도하면서 “청소년 명상센터를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던 그는 결국 그 꿈을 이룰 최적의 장소로 고라데이 마을을 선택했다. 마을 이장은 도시에서 온 그에게 농촌체험관의 촌장 역할을 맡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농협에서 식체험마을을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횡성의 한 식당주인에게서 감자옹심이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

이 대표는 “음식에 설탕이나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 온 체험객들이 건강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감자옹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음식이란 우리 토양에서 자라는 제철 음식재료를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재배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불리 먹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참기름 등 천연조미료를 비롯해 깨, 부추, 고추, 오이 등 거의 모든 식재료가 이곳 마을의 밭에서 직접 길러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가 자신 있게 권하는 또 하나의 음식은 ‘곤드레밥’.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고 할 정도로 곤드레를 듬뿍 넣은 영양가 높은 곤드레밥을 맛본 이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강원도에도 여러 음식이 있지만 감자옹심이를 가장 먼저 찾는 유인력 있는 향토음식으로 키워 외국인에게 소개해도 손색없도록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 =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민족사관 정립한 박정희 대통령(朴正熙 大統領)[펌]

2012.08.25 14:13

[펌]

출저 :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19&message_id=931851¤t_sequence=03uQhz~&start_sequence=zzzzz~&start_page=1¤t_page=4&direction=1&list_ui_type=0&search_field=1&search_word=&search_limit=all&sort_field=0&classified_value=&view_count_id=false

민족사관 정립한 박정희 대통령 (朴正熙 大統領) [0]

김현식(vivacorea) [2012-08-24 23:45:35]

조회 54 | 찬성 22 | 반대 0 | 스크랩 0

민족사관 정립한 朴正熙大統領

박대통령,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창달

(문화재보호와 민족문화창달**
이 글은 2000년 6월 8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鄭在훈 교수의 증언 녹취록임.)

- 필자 정재훈 -

저는 전통문화(傳統文化) 부분을 담당하는 문화재관리국의 공무원으로서 1963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현충사(顯忠祠)를 보수 확장하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유적을 정화(淨化)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화재 관련사업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 처음 지시한 것을 보면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정신(精神)을 고취(鼓吹)할 수 있는 민족교육(民族敎育)의 도장(道場)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 때의 항일유적(抗日遺蹟) 그리고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의 유적, 예를 들면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유적이라든지, 3.1 운동의 유적 등 이런 유적의 현장을 잘 정비하라는 지시들이 1966, 67, 68, 69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려면 일본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의식(意識)을 가지고 일본을 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사상 일본과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임진왜란 관련 여러 지역의 정화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閑山大捷)을 비롯하여 해전(海戰)에서 이긴 여러 지역의 유적으로서,
그 중에 아산 현충사가 서울에서 가깝고 일제시대 동아일보사가 거기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자" 하여 사당을 지어주고 정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아산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의 외갓집이고 가묘(家廟)가 있었던 곳인데
가묘는 집안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곳(현충사)을 크게 확장을 했고 성역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제식민지(日帝植民地) 사관(史觀)의 치욕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국민정신(國民精神) 함양(涵養)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기계를 사온다거나 서로 교역을 해야 하고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각(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
그 뒤 70년대 초반부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민족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상가(思想家)의 유적을 현창(顯彰)하는 데 주력합니다.

불교 쪽에서는 원효(元曉), 그리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려의 대외 항쟁(對外抗爭)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재인 동시에 인쇄문화의 기본적인 틀이며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는 불교와 접합된 정신문화(精神文化)의 구심점(求心點)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주자학(朱子學)을 조선의 성리학(性理學)으로 그리고 조선의 철학(哲學)으로 발전시킨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 또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 등을 기리기 위하여 도산서원(陶山書院), 오죽헌(烏竹軒), 자운서원(紫雲書院), 원래 해주의 석담구곡에 은병정사를 지었던 유적인 율곡 선생의 서원이 있는데 이북에 있으니까 보

수정비사업을 못하고….
그리고 필암서원(筆巖書院:전남 장성, 하서 김인후 선생) 등 정신사에 중요한 위인이나 사상적 체계를 유학적(儒學的), 성리학(性理學)으로 계승하는 유적이라든지
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의 실학(實學), 추사의 글씨체라든지 한국(韓國)의 자주적(自主的)인 예술문화(藝術文化)의 근본(根本)이 되는 그런 유적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화를 제대로 계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1971년 '경주 개발(慶州開發)'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경주의 신라 문화 유적을 총괄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한 겁니다.
1971년부터 5개년 계획, 그 다음 5개년 계획, 1차 5개년, 2차 5개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경주의 유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 정보비서관 권상하 씨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사범에 다닐 때, 대구사범은 일제 때 관비(官費)를 주었기 때문에 여행비를 적립해서
일본의 경도(京都)나 나라(奈良)에 꼭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안 가고,
한국의 학생들만 빠져 가지고 경주의 유적을 쭉 답사하고
신라 문화 유적에 대한 체득과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경주 유적을 답사했던 사진을 보여준 일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각반(脚絆)도 치고 학생모를 쓰고 김유신(金庾信) 장군묘 앞에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문화 유적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의 정신문화나 문화 유적의 그 뿌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아마 그 사진도 남아 있을 겁니다. 구미나 대통령 유족의 집안에….

박 대통령은 경주의 문화 유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경주 문화 유적 개발을 담당하여 입안하는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13개 지역에 대한 경주의 유적을 설명하면 박 대통령께서는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경주하고 대구가 가깝기도 하고….

박 대통령은 고고미술이나 고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
일제시대 때 일본사관(日本史觀)으로 쓴 신라사나 한국의 전통미술사나 고고학에 대해서,
실지로 경주의 천마총(天馬塚), 98호고분, 안압지(雁鴨池), 월성(月城), 왕경지(王京地), 황룡사지(皇龍寺址) 등을 발굴하게 해서
전부 다시 쓰게 하여 자주적인 사관(史觀)으로 우리의 문화사(文化史)를 새로 정립하게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신라 금관의 경우,
외관(外冠), 내관(內冠), 조익형 관식(鳥翼型 冠式)의 3가지를 금관총의 금관을 발굴하고 난 뒤에 꿰맞췄습니다.
유물들은 일본 경찰관이 들어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그 발굴은 학술적인 계획 발굴이 아니고 집 짓다가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히 수습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 후 1926년 서봉총 금관을 발굴할 때는 계획 발굴을 한 것입니다.
서봉총 금관은 금관 위에 십자로 투구처럼 돼 가지고 그 위에 봉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 금관은 조익형 관식과 내관이 들어가는 금관이 아니라는 것을 서봉총 발굴결과로 이미 알았어요.
그런 것을 1926년 일제시대 때 발굴하고 난 이후

우리가 1973년 천마총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신라 금관의 형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신라 금관의 잘못된 형태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바로잡게 된 것은 경주의 유적에 대하여 고고학적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발굴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유적, 발굴물)에 대한 보고서를 세계에 다 내놓았습니다.
천마총 발굴 과정의 영화는 불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온 세계에 상세하게 각 나라의 말로 더빙(dubbing)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지금 소련 국립박물관이나 평양 박물관에도 천마총 발굴 과정의 (기록)영화는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종합 정리해서 한국 미술 5000년 전(展)을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전 구라파에서 개최하여
한국문화가 일본문화 그리고 중국문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실증적(實證的)인 유물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선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굴유물 전시사업은 경제적 교역활동을 함에 있어 한국 상품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술, 예술, 학술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기보다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교육이 대단히 완벽한 교육(전인교육)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역사의식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0년대에 고속도로(高速道路)를 낼 때,
대구에서 경주 구간에 고분(古墳)이 많이 걸렸습니다.
'방내리에 고분' 이 64기를 발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 쪽의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고속도로뿐이고
그날 그날의 사업 진척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건설부 쪽 사람들은 그대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문화재를 담당하는 계장(문화재관리국)인데, 대통령께 그대로 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한림(李翰林) 건설부장관한테
"다 발굴하여 조사하고 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 고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제일 우선 순위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京釜高速道路)를 만드는 것인데,
그보다 더 귀중한 우선 순위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나 그 공기(工期)가 지연되었어요.
경주에서 대구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그 당시에 6개월을 지연할 경우
그때 건설부가 계산한 것을 보면, 중기 손료(重機損料)만 하루 4,000만 원이라고 계산돼 있었어요.
그 구간에 투입된 모든 중장비라든지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가 놀게 된다 말이죠.
발굴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6개월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개정하여
고속도로나 모든 국토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있으면 시공자가 부담을 하여
모두 발굴한 다음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제일 높은 가치)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두었습니다.

즉 민족문화사업(民族文化事業)은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정립한 겁니다.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 유적지 시찰(77.4.29) 충의사

+++

그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창원 공업단지를 만들 때입니다.
거기에 성산 패총(貝塚)이라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패총(조개무지), 옛날에 그게 초기 철기 시대의 쓰레기통입니다.
그걸 발굴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칼도 많이 나오고 성곽(城郭) 유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서 '창원 공업단지' 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보고,
그 산을 깎아 뭉개지 말고 그 산을 사적(史蹟)으로 지정해서 잘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매립하려고 했던 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른 곳에서 흙을 갖다가 메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원 공업단지의 조성이 1년 이상 늦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패총)을 보존했습니다.
지금도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안압지(雁鴨池), 불국사, 월성(月城), 천마총(天馬塚), 98호고분(古墳), 이런 발굴 현장은 물론
성산 패총 발굴 현장에도 오셔서 우리를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대통령이면 누구나 발굴 현장에 와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여러 대통령을 모시게 되면서 발굴 현장에 대통령이 와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고고학이나 미술사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 대통령은 역사의식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했어요.

+++
197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모든 문화유산을 조사해라,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행정의 체계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 유적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청의 모든 관리행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전국 유적 총람(全國遺蹟總覽)’입니다.
그걸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예요.

그때 보면 대통령은 그런 일을 그냥 자기가 책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공사투시도(工事透視圖)를 가지고 여러 번 보고하러 간 그때의 실무자인데,
집무실에 가면 컴컴한 방에 아주 지방학교의 교장선생님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방이… 그 방에 깔린 마루가 있는데 디디면 삐걱삐걱했어요.
그게… 못이 오래 돼 가지고 사람이 디디면 푹 내려가고 올라오고….
대통령 집무실은 그저 한 8평 정도? 내 눈짐작으로는….
그리고 옆의 벽에 서가가 있는데 한 벽에 보니까
우리 나라 문화유산, 문화재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걸 늘 빼 보시기 때문에 거기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우리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 문화유산에 관한 책을 읽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삐걱삐걱하는 그 마루를 안 고치고 있더라구요.

저는 1973년부터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경주에 있는 문화 유적의 발굴과 정비하는 때에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때도 경주 오시면 저는 소장이니까 점심시간에 끼여 들어 멤버가 돼 가지고 점심을 먹기도 했는데,
보면 굉장히 검소합니다.
꼬리곰탕 같은 것 좋아하시고, 그리고 번거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번은 대통령께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경복궁의 지금 박물관이 중앙박물관으로 건립된 거요.
그때 투시도를 그려 가지고 가서 공사계획을 설명하니까
그 투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면서 집무실에 못을 박고 걸라고 하시더라구요.
집무실에 못을 박고 걸었어요. 그 뒤에 떼어 왔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투시도를 대통령 집무실에 거느냐 하지만,
물론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거는 기준으로 볼 때 투시도를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은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할 국립박물관의 건립공사 투시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 화가의 그림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대통령의 정책적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 건축양식으로 좀 지으라는 말씀도 있어서
그 뒤에 박물관을 우리 나라 건축양식으로 짓다보니까 기둥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조경(傳統造景), 그때는 조경하라는 지시가 많았어요.
산이 헐벗어 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사적지 정비사업은, 처음에 많이 추진한 사업은 현충사(顯忠祠), 제승당(制勝堂), 임진왜란(壬辰倭亂)의 3대첩지인 진주성(晋州城), 행주산성(幸州山城) 등 이런 유적지들입니다.

서울성(城)도 75년에 복원 정비한 겁니다.
서울성이 다 허물어졌던 거지요. 위의 여담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대통령은 꼭 자기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도를 보자고 그러신다고요.
간단한 설계도를….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30장, 40장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의 투시도를 그립니다.
그때 내가 그 시대를 '투시도 시대'라고 했는데, 투시도를 가지고 가면
그게 단면, 측면, 평면… 군대에서 지도를 읽는다든지 도면을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딱 알아요.
아, 이게 길이가 얼마구나, 넓이가 얼마구나, 어떤 집을 짓는구나, 성을 어떻게 쌓는구나.
투시도를 쭉 보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증을 해요.
그 다음 공사하는 과정에 현장을 꼭 보십니다.
아니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도 꼭 내보내요.
현장에 가서 공사진행사항이 원래 설계도대로 잘 되는지?
그 일을 하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걸 전부 해결해 줍니다.

+++
70년대 언젠가 한번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대통령께 최종보고를 하였는데
경제기획원장관한테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조정하게 하였어요.
그때 우리 문화재관리국의 총 예산이 100억 원이 안 될 때인데,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수십억 원의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한 일이 있어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경주의 많은 들판을 1973년부터 사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년 동안 사들인 게 26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수십만 평을 사들였는데도 말이죠.
지금 황룡사지 그런 데가 다 그때 도시였습니다.
지금 100여 동의 민가를 철거하고 그것을 다 사들이려면 몇 조 원이 들 거예요.
민족유산의 보존을 위해 사적지로 지정된 유적지를 가장 많이 국유지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민족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정책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강화유적(江華遺蹟)과 같이 국난 극복이나 대외 항쟁, 이런 것은
군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황바두리성' 같은 것을 삼별초의 대몽(對蒙) 항쟁(抗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한다든지,
고려궁지(高麗宮址) 이런 것도 우리가 몽고(蒙古)하고 싸웠다.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전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의 군대하고 싸웠다.

그런 기백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사상적 체계를 세운다든지 또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을 만든다든지,
문화유산 보존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문화원(精神文化院)'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민족문화백과사전(民族文化百科事典)이,
지금 사실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업입니다.
그게 만일 없었다면 정말 지금 세계화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왔을 거예요.
그런 측면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장관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이선근(李瑄根) 박사한테
그때 문화재 위원장인데, 맨날(항상)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한 시간씩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문화사하고 역사를….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김재원(金載元) 박사라고 국립박물관장한테 한국미술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대통령 내외께서…. 그런 것을 듣고 5대궁(五大宮)의 비원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겁니다. 처음에 … 5대궁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한 해 예산이, 내가 1963년에 문화재관리국에 들어가니까
전국 문화재에 대한 연간 보수비가 총 1,300만 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안 한다거나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드는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6.25 전란이 일어난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61년, 62년에 고친 것이 강진의 '무의사 극락전'이고
두 번째 고친 게 서울의 '남대문(南大門)'이에요.
6.25 때 부서진 남대문을 언제 고쳤느냐 하면 60년대 초에 고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석굴암(石窟庵)'을 보수했어요. 1962년, 1963년에…. 그러니까
1967년부터 문화 유적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화하라고 지시한) 이러한 항일(抗日) 유적이나 문화 유적을 보면 어떤 전통의 정신이 있어요.
도산서원에 가면 '퇴계 선생'을 제사 지내는 '상덕사'라는 사당이 제일 중심입니다.
서원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칠백의총(義塚) 하면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이나 영규(靈圭) 대사(大師)의 항일 의병 정신이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종교는 '국가(國家)'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하면 사당에 고개를 숙인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충무공의 현충사 사당에 가서 대통령이 절을 한다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사상가인 퇴계 도산서원의 상덕사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오죽헌에도 율곡 사당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가서 절을 한다 말이죠.
그런 곳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문화 유적으로서 국가라는 개념의 정신적인 실체를 구성(형성)하고 있어요.
그러한 유적이 1개 도 단위 거의 하나씩 있어요. 어떤 곳은 1개 도에 두 곳도 있지만…. 부산을 보면 충열사(忠烈祠)가 있고,
경상남도에는 진주성, 의령에는 '곽재우(郭再祐)' 장군의 의병 유적, 경상북도에는 통일전의 '신라 화랑정신(新羅 花郎精神)'을 구현하는 곳,
충남의 현충사, 칠백의총, 전라남도에는 포충사(褒忠祠)의 고경명(高敬命) 선생의 유적, 광주에는 충장사(忠壯祠)의 김덕령(金德齡) 장군, 경기도의 강화 전적지(江華 戰跡地), 충청북도에는 충민사(忠敏祠)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대외 항쟁, 강원도에는 오죽

헌(烏竹軒)의 율곡 선생 등.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의 대외 항쟁사라든지, 우리 민족 문화사라든지 어떤 실체의 정신적 주체를 중심으로 아주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해서 국민교육(國民敎育)의 장(場)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정보문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화하더라도
세계화 전략상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외환위기, IMF 위기가 오듯이
문화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적으로 공허한 것이 되고
아무 것도 아닌 사이버 공간 속에 헤매다가 마는 것이 된다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력이 상실됨).

+++
전통문화는 정체성(正體性) 확인, 사회통합(社會統合)의 기능, 문화창조력(文化創造力)을 제고하고 한국문화로 하여금 계속 개성적인 면을 지니게 하고, 국제화 시대에 '이미지 제고'의 중추적 역할, 남북한 통일에 대비 양측 문화간의 이질화된 부분을 극복하고 문화융합 등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반,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세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지만….
자주(自主), 자립(自立), 자존(自尊)…. 새마을운동에도 그러한 정신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정신이 있는 곳을 정비 정화함으로써,
예를 들어 포충사의 고경명 선생 경우를 보면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씨족적인 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정신이… 굉장히… 자기 혈통, 혈관에 스며들게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어요.

그 뒤에 여러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비교해 보면, 그때 한 일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것을 재발견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 현충사 이 충무공의 제사를 4월 28일 지내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른 일이 없어요. 그 제사에….
대통령은 외국 대사도 만나야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에 철저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도 다 그러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너무 자유 방임상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체제 구축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한번은 일본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노력을 했어요.
광복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화문(光化門)'을 복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지시로 광화문을 복원했어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문화유산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에요.
조선총독부 건물을 못 뜯어내니까, 예산 관계로….

우선 광화문을 건립하여 극일(克日)하고자 하는,
일본으로 인한 우리 역사의 상처와 치욕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굉장한 의지였다구요.
돈도 없는 그때에….
1969년 그때, 광화문을 복원하라는 지시에 의해 복원을 했거든요.
지금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것을 콘크리트로 했느냐? 나무로 하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군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광화문 하나 복원하는 것은….
그러나 그게 일제가 1916년에 조선의 정궁(正宮)을 허물고 조선총독부를 건립한 것에 대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의식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국어교과서에서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 속에 있는 사실 등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가 지시한 것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준공식에는 꼭 본인이 참석하고 종결까지 확인하고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수석비서관을 보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책(사료)에 정리되게 하는 등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 유적지 시찰(77.4.29) 충의사

+++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장관이라든지, 계급(지위)을 중시하지 않고 아주 전문가(專門家)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와서도 그때 발굴을 하는데 김정기(金正基)라는 사람이 경주 발굴의 단장인데,
한번은 "내가 맨날 김정기(金正基)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때는 따님 두 분하고 아들하고 다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평상시에도 저 어디 유적을 발굴하는 한 자연인의 이름까지도 가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영수(陸英修) 여사는 한번은 진해 갔다 오시면서 우리가 불국사를 복원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진해의 별장에 갔다가 오실 때면 경주를 꼭 들리세요.

육영수 여사는 불국사 복원한 것이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자기 마음에 들고 제일 위대한 일 하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불국사를….
우리는 불국사를 복원하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한 종교의 터전인 절을 복원하는 데 끝나지 않고
불국사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의 절로서 호국불교 정신의 구심점이면서
문화적으로 제일 정교하고 잘된 절이라는 것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보탑(多寶塔:국보20號), 석가탑(釋迦塔:국보21號)이 있고 국보(國寶)로 지정된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국보23號), 연화교(蓮花橋), 칠보교(七寶橋:국보22號), 불국사 금동비로사나불좌상(佛國寺金銅毘盧舍那佛坐像:국보26號), 조각예술을 보면 금동아미타여래좌상(金銅阿彌陀如來坐像:국보27號)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게 조경(造景)을 보면 구품연지(九品蓮池)에 그림자가 연못 속에 드리워져 가지고 2배로 보이게 하는 조영(照影)의 효과라든지,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이라든지….
그런 계단의 잘된 것을 건설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하철 계단 조성에 원용하게도 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을 본떠서 만들게 한다든지….

지금 서울 지하철의 내려가는 계단은 대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딛고 걸어가는 데
보폭이 한 자 정도의 길이가 된다든지….
불국사의 청운교 높이가 19cm인데 지금 계단의 높이가 18cm 정도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늘(항상) 그런 것을 절대로 함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정교하거나 우리의 정신이 들어 있는 문물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재활용, 재창조하는 데 철저하게 대통령이 이용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네(원로)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보면 박종홍(朴鍾鴻) 특보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산서원(陶山書院)이나 율곡의 유적을 정리하는 것은…
철학을 전공한 박종홍(朴鍾鴻) 특보(교수)가 대통령에게 잘 설명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교육받은 거예요.
청와대 안에 대통령의 선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보면 박 대통령이 박종홍 교수 보고 “선생님은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홍 교수는 옆에서 듣고 있고.
그 다음 동주(東洲 李用熙) 선생, 이갑성(李甲成) 선생의 아들, 국제정치학 교수도 나중에 대통령 특보를 했잖아요.
그분은 추사(秋史)나 한국의 글씨나 미술사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동주 선생은…. 그런 걸 대통령에게 늘 교육한다 말이죠.
그 안에서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더 어른, 원로를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술을 먹어도 이은상(李殷相) 선생이나 이선근(李瑄根) 박사 이런 사람들,
문화재 위원이나 원로들하고 자리를 같이합니다.
공식적으로 점심 한끼 먹자고 해서 와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선근 박사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는 누가, 대통령하고 저녁을 먹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어디가 막히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이고 전문가의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자기는 들은 것을 행정적으로 다시 물어본다구요.
법률적, 현실적, 국가예산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시하기 때문에
지시한 것은 법률보다 무서운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자기의 노트에 적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노트나 수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시를 받아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나 기술자가 모든 사람이 전문인이 되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길고 통치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가능했는지 몰라도
좌우간 전문가가 아니면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도 공부한 상태이고 행정(실무자)도 그러한 상태이고
그냥 잠시 자리를 맡았다든지 아무나 데려다 놓고 일을 했다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가경영에 굉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 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예술이나 일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맡고 있는 전통문화의 분야에는….
그래서 저는 전통 조경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조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챙기고 하시니까…
그때 하버드 대학이나 일본 동경 대학 등에는 조경학과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대학에는 조경학과가 없었어요.
대통령한테 전문적인 조경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하니까
일반조경이론을 다 번역해 가지고 마스터한 전문가가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대통령은 그림을 쪽지에 잘 그려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그림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불국사의 담〔墻垣:장원〕을 사고석 담(궁담)으로 하라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자연석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담부터 일본의 담, 우리 나라의 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있는 옛 건축법을 다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시정을 해서 추진할 때는
그 사람을 훨씬 몇 배의 전문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크게 지시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마찰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대통령이 감안한다 말이죠.
"괜찮다. 그게 좋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사람이 상당한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안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을 길렀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면의 전문가를 길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난 극복을 위한 대외 항쟁의 유적을 잘 정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형성해서 자주, 자립하는 정신으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입장 같이 그런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당을 지어 놓고
고개를 숙이듯이 그런 것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제일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사상사(思想史)를 정립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터전으로 하자.
예를 들면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등의 성리학 그리고 실학까지 다 정리해서….

실학의 대표적인 고대 도시가 화성(華城)이요, 수원성(水原城)…. 수원성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새로 다 쌓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지시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한 사업들은 칠백의총(1970년), 제승당(制勝堂, 1975년), 현충사(1967년 4월), 강감찬(姜邯贊) 장군의 서울의 낙성대(1973년), 광주의 충장사(김덕령 장군, 1974년), 항일 투쟁을 했던 윤봉길 의사의 유적(1972년), 행주산성(1969년 ~ 1970년), 진주성(晋州城), 강화유적(江華遺蹟, 1969년 ~ 1970년), 강화의 초지진(草芝鎭), 갑곶진(甲串鎭), 광성보(廣城堡), 고려궁지(高麗宮址), 강화행궁, 정족산성(鼎足山城),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塹星壇), 남한산성(南韓山城, 1970년), 서울성(1975 ~ 1978년),
수원성(水原城, 1975년), 고창읍성(高敞邑城), 홍성의 홍주성(洪州城), 서산시(瑞山市) 해미읍성, 문경관문(聞慶關門), 추사 고택(秋史古宅, 1976년). 그 다음 새로 건립한 국립박물관(1966)이나 경주 박물관(1975), 공주 박물관, 광주 박물관 등….
그리고 전통문화의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소위 전시해 가지고….
그때 보면 1개 도에 국립박물관을 하나 정도 둔다는 원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군사 유적(軍事遺蹟)만 관리해 나간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경주 유적의 발굴도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민족사관(民族史觀)의 정립(定立)과 사상사적(思想史的)인
체계(體系)를 완전히 자주적(自主的)으로 쓰게 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한국 미술 5000년 전(展) 그리고 경주 천마총이나 능(陵)에서 발굴한 유물을 정리해서
전부 우리의 문화사를 새로 쓰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한국사에 대해서 다 새롭게 쓰게 해서 교과서도 다 고치고
그런 후에 그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구라파, 미국, 일본 등에 전시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와 일본문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렸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한 아류(亞流) 또는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는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정립시켜주고….
그때에 미술사, 고고학, 한국 조경학 등 이런 학과가 많이 만들어지고
교육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도록 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같은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처음 제정되면서
우리 나라의 춤, 노래, 의식(儀式) 이런 게 문화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신적 문화유산이라고 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을 무형문화재라고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분들,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소위 말하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 공예기술의 장인 등….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층계급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분야를 숭상하고 보존해 나갔습니다.

서울 음대 안에 전통음악인 국악과가 설치된다든지, 무용학과에 한국의 전통무용학과가 생긴다든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敎育課程) 중에 우리 문화를, 우리 예술을 강조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만일에 보존 조치가 안 되었다면 서양화 물결 속에서 우리 음악이나 그런 게 설자리가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통문화재인 인간문화재가 한 180~200명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1962년부터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일본, 대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 문화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지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냐?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국가의 운영체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제가 문화재관리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라는 일본법(日本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존 관리하는 체제인 중앙의 '국(局)' 단위가 만들어진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국립박물관 유물과(고고과)'의 한 사람이 전국의 유적을 관리할 정도였으며
또는 문교부 문화과 안의 '문화보존계(文化保存係)'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문화재청(文化財廳)까지 승격했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금강산이나 백두산은 천연보호구역이나 명승지가 되어 문화재로 관리되야 하거든요.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산림청이 무슨 임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제는 우리가 지금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관리하는 게
국보나 보물의 동산문화재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문에도 설악산, 한라산, 홍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또는 명승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업적으로서
총체적,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우리 국토의 원 모습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녹화(山林綠化)하는 정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맥이 단절되고 나지(裸地)가 되면(산이 헐벗으면) 해당 군수를 불러서,
"왜, 산림녹화를 안 하느냐? 왜, 산이 저렇게 깎여 있느냐?" 추궁하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광화문 준공식(68.12.11)

후 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창달의 정책과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건과 책자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61年 10月 2日, 舊皇室財産事務總局을 폐지하고 文化財管理局을 文敎部外局으로 新設하여 民族文化遺産의 保存, 硏究, 창달의 전담 정부 기구를 만듦.
2.1962年 1月 10日, 文化財保護法을 제정 공포하여 文化財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확립함(1933년 日帝가 만든 朝鮮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폐지됨).
文化財保護法에 처음으로 無形文化財(음악, 연극, 춤, 놀이, 의식 등)와 民俗文化財(의, 식, 주)가 文化財의 범주에 들게 되어 민족 고유의 예술과 공예기술과 살림집과 음식과 옷이 문화재로 지정, 보호 받게 됨.
3.1966年, 정부는 古典國譯事業과 국학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民族文化推進會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4.1971年, 大統領 祕書室에 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團 구성 운영
5.1974年 4月 17日, 文化財管理局 산하에 文化財硏究所를 新設하였다.
6.1978年 12月 5日,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제정 공포,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이 설립되었다.
7.1979年, 韓國文化의 海外 선양 보급을 위해서 海外 公報館 산하 海外 韓國文化院 설치(日本 東京, 美國 뉴욕, 로스엔젤레스, 프랑스 파리).

약 력

□ 생년월일 : 1938. 3. 3

□ 학 력 : 1957 진주사범학교 졸업

1964 단국대 졸업

1991 한양대 환경대학원 졸업

□ 경 력 : 1973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소장

1977 문공부 문화재 1과장

1978 국립중앙박물관 보급과장

1979 해외공보관 지원과장

1981 문공부 문화재 2과장

1983 同문화재기획관

1986 同문화재관리국장

1990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장

1993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장

1995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장

1996 同사무국장

1997 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단장

1998 문화재위원(현)

1998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현)

2000 한국전통문화학교(4년제 국립대학) 석좌교수(현)

□ 훈 장 :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

[펌] 5.16은 혁명이고 [IMF는 매국이다] /석고대죄 해야 할 민주당과 비박이!

2012.07.18 12:18

[펌글]

5.16은 혁명이고 [IMF는 매국이다] [0]

한승록(sun371) [2012-07-17 16:32:53]

조회 459 | 찬성 166 | 반대 0 | 스크랩 0

5.16혁명을 누가 쿠데타라고 규정했는가?
바로 IMF의 주역 김영삼이다

보릿고개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시대
거리에는 거지와 동냥을 얻으려 다니는 아이들이 즐비했다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고
나라를 올바로 리드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 자유당 정권이었다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으니
가장 부패한 집단이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뒤로는 몰래 돈 받아 감옥가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진보당은 부정과 비리로 엉망이 되었다

민주를 외치는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뒷돈 받아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며 민주를 파는 새누리당 이파들도 부정과 부패로 감옥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지원은 예전에도 국민몰래 돈 챙기다 감옥에 갔다왔고
이번에도 저축은행 비리로 뒷돈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앞에서는 민주를 팔며, 뒤로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거짓 민주팔이 들이다

새누리당에서 쇄신을 외치는 정두언이 돈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쇄신을 외치던 남경필 김용태가 부정과 부패한 자를 감싸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다

그 시대에도 정치는 지금처럼 이랬을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린것이 바로 5.16 혁명이다

지금도 부정부패를 감싸고 민주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몰아낼 도덕과 신뢰의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박정희의 5.16혁명은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혁명이라면
김영삼의 IMF는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나라의 알짜 기업을 외국에 내다 팔아야 하는 매국이나 같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라를 부도낸 자가 지금도 입만 살아서 쿠데타니 뭐니 하면서 망발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부패한 자식을 국회의원 시키려고 노욕을 부리는것을 보면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없다

YS는 가정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의 알짜기업을 외국에 팔아먹게 했으니
역사는 YS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chosun]

****
****

펌글

석고대죄 해야 할 민주당과 비박이! [0]

이종택(yijt) [2012-07-17 15:30:30]

조회 359 | 찬성 119 | 반대 0 | 스크랩 0

어제 16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5.16 혁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친이 택한 최선의 길이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당시 식민지 지배와 6.25의 참상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에게 심어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일이었고 또 그 자신감이 실현되게끔 국민을 이끈 리더십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일부 비박까지 합세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며 일제히 박 전 위원장을 공격했고 김문수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탱크를 몰고 정부를 전복한 것이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냐? 며 일제히 박 전 위원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5.16은 분명 구국의 혁명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통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GNP 63 달러의 국가를 현재의 수출 대국으로 탈바꿈 시키는 초석을 이루었고 무지한데다 무기력하기까지 했던 국민정신을 무슨 일이던 하면 된다는 신념과 도전의 정신으로 바꾸어 놨다.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 잡고 전 정권을 답습하여 독재정치나 하든가 쥐꼬리만큼의 자유를 주고 생색이나 낸 경우는 많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은 팽개치고 사치를 누린 마르코스나 쿠데타에 성공한 것을 기화로 국민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나폴레옹의 경우는 쿠데타로 폄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세계 몇 위의 빈국을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 시킨 것은 물론, 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국방력을 우위로 뒤집고 나아가 국민성까지 바꾸어 버린 5.16혁명은 세계사를 통해 찾아봐도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혁명이다.

그러나 불초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는 달리 야당과 일부 비박은 죽기 살기로 5.16을 쿠데타로 깎아내리고 있다. 현재 자기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숟가락이 누구의 덕분인지 아침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누구 덕분에 만들어졌는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매일 트위터를 날리는 휴대폰 전화기가 누구 덕분에 세계 제1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박 전 위원장을 공격해 대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철부지에 철면피들이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역량도 신념도 없이 반대만 일삼던 이들은 끝내 민주화 구호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어설픈 경제 정책은 IMF 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고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는 더욱 극심해져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자들의 아들들은 물론 사돈까지 예외 없이 감옥 구경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좌편향정치로 기운 것도 모자라 종북으로 돌아선 정권은 국민의 혈세 몇 억 달러를 북의 집단에 갖다 바쳐 오늘날까지 핵 위협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훗날 통일이 되고 소위 민주화 집단의 실체가 밝혀지는 날이 오면 정치인이라는 명칭 대신 반역자라는 오명을 써야 할 인간이 꽤 많을 것이다.

비박 또한 다르지 않다. 전 정권과 결탁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직접 뽑지 못하도록 유리시키고 대신 부도덕한 인물을 내세워 정권을 탈취한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다. 정권 출범도 하기 전에 예측했던 대로 도덕성 문제는 정권의 발목을 잡아 처음부터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부정부패로 인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고새면 청와대 주변이 인물들이 하나 둘 씩 구속되는 것이 요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누가 검찰에 불려가도 놀라지도 않는다. 이것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 의해 자행된 비열하고 음성적인 쿠데타의 산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력을 소위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난장판을 만들어 위기에 빠뜨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장비와 무기 현대화를 이룬 국군의 전투력을 핵 위협 아래로 끌어내린 정권이나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리시키고 모리배 같은 인간을 내세워 정권을 탈취한 비박 역시 비열한 쿠데타에 가담한 인간말종들이다. 지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반성이 없다’ 고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는 통합민주당과 비박들, 그들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석고대죄 해도 그 죄가 오히려 남을 죄인들이다.

총칼을 들이대어 정권을 뺏는 것이 그래도 양성의 쿠데타라면 주체사상에 물든 정체를 민주화 구호 속에 감추고 국민을 속여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나 부패한 권력이 결탁하여 국민이 직접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교묘히 방해하여 정권을 사기 치는 행위는 음성적이고 비열한 방법의 쿠데타다. 이번 대선은 하질의 인간들을 정치판에서 털어내고 쓸어내릴 기회인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비열한 수법이 다시는 통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마지막 기회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양두구육의 실체

를 꿰뚫자!

[chosun]

박성백 투르드코리아 개인종합 우승 – 120429 – 나는 꼴지가 아니다 – 베이징올림픽 도로 경기□

2012.04.29 13:43

나는 꼴지가 아니다 - 베이징올림픽 도로 경기

인용블로그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1417&logNo=130097048698

JMS 정명석 변호하는 신기남 전 의원

2012.04.07 12:57

http://poisontongue.sisain.co.kr/814

JMS 정명석 변호하는 신기남 전 의원

정치 언저리뉴스 | 2009/04/28 07:49 | Posted by 독설닷컴

| view 애드박스 |

요즘 정치권에 ‘생계형’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생계형 비리’라고 말하고
가평군이 국정원 기자 등에 준 촌지를 ‘생계형 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계형’이라는 수식어는 ‘독설닷컴’도 사용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설명하면서 ‘생계형 출마’라고 말했습니다.
‘생계형’을 ‘막장’으로 바꾸면 좀 더 강조가 되죠.

‘막장 촌지’ ‘막장 출마’에 이어 ‘막장 변호’를 최근 접했습니다.
주인공은 신기남 전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했던 그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JMS 교주 정명석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준웅 전 삼성특검을 비롯해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들이 즐비한 JMS의 호화 변호인단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정명석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의 능력인 것이고...
그러나 ‘천신정’으로 불리며 개혁파로 분류되었던,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했던 신기남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전 의원 측도 부끄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IN〉 신호철 기자가 까닭을 묻자, 신 전 의원의 측근은
“법무법인 대표로서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다. 금전 거래도 없었고 실제 변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호철 기자는 몇 년째 JMS 정명석 교주 관련 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신도들에게 구타당한 적도 있고
도피 중인 정씨를 찾아 중국 현지 취재를 갔다가 감금당한 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피해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야'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7
'전화가 무서운 JMS 피해자'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
'정명석 성폭행 전모 밝혀질까'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

'중국 지방 공안이 정명석 비호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
이 변명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이 법무법인의 '바지사장'이라는 것인지,
정명석을 위해 무료로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후배 변호사에게 낚인 것인지...
해괴한 변명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부기자를 하다보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반의 기대와 반대로 이들은 대체로 '이에 민감하고 의에 둔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세 종류의 길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민변 등 법률시민단체나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인데, 그래도 가장 양호한 경우입니다.
둘, 방송활동을 통해서입니다.
신기남 오세훈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미지 정치'에 집착합니다.
셋, 권력실세를 통한 경우입니다.
정치검찰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현직에 있을 때 정치적인 수사로 눈도장을 찍고, 나가서 1~2년 전 관예우로 한몫 잡고, 권력 실세 뒤에서 법률 조언 좀 해주고 공천 받는 케이스로 가장 보편적입니다.
법조인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정치를 합니다.
기자를 하다보면 변호사들이 '악마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가장 웃기는 경우는 '연예계 비리'로 인해 연예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 인터뷰하는 변호사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대부분 가해자 측인 대형기획사 변호를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에서는 정의의 편이 되고 법정에서는 정의의 상대편이 되는 편리한 직업,
변호사들이 부럽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의 '막장 변호'를 보고 이생각 저생각 해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그는
변호사로서 밥벌이할 자격은 있는 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자격은 없습니다.
독설닷컴 '아웃 리스트'에 정동영 전 의원과 함께 신기남 전 의원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주〉 다음은 〈시사IN〉 신호철 기자가 정리한 정명석 교주의 혐의 내용입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변호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건 발생 시기	사건이 일어난 장소	내용	법적 처분	처분 기관	기타
1	1987년께	서울 관악구 근처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1), 공소권 없음	검찰	검찰, 정명석 소환 조사
2	1998년께	월명동(교단본부)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공소권 없음	검찰	피해자, 교단 탈출했다 납치당함
3	1995년 7월26일	부산 ㅇ호텔	성폭행	10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확정)	민사, 일본인
4	1995년 초	월명동(교단본부)	성폭행	50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확정)	민사
5	1998년 8월	월명동(교단본부)	성폭행	2심 판결 후 소 취하		민사, 고등법원(민사)은 가해자가 5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6	1999년 초	월명동(교단본부)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는 판결	고등법원(2심)	민사
7	1993년 8월께	월명동(교단본부)	집단 성관계	성관계 인정(위증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2심)	형사, 대법원에서 위증 무죄 판결 (성관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증언 선서의 법적 효력 문제로)
8	1994년 가을	월명동(교단본부)	집단 성관계	성관계 인정(위증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확정)	형사
9	1983년 1월24일	서울 정명석 사택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소 취하		민사, 고등법원은 가해자가 1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10	1980년대부터	서울 정명석 사택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소 취하		민사, 고등법원은 가해자가 6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11	1980년대부터	서울 정명석 사택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소 취하		민사, 고등법원은 가해자가 6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12	1999년	영동교회	성폭행	참고인, 증인 진술	검찰	당시 22세
13	1998년 6월27일	부산 해운대 라헤라 호텔	성폭행	참고인, 증인 진술	검찰	당시 20세
14	1994년	경주 하얼라 콘도	성폭행	참고인, 증인 진술	검찰	당시 22세
15	1992년 12월1일	서울시 평창동	성폭행	참고인, 증인 진술	검찰	당시 23세
16	1980년대	청주 지역 교회 부근 호텔	성폭행	참고인, 증인 진술	검찰	당시 고등학생
17	1996년 12월27일	월명동(교단본부)	성폭행	증인 진술	법원	당시 22세
18	2001년 8월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성추행	무죄	지방법원(1심)	형사(공소장 변경하면 유죄 가능하다고 판결문에 언급)
19	2003년 2월16일	홍콩 퍼시픽 뷰 아파트	성폭행	유죄(준강간)	지방법원(1심)	형사
20	2003년 2월16일	홍콩 퍼시픽 뷰 아파트	성폭행	유죄(준강간)	지방법원(1심)	형사
21	2006년 4월3일	중국 라오닝성 안산	성폭행	유죄(강간)	지방법원(1심)	형사
22	2006년 4월3일	중국 라오닝성 안산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소 취하로 공소 기각	지방법원(1심)	형사

※ 19 · 20 · 21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 6년형 선고, 18번 이후부터는 해외 도피 중 벌어진 사건

※1)친고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 처벌 불가

이명박의 北통과 가스관 인식, 국가安保 안보인다 – 천연가스와 엿바꿔 먹는 국가 안보

2011.09.14 09:11

[펌]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90901033937018002

이명박대통령의 北통과 가스관 인식, 국가安保 안보인다

"); }else{ google_ad_client = "pub-3665100911591867"; /* 300x250, 작성됨 09. 3. 23 */ google_ad_slot = "5381195455"; google_ad_width = 300; google_ad_height = 250; document.write ("

");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밤 청와대 좌담회에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에 수송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처럼 중간에 가스를 끊으면 어찌하느냐 걱정하는데, 걱정 안해도 된다. 중간에 끊어지면 러시아가 배로 실어오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대북(對北)원칙의 상실과 안보 불감증을 거듭 확인하게 한

다. 오직 경제적 타당성에만 집착할 뿐 북한과 러시아가 대한민국 안위(安危)를 갖고 장난을 칠 안보 측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첫째, 이 대통령이 "북한이 금강산처럼 중간에 가스를 끊을 가능성"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끊어도 러시아가 보상만 하면 된다는 의미 아닌가. 북의 호전성을 무시하는데다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의 선의(善意)에 맡긴다는 발상은 위험천만이다. 금강산 재산을 탈취하는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잊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파이프라인을 끊었을 때 러시아가 또 무슨 변명과 합리화로 북한 편을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안보적 차원의 검토가 없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모래성 위에 올려놓게 되는 발상은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둘째, 이 대통령 발언은 정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내놓은 5·24 대북정책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경제교류도 중단하겠다고 천명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같은 말을 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매년 1억~2억달러의 통과료를 현금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으로 들린다. 개성공단 2~3개를 더 만들어 북한에 현금을 주는 셈이다. 김정일의 선군통치를 연명시키고 핵무기 개발 및 대남 공격력 증강으로 되돌려받은 햇볕정책을 복사(複寫)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제1718, 1874호를 이명박 정권이 전면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결과가 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교역·거래·지원을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권이 핵실험에 이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파탄사태를 뼈저리게 겪고서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금강산·개성공단도 모자라 또 '가스관'을 북한의 인질로 갖다 바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북한이 가스관을 끊었을 경우 러시아가 선박으로 실어다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만약 가스관이 건설되면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러시아 의존 형태로 재편되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일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엄청난 물동량의 가스를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떻게 공급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 대통령은 가스관 건설 구상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옳다.

올릴 글 – 김영삼 그 근본 집권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의 갈래와 패악질

2011.09.13 12:51

김영삼

그는 한국정치 발전사의 3김의 시대라는 격동의 시절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3김의 시대란 비슷한 시기에 정계에 입문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을 아울러 일컸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것이다
그들의 시대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정계에 입문한 그들이 무너드리고자 햇던 박정희 정권과 그 후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집권과
김대중의 서거까지의 한축이 무너집으로 자동해체된 40~50 여년에 걸친 시대를 말한다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세불리를 느낀 김영삼이 노태우 김종필과의
야합에 따른 3당 합당이라는 마치 물과 기름의 혼합같은 희대의 야합을 단행하고
노태우를 협박하여 3000억원을 듣어내고 대통령후보로 등극하여 대통령에 오르고
5년간의 재임기간 중에 많은 민방과 케이블TV 방영권 장사 등 경제 자유화 시책을 내놓고
그의 차남인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까지 불리며 많은 언더테이블머니를 챙기고
문란해진 국가경제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IMF의 관리와 지배를 받게되는 국란을 불러온다

좌익의 숙주가 됨

1987년까지는 경상도와 전라도 간에 비방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평민당과 통일 민주당으로 분당이 된 후 87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떨어진 후 정권을 잡지 못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미룬 것은 사실이며, 김영삼이 3당 합당에 참여하여 92년 대선에서 김 대중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은 정계 은퇴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후 경상도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가갔다. 92년 당시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신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감정을 이용하여 고도로 첨예화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당시 유세에서 사용한 문구는 김영삼은 “우리가 남인가” 김대중은 “경상도가 장기 집권하여 전라도는 발

전이 전혀 안 되었다.” 등이 있었다.

[펌] 박정희에 고해성사한 골수 좌파/ 나를 인간으로 바꾼 박정희

2011.08.15 15:58

[펌] 박정희에 고해성사한 골수 좌파

박정희에 고해성사한 골수 좌파 [5]

[2011-08-13 16:32:21]

조회 1126 | 찬성 132 | 반대 2 | 스크랩 0

골수좌파(386,NL계열)
이동호(李東湖47세) 의 고해성사.

아래의 칼럼을 쓴 이동호씨는 前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냈으며,
얼마전까지도 박정희 타도를 부르짖던 골수좌파(386,NL계열)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토록 비난했던 박정희 대통령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written by. 이동호

몇 일전 「민족문제연구소」 등
세칭 진보단체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시대 친일파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 명단 속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들의 명단 속에 당연히 포함되리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들이 이 시점에 굳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그러나 막상 공개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휘자가 함부로 폄하되는 현실을 접하면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죄스러운 맘을 금할 길 없다.

수천 년을 지속되어왔던 숙명과도 같았던 절대적 가난을 우리운명 속에서 지우고자 평생을 노력 하신 그 분이셨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막상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수모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젊은 시절의 오판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이다.
물론 그 전에도 중 · 고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분으로 배워서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분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 선배들과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은 이제까지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일본군 장교출신이라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 만난 그분은 독재의 화신이었다.
일제의 앞잡이었던 그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민중을 수탈하고,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는 독재자의 전형이었다.

그가 이룩한 산업혁명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왜곡시키고
미국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수탈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의 선봉에 선 사람이 다름 아닌 그였다. 그가 이룩한 대한민국은 점점 외국의 노예로 가는 길이었다.

종국에는 외국자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최악의 나락으로 빠져갈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제 36년의 노예생활도 부족해서 이제는 서양 사람의 노예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길이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였다.

혁명 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보였다. 그렇게 나의 사회주의자로서의 길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민중의 수탈자였고
한줌도 안 되는 민족과 민중의 배반자들이었다.

반면 사회주의에는 민족낙원의 길이 보장되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강제적 지배나 억압이 없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사회였다.

공산주의는 민중을 억압하는 사상

북한의 김일성을 알게 된 것도 그 시기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조국 독립의 꿈을 안고 만주로 건너가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영웅이었다.
이미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해서
조선 공산당의 효시가 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북한에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한 것이다.
남쪽의 식민지 나라와 북쪽 자주의 나라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억울한 것은 6·25민족해방전쟁이 미제국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좌절된 일이었다.
남쪽에서도 민중이 주인 되는 이상사회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가 좌절된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그 후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나에게 이데올르기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가끔씩 사회주의에 대한 다른 증거가 제시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눈에 띄어도 이는 나의 철저하지 못한 혁명의지 때문이었다.

나의 사회주의와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였다.
소련이 무너지고 연이어서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졌다.
그것도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낙원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다.

영원한 사회주의의 낙원이고 고향인 소련과 사회주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
반대자들에 대한 피의 숙청이 진행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가장 억압받는
인류 최악의 사회였다.

소수의 지배자들의 천국이었다.
민중이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가장 억압받는 그런 곳이었다.
이제 까지 내가 믿었던 사상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틀렸단 말인가.
근본부터 흔들렸다. 그러나 도피처가 있었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했다.

소련과 동구권의 물질중심주의적 철학의 실패이지 인간을 중시하는 주체철학의 실패는 아닐 거야. 당시의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도 오래 가지 못했다.
연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래도 버텼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죄를 짓고
그 사회에 살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저주하는 거라고. 그런 나의 생각이 결정타를 맞았다.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 선생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것이다.

중국의 고도성장,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혁명 벤치 마킹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아니 북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악의 나라' 였다.

300만을 굶주려 죽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 토록 소리 높여 외치던 인류의 낙원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은 어디가고 최악의 독재자가 그 자리에 있단 말인가.
자신의 백성이 그토록 굶주려 죽어 가는데

호화로운 궁전에 앉아 최고의 호사를 누리는 후안무치가 그 자리에 있단 말인가.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놀아난 지적 저능아였다.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었고 이를 소리 높여 외쳤던 판단 능력이 상실된 문제아였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했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사실을 확인 해야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은 그 때였다.
그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아야만 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우선 그분이 이룩한 산업혁명을 다시 보았다.
분명히 사회주의를 동경하던 당시 책들과 선배들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수탈에 망해 있어야 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분이 이룩한 터전위에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세계10대 무역국으로 진입해 있었다.

모든 제3세계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대한민국이었다.

제3세계나라가 산업혁명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이었다.
오랜 기간 우리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근대화의 기수 등소평이 가장 본받고자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오늘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의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전략의 벤치마킹이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우리 민족에게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 심어줘

베트남을 취재차 방문했던 후배가
그곳에서 만난 기자와의 대화 가운데 들었다는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현재의 엄청난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가졌고
베트남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그 후배 또한 얼마간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전력이 있었다.
그는 타국에서 만난 외국사람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스스로 자부심이 느꼈다고 나에게 고백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숙명처럼 여겼던 우리민족에게
'하면 된다' 는 불굴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세간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그의 길을 간 선구자였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구는데 무엇 하나 기여한 적이 없는 이들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짓명분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을 헐뜯고 있다.
그들은 답해야 한다.

당신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고
당신들이 꿈꾸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당신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최악의 독재자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헌납하려 했던 당신들의 죄악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인간의 도리이다.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이 이 사회에 끼쳤던 죄악을 참회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대한 대통령을 헐뜯는 당신들을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날 그분을 모욕했던 죄인이기에 오늘의 현실이 더욱 견디기 어렵다.
그분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과오를 씻는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그분의 영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용기라도 갖는 것 같다.(konas)

이동호 (李東湖 47)
(前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現 한반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5]

best

양ㅎㅅ

장석준.. 민족주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네.. 꿈 깨거라 아가야!

2011.08.14 14:10:07

2011.08.13 17:01:00

장석준

sjjun5722

공감 0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펌] 우둔하던 나를 인간으로 바꾼 박정희

우둔하던 나를 인간으로 바꾼 박정희 [1]

[2011-08-13 23:33:10] 조회 170 | 찬성 25 | 반대 3 | 스크랩 0

이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인 김진씨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회고 기사입니다.

서거하신지 30년이 지났건만 그의 대한민국 사랑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나 봅니다.

이 혼돈기에 그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박 정희 전대통령의 마지막 사업인 민주 복지국가가 실현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둔하던 나를 인간으로 바꾼 박정희

[중앙일보] 2011년 05월 16일(월) 오전 00:24 |

김진논설위원 · 정치전문기자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1990년 가을이었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통치 비사(祕史)를 다룬 '청와대비서실'을 시작했는데 내가 시리즈 (1)을 맡은 것이다. 나는 1년2개월 동안 장관 · 의원 · 비서관 · 군인을 지낸 박정희 부하들을 많이 만났다. 박정희뿐 아니라 부하들의 스토리도 드라마였다.

남은 인생을 박정희를 기록하는 데 쏟아 넣었던 '9년3개월 비서실장' 김정렴, 80년 신군부에 보복을 당해 세상을 등졌던 중화학 · 방위산업의 설계자 오원철, 처음 만든 벌컨포의 사격실험에서 유탄에 가슴이 뚫린 이석표, 대통령의 해진 혁대를 회고하며 눈물 짓던 이발사…. 이런 부하들 속에서 박정희는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부하들은 한결같이 박정희의 애국심과 인격을 증언했다. 주군(主君)이 피살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므로 그들에겐 비판의 자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하자(瑕疵)에 관한 증언은 거의 없었다. 대신 청렴과 애국의 추억만 가득했다. 청와대 집무실의 파리채, 변기물통 속의 벽돌, 칼국수 점심…. 그리고 민족중흥 · 조국근대화 · 수출입국 · 새마을운동 같은 전설적 단어들뿐이었다.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증언'은 기자인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는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대통령도 취재했다. 그중 어떤 대통령도 박정희처럼 부하들로부터 일치되고 단결된 칭송을 듣지 못했다. 이들의 부하들은 주군의 공적과 함께 잘못과 결점을 빠뜨리지 않았다. 주군들이 살아있음에도 그러했다. 이것만 봐도 후임자들은 박정희보다 훨씬 불완전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나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가능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특히 "양 김씨는 민주주의도 함께 해냈을 것"이란 말은 더욱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말로 소설이다.

도대체 박 대통령은 어떤 인간이기에 수많은 부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발견한 박정희는 대표적인 '공동체적 인간'이었다. 대다수 사람은 그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동(推動)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지도자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공동체의 개선을 추구한다. 인류문명의 진보와 공동체 발전에 개인의 궤적을 합일(合一)시키는 공동체적 인간…. 그런 인간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였다. 그런 박정희가 나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다.

1960~70년대 한국에서 '공동체 발전'은 안보와 가난 극복, 그리고 경제발전이었다. 민주주의는 그 시대의 과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개발독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시초였다. 민주주의라는 건 경제개발로 중산층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절은 지금과 달

랐다. 북한의 적화(赤化) 위협 속에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선 국력의 비상한 결집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발독재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청렴했으며 그의 독재는 공동체를 위한 개발독재였고 나라를 지킨 애국독재였다.

박정희를 알게 된 이후 나는 '공동체를 속이는 지도자'에게 깊은 반감(反感)을 갖게 되었다. 공동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입만 열면 공동체를 외치면서 현실에선 공동체를 배반하는 사람…. 이런 위선을 고발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부인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해 내가 종교에 가까운 분노를 느끼는 건 박정희 덕이 크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며 3000만 국민을 패배주의의 음지로부터 '하면 된다'의 양지로 이끌어낸 지도자 박정희…. 그가 살아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을 전부 백령도로 데려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죽은 이들이 누구이며, 누가 그들을 죽였으며, 자유민주국가들이 왜 한결같이 살인자를 규탄했는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오늘이 5·16 군사혁명 50주년이다. 50년 전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박정희 소장을 비껴간 헌병대 총탄에 감사한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심ㅈㅅ

공감 8

김진 논설위원의 회고록 읽고 나서
나는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애국 애민 사상 그분의 성품 자질
그리고 나라위해 비명에 가신 그분을
생각 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도 김진님의 회고록읽고 가슴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2011.08.14 00:36:05

[펌] 노정연이 계약한 호화단지 '허드슨 클럽'을 가보니

노정연이 계약한 호화단지 '허드슨 클럽'을 가보니 [2]

최영애(dink0726) [2011-08-14 12:21:23]

조회 289 | 찬성 44 | 반대 1 | 스크랩 0

노정연이 계약한 호화단지 '허드슨 클럽'을 가보니

허드슨강 · 맨해튼 한눈에… 스파 · 소극장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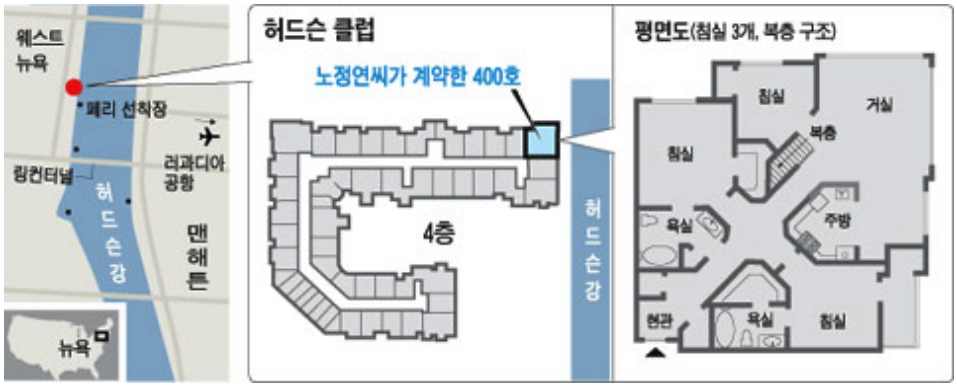
웨스트뉴욕(미 뉴저지주)=박종세 특파원

2009.05.14 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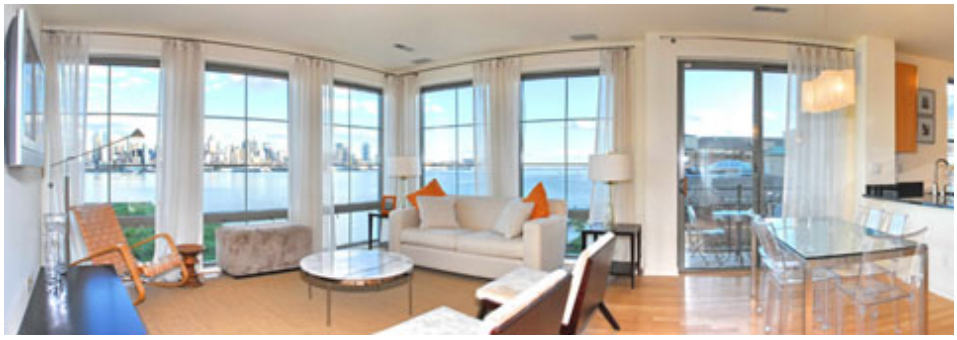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이름으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호화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클럽에 들어서면 허드슨강 건너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파트 경내에는 입주민만을 위한 스파가 딸린 수영장과 대형 헬스클럽, 20석 규모의 소극장,
당구대가 설치된 클럽라운지, 실내 농구경기장과 애완견 컨트리클럽 등이 들어서 있고,
경비요원이 차를 몰고 끊임없이 순찰하며 외부인을 단속한다.

12일(현지시각) 오전 아파트 산책로에는 개와 함께 허드슨 강변을 여유롭게 걷는 입주민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고, 한인들도 눈에 띄었다. 맨해튼 건너편 에지워터 · 웨스트뉴욕 · 위호킨 등
뉴저지지역은 조망권 때문에 가격이 비싼 호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맨해튼으로 출 · 퇴근할 수 있는 페리 선착장이 있다.



정연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는 허드슨클럽 내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다.
맨 꼭대기층인 4층에 위치했고, 바로 허드슨강을 건너 맨해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보이는 곳이다.
2개 동으로 구성된 클럽 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로 침실 3개의 복층 구조로 돼 있다.
한때 160만달러를 넘었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은 다소 내려 133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침실 1개짜리부터 최대 3개짜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뤄진 이 단지는
경기침체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꺼졌음에도 90%가 이미 팔렸다.



▲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40만달러로 계약했다고 알려진 미국 뉴저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거실 모습. 창문 밖으로 허드슨강과 맨해튼의 전경이 보인다./hudsonclubnj.com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2년 세워져 최고급 렌트 아파트단지로 운영되다,
2005년 11월 리노베이션을 거쳐 2006년부터 일반인에게 분양됐다.
정연씨가 잘 아는 한인 부동산업자에게 송금한 2007년 9월엔 이 아파트가
자유롭게 매매되는 시기였다.

클럽측은 현재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밝히지 않았다. 클럽측은 "최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한인들이 많으냐"는 질문에 "다양한 계층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클럽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재 클럽 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다"며 "월 5900달러짜리 렌트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nkfreehope&logId=3936633

소극장까지 갖춘 노정연의 호화주택

애비가 대통령짓 하면 딸이 이런집 사도 되나?

어느놈 등을 쳤나? 박연차 ?

순 도둑놈들~~

당하는 국민만 허리가 휘인다.

박연차에게 온갖 행정상의 편의를 봐준 대가 인가?

김해가는 비행기 안에서 박연차가 자신을 몰라 봤다고 패깡을 부렸다지요?

노무현 정신 계승?

좌빠리들아 노무현 정신이 뭔데?

딸 집사주는 정신?

바다이야기로 서민 노름하게 하는 정신?

북한 퍼주는 정신?
막판에 친인척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산 건축업자 벗겨 먹는 정신?
도대체 뭐가 노무현 정신인가?

이명박 대통령 정책 실패했다고 기회가 왔다고 기회가 왓다고 길길이 뛰는
좌파들꼬라지 보면 정말 허파가 뒤집어 진다. 아서라 말어라~

눈이 부신 박근혜의 태산을 너희 청렴사기꾼 좌파는 절대 못넘는다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린가?

국민은 박근혜라는 정도의 정치인을 이미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된 상태다.

청렴? 도덕성?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청렴이가 결백한테 뺨맞고 가겟다

에이 더런 넘들~~ 어디 그것 뿐이랴~~

좌파 10년 동안 저축은행 돈 뺏아 먹은 죄는 또 어떻구 ?

이쯤되면 부엉이 바위에 안가고 못베기지~~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민주팔이들의 이중성.

미국을 욕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제 자식놈들은 전부 미국인을 만드나?

나라를 팔아쳐먹는 매국노들과 한치의 다름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애국을 입에 담나?

몰상식한 인간들이 청렴한 척 명패를 들고 설쳤다.

천벌을 받을 놈들~~

에이 더런 넘들~~ 부엉이 바위에 안가고 못베기지~~//2

2011.08.14 12:33:48

이런것은 좀 더 자주 올리시지요 !! 저 잡놈들은 머리가 좋칠안아서리 자주 깨우쳐주어야합니다 !!

2011.08.14 13:53:02

[chosun]

****

****

[펌] 노무현의 집사 문재인은 답하라!

문재인은 답하라 [2]

[2011-08-14 14:26:19] 조회 358 | 찬성 66 | 반대 0 | 스크랩 0

문재인은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권양숙의 심부름을 충실히 하고 있는 노무현가의 집사다.

아래 질문은 문재인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앞에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1. 청와대 있을때 권양숙이 매일 소주 두 병씩 마셨다는데 알고 있었는지?

2. 권양숙은 노무현이 자살한 날 한시간이나 뒤에 병원에 나타난 이유가 전날 소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때문이라는데 사실인지?기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3. 요새도 권양숙이 매일 소주 두 병씩 줄기차게 마신다는데 알고 있는지?

4. 집 짓는다고 박연차 한테 빌린 15억은 갚아 주었는지?

5. 그 돈 빌릴때 갚을 생각이나 있었는지?

6. 왜 봉하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전에 명륜동에서 살던집을 팔지 않고 돈을 빌려 집을 지었는지?

7. 노건호하고 연철호가 가져간 돈 500만불은 어떻게 되었는지?

8. 노정연이 뉴욕에 산 아파트는 그냥 먹고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9. 노정연이 경연희(삼성 경주현 사장의 딸)를 통해 거액의 돈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10. 일억 짜리 시계 두개는 참으로 논두렁에 버렸는지? 아니면 지금 누가 차고 다니는지?

11. 혹시 문재인씨 집안에도 노판석,권오석과 연계된 빨찌산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당신은 노건평의 처 민미영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그 녀와 노무현의 관계와 그후 그녀가 어떻게 노건평의 아내가 되었는지 다 알고 있으며,또 노무현의 온갖 치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노무현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노정권시절 과거사진상위원회는 무슨일 어떤짓을 가장 두드러지게 했는지는
이시대 살아 숨쉬는자는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1 ~ 9까지의 질문도 매우 중요하며 문재인씨는 의무적 답변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질문또한 빠뜨리지 말아야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1.08.14 15:07:42

[chosun]

[펌] 준비된 도둑놈 김대중이 의 말.말/ □YS □김영삼의 두가지 죄

2011.08.15 14:16

[펌] [redacted]

준비된 도둑놈 김대중이 의 말.말.말 [1]

[2011-08-15 11:03:50]

조회 96 | 찬성 19 | 반대 0 | 스크랩 1

2. 김대중의 어록

"이 김대중은 일생동안 거짓말이라고는 해 본적 없습니다" (1997. 10. 8일 관훈클럽)

"저는 일생에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청중들 폭소)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 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것 하고는 다릅니다".

우스워 죽는줄 알았내.

1) 김대중 2001년 북한 다녀와서 한 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 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 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2) "이 김대중은 돈을 돌보듯 합니다"(1967년 6월 4일 오후 2시 목포역전 광장에서 행한 DJ의 국회의원 선거 유세).

3) "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가족은 무재산 가족이 될 것입니다"(1997. 10. 8일 관훈클럽)

새끼들 까지 도둑질 시킨놈이...

4) "국민 여러분, 이 김대중은 이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가족들이 모두 도둑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2002.6.21 일간지 일동)

(자서전 에서 는 새끼들이 억울하다며?)

5) "이 김대중이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 상금을 국가에 내놓겠습니다"(중앙일보 2000.12.11)

"노벨평화상은 한국국민 모두의 업적으로 받은 상이니 만큼 저는 상금(11억 2,222만원)을 노벨상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6) "노벨평화상 상금은 이 김대중의 것입니다"(2001. 12.10 조선일보).

(돈 이라면 환장하는 놈이 별수 있~꺼~써?)

"노벨 평화상 상금은 아태재단에 넣어두었다".

7) "노벨평화상금을 김정일에 바치려 합니다"(2002.5.20 중알일보, 세계일보, 신동아 2002.6월호)

"노벨상금과 그 이자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기탁할 것이다.

그들은 6.15 기념관을 지을 것 이다".

도둑놈 이 끝까지 거짓말 이~랑~껭.

10) "김정일은 나쁜 놈입니다"(1997.10.8 관훈클럽)

(나쁜놈 이라면서 밑의 개소리 늘어놓냐?)

11) "김정일과 담판하여 노동당 규약을 개정시키겠습니다"(1997. 10. 8일 관훈클럽)

(노동당 규약을

6-15선언 으로 바꾸는 개같은 행티 를 하냐?)

12)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000년 2월9일 도쿄방송)

13) "김정일 총비서는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한다".(2000. 2.28. 독일 슈피겔지)

14)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래 우리 민족 전

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대중,2000년 6월 1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영만찬사)

15) "그는 차가운 심성의 이론가로는 보이지 않았고, 예리하고 감수성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의 행동은 대단히 유교적이어서 매우 예의바르고 나를 연장자로 배려해 주었다. 그의 말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서방측 평가가 맞다고 생각해 왔으나, 김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크게 왜곡됐다."
(김대중, 2000년 7월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

개자식아.
돈을 몇조원 씩 가져다 바치는대
그 정도 도 않해 주것냐?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oo님의 마지막 큰글내용이 내속을 시원하게 하는군요?

2011.08.15 12:10:50

[chosun]

[펌] YS 김영삼의 두가지 죄

ys의 두가지 죄(펌) [1]

[2011-08-15 10:36:35] 조회 192 | 찬성 38 | 반대 2 | 스크랩 0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로 문민시대를 지연시켰다.
90년엔 집권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3당 합당에 나섰다.
대통령이 돼서는 아들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방치했다.
집권 막바지엔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

98년 퇴임하면서 YS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YS는 퇴임 후에 새로운 잘못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안풍(安風)' 사건이다.
이 사건은 96년 4월 총선 때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현재 국정원) 계좌에서 940억원을 빼내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2001년 김대중 정권의 검찰은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을 기소했으며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국고횡령범'으로 낙인 찍힌 후 5선 의원 강삼재는 정계를 은퇴하고 전국을 유랑했다.
진실은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산에만 올라갔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진실은 그러나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
2004년 2심 재판에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YS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는 강삼재의 증언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YS가 대선잔금을 안기부 계좌에 숨겨두었다가 꺼내서 당에 준 것'이라는 관측이 정설(定說)로 돌았다.
노영보 2심 재판장은 문제의 돈은 국고가 아니라 외부자금이라고 판단하고 강삼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92년 대선 때 YS의 요구로 3000억원을 만들어 주었다고 폭로했다.

YS측은 부인하지만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YS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살포해 대통령이 된 셈이다.
더 큰 잘못은 남은 돈을 숨겨놓았다가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개혁의 사도'가 뒤로는 거액의 비자금을 뿌렸으니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YS는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은폐했다.
자신의 심복과 자신이 한때 총재였던 정당이 국고횡령범으로 몰렸는데도 그는 사실을 숨겼다.
조직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앞세운 것이다.

YS의 또 다른 잘못은 현대사를 난도질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초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외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을 요청했다.
그 전에는 군사정권, 박정희(처럼) 쿠데타 한 놈들이니까 안 왔다"고 했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보수 · 우파 근대화 세력의 뿌리를 '놈'이라 지칭한 것이다.

YS의 독서량은 세계 국가지도자 중에서 최저수준이다.
독서가 부족하니 세계사에 무지한 것이다. 많은 학자는 20세기 역사에서 쿠데타를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한 5인의 혁명가를 인정한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이다. 일본 메이지 천황, 터키 케말 파샤, 이집트 나세르, 페루 벨라스코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다.

박정희가 '놈'이라면 터키의 국부 케말도 놈이요 중동 근대화의 선구자 나세르도 놈이다.
조선 500년을 개국한 이성계도 놈이다.
쿠데타라는 방법론만으로 '놈'이라고 하는 건 대학 신입생 운동권 수준이다.
따지고 보면 YS가 저지른 3당 합당도 총선 민의를 뒤엎은 쿠데타다. 세계관이 미약하니 욕 소리만 크다.

79년 박정희 정권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일찍이 역사의 새벽을 열었던 젊은 닭의 외침이 이제는 노계(老鷄)의 처연한 울음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무상(無常)인가.

김진 논설위원 · 정치전문기자

찬성 | 반대 | 신고 글쓰기 | 답글 | 스크랩 | 목록

댓글쓰기 [1]

best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설을 몸소 실천해주신분이셨지요.세상에 아비는 大統領하고 자식은 小統領했던나라는 일찌기 유래가없었지요.죽기전에 철들려나 모르겠습니다..멸치팔아 갑부된 부잣집도련님으로 평생을 대통령 병을 달고다닌사람,평생을 입으로만 민주화를 외쳤던사람,자식하나 제대로 건사못해 국정을 농단해도 그저 허~허~웃고넘어가는 사람,자신으로인해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속에 몰아놓고서도 얼굴 꼿꼿히 쳐들고 지금도 인터뷰에 응하는사람,...대체로 이정도로 요약이되는분이 김영삼 전대통령이시지요..

2011.08.15 11:52:59

[chosun]

****

****

[펌] 김영삼의 罪 !!

김영삼의 罪 !! [0]

[2011-08-15 09:13:11] 조회 251 | 찬성 44 | 반대 4 | 스크랩 0

(펌)

YS(김영삼)는 역사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유신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 그는 민중항쟁의 도화선이었다.

80년대 5공 군사정권에 맞서 YS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5공 마지막 해인 87년 그는 DJ와 함께 민주혁명을 이끌었다.

93년 대통령이 돼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다. 이른바 '칼국수 개혁' 이었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가 핵심적인 것이다.

YS는 그러나 과오도 많이 남겼다.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로 문민시대를 지연시켰다.
90년엔 집권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3당 합당에 나섰다.

대통령이 돼서는 아들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방치했다.
집권 막바지엔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

98년 퇴임하면서 YS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YS는 퇴임 후에 새로운 잘못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안풍(安風)' 사건이다. 이 사건은 96년 4월 총선 때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현재 국정원) 계좌에서 940억원을 빼내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2001년 김대중 정권의 검찰은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을 기소했으며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국고횡령범' 으로 낙인 찍힌 후 5선 의원 강삼재는 정계를 은퇴하고 전국을 유랑했다.
진실은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산에만 올라갔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진실은 그러나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 2004년 2심 재판에서
"청와대 집무실에서 YS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 는 강삼재의 증언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YS가 대선잔금을 안기부 계좌에 숨겨두었다가 꺼내서
당에 준 것' 이라는 관측이 정설(定說)로 돌았다.

노영보 2심 재판장은 문제의 돈은 국고가 아니라 외부자금이라고 판단하고 강삼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92년 대선 때 YS의 요구로 3000억원을 만들어 주었다고 폭로했다.
YS측은 부인하지만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YS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살포해 대통령이 된 셈이다.
더 큰 잘못은 남은 돈을 숨겨놓았다가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개혁의 사도'가 뒤로는 거액의 비자금을 뿌렸으니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YS는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은폐했다.

자신의 심복과 자신이 한때 총재였던 정당이 국고횡령범으로 몰렸는데도 그는 사실을 숨겼다.
조직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앞세운 것이다.

YS의 또 다른 잘못은 현대사를 난도질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초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외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을 요청했다.

그 전에는 군사정권, 박정희(처럼) 쿠데타 한 놈들이니까 안 왔다"고 했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보수·우파 근대화 세력의 뿌리를 '놈'이라 지칭한 것이다.

많은 학자는 20세기 역사에서 쿠데타를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한 5인의 혁명가를 인정한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이다. 일본 메이지 천황, 터키 케말 파샤,
이집트 나세르, 페루 벨라스코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다.

박정희가 '놈'이라면 터키의 국부 케말도 놈이요 중동 근대화의 선구자 나세르도 놈이다.
조선 500년을 개국한 이성계도 놈이다. 쿠데타라는 방법론만으로 '놈'이라고 하는 건

대학 신입생 운동권 수준이다.

따지고 보면 YS가 저지른 3당 합당도 총선 민의를 뒤엎은 쿠데타다.
세계관이 미약하니 욕 소리만 크다.

79년 박정희 정권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고 했다.

일찍이 역사의 새벽을 열었던 젊은 닭의 외침이
이제는 노계(老鷄)의 처연한 울음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무상(無常)인가
.

[chosun]

****

****

[펌] 3김은 어찌 저리 더럽게 늙었을꼬

어찌 저리 더럽게 늙었을꼬 [0]

[2011-08-15 08:02:16] 조회 330 | 찬성 74 | 반대 2 | 스크랩 0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들 치고 저리 추접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도 드문 것 같다

김대중은

국장에 곤룡포까지 입고 갔다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고정간첩 김대중, 빨개이 김대중이란 생각뿐이다..

진실이 없었던 연극배우의 삶 같기에 그 어떤 말도 모습도 기억할 가치를 못느낀다...

김종필은

5. 16의 멤버였고 국무총리를 지내며 대선의 판에서 어김없이 참여하던 멤버였다

박정희의 곁에 있되 결코 두팔 걷어 부치지 않고 온전히 귀족적인 삶을 구가하던

정치귀족 김종필의 몰골은 이제는 한물간 창녀와 다름없이 천박하다

살아도 더이상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김영삼은

이제나 저제나 참으로 팔팔하다

정치는 김영삼의 일상생활이요

이 나라는 정치게임의 장기판이요

국민들은 장기판의 돌들로 보이는 대단한 심성의 소유자

이 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독재를 홀로 즐기고 있는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인다

날로 추악하게 변하는 자신의 몰골을 큰 절 받는 재미로 메꾸는 공허한 존재

이들 3김이 긴 세월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이리 초라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짧은 생 후회없이 나라위해 살다 떠난 사람

영웅 박정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입장이기 때문인 것이다~ !

[chosun]

독도에 관한 박정희와 김대중의 진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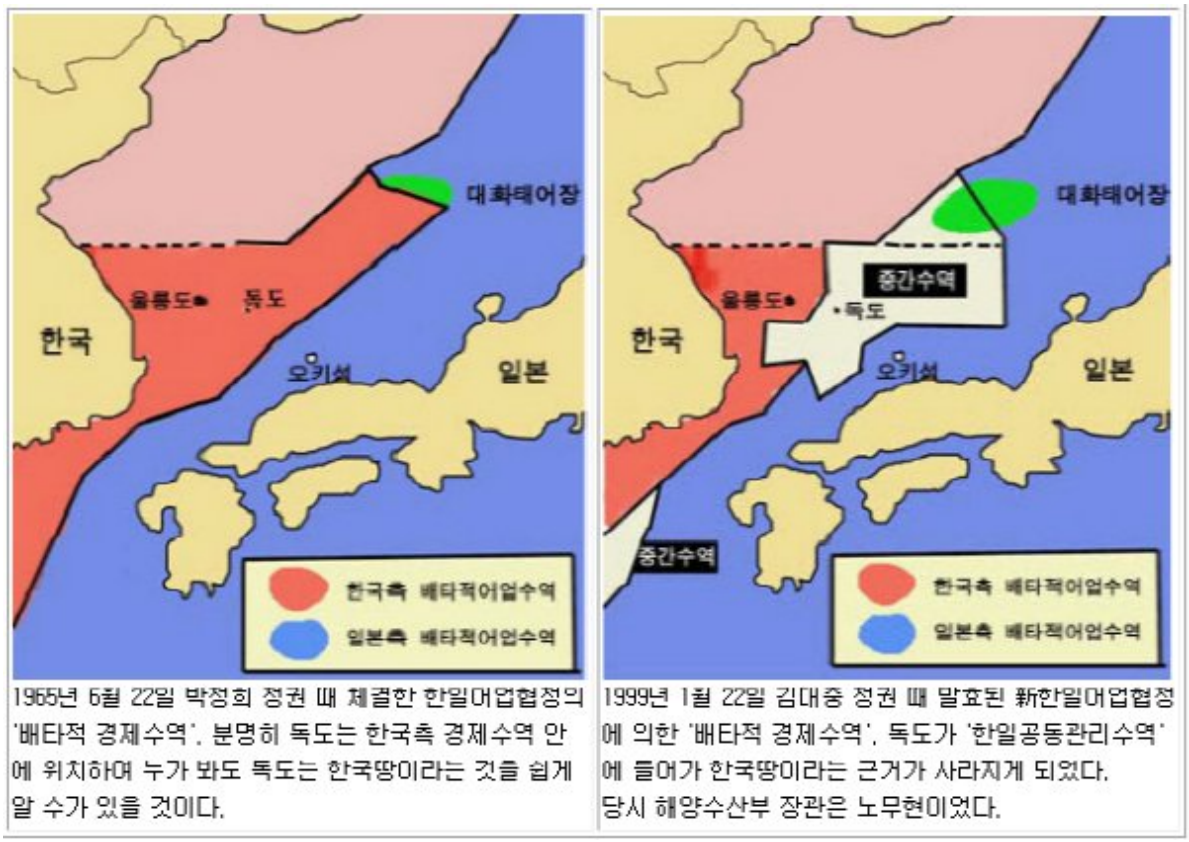
2011.07.16 13:43

[펌]

독도에 관한 박정희와 김대중의 진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권 때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명히 독도는 한국측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여 누가 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1999년 1월 22일 김대중 정권 때 발효된 新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다.

※ 1965년에 체결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어진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는 (위 우측지도 참조)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daum / 박사모]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03&newsid=20110623010807916&p=joongang

[J 스페셜 - 목요문화산책] 박수근 그림이 박완서 구원했다

명화로 읽는 고전 6 · 25가 맺어준 기묘한 조우…박수근과 박완서

중앙일보 | 문소영 | 입력 2011.06.23 01:08 | 수정 2011.06.23 10:34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제주

[중앙일보 문소영] 지금부터 61년 전 이맘때, 서울대에 갓 입학한 여학생은 꿈과 자부심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곧 터진 한국전쟁으로 학업은 고사하고 전쟁 통에 죽은 오빠 대신 가족을 먹여살려야 했다. 그녀는 간신히 미군 PX 초상화 가게에 취직했다. 지나가는 미군을 붙잡고 "돼먹지 않은 영어로" 가족이나 애인 초상화를 주문하라고 꾀는 일이었다. 그 일의 모멸감 때문에 그녀는 점점 성격이 황폐해지면서 가게 화가들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이때 한 순하고 과묵한 화가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됐지만, 서로가 뒷날 한국 문단과 화단의 큰 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소설가 박완서(1931~2011)와 화가 박수근(1914~1965)의 이야기다.

그림 ① 나무와 여인 (1956), 박수근(1914~1965) 작, 하드보드에 유채, 27 x19.5 ㎝, 갤러리 현대 제공.

올해 초 타계한 박완서 작가는 바로 자신의 PX 경험담을 바탕으로 데뷔작 『나목(裸木)』(1970)을 썼다.

이 소설에 나오는 화가 옥희도는 박 화백을 모델로 한 것이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옥희도의 그림 '나무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박 화백의 실제 작품(그림①)으로, 지난해에 열린 그의 45주기 회고전에 전시되기도 했다.

그림 ② 절구질하는 여인 (1954), 박수근 작, 캔버스에 유채, 130 x 97 ㎝, 갤러리현대 제공.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춥디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그림 속 나무를 묘사하며 박 작가는 옥희도가, 즉 그 모델이 된 박 화백이 나목과 같다고 했다. 전쟁의 비참한 시대, 미군에게 싸구려 초상화를 팔아 연명하면서도 담담한 의연함을 잃지 않던 모습에서 말이다.

그런데 박 작가의 PX 생활과 박 화백과의 만남은 소설 『나목』에서보다도 수필 '박수근'(1985)에서 한 층 더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허구가 가미되지 않은 사실이 지니는 날것 그대로의 생생함, 그리고 그것을 짧은 수필에 날렵하고 감칠맛 나고 박력 있게 풀어낸 박 작가의 더욱 원숙해진 글솜씨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 작가는 당시 PX 초상화 가게에 박 화백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궁기가 절절 흐르는 중년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다고 묘사한다. 모두 간판 그리던 사람들이라고 가게 주인이 말하기에, 박 작가는 그런 줄 알았다고 한다. 그녀는 여기서 초상화 주문 끌어오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수줍고 꽁한 성격에 말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주문이 끊긴다는 화가들의 아우성에 (이때도 박 화백은 아우성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미군에게 "뻔뻔스럽게 수작을 거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림 주문이 늘어나자 이번에는 화

가들에게 '싹수없이 못되게 굴었다'.

"서울대 학생인 내가 미군들에게 갖은 아양을 다 떨고, 간판쟁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급의 예술가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희들의 일거리를 대주고 있는데, 그만한 생색쯤 못 낼게 뭔가 싶었다. 나는 그때 내가 더 이상 전락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전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불행감에 정신없이 열중하고 있었다."

그림 ③ 귀로 (1965), 박수근 작, 하드보드에 유채, 20.5x36.5 ㎝, 갤러리 현대 제공.

혹자는 박 작가가 전쟁의 쓴맛을 덜 봐서 학벌 타령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와 가족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란을 가지 못하고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 점령한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죽을 위기를 이미 몇 차례 겪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전쟁의 현장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던 젊은 영혼은 순수한 긍지가 변질된 추한 우월감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으리라. 그 자괴감 섞인 우월감으로 더 불행해질망정.

그 불행에서 박 작가를 구해준 것이 박 화백이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화집을 가져와 '망설이는 듯한 수줍은 미소'를 띠며 관전(官展)에서 입선한 그림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시골 여인이 절구질하는 그림이었는데, 박 화백은 전후에도 이 소재로 종종 그림을 그렸다(그림②).

박 작가는 간판쟁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박 화백은 왜 그림을 보여주는지 설명이 없었고, 그 뒤로도 여전히 조용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완서 (1931~2011)

박수근 (1914~1965)

인간 자체를 직시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해 준 것처럼,

"그가 신분을 밝힌 것은 내가 죽자꾸나 하고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는 그다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불행에만 몰입했던 눈을 들어 남의 불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중략) 그에 대한 연민이 그 불우한 시대를 함께 어렵게 사는 간판쟁이들, 동료 점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균열을 일으킨 내 심정을 축여 오는 듯했다."

이 에피소드는 박 작가의 자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에도 나오는데, 박 화백의 배려가 언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물 같다고 쓰여 있다. 화가의 성품이 자기 작품과 딴판인 경우도 많건만 박 화백은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닮았던 모양이다. 그의 그림은 색채 톤이 과묵하고, 그 오래된 화강암의 표면 같은, 또는 갯벌의 흙 같은, 또는 늙으신 어머니의 손등 같은 질감에 인고의 무게와 따스한 체온이 배어 있다(그림③).

그 후 두 사람은 박 작가가 결혼을 해 PX를 그만둘 때까지 1년가량 우정을 이어갔지만 소설 『나목』에서처럼 연애 감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수필 끝부분에서 박 작가는 그녀의 눈에는 살벌하게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박 화백의 눈에 "어찌 그리 늠름하고도 숨쉬듯이 정겹게 비쳤을까" 신기하다고 했다. 그건 박 화백이 "나는 인간이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말을 실천했기 때문이리라.

타인과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가장 추하고 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전쟁, 그러나 그 안에서 한 줄기 희망과 위안을 주는 것도 역시 인간이라는 아이러니를 박 작가의 이야기와 박 화백의 그림은 오늘날에도 절절히 말해주고 있다.

박완서, 그 많은 작품 낳은 건 6·25

한국전쟁은 박완서 작가가 수많은 작품을 낳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중 논픽션에 가까운 자전적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한국전쟁의 미시사적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이 작품을 보면 1·4후퇴 때 서울에 온 인민군은 시민의 굶주림 문제는 아랑곳없이 선전예술 공연과 우파 색출에만 골몰하고 북으로 철

수할 때는 노인들은 따라가길 원해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은 강제로 끌고 갔다. 박 작가는 이때 끌려가다 용케 탈출했다. 또 6·25 발발 때 시민을 내버려 두고 먼저 도망친 남한 정부는 돌아와서는 인민군에게 밥 해줬다는 이유로 숙부를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이때의 경험이 작가가 전후에 어느 쪽 이념에도 쏠리지 않고 인간을 직시하는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문소영 기자 〈 symoonjoongang.co.kr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J-Hot]

▶ 북한 국보급 미녀 쌍둥이, 속한 소속 자체가…

▶ 혜민스님 만난 리처드 기어, 주변서 "대담 끝내자" 하니…

네티즌의견 (총34개)

등록순| 추천순| 내 댓글 목록

베스트 댓글

여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글 말미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을 인간답게 넘어가게 해 준 것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박수근 화백의 인간미였고,

그의 깊은 품성이 박완서 작가의 마음을 녹여 주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 줄 수 있는 것은

명품도 외제차도 아닌

바로 인간 그 자체의 순수한 품성,

상대에 대한 자비와 연민,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물신숭배에 깊이 빠져 인간의 근본을 잃고 있는..

07:43|삭제신고

답글 2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2 0

Hxx님다른댓글보기

삭제 고맙소 (박수근님과 박완서씨가 전해달랍니다.) 08:02|삭제신고

여xx님다른댓글보기

삭제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품성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

07:44|삭제신고

베스트 댓글 정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렇게 시련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준다.

박완서님 명복을 한번더 빕니다.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07:19|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0 0

베스트 댓글 O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저런 만남과 인연은 아름답고 흐뭇한 것이다.

드라마"야망의 계절"에서 작가와 리명박은 천하 최악의 인연이다.

4천7백만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만남.

덕분에 리밍박 역을 연기한 유인촌이는 문화관광부장관도 해먹었지.

힘있는 엉터리 장관.

이상한 종자들의 이상한 각본과 연기에 나라가 망한다.

09:08|삭제신고

답글 1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5 4

등록

Axx님다른댓글보기

삭제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술과 정치가 잘 못 만나...명박이가 땅박이 쥐박이 된거죠..ㅎ 09:39|삭제신고

베스트 댓글 A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6.25가 가까워 지면서 선생님의 글이 회자 되는군요.

벌써 선생님 떠나시고 두계절이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 진다고 걱정하시던 선생님..

이 땅에도 봄은 오겠지요.

항상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항상 평온하세요.

그립습니다. 선생님. 08:44|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4 0

베스트 댓글 심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던 박완서님도 현명한 분이다. 박수근님은 다른 사람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과 상처를 들여다볼 줄 아는 분. 겉보기 행동만 보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될지도.. 08:41|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0 0

베스트 댓글 dxx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박완서 선생님... 분명 인간적으로도 단점도 장점만큼이나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글을 읽노라면. 아 이분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더 친근감

이 느껴진다. 인간에 대한 솔직하고 통렬한 시각. 때론 추악하고 때론 아름다운 그

깊고 깊은 인간의 속내를 이분만큼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이 또 있을까.

문득 그의 새로운 글을 다시 읽지 못한다는 현실에 서글퍼진다.

09:50|삭제신고

답글 2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7 1

베스트 댓글 별xx0328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몇달전 "그많던 싱아"와 '그산이 정말,,," 두 권을 단숨에 읽고 한동안 그 여운에 허덕이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박완서님의 대단한 필력에 매료되었던,,,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 시대의 실상과 삶을 어찌나 생생하게 묘사하셨던지,,,마치 제가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시대의 비참함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그 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작품이었어요,,,
3편이 너무 기대되었는데,,,아쉽게 없더군요,,,
감사해요,,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09:50|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6 0

베스트 댓글 제xx 편지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큰 거목의 1년여간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라 하겠다.
전쟁이라는 어려운 현실에서 두 예술가의 고뇌를 잘 표현한 나목.
어려운 역경속에서 이미 화가 였으면서도 간판쟁이라는 멸시를 담담히 받아들이던 박수근 화백과 나목과 정말 거기 산이 있었을까라는 책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나라의 역사적 기록으로서가 아닌 박완서 작가가 직접 경험한것을 토대로 썼기에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10:35|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5 0

베스트 댓글 pxxx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런 기사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다니... 이미 책을 통해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새로운 사실인 듯 반갑게 읽었습니다. 드라마나 기사를 재탕하는 맞춤 법도 틀린 기사들이 넘쳐 나는 곳에서 모처럼 기분 좋아집니다. 10:27|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5 0

베스트 댓글 두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박완서 님의 책들은 학생들이 읽어야할 필독서이더군요...굳이 소설을 논하지 않더라도 박완서

님의 글은 사료나 근 현대사 한국사의 아픔에 관한 철저한 논증입니다.. 10:05|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4 0

베스트 댓글 등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중요한 것은 좌우에 지우치지 않고 인간을 직시한다는 것이다 10:00|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4 0

베스트 댓글 풀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박완서씨의 처녀작 장편소설 '나목'...시대의 아픔과 황폐함 속에서 질긴 생존의 부대낌들을 적어나간 글...읽어면서 쭈욱 빠져들었었죠

당시 지식인들 대개가 부패한 남한 사회보단 북의 이념을 쫓았고 교편잡던 작가의 오빠도 천정을 떼내고 숨겨야했던 장면이 잊히지 않네요.. 09:19|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4 0

베스트 댓글 고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박수근 -- 위대한 한국의 화가 -- 그러나 생전엔 경제적으로 고생만 하셨고 - 돌아가신 후에는 그림 장삿꾼들 배만 불리셨지요 -- 10:11|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 0

베스트 댓글 vxxx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전쟁통에 살아남기위해 초상화를그린 다수중에 유독 미술공부도 하지않은박수근씨만 화가로 미화하고 정작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분들은 간판쟁이로폄하 하는것은 한사람을 미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희생되어왔는지 문학 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이 변질되어 일반적인 사고로 보편화되어지는과정을 보면서 얼마나많은 진실이 거짓과 서로 뒤

엉키어 있는지 복잡한 혼돈의시대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고가 오늘을사는 현대인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09:55|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 4

베스트 댓글 도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사랑합니다.. 09:18|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 2

베스트 댓글 vxxx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편견과 왜곡의 절정이네요... 09:05|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 9

베스트 댓글 꿈은 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책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실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 08:34|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3 0

베스트 댓글 J.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박완서님이 더이상 새로운 글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박완서님의 새로운것을 더이상 만날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많은 그리움을 준다... 09:54|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 0

베스트 댓글 Dxx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책 세권을 가져다가 요약, 짜깁기한 기사;;; 기사작성은 도서관에서? 09:38|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 4

베스트 댓글 마xx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나목을 책으론 못읽어보고 특집 드라마로만 봤는데 거기서 박수근화백의 그림이 타이틀 배경이여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깊은 관련이 있는거였군요. 09:34|삭제신고

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 0

글쓴이 검색

내 댓글 목록 | 아고라 토론방 가기

1 2

[중앙일보/daum]

[펌글] 利判死判 工事判 (이판사판 공사판)

2011.04.17 15:39

http://fo
bbs_id=10119&message_id=701255&current_sequence=zzzzz~&start_sequence=zzzzz~&start_page=1&current_page=1&dire

利判死判

최영애(dink0726) [2011-04-15 10:03:24]

利判死判　工事判?

판을 자꾸 벌려야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어쩌면 맞을 것도 같다
國民이 窮民이 되어 죽음직전에 있던 말던 죽기 살기로 토목 공사판을 벌리려는 의도가 참 한심하다.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나지 않고 지류에서 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렷건만 4대강 공사가 완성단계이
것은 이미 4대강 공사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앞뒤 분간도 없이 꺼덜먹 거려서 4대강 공사를 밤낮없이 진행한 결과가 이모양 이꼬라지가 된 것이다. 지

썩은물을 국민들이 식수로 걸러 마셔야 하다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수십조의 돈이 하늘로 훨훨 날라가는 것이
아야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집스레 밀어부친 결과가 이모양 이꼴이 났으니 갑자기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4대강 본류에 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하상을 다시 높이고 보를 폭파하여 원

지류사업 2011~2015년, 2016~2020년까지 공사??

정부, 1단계 예산 15조1천900억원 확정??

누구 마음대로?
국민은 그렇게 큰 토목공사를 동의해준 적이 없다.
차기 정권이 할일을 지금부터 설계한다는 것이 참 오지랍도 넓은 정권이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시건방이 도를 넘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 당신 아니래도 대한민국 이제껏 잘 꾸려 왔습니다. 그만 물러서세요.
도대체가 토목공사판으로 국민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빈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뭐를 어쩌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이명박의 토목공사 때문에 쓰러질수 있다는 국민의 절박감이 엄습한다. 이건 솔직히 말해 I

미안하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이명박 당신이 만든 4대강의 보때문에 썩은물을 국민들이 마실수가 없기에

국민을 대강 못살게 하고 그만 퇴임시간까지 땜방질이나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명박 당신이 할수 있는 :

그렇게 토목공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利判이 아니면 死判입니까?
이런분을 정상에 올리겠다고 그처럼 난리를 친 조선일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수 없다.

ps)
利 (이로울이, 이득이)
死 (죽을사)

----------아래기사 펌 ----------

4대강 지류사업 1단계에 15조, 2단계 포함땐 30조

정부, 1단계 예산 15조1천900억원 확정

2011-04-15 09:32:35

4대강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에 총 15조1천900억원, 그리고 (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 환경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15조1천900억원의 예산으로 올
께 한강 복하천 등 전국 20개 지류의 수질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류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 15조1천900억원을 들이는 내용의 '지류 정비사업 종합
수 피해 방지(국토해양부) 6조2천억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농식품부) 5천400억원 등이다.

수질 개선사업 대상 20개 지류는 상수원으로 강물이 흘러들어 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

국토부의 홍수 피해방지사업(356개 하천)은 4대강에 유입되는 도심 인근의 지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부는 이 사업을 2011~2015년, 2016~2020년 등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비 15조1천90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단계 사업의 대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1단계 사업 예산까지 확정했으나 비판여론이 일면서 4.27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
이다.

김혜영 기자

펌글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와 박정희대통령 [5]

김현식(vivacorea) [2011-02-03 01:32:15]

조회 724 | 찬성 76 | 반대 3 | 스크랩 2

이휘소 박사의 한국 核개발 참여 과정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이휘소박사...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계기에 새삼 이휘소박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너무 아까운 인재에 가슴이 아리기도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이 휘소박사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교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수석 합격

화공과 2학년 재학중 도미,마이야미대학 물리과로 편입,
피츠퍽대학 석사,펜실바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27세에 프린스톤연구소 위원,그 당시 미국에서 10명에 꼽히는 물리학자가 되었고,
28세에 뉴욕주립대학 정교수,30세에 시카고대학 교수겸 페르미연구소 물리부장으로 취임
명실공히 세계 핵물리학자중 1인자로 부상했다

74년에 방한,서울대에 AID 차관에 의한 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주었으며,
77년 주한미군 철수가 시간문제로 대두되자 조국에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개발원리를 제공하고 같은 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1962년 국제 고에너지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할 정도의 이휘소박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핵 과학자 10명속에 끼이게 되었다

외국인으로 거기에 든 예는 과거에 없었고,
아직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낀 것은 특별한 예외에 속한 것이었다

국제 고에너지회의는 이탈리아의 프리에스트에서 7월 15일부터 45일간 계속되었는데
미국의 핵 과학자 10명이 거의 행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이휘소가 프리스톤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4개가 회의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백 여명의 학자중 이휘소가 가장 젊었다

당시 이휘소는 핵의 이론과 소립자의 단위와 그들의 생명의 기간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강연을 했고,
세계석학전원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끝나자 이휘소는...
"저는 미국 국민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가난하고 분단된 국가에서 태어나 미국에 유학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국적을 언제인가 옮길 줄은 모릅니다만,핵을 만들고 핵을 이용하는 것은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을 저개발국가의 복지에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핵을 전쟁무기로 생각하는 인식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휘소의 이 말에 모두 또 감격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기립박수를 하였다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젊은 이휘소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 국내신문에도 이휘소가 국제물리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한 기사가 일제히 나왔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보는 박사학위 시험결과도 전체 평균 93점이었고,
차점 합격자의 평균 71점인 것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차이이다

펜실베니아대학 역사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물리과 지망생 중 미국 전대학 역사에도 없는 점수라고 말한다

고아인쉬타인박사가 일하던 곳의 프리스톤 고등연구소의 프레이즈 박사가 찾아와
대담을 요청할 정도였다

귀하의 성적은 펜실베니아대학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물리과 박사학위 지망생 중에서 역사 이래 가장 뛰어난 성적이라는 게
저희 연구소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귀하의 시험지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이론의 전개나 학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소의 검토결론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으로서 이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는가고 묻는 이휘소와의 대담은 생략하고...

프레이즈박사는 정중히 이휘소를 연구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초빙을 하면서,
귀하를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더구나 저희 연구소에 오시게 된 것도 환영합니다
귀하가 미국에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휘소는 1960년 1월 프리스톤의 정연구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휘소의 담당교수인 크라인교수가 기뻐해 주었다

세계 석학의 집결지인 프리스톤연구소에 30세도 안된 사람이
정회원(당시 25세)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대통령과 이휘소...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던 이 휘소박사,

박대통령이 보낸 편지...

〈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뵈온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사님의 소식은 이 곳에서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저대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나라는 어지렵고,국방은 허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박사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단계이고,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후면 한국에 남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인도 미국정부측에 몇 번 자제를 호소하고,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더 이상 구걸하는 것도 추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무엇하지만,
그래도 애원해서 들어줄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본인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입니다

이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들어줄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구걸 행각으로 국가의 이미지만
손상을 보는 추한 모습을 또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과학자들을 본국에 초청한 것이나 귀국시킨 것도 이런 저의 뜻을 일부입니다
이박사님을 초대하거나 모시지 못한 것은 박사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중론에 못이기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박사님의 능력을 추앙하고 박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그러나 조국은 위태로와 졌고 사정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이미 카터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여기서 비굴하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굴한 기운만 보이면 깔고 뭉게는 묘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존하던 시대에 종막을 고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자체가 독자적으로 미사일개발,핵무기개발,인공위성개발까지 해서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라린 경험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
우리 백성들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이박사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휘소박사님, 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74년엔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이박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박사의 마음에 달리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재미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개발부터 서둘렸고,
또 시험도 해 보았지만,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박사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 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도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상황 앞에서,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희 배상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휘소는 편지를 읽으면서 참담한 심경 속에 사로 잡히었다
암담한 기분이었다

이휘소는 그날 (1977.3.20) 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할 때라는 절박한 내용이었다

내가 핵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처음에는 적성에 맞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나의 목적은 핵연료를 이용한 인류의 구원이었다

핵에너지를 이용한 자원의 개발,자원의 새로운 창조는 무한히 열리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내 생애를 바치었다

또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조국이 공산화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할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아니,지금 조국이 내가 겪은 6.25나 그보다 더한 비극의 문턱에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국은 월남에서 손을 떼었고,또 한국에서도 손을 떼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조국이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철수...조국의 공산화...이런 것을 보면서 핵을 자원의 개발에만
목적을 두었던 나의 신념이 흔들린다면...그것은 잘못된 판단일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조국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핵개발의 원리를
제공한다면...그것이 조국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면...

비록 박대통령이 유신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라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조국의 현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조국을 살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죽어 조국이 조국으로 남고,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면...나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

하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너만이 지금 너의 조국을 구할 수 있다는
명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일까?

조국은 나에게 너는 너의 능력을 이때에 쓰지 않으면 너는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살신성인...견위치명...멸사봉공...진인사대천명...나의 운명...
어머니...아내,아이들,그리고 형제들...하늘이여...무엇이 참다운 삶이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안내하여 주소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박대통령과 이휘소박사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
박대통령의 두번째 편지...

〈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편지를 받으셨을 것 입니다

무례한 것 여러가지 용서하십시요
제가 박사님께 편지를 띄운 후 이십 여일 동안 미국은 저나
한국정부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미사일부대 완전철수에 이어
지상군 17000여명을 철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해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이라도 귀국하여 주십시오

박사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박사님의 귀국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절박하고 상황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다시는 미국측에 비굴할 수도 없고, 비굴하지도 않겠습니다

박사님,다시 청하오니,귀국하여 주십시요.〉

1977년 4월 8일
대한민국대통령 박 정 희 배상

이휘소는 하얗게 밤을 새웠다
그리고 스케줄을 더듬어 보았다

4월 8일 하바드대학특강.
5월 20일 동경제대학술회의 참가등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성단계에 있는 "히고스입자에 미치는 강작용의 영향"이란
방대한 논문도 며칠내로 마쳐야 한다

이휘소는 광적으로 논문에 매달렸다
이 논문은 특히 Dimu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Quigg Thacker와의
관계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한 논문이다
4월 25일 탈고를 끝낸 이휘소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하버드대학에서의 특강을 끝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마음으로 5월의 동경대학에서 있을 학술회의를 기다렸다

1977년 5월 15일,
이휘소는 시카고 변두리에서 외과의 개업을 하고 있는 김박사를 찾아갔다

이휘소는 김박사에게...
"사실은...의논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휘소는 김박사에게 솔직히 그 동안의 상황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까지 설명했다

북한은 소련에서 수입한 사정거리 50Km가 되는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50Km라면 휴전선에서 서울은 물론 수원 인천까지 미치는 거리다
 휴전선에서 한강다리 전부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다
그럴 경우 무기가 없거나 상대에 못 미치는 무기를 가지고 덤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를 이미 시작했고 다시 미국에 사정하고 애걸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도 할 일이 아니며,그런 꼴을 이휘소도 보고 싶지 않다

74년에 귀국했다가 박대통령의 부탁으로 당시 미국내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시정하여 달라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한
나로서도 다시 그럴 수는 없다

이휘소는 대강 이런 설명을 하고 투명용지에 쓴 서류를 내밀었다
가로 10여센티 세로 4센티 정도로 밀봉이 되어 있는 문서였다

그것은 이휘소가 따로 정리한 것을 다시 50분의 1로 축소하여 만든
정밀하고 치밀한 계산서였다

"이것을 다리의 뼈 속에 넣어 주십시오."

"건강에나 몸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

"얼마 동안은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박사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김박사는 침통하게 이휘소를 바라보았다.
김박사가 만류한다고 이휘소가 자기의 결심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것도 평소부터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이휘소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항상 교포사이에는 긍지와 자랑이었다

김박사는 다른 의사와 간호부까지 출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이휘소의 다리에 마취주사를 꽂았다

살이 베어지고...소독이 된 서류를 안치하고...
수술은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휘소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휘소가 발표한"히고스입자에 미치는 강작용의 영향"은 물리학계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었다

살람교수(78년 노벨상수상)는 물리학에 새로운 경지의 논문리라고 극찬했고,
세계의 핵과학자들은 다투어 이휘소의 논문을 구하려고 하였다

1977년 5월 19일 동경에 도착한 이휘소...
다음 날 발표할 학술논문을 정리하고는 한국 청와대에 전문을 쳤다

"5월 21일 PM11시 정각 나리다공항 대기"

나리다공항 KAL 안내소에는 몇 명의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휘소가 비행기에 오르자,바로 출발하였다

한 시간이 좀 지난 후 김포공항에 내리자 바로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기는 청와대정원에 내려 앉았다

박대통령이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소,이박사"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었다

바로 지하실로 내려간 이휘소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사 두 사람의 집도로
수술이 시작되었다.수술은 간단히 끝났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다리 속에서 빼어낸 곁에는 피가 번진 문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박사...고맙소...이박사"

박대통령은 그 피가 뭍어있는 밀봉된 문서를 얼굴에 갖다대고 다시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휘소는 바로 헬기를 탔고,또 지체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다음 날 이휘소는 동경제대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강의를 했다

====

1977년 5월 27일,미국에 돌아온 이휘소는 매사에 더 적극성을 보였다
연구소에서의 역할도 더욱 활발했고,대학에서의 강의도 가장 충실한 교수로서,
그는 미국과학계에서 가장 능력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공인되어 있었다

가정에서도 그는 더욱 철저하게 아내 마르안느(중국계 말레이지아 태생인 미국인),
아들 천,딸 안에게 정성을 다 했다

1977년 6월16일 콜로라도주에 있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초청강의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딸을 뒤에 앉히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페르미연구소에는 이휘소에 딸린 전문기사가 있지만
웬만한 일에는 이휘소가 직접 차를 몰았다

시카고교외를 지나 일이노이주에 진입하였을때,
앞에서 오는 트럭이 별안간 중앙선을 넘어 이휘소의 차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운전대에는 어떤 흑인이 타고 있었고,
이휘소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휘소의 차는 주행선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오더라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트럭은 100m나 되는데서부터 정면으로 이휘소의 차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차의 앞머리가 부서지고 이휘소는 쓰러지고...
마르안느,천이 안이는 삽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정신을 잃었다

마리안느는 직갑적으로 아~소리를 지르며 상대방 흑인의 운전솜씨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휘소의 차를 받은 차는 쏜살같이 도망쳐 버리었다
차가 정지하고 경찰이 오고...이휘소를 차에서 끌어내고...

페르미연구소에 비상벨이 을리었다
이휘소의 차에 설치된 긴급벨이었다

FBI,CIA에서 페르미연구소장에게 긴급전화가 걸려왔다

"이휘소 교통사고로 사망...상대는 50대 후반의 흑인...도주했음"

미국무장관실에도 비상벨이 울리었다
'이휘소 사망..."

FBI,CIA 요원이 삽시간에 주위 400km의 도로를 감쌌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범인에 대한 소식은 전연 발표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떻게 부딪쳤으며 어디가 어떻게 손상되어 죽었는지 조차 발표하여 주지 않았다

"이휘소 사망..."

UPI,AP,로이터 통신으로 세계 언론계와 각국 대사관으로 속속 전달되었다

밤 11시 30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긴급 벨이 울리었다

"이휘소 사망..."

박대통령은 전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화통을 창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박대통령은 지난 번 밤 1시에 청와대에서 잠시 이휘소를 만났을 때
이미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의 눈빛을 읽었었다

아! 죽음을 각오하고 말없이 다리 속에 숨겨온 피투성이의 메모지를 넘겨 주던 이휘소...

박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당장에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해,
그리고 국내에 있는 미국놈들을 전원 □아 버려..."

무슨 일이거나 그렇게 해...OOO들...

"이휘소가 죽었습니까? 각하..."

"죽은게 아냐 죽였지"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이 그랬지,그 새끼들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지를 않나?"

"이휘소는 미국 CIA에서만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에서도 인공위성으로 이휘소를 24시간 감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휘소 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정보도 있고..."

"어쨋거나...이휘소는 미국에서 죽였어...아니,설령 미국에서 죽이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해야지,OOO들...도덕정치를 한다는 놈들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범인도 안 잡았다는 거야..."

"미국대사께서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쫓아버려...쌍놈의 새끼들...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미국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네"

이튿날 박대통령은 직접 나타나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내외기자를 불러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 마치 한국을 식민지시하고 있다

주권국가로 한국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전정한 우방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시 미국에 애걸하지도 않겠거니와 미국과 국방까지도 협상하지 않겠다"

국방까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미사일부대 완전 철수,
지상군 2만여명 철수...연말까지 전 미국 철수 예정...
이렇게 하는 국가를 믿고 국방을 의논할 수는 없다

미군이나 소련이 가진 무기를 우리도 가지면 된다."라고
청와대국무회의에서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이휘소의 장례식이 끝나고,
물리학자들은 일 년만 더 있다 죽었어도 노벨상을 타고 죽는건데...

이휘소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두 달 후에 박대통령은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수상식에는 이휘소를 대신하여 이휘소의 어머니가 받았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너무 아까운 분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휘소가 박대통령에기 유도탄 및 핵제조개발원리를 넘겨주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를 전후하여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급전환했다

▫

핵관리의 엄격한 체제구축,우방국에 대하여 한국과의 핵협정 파기 등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아니라 카-터는 한 술 더 떠서

"한국은 인권탄압을 중지하고,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독자적인 핵개발추진을 바로 중지하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카-터의 요구에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한 마디 상의도 없이 주한미군을 데려가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카-터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응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거기다가 박대통령은 감정적인 발언마저 서슴없이 해 버렸다

"국가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도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남의 나라 보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패권주의 사상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카-터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카-터는 그런 박대통령에게
"박대통령은 반체제 인사를 즉각 석방하라,그리고 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2억9천2백만달러의 미수출입은행 차관약정을 파기하겠다."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한미간의 대립은 박
대통령에게 유도탄개발과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다

박대통령이 하도 야단이니까 한 측근이 핵공장을 비밀리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자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관여하지 말게,곧 돼,그것만 되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고 영남대학에나 내려가 있겠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제작하는 유도탄개발과 핵개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고없이 들리어
연구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대통령의 집념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박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한가할 때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휘소으 영상을 더듬었다
다리를 베고,뼈 속에서 메모지를 내 주던 모습...그 피투성이의 메모지를 받아 들고
감격하였던 대통령 자신의 모습...이휘소가 차에 깔려 죽는 영상...

지금까지도 의문의 죽음에 한 마디 변명도 없는 미국...
박대통은 이제 이휘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휘소가 내어 준 메모지대로는
다 실험을 거쳐야 할 책임을 느끼었다

유도탄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외국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박대통령의 열성에 감격한 과학자들과 600여명 직원의 협조에 의하여 해결되곤 하였다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었지만...
핵분열물질의 생산과 핵탄두의 운반체 개발 등이 문제였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핵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았고
맺었던 핵원료협정도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막막한 며칠이 지나면서,다시 이휘소의 메모를 펼쳐 보았다
〈실험용〉 원자로를 대체해도 좋다는 메모를 보는 순간,

연구실의 분위기는 벼란간 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그 때마다 이휘소의 치밀성에 감탄했다

이휘소는 천만 분의 일도 실수할 수 없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법과,
만약의 경우를 우려한 모든 준비물을 메모지에 준비하여 놓고 있었다

1978년 8월 26일 @@기지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공동제작한 중장거리 유도탄발사 실험이 있었다

과거에 몇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박대통령의 심정이나 과기처장관,
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초조와 기대섞인 착잡한 심정이었다

첫 번째 대전차로켓 (3.3인치 로켓을 다시 개발) 실험은 성공이었다

두 번째 다연발로켓 (28연발 사정거리 20km) 실험도 성공이었다

세 번째 중거리로켓 (사정거리 50km) 실험발사도 성공이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기술만으로 개발한 것이다

마지막 관심의 촛점이었던 장거리유도탄발사실험도 성공이었다

사정거리 150km,유효사거리 350km로 북한 전역은 물론
소련과 중공의 일부지역까지 영향권이 미치는 것이었다

이 성능은 미국이 개발한 최신 장거리유도탄 나이키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외국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유도탄 보유국이 된 것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거리유도탄을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마지막 장거리유도탄발사 실험마저 성공하자
너무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바라보던 과기처장관,국방장관,관계 과학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대통령은 임원들의 노고를 일일히 치하하고 차에 올라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박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다시 이휘소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의 영상과 어울려

그의 죽음을 생각했다

이휘소의 희생과 박대통령의 눈물겨운 나라사랑을 새삼 알게 되면서,
그 두분이 살아있다면...경제나 모든 것에 미국에 이끌려다니지 않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

다음날 미국을 제외한 소련,중국,일본,프랑스,영국,서독은 물론
홍,상가포르등 전세계 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하나같이
〈한국 정거리미사일 발사 성공-한국에서 핵무기개발은 시간문제〉라고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의 〈적성〉지에서는 전면 톱기사로 다루고 사설까지 동원해
염려스런 사태라고 논평하였다

중구,일본,홍콩,프랑스에서도 해설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세계가 경악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다

다만 미국만이 침묵했다
침묵한 것이 아니다.미국정부의 훈령을 받은 미국대사'스나이더'는
과기처장관을 자주 방문했고,박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아예 미국대사와의 면담마저 저절했다
분위기는 냉냉함을 넘어 험악해 지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몇 번이고 독백을 다짐했다

"이제,이휘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도 중단할 수 없다.
지금 의존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휘소도 남에게 의존만 하면 눈치만 보는 조국을 볼 수 없어 죽을으로써

자립의 기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휘소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다짐했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영상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카-터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강렬한 쐐기를 박기 위하여
1970년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에서 있었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온 것이다
2박3일의 예정으로 방문한 카-터는 의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도착성명도 없이
밤8시 56분에 트랙에서 내리자 헬기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사단병영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 날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는 걸맞지 않게
팬티바람으로 미군사병들과 조깅을 했다

이것은 박대통령이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였다

6월 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카-터는 인권탄압완화,긴급조치해제,
한국의 핵개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카-터의 요구를 즉각 거절,일축해 버리었다
양국관계는 파국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벌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은 세계 핵확산금지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국가,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패권주의 발상이 아닌가?"

박대통령과 회담을 끝내고 미대사관에 도착한 카-터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15분 이상이나 차 속에서 보좌관들과 회담을 했다

극비의 긴박한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국철수도 일시 중단되었다
표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쟁도발억제,소련의 태평양군사력증강 등을 들었으나,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추진을 포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해,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청와대별실 궁정동 지하에서 죽었다

김재규는 정말 미국 CIA요원이였을까?
한국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김재규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일까?

당시 건설부장관은 ...
"박대통령이 핵개발에 대한 집념은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념 때문에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휘소의 죽음과 박대통령의 죽음이 다 미궁 속에 빠진 채,
누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역사의 격류 속에 묻혀져 갔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원자력연구소와 핵개발공단은 〈에너지 연구소〉로
과학원과 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새로 부임한 전두환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새로 당선된 레이건을 찾아가
한국핵무기개발중단을 약속하고 댓가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약속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은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이휘소의 이름도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혀 버리었다

글을 마치면서...

제가 이휘소박사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지극히 우연한 계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전공이 다른 면에서_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한두 사람에게서 반복하여 듣는 동안 점점 흥미를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 미국을 방문하고,이휘소박사의 어머님을 10여차례 방문하고,
국립도서실로,서울대학교도서실로 자료를 찾아 쏘다니며 일년여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었습니다
누구라도 이휘소박사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 놓아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휘소박사에 대하여 쓴다고 생각하니,
우선 물리나 핵,원자력 등에 대하여 완전한 문외한이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다가 몇 번 중단했었습니다
어떤 월간지에 연재하다가 중단한 이유도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전공적인 것은 핵을 전공한 분들이 어느 때인가 정리한다 할지라도
이박사의 생활에 주로 착안한 글은 일단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필생활을 30여년이나 하면서 이처럼 책임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능력이나마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휘소박사는 말할 것도 없이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요,
누구도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의심스로울 만큼 철저한 애국자요.

그러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휘소박사가 죽었는가?
누가 죽이었는가?

항의 한 마디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휘소박사는 말로 애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이휘소박사는 이론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는 실천하지 않는 것도 없었고,
성공하지 않은 실험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되새겨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몇 번이나 흥분도 했었고,
몇 번은 비애도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한 조사로 보충할 것을 약속 드리며,
내용이 미비한 것이나 미숙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이 책의 인세 전액은 이휘소박사추모기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 기금으로 쓸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 호응을 부탁합니다

1989년 11월
편저자 공 석 하 드림

=====
맹호부대 일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박대통령 욕을 했으면 하는 마음과 오직 사명감으로 사심없이 오직 가난한 나라와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수 밖에 없어,
박대통령이 일군 많은 업적과 육여사의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독에 방문했을때,
고생하는 우리나라 간호사와 광부들을 붙잡고 박대통령과 육여사가 조금만 더 고생하라면서
같이 울었던 글들을 읽다보면 같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근혜를 사랑할 수 밖에 없음이라...
1년만 더 살았어도 우리나라도 핵 보유국으로 ...

======

박대통령의 일화 한가지...

때는 한국군 육군 맹호부대의 파병으로
월남전의 열기가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였다.

월남전 참전 당시에 전세계가 한국을 비난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였지만
그들은 그런 한국을 보고 비난만 해대었을 뿐이었지,
누구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쌀한톨, 기름 한방울 원조해주지 않았었다.

그런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의 원조라도 해준 국가가 있었으니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박정희대통령의 과거 남로당의 행적이 미국수뇌부의 의심을 받아,
미정부에서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80%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우리는,

당장 미국이 제공해주는 원조를 중단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 국민이 그야말로 아사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음을 느껴야만 했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정희대통령의 월남전 참전결의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 없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미국이 원조를 재개해준다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옳게 알아야만 할 것이다.

반드시 생각해두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가난한 대한민국,
굶어죽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쌀한톨, 기름 한방울 제공해주지 않았음을..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시도할려고 했다는 것을.
나라가 가난하면 전세계가 그 국가를 자신의 노예로 인식하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는 그 당시의 미국의 유명한 군사무기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사(한국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의 발사때
많은 기술자문과 발사를 도와주었음-돈주고 샀다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됨.)의

중역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대통령과 나누었던 실화를 공개하는 것이다.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었고,
한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받게 된다.

그 지원중의 하나가 M-16자동소총이었다.
이전의 한국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단발식 카빈 소총으로서
M-16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는 그야말로 장난감과 같은 수준의 무기였었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남북대치상황을 견디어 내어야만 했었다.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수출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였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건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라스 사의 한 중역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도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맥도날드 더글라스사의 중역)는 대통령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었다.
커다란 책상위에 어지러이 놓여진 서류더미속에
자신의 몸보다 몇배는 더 커보이는 책상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날씨를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先痔?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리에 걸린 양복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차림으로 집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미국 맥도널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매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놀음이 아니겠소.

이보게.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동안 에어컨을 트는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할 수 없을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각하."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각하.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그(박정희대통령)는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흠.. 100만 달러라...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 대해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이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각하."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각하."

"대신 조건이 있소.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각하."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돈이오.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 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의 땀과 피와 바꾼 것이오.
그런 돈을 어찌 한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은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각하.
반드시 100만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전과는 사뭇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요, 자식들임을 느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보였다.(퍼온글)

==========

이런 대통령을 어찌 존경치 않으리오? 글쓴이 李苔栢 (12488403)

번호 331123 날짜 2008-09-14 12:53:10 조회수 918 추천 13

〈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뵈온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사님의 소식은 이 곳에서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저대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나라는 어지렵고,국방은 허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대통령직을 내놓을 수 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박사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단계이고...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후면 한국에 남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인도 미국정부측에 몇 번 자제를 호소하고,부탁도 하여보았지만..
더 이상 구걸하는 것도 추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무엇하지만..
그래도 애원해서 들어줄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본인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입니다.

이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들어줄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구걸 행각으로 국가의 이미지만 손상을 보는 추한 모습을 또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과학자들을 본국에 초청한 것이나 귀국시킨 것도 이런 저의 뜻을 일부입니다...

이박사님을 초대하거나 모시지 못한 것은 박사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미국에..선전포고를 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중론에 못이기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박사님의 능력을 추앙하고 박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그러나 조국은 위태로와 졌고 사정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이미 카-터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여기서 비굴하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굴한 기운만 보이면 깔고 뭉게는 묘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존하던 시대에 종막을 고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자체가 독자적으로 미사일개발,핵무기개발,인공위성개발까지 해서...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라린 경험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
우리 백성들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이박사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휘소박사님,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74년엔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이박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박사의 마음에 달리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재미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개발부터 서둘렸고...

또 시험도 해 보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박사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 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도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상황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희 배상

1971년 6월 - 핵개발 15년 계획 수립 작정함.

개발팀 200여명중 과학자 50%

극비리 추진중 애국심 만발함

1972년 5월 프랑스로 부터 재처리 기술 확답 받음

샹고방사와 불순물 함량 문제로 격론 .

1975년 4월 프랑스 샹고방사와 4,600만불,서커사

와 2,600만불 재처리 시설 도입계약 체결

연구용 원자로는 케네다에 별도 구입키로

1975년 6월 박통,W 포스트지와 회견 도중 미국의

핵우산 보호 없으면 우리도 자체개발 !!

1975년 8월 주한 미대사 리쳐드 슈나이더 과기부

최형섭 장관 방문 개발 포기 압력 시사함

1975년 8월 25일 ~28일 제임스 슬레진져 미 국무

장관 방한 핵무기 포기각서 요구함.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및 재정차관 중단

1976년 1월 미 국무부 부관 한국 파견 최종 통보함

1976년 1월 22일~23일 미대사관으로 부터 개발팀

소환되어 협상 벌이나 범죄자 취급

1976년 1월 말 핵재처리 사업은 화학처리 대체

사업으로 미국의 예봉을 일단 피해감

1976년 12월 미국의 감시를 피해 일부러 서울

서 멀리 떨어진 대전에 대덕공단을 건설함

1979년 5월 우라늄 전환 시설 기공식 대덕공단에

박통 방문 일일이 악수하며 눈물의 격려

1979년 10월 26일 역도 김재규 박대통령을 시해함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소장 쿠테타 성공

핵연료 개발공단 과 원자력 연구소 통폐합 조치

에너지 연구소로 개명후 핵연구는 물론 원자력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음, 개발팀 완전 해체 시킴

1991년 11월 노태우 한반도 비핵선언 핵주권 포기

TAG 이휘소 박정희 핵개발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5]

best

공감 6

위 세분은 과연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정상인 이라면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겨워야 한다.

어찌 그리도 모나게 사시는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인 이라면 그 정신을
이어받는 교훈이라도 삼아야 할것 아닌가.

소개된 글이 오늘 첨 보는 거짓 글인가?

박정희의 반공과 애국심은 이 글 뿐만아니라
그의 일생을 조국에 바친 분으로 여겨도 남음이 없다.

그릇된 생각 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랄뿐 이다.
박 대통령을 나쁜넘 하는
이기식은 개 같은넘 보다 못하다.
2011.02.03 11:39:19

공감 5
윗글에 댓글 단 사람들 (심씨와 2명의 이씨들)은 심성이 곧지 못하고 삐딱한 시각을 가졌구만.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휙션이라해도, 글에 담긴 깊은 핵심을 이해하고 감동할 줄도 아는 게 순수한 동포의 심정이 아닐까 ?
세상사를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면 인생이 평탄치 못할 꺼요.
한국인으로 박통을 비방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패륜아 임을 명백히 합니다.
2011.02.03 11:50:58

[chosun]

이명박의 개헌음모과 반역질 [펌]

2011.02.04 20:59

[펌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최안길(choekil) [2011-02-03 09:56:05] 조회 348 | 찬성 48 | 반대 5 | 스크랩 0

아래는 시스템글럽 독자 토론방에 올린 "자민통일"님의 글입니다.
저의 생각과 너무도 닮았기에 여기에 전재하였습니다.

설날 아침,
선친들 제사 뫼시고 우리의 선친들이 무엇을 원했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한번 일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글쓴이 : 자민통일 조회 : 1,201 추천 : 128

이제 임기가 종반으로 접어들어간 이명박에 대해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감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2007년 말, 그동안 겪어왔던 김대중과 노무현세력의 거듭된 거짓말과 이적질에 신물이 나고 그들의 매국반역질에 분노하기 시작한 국민들은 이제 종북반역 좌익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각계에서 그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라는 뜻으로 좌익에 맞서는 우익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 후보에게 글자 그대로 무조건적인 몰표를 실어주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정부패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종북반역질에 찌든 김대중정권에 이어 들어선 노무현정권에서의 천박하고 막돼먹은 막가파적 국가반역행동들에 국민들은 완전히 질리게 되었다.

그런 지긋지긋한 좌익들을 저주하며 노무현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지경이었던 국민들은 이제 좌익세력이라면 그야말로 온갖 정나미가 뚝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담을 그릇인 우익진영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우익 진영의 대세는 한나라당이었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란 것은 고작 대통령 선거 막판에 급조되었고 그 영향력도 한나라당을 이길 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좌익척결이라는 큰 일을 믿고 맡길만한 세력으로는 우익의 정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만이 유력한 세력이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성원은 당연히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나, 가령 보릿자루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즉,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적 몰표로 당선될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좌익척결이라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아주 드세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이명박은 무려 500만표의 차이라는 기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좌익정권의 잔재를 청산할 우익정당출신 후보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몰표를 주었던 이명박은, 사실은 우익이 아니었다.
사실상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그저 천한 배금주의자요 간사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그는, 자기에게 몰표를 준 국민들의 뜨거운 여망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함과 동시에 완전히 배신하여 좌익 잔존세력을 척결하기는 커녕 잔존 좌익의 환심을 사려들기에나 바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악당인 전직 보안관세력과 대결할 보안관을 새로 뽑았더니 그 새 보안관이 악당을 용감하게 척결하기는 커녕, 악당과의 대결이 무서워서 회피하느라고 스스로 자기 머리를 악당들에게 먼저 수그리고 악당에게 아부하기에 바쁜 더럽고 추한 꼴만 보게 된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막가파인 노무현과 그 잔당들은 아뭏든 일선에서 물러나서 국민들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게 된 상황으로 대충 만족하고, 이제는 골치아픈 정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마저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집권초부터 지금까지 이명박의 배신과 반역질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가 걱정된 수많은 애국우익논객들의 질타와 애끓는 비난만큼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유일한 정의의 목소리였다.
이명박이 지금껏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권 후 여태까지 그가 북한에 대해 과거 좌익정권식의 무조건적 퍼주기를 자제한 것 단지 그 하나뿐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조금이라도 북한을 응징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손해보도록 만든 것도 아니다.

단지 이명박이 몇 년 동안 북한에 우리 돈과 물자를 주지 않고 그저 버티기만 한 것, 그 하나의 조치만으로도 북한은 이제 기가 꺾이고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만약 우리가 그동안 보다 적극적인 북한 붕괴작전과 공세적인 심리전을 폈다면 북한정권은 이미 무너지고도 남았으리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케 한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 정책을 용감하게 시행할 만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한국은 아직도 위험지대인 것이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끝나가고 있다.

우익진영은 더 이상 이명박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하여 그 요구가 수용될 것도 아니고, 이명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이명박이 겁내는 유일한 것은 단지 좌익세력들의 촛불시위같은 시끄러운 사회적 반발소란뿐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익진영이 무슨 데모를 할 것도 아니고 사회적 소란을 일으킬 것도 아니므로 우익이 이명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익은 이명박정권이 끝나기만을 그저 조용히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말도 안듣고 정의감도 없는 겁장이 돈벌레보안관에게는 더이상 무슨 악당척결같은 일을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별 부탁은 안한다.

그러나, 그 돈벌레 보안관이 자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멋대로 마을의 소중한 금고를 열어서 무슨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는 짓은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이 자기 심복인 좌빨 이재오를 시켜서 무슨 개헌 놀음을 해보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무슨 낡은 제도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자들의 속셈은 단 한가지, 이명박 퇴임후에도 이명박세력이 정권의 일부분을 점유하려 하는 것 단 하나 뿐이다.

아마도 자신의 퇴임후에 벌어질 자기 비리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두려운 모양이다.

문제는 그런 목적의 개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음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란 점이다.

무슨 박근혜 지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한나라당의 큰 축인 박근혜파가 반대하는 개헌을 추진하려면 과연 이명박은 무슨 수를 써야 하겠는가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즉, 박근혜파에 반대하여 박근혜를 견제하는 개헌을 하려는 이명박은 개헌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북좌익야당들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종북좌익야당들에게 돌아갈 댓가로서는 국가반역적이고 종북이적적인 개헌안을 선물로 주면서 그들과의 야합을 약속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즉, 이명박은 미래에 당선된 박근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를 얻게 되고, 그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종북좌익 야당들에게는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제등으로 인한 타지역에서의 야당 동반당선보장이라는 큰 댓가와 더불어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조항 삭제 및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 삭제 등을 하는 친북이적성 반역적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명박은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 보안관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무능한 퇴물보안관이 마을의 보물을 멋대로 훼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은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도둑질이다.
국민은 이명박에 대해서 이제 더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명박의 도둑질까지도 용인해주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이번 해적소탕작전에서 작전 성공과 동시에 이명박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밥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든 빛의 속도로 자기 밥숫가락을 밥상에 얻는 것을 보듯이, 이것은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기꾼형 인간인 이명박에 관한 일이다.
아무 실질적 실속도 없이 그저 평생을 오직 사진빨 생색빨 이미지빨로 대통령직까지 먹은 프로급 사기꾼 이명박인 것이다.
그런 그가 이번 아덴만 해적소탕작전으로 얻어진 반짝 인기를 구실삼아,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헌법에까지 손을 대고 주물러서 자기의 사적인 미래 권력확보까지 도모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반역적 야당들과 합세하여 나라의 기둥, 국가의 안전, 통일의 정당성과 민족의 미래마저 뽑아버리는 야합을 하면서까지 말이다.
바로 이런게 도둑질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도둑질이란 말인가?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명박은 이제 더이상 보안관이라기보다는 평소 그의 믿지못할 행실과 낮은 도덕성에 비추어보면 도둑놈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
종북좌익야당들과 대결은 커녕 오히려 그 반역자들과 야합하여 도둑질이나 하려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이런 국가적 민족적 도둑질과 헌법 난도질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것들을 감시해야한다.
그는 국민은 경제만 살리라는 이유로 자신을 뽑았다는 식으로 명백한 선거결과마저 눈감고 자기 멋대로 왜곡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하고 능멸한 인간이다.
국민을 한 번 무시하여 배신한 놈은 언제든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전과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이명박이 이제 임기 말에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공감 1

최안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오늘 차례를 마치고 이휘소박사와 박정희
서신을 보고 많은것을 느끼고 님의 글 탐독하고
다른분 글 보러 갑니다. 좋은 글 소개 고맙습니다.
2011.02.03 11:53:31

[chosun]

박정희의 위대한 통찰력 / 박정희는 한국의 국부다

2011.02.04 20:07

[펌글]

박정희의 위대한 통찰력 [0]

김성조(logosta110) [2011-02-03 14:48:03]

조회 530 | 찬성 60 | 반대 1 | 스크랩 1

책상물림형 그러니까 경제 실물은 모르고 미국에서 고전학파 거시경제나 배워와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할 60년의 한국의 거지 같은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채 주류경제학이론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때리는 그런 좌파OOO들의 이론에 혹해서는 안된다…

외채…어떤 학자들은 박정희가 외채끌어와서 경제 발전 일으켰다고 해서 외채도입해서 하는거 누가 못하냐고 비아냥댄다.. 또 어떤 OOO 학자들은 외채로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한다..

실제로 외채로 나라가 몇번 망한나라들이 있다. 망하는 것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기타 중남미 국가들 외채 못갚겠다고 몇번이나 뗑깡부렸다…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런다… 대외지급 불능사태다…..요새 잘나가는 소련도 90년대에 모라토리엄겪었다…

80년대까지의 좌파 학자들이 오매불망 찬양하던 북한이 지금 외채가 50억불 된다…그러나 이미 지급 불능된게 20년도 더된다… 그러니 어느 미친 금융기관이 북한에 도로 놓고 항만놓으라고 돈대주겠나…..
한국은 전두환때 외채위기론이 있었다가…..80년대 중후반 불어닥친 삼저 호황으로 위기론이 가셨다…

이걸 알아야된다… 첫째 외채를 도입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남미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브라질 이런 나라는 방대한 지하자원과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돈있는 넘들이 투자해서 뜯길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뭐 뜯어먹을게 있으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아프카나 기타 후진국에 다량의 개발자금 대주는 은행있나?
없다! 왜 뜯어먹을게 없으니까… 금융이 아니라 원조…유엔 산하 기구나 엔지오 등등의…원조지 정상적인 파이낸싱은 드물다…

박통이 경제개발할 시점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국이었고 일인당 소득이 80불이었다… 지금의 아프리카수준의 경제 구조와 소득수준의 나라다…

어느 OOO이 뭐 뜯어 먹을게 있다고 거지국가 한국에 돈대주냐?

안준다… 그런데 박통은 경제 개발 18년간 하면서 꾸준히 차관을 도입한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백년은 먹고 살게 해줄수 있는 중화학공업단지 건설을 위해 이제 초근 목피를 면한 거지나라가 무려 100억불에 달하는 차관을 끌어오는 대도박을 감행했다.

이 역사적 대도박은 물로 그당시 경제기획원의 관료나 경제학자들의 끈질긴 반대를 무릎쓰고 내린것이었지만… 그 대모험은 대한민국의 승리 박통의 승리로 끝장이 났다…
한국경제의 젖줄이자 수출의 50%를 그가 건설한 중화학 공업단지가 해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60년대 거지국가 대한민국에 박통이 어떻게 양코배기 넘들의 돈을 끌어들였나…???

뭐 이승만도 시멘트 공장지었고 발전소 하나 지었다고 헛소리 하는 위인도 있던데…
그럼 이승만이 10년간 공장하나 안지었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공장규모나 발전소 용량을 따지자면 물론 잽도 안될일이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로 알겠고.

박통이 대거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중공업 건설을 가능하게된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박통의 추진력이다….. 박통의 신화가 되버린 경부고속로로…..

내가 박통에 대해 한마디로 경외의 감정을 갖게된 사건이 있었다… 내가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SOC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세미나를 양넘들하고 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90년 중반 김영삼 정부떄인데..그때 한참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버린 물류대란이 뉴스가 됐던 시점이었다… 양넘들이 말하기를 한국이 경제 총량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도… 이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항만 투자를 근 10여년간 거의 손을 놓고있다는 거다…

즉 전두환때부터 15년간 한국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함으로써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연간 수조원이 넘는데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는냐?

이제 막대한 SOC건설에 정부재정으로 안되고 민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야한다…
뭐 어런 논지였고…그당시 한 민간은행의 투자팀의 일원으로서 나 역시 양넘들한테 쪽팔리는 소리들어가면서 그자리에 있었다…
뭐 양넘들한테 민간투자의 성공사례를 배우기위해서…..

그리고 그 양넘들의 한마디… 그때가 97년도쯤인데…한국은 박정희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을 아직까지 우려먹고 있다는 코멘트다…그러고 그 통계치를 얘기하는데…..
뭐 한국인 전문가들은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역시 박통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볼수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민간은행들이 대거 정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뭐 잘아는 인천공항 도로가 민자유치로 된것이고 각종 도로및 터널건설에 민자가 투입되었다…

뭔얘기냐? 박통은 경제 총량이 일정수준되기도 전에 그 발전 규모와 속도를 미리 예측계획하고 잘아는 모 정치인이 길바닥에 드러 눕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로로를 놓았는데…

박통이후의 지도자들은 이미 경제총량이 수용가능한 사회간접자본의 그것을 넘어서서 막대한 재화손실이 오고 있음에도 손을 놓았다는 사실이다…..그만큼 미래 발전전략마인드가 부족한 지도자들이었단 것이고....

각설하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6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개발도상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국내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인것이다.

즉 양코배기넘들의 돈이 안들어간 순 민족자본으로 건설한 돈인데…
그 당시 사업계획비가 한 400억이 넘어가는데 대략 4분지 1의 예산으로 그걸 만들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왜 외채를 안 끌어왔을까?…

박정희가 양넘들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을까? 당연히 양넘들 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다.
민간금융기관이나 세계은행 같은 후진국 개발원조기구에 말을 꺼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왜? 두가지 이유에서 외자도입은 좌절됐다…

하나는 한국의 그당시 경제구조가 고속도로를 놓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양넘들의 주장이었다..
맞는 얘기다…한국은 그 당시 고속도로가 필요 없었다. 박통이 미친거였지…..
양넘들 얘기가…후진국에 고속로로 놓게 장기 저리 융자해달라고 몇 개나라에서 오는데…자기들은 안해 준단다… 그러니 코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로 비료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같은 것은 해줄수 있다…왜 제품이 생산되니까…그리고 후진국의 경우 비료나 시멘트는 식량과 건물공사에 필수 불가결하니 공장을 지어주면 그 공장이 망하진 않는다. 생산제품의 수요가 있으니까…그 매출액으로 채권을 회수 할수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통행료 수입으로 백년을 거둬도 채권회수 못한다…
게다가 그 고속도로에 얼마나 차량이 통행할지 불투명해서…..완전히 맨땅에 헤딩이다….

양넘들의 이런 논박에 한국의 관료들은 결국 외자도입을 포기하고 박통은 없는 살림에 국가예산을 총동원하고 건설회사와 기획원이 추산한 건설비용의 4분지1로 도로를 건설해낸다…

비용절감으로 다소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콘크리트대신 아스팔트로…하고 공사보수를 제때해주면…예산부족으로 도로 건설을 늦추는 것보다 국가경제에 훨씬 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박정희는 건설기간중에 도로 구간설계에 깊이 관여했고 밤 10시에도 공사구간의 4분지1을 건설한 정주영회장을 수시로 불러 교차로 변경문제와 예산 절감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하여간 이 대역사는 2년여의 역사끝에 성공하고…..여기에서…..이 박정희의 신화를 양넘들은 주목하게 된다….. 즉 박정희가 잇는 대한민국은 여타 개발도상국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박통이 잇는 한국정부는 신뢰할수 잇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그리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본 양넘들은 이후 박통의 100억불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에 적극 협조하게 되는데…

민간기업의 개발자금에 한국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면…..상업차원의 융자를 대거 해주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100년간 한국을 먹여살릴 중화학 프로젝트의 단초가 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조선 산업의 신화인 현대중공업의 버끌레이즈 은행으로 부터의 파이낸싱도 역시 한국정부의 보증제공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음은 말할 나위없고,,,
…..
아무나 외채를 끌어올 수 있는게 아니다…..!!!

박정희는 양넘들이 돈을 대줄수 잇는 신용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외채는 대개 양넘들의 민간은행이나 국제개발기구에서 빌려오는데….이자가 민간은행은 이른바 라이보 베이시스다…즉 런던은행간 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70년대
대개 한 4% 5% 수준이다……그런데 그당시 한국국내 은행의 기업금융금리가 10%가 넘었다…금리가 한 3배정도 수준이 난다….
그러니 어떻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국내민간은행의 자금을 써서 국제경쟁이 가능하겟나….

사업하는 넘이면 다 양넘 자금을 쓰려하고 그건 당연한거다….. 외채망국론 주장하던 학자들….어떤넘들은 외채보다 직접투자를 받앗어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장단점이 잇다…..직접투자는 금융비용이 없다…이자가 없으니까…그러나 예컨대 멕시코나 80년대의 칠레의 경우를 봐라…직접투자를 많이 받아서 금융기관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양넘자본이 대거 들어왔지만…그산업들이 경쟁력이 잇나…지분투자하면 배당으로 수익만 챙기려는게 자본의 속성이다…

기간산업이 낙후될 수 밖에 없다…..직접투자는 언제든 철수 할 수 잇다…적당한 시점에 팔코 튀는 거다…

그러나 외채즉 타인자본은 튈수가 없다…..망하든 흥하든 끝까지 빌려간 넘한테 받아내야되는 거다….

지분투자를 대거해서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은 넘어간다…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채로 지은 공장은 엄연히 대주주가 한국넘이다….중장기 투자 공격적 투자를 마음대로 한다…돈빌려준 넘은 그저 잘되

서 빌려준거 받게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박통이 한국의중공업을 직접투자로 햇으면 그 최초시설은 대규모 증설이나 위기시의 공격적 투자가 불가능 햇을 것이다 ….대주주가 있는데…..배당금 챙겨야지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누가 투자하도록 허락하겟나…..

외채즉 타인자본으로 지었기에 대규모 시설은 계속 증설되엇고 …그 시설의 주인은 여전히 한국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직접투자 혹은 기업매각으로 외국인들에게 지분매각을 한 현재 한국기업들의 딜레마를 보면 충분히 외채 효율성의 의미를 잘알수잇다…

외환위기 이후 양넘들이 인수한 기업중 대규모 증설을 한 기업은 단 하나도…없다…

배당으로 열심히 빼먹고 리젠트 증권이나 론스타 같은 넘들은 기업보유 시설이나 부동산도 전부 팔아먹고 그걸 유상감자형태로 처리해서 기업이 완전히 속빈강정이다…
얼마전 화제가 됫던 만도의 신세인지 뭔지하는 넘들도 이미 고배당과 주식소각으로 5천억이상을 챙겼다..그래서 1조는 챙겨서 나가겟단다….

하여간 박통의 외채도입과 중화학 공업육성은 당시의 한국의 경제규모로 보면 대단한 도박이었음에도…박통특유의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한국민 5천만이 백년간은 먹고살게 해주엇다…
지금 한국산업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은 제철 조선 전자 석유화학등 거의 모든 중화학 공업이 그에 의해 설계되고 착수되었다 ….

그래도 박통 이 별거 안했다 하는 자는 지부모가 평생을 먹고살 자산을 상속해줫음에도
부모 욕하는 호로자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원인은 책상물림 좌파 OOO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의 일차적 책임이겟지만……..

[chosun]

****
****

[펌글]

박정희는 한국의 국부다 [2]

김성조(logosta110) [2011-02-03 15:00:48]

조회 246 | 찬성 55 | 반대 5 | 스크랩 1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때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된다...
세종대왕을 논할때는 그가 조선왕조시대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하듯이.....
50년대의 지도자와 2000년대의 지도자를 동일조건하에 평가해선 안되고 전쟁의 지도자와 평화시대의 지도자를 같은눈으로 봐서도 안된다....
아이젠아워는 훌륭한 전쟁지도자였지만 훌륭한 대통령으로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러나 그의삶을 총체적으로 봤을때 2차대전의 승전에 지대한 공이 잇으므로 전쟁지도자로서 ...한시대의 위인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매우 굴곡이 맣다...조선왕조의 멸망과 일제식민지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
남북간의 치열한 체제경쟁...이런 험난한 근대사를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과거의 지도자들을 논해야된다...

무릇 인물을 평할때도 그를 공과를 총체적으로 봐야되는 것이다....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엿단 사실하나로 그를 친일파즉 일본에 기대 한국을 팔아먹은 위인으로 단죄한다든가.... 역시 친일파 숙청을 철저히 못햇단 이유로 이승만을 미국의 주구로 본다든지...혹은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달러를 갖다줫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햇볕정책 전체를 비난한다든지...
노무현이 경기부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외교 국방정책 까지싸잡아 비난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반도의 두개의 분단된 민족 국가를 올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두개의 민족국가로 분단됫지만 북한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식물인간화된 체제이다...자유니 인권을 애기하기도전에 그체제는 인간의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체제이다..
그러나 남쪽은 세게10위권의 경제규모에 잘나가는 IT,BT산업을 가지고잇고 아시아에서 일본이외에는 유일하게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정밀등 중후장대한 중화학 공업경쟁력을 가지고있다...

게다가 일본은 전후 맥아더참모가 만들어준 평화헌법을 지금도 손도못대고 잇지만....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만든 민주헌법과 민주체제를 정착하여 일본을 능가하는 민주정을 구가하고잇다...

그렇다 한쪽은 참담한 실패속에서 전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고..다른 한쪽은 자랑스런은 민족국가를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 보다 더 관대해질필요가 잇는 것이다...
 한류열풍이 도도히 아시아를 넘나드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일궈왓음을 우리는 인정해야하고...거기에 우리 한국민과 더불어 호흡해온 우리의 지도자가 잇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도자만으로 국가의흥망이 좌우되지는 않지만 역시 지도자의 비전과 결단과 리더십이 한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모든 성공이 단지 민중의 힘이라면 이 뛰어난 한민족이 왜 조선시대에는 쪽바리에 때국넘들에 오랑케들에게 그리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멸하던 왜넘들에게 망국의 처참함을 당했을 까...

왜 그시대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없었을까? 무지한 민중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되서 위대한 민족이 되버린 것일까...

자 이제 박정희를 보자....

나또한 박정희의 공과 과를 더불어 보지만 .,,,결론부터 애기한다면..그는 한국근대사의 불세출의 위인이다....
그는 무에서 유를 이뤄냇다....

그이전에 독재자 이승만이 10년간 뭘햇는가를본다면 그의 치적을 알수잇다...
그의 치적을 국민소득이 15배가 수출이 뭐 100배가 늘었느니 하는 통계수치는 뭐 이골이 낫을거고..

내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의 비전과 통찰력이다...
알다시피 60년대초의 한국은 전후복구마저 제대로 안됫던 때이다...국민소득 80불의 거지국다..
한마디로 자본도 기술도 게다가 지하자원도 거의 전무한...땅도 집지을 땅이 별로없고 산지가 대다수인 인구밀도 세게 3위권의 방글라데시같은 나라다....

그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 했는가...

2차세계대전이후 신생독립국들은 대개 국가 발전전략을 균형성장 전략과 내수대체산업양성전략을 썼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등 대부분의 제3세게 국가들.....대개 자원이 풍부하니까 제조생산기술만 익혀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먹히우고 입히자 그래서 외세의 종속에서 벗어나자.....무역은 최소한도만 하고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한다....

당연한 생각이다...제국주의에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산업은 잇지만 시설은 매우 노후했다....대개 독과점이고 기업들의 성장은 매우 미미했다..
.
비경쟁체제이니까... 자본의 축적은 매우 점진적이엇다....
그러나 박정희는 인도처럼 하지않았다....적잖은 경제학자들이 인도와 같은 내수대체산업발전양식을 주장했지만....박정희는 거부했다....그리고 농지가 많으니 덴마크와 같은 낙농업을 발전시켜 농업국가로 가자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따르지않았다...60년대의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박정희는 과감하게 수출주도의 정책을 시도한다....그렇게 수출주도의 정책을 시도하면서 그는 이른바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당시의 신생국가와는 다른 불균형 성장정책을 쓴다...

즉 국가의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하지말고 몇개의 산업분야 그것도 수출경쟁력이 잇는 분야에 집중하고 지역적으로는 대규모 항구가 잇는곳과 공업단지를 연계해서 그곳에 국가 자원을 집중투자한다는 정책이다....

그렇게해서 이른바 마산의 수출자유지역 구미의 전자단지 창원의 기계단지...그리고 경인공업지구과 인천항... 경남 공업지구와 부산항의 거점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부축의 가속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가 놓인다....
6070년대는 그야말로 수출의 시대였다...모든 기업들이 수출에만 정신이 팔렸다...박정희는 매주 수출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신용장만 개설하면 은행에서 자금이 나갓다....

달러가 쌓이고....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는 민족자본의 형성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과감하게 중화학 공업에 투자한다....
경제를 좀 안다는 넘들은 다 미친짓이라했다....경공업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기획원의 관료들 조

차 미심쩍어했다...

왜 박정희는 그런 신생독립국가에서 전무후무한 도박을 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경제가 아니고 안보엿다....60년대 의 북한은 산업생산능력이 남한을 압도햇다 ..원래 일제가 중화학 생산거점을 키웠던 곳이고 소련을 비롯한 중공업국가들의 지원으로 제철 제강 정밀기계에서 남한에 압도적 우위였고..이것은 다시 군사력의 열세를 지속하고 잇었다...

김일성은 60년대에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국가역량을 군의 현대화에 집중한다...
60년대 말에는 이런한 군수산업분야의 편차가 극대화된 시점이었다...
김일성은 우월한 군사력으로 각종 도발을 자행햇고.....언제나 남한은 북한의 남침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했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한국군의 무력을 증강하기위해 몰두하기 시작햇고 그결과 나온 창조물이 바로 중화학 공업 육성이었던 것이다...

무릇 군수산업의 육성은 그 기초가 되는 제철 제강 기계 석유화학 조선 등 중공업의 기반없이는 이뤄지지않는 것을 간파한 박정희는 열세에 놓인 남한군의 무장을 위해 무모한 도박이라고 반대하던 관료와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 공업 드라이브를 70년대에 시작한다..

여기에는 포항제철이 성공적으로 기공되고 예상보다 빨리 포철이 흑자를 내면서 한국에서 제철산업을 키울수 잇다는 자신감도 한몫을 햇다....

일본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포철은 기공후 몇년안가 영업이익을 내게되고 대대적 증설에 착수한다....
박정희는 탱크와 야포 소총과 고속정 그리고 탄약을 만들사업을 확정하고 이런 군수산업에 투자할 유능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중화학공업을 맡긴다....

군수산업은 큰돈벌기 힘드니 다른 민수분야와 중공업은 연계해서 국가적 지원을 하기시작한 것이다..
이런 박정희의 노력으로 드디어 M16과 같은 개인화기에서 야포 기관포 각종 탄약 전차 그리고 국산 유도탄까지 개발해냈다.... 이승만 정권 10년간 개인화기하나 못만들던 남한을 고도로 발전한 군수산

업을 가진 국가로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한 군수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공업 분야에서 금융지원을 받고 대대적 시설도입에 나선다....차관도입이 정부혹은 국책은행의 보증하에 이뤄지고.....정주영과 같은 유능한 기업인은 박정희의 후원아래 자동차와 조선공업을 일으킨다.....

그리고 박정희는 죽었다

박정희의이런한 거점개발식 경제개발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은 사실 그의 후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 대단한 열매를 맺는다...

경부축에 대단위 생산단지를 두고 중화학 공업에 박정희에 의해 내몰린 기업들은 80년대에 이른바삼저호황으로 떼돈을 번다.....그리고 이른바 재벌들이 한국경제의 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리해서 한국은 전세게에서 미국 일본 독일등과 더불어 몇안되는 경쟁력잇는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전자분야의 중후장대한 산업구조를 가진 산업국가로 오늘날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무에서 유를 이뤗다...그리고 오늘날 애기하는 자주국방의 기반은 그가닦아놓은 것이다...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무대위에서 후임자들이 춤도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다...

박정희를 비판할때는 그시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해야한다...단순논리로 이상향을 노래 불러선 안된다///

적잖은 경제학자들이 박정희의 관치 금융을 애기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정부가 금융을 장악해야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동원할 수 잇다고 판단했다...

금융을 정부가 통제햇기에 이른바 중화학 공업기업인들에게 자금이 나갈수 잇었다..
은행을 자율경쟁시스템으로 갓다면 은행산업은 그런 대로 성장할수 잇엇지만 한국의 중공업은 이뤄지지않앗을 것이다.... 어느 은행이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듣도보도 못한 그러한 분야에 자금을 대출하겟는가?

후진국이 금융도 선진화시키고 이런 무모한 중공업도 선진화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박정희는 알았다.....그는 금융의 자율권을 억제하는 댓가로 엄청난 제조업을 키운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금융분야는 낙후되었지만 한국경제의 발전축이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막대한 고용을 창출할 역활을 금융이 하지는 못한다....

금융은 네트웟이기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는 어렵다..선진제조국이지만 비교적 낙후된 금융산업을 보유한 일본을 보면 알수 잇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에 잇어서 박정희는 탁월햇던 것이다....

 중공업을 육성하면서 많은 차관을 도입하고 외채가 늘어낳지만 외채는 80년대 호황으로 적정규모로 감소햇고 한국경제의 제조업은 탄탄해졌다...

박정희는 가고 없지만 ...이제 무지한 책상물림이나 운동권들이 박정희식 페러다임 어쩌고하면서 외환위기의 책임까지 그에게전가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위기임을 알아야한다...
이것은 안해도 되는 OECD가입을 하면서 할수없이 자본자유화 스케줄을 짜야햇고 무모하게 금융자율화를 하면서 무자격 종금사를 대량 인가하하는등 ...느슨한 금융감독체제를 유지한 김영삼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다...
단기로 달러를 조달해서 동남아에 장기로 달러를 투자하다 동남아 외환위기로 달러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융기관들의 책임이고 ...더나아가 그 종금사와 은행들의 만기 부조화 투자를 방관한 김영삼정부의 책임이다....

90년대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면서.....김영삼은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에 섣부른 금융자율화를 시도햇고...더우기 금융감독의 실책이 겹쳐서 결국 한국은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이렇게 김영상 정부의 어설픈 자본자유화의 실책이 불러온 외환위기의 극복도 역설적으로 박정희에 기대어 이뤄졌다

김대중이 100조넘게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박정희 정부 18년간 엄격하게 시행된 정부의 균형재정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박정희가 노무현 김대중처럼 재정남발로 정부재정이 부실했다면 감히 할수 없는 통화남발과 재정확장정책을 박정희의 긴축재정때문에 노무현 김대중이 펑펑 국채발행해가면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또한 박정희때 시작한 대규모 생산집적시설은...환율이 엄청나게 절하되자..

수출이 급격히 늘어... 무역흑자가 늘어나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재기한다....결국 외환위기의 극복도 박정희시절에 투자한 대단위 생산시설로 인해 그 극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그시대에 허약한 한 신생독립국가를 과감하게 대규모 생산기지화하고 중화학 공업의 산업국가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다....

물론 그도 정치적 과오를 따지자면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상 어느 위대한 인물도 결코 과오와 오점이 전혀없는 인물은 존재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공감 4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무대위에서 후임자들이 춤도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다"

김성조님은 훌륭한 근대사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라나는 이세 삼세들이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양김씨절, 더불어 노시절, 강산이 두번이나 변했는데, 그동안 변경된 국기및 교육체계는

영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일부 청년 처녀들은 별볼일 없는 유시민을 추종하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이가 젊은 애들이랑 함께 어울려준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억의 여파를 유시민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노빠는 한마디로 딴따라 연예 정치인,

유시민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GH님과의 대화하를 이용하던 자.

2011.02.03 15:19:45

공감 4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무대위에서 후임자들이 춤도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다"

김성조님은 훌륭한 근대사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자라나는 이세 삼세들이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양김씨절, 더불어 노시절, 강산이 두번이나 변했는데, 그동안 변경된 국기및 교육체계는
영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일부 청년 처녀들은 별볼일 없는 유시민을 추종하는데,
그 이유는 노무현이가 젊은 애들이랑 함께 어울려준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억의 여파를 유시민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노빠는 한마디로 딴따라 연예 정치인,
유시민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GH님과의 대화하를 이용하던 자.
2011.02.03 15:19:45

공감 3

김성조씨 글에 공감합니다만 정일창이가 이글을 보면 입에 게거품내며 발작 일어나겠네.
2011.02.03 16:42:25

[chosun]

□서서히 들통나는 이명박의 눈 속임/ 갈곳은 2평짜리 감옥뿐

2011.02.04 19:23

[펌글]

서서히 들통나는 mb의 눈 속임 [14]

김명복(myung530) [2011-02-01 01:56:13]

조회 2477 | 찬성 308 | 반대 15 | 스크랩 0

서서히 들통이 나고 있는 MB의 눈 속임수

개헌 특명특보 별정직 특임장관 - 이재오

대항마 키우기 특명 특보 - 박형준

차기 친이계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특명 특보 - 이동관

문예 특보가 왜 필요한지 그만둔지 한달도 안돼 재 기용한 - 유인촌 특보

이렇듯 물갈이를 한 자들을 다시 곧바로 특보로 불러 기용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좌파정권에 특보 공화국이라고 질타하던 이 정권이 좌파 정권에서도 볼수 없었던

특명 특보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듯 제왕적 대령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을 내 걸며 개헌에 불을 지핀 정권이

오히려 법위에 떼법을 만들어 특명 특보를 남발하여 이재오 같은자를 무소 불위케

하고 있다

세종시에 이어 정권이 끝나는 즈음 또 다시 개헌 음모로 하여금

정국을 시끄럽게 달구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눈속임 정치는 가히 끝이 없어 보인다

세종시 풍파에서도 보았듯이 이명박은 박근혜와 겨루게 되면 100전 100패다

명빠들이 한나라당 경선을 박근혜한테 이겼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는 현장 투표에선 박근혜가 이겼다

허나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여론조사 1표를 5-6표로 계산하는

표의 가중치로 하여금 그것도 겨우 2000 여표로 어거지로 이겨서

오늘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명박이다

등 따습고 배부른 정권이 유난히 긴 올 겨울의 혹한의 한파 속에서

추위에 떨며 뛰는 물가에 한숨 짓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퇴임후의 안위를 위해서 친이계로의 후계자 놀음에나 골몰하며

밀실에서 야합이나 하는 정권이 바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여 당선된 이명박이다

이재오의 도움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이재오에게 빚진 것이 많다

해서 고안해 낸 것이 퇴임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고

빚도 갚을수 있는 유일한 권력 구조가 분권형 개헌 권력 구조로 믿고 밀어 부치고 있다

MB로선 이재오가 권력을 잡는것이 퇴임후 기약할수 있는 제일 안전 판으로

믿는 듯 하다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현 직선제로는 국민밉상 이재오 따위가 차기를 노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당내 조직을 최대로 장악하고 있는 이재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나 마찬 가지인

의원 머리수가 많은 계파 수장이 총리가 되는 말인 즉은 분권형이지만

의원 내각제나 다름없는 권력을 분산 한다는 명분하에 분권형 개헌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랍에미르트 원전수주가 엉털이 수주였음이 들통이 나고 있음이다

그러잖아도 수자원 공사등 공공기관의 빚이 가미 되지 않은 사항에서도

국가 채무가 400조에 육박 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전수주 댓가로

12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주기로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이는 한마디로 내돈 내 놓고 내돈 따먹기 식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비싼 이자로 외자를 유치해서 싼 이자로 빌려 준다는 것은

나라 말아먹을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듯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뒤가 구린것이 워낙에 많은 정권이다 보니

퇴임후 안전판이 필요했고 BBK와 원전수주가 들통 날까봐 기를 쓰고

개헌을 하려 드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간에 이정권이 퍼질러 놓은 뒤 치닥거리와

천문학 적으로 늘여 놓은 국가 부채를 갚느라고 제대로 일도 못 할 것이다

원전수주 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위세를 떨더니 알고보니 내돈 놓고

내돈 먹기 식이니 앞에서는 눈속임 용으로 국민들을 홀려 놓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이고 보면 이명박 다운 장사가 아닐수가 없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4]

best

공감 18

서서히 드러나는 M B의 박근혜 죽이기 음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박근혜는 경선에서 432표를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열등감으오 정권내내 못죽여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유력한 국정동반자를 배척하여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4대강 파뒤집기만 올인한 결과가 나라빚을 늘여서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김동영씨...버스가 지났다고요? 어떻게든 버스가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까?
기름이 많다고 속여서 떠난 버스가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버스 탄 손님은 어쩌란 말인가요?
2011.02.01 06:30:03

공감 2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는 현장 투표에선 박근혜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다 이거요?
지는 버스 지나고 난뒤에 말많은 사람이 제일 드응신 같던데....
2011.02.01 02:00:03

공감 18

서서히 드러나는 M B의 박근혜 죽이기 음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박근혜는 경선에서 432표를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열등감으오 정권내내 못죽여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유력한 국정동반자를 배척하여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4대강 파뒤집기만 올인한 결과가 나라빚을 늘여서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김동영씨...버스가 지났다고요? 어떻게든 버스가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까?
기름이 많다고 속여서 떠난 버스가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버스 탄 손님은 어쩌란 말인가요?
2011.02.01 06:30:03

공감 9
명박대통도 재오를앞장세워 자멸의길을 재촉하누나

안되는일 억지로하다보면 국민적 저항에부디치게 되있고

수습이 더욱 힘든길로 간다는 것이다
2011.02.01 09:39:05

공감 11
퇴근길에 택시기사도 광화문을 지나며 청와대가 보이니, . .

면바기가 아랍에미릿트 원전수주로 또 국민들에게,

사기쳤다고 역정을 냅니다.

택시기사님들도 면바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지요.

실시간 와이티엔뉴스를 듣고들 계시니 . .
2011.02.01 09:50:52

공감 4

공감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4대강사업으로,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론으로 끊임없이 삽질하는 근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후유증이라는 트라우마로 청와대의 잠못이루는
밤이 깊어지기때문입니다,,,
경선 때의 앙금을 털지못한 MB와 염불(임기초의 안정적인 국정운녕)보다 잿밥(차기에대한소갈증)에 더 눈이 먼 재5,방후 같은 난신적자들의 공천권농단에 국민들이 친박연대라는 매를 들었고 아프로디테의 황금사과(집권당이 차기대선후보에게 배려해줄수있는 모든프리미엄)를 주기 싫고 주면않된다는 정치적인 야합이 이런 국력소모적인 분란으로 한 나라당을 두 나라당으로 만들고있는것입니다,,,
2011.02.02 08:20:45

공감 1

그래요?!!
2011.02.02 10:07:00

공감 0

대통령을 두려워 하는 자들의 헛발질 모음.아무리 차도 아무소용 없는 헛발질.비겁자들의 대표? 최영애,박수진,남동기,도우원?시기와 괴휼이 가득한 자들이요,헛발질의 명수로다.대통령의 업적을 두려워하고 수근쑤근 씹근씹근, 반역의 모리배패당이며 북괴의 앞잡이...
2011.02.03 10:03:03

공감 1

친박들 참 꼴불견이다. 친박은 한나라당 도움없이 지들만으로 재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왜 이정권 주위에서 어설렁거리는가? 하루 빨리 독자 세력화 하지 않고. 전번 지자제 선거에서 결과가 어떠했는가? 야당에 완패다. 이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한거다. 고스톱으로 말하면 쇼당패다. 친박도 낼모래 이회창 같이 눈물질질 흘리며 대성통곡할 날 눈에 선하다.
2011.02.03 15:01:34

공감 1

제왕적 대통령은 이명박뿐아니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더심하게하였지요.
2011.02.03 23:29:12

공감 1

무분별한 권력숭배 국민을 전혀생각하지않는 개인사설정치로 국정을 파행시킨 졸속 권력 우리사회를 좀먹는 지역패거리 구태정략 피해상황으로 우리 역사에 더려운 배설물로 민생경제는 치옥을 당하고있다.경제 바람 몰리로 국민이 선택한기대 착각은 오년이란 /악연의정치로 시간들은 뺏기여 온 서민들 괴롭고 야속한 애환을 그누구에게 하소원을 할까요,욕심이 너무 지저분한 못된 패거리정권이 야비하고 무섭다, 80의대닷수 국민들 세계꼴지의 두번째로 물가가 높은 살기어려운 나라로 경제를 하락시켜놓은 무능한 정권 세월이 약이될까요..

2011.02.04 07:29:19

공감 0

낙기선생 ,,,,국가경영을 명 받았으면 외치든 내치든 최선을 다 해야 하고 여러 견해를 가진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것은 국정을 담당한 권력 주체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기회비용인것이오,,,낙기선생 처럼 내가 뽑은 대통령을 너거가 씹어되냐하며 MB의 언행이 마치 마이더스의 손인 줄 로만 알고 MB가 입만 벙긋하면 세종시 원안은 망국적이되고 대 운하는 백년대계라고 믿는 소아병적인 의식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사모로 거듭나지 못하고 무혀이를 역사의 노 정암으로 만들고 만 노사모들처럼 BBK나 대 운하의 전신인 4대강사업으로 MB를 다시 국회청문회에 세우는 우 를 범하게되는 맹한 이 빠들이나 할 처신이되는것이오,,,,

2011.02.04 10:40:56

공감 0

낙기슨상,,당신은 명복 선생해도 되고 나는 낙기선생하면 않된는것에 대해 나를 이해시켜보라 ,,그리고 낙기 슨상이 소아병적이 아니라 대운하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MB를 여과없이 믿는것에대해 소아병적이라는것이다 대운하를 백년대계로 믿든 말든 그것은 슨상의 자유의지인것이다,역지사지로 박 전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사업을 주장해도 슨상은 흔쾌히 찬성 할 수있겠는가,,, 말 버릇 운운 하며 같은 회원끼리 하기 어려운 글을 쉽게 올리는 슨상의 필력을 보니,,, 논리가 부족하면 목청이 크지는 법,,,말 버릇이 없는 ,,,하는 글은 바로 삭제해 주기를 나 쉰세대가 정중히 요청한다,,,

2011.02.04 11:59:48

공감 0

낙기 당신이 선생하면 로맨스고 내가 슨상하면 불륜이되는-집권당의 홍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면 맹빠가 될 수 도있다는 내 글은 인격모독이되고 -말 버릇 운운하며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당신의 잣대에서 잃어버린 10년동안 줄기차게 박 전대표를 폄하해온 -시방도 박 전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못해 거품무는 유신시대에서 성장이 멈추어버린 정신적인 미숙아들 역사의 사생아들- 우리시대의 미필적고의에의한 좌빨들과 맹 한 이빠들의 모습을 보게된다,,차기대선에서 만에 하나 천운이 도와 당신들의 저주를 풀고 박 전대표가 당선 되어 MB가 청문회에 서게되면 슨상은 몸을 아끼시라 분하다고 4대강 보 에가서 헤딩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라

2011.02.04 17:12:11

공감 신고

공감 0

정 낙기 슨상이 나를 젊게 봐 주니 감사할 일이외다 ,,,그러나 성씨 까지 바꾸며 40년이라고 나잇살을 자랑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잇값 못하는것 만큼이나 추 한일은 없다고 보오 나 보다 40년이면 슨상이 1세기를 살았다는 야근데,,,,

2011.02.04 17:22:27

[chosun]

****

****

[펌글]

이명박이 갈곳은 2평짜리 감옥뿐 [3]

[2011-02-03 15:21:45] 조회 911 | 찬성 152 | 반대 4 | 스크랩 0

이명박이 갈곳은 2평짜리 감옥뿐이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 한두개이던가?

이미 검찰에 의해 덮어진 도곡동 bbk투자사기 사건 말고도 4대강개발 각종 의혹 사건,,,
이번 원전 사기사건 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터져나올텐데...

노무현을 죽게한 그를 만약 야당이 집권한다면 가만 놔두겟는가?

아마 이명박도 부엉이 바위에 다이빙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가 대선 전에 박근혜에게 정권의 동반자 운운하며 사기 쳐놓고 박근혜에게 한짓을 보자
공천학살...세종시 사기....이번에는 좀 반성 했나 했더니....

개헌해서 박근혜 물먹이잖다....이런 호로 자슥이 어디있는가?
개헌이 누구 개새기 이름이냐....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
뭐 박근혜 무서워서 권력분산형 허수아비 대통 만들자고.....

이젠 박근혜가 정권잡아도 이명박의 범죄행위 까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은 박근혜가는길 방해말고 감옥가는게 낫다...끝까지 공작정치 하다가 여권 분열로 야당어부지리로 야당에 정권넘어가면 이명박 또한 부엉이 바위에 다이빙 하지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3]

best

공감 7

향방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가느냐만 남았지요?

2011.02.03 15:35:26

공감 7

향방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가느냐만 남았지요?

2011.02.03 15:35:26

공감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2011.02.04 08:02:45

공감 0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아~~아~~

2011.02.04 15:39:30

[chosun]

박칼린이 고백하는 유년 시절과 특별한 가족 이야기

2010.12.08 00:34

[레이디경향]

박칼린이 고백하는 유년 시절과 특별한 가족 이야기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두 나라 생활을 하며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예술인이 됐다. 남들과 조금 다른 성장 과정을 보내면서 상처받았던 나날도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가슴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푸른 눈의 이방인, 한국을 사로잡다

박칼린(43), 그녀는 2010년의 핫 아이콘이다. 지난여름 방송된 KBS-2TV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하모니' 편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오합지졸 합창단을 이끌던 모습은 따뜻한 카리스마의 진수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가 아니다. 방송에 출연해 합창단을 이끌기 이전부터 20여 년간 한국 뮤지컬계에 몸담으며 음악과 예술감독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박칼린은 미국 유학생이었던 아버지 박근실씨와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아이렌 박 사이에서 막내딸로 미국 LA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한국에 들어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9년간 부산에서 살았고 성악을 전공했던 어머니, 한국무용을 배웠던 큰언니 킴벌리, 개나리 합창단원이었던 작은언니 켈리 밑에서 일찍이 첼로와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인으로서 재능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혼혈아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기도 했다. 갈색 머리와 푸른 눈빛의 이방인을 향한 친구들의 놀림은 어린 박칼린에게 큰 상처이자 외로움이었다.

이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 1983년에 다시 귀국하여 경남여고 1학년에 편입했다. 음악 가족의 피를 타고난 덕분에 학창 시절에도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연극반 특별활동을 통해 고교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교 생활 1년여 만에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어머니를 부모로 둔 탓에 두 나라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첼로 전공으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음악과 연극에 흠뻑 빠져 지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1991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서울대 대학원 국악작곡과에 진학해 전통 음악을 공부했다. 어릴 적에 잠시 배웠던 대금과 가야금도 큰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푸른 눈빛의 여인이 국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녀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물여덟 살의 젊은 나이에 뮤지컬 '명성황후'의 음악감독으로 데뷔한 후에는 '사운드오브뮤직', '페임', '시카고', '아이다', '미녀와 야수' 등 내로라하는 뮤지컬 작품의 음악을 책임졌다. 음악감독은 물론 연출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현재 호원대학교 뮤지컬과 교수로 재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물론 한 여자로서 사랑과 이별을 반복한 시절도 있었다. 젊은 시절 연극을 통해 만난 연극인과 결혼했지만 현재는 강아지들과 살며 솔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8년째 신장병을 앓고 있기도 하지만 생활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에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강하고 씩씩한 그녀다.

그런 박칼린이 얼마 전에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지난 3년 동안 오늘날의 유명세와 상관없이 써내려온 유년, 음악, 사랑, 일상, 여행 등에 대한 고백이다. 독특한 성장기의 추억부터 다양성, 균형, 열정과 도전이라는 그녀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 등 인간 박칼린의 모습을 모두 담아냈다. 특히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담담한 추억은 그동안 그녀가 꽁꽁 감춰왔던, 이제야 뒤늦게 공개하는 소중한 시간들이기에 더 눈길이 간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삽살개 두 마리. 일상에 지칠 때면 어김없이 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1. 부산, 유년의 추억 가득한 제2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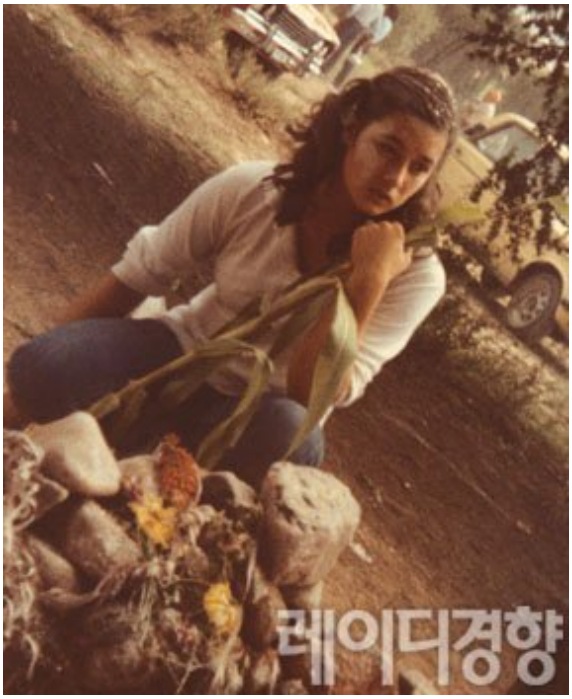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부산에는 저마다 각자의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아서 먹고 사는 집들이 많았다. 그래서 생선뼈가 많이 남아돌았던 게 옛날 부산의 풍경 중 하나다. 생선뼈가 생기면 콩나물을 넣어서 푹 고아 먹곤 했는데…. 짭조름한 콩나물을 한 가닥씩 빼먹을 때마다 조금씩 생선살이 딸려온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음식이다. 이렇게 크고 나서는 다시 그걸 맛볼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더더욱 모르는 음식이었고, 다시 돌아온 부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먹을 수 없었다. 부산에 살고 계신 숙모는 그건 싱싱하고 좋은 생선이 많았던 예전에나 먹을 수 있던 거라 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만들며, 만든다 해도 그 맛이 안 날 거라고 했다. 이제는 먹을 수 없다는 증언을 들으니 그 맛이 더욱 그리웠다.

어렸을 적 부산에서 살 때 엄마는 목요일 저녁마다 부산항 앞에 있는 씨맨스 클럽에 우리 세 자매를 데리고 갔다. 그곳은 외국 선원들을 위한 서양식 레스토랑이었다. 외식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쳐주기 위해 엄마는 그렇게 목요일마다 우리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혀 그곳에 데려가고는 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정확하게 10주에 한 번씩 집에서 파티를 열곤 했다. 엄마가 가르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주요 손님이었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요령, 사람들과 대화하는 요령, 새로 온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법 등을 자연스레 배웠던 것 같다.

#2. 한국으로 시집온 어머니의 '아리랑 전설'

파란 눈에 금발의 어느 외국 여인, 그 여인이 한국 노래를 부른다. 뭐, 요즘에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다. 그것도 부산에서다. 때는 1980년대 초반, 아직 연탄불에 물을 데워 써야 했고, 버스 안내양들의 '오라이, 오라이'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시절. 리투아니아계 미국인인 엄마는 자식 교육에 열성적인 분이셨다. 세상의 수없이 많은 지혜를 전해주기라도 하려는 듯, 재잘거리는 세 딸들의 모든 질문에 늘 진지하고 사려 깊은 답변을 해주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에게 새겨주려는 듯 그렇게도 세게 안아주고 했다.

그런 엄마는 유난히 음악을 사랑했다. 엄마는 미국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LP판 한 장을 한국으로 가져오셨다. 거기에 말러 교향곡 1번이 실려 있었는데 밤마다 그걸 틀어놓고 우리를 재웠다. 그리고 빈소년합창단과 여러 발레 공연 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열다섯 살 때쯤 엄마와 함께했던 남미 일주에서.

이렇게 우리 집은 모두 예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했다. 그 중 유독 노래만큼은 철저히 엄마 몫이었다. 원래 성악을 전공하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였고, 한국인 아빠와 사랑에 빠진 것도 뉴욕의 한 대학에서 엄마가 부른 '아리랑'에 아빠가 매혹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게 우리 집의 '아리랑 전설'이다.

엄마는 외국 여자였지만 한국의 팔도 민요는 물론 가곡, 그리고 엄마가 '지구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던 이미자 선생의 노래까지 정말 한국 노래를 많이, 깊이 사랑했다. 비디오는 외국인, 그러나 오디오는 한국 가곡으로 딸들의 추억을 가득 메운 우리 '엄니'였다.

#3. 혼혈 자식을 둔 아버지의 애통한 눈물

아마 여덟 살 무렵의 일이었을 것이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학교 준비물을 위해 동네 근처 공터에서 봉지에 모래를 담고 있는데 어떤 그림자가 우리 둘을 가리는 거였다. 언니와 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떡하니 덩치 큰 남자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고는 놀랐다.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였던 것 같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언니에게 시비를 걸었다.

"넌 왜 노랭이랑 노니?"

순간 언니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에게 울지 말라고도 못했고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키 작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네 나라로 가!!"

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 한참을 멀거니 서 있다가 울고 있는 언니 팔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몇 번이고 돌에 발이 걸렸던 것 같기도 하다. 집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언니를 집에 들여보내고 나도 집에 돌아왔지만 왜 그날따라 잠겨 있는 대문이 그토록 야속하던지, 참. 나는 대문 앞에 앉아 얼른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안에서 아빠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빠는 내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라 조금 머뭇거렸다. 아빠는 여러 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빠에게 공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쳤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아빠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칼린, 그건 그냥 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겨서….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뿐이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칼린, 여기도 네 나라고, 미국도 네 나라야. 그리고 모든 나라가 너의 나라란다."

그 말을 마친 아빠가 울기 시작했다. 그 무엇보다 아빠가 우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가만히, 울고 있는 아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빠는 모든 걸 감싸 안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겠지만 이런 식의 난감함 앞에서는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게 분명했다.

어린시절의 세자매(왼쪽). 엄마가 처음 나와 언니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권 사진. 최근에 발견한 사실은 우리 넷 모두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

#4. 박가네 세 자매, 사랑하는 언니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는 나와 언니 둘은 몇 년에 한 번 꼴로 만난다. 우리 식구는 다 합쳐 다섯 명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오래 살았던 탓에 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면 가족사진을 찍어두는데 그 유물이 고작 두 개뿐이라고 하면 짐작이 갈 것이다. 여하튼 서로 보기가 힘들어서인지, 아님 원래 여자들이 말 많은 종족이어서인지, 자연스레 생긴 집안 풍습이 하나 있다. 내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면, 아님 딸 셋이서 어디든 한 곳, 한 나라, 한 도시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린 장황한 '간만에 수다 떨자' 의식을 반드시 치른다. 그러면서 밤새는 것이 박가 집안 딸내미들의 전통이 되었다.

수다 의식은 언제나 이러하다. 첫째, 가벼운 먹을거리를 주문한다. 다음, 첫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비즈니스, 남자, 애완견, 커리어, 집 등 일단 지난 몇 년간의 과거를 서로에게 업데이트해준다. 그 다음엔 서로의 근황을 제각기 업데이트한다.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 서로 업데이트가 될 때면 가장 중요하며 즐거운 시간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든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스물여덟 살 때의 나. 엄마와 단둘이 떠난 여행에서 '찰칵'. 박가네 세 딸들. 킴, 켈리 그리고 나(사진 위부터).

물론 언제나 이렇게 즐겁고 해피한 내용만 오가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처럼 과거를 꺼내다 보면 영락없이 다투는 순간도 있게 마련이다. 원래 그렇지 않은가? 특히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그렇게 긴 시간을 싸우고 웃고를 반복하면서 새벽까지 우리는 매우 집중력 있는 대화를 하게 된다.

한 집에서 같이 산 시간이 많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무슨 세미나를 하듯 한 소재를 강도 높고 깊게 수다로 파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집 자매들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각자의 미래의 꿈과 희망, 과거의 아프고 좋았던 일들, 특히 각자의 사는 방식과 감정을 서로 배우고 확인하고 가르친다.

#5. 과거, 현재의 나를 완성시킨 쓴 약

어린 시절의 나를 형성한 것은 다양성이었다. 다양성은 내게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줬다면, 그래서 내 삶에 균형을 이루게 했다면, 그것을 알고 행한 다음에는 온 열정을 쏟아 달려야 한다.

우리 모든 삶의 일 속에 최고와 최선이 분명히 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상대가 있다. 나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과 무대를 선택한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상 나는 전부를 넣어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고 있는 일에 감동받기를 바란다. 그 세포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발산되기를 바란다. 내가 선택한 일과 그것을 위해 최고와 최선이기를, 그것들을 위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에너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가장 뜨거운 곳에 있어야 한다.

할 거라면, 살 거라면 가장 뜨거운 곳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뜨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렇다. 밋밋하게 죽으려 살 바에야 활활 타오르고 싶다.

〈■글&정리 / 윤현진 기자 ■사진 제공 / 달 출판사 ■참고 서적 / 「그냥」(박칼린 저)〉

ⓒ 레이디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5&artid=201012031553481

[펌글]

박정희 통치18년 역사인가? 신화인가? [6]

정정근(raders9899) [2010-11-15 08:43:29] 조회 746 | 찬성 105 | 반대 2 | 스크랩 0

우리는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라 자랑한다.
그러나 침략과 굴욕의 역사이고 침략자의 지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용불용설의 진화과정을
거치며 정석보다는 편법과 불법에 치우치고 물질만능과 정직하지 못한 비굴함이 몸에 밴
부끄러운 민족이다.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단 한번도 침략을 해보지 못한 민족!
약소민족의 열등감을 효종 때 북벌계획으로나마 위안을 삼는 민족!
단결보다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역시 엽전은 안돼!” 하는 패배주의에 쩔어있는 민족!

이런 패배주의가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민족으로 전락되고 월드컵 16강에 목숨 거는
광기(狂氣)는 약소민족으로서의 보상심리 같은 것이다.

이웃나라에선 우리민족더러 3치가 없는 민족이라 한다.
염치가 없고 눈치가 없으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오천년의 역사 중 민초를 주인으로 섬긴 집권자가 있었던가?
오천년 역사 중 민초들이 등 따습고 배부른 적이 있었던가?

침략자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침략자에 빌붙어 호사를 누리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들이
보호해야할 백성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잘난 조상들이고 그 잘난 조상을 둔 후손들은 오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후안무치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역사에는 정답이 없고 오직 사실만 있을 뿐이다.
사실만 기록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속의 인물들은 과대포장 되고 왜곡된 인물들이 많다.
이순신장군은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불리던가?

임진왜란이 우리민족의 뻗어나가는 국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호령하던 전쟁이던가?
우리조상들의 사대주의사상에서 비롯된 방어전쟁이고 대리전쟁 아니던가?
실리보다 명분을 앞세우던 조선핫바지 정신이 민초들을 사지로 몰아넣던 전쟁이다.

옛날 우리의 위정자들은 大國에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군신관계를 맺던 선조였고
그 후예들은 오늘날에도 북한에 조공을 바친 결과 민족의 등에 비수를 꽂는 핵폭탄을 안겨준
위정자도 있다.

그들은 수백년의 시공차이만 있을 뿐 적과 내통을 하며 백성을 하나의 먹이감과 수탈의
대상으로 여긴 것에 문제가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백성과 위정자의 관계를 약육강식의 논리, 즉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본 것에 있다.

정치는 권력이고 권력의 속성은 힘과 폭력이다.
원시시대 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물리적 힘으로 약자를 침략하고 지배하며 자행하던
수탈과 약탈 행위가 권력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고.

수탈과 착취를 고도의 기술과 기교를 통해 제도화하고 의무화 시킨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는 고상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칼 든 강도는 지배자요. 약탈당한 피해자는 힘없는 민초이다.

혹자는 잘하는 정치란 국민 잘 속이고 국민 등을 잘 처먹는 것이 잘하는 정치라고 말한다.

그 옛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었다면 지금은 햇볕을 팔아먹는 교활한
늙은이도 있다.
봉이 김선달은 유형의 물이라도 팔아먹었지만 〈제갈 노베루 킴〉이란 긴 이름을 가진
이 사내는 무형의 햇빛을 팔아 자신의 부를 축적한 자이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 중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한 부분이 있다.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인 5.16 군사혁명으로부터 2010년 오늘날의 짧디 짧은 50여년의
찰나의 역사가 그것이다.

5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반만년의 세월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이고
우리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행운아 들이다.

반만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물질적인 풍요는 어디에서 왔는가?

반만년의 어둡고 추웠던 역사의 궤도를 바꾼 이가 누구인가?

오천년 역사 중 유일하게 민초를 주인으로 섬긴 지도자가 여기 있다.
오천년 역사 중 유일하게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해준 지도자가 여기 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자국민으로부터는 독재자 소리를 듣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조국근대화의 아버지이다. 후안무치한 조선핫바지들은 그를 독재자라 부른다.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던가?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굶주린 민초들 배를 불려주던 독재자가 있던가?

우리는 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노력과 눈물이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오천년 흘러간 역사속의 수많은 나라님 중 가난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님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들은 왜 성공을 못했을까?
마음은 간절했으나 실천하지 않은 나라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나라님하면 세종대왕을 떠올린다.
문화와 과학을 꽃피운 나라님으로 손꼽는다.
과연 당시 문화와 과학이 얼마나 민초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해주었을까?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피골이 상접한 민초에게 곤룡포를 벗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군이라는 세종은 과연 굶주린 백성의 민생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종대왕시기에 백성들의 고초는 어느 시기보다도 컸었다.

수령(사또)의 임기는 5년이었는데 세종2년에 금부민고소(禁部民告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수령이 살인과 반역과 같은 중죄를 짓지 않는 한 백성이 수령을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기에 부패한 수령이 부임하면 민초의 삶은 생지옥 이었으나 이 악법 때문에 달리 해결책이 없었다.

이 악법에 대한 폐지여론이 높아지자 암행어사나 내관을 파견해 수령을 감찰하므로 백성은 수령을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폐지를 반대 하였다.
하지만 암행어사 파견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니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세종2년이면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시기이니 이 악법은 사실상 태종이 세종의 왕권강화의 방편으로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수령의 부패를 부채질하였고 백성의 원성과 고초는 극에 달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실제 수령의 부정을 고발했던 민초는 장100대에 유배를 보냈고 부패한 수령의 부정은 없었던 걸로 덮어버렸다.

이는 곧 당시의 집권자들은 왕실의 왕권강화를 위해서 수령에게 막강한 권한과 신분보장을 해주었고 백성의 삶 정도는 왕실이 존재키 위한 소모품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세종8년에는 조선시대 최대의 뇌물스캔들인 병조판서 조말생의 뇌물 수수사건이 터졌으나 세종은 사건을 덮으려 했고 상소가 빗발치자 잠시 유배를 보냈다가 곧 재 등용을 하였다. 세종은 부정부패에 관대하였으며 이는 곧 민생의 도탄으로 직결이 된다.

실록을 보면 조선사회가 극도의 빈곤과 피폐로 인해 많은 식인(食人) 기록이 남아있다. 몇 년씩 기근이 들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달 두 달 일년 이년이 지나가면 버틸 장사가 있겠는가?

사대부의 양반가에서도 계집종이 주인집 어린도련님 2명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먹었던 사건이 있었다.

안방마님이 계집종을 미워하며 밥을 주지 않고 고된 일만 시키자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여종이 마님의 어린자식 두 명을 가마솥에 삶아 먹었는데 일종의 복수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식인소문은 세종과 숙종 대에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조선왕조가 망하고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들어섰지만 고단한 민초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보릿고개 춘궁기에는 굶어서 몸이 뚱뚱 붓는 부황이 들기도 했다.

국민들은 굶는데도 날만 새면 정치싸움이고 흑백의 이념투쟁으로 날밤을 새웠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깡패까지 동원하여 정치싸움에 전념했고 민초의 고달픈 삶은 조선시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선땅덩어리에 태어난 게 죄라며 체념하는 게 차라리 편했다.

1961. 5.16일의 새벽은 우리민족에게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손길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 正義의 이름으로 분연히 들고 일어선 정의로운 날이요. 조국근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첫날이었다.

박정희의 5.16혁명은 우리민족에게 축복이요. 영광이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이라는 헐벗은 황무지를 피땀 흘려 옥토로 만들었다.
박정희를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이다.

박정희식 통치가 시작되며 가장 피해를 본 자들이 부정축재자. 고리대금업자. 정치모리배. 양아치. 깡패 등 서민들의 등을 쳐 먹던 기생충 같은 자들이었고.
사회의 암적 존재의 후손들이 박정희 알레르기 반응 환자 층에 속한다.

박정희 통치18년은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국민의 등을 처먹던 정치모리배에게는
암울한 시기였다.

박정희 통치 18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민족에게 〈하면된다〉는 민족혼을 일깨우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수령이었다.

박정희는 구차한 변명보다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였고 당대의 인기에 연연치 않고 모든
공과(功過)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며 나에게 불만 있는 자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을 남기고 일체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국근대화의 작업에 정진하였다.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인이나 깡패. 부패한 관리에게는 서릿발 같았고
썩은 조선핫바지 정신을 국가개조를 통해 고쳐나갔다.

박정희 통치 18년이 눈부신 경제발전과 고속성장의 디딤돌을 놓은 반면.
박정희 사후 18년 만에 국가부도사태로 IMF 구제를 받게 된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자본시설들은 거의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낸 유물들이다.

고속도로가 그러하고 조선산업의 강국을 만든 포항제철. 비만 오면 피해를 입던 수해의
근본해결책인 민둥산을 산림 녹화한 것이나 소양강댐 등 큰 댐들은 모두가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농경사회에서 중화학공업국가로 발전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은 정치건달 김대중과 김영삼은 졸개들과 스크럼을 짜고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반대 시위를 하던 동영상과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은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는 정답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 버렸다.

박정희는 가난구제를 하였고 그의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를 넘어 세계속의 신화가 되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을 주목하였고 타임誌는 아시아를 움직이는 20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과 박정희대통령을 선정하였고 박정희를 표지인물로 실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 한 분의 말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박정희가 보여 준 철학과 비젼 국가관리 능력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두 대통령은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의 불법축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의 사회적 근간과 국가의 목표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흐려놓았다.〉

민주화를 생계수단으로 앵벌이 하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훼손하였고 그들 패거리들에
의해 사회는 병들어갔다.

민주화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화를 앵벌이 해 집권한 전직대통령 몇 분을
통해 얻은 교훈이니 참 아이러니이다.

박정희가 만들고 지켜낸 반공국가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 곳곳에 적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요소요소에 친북. 종북 세력인 좌익들이 진보와 좌파라는 탈을 쓰고 위장을 한 채 적화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있다.

박정희는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반공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의 상징이다.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좌익들이 박정희를 폄하하고 짓밟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인공기를 꼽기 위해서는 오천만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박정희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와 연결하는 시각은 좌편향적 시각일 뿐
박정희의 반공이데올로기는 시대적 과제와 사명에 충실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선택이었다.

박정희를 연구하다보면 어느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 부분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이다.

박정희 그는 과연 누구였나?
그는 인간 이였나?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홀연히 다녀간 호국영령의 수호신이었나?
오천년을 굶주린 불쌍한 민족을 가엾게 여겨 하늘에서 내려준 은인이었을까?

1961년 5.16혁명당시 1인당 GNP 80달러에 불과한 나라를 1979년 서거당시 1인당 GNP 1.800달러로 22배라는 경이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박정희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케 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자들은 모두 사이비 진보이고 불순한 세력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인과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던 박정희 같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가 과연 있던가?

오직 탐욕에 굶주려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천한 부류의 사이비 진보가 있을 뿐이고
적화통일의 앞잡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숨기려 진보를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
그가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2010년 11월14일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신하신지 93회가 되는 해이다.
살아생전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으니 이제 저승에서나마 조국 걱정 잊으시고 편안하시길 기원한다.

TAG 정치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6]

best

공감 8

지금 우리 정치인이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던 박정희 같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가 과연 있던가?

오직 탐욕에 굶주려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천한 부류의 사이비 진보가 있을 뿐이고 적화통일의 앞잡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숨기려 진보를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은인이신 박정희! 육영수! 그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
그대가 있어서 오늘도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그 행복이 길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자.
2010.11.15 10:20:04

공감 신고

공감 신고

공감 3

2010년 11월14일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신하신지 93회가 되는 해이다.
어제는 그대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 바통을 영애에게 가게 해 주소서!
2010.11.15 10:20:35

공감 신고

공감 3

功이 過를 덮는 사람이있는가하면,過로인해 오히려 작음 功마저도 묻혀버리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는 神話로 불리우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이고,남이 존경해주거나 기억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世人들이 死後,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알려지고있지요..先知者가 고향에서 환대를 받은적이 없다합니다..
돌(石)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빛을 발하지 않듯이,玉을 아무리 때를 입히고 흙칠을해도 그 빛을 가릴수없듯이 말입니다..
2010.11.15 21:58:50

공감 신고

공감 2

지금도 이나라를 박통이 관리하고 있어야만 되는게 이나라를위해 맞는 일이다!
2010.11.16 03:41:59

공감 신고

공감 1

우리의 5천년 역사는 권력자들의 가렴주구의 역사였읍니다. 우리의 민요 회심곡에 보면 저승 가는데도 인정(뇌물)이 필요했읍니다. 그만큼 착취 뇌물 부정이 5천년동안 유전질화 되어 내려왔읍니다. 그것을 타파하고 민족성을 개조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박정희 대통령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것들이 맹목적으로 폄하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작 무덤에 침을 콱 뱉아버려야 할 자가 따로 있지요. 님의 좋은 글이 전국민들에게 읽혀지면 참 좋겠읍니다.

2010.11.19 14:27:22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
bbs_id=10134&message_id=630342&current_sequence=02fsD~&start_sequence=zzzzz~&start_page=1&current_page=3&directio

[chosun]

□[펌글] 박정희 욕하는 것들을 분석해보니...

2010.12.04 15:24

[펌]

박정희 욕하는 것들을 분석해보니... [4]

이병석(paradoxxxxx) [2010-12-03 16:59:44]

조회 464 | 찬성 84 | 반대 5 | 스크랩 0

박정희를 까는 사람은 어떤사람일까 생각해봤다..

1.나이

대부분 어리다..
박정희시대를 못겪어본 얘들이라고 보면된다.
어디서 박정희에 대한 비방글을 읽었거나,이야기를 듣고 박정희를 까면 뭔가 있어 보이는것 같아서 하는 치기어린 아해라고 보면된다.
간혹,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욕하는것들은 머리는 좋은데, 학력이 낮고 게으른 부류들이 많다.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라면서 일하면서 싸울때, 일은 하기 싫고, 배운거는 없으니 어디서 한자리 차지할 처지는 안되니 그냥 세상이 미운거다..
그래서 박정희가 미울수밖에, 그런 부류의 자식들이 잘될일이 없다..
그러니깐 여기서 종일눌러 앉아서 주야장창 박정희를 욕하고 박근혜가 미워서 욕하는거다.

2.지능

당연히 떨어진다..
단지, 이상한 대가리가 잘돌아가는 주위에 그런 부류들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가난한 가족에게 밀가루 한포대가 생겼다 치자.
어설픈 가장은 그걸로 수제비해서 골고루 먹어치워 버린다.하지만, 제대로된 가장이라면 한끼 해결보다는그 밀가루로 건빵을 만들든지,국수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벌이 할 궁리를 할것이다.
부모로서 당장 자식새끼들이 배고파서 징징거리는걸 보면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게해서 조금씩 돈모아서 가게도 얻고 살만하니깐, 아부지 그때 우리 밀가루 죽도 안해주고 밖으로 나가돌아다녔자냐며 따지는것은 패륜아나 다름없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문맹을 면하게 해줬더니 그렇게 배운 글을 여기서 욕하는것으로 사용하는 종자들 보면 그냥 무주구천동 골짜기에 격리수용해버려야 된다.

3.심성

배배꼬였다.
남이하면 불륜이고,지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타입인데,이런 부류들 주위에 있으면 친구간에 우정이 금가기 십상이고, 모임을 하면 꼭 분란이 일어난다.
궤변과 변설에 능하기에 상대하면 피곤한 타입인데,이런 부류는 남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는다.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해서 상대에게 질리도록 만드는 집요함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면 모른척 딴짓을 해대는 인간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부류 만나면 화병나기 십상이다. 아예 상종 안하는게 상책이다.

4.지지정당

당연히 반 한나라당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박정희를 비판수준이 아니고,필요 이상 씹는자라면 멍삼이 추종자일 가능성이100%~ 다.

평생을 박정희 바지가랭이에 붙어서 기생한 김슨쌍이나 멍삼옹은 박정희가 졸라 부러운거다.
자기들도 완장차고 큰소리 치고 싶은디, 뭐 마땅히 따지고 들건 없으니 민주팔이로 귀엷은 사람들 꼬득여서 결국은 대통까지 해본자들이다.
그 자들은 박정희가 벌어논걸로 먹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멍삼이는 박정희를 욕하는걸 보면 얼굴에 메루치포대기를 덮어썻는지 뻔뻔하기 한량없다.

5.지역

뭐 말안해도 대충 알겠지만 그쪽 사람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이고 박정희 지지자들이었다.
원래 남도사람들 경상도보다 먹거리도 풍부해서 인심도 좋고,신바람이 많은 사람들이다.
쪽바리들이 한국인을 냄비근성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그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란 뜻인데 남도사람들이 그런것 같다.
그런디, 어디 출생도 출신성분도 애매한 슨상님의 완장 욕심때문에 몇십년을 속고 있는것이다.
박정희가 지역차별햇다고 불만을 가지는데,경상도라서 되려 역차별 받은거 이야기하고 싶어도 씨알도 안먹힐것 같아서 관둔다.

6기타.

빨'갱이와 어중이,떠중이들이다.

어중이와 떠중이...이것들이 정말 성가신 존재들인디.무지해서 말도 안통한다.

욕을해도 무대포다..상대 안해주면 혼자 사그러진다..

간첩들.. 이것들은 어떡하던 잡아내야 한다. 야들은 직접적으로 욕을 안한다.. 교묘하게 어중이떠중이를 이용할뿐이다.

뱀다리:

지금 죽은지 30년이된 박정희를 들먹이는건 박근혜 때문인거 다 안다.

박근혜 솔직히 육영수여사의 이미지 덕을 본거 맞다..

그래서? 그래서 우짜라고? 딸이 엄마 닮았는데 불만이여? 좀만것들아?

하지만, 이제는 되려 자체의 아우라가 부모의 후광을 덮어버리는데 우짜노? 응?

호부에 견자 없다고, 박정희의 강단과 추진력을 닮고,육여사의 온화함도 반듯함을 유전받은 박근혜가 솔직히 겁나제?

그래서 아무리 잡것들이 떼거지로 덤벼도 박근혜는 그냥 웃지요~

박근혜의 그렇게 웃는 모습도 보고 있으려니깐 얄미워서 미치것지? ㅎㅎㅎ

어떤 또'라이가 박정희 시절을 노예로 살았다며 그렇게 사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콧물이 다 나온다..

자기 집안의 한을 여기서 풀려고 하면 곤란하다.. 지애미 애비가 종살이 한것이 왜 박정희 탓이고?

박통시절 남들은 새벽종 울리면 잘살아보세~ 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먹고 잘 사는데, 아직까지 노예근

성 못버리고 노예타령하는것까지 보살펴 줄순 없잔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기서 노닥거리지말고 밖에 나가서 신문을 줏던지 병을 줏던지하며 월동준비라도 하라고 알간? ..쯔쯔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4]

best

공감 7

하루종일 신문/병 줍자면 너무 추워요

바람은 얼매나 부는데요..

여기 알바비가 백번 좋은데 뭣하러

추운데서 고생하겠어요....ㅎㅎㅎㅎ

2010.12.03 17:05:20

공감 신고

공감 3

에고 이병석님 이 날씨에 가것어요

항상 오후 2-6시 사이가 알바비

최고 많을땐가 봅니다.너도나도

그냥 막 설칩니다 그려....

2010.12.03 17:16:35

공감 신고

공감 0

이병석님 나는요 박대통 칭찬만했지

욕한적 한번도 없었는 기라요!!

박대통 충성!!

2010.12.03 17:26:00

공감 신고

공감 4

정석님~ 쉬엇!

그란디 님은 쩌어~기 5번이나 6번사례같네요~ ㅎㅎ

열심히 까던거나 까세여~

2010.12.03 17:29:40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19&message_id=644236¤t_sequence=02hbyy~&start_sequence=zzzzz~&start_page=1¤

[chosun]

모바일 저장 각종 정보와 메모

2010.11.16 13:40

KBS 6시 내고향

〈 전 주 〉

1. 전주맛집 ; 완산구태평동중앙중오거리 T.(063)254-0002
2. 이연 ; 잔치국수 비빔국수 ; 덕진구 전북대병원입구길(백제로) 건너편
   T. (063)242-0036
3. 호림이네집게장 ; 완주상관신리역 ; (063)285-4007

〈 함 양 〉

함양마천면외단리의중마을 - 옻닭 옻진 옻피 ;
당뇨 관절 폐암위암 내한 고운피부 수족냉증

〈 산 청 100503 〉

오리불고기 비빔밥 무침 버섯약초전골 ; 권민경씨; 산청약초축제

〈 장 흥 〉

갑오징어; 장흥군화진면화목리; T.(063)620-5900 ; www.jtda.kr

〈 고 령 〉

우륵된장샤브샤브 ; 쌍림면고곡리226-5 T.(054)955-1351

〈 논 산 〉

오골계 ; 논산시연산면화악리

〈 안 동 090930 〉

찰떡 ; 천영조배재한의 벙어리 찰떡 ; 안동시 옥동

〈 순 천 093030 〉

야콘 ; 순천시승주읍구강리 ; 숙취해소 변비해소 플라토올리고당

〈 논 산 〉

둥근마 ; 논산시벌곡면 ; 하수오(검은머리)

〈 양 구 〉

시래기밥 ; 해인면대암산펀치볼마을

메밀촌떡 & 며느리곰취두부 ; 동면

〈 대 전 〉

수구레전골

〈 무 의 도 〉

박대묵물회

〈 천 안 〉

연잎진흙오리구이

〈 풍 기 100127 〉

유황오리 ; 김원형 ; 풍기읍

마이클샐던의 정의란무엇인가

전립선배디증치료 - 카리토

스마트폰 LG안으로이드1 ; T.080-810-0000 상담 T.080-070-0000

동의랑 김성용 인진쑥

에천의 혈액순환뇌질환 환천마, 산청의 인디언땅콩 아피오스

대전의 화산리 맥문동 뿌리와삼겹살

캄보디아 디찬쎄이하, 담양의정원 소쇄원

아름다운 여인들 - 인디펜던트 크리틱스 - 101214 - 스포츠조선 27면

카밀라 벨 (1)

엠마 왓슨 (2)

모니카 벨루치 (25)

스칼렛 요한슨 (42)

제시카 알바 (53)

메간 폭스 (64)

Can't take my Eyes of you

〈 MBC 091225 00:25 〉

안드레아보첼리. Natalie Cole, Reba McEntire, Mary J. Blige, katherine Jenkins

라이오넬리치 ; Three times a lady

K.D.랭;레너드코헨의 할렐루야, 사라맥라클란, My heart will go on, 일디보
El Paso, El Cumbanchero, And when I die, Paranoid, Junc, Wonderful world
황태자의 첫사랑중에서 이제야즐기리, Drinking song, 삼손과데릴라
파가니니피아노협주곡, 헨델의 울게하소서, 카르멘중에서SG워너비의사랑해,
수톰슨별은내가슴에, 따라~따라라~라라라라~, 사랑한다해도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나자레스, 바비대런의 Beyond the sea,
오펜바흐의 캉캉, El paso, Fly Robin fly, 수잔보일의 I dreamed a dream
Santa Lucia Luntana 기타연주곡, 니콜라디바리의 무지개같은나날
Wilma goich의 Un Flore, Dalida, 마빈게이, 무디블루스, 알레사프랭클린
몬티월쉬 Good times are coming, 리마빈, 잭파란스,
게리쿠퍼, 존웨인의 알라모 그린베레 & True Grit, Sigmund Groven

루이암스트롱의 When you are smiling, Bibbidi-Bobbidi-Boo, Danny boy,
사라브라이트만의 넬라판타지아, I sing You sing, 파바로티의 아베마리아,
Musica Fantasia, 카잔차키스의 희랍인조르바, Bach, Whitney Houston,
Carole King의 You've got a friend,

아!대한민국 박진선 왕소연 그대는내안의 로망 람바다 성민호야망, 김선희강건너
고영수 임성훈 박상규 임문철, 안개낀고속도로
김민기 늙은군인의, 손인호 나는울었네, 백설희 봄날은간다
수와진, 박칼린, 선우와 배다해,
임태경의 가시나무, 이정옥의 숨어우는바람소리, 김현식의 기다리겠소
과거는흘러갔다, 박종록의 21살의비망록
김민정의 꿈, 이효정의 매화타령,김영애의 라일락꽃, 슬퍼지려하기전에,
선명회의 아무도모르라고, 빨강머리앤, 배추도사무도사
블루벨스, 봉봉사중창단, 자니브라더스, 최병걸
차중락, 이연실, 패티김, 한상일, 유열, 윤승희, 윤심덕, 김지애,그사람찾으러간다, 쓰러집니다, 종로네거리, 돌아라물레야. 99.9
백남봉의 내가걸어온길(청학동훈장나리), 서영춘
정훈희의 별은멀어도, 비내리는 고모령, 비내리는 호남선,
문정선의 파초의꿈 & 나의노래, 김상희의 괜찮아, 리타킴, 윙크의 얼쑤,
각종의 아리랑, 금잔디의 일편단심

5 · 16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혁명이었다 – 박정희, 산업화 가장 기여"

2010.06.06 03:07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8/2010052800659.html

[기억의 정치]

5 · 16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혁명이었다

"박정희, 산업화 가장 기여" 73%, "새마을운동 가장 영향 컸다

"

- 한국정당학회 '기억의 정치' 연구진
- 기사
- 100자평(15)
-

입력 : 2010.05.28 03:01

<글 싣는 순서>

① 4·19 50주년, 민주화 50년
❷ 5·16과 산업화 50년
③ 6·25 60주년, 미국과 북한
④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기억의 정치] [2] 5 · 16과 산업화 50년

'5 · 16과 산업화' 국민의식 여론조사

5 · 16에 대한 평가… 보수 50.5% "산업화 출발" 진보 68.9% "군사 쿠데타"

산업화 성공 요인… 진보 45.9% "한국인 자질" 보수 35.4% "강한 리더십"

한국정당학회(회장 숭실대 강원택 교수)와 조선일보는 연중 기획 '기억의 정치'를 테마로 민주화, 산업화,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회 '4 · 19와 민주화'에 이어 이번에는 '5 · 16과 산업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3~14일 국민 1009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산업화의 성공은 리더십이 이끌고 국민들의 우수한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했다.

◆산업화 기여 1위, 새마을운동

산업화에 대해선 대체로 비슷한 역사 인식이나 기억을 갖고 있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으론 박정희 전 대통령(73.4%)이 압도적으로 꼽혔고 김대중(10.8%) · 노무현(4.3%)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민주화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은 김대중(33.4%) · 박정희(24.3%) 전 대통령으로 의견이 갈린 것과 대비된다.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나 계기로는 새마을운동(35.5%)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24.5%), 경부고속도로 · 포항제철 건설(20.8%)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이 한국 산업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는 세대 간 차이가 미미했고 진보와 보수도 동일한 평가를 했다.

◆5 · 16, 보수 "산업화 시작" 진보 "군사 쿠데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새마을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역사 인식이 나타났다. 절대다수의 국민(73.9%)이 새마을운동을 '농촌 중심의 잘살기 운동'으로 규정한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동원 운동'이란 응답은 22.4%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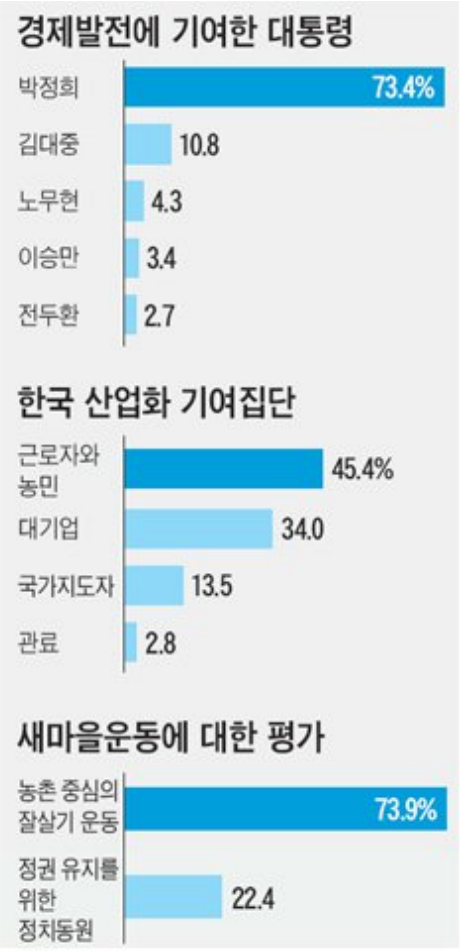
박정희 정권 출범의 시발점이 된 1961년 5·16에 대해선 "군사 쿠데타였다"는 국민이 52.7%로 여전히 다수였지만 "산업화의 출발"이라 답도 37.0%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국민 50.5%가 5·16을 산업화의 출발로 인식한 데 반해 진보 세력의 절대다수는(68.9%) 군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 1976년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종합제철 제2고로 화구에 태양열로 채화한 불을 넣어 고로를 가동시키고 있다.

◆국민의 우수한 자질로 산업화 성공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는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38.1%),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34.5%)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고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응답은 25.8%였다. 경제 발전을 이끈 요인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 간 차이가 있었다. 진보 성향의 45.9%가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이라 답한 반면 보수는 28.7%에 불과했고, 대신 보수 집단의 35.4%가 '지도자와 정부의 리더십'을 꼽았지만 진보는 17.8%에 그쳤다.

산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집단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농민'이라는 평가가 4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대기업(34.0%), 국가 지도자(13.5%) 그리고 관료(2.8%) 순이었다. 60세 이상 24.2%가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지만 20대는 6.9%만 동의하여 세대 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념별로 보면 진보 성향 54.2%가 '근로자와 농민'을 산업화의 주역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는 근로자와 농민(36.6%)과 함께 대기업(35.3%)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



◆경제 발전 전망, 미래에 더 낙관적

경제 발전에 대해선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 순위에 대해서는 세계 11~20위라는 응답이 32.6%, 21~30위가 33.2%로 비슷하게 나왔고, 10위권이란 응답은 18.6%였다. 그러나 10년 뒤의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선 10위 이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왔다. 11~20위는 24.8%, 21~30위는 26.2%였다. 반면 세대별로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은 차이가 나타났다. 20대들의 10년 후 경제에 대한 전망은 10위 이내부터 30위대까지 골고루 나뉘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40.5%로 다수를 이루었다. 20대들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취

업난 등이 경제 전망에 반영된 것이다.

[기억의 정치] [2] 5.16과 산업화 50년

발췌 : 조선닷컴

오장육부 튼튼히 해주고 냉기□풍증 없애
하루 한쪽만 먹어도 뇌졸중 예방에 효과

한의사 손해복의 [자연건강상담]

마 늘

온몸이 나른하고 입맛도 없는 봄날이다.
이는 자극적인 음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다.
이때 몸과 마음을 각성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마늘이다.

우리 식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늘이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대체로 찬 성질의 채소와 잘 어울리는
식품이어서 채소를 많이 먹는 우리 민족에게는 반찬거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늘은 단군신화에도 등장하며, 기록에 다르면 삼국시대부터 재배
됐다.

마늘은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대산(大蒜)이라고 부른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선 마늘을 대산유독(大傘有毒) 공옹독(功癰毒)
이라고 했다.

마늘 속에 독이 있으나 고치기 힘든 부스럼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에는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냉기와 풍증을 없앤다'
고 기록돼 있다.
옛 의서를 종합해보면 마늘은 독이 있고, 종기나 상처를 삭여주며,
기생충을 죽이는 살충작용과 함께 주로 비위(脾胃)가 찬 사람의
복통이나 이질 설사에 내복하면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요약된다.

약리실험에서 마늘의 효과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알리신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억제하는 감염원이 보툴리누스증,
결핵, 설사, 티푸스 등 무려 72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강력한 항균작용과 항진균작용으로 장내의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정상세균총의 복구를 도와주는 정장(整腸)효과를 발휘
한다.
또 탁월한 항암작용이 있어 암세포 파괴에 효과적이었고, 면역
증강작용도 있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임이 밝혀졌으며 강력한
항산화제로도 작용했다.
점액조절 작용을 하므로 급□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에도 유효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48가지 식품 중 마늘의 항암효과가 가장
높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심혈관계통의 효과다.
심장의 수축력 증가와 말초혈관 확장작용을 하며 죽상동맥경화
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하루에 생 마늘 한 쪽만 먹어도 혈전□
심장발작□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하루 두 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강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은 빈 속에
먹으면 위벽이 헐 수 있다.
너무 많이 먹어도 간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안질환이나 구내염이 있는 사람, 평소에 두통이 잦고 땀이 많은
사람은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 매운 음식에 위장 장애가 생기는 사람은 익히거나 구원서
먹는 것이 좋다.

흔히 마늘은 부작용이 없어 체질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좋다고
하여 많이 복용한다.
그러나 마늘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활력을 주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

녹용이나 인삼, 만병에 다 듣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단지
그 사람의 증세에 적합한 것뿐이다.
일시적인 복용은 몰라도 장기적인 복용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장수한의원 원장 - - www.jsomc.kr

4대강의 눈물...이게 강을 살리는 짓인가

여강일기-여강선원/남한강모니터링 2010/05/03 15:38

글 :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현장모니터팀 / 신륵사 여강선원

**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의 모습은 어떠할까? 많은 국민들은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4대강 공사사진을 보지만 그 전면을 알지는 못한다. 방송을 비롯하여 대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 나면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을 살리는 것은 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다. 흐르는 강의 원형이 잘 유지되고 강 속에 사는 수생생물들이 잘 보전되어야 한다.

강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을 잘 보전하고,

강과 주변 육지를 연결하는 곳에 많은 동 · 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강의 생태계이다.
또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오폐수가 강으로 유입되지
않고 강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최소화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건강한 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4대강에 포크레인의 굉음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의 강은
그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파고 깍아내면서
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처참하게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죽이기 속도전에 대다수 언론들이 외면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참다운 실상을 알 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강 수역의 약 50㎞ 핵심지역은
이명박정부의 불도저 공사로 깡그리 망가지지고 있다.
이제 이 참상의 현장을, 하늘에서 담은 필름을 공개한다.
언론이 외면하면서 부득히 4대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사진을 찍었다.
위험과 고생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지금 이 시각 하늘에서 본 남한강은 어떤 모습일까? 4대강 사업은 장밋빛일까?

위의 지도와 같이 남한강 전 구간의 공사는 세 개의 보와 준설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류지역인 이호대교가 있는 강천보, 세종대교가 있는 여주보, 이포대교가 있는 이포보를 중심으로 대략 50㎞구간의 강줄기가 연일 24시간 공사판이 되고 있다.

[daum/parksamo]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실을 폭로/리모델링의 실체, 당신의 평생 재산을 노린다 2010.04.27 16:55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실을 폭로합니다!!!<펌>

|자유 게시판

관망천하 | 조회 53 | 10.04.27 15:32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393426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이유진 기자, 정승국 기자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MTN 이유진 기자님! 그리고
한국주택신문 정승국 기자님!
귀하들께서는 지난 3~4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

입력 : 2010.04.05 19:09
이유진 MTN기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가총액 반년 만에 5조원 감소
"1기 신도시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 아파트가 많지만 각종 규제로 리모델링 추진이 부진한 상태여서 호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가격하락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 03월 10일 (수) 17:09:09

기획특집팀 정승국 기자

[산본 세종주공 6단지②]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전형 (계단식)

2008년 대부분 집값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산본 세종주공 6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위 발족이라는 호재와 인식의 전환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79㎡형은 현재 방이 2개, 복도식이라는 단점이 리모델링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기대감과, 이시기부터 신도시에 중소형 평형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여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분당 시범현대 아파트②]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다.

현재 시범현대의 분위기는 전세물건은 부족한 편이지만, 매매는 문의조차 없는 상태라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수요를 자극하지 못하는 점과 인근 판교의 영향도 있다. 거기에 20년정도 지난 단지로써 노후화에 따른 가격조정, 단지내 리모델링 등과 같은 호재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당분간 시세는 약 보합세로 전망된다.

==========

위 기사에서 두 분의 기자분께서는

마치 수도권 아파트와 분당의 소금아파트가 마치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아래 지난 1년간 아고라 게시판의 앤디님의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말 호재가 있는 것인지, 기자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고

지난 3~4월의 아파트 리모델링 호재 허위, 선동 기사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8부..아파트 경매를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9부..리모델링의 실체, 당신의 평생 재산을 노린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10부..몬도가네 막장 인생, 소모품, 아파트

.아파트 리모델링의 실체, 당신들의 평생 재산을 노린다

첫째, 리모델링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5㎡(25.7평)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현 제도권에서는
30% 증축이 가능하므로 전용면적 110.5㎡(33.4평)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109㎡(33평) 아파트가 149㎡(45평) 아파트로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3.3㎡당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총 공사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늘어나는 "면적 x 3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40㎡ * 0.3025 * 300만원 = 3,630만원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현재면적 109㎡*0.3025*300만원=9,9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증축면적 149㎡*0.3025*300만원=1억3,5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감내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만이라도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 모두가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면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시의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증축면적+공유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9㎡면적의 아파트의 공유면적이 33㎡(10평)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계약면적은 149㎡(전용+증축면적)+33㎡(공유면적)이 되며,

공사비는 182㎡*0.3025*300만원=1억6,5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위의 공사비만 마련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리모델링할 기간 동안의 이주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주비를 시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시공사는 이익이 남지않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보다 다소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주비는 인근 아파트의 전세값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109㎡(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최소한 인근의 90㎡ 이상의 아파트로는
이사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 어지간한 지역의 이 정도 면적의 아파트 전세값은 2억 정도 합니다.
즉, 이주비로 최소한 2억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주비와 공사비(3억 6,500만원 정도)만 마련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조합비와 취득세 · 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조합만 결성되면 리모델링이 당장 진행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율을 높이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단지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 2년, 최대 4년 정도 잡아야 하고,
리모델링 결정 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그 기간동안 조합사무실 임대료와 조합장과 조합임 · 직원의 월급 등을 내야하니

최소 5년, 최대 7년 정도의 조합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 등록세 등까지 감안하면 3~4천만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필요할테니,
총 4억원 정도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로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

세상살이에는 항상 변수란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추가비용이란 것이 들게 됩니다.
이건 공사견적서를 받을 당시랑 실제 공사시랑 원자재값의 증가와
인력비용의 상승등이 주 요인입니다.
솔직이 말이 좋아서 3.3㎡당 300만원이지 공사 끝날 때쯤이면
추가로 3.3㎡당 5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5%니 추가부대비용 8%니 하며 이상한 계산식을 붙이지만

결국은 이 비용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09㎡에서 149㎡로 증축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4억 3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중 이주비 2억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소요됩니다.

결국 이는 2억 5천만원 들여 방을 1개 늘리는 셈이고,
집 2채를 살 돈으로 1채만 사는 셈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얼마나 대단한 집에서 살게 될지는 몰라도.....말이죠...
이것만한 낭비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둘째,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는 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 많지않습니다.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리모델링 추진 후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고 떠나길 원하는 사람이 제법 됩니다.
또는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비용조달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집만 팔면
해결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면 늘어난 면적 만큼의 집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꼬라박은 돈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니 썩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내력벽 해체 불가 등 법적 · 물리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의 내부구조는 방만 하나 늘었다 뿐이지 기형적 구조(ex. 동굴형)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군, 교통 등 다른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한 그 이상 오를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가계산상 현 시세가 3.3㎡당 2천만원 이하인 지역에서 리모델링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4억 3천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만큼의 부담을 더 안게 됩니다.
예컨대 리모델링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집을 사게 되면, 그것도 대출 1억원을 껴서 무리하게 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5억 5천만원의 대출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5억 주고 산 것이라면 실제 투자비용은 9억 5천만원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금융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집이 7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리모델링 추진 중인 집을 사는 것은 폭약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입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 후 집값이 잠시 오르는 듯한 것은 허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집값이 얼마 오르건 간에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팔지 못하는 이상, 죽으나 사나 리모델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을 팔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4억 3천만원+@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리모델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자기 집을 사주기를 바라겠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있어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집을 사줄 의무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시공사나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들 주민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세의 반값이나 받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반값 받은 돈도 공사비용 정산하고 나면 몇 천만원 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설프게 리모델링에 찬성했다가 쪽박차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럼 리모델링에 반대하면 괜찮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모델링에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은 법원의 조정 하에 조합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집에 대해 높은 값을 쳐줄리도 없고,
소송으로 맞장 떠봤자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되면..
반대자의 운명도, 찬성하고 돈없어서 쫓겨나는 사람의 운명과 별반차이가 없게 됩니다.
공사대금 정산이 없으니 목돈은 쥐고 떠나겠지만 집 잃은 건 마찬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나 제대로 얻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이 막대한 돈을 본인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일반분양분이 있는 만큼 공사비가 그만큼 적게 들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4억 3천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모두 자기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시공사가 저금리로 일반 금융권을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이자를 연 5%로만 잡아도 4억 3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215만원입니다.
중도금-잔금 등 기간에 따라 실제로는 이보다 작겠지만, 어지간한 가정의 한달 수입을 넘죠...
입주한 뒤 남는 금액인 2억 5천만원으로 계산해도 월 125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이 들어올 때는 월 250만원 정도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입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원리금 상환이 들어올 줄 알겠지만,
이주 후 입주까지 최대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4억 3천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제약을 받습니다.
LTV를 40%로 잡고, 109㎡ 아파트 4억 3천만원 중 2억원 정도만 대출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나머지 2억 3천만원만큼 자신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사채를 끌어써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가구가 기존 대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대출이 단돈 천만원이라도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 대출이 7천만원이면 이 돈을 갚은 후 대출을 받거나
이 돈을 엎어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도 4억 3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비용도 이를 전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리모델링한다고 난리치는 걸 보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건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읍니다.

리모델링의 함정을 모르고
대로변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결정'...
'○○건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등의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읍니다.

먼저 리모델링의 생리와 리모델링 업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읍니다.
어느 아파트든 그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가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업자를
찾습니다.
아파트에 리모델링 업자는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한인 15년된 아파트에
집을 사서 들어옵니다.그리고
동대표회의 사람들 과반수 이상을 자기사람으로 만들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감투를 주고 월급을 줍니다.

이때
부녀회라는 조직도 같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감투를 주고 월급을 줍니다.
이 돈은 정비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에 대여금이라는 명목과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리는데 이돈과 나중에 리모델링 건설업체를 선정하면서 대여금이라는 보증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는 아주 무시하고 그들만이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건설업체에서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임직원 월급도 주고 모든 돈을 지원받습니다.
결국 리모델링 업자,부동산 중개인,정비업체,
그아파트 동대표들,그리고 부녀회들이 건설업체로 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는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설가격을 분담금 증가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비싸게 요구하고
건설비를 못내는 할아버지,할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경매로 넘어가 집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집을 팔거나 해서 나가겠지요.
그돈이 건설비의 30%라고 합니다.그것을 리모델링업자는 같은 리모델링추진위원들과
나누어 먹고 어떤 경우는 리모델링 업자가 혼자 건설업체에서 다받아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혈을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업자의 일반적 업무입니다.

재건축 비용이 100%라면 리모델링 비용은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끝날때는 리모델링 비용과 재건축 비용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30%의 건설비가 리모델링 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보통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0평형이 나오고 주거공용으로 3.16평형이 나오고
현행법상공급면적은 28.86평형이고 기타공용은 2.53평형이라고 할때 종전법 공급면적이 31.38평형이라고
공급됩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이 지하2층 까지 주차장 만들고 1층 외벽을 허물고 15층에 1층이 추가되어
16층으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할때 41평형 아파트가 되고 전용면적 33.41평형이 나오고 주거공용으로
6.82평형이 나오고
현행법상공급면적은 40.22평형이고 기타공용은 2.60평형이라고 할때 종전법 공급면적이
42.82평형이라고 공급됩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면적 12.59평형이 나오고 계약면적 55.41평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건설회사는 평당 280만원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주민은 내가 31평형에서 42평형 아파트로 됐으니 11평형에 대한 건설비로 11평형 곱하기 280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후 계약면적 55.41평형에 평당 2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물가,금리등 인상과 리모델링 업자들에게 줄 돈)이라는 명목으로 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이 끝나면 평당
38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30%의 건설비를 놓고 싸우니 1000세대
아파트만 돼도 400-50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니 목숨을 걸고 하고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축비를 낼수없고 못내면 경매처분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주 죽는 것입니다.리모델링업자는 불법,탈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하니 입주민들은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리모델링 업자는 모든 법에 통달하고 모두 알고 있으니 당하는 아파트 주민만 그냥 죽는 겁니다.돈낼 능력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축비를 못내 집이 경매처분되고
집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될까요?능력없으면 죽으라는 것입니까?
능력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노인들만 죽는 것입니다.
또 건축비없는 사람들은 바로 집이 경매넘어가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섯째, 공사할 시공사가 없을까봐 우선 협상시 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대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공사할 시공사가 없을까봐 안달이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도 전에...
건설사와 우선협상시공사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과 다름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500세대만 넘어서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1,000억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행사에게 거저 주어지는 수익만도 10%정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건설사는 단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리모델링 추진이 결정된다면..
유수의 건설사들이 서로 하려고 덤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3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과 맞물려 금융기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시공사로부터
대여금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려 쓸수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창립되면 시청에서
인가를 받든 안받든 상관하지않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거의 인가도 안받고 일합니다.
돈이 있어냐 일을 할수있지만 리모델링주택조합 임직원들도 돈맛을 알아야하기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외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후 리모델링 추진결정 시기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생사(生死)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우선협상시공사 선정부터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립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시행사 마진율은 10% 정도입니다.
5,000억원 짜리 사업이라면 500억원의 돈이..
공사시행책임을 지라는 미명 하에 시행사에 주어집니다.

우선협상시공사는 장차 시행사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500억원의 돈을 여유자금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을 조합 설립 이전에 미리 사둘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건 않건 간에 상황에 따라 다시, 팔면 될 일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죠.
만일

500억원의 여유자금이 확보될 것이 예상되고 집값이 3억~5억원 정도 한다면..
100~200 가구 정도를 미리 사둘 수도 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지분을 10% 정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의결권도 1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합의 주도권을 주민 대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협상) 시공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자신들과 시공사 계약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우선협상시공사의 의미를..
그 건설사와 먼저 협상하라는 의미 정도로 소박하게 이해할지 몰라도..
이미 시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과 진배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는 우선협상시공사 약정을 맺은 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조합가입을 알선하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탈락하는 주민들의 집을 싼값에 시공사가 낙찰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 가지는 시공사의 지분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공사 입맞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추가비용은 그대로 살아남은 조합원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건설사로서는 이 과정에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금조달 잘한 주민들에게는 돈이 되건 안되건 약속한 집을 제공하게 되고,
시공사에게는, 싸게 매수하거나 낙찰받은 집을 비싼 값에 되파는 셈이 되니 남는 장사겠죠.
팔지 못한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잡히면 적어도 투자한 돈만큼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시킨 일만 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이좋고 화목했던 마을주민들은 리모델링 찬반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반대하던 주민들은 집 팔고 떠날 수밖에 없고,
찬성은 했지만 돈 없는 주민들은 집 뺏기고 쫓겨나는 신세마저 되버리고 맙니다.

무사히 다시 재입주에 성공한 주민들도 방 하나 더 생겼을 뿐 남는 것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니 대출금 갚을 일이 막막하고,

친했던 이웃들은 어디론지 간 데 없고 처음 보는 주민들과 다시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동네로 전학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도 친구 없어 외롭고,
집 팔고 다른 동네로 떠나자니 몇 년간 고생한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앤디

관련기사 2009.02.09 입력
[중앙일보]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조사

리모델링 위해 4억원 대출 받아야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 4억원을 넘는 대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저금리 대출 알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활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 증축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 아파트 17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가구가 이미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공사비와 이주전세자금 등의 부담금을 추가로 대출로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체 가구 중 62%가 이미 대출을 받고 있었고 이중 28%는 은행에서 1억원 이상 빌렸다. 거의 모든 가구가 1억5000만원선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물론 2~3년간의 이주 전세자금으로 1

억5000만~2억원 정도를 대출에 의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출 알선 등 자금 지원 있어야"

이 아파트 김종민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기존 대출에 공사비, 이주 전세자금을 합해 가구당 평균 4억원 이상 대출 부담이 생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출 부담이 해결되지 않고는 활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구당 4억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연 6%로 대출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월 2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므로 입주민들이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대부분 입주민들은 또 리모델링 이후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며 15년 전 지어진 작은 주차장을 늘리고 헬스클럽, 도서실 등 기존에 없던 생활편의시설을 신설하는 등 공용공간 증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아파트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리의 금융대출 상품 지원 등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1기신도시가 조성된 지 15년 넘는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인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land.com/total/read.asp?pno=82992

전국 불법다단계 아파트피라미드 진상위원회 창설 청원

[daum/parksamo]

2010.03.20 14:43

故 박진희 기수의 유서 (전문)

삼베옷은 싫은것 같아.

w concept 원원피스를 입혀서 화장해줘..

000은 운다 그랬는데 나둑여줘..감성적인면이 강해서 자책할꺼야 분명.

000은 할말없어..스스로도 괴로운 결말일테지..상상이상으로 괴로워했으면 좋겠어.

내 물건은 다 버리지 말고 모두 언니에게..

최고 슬픈일은 언니에게 미안한것..제일 사랑하는 우리언니..

부산 기수들이 다 좋게 일했으면 좋겠어..모두 힘드니까..난 여자기수니까 x50 씀..

부산경마장은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서울 제주만큼도 대접도 못받고..

정말 죽게될까..그랬음 좋겠는데..

신분도있는 000조교사는 왜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거지?

경마장 최고 또라이가 누구더러...

소이치도..

소이치도..열세살..스물아홉

아..말이 차나.

어쩌면 말도 태어날까?

노내제 무산에서 몇 번의 자살시도를 한거야..

일은 가느므 알수 없을만큼 힘들고, 친구는 없고, 가족도 멀리..

난 참 긍정의 사고를 지녔었는데..경마장이 사람을 이렇게나 바꾸어놓는구나..

무산경마장은 참 많은것들을 잃게 만드는구나..

명화언니를 데려가고..저신이를 잃게 만들고..내 자존심 또한 남아나질 않게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린다.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힘든시간 또한 알아주길 바라는데 위로와 격려는 커녕

뒤에서 모두 깊은 나락으로 더 깊이 떨어뜨리고야 만나.

경쟁력이 그만큼 심한 무산경마장인만큼 여자기수로서 견뎌내기가 이제 힘에 부친다.

잘나보면..문명 더 좋은 날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를 기다릴만큼의 여력조차 남아있지가 않아..

왜 아무도 없는거야- 왜 모두를 힘들게만 하는거야-

왜 그나이가 되도록 철없이.. 혼자 견뎌내고있는 나를 "또라이같은년" 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그 나이가 먹도록 소교자가...

왜 그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건지 모르겠어..

죄나 모르겠어..왜 나를 상처만 주는걸까..모두 도와주질 않아..

엄마가 우려했던 내 성격은 이런걸 본거겠지..

[redacted]

[redacted]

[kra]

[redacted]

[redacted]

제목 **진희를 보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 박금만(man*) 조회 1,362 등록일 10.03.18 18:12

진희를 보내며

지난 2000년 4월 벚꽃이 만개하는날,

열아홉 여리고 여린 소녀의 모습으로 꽃처럼 나타난 너를 처음

본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서로를 잘 모르고 철없던 어린시절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함께 성장했던거야.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함께 산을 오르고,젊은 패기와 열정을 쏟으며

함께 말을 달리고,힘들고 지칠 때 서로의 어께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 잡았지.

그렇게 힘든 교육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의 당당한 기수가 되었지.

말을 타고서 달리는 너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더할나위 없이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어. 남자와 비교한다해도 손색없는 너의 당당한 모습.

어디를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기수 박. 진. 희...

남들은 너를 보며 경마장의 홍일점이라 말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존재이며 동료에게 귀감을 보이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했었지..

그런 너였는데,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한 너였는데 ,그렇게 우리의

곁에 있던 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니....

너의 비보를 듣고서도 나는 아닐거라고, 꿈일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이 모든게 누군가의 장난 이라고..

누군가의 거짓이라고 했으면 하는 기도도 드려보았지

하지만 나의 두 눈과 두 귀에는 나의 기도와는 달리 슬픈

모습만 보이고 슬픈 소식만 들려오는구나...

어떻게 이런일이.. 어떻게 이럴수가... 도저히믿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걸까..

그 동안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무엇을 한 걸까..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못해주고 너를 돌보지 못한,

지켜주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싫구나.

어떻게 널 보내 ..나는 보낼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를 보낼 수가 없는데...

하지만 벌써 너는 홀로 우리의 곁을 떠나는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읽는 것 조차 너무나싫고,

말을 타고 달리는 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애통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의 마지막 작별의식을 마치고 너를 보내야 하는구나.

니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흰색 원피스를 입고서 하늘에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

비록 너를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니가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이제는 정말이지 마지막이구나...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렴.....

사랑한다..... 진희야.....

[kra]

[펌] 박진희기수의 언니 박진주님의 글/ 부경기수협회장 기수오영일

2010.03.18 12:06

http://race.kra.co.kr/race/customer/open.jsp?Act=open&Sub=1

제목 **햇살이 너무나도 눈부셨지만...**

작성자 박진주(bur*) 조회 587 등록일 10.03.17 23:53

지니의마음처럼 칼바람이 불던날 가슴에 고이묻고 왔습니다..
아빠에겐 하늘이었고 엄마에겐 희망이며 저에겐 심장이었던 예쁜막내를
이제 볼수 없다는것이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사진에선 절 보고 웃고있으며 핸드폰 동영상엔 아직도 사랑하던 고양이 마리와
즐겁게 노는 모습이 그대로이니까요
말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일에 늘 자부심을가졌으며 매사에 당당하던 우리 지니가..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며 지냈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마지막 순간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혹여 꿈이 아닐까요??내일 일어나면 꿈이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저는 경마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어쩌면 동생이 하는일에 그토록 무지했을까요?
조금의 관심이라도 더 기울였다면 지니의 힘든마음을 감싸줄수있었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눈치라도 채지 않았을까요?여기에 글쓰신분들이 저보다

더 지니가 하는일에대해 잘아신다는걸 알고 자책감이 많이듭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남겨진 동료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부모님 역시 필요하면 끝까지 돕고 싸울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와 얼굴도 두껍게 딸같아 농담했다는 조교사 당신!!
어떻게 잘살아가나 지켜보겠어..당장이라도 찾아가 어떻게 하고싶지만
당신도 가족이 있을것이고 아빠잘못만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죄값받고 살아가나 보겠어..

우선 지니를 친오빠들처럼 잘챙겨주신 21기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니를 위해서라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모두들 고생하신 부산 서울 제주 기수님들 다들 고생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지니를 위해 함께 슬퍼해주시구 명복을 빌어주신 많은 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셔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조의만하시고 발길돌리신 팬이시란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니를 위해 기도하기위해 하늘문으로 갑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힘을 내야겠지요..
모두들 행복만 하세요~이런일은 제발 겪지 않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지니에게 배신당한 언니가

[kra]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제목 부경기수협회장 기수오영일

10.03.18 01:24

작성자 오영일(oyi*) 조회 688 등록일

저는 무능하고 힘이없는 선배기수 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뿐만 드릴수밖에 없는제가 정말 싫습니다

한명도 아닌 두명을 떠나보내는 제가무슨 변명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진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숙여,,,,,,,,

많이 힘들게 지내겠습니다 많이 아파하겠습니다 죽음이 가까와 질때까지""

저희 부'경기수 들의

[kra]

야후 네티즌 Poll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2010.03.05 09:41

http://kr.news.yahoo.com/nuriwl/poll_v2/view.html?qid=50411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평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평가는?

6,233명 참가중 [~2010-05-02]

- 한국 경제성장을 이룩한 최고의 영웅

  79.7%

  4,970명
- 18년 장기집권의 한국 최고의 독재자

  20.3%

  1,263명

- 게임 중독 그 대책은? [참여하기]
- 경기지사, 김문수 VS 유시민 선택은? [참여하기]
- 2PM에게 등돌린 팬클럽 [참여하기]
- MB정부 2주년 만족도는? [참여하기]
-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기]
-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지정 [참여하기]
-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참여하기]
-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적 사업? [참여하기]
-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획득! [참여하기]
- 친노무현계 인사들의 정치 참여 [참여하기]

(총 8건)

[yaho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9/2009122900973.html

광주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10명 기소

- 연합뉴스
- 기사
- 100자평(23)

· 8명 불구속

명목도 랜딩비, PMS, 자문료, 강연료 등 '가지가지'

의약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기독병원 과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5일께 모 제약회사로부터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천400만~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으로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 (납품사례비), PMS 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세미나.학회.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랜딩비는 명백히 대가성이 인정되고, PMS의 경우 환자 1명당 1장짜리 체크 리스트 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 주고 5만~10만원씩 받았는데, 실제 약물 처방내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강연료는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5~10분가량 간단한 설명을 하면 해당 회사가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지어 회식비를 제약회사 직원에게 먼저 결제하게 한 뒤 회식은 하지 않고 식당 업주를 통해 속칭 '카드깡' 으로 되돌려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대병원 교수가 의약품 도매상들과 유착했다는 첩보를 듣고 4차례 압수수색과 2차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의사 70여명을 수사대상으로 선정, 이 가운데 30명을 소환조사 했다.

100자평

정창화(jj6907)

찬성 8

반대 1

천하에 국회의원도 쇠고랑차 마당에...렌딩비는 무슨... 뇌물은 뇌물이고요~ ~결국은 다 ~ 세금에서 나오는 머니라는거...의료 보험료만 올라 간다는... [2009.12.29 17:31:35]

댓글(0)

댓글쓰기

최정택(kss098)

찬성 7

반대 2

돈 받아 쳐먹고,환자들 등쳐먹고,의료사고 쳐내고,외제차에 룸싸롱에 한심한 족속들...그 돈들 가지고 설마

자식들 교육시키는 건 아닐런 지...[2009.12.29 17:28:23]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주동식(jds7715)

찬성 6

반대 1

제일 좋은 방법....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면 된다...자격증을 이용한 범죄는 무조건 면허나 자격을 취소시키자....[2009.12.29 17:33:08]

댓글(0)

댓글쓰기

한순욱(alato)

찬성 6

반대 1

레지던트 제자들 삥쳐서 룸싸롱에 성상납 받은교수도 광주 모의대 교수 라더만 왜 저곳 에서만 일이 터질까? 물론 다른곳도 마찬가지 이겠지만....[2009.12.29 17:10:08]

댓글(0)

댓글쓰기

최현준(chj530105)

찬성 5

반대 4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의 적은 의사 변호사, 아니던가... [2009.12.29 18:04:25]

댓글(0)

댓글쓰기

이계선(lks3635)

찬성 4

반대 4

돈 받고 의약품 처방 해주는 의사는 면허 취소 및 뇌물 수수 죄로 다스려야 한다. 의약분업 한다 하지만 이런 실태를 보면 분업이 안된 것이다. 처방시 약 성분만 처방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사의 리베이트는 없어진다.[2009.12.29 18:43:30]

댓글(0)

댓글쓰기

최현준(chj530105)

찬성 4

반대 2

의사들 리베이트는 케케묵은 사실인데 왜 새삼스레... 의사들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가로 챙기는 돈은 결국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인데... 이건 의사들 모조리 잡아들이더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2009.12.29 18:02:49]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정만(k8910p)

찬성 3

반대 2

예전에 환자 팽게치고 밥그릇 싸움 할때부터 알아봤어. 의사라고 폼들은 다잡고 다니면서 구린내 나는 짓은 다하지 알고 봤더니 일용직근로자나 일반 봉급쟁이 만도 못한 사람들이네[2009.12.29 17:57:10]

댓글(0)

댓글쓰기

박찬수(391101)

찬성 3

반대 1

돈이 뭔지... 대학병원 의사들은 먹고 살 만큼 받을 텐데...욕심들이 한이 없으니...[2009.12.29 17:07:08]

댓글(0)

댓글쓰기

김광수(gocsy)

찬성 2

반대 2

너무 싸잡아 욕하지 맙시다. 모든 의사가 다 그런것도 아니고..사회 다른 직업계층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2009.12.29 19:15:54]

댓글(0)

댓글쓰기

홍현수(polarbear77)

찬성 2

반대 1

김대중 정신과 망월동 정신으로 무장하여 민주적이고 투쟁적으로 의-약 평등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전남대와 조선대의사들을 검찰은 모함하지 말기 바란다. 전남대 조선대 의사들은 정치공작에 빠진것이며 제약사의 나이든 정신나간 사람이 목숨만 살려달라 허위자백을 한것이니 그들과 따로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하라. 전례로 한명숙도 있다..흠흠 [2009.12.29 17:19:06]

댓글(0)

댓글쓰기

송정환(thdwjdgks)

찬성 1

반대 0

선상님, 무여이,죽고나니 검찰이 ㅇㅇ지역 만만히 보고 차별해서 ㅇㅇ지역 의사까지 잡아 가둔다고 한바탕 소동벌어지지 않을까? 청념정부 총리 문제만도 부담스러운디 한껀이 또 불거졌으니? 4대강 예산만을 빌미삼아도 국정을 마비식힐 태센디 문제가 첩첩 쌓이니 국회 제대로 돌아갈랑가? 제산세 의보료도 몇푼 못내는 민초지만 그래도 나랏살림은 잘 돼야 하넌디 걱정되네...[2009.12.29 18:17:58]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홍현수(polarbear77)

찬성 1

반대 0

그런데 의문이 한가지 생기기는 한다. 여러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했는데 물론 개인적 이익으로 치부를 하는 경우는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만 논문번역료 강연료등은 무슨 방법으로 개인치부로 검증할것이며 (설마 일개 번역사등의 번역료와 비교하지는 않겠지?) 또 해외학회의 경우 개인치부보다는 본인이 애써 연구한 결과의 발표나 신지식흡수를 위해 필수적일텐데 말이다..[2009.12.29 17:38:32]

댓글(0)

댓글쓰기

박찬수(391101)

찬성 0

반대 0

이 기사의 비평에도 반대가 많네. 의사들인가? [2009.12.29 21:31:43]

댓글(0)

댓글쓰기

서정학(sjh2857)

찬성 0

반대 0

빙산의 일각일뿐 수사를 더확대하여 철저히 가려내야한다 이미 감추기시작했을것이다 서울의 큰종합병원 약품비리도있을것이다 의사들이 존경받는다느것은 옛말이다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장사꾼일뿐이다[2009.12.29 21:03:52]

댓글(0)

댓글쓰기

‹ 이전페이지 1 2 다음페이지 ›

윤정상(tata1212)

찬성 0

반대 0

이런 풍조가 의사만의 문제일까요 국회의원들은 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유야무야 황무지가 되잖아요 전자개표기 사용승인을 해준 국회의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필리핀대법원에서 퇴짜놓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까요 우리나라대법관들도 OOO들 아닌가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걸 수개표 했다고 판결내린 대법관은 누구일까요 [2009.12.29 20:40:16]

댓글(0)

댓글쓰기

박영일(yeopi01)

찬성 0

반대 0

덤문화가 있는한.... 1+1(원플러스 원)을 원하는 한..... 리베이트나 랜딩비는 영원한 숙제[2009.12.29 20:14:

36]

댓글(0)

댓글쓰기

손용진(son11232)

찬성 0

반대 0

또, 그 동네? 대한통운, 과적, 다음으로.... 그 동네 행님아우의 단합은 대단한기라. 그러나 그 동네 뿐이겠나. 아니다 전 제약사를 철저히 내사하여 발본색출하라. 내년은 대통령이 말한대로 부정부패를 없애는 원년으로 삼자. 정치하고 돈 있는자들의 부정부패. 이제 끝내자. 끝내자.[2009.12.29 19:55:52]

댓글(0)

댓글쓰기

우수구(woosk216)

찬성 0

반대 2

***** 와 항국은 부정부패공화국 개국 몇년도인감 ? 없는삼들은 걍 ! 소주잔만 들이키짐 !! 누가노가다 하고 싶어하는ㅇ감 ? 죽도록일해도! 치앗뿌라 ! 가진자들의 세상 !! 항국에태어난걸 후회한다 !!![2009.12.29 18:54:34]

댓글(0)

댓글쓰기

이명준(lmj7052a)

찬성 0

반대 1

이러한 양심을 소유한 인간들에게 병든 몸을 맞겨서 진정 바른 치료를 받을지 의구심과 울분을 금할 수 없구나.그러기에 의사는 허가 난 도둑이란 말이 헛말은 아닌가보다.[2009.12.29 18:51:35]

댓글(0)

댓글쓰기

이광원(tomlee79)

찬성 0

반대 0

기득권 세력의 개혁은 정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번 정권 내에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전문직 비리를 청산하길 바란다. 선진국 수준도 바라지 않는다. 중진국 수준만 돼주라. 최고학력의 선진국형 서비스업에서 일하면서도 개방을 반대하고 가장 후진국 수준의 비리 안에서만 안주하려는 한국의 전문직은 이제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2009.12.29 18:51:24]

댓글(0)

댓글쓰기

정하곤(hakonch)

찬성 0

반대 2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돈벌겠다고 의사 되지 마세요. [2009.12.29 18:39:42]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이기현(gohyune)

관리자가 (광고/도배) 사유로 백자평을 삭제하셨습니다 [2009.12.29 17:45:27]

이전페이지 1 2 다음페이지

[chosun]

[Why] "기능 없이 어떻게 첨단 기술이 생깁니까"

-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117)
- 입력 : 2009.12.19 02:40 / 수정 : 2009.12.19 09:05

김성민이 만난 '평생 工高교사' 박석진, 기능의 興亡을 말하다
당시 최고 학생들 가르치려 밤 새우며 몰래 연습도…지금은 기초 기술 수업
가난했던 '1% 人材'들… "기술로 대한민국 잘살게 하겠다" 밤샘 연마
이젠 실력보다 '간판'만 중시… 굳이 전문대 안가도 되는데
회사선 工高출신 안쓰려… 마이스터校성공여부도 기업이 데려가느냐에 달려

■ 1973년

1973년 1월 31일 청와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앞에서 오원철(吳源哲) 경제2수석이 보고를 시작했다. "(…) 방위산업의 근간은 기계공업입니다. 우리 기계공업은 아직 유치원 단계입니다." 한국기계공업의 싹이 튼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0일 뒤 경북 구미시 공단1동에 현판이 내걸렸다. '금오(金烏)공업고등학교'. 교훈은 정성(精誠) · 정밀(精密) · 정직(正直)의 '3정'이었다. '정성들여 정밀하게 도면대로 끝까지 정직하게 작업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가칭 '삼정공고', 나중에 금오공고로 바뀌게 될 프로젝트는 1970년 11월부터 시작됐다. 포부

는 원대했다. "동양 최고의 공고(工高)를 만들라!" 그 지시에 따라 6만평의 부지가 마련됐다. 그곳으로 전국의 가난한 인재들이 모였다.

금오공고 설립에는 비원(悲願)이 있었다. 한국인을 얕잡아본 일본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정(日政)때부터 "조선인은 정밀작업을 못하는 민족" "한국인이 기계공업?"이라며 비웃었다.

기자가 찾은 금오공고의 교문은 아치형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우측에 검은 돌이 놓여있었다. 한국 남자의 나쁜 기질, 처음엔 열심히 하다 적당히 끝내는 습성을 없애겠다는 '3정'의 힘찬 필체가 30년 세월을 버티고 있었다.

▲ 인터뷰를 마치자 박석진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학교에서 보낸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참 행복했습니다." 밀링기계에서 튀는 불꽃에 그가 몸담았던 공고의 역사가 엿보이는 듯하다. / 이재우 기자 jw-lee@chosun.

■ 1978년

박석진(朴碩珍 · 58)의 아버지는 6 · 25때 전사(戰死)했다. 어머니는 1년 뒤 외아들을 남기고 재가(再嫁)했다. 두살배기는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작은아버지 품으로 갔다. 그 뒤 정비소는 그의 놀이터가 됐다.

박석진의 몸속에는 목수(木手)였던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많은 부품을 만지고 손에 항상 기름이 묻어있었다. 중학교 때 전국 모형 항공기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1974년 대구공고 자동차과를 졸업했다.

박석진은 경북 경산에 있는 ㈜제일합섬에 들어가 섬유 기계를 다뤘다. 1976년 하루하루 기

계에 기름을 먹이고 관리하던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모교인 대구공고에서 기능인 지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그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는 낮에는 기계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밤에는 경북산업대 기계과를 다녔다. 그는 "당시에는 제일 유망한 학과가 전자과보다는 기계과였다"고 말했다.

정식 교사가 아닌 기능지도 교직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에게 1978년 4월 또 다른 제의가 왔다. 전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금오공고에 기술교사로 오라는, 꿈 같은 일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스물일곱, 그로부터 지금까지 31년간 그는 공고 교사직을 천직(天職)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학교에 전근간 기간을 제외하고 금오공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기간만 25년이다.

■ 전성기

정부의 금오공고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개교 2년 만에 학생들이 정밀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1975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처녀 출전해 금 1, 은 2, 동 1개를 따기도 했다. 정부도, 교사도, 학생도 자신감을 얻었다.

재능있는 청소년이 3년 만에 정밀가공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공으로 변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비웃던 정밀작업을 우리도 할 수 있었다. 금오공고의 성공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성화 공업고등학교가 잇따라 생긴 것이다.

—당시 금오공고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공고와 상고(商高)에 최고 인재들이 몰렸습니다. 금오공고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최고 시설, 최고 학생, 무엇보다 배우려는 열의가 넘쳤습니다."

—요즘의 특목고 같네요.

"지금의 외고(外高) 과고(科高)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지요.

"이 학교가 원래 한일협력기금으로 설립됐습니다. 한마디로 애국선열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생긴 학굡니다. 일본에서 설비도 가져왔고, 교수들도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 기술을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연삭이나 정밀측정 같은 첨단기계는 금오공고에만 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지요.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전국의 군(郡)과 면(面)의 추천을 받아 들어왔어요. 감히 대한민국 1%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어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작업 방법을 찾아오기도 했죠. 그 때 거의 모든 학생이 0.001㎜를 다루는 정밀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힘들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한쪽에서 몰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사업체 현장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규율이 엄했지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생활을 했어요. 일종의 사관학교인 셈이죠. 아침 6시에 기상해 밤 11시에 잠을 잤죠. 아침마다 구보를 했고 외출 · 외박도 쉽지 않았죠. 군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현역 군인들이 와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군대'네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는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기능대회 준비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았죠. 당연히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생활을 함께했어요."

—방과후에도요?

"학교 내에 교직원 아파트가 있어서 함께 뒹굴고, 먹고, 자고 했죠."

▲ 기능인의 초석 / 박정희 전 대통령(오른쪽)은 1973년과 1975년 2차례 금오공고를 방문했다. 그는 이곳에서 산업입국의 희망을 봤다.

"과학기술 1위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 기능인의 영예 /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한 금오공고생들은 떠들썩한 환대를 받았다. 이들은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금오공고를 비롯한 전국의 공고생들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旗手)'를 자임했다. 국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금오공고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살고 학비를 면제받았

으며 옷, 신발, 속옷까지 지원받았다.

최고 기능공을 활용하기 위해 졸업한 뒤 군 기술하사관(RNTC)으로 복무하게 했다. 한 달에 한 번 외박이 가능할 정도로 꽉 짜인 생활을 했지만 당시 학생들은 '배워서 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의욕에 가득찼다.

—교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덩달아 신이 났지요. 동고동락(同苦同樂)이란 말이 꼭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함께 발가벗고 목욕을 다니고, 산에도 함께 올랐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저를 선생님으로, 학교 밖에서는 형님으로 모셨어요. 집도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과 자식이 열외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을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발바닥에 땀이 차도록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일쑤였지요."

—박 선생은 어떤 종목을 가르쳤나요?

"저는 밀링을 지도했어요. 다각형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였죠. 90년도부터는 정밀기기를 가르쳤죠. 주로 정교사보다는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능올림픽은 몇학년 때부터 준비합니까.

"보통 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학생은 3학년이지만 준비는 입학할 때부터 하지요.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만둔 학생도 있나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우는 학생은 있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아팠죠. 오랫동안 떨어지면 어머니 품이 그리울 나이잖아요. 그래도 참 지혜로운 아이들이었어요. 학교가 힘들다고 자퇴한 아이는 거의 없었죠."

—그렇게 훈련하니 기능대회에서의 결과도 좋았겠네요.

"지방 기능대회를 포함해 제가 가르친 학생 60여명이 수상했죠. 전국대회에서는 10개 정도의 메달을 땄습니다."

—학교 전체로 보면 어땠습니까.

"엄청납니다. 1973년 개교 후 1979년까지 6년 만에 전국기능대회에서 65개의 메달을 땄고 국

제 기능올림픽에서는 13개의 메달을 땄으니까요."

—정말 대단했군요.

"70년대에는 금오공고가 기능올림픽을 휩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에 5회 연속 참가해 메달을 따냈습니다. 1978년에는 5·16 민족상도 받았고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 기능올림픽 최우수교'로 선정됐었죠."

—금오공고뿐 아니라 당시 공고 전체의 대우도 괜찮았지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이 성장하던 때였어요. 대기업들은 우수한 기능인들을 경쟁적으로 데려갔지요. 기업들은 '우리 회사가 뛰어난 기능인들을 데리고 간다'며 광고도 많이 했지요."

—그 후에도 금오공고는 승승장구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학교 지원이 줄었습니다. 설립자가 죽고 직접적인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 흥망(興亡)

1979년 10월 26일 이후 금오공고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왜 금오공고만 예산을 많이 받아가느냐"는 볼멘소리가 들렸다.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받던 예산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교사들의 특별 수당도 없어졌다. 차차 학생들의 실습비도 줄었다. 당시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단순 기능인보다는 기술·연구 인력이 필요해졌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공업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이 뭡니까.

"공업 교육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통합됐습니다. 기능인 육성 중심이었던 공고 교육도 변화의 바람을 맞은 거죠."

—어떤 변화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실습(實習)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지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배우는 데 지장이 옵니다. 대신 '합리적 수행'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공고의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됩니까?

"금오공고의 경우 지원이 끊기고 '다른 학교와 똑같아졌다'고 느낀 건 사실이죠. 박 전 대통

령이 서거한 후 군(郡)과 면(面) 추천 입학도 없어졌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는.

"예전보다 학생들의 수준도 떨어졌죠. 그래도 금오공고는 기술하사관으로 취직이 보장됐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있긴 했습니다."

—다른 공고들은 어땠나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생들은 전문계보다는 인문계로 진학해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자연히 공고 지원자 수도 줄었죠. 70년대에는 서울공고나 수도공고를 나오면 바로 대기업에 취직이 가능했는데, 80년대부터는 공고를 나와도 전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식이 변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회가 고학력화, 인문화, 첨단산업화되자 공고는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들만 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당연히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렸지요."

—1989년 기능장려법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공고를 더 많이 세워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법이 효과를 거뒀나요.

"기능인의 대우가 나아지자 전국에 국가 지원을 받은 학교가 많이 세워졌어요. 모두 첨단장비를 가진 좋은 학교들이었죠. 그러나 곧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았어요."

—그렇게 지원하는데 왜?

"저출산 현상에 따라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죠."

—금오공고가 1995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됐지요.

"설립자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재단은 있었지만 책임감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 학교를 팔아 산 밑으로 이전하려는 재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문교부에 국립 전환을 요청하기도 하고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 경북 교육청 등 수없이 많은 곳에 국립화 청원서를 넣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 기능인의 미래 현재 금오공고 정문 모습. 멀리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글이 쓰여 있는 기능탑이 보인다. / 금오공고 제공

■ 재도약

박석진은 1999년 경북 김천의 한 공고로 자리를 옮겼다.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다시 금오공고로 돌아왔다. 1970년대 열의에 차 기술을 습득하던 아이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리를 옮긴 학교는 어땠나요?

"그 학교는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기술 연마보다는 전문대 진학에 초점을 맞춘 학교였죠. 학생들도 열심히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요. 결국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서 다시 금오공고로 왔죠."

—그렇지만 이미 공고의 '몰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YS 정권 때 기능 인력의 축이 전문대로 옮겨갔어요. 공고 지원 예산이 전문대로 많이 빠져나갔고, 전문대의 수도 엄청나게 늘었죠."

—공고도 결국 전문대 진학의 발판이 된 건가요?

"옛날에는 100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초만 가르치고 전문 기술은 대학에서 배우는 식이 된 것이죠. 공고만 졸업한 것보다는 전문대를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간판도 그렇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더 원하니까요."

—모두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낭비죠. 모두가 전문대를 진학해 오히려 기능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전문대에 들어가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배우고 기능인이 아닌 기술인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구태여 전문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회사에서는 공고 나온 사람들을 잘 쓰려 하지 않아요. 공고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 교육을 해 데려가면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되는데도요."

—입사 때만 차별받는 건 아니겠지요.

"공고만 나온 사람과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해도 보수 차이가 있어요. 승진 기회도 다르고요."

—지금 공고에서 전문대 진학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4분의 3 정도죠. 대학이 학생 개인이 요구하는 간판이나 자격 등 다양한 것들을 충족시켜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결국 '간판'만 중시하는 풍토가 공고 교육을 왜곡시킨 거네요.

"(표정이 굳어지며)…."

—세태(世態)의 변화를 어떻게 느낍니까.

"기능인들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산업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이바지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력보다 간판만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 공고 교육도 바뀌게 된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해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이스터교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식 마이스터교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 10월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부터 21곳의 마이스터교가 개교한다. 박석진은 "마이스터교 제도가 잘 만들어졌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마이스터교가 성공할 것 같나요?

"이제 시작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마이스터교에서 잘 훈련을 시켜도 결국엔 기업에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는 마이스터교를 나오면 군대와 보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이것을 요구할지 미지수인 거죠."

—아직 우리 사회가 마이스터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예전에도 특성화 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기업과 연계해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바로 취업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기업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죠."

—공고에서 마이스터 교육을 할 준비는 됐습니까?

"금오공고는 모바일 분야에서 마이스터교로 선정됐어요. 수십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마이스터는 아니지만 '영(young) 마이스터'로 키울 계획이죠."

—IT,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요?

"무슨 소리! 기계를 다루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에요. 휴대폰 껍데기를 만들 수 없다면 안에 첨단 부품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공고에서 가르치는 기계 · 전자공업은 산업의 주춧돌입니다. 이런 기능인들이 없다면 첨단 기술도 없겠죠."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구미 금오공고교사 박석진씨가 기계를 다루는 가장 기본은 기술이라며 기능 없이 첨단기술은 없다며 기계공고의 흥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재우 기자

jw-lee@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8/2009121801389.html

100자평

- 시간순
- 찬성순
- 반대순

전체백자평(117)

장국현(bull321)

찬성 53

반대 2

분배하며 선동질만 부르 짓던 길거리 패거리들아! 진한 땀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느냐?!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남의 망태기에서 빼는 것이 니넘들의 분배지만, 박통은 고기 잡는 기술을 국가적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불어 넣었다. 이 넘들아! 천도하며 국론이나 분열시키려는 이 사악한 넘들아!! 박통을 왜 그리 못 씹어서 안달이냐?!?![2009.12.19 09:41:12]

댓글(5) 펼치기

댓글쓰기

윤희정(neoconservative)

찬성 46

반대 2

나는 비록 박정희 대통령 치세도 겪지 못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 분들이 너무나 미련하게 나라를 위해 소처럼 일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공은 기특하나 그 분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과만을 부각시켜서 60년 한국사의 주역이 되려하는 파렴치한 일부 386들을 경멸한다.[2009.12.19 10:41:29]

댓글(4) 펼치기

댓글쓰기

심규동(enterpriser)

찬성 39

반대 2

게으른 민족성과 이기주의에 가득찬 가난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들어놓겠다는 박정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정치사기꾼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수있다.[2009.12.19 09:55:55]

댓글(0)

댓글쓰기

한순욱(alato)

찬성 34

반대 0

난 박대통령 사진중 제일 마음에 드는것이 공고생 버스안내양 그리고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젊은이들 찾아가 격려해 주는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모습도 가장 즐거운 모습 이었고 그래서 이사람들이 우리를 이만큼 살게끔 해줬죠.[2009.12.19 10:36:15]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조민(joseph0909)

찬성 29

반대 2

인정한다 나도 59년 생이다 당시 중학교에서 5등 상위 이상만 지원했어도 군의 추천서도 필요했다. 금오공고는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역시 박대통령의 국가 발전에 큰 야망은 최고로 박수 받을만한 대통령이다.[2009.12.19 10:59:36]

댓글(0)

댓글쓰기

이동석(s785)

찬성 25

반대 1

박정희 대통령의 큰 업적은 이공계를 중요시하여 이공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이다.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것인데도 쓸데없는 스포츠선수가 대우받고 친북빨.갱.이놈들이 득세한 이후 지금까지 이공계와 돠학기술자들을 푸대접하고 친북빨.갱.이놈들이 날뛰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국의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2009.12.19 12:09:03]

댓글(0)

댓글쓰기

백승덕(limboo)

찬성 19

반대 2

여기 저기 좌파 악취에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나는 박정희대통령을 지도자로 그 시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이들에게 자랑 스럽네요.[2009.12.19 12:45:42]

댓글(0)

댓글쓰기

유명숙(yums26)

찬성 18

반대 1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념이니 민주니 사상이니 인권이니 하는넘들이 세운 나라였을까? 그들이 책속에서 이념과 민주 인권을 공부할때 산업전선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깨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본다. 우선 먹는것이 해결되어야만 이념이고 민주고 인권이고가 생각난다 이디오피아에가서 민주를 씨부려봐라 빵한조각 달라고 손부터 내민다. 그들의 배고픔을 달랜후 떠벌려도 늦지않[2009.12.19 10:56:03]

댓글(0)

댓글쓰기

이동석(s785)

찬성 14

반대 0

지독한 한국병 가운데 하나는 과학기술자를 푸대접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을 푸대접하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미래는 없는데도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려고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한심하다. 국가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자를 푸대접하고도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2009.12.19 12:14:40]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조윤래(mitoori48)

찬성 13

반대 0

기술자를 우대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잘사는 첩경이다. 입만 가진 사람들은 패망을 가져오고....[2009.12.19 12:07:21]

댓글(0)

댓글쓰기

채찬수(cs97008619)

찬성 12

반대 0

요즘 기능 올림픽 나간다는 말 자체가 없는걸로 아는데 걱정됩니다.....중국도 장관의 반 정도는 이공계 출신이라는데 우리는 pen대 대학 출신만 좋아하니 .....[2009.12.19 14:22:03]

댓글(0)

댓글쓰기

박양호(pyh04101)

찬성 12

반대 1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이나라는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요 만약 허약한 대통령이 집권동안 비리나 져질려고 갈팡 질팡했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업이 남침을 해도 무서운 방어를 했기에 지금의 한국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2009.12.19 12:41:47]

댓글(0)

댓글쓰기

강동경(okpoburak)

찬성 11

반대 0

지금까지 박통이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도 기능을 강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폄훼내지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난 확신한다. 그분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민주화가 무엇인지 기능보다 기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9.12.19 12:04:21]

댓글(0)

댓글쓰기

채수원(ultramankorea)

찬성 11

반대 2

한국의 경제는 공돌이 공순이가 이룩한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들은 위정자 찬양에 묻혀, 그들의 공은 폄하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아픈 과거와 공로를 우리는 잊지말아야 한다.[2009.12.19 11:30:28]

댓글(0)

댓글쓰기

김진수(ywjs1112)

찬성 10

반대 2

박정희 각하 옆 모습만 봐도 가슴이 뿌듯하구만 존경합니다[2009.12.19 22:09:45]

댓글(0)

댓글쓰기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다음페이지

100자평

- 시간순
- 찬성순
- 반대순

전체백자평(117)

김용철(1234kyc)

찬성 8

반대 0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이래 최고의 통치자라고 나는 단언한다. 치부를 모르고 오직 조국근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경주하시다 원흉 김재규에 의해 서거 하셨다 이에 비해소위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자들 입만살아서 민주화 민주화 웨치지만 실은 부패 부정 음모 권모술수 선동 데모 치부 전라 지상주의. 반미 종북 . 반인권 .북한인권에는 모르쇄 퍼주기 납북어민 국군포로에는 안면몰수 [2009.12.20 06:17:37]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 순 규(leeyoonho)

찬성 7

반대 0

금오공고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성을 쏫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두뇌라로 칭할 카이스트 설립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월남파병의 대가의 일부로 세운 것입니다. 그분의 통찰력은 지금 정치인 100명도 못 당합니다.[2009.12.20 07:53:30]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이호택(skinpass)

찬성 7

반대 0

그 때 당시에 기술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편 지도자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창원 기계 공단의 창설 그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된 토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9.12.20 06:31:15]

댓글(0)

댓글쓰기

강창성(kcsing2002)

찬성 7

반대 1

존경하는 백기환 선생이 "나같은 사람 3만5천명을 못살게 굴고 나머지 인민을 배불리 먹였다. 박통사후의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하나같이 자기뱃속을 챙기는 도둑놈이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청렴결백하고 근검절약하고 자나 깨나 우리민족 잘살게 할려고 노력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참지도자 박정희, 양심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2009.12.19 22:57:07]

댓글(0)

댓글쓰기

정두화(yhetaj)

찬성 7

반대 0

나는 현재 국가 산업발전에 알게 모르게 땀흘리며 매일 출근하여 불철주야 연구와 노력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능인, 산업인, 기술자, 산업 수출 역군, 연구원, 생산제조업체 직원, 산업 아이디어 창출자, 중화학공업 종사원 등에게 감사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2009.12.19 18:42:19]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정기성(k367156s)

찬성 7

반대 0

내 가 다닌 중학은 8크라스에 480명이었다.전교에서 3등한 친구가 금오공고에 들어갔다.이친구 지금은 어디서 무얼하는지는 모르지만 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졌다고 본다.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원조에 의존하는 못사는 나라에서 오늘날은 세계주도국가가 되는데 기여한 업적은 인류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2009.12.19 16:29:12]

댓글(0)

댓글쓰기

이근혁(leekh1959)

찬성 7

반대 0

가난한 1%의 인재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그리고 이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나도 가난한 1%중의 한 사람이었으니...[2009.12.19 16:15:06]

댓글(0)

댓글쓰기

박경(damanegi)

찬성 7

반대 30

빠~알갱이에서 쿠데타로 정권 강탈한후 독재자로서 자기 고향만을 위해 일하다가 자기 고향사람에게 사살당한 사람...박정희...20세기 민족사의 비극![2009.12.19 09:15:02]

댓글(11) 펼치기

댓글쓰기

안명진(amj9098)

찬성 6

반대 0

6~70년대는 나라기강을 잡기위해서 규제도 많았지만,살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지.비록 잘먹지는 못했어도 도약하기위해서 전부가 분주했지.국정을 맡고있는 박정희라는분의 지시 하나하나가 나라의 뼈와살이 되고,그때까지는 무지했던 국민은 그져 그의 영도력을 따라가기만했던 결과가 지금아닌가?비록 독재와 규제가 많았지만 그런 아픔이없었다면 현실이 왔겠는가?[2009.12.20 09:31:03]

댓글(0)

댓글쓰기

김재극(howlong)

찬성 6

반대 0

일본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장인 정신 고취를 위해 "모노쯔구리" 같은 신조어와 그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도 제조업 고취를 위해 장인정신을 고취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없어지면 아마 미국 처럼 실업율이 10% 까지 쳐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불만 분자들이 맨날 서울 광장 촛불 데모하고 사회 혼란으로 나라가 주저 앉는다.[2009.12.20 00:20:22]

댓글(0)

댓글쓰기

김용철(1234kyc)

찬성 6

반대 0

지금 김대중 노무현 끈아풀들 보라 허구한날 반대 데모. 선동질 기물 파손 점거농성 꼬드김나무에 올라가는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밑으로 잡아당기기 반미종북 지역갈등조장 법안심의 봉쇄 다된밥에 재뿌리기 $쟁기기 대한미국호 좌초 일보직전이다 저들은 한국 전진하는것 저지에 총동원되어 목불인견이다 한국의 근대화를이룬 공로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저들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협잡[2009.12.20 00:11:03]

댓글(0)

댓글쓰기

박승진(playa88)

찬성 6

반대 1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학창 시절 나도 한때 박통을 싫어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만을 생각하다 가신 그런 영웅과 같이 동시대를 살았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 스러울 수가 없다[

2009.12.20 00:04:34]

댓글(0)

댓글쓰기

장석환(jang3001)

찬성 6

반대 1

금오공고, 50대 초반의 시골 출신들에게는 선망의 진학코스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리워 지기도 하네요. 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서 가난한 대한민국을 꿈같은 나라로 바꾸었으니 말입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이 이렇게도 바꿀수 있는 결과를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이 더 그리워 집니다.[2009.12.19 18:45:21]

댓글(0)

댓글쓰기

정두화(yhetaj)

찬성 6

반대 0

차기 지도자는 이제 한국도 이공계 출신이 나올 환경이 되었다. 실용,실질,과학,산업,공업을 잘 이해하고, 국가발전을 이끌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계속 등장해야,나라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들의 mindset이 바뀔 시점이 되었다. 국세만 낭비하고 비생산적이 국회의원수도 대폭삭감하고, 지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이공계 출신은 속성상 거짓말,사기와는 거리가 먼 직종이다[2009.12.19 18:30:10]

댓글(0)

댓글쓰기

이기남(cooldog)

찬성 6

반대 0

공고교육은 독일의 공업고등학교과정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본다. 대학입학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기능을 도제식으로 실습하는 것이다. 全統때 그것의 맥이 끊어 졌구만 그래...[2009.12.19 11:27:02]

댓글(0)

댓글쓰기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다음페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8/2009121801389.html

[chosu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7/2009121701400.html

사회
종합

[주간조선] '박정희 행정수도' 기획, 오원철 전 경제수석

- 주간조선 김대현 기자 ok21@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47)
- 입력 : 2009.12.15 14:50 / 수정 : 2009.12.17 17:35

▲ photo 이경호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세종시 초안 30년 전 세운 계획만 못해
왜 행정수도가 필요한지 다시 짚어볼 때"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8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수도의 인구 집중 억제는 여러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7년 2월 서울시 연두순시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때부터 청와대 참모들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안(案)을 총괄 지휘한 인물은 오원철(81) 전 청와대 제2 경제수석비서관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보(國寶)'라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을 지휘했던 그는 요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바라보며 남다른 회한을 느끼고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중공업 육성과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오늘날 경제강국을 만든 원동력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강한 애착을 보였던 행정수도 문제는 10·26 사건이 터지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행정수도와 '가로림만(灣)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국토개발안은 50년 후를 내다본 원대한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행정수도 기획팀은 오 전 수석이 이끌던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있었다.

오 전 수석은 "행정수도의 축소판 격인 세종시는 32년 전 우리가 다듬었던 초안보다 미숙해 보인다. 왜 행정수도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때다. 지금처럼 불완전한 행정수도라면 세종시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박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The

Korea Story)’를 출간했다. 1980년 신군부 쿠데타와 함께 ‘낭인’이 된 순간부터 작성해 온 박정희 자서전의 마지막권이다. 그는 그동안 7권짜리 대작 ‘한국형경제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등의 단행본을 펴내며 박정희 일대기를 정리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오원철

최근 영문 자서전 ‘더 코리아 스토리(The Korea Story)’를 출간했다.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30년이 되는 해다. 10·26사건 이후 나는 줄곧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 시기에 ‘한국형 경제건설’이라는 주제로 7권의 책을 썼고 25주년째 되던 해에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1월에 영문판을 출간했다. 누군가는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방대한 분량의 집필을 강행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첫째 유신(維新)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과 둘째로 10·26사건이 안가(安家)에서 기생놀음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마(釜馬)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대립하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와 차지철(경호실장)을 중재하기 위한 공적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다.”

10·26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중정부장 김재규가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했고 유신체제도 막을 내렸다. 권력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김재규와 차지철은 같은해 10월 16일 발생한 부마사태의 해결방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대통령께 건의한 반면, 김재규는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를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원철 전 수석은 이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이날 여천 석유화학공장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10·26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인자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차지철과 김재규의 구도가 차지철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충남 당진의 삽교천 방조제 완공식이 있었는데 이날 행사가 김재규가 배제된 채 진행돼 두 사람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날 사단을 낸 김재규의 범행은 어딘가 어설프고 이상한 점이 있다.”

그동안 펴낸 책은 좀 팔렸나. “잘 안 팔린다.(웃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쓴 거다.”

자서전 집필을 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과 상의를 했는지 궁금하다. “책을 쓰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적은 없다. 다만 박근혜양이 내게 한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 서거 이후 49재가 진행될 때 (서울 중구) 신당동 사가(私家)에서 박양이 내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전기를 직접 써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게 전부다. 책은 내가 상공부 과장 때부터 늘 곁에서 지켜봐온 인간 박정희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별다른 이력이 없던데. “청와대 제2 경제수석 당시 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깊이 관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를 내세워 방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바람에 군(軍) 출신 인사들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가 집권했지만 중용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정부의 관리하에 있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다. 1992년 기아경제연구소 고문을 맡길 때조차 노태우 정권의 허락을 받았다고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방 선진화를 위한 각종 무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방위산업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5인 위원회를 두는 등 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애썼다. 방위산업 관련 대통령 보고를 전담했던 오

전 수석은 유일하게 3단계 위원회에 모두 참여해 깐깐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군부의 미움을 샀던 것 같다고 했다.

세종시와 가로림만 프로젝트

요즘 세종시 건설 방안을 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 "글쎄… 내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언급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지금처럼 복잡하다면 결정을 연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현 정부는 이제 임기가 3년밖에 남질 않았다. 천혜의 입지(충남 연기군)를 두고 모호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행정수도가 아니라면 세종시는 의미가 없다."

32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행정수도 건설이 검토된 바 있지 않나. "당시 청와대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웠다. 당시에 이미 선진국 도약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을 담은 국토개발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1960~1970년대 경제강국 건설에 이은 신(新)국토 설계였다. 전담팀은 2년 동안 전국 곳곳을 누볐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과 안보적 요소를 고려해 최적지로 충남 연기군을 선택했다. 현재의 세종시와 위치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차령산맥의 국사봉과 장군봉을 배후로 두고 금강이 에워싸는 형태의 천혜의 땅을 찾아내 대통령께 문서로 보고했다."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했다고 들었다. "1975년 박 대통령의 지시로 중화학공업기획단 산하에 행정수도 건설 등을 담당하는 TF(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 그때 나는 청와대 제2 경제수석 겸 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국가 발전 측면에서 당시 10년 정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오늘날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이어 국토개발이라는 전체 틀을 세우는 작업이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유신이 장기집권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누군가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야만 했다. 일본도 공업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족히 10년은 걸렸다. 나는 (유신정권이)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당시 국토개발 계획의 밑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 "서울은 휴전선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늘 북한에 유혹의 대상이다. 통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남쪽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은 갖고 있었다. 충남 연기는 국토 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부산, 여수와의 이동 시간도 현재 5시간 30분의 절반 정도인 3시간이면 충분하다. 또 지금까지 공업지구가 남해에 치우쳐 있었다면 향후 서해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호남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행정수도 이전 시 이를 지탱해줄 대규모 공업기지가 배후에 필요했다. 그때는 수출 주도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러자면 국제 물류의 원활한 이동이 핵심 과제였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다팔기 위해서는 커다란 항구가 필요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가로림(加露林)만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을 며칠 앞두고 10·26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정리해서 책자 형태로 보고한 행정수도 보고서는 이미 대통령이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행정수도와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하지만 행정수도격인 세종시 문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현 정권의 임기도 이제 3년밖에 남질 않았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

니다. 그 대신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지역은 국가 전체로 볼 때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 안으로는 국토의 허리에 위치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초대형 화물선이 이동하는 허브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면적의 2배 정도를 할애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중부 공업기지로 육성한 뒤 해당 지역은 관세도 철폐하고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게 현실화되면 한국은 향후 50년 이상을 먹고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에 이렇다할 항만이 없기 때문에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다."

가로림만(灣)은 충남 북서안에 자리잡은 만으로 행정구역상 서산시와 태안군이 인접해 둘러싸고 있다. 1979년 당시 청와대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만t급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하고 주변 야산지대를 등에 업고 넓은 공업기지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가로림만은 오랜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20m)이 깊고 방파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파도가 안정돼 있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1977년 중부 공업기지 건설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고(故) 정주영 회장을 동행한 채 헬기로 가로림만 일대를 시찰한 후 "건설부에 지시해서 우선 산업도로부터 건설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회장도 당시 가로림만에 종합제철소 건설을 구상했고 만(灣) 입구의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가로림만을 동북아 허브 항구로 키우고 교육, 의료 등이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약 1억㎡(3억평) 규모에 400만명 정도가 거주할 있는 공간으로 구상됐던 '가로림 자유경제특구'도 물거품이 됐다.

어쨌든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연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우선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했다. 가정을 전제로, 유신 2기가 진행됐다면 아마도 이런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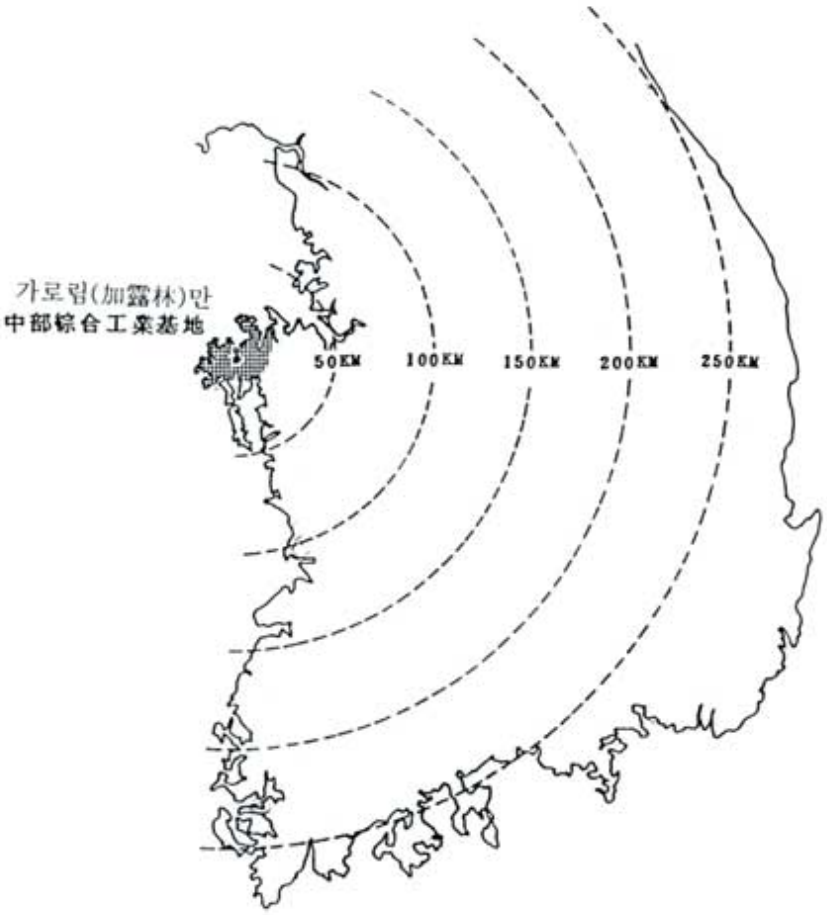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말한 소위 '플러스 알파'와도 연관이 있나. "언뜻보면 (행정수도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정치하는 분들 얘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가로림만을 활용한 공업기지가 추진된다면 굳이 행정수도를 옮길 필요도 없다. 서해안을 따라 호남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경쟁국인 중국은 10만t급 배가 정박할 곳조차 없어 2005년 심해를 파서 양산(洋山)항을 건설한 바 있다. 부산항도 20만t급 배가 정박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로림만은 천혜의 장소다. 수십 년 전에 이미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진 사안을 지금 우리는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4대강 정비와 방위산업

당시 국토개발의 또 다른 계획에는 4대강 정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던데. "그 당시 강 정비 문제는 물부족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운하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잘못 말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봐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도 대운하를 포기하고 정비사업만 하기로 했다. "그래도 수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장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 또 4대강에 수중보를 건설하게 되면 경북 구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의 지천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등 문제점이 남는다."

경인운하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박 대통령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뭔가. 지도자의 선견지명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1971년쯤 닉슨독트린에 따른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군했지만 일본에는 그대로 주둔했다. 베트남은 농업국가인 반면 일본은 중화학공업 국가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방한했던 미국 부통령의 답변이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 때부터 조선, 화학, 원자력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제 옥포 조선소도 그렇게 탄생했다. 창원 공업기지 건설 당시 국방장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라 방한했고 철군 반대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 안보문제와 공업화가 결합되면서 방위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됐다.”
오 전 수석은 경남 창원시 1호 명예시민이다. 그는 청와대 재직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라 창원, 울산, 온산, 구미, 여수 등 모두 6개 도시의 산업기지 조성을 직접 지휘했다. 오 전 수석은 이와 관련, “당시 나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성공시킨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관여했던 방위산업의 경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초기지였던 ADD(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 800여명이 구조조정되는 등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전두환 정권은 아웅산 테러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다시 ADD의 활성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그 부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핵무기와 관련해 입과 귀를) 제한당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 청와대에 갔을 때 핵 관련 문서는 금고 안에 보관돼 있었다. 그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가로림만(灣) 프로젝트
서산 일대를 경제특구로 건설… 싱가포르형 독립국가 계획



▲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로림만 일대의 개발 계획도.

검토 배경

1977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추진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일환. 당시 청와대는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배후 도시 겸 중부공업기지의 최적지로 꼽았다.
가로림만의 입지
가로림만은 20만t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항구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심이 깊고 항만에 필요한 지형적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원유, 석탄 등 주로 20만t 이상의 대형 화물선을 통해 운반되는 물류를 받아 동북아 전역에 나눠주는 허브항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봤다. 1억㎡ 규모로 건설되는 공업기지에서는 창원 공단의 10배에 달하는 공단이 들어서 원스톱 생산도 가능하게 설계됐다. 국내적으로도 항구와 공업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서해안 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가로림만의 역할
당시 전담팀은 가로림만에 중부종합공업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도권과 행정수도의 관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천, 반월, 군산, 목포 등 서해안에 위치한 여러 항구의 모(母)항 역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호남과 충청지역의 소외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곳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독립된 도시국가로서 운용해 나갈 계획까지 세웠다.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통일 이후에도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추진 과정과 결과
청와대 제2 경제수석실에서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지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다. 1978년 12월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가로림만 인근에 산업도로도 건설됐다. 삽교천 담수호도 이곳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당초 이곳에 건설될 제2 종합제철은 전남 광양에 세워졌다. 현재 가로림만에는 삼성석유화학,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등의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서 있다.
오원철은
1928년 황해도 송화 생.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한 후 공군 기술장교후보생으로 입대,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국산자동차 공장장을 지내다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61년 7월 상공부 화학과장으로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상공부 공업 제1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청와대 제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9년간 박 전 대통령 곁에서 최측근 정책보좌 역할을 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공적 활동이 제한돼온 그는 기아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을 거쳐 1998년부터 한국형 경제정책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 주간조선 바로가기
박정희 사후 30년… 이제 그를 역사화하자

100자평

- 시간순

- 찬성순
- 반대순

전체백자평(48)

이수헌(shlixx)

찬성 22

반대 1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깊이의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제잘난 정치가들, 도토리 키재기 식의 다툼만 하다가 나라가 빨갛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싹해진다.[2009.12.17 19:07:32]

댓글(0)

댓글쓰기

윤선희(box3472)

찬성 21

반대 1

박정희대통령은 우리민족의 영원한 영도자입니다.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하에서도 대구사범졸업 초등학교편생활의 박봉임에도 가나한 학생 학용품도 사주고 굶주린아이에게 고구마,감자 사먹이고 일년여 모아 여비하고 무료인 일본사관에 진학하여 극일하기 위해 만주사관..미개한 나라를 일으키기위해 더러운 줄 알면서 일본재벌에 머리숙여 차관.새마을운동으로 민족의식 일깨워서~[2009.12.17 18:56:59]

댓글(3) 펼치기

댓글쓰기

김혜숙(korea6666)

찬성 20

반대 1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자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으려고 하던 전,직 통치자들, 그 대들은 멀었다!![2009.12.17 20:10:44]

댓글(0)

댓글쓰기

김성복(qhrrlfdl)

찬성 18

반대 0

조선일보 김대현 기자님! 기자님이야 말로 진정한 언론인 입니다. 지금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다들 현정부와 지나간 좌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어줍잖은 기사들 내고 있는데, 김자님은 박대통령의 진솔한 역사를! 사실적인 기사를 올려 주심에 그동안 30년간 숨죽이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진실된 역사를 보게 되었군요! 조선일보 화이팅! 김대현 기자님 화이팅! 정말 감사![2009.12.17 19:51:40]

댓글(0)

댓글쓰기

권기현(kihye5n)

찬성 14

반대 1

오원철씨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일뿐더러 시대를 앞서보는 혜안을 가진 분이다. 국토의 구조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역량으로 박대통령을 능가할 분이 없지만 오원철씨의 보필이 아니었으면 박대통령도 추진력의 상당부분이 약화되었을거다. 엉터리 경인운하, 대운하, 4대강사업,... 박대통령께서 김영삼, 대중,무현이를 보면서 한탄하셨을텐데, 또 무어라 하실지. [2009.12.17 18:35:16]

댓글(0)

댓글쓰기

이수중(isopropylamine)

찬성 12

반대 1

오수석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박 대통령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 시대를 생생히 증언해주는 저서를 남기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이유로 박대통령을 폄훼하는 자들이 득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박대통령과 그의 시대가 역사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그분의 업적은 너무도 크고 명확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날 것입니다. [2009.12.17 18:50:56]

댓글(0)

댓글쓰기

김주현(he03518157ju)

찬성 11

반대 3

시의 적절한 기사 공개다. 서울을 떠나기 싫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다. "국

토의 균형발전"은 박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강하게 appeal이 되었는데 지금은 흘러간 예노래인가? [2009.12.17 18:42:32]

댓글(0)

댓글쓰기

한태영(eeids)

찬성 10

반대 1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이순신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입니다. 모 신문에 대학생들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분 1위가 뢰물련 님이 뽑혔던데.. 애들 정말 정신상태가 제대로 박히질 않아서 걱정입니다.[2009.12.17 19:43:27]

댓글(0)

댓글쓰기

길정배(wkfman)

찬성 9

반대 0

어른들 말씀 박정희만 한 대통령 아직없고 다 도독넘들 뿐이다며 예기하는데 정말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박정희는 국민들 영웅이였습니다[2009.12.17 21:52:09]

댓글(0)

댓글쓰기

채찬수(cs97008619)

찬성 9

반대 6

지금하는짖은 충청도 표에 의해 재집권 하려는 지난 좌익정권의 음흉한 속셈과 정당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못한 지난 야당의 탄핵 여파로 졸속 합의해준.....사실상의 야합에 의한 법이었다.....지금은 그 문제로 충청권에 목을맨 어리석은 야당과 부화뇌동하는 정치놀음만이 있을뿐이다....원대한 계획이란 아예 없는 판국이다...[2009.12.17 18:41:35]

댓글(0)

댓글쓰기

정광희(kwang25)

찬성 8

반대 1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남전선에 가서 싸우고 멩예롭게 돌아오라 하셔서 참혹한 전쟁을 격고 불구의 몸으로 돌아왔다.당시에는 박대통령께서 너무 황송할 정도로 보살펴 주셨으나 10.26이란 날벼락 같은 소식과 함께 그이후 파월전사들은 온갖 냉대와 심지어 OO 언론으로부터 살인마 집단이라는 기사를 보고 분통한 심정을 누를길없어 지금까지 술에 의존해 살고있다![2009.12.17 19:38:40]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신석천(sscdool)

찬성 8

반대 1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역사의 한토막이다. 박대통령이 5년내지 10년만 더 계셨으면 우리의 현재는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10월 유신을 이를 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후 가장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라 확신한다. 국운이 여기까지인걸 어쩌나.... [2009.12.17 19:36:40]

댓글(0)

댓글쓰기

황재기(kjazini)

찬성 6

반대 1

다시한번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주이발개이와 비교되는 철학을 느낀다..말장난만 하는 대주이와 철학과 비전 실천 행동을 통해 오늘의 토대를 만든 박대통령....늦었지만 박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2009.12.17 19:34:59]

댓글(0)

댓글쓰기

이해길(genehlee)

찬성 6

반대 1

박대통령의 생각과 목표, 계획과 판단, 추진능력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다른 지도자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없는 수준이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미 박대통령이 전국에 그린벨트 설치, 사방공사 및 산림채벌금

지와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 하천, 농지, 도로정비 사업,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 수,화,원자력을 망라한 전력공급, 철도와 도로건설-만가지가 그분이 수행한 일이었다.[2009.12.17 19:30:47]

댓글(0)

댓글쓰기

심규동(enterpriser)

찬성 5

반대 0

선진 대한민국 만들기의 실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한 양반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계시는군.. 오원철 이 양반의 업무능력은 당대 세계 최고였었지.. 10 26후에 이런 능력있는사람을 매장한 후임들이 원망스럽다.[2009.12.17 20:43:05]

댓글(0)

댓글쓰기

‹ 이전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 ›

임욱(myulgong)

찬성 4

반대 0

핵보유는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2009.12.17 19:52:33]

댓글(0)

댓글쓰기

손용호(hl5yho)

찬성 4

반대 1

지금의 조계모령식의 세종시는 수정안은 연기하고 박정희대통령의 원대한 계획은 차기 박근혜대통령으로 완성하여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 기대 합니다[2009.12.17 18:49:21]

댓글(0)

댓글쓰기

길정배(wkfman)

찬성 3

반대 0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알리요 박정희만 빼고 나머지들 뭐했는지 국민들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 정친들 잘하겠수,,, ㅠㅠㅠ[2009.12.17 21:49:13]

댓글(0)

댓글쓰기

김영애(dksksek74)

찬성 3

반대 0

우선 오원철 전 경제수석님 께서 현재 다행히 생존해 계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안그래도 세종시'와 4대강'문제로 혼란이 가중되는 이때에 오원철님의 귀한 말씀이야말로 한줄기 서광처럼 그야말로 반갑기가 그지없다는 생각입니다. 박대통령이 못다 이루신 일들은 "오원철님이 도와 주셔서 차기에 "박근혜 씨가 반드시 완성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2009.12.17 21:03:55]

댓글(0)

댓글쓰기

호춘애(flower20)

찬성 2

반대 0

예전에도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무현이는 통장 감이 아니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정몽준이가 중도 사퇴하니까 어부지리로 된 작자가 노무현이다. 그런데도 정몽준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2009.12.17 23:42:08]

댓글(0)

댓글쓰기

안봉수(anbongsu9)

찬성 1

반대 0

30년전의 구상이 지금과의 차이점.. 10OO 계획과 단기년 발상에서의 계획이다.. 시작의 고초를 격는다.. 백년대계는 함부로 들먹꺼리면 하루 아침의 이슬이된다..이 글을 읽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2009.12.18 00:36:32]

댓글(0)

댓글쓰기

김순룡(nodongjugwidea)

찬성 1

반대 0

박대통령의 혜안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앞으로도 나라를 번영시킨 성공한 지도자가 되려면 박대통령의 정책과 구상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을 복되게 하는 지도자라면 천년만년해도 독재라 할 수 없다. 물론 폭압,테러,납치,강간,살인을 취미로 자행하는 세습독재자를 섬기며 사사건건 나라의 발전을 훼방놓고 폭동질하는 빨개를 척결한 것! 이 또한 신성한 정의였다.[2009.12.17 23:33:26]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오창수(op1967)

찬성 1

반대 0

호!~ 아직 오원철수석님이 살아 계셨군요..... 박정희각하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이 분의 머리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제갈량에 비할 인물이였지요..... 박전대통령께는.....[2009.12.17 23:32:08]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상경(ksk0415)

찬성 1

반대 0

박대통령님의 오늘날 경젠대국의 초석을 닦은점은 어느누구 도 찬성입니다만, 유신을 정당화 시킨점은 말이 되지않지요 공수대출신 차지철이 안아무인으로 첨방지축,좌충우돌할때는 박대통령이 이성을 잃고,골프황태자 우즈처럼계집에미쳤을때입니다.국가로 보아서는 불행한 일이지요.[2009.12.17 22:30:51]

댓글(0)

댓글쓰기

정주수(dltkddms12)

찬성 1

반대 14

핵무기 개발은 은혜의 나라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다. 반미 행위는 곧 죽음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미주의자 박정희는 잘죽었다. 은혜의 나라 미국 만세~ [2009.12.17 20:24:19]

댓글(7) 펼치기

댓글쓰기

김재현(tickle01)

찬성 1

반대 10

won - jul .... 각하 왜 이러 싶니까? 혈압이... 휴...합의하에 풀도록 장치 해두었어. 본인이 흥분했다고 흥분하지 말도록... 누차 이야기 하지만... 내 가지고 장난치면 조때는수가 이써. 특히 너 말이야.... 내 시절과 임자 시절은 다린기야... 임자... 내에 대해 불만 이써? 아닙니다.전 좀더 각하를 위해 한건 뿐입니다. 그럼 내 딸내미 중에 선택해서 도와주게... 부탁하[2009.12.17 19:57:14]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성희철(juanstation)

찬성 1

반대 0

신(新)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2009.12.17 19:43:03]

댓글(0)

댓글쓰기

황재기(kjazini)

찬성 1

반대 0

그러면.....청와대 금고안에 있던 핵 자료는.....누가..... 어떻해 했나....그 다음 정권?[2009.12.17 19:36:02]

댓글(0)

댓글쓰기

이민원(minwon1128)

찬성 0

반대 0

'흑묘백묘론'을 펼친 등소평은 대한민국에 가르침을 청했고, 통일 월남은 중국식을 따르겠다고 분주하다.

북한은 어디로 가려나? 피비린내 나던 전쟁의 아픈 기억, 왜 모르겠나. 국민이든 인민이든 잘 살게 하는 것이 리더. 상식을 실현한 리더! 남대문은 복원이라 한다지만, 인걸은 가면 다시 오지 않으리! [2009.12.18 00:30:05]

댓글(0)

댓글쓰기

김숙영(ksy5508)

찬성 0

반대 0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남을 영웅!!! 김재규는 역사에 남을 영웅!!![2009.12.17 23:52:38]

댓글(0)

댓글쓰기

‹ 이전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 ›

박정희, 친일 사료는 없고 독립군 사료는 있다 [4]

이지균(gg2012) [2009-11-17 17:26:47]

조회 90 | 찬성 18 | 반대 0 | 스크랩 0

좌파나 안티들이 걸핏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험담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친일파를 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주장은 없고 거의 추측 수준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보인다. 역사학자 이덕일 박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 시절 독립군과 전투를 벌인 사료는 없다, 고 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군대의 기록 규칙상 전투를 벌일 경우 그 기록을 필히 남기게 돼 있고, 장개석 군대나 모택동 군대와의 전투 기록은 있어도 독립군과의 전투 기록은 없다는 것은 독립군과 전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토론방에서도 걸핏하면 좌파나 안티들이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박정희나 그의 유가족들에게 심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박정희 유가족 측에서 고소하면 이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저들의 불안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과 전투를 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독립군에서 복무한 기록은 많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한 기록이다. 기록뿐만 아니라 그때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남아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독립군이라는 말이다.

독립군을 친일파라 매도하고, 광복 뒤에는 국군에 복무하며 공산당을 막았고, 5.16 뒤에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영광스럽게 만든 위대한 영도자의 길을 걸은 영웅을 매국노라고 험담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내가 판단하건되 그런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들이야 말로 매국노들이고 국가의 기생충들이고 좌빨들임에 분명하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4]

공감 0

벌/갱/이들이야 맨날천날 박통비하 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야 그늠들 본성이 그러하니 그렇다지만...자칭 보수우익이라 하는 몇몇 떨거지들도 그리하니 기가 막힐 이야기지요!

광복군 중대장으로 복무한 기록이 있다면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11.17 17:49:52

공감 신고

공감 0

그 이덕일박사란 이의 주장도 참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만주국 중위였던 박정희를 박정희 매도 인사들의 엉터리 논법에 따라 아주 당연한듯 일본국 중위로 단정하였군요. 또한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만주군관학교 소유자인 만주국 황제에게 바친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그 혈서란 것도 아주 당연한듯 일본천왕에게 바친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친일행위]라 단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척 하는 학자, 박사란 것들의 수준이 이러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2009.11.17 18:06:59

공감 신고

공감 0
모택동이나 팔로군과 싸운 기록이 있다면, 좌파에게는 독립군과의 전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숭상하는 북의 관점에서 보면, 모택동과 팔로군에는 조선공산당원들이 다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주장이 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점을 그들에게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결부해 보면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민족주의계열에 의한 독립운동, 사회주의계열에 의한 독립운동....
좌파들은 김일성을 독립군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니까...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중위는 독립군과 싸운 일본군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2009.11.17 18:11:36

공감 신고

공감 0
황동욱님, 팔로군의 성격은 학자나 상식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시비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공산당 군대이며, 만주국 침탈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들은 만주국의 보호하에 토지를 소유하며 정착하고 있었구요. 즉 아무리 확대해석해도 팔로군에 소속된 조선족은 독립운동과 관계 없는 공산당 용병이었고, 만주군은 조선족을 보호하는 군대였답니다. 이건 복잡한게 아니라 단순한 상식이랍니다.
2009.11.17 18:21:43

공감 신고

[chosun]

영원한 대통령 박정희.(얼음공주)[8]

[2009-11-16 15:16:55] 조회 1528 | 찬성 270 | 반대 5 | 스크랩 1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이었지.

1917년생이니 한일합방 7년 후에 태어났어.
40이 넘어 딸과 같이 임신 한 어머니는 낙태를 위해 간장을 한 사발 마시기도 하고 디딜방아 밑에 드러눕기도 하는 등 태아를 떼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했다지.
뱃속에서 그 모진 민간요법들을 모두 견뎌냈으니 태아였을망정 남달랐다고 할까.
그 덕분에 얼굴이 까매졌다고도 하고.

아버지는 동학의 접주였는데 동학이 실패로 끝나자 상모동으로 돌아와 1600평 되는 남의 땅을 부쳤어.
너무나 가난해서 박정희가 진학 시험을 보러 가자 제발 떨어지길 빌었다지.

박정희는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 아니 단군 이래의 위대한 지도자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친일파다 OOO다 독재자다 등등 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는 우리 가슴 속

에 영원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그것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재단해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거야.
물론 하면 된다는 정신을 불어 넣었다는 큰 업적이 있지만 역시 정신만으로는 배고픔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창조해 냈다는 사실이 국민들 가슴에 깊이 각인된 거겠지.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백년대계를 세웠어.
아직까지 아무도 박정희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지도 부수지도 못했지.
뛰어넘기는커녕 이해조차 제대로 못했고 승계도 못했어.
박정희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했더라면 지금쯤 통일 과업을 완수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겠지.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만들던 당시 양김을 비롯 김문수도 극빈국 대한민국에 왜 고속도로가 필요한 지 이해하지 못했지.
그때 벌써 박정희는 마이카 시대를 꿈꾸며 곧 고속도로 가득 자동차가 넘치게 된다는 걸 알았고 그 준비를 했던 거야.

정주영에게 조선소를 만들라고 하자 정주영은 현대 망한다면서 거부했지.
그러자 박정희는 현대가 정회장 꺼냐고 물었어.
할 말 없던 정주영은 조선소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

포철 또한 당시로는 불가능한 역사였지.
군인 출신이었던 박태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박태준 뒤에는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울의 비대화를 내대보고 그린벨트를 만든 그 혜안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지.
2차 대전 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말은 박정희의 의지가 어떠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야.

박정희가 지나가는 길에 녹화가 안 된 맨땅이 보이면 안됐었어.
박정희가 지나간다는 소식만 들리면 군수들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 맨땅에 꽂았지.
그 후에 다시 나무를 심더라도 모가지 안 달아나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노력과 의지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등등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는 거의 모든 일류 제품의 설계와 추진이 박정희의 작품이었고 중화학 공업 거의 모든 업종에서 예외 없는 성공을 거뒀어.
세계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지.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산업구조를 따라간 나라가 한국이니까.
오늘날 조선이 일본을 추월하고 삼성전자의 순익이 일본의 상위 7개 전자업체의 이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볼거야.
과연 박정희가 없었어도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룰 수 있었을거라고?
그럼 박정희가 어떤 준비를 했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단적인 예를 들어 주지.

우리에게 박정희 대신 마르코스가 있었더라도 과연 박정희가 꿈꾸던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김문수가 이제야 박정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문수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일부에서 아직도 박정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같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까?
그걸 깨닫는 게 그들의 백년대계야.

일본 육사를 나왔음에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었고 한때 좌익활동을 했음에도 오늘날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력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졌지.
6.25때 북한의 탱크에 맞서 수류탄을 던졌던 한국이 이제는 최고의 탱크를 수출하고 이지스 전함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
박정희가 추구하던 자주국방의 결실이지.

박정희가 보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은 이렇듯 부국강병의 근저에 박정희가 있기 때문이지.
부국강병이야말로 보수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일 수밖에 없으니까.

박정희가 겪었던 그 무수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알게 됐고 누구보다 공산주의의 맹점을 꿰뚫게 됐지.
국시를 반공으로 할 만큼 박정희는 반공의 최선봉에 섰고 극일의 핵심이 됐어.
그걸로 족한거야.

박정희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사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면 어떠냐하는 위대한 민족중흥의 꿈을 가졌었어.
과연 오늘 우리는 박정희의 그 위대한 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박정희는 그 당시에 벌써 KAIST를 만들고 ADD를 만들었어.
과학입국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과연 그런 기관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하루는 오원철이 밤늦게 ADD에 들렀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방이 있어 뭘 만드나 궁금해서 가봤지.
그 방에서는 어떤 연구원이 진공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

"뭘 만드십니까?"
"무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총이나 박격포나 대포는 어떻게 만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무전기 개발 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다, 하고 모두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연구소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2년 동안인가 연구개발을 했는데 실패를 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지레 무전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거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지요."

당시에는 소총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총을 분해해서 치수를 쟀지.
그렇게 만든 설계도로 총을 만들었고.

그 소총으로 시범 사격을 해야 했는데 아무도 사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총열이 터지면 위험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박격포도 만들고 철모도 만들었어.
그럼에도 무전기만은 미군 무전기를 빌려다 썼지.
통신이란 개념이 전무했던 거야.

청계천에서 진공관을 구해서 조립해 보고 미군부대에서 IC를 구해 조립도 해 보다가 나중에는 반도체를 구해서 무전기를 만들었지.
시제품을 4대 만들었어.
이 연구원이 바로 ADD 창립멤버인 서정욱이야.

해병대가 포항에서 한미합동 훈련을 매년 했는데 서정욱은 포항까지 내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 장교인 이재규 중령을 만났어.
남몰래 무전기를 개발했는데 작동이 되는 지 야전에서 시험해줄 것을 요청했지.
이 중령은 2주 훈련을 마치고 싱글벙글거리며 서정욱을 찾아왔어.
다른 부대의 무전기가 몽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군과 교신을 못했는데 그 무전기 덕분에 미군과 불편 없이 교신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가 정보계통을 통해 청와대까지 들어갔고 어느 날 대학 선배인 오원철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1972년 7월 2일이었지.
박 대통령이 그 무전기를 찾는다는 거야.
오원철의 지시대로 서정욱은 무전기 한 대를 청와대로 보내고 한 대는 사무실 책상 위에 켜놓은 채로 있었어.

무전기를 켜놓고 앉아 있는데 쏴아 하는 잡음이 없어지면서 경상도사람 목소리가 들렸지.
박대통령이었어.
박대통령은 격려를 하며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했지.
서정욱은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쌓인 불만을 다 얘기했고.

그 이후로 통신 · 전자 분야에 대한 개발 지시가 떨어지고 연구개발비가 나오고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됐어.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IT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던 셈이야.

ADD가 없었고 박정희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핸드폰도 없었어.
본격적인 무전기개발이 시작되었고 미군이 쓰는 무전기보다 훌륭한 무전기가 완성되었지.

완성된 무전기를 가져 오자 서정욱은 무전기를 물속에 던져버렸어.
물이 줄줄 흐르는 무전기를 켜고 작동을 시키니 당연히 무전기는 먹통이지.
다시 만들어! 해서 다시 돌아온 무전기를 이번에는 내동댕이쳤어.
냉동실에도 넣고 깊은 물속에도 넣었지.
이렇게 해서 무전기 제조상의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게 오늘날 핸드폰의 FM이 된거야.

프랑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삼성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했었어.
물에 젖었는데도 통화가 되더라며 놀라워 했다지.
브라질의 한 장관이 삼성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트럭이 뭉개고 지나갔어.
그런데도 액정만 금이 가고 통화가 되더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그때의 FM을 적용한 덕분이지.

무전기를 만든 서정욱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탱크나 차량의 무전기와 항공기의 무전기까지 개발했어.
이렇게 축적된 기술로 서정욱은 86년에 TDX(전자교환기)를 개발하지.
당시 인도와 브라질은 TDX개발에 실패했고 시장은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이 독차지하고 있었어.
당시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지.

5공 최대의 업적으로 꼽히는 CDMA는 서정욱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연구원들의 성과야.
그 중심에 서정욱이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게 아니야.
박정희 시절부터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서정욱은 이렇게 말했어.
"거스 히딩크감독의 성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대표팀의 역대 감독들이 한 역할이 히딩크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팀이 보여준 놀라운 체력도 국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강한 국력을 만들어 낸 기성세대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과 선전이 가능했습니다."

IT의 성공 뒤에는 박정희 시대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던 셈인데 세상은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지.
세계 최초로 CDMA가 상용화되고 서정욱은 SKT의 초대 사장에 취임했어.
왜 사장이 됐는지 알만한 일이지.

그 후 한국의 핸드폰은 세계를 휩쓸게 되지.
과연 박정희가 없었어도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중화학공업의 성공으로만 알려져 있던 박정희 시대의 숨은 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대박상품이 된 셈이지.
박정희시대의 국방과학기술의 개가야.
인재를 키우고 자주국방에 심혈을 기울인 국방과학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 한 일이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오롯이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박정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자동차를 페기하라고 하면 펄쩍 뛰겠지.
박정희 덕을 보면서 박정희를 비난하는 이율배반에 빠진거야.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박정희는 후손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줬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박정희는 단군 이래의 가난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줬어.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기틀을 세웠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박정희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통령이야.

박정희를 비난하려거든 박정희를 뛰어넘어.
박정희 패러다임을 부수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운 후 그것을 실행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왜냐고?
박정희는 성공했으니까.

박정희의 성공이 오늘을 있게 했으니까.
더구나 내일은 선진국이 될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어.
이게 바로 박근혜가 말하는 아버지의 꿈의 의미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거야.

우리가 박정희를 기억하는 한.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8]

best

구성회
fogi101

공감 14

이런분을 폄하하고 욕하는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싶다!

2009.11.16 17:56:46

공감 신고

김윤숙

kd11888

공감 9

아주 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파노라마를 보는듯 합니다...

몇년전 동토마에 우연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무명씨"라는

필명을 가지분과 글쓰는 방식이나 글솜씨가 아주 비슷합니다..

본문글 강추!!!!!

2009.11.16 15:40:09

공감 신고

배영숙

lotues

공감 5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좋은 글이네요^^

2009.11.16 15:42:15

공감 신고

변두연

byun8622

공감 5

무지무지 X 억만번 찬동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글 고맙습니다 건필하시소

2009.11.16 15:48:03

공감 신고

구성회

fogi101

공감 14

이런분을 폄하하고 욕하는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싶다!

2009.11.16 17:56:46

공감 신고

박수진

modmoa48

공감 9

아무것도모르는 무리는 박통의 정치자금이니 부정부패를 과대포장 선전 하는데
이글을읽고 박통의 산업투자 개발상품투자의 적절함을 올바르게인식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음공주의 우리들이 알지못하는 박통의 지혜로운 선정을 재조명하여
알려주심을 진심으로감사한다

2009.11.16 19:57:29

공감 신고

이광희

rotc90

공감 0

한 마디로 가관이군

그대가 태어난것도 박정희 덕이라고 하시게

2009.11.16 20:14:01

공감 신고

김대홍

analstone1

공감 1

삭제된 글입니다.

2009.11.17 03:54:03

임강순

caronome

공감 5

얼음공주님은 박통이 전지 전능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작점이 1도가 틀어지게 되면 도달점은 목표의 반대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것이

지요.
지도자가 사람을 알아 볼 줄 알면 얼마나 큰 후세의 이로움이 생기는지,
지도자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분배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구요.

얼음 공주님, 글 잘 읽었습니다.

윗글에 나오는 서정욱 박사님은 여기 묘사된 것 이상입니다.
그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가를 뼈에 새기게 됩니다.

2009.11.17 09:28:19

공감 신고

이기선

pado002

공감 4

얼음공주님 글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올리시는 글은 그 즉시 베스트셀러이니 그 깊으신 내공에 감읍할 따름입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 최고의 영웅 박 대통령을 매도하는 자들, 인간으로서 기본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왜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요상한 조직의 수장인 임헌영(본명 임준열)은 민족 문제를 연구하기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부터 하여 개과천선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후견인 이 X오라는 분 믿고 설치는 거로 보입니다.
하기야 이 X오 뒤에는 거짓말의 달인이 버티고 계시니 세상에 겁날게 없겠지요.
국민계몽을 위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09.11.17 11:59:27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영원한 대통령 박정희. (얼음공주) [0]

심정섭(bubsan) [2009-11-17 16:46:41]

조회 19 | 찬성 2 | 반대 0 | 스크랩 0

아이스프린스님의 글을 즐겨 읽고 많은 공감합니다.
댓글로 올리기에 너무 길어서 본문에 올려봅니다.

//정주영에게 조선소를 만들라고 하자 정주영은 현대 망한다면서 거부했지.
그러자 박정희는 현대가 정회장 꺼냐고 물었어.//

박정희대통령께서 일찍이 기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요 국가의 기간산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오직 일부 국민이 위탁 받아 경영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혜안과 지도편달로 국민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어찌 개인의 부귀영달이 주가 되겠습니까?

//일부에서 아직도 박정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같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까?
그걸 깨닫는 게 그들의 백년대계야//

아직도 일부 국민이 3공 때 국법을 어겨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을
앙심을 품고 아직도 세계적 지도자를 영웅을 폄훼를 못해서 안달이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민주당 민노당 이들은 번연히
박정희 공적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투쟁 목적이 소실 될 것이 기에 아직도 조그마한
생명줄에 매달려있는 행태들 참으로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소총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총을 분해해서 치수를 쟀지.

그렇게 만든 설계도로 총을 만들었고.//

저가 국내 굴지의 방산 업체 P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국내선 처음 실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도 미국서 버리는 장비를 헐값에 도입해서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서 겨우 조립해서
처음으로 실탄을 생산위해 실탄을 분해해서
하나에서 열 가지를 설계하고 재고 갈고 깎고 맞추고 해서
만든 것이 요사이는 외국으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때도 ADD에서 상주하듯 해 수많은 종류의 실탄 만들었지요!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와 함께 공장시찰한 일 이었습니다.
그때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방산 업이라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비난하려거든 박정희를 뛰어넘어.
박정희 패러다임을 부수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운 후 그것을 실행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앞으로 아무도 박정희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정희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룩했기에
누가 무엇을 발명 발견해도 이미 그 위에 이뤄졌기에 말입니다.

이후 부국강병, 산업 발전, 문화 창달, 구태탈피, 국민 기본
의식개조는 누구라도 박정희 뛰어넘을 지도자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뛰어 넘을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 분야일 것입니다.
그분야가 그렇게 많은 지도자가 지나가도 구태를 벗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바로 바꿀 전무한 지도자가 현재 이 나라에
소요가 없는 정치,
화합할 정치,
근본토양을 바꿀 정치,

이합집산의 저질 정치를
바꿀 최적의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딸로서 바로 박근혜의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이 새기를 낳듯 바로 정치 분야에
호랑이가 나와서 부정부패 이합집산 중상모략 등의
정치적 병폐를 척결 일소할 분이 바로 박근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본 철학이 바로 정도 정의 원리원칙이기에
그대로만 이행하면 전무후무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
부녀분이 한분은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반석에 올린분이고
한분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달성해
태평성대에 격양가 울려 퍼지도록 할 정치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졸필 죄송합니다.

[chosun]

NASA, 달에 물 많다…

위성 충돌지역서 98리터 얼음 · 증기 검출

인간 상주 '우주개발 전초기지' 꿈 가시화

한국일보 / 입력 *2009.11.16 02:37* / 수정 *2009.11.16 05:38* /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 강원

달에는 과연 물이 존재할까.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 같은 궁금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달에서 물이 발견됐으며, 그것도 다량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에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를 짓고, 인간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과학자들의 꿈이 실현될 날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NASA는 14일 지난달 달에 로켓 충돌실험을 벌여 달에서 튀어나온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직경 20~30ｍ정도의 충돌 지역에 약 95~98ℓ에 이르는 많은 물이 얼음과 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ASA는 6월 달 탐사선 엘크로스(LCROSS · Lunar Crater Observation and Satellite)를 발사했으며, 지난달 9일 모선에서 충돌용 로켓을 분리해 달 남반구의 크레이터(분화구) '카베우스(Cabeus)'에 시속 9,000㎞로 돌진케했다.

4분 후 데이터 분석과 송신 장비를 가진 탐사 모선이 충돌지역에서 피어 오른 잔해 구름기둥에 접근, 그 속에서 데이터를 모아 전송한 후 자신도 달에 충돌해 임무를 마쳤다. NASA는 발견된 물의 양에 대해 "약간이 아니다"며 "2갤론 짜리 물병 12개 가량에 이른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5~26갤론(95~98ℓ)이라는 뜻이다.

이번에 충돌실험이 진행된 크레이터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은 곳으로 온도가 -230도 가량이며 직경은 60마일(96km), 깊이는 2마일(3km) 정도이다. 이중 충돌 실험으로 직경 20~30ｍ정도 지역에서 98ℓ가량의 물이 발견됐으니 크레이터 전체, 더 나아가 달 전체에는 무척 많은 양의 물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버클리대 그레고리 T 델로리 교수는 "이번 발견은 달이 황폐하고 변화 없는 곳이 아니라, 아주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점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번 발견이 달에의 생명체 추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하나 인류의 달 기지 건설의 꿈은 한층 현실성을 갖게 됐다. AP통신은 달의 물이 우주인의 식수로 쓰일 수 있으며, 로켓 발사에 필요한 연료 제조 등에도 물이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의 얼음은 수십억년 동안 그대로 보존돼 왔기 때문에 우주의 신비를 풀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7&newsid=20091116023709869&p=hankooki

네티즌의견 / 125개

등록순 / 추천순 / 기사보기

이 사실을 이명박이 몰라야할텐데 [2] |08:28 |신고

알게되면 달나라에 대운하를 파든지 물 있는 지역 4개 찾아서 정비한다고 할텐데... 답글쓰기

추천 34

이런기사 올리지 마라... [1] |09:45 |신고

개박이자슥 삽질하러 간다.... 답글쓰기

추천 23

달에 11번이나 갔다면서? [2] |09:28 |신고

근데 웃긴게

그 11번이 전부 닉슨때 갔다는거 ㅋㅋㅋ

닉슨 물러나자 그 이후로 한번도 달에 안갔다는거 ㅎㅎㅎ

예산 때문이라고? ㅋㅋㅋ

달에 한번갔다고 하면 믿겄다

11번이나 갔으면서, 닉슨 끝나곤 갈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거

결론은 닉슨이 꾸민 쇼라는 것

ㅋㅋㅋ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봐라. 믿는 사람 단 한명도 없더라 ㅋㅋㅋㅋ 답글쓰기

추천 23

나사 당국은 발표에 신중하라. |09:07 | 신고

이명박이 알면 달에 대운하 파버릴 것이다. 답글쓰기

추천 21

달에 안가 본것처럼 말하네.... [1] |07:28 | 신고

벌써 몇십년전에 달에 착륙까지 했자나..!.

왜 그뒤론 단 한번도 갈 생각을 안하냐..

음모론의 근원은 바로 너희들 같다... 답글쓰기

추천 21

우리 대통 쥐바기를 보냅시다 [2] |08:53 | 신고

첫째 거기선 혼자 거진말 할거고

둘째 또 거기서 달나라에다 삽질하고 대운하 만들 것 이니

세째 사기쳐도 보는 사람 없을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지 쫄개들도 데리고 가라 하십시요 답글쓰기

추천 18

40년전 트랜지스터 시대에 달에 인간을 보낸이후 |09:07 | 신고

수십개의 달탐사 위성을 쏘아 올린 미국도 발견 못한 물을...

단 한번의 달탐사 위성(찬드리얀 1호)을 쏘아올린 인도가

달에 물 존재 사실을 밝혀 냈다는거.....

이러니 달 음모론이 안나올수가 있을까...

인간의 눈과 귀에 의존해 탐험을 한다면(마치 북극점 탐험하듯)...수십년동안의 탐사로도 발견 못할 수도 있다고 치자....인도와 미국의 우주항공의 역사부터가 다르고 기술력부터가 다를텐데...음..불가사의하다.

현미경으로 발견 못한 세균을 망원경으로 발견했다고 하는 격이니... 답글쓰기

추천 14

그러게.. *|07:10 |*신고

그냥 달에 착륙해서 살펴보라니깐? 달에 착륙 해 본지 오래 됐자나? ㅋㅋ 답글쓰기

추천 13

300년후 한국 떡방의 달투자 비법~ *|07:30 |*신고

지구와의 교통은 좋은지.

외국 우주비행사들 자식들이 사는 학군인지,

고요의 바다가 훤히 보일만큼 전망이 좋은지,

주변에 우주용품 쇼핑할 편의시설은 있는지,

답글쓰기

추천 12

달착륙은 닉슨이 꾸민 대인류 사기극 *[1] |10:02 |*신고

닉슨은 워터게이터 사건으로 탄핵 받아 하야 했는데,

원래 닉슨은 워터게이터 사건에서 보다 시피

가짜로 뭘 꾸미는데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기꾼 피가 흐르는 자다.

사막에서 촬영한 달착륙 장면에서 다중 광원으로 인한 문제를

UFO 운운하며 으믈슬쩍 넘겼고,

달착륙 사기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모조리 암살한 극악한 놈이 닉슨이다.

최근에 달착륙 거짓 사실이 속속 드러나닌까

나사는 그 당시 달착륙 사진을 트렌스포머 특수효과 포샵 전문팀에 맡겨

사진을 다시 고쳐서 공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답글쓰기
추천 9

거기 토끼라도 잡을라구? *|08:30 |*신고

왜 쓸데없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돈을 쓰지?
그럴돈 있으면 굶는 애들한테 물과 식량이나 보내지?
도대체 왜 달에 사람이 살아야된다는건데?
그노무 정치논리. 다른나라보다 나아야한다는 쓸데없는 자존심.
돈을 써야할데는 안쓰고.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 살게 하는 상징성을 위해서 돈을 갖다부으면...
굶어죽어가는 아프리카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답글쓰기
추천 6

미국이란 나라 *|07:37 |*신고

가는곳 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주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답글쓰기
추천 6

그래서? 달에 물이 있으면 뭐하게? /10:03 /신고

그 물 가져다가 팔아먹을라구? 인류가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뭐 쓸만한것도 있는것도 아닌디 ,, 기냥 내버려둬,, 쓸대없이 건들지 말고,,

있으면 있는갑다 하고,, 없으면 없는갑다혀라.. 답글쓰기

추천 5

달에가서 /09:42 /신고

4대강 사업이나 해볼꺼나

턴키방식으로 답글쓰기

추천 5

기사는 읽고나서 댓글을 다는건가 [3] /09:18 /신고

아니면 무식한건가.

아폴로가 달 착륙 했던 지역은 항상 태양의 빛을 반사 받아서
보이는 지역 지표면에서 월석만 채취해서 돌아온거고

이번엔 못가본 태양 빛이 안드는 크레이터에 시속 9000km로
충돌시키고 나서 그 내부에 물이 있다는걸 파악했다는 이야기인데

둘 구분도 못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보니까 많이 본 세대가 10대 좆중고딩이라는데, 어디 인터넷에서 음모론

하나 읽고나서 그게 진실인 마냥 여기서 군중심리로 댓글다는거
보니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우주선 발사 하나에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병진이 있질않나..
이러니까 한국이 우주 개발을 제대로 못하지. ↳답글쓰기
추천 5

또 바보들이 줄줄이 댓글 달겠네요 */07:11 /*신고
근거는 하나도 없는 음모론만 좋아하고 아는 건 쥐뿔도 없고 알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고 싶어하는 음모론자들 ㅋㅋ ↳답글쓰기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
cateid=1007&newsid=20091116023709869&p=hankooki&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cSortKey

차인태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엣세이 정치 비화 공개 [9]

신남례(7sin) [2009-11-14 21:17:04]

조회 448 | 찬성 95 | 반대 0 | 스크랩 0

차인태 씨 엣세이 비화 공개.

“난 ‘인간 박정희’가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고 혼자 고민을
〈PRE〉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PRE〉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무장(武將)의 얼굴 밑에 여린 가슴이 있었다.

〈PRE〉” 장학퀴즈 진행자로 유명했던 전직 아나운서 차인태 경기대

〈PRE〉다중매체 영상학부 교수(65)가 자전 에세이 ‘흔적’ 에서 털어놓은

〈PRE〉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다 차 교수는 “30여 년간 방송을 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PRE〉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모두 만났다는 특이한 기록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PRE〉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의 장례식 방송을 진행한 이틀 뒤 박 전 대통령에게서

〈PRE〉 “차인태 씨, 방송! 잘봤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한 통의 전화에서 【 ‘인간 박정희’ 】 다른 면을 봤다고 했다,

〈PRE〉박 전 대통령은 육 여사 死後 청와대에서 성악가나 국악인의 음악을 들으면서

〈PRE〉종종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PRE〉차 교수는 “뒤에 앉았던 사람들은 어두워 못 봤겠지만 무대에서

〈PRE〉사회를 보던 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PRE〉그것 은 외로움이 묻어나는 눈물이었다” 고 했다

<박대통령이 1968년 5월30일 중부 전선 남방한계선을 방문, 소총 조준경으로 북한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한국군의 개인 화기는 6·25 전쟁 때 사용하던 M-1 소총이었다.>

〈PRE〉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말하는 것을 즐겼는데

〈PRE〉한 오찬 모임에서 남편의 옷 취향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하자 전 전대통령이 냅다

〈PRE〉“빨리 밥 묵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PRE〉차 교수는 “영락없는 평범한 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고 했다 아나운서의 눈으로 본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PRE〉 차이는 화법이었다, YS는 결론부터 말하고 아랫사람에게도 ‘형’ '동지’ 라는 친근

〈PRE〉한 표현을 쓰지만 DJ는 ‘기승전결’ 의 논리적 대화를 했고 호칭도 ‘○○ 씨’ 였다

차 교수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YS캠프에서 ‘YS의 발음교정 과외’ 요청이 들어

〈PRE〉 왔다, (그러나) YS의 대중연설용 어벽(語癖)이 진한 경상도 사투리와 겹쳐있어

〈PRE〉과외수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갈 수 없었다” 고 회고했다 1980년대 초반엔 고 김수환 추기경에게도 2박 3일간 ‘발음교정수업'을 했던

〈PRE〉추억이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책 말미에 ‘왜 정치 안 하느냐’ 는 질문을 자주 받는 데

〈PRE〉국회의원이 아나운서가 됐다면 특별히 대접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아나운서가 국회

〈PRE〉의원이 되는 것이 정말 축하할 일인가”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박정희가 그리워지는 이유〉 박 대통령을 다시 알려면 이 글을 꼭 읽기를 권합니다,

〈PRE〉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뒤숭숭 할때 늘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이다,

〈PRE〉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하는데,

〈PRE〉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박정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다 젊은 시절 나에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쇼 군부독재자일뿐이었다,

〈PRE〉그가 없었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두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었는데

〈PRE〉박정희가 집권해 재벌과 결탁하여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숫자상의 경제성장과

〈PRE〉남북대결구도를 통해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현혹해 영구집권을 하다가 술자리에서

〈PRE〉부하의 총을 맞고 죽은 그런 독재자였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내가 틀렸고 박정

희는 옳았다,

〈PRE〉그래서 박정희를 미워했던 나는 박정희만 생각하면 늘 미안해진다,

〈PRE〉또 나라가 어려울 때 과연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이후, 박정희와 대결했던 민주투사들이 집권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PRE〉경제를 힘들게 할 때마다 박정희한테 미안해지고 그가 그리워졌다,

〈PRE〉이제 3김시대도 끝났는데 그 그리움은 더 커지고 있다 8.18 도끼만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대통령은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PRE〉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희 시대의 구호중에 하나가 '무찌르자 공산당,

〈PRE〉때려 잡자 김일성' 이었다, 조금 촌스럽고 무식해 보이는 구호이기는 해도

〈PRE〉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김일성의 간담이 서늘해질만한 구호이다

〈PRE〉 다른 한편, 박정희가 산림녹화법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해 했다

〈PRE〉 자기 동네 뒷동산에도 마음대로 못올라가게 하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비행기에서

〈PRE〉보이는 고국의 누런~ 민둥산에 무척 가슴을 아파했던 박정희가 시작한 일이었다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자고 시작한 새마을 운동을 두고 많은 식자들은

〈PRE〉이를 비판했다, 우리! 민족! 의 전통이 담긴 주거문화를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PRE〉없에는 개발지상주의를 비판했다, 이를 두고 박정희는 그랬다고 한다 "그럼 당신들 이 거기 들어가 살아봐!" 초가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책상좌파의

〈PRE〉낭만 타령에 대한 박정희의 일침이었다 73년 박정희 필생의 신념이었던 중공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웬지 촌스러워 보이고

〈PRE〉딱딱해 보이는 "대망의 80년대,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1000불! 의 구호를

〈PRE〉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런 딱딱한 구호보다는 오히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불처럼 번지는

〈PRE〉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김대중의 몽상적인 선동에나 솔깃해했다,

〈PRE〉이게 바로 박정희의 실용이다, 참된 실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처럼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선언하면서 좌파들을 끌어 안으려다가 뒤통수나

〈PRE〉얻어맞는 그런 추한 실용이 아니라 국가기강과 정통성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

〈PRE〉한치의 양보 없이 철두철미 하면서도 정말 추진해야 할 일에는 불필요한 논쟁을

〈PRE〉제압하고 국민들을 달콤한 미사여구로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말만 하며

〈PRE〉사력을 쏟아부었던 그것이 바로 박정희 실용의 진면목인 것이다 한때 이명박을 보며 조금이라도 박정희를 느끼려 했던 사람이 과연 나 뿐일까?

〈PRE〉정말 그랬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자수성가를 이루고 거대기업을 이끌며

〈PRE〉성공한 사람,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서울시민들이 반대했던 청계천 정비,

〈PRE〉버스노선운용 체계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 뛰어난 경제적 행정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깽판과 국가

〈PRE〉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예전에 내가 어렴풋이 기대했던 이명박의 모습이

〈PRE〉다, 그런데 지금은 산산조각이 났다,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가끔씩 나오는

〈PRE〉대통령과 함께 한 국무회의 기록은 한숨만 나오게 한다, 저 사람이 어떻게

〈PRE〉대기업을 이끌고 서울시장을 했는지 의심이 갈정도이다 승자로써 박근혜를 껴안지 못하고 끝내 한나라당을 분열시킨 정치력, 베스트

〈PRE〉오브 베스트라고 뽑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는 순 자기 지인들, 부하들로 채웠다가

〈PRE〉도덕성 문제로 사퇴를 거듭할 정도의 형편없는 인사,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PRE〉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해 보이는 경제예측능력과 대처능력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문제를 처리할 때 보이는 그 흐리멍텅

〈PRE〉해 보이는 역사관과 국가관, 이명박을 결사적으로 지지했던 나는 이명박의 요즘

〈PRE〉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기서 이명박에 정신이 팔린 자칭 우파들이 이명박 지지에 미쳐서 박근혜를

〈PRE〉욕하다 보니 박정희까지 한묶음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모습을 본다,

〈PRE〉대상이 안되는 인물과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비교를 하려면 이명박이

〈PRE〉퇴임한 이후 그의 공과를 놓고 박정희와 비교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 이명박의 오른팔인 이재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그가 좌파냐 우파냐?

〈PRE〉그는 단연 좌파이다,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국가관과

〈PRE〉역사관이다, 그는 박근혜를 유신공주라고 비난했다 이재오는 아직도 박정희 시절을 내가 젊은 시절 유치찬란하게 가졌던 그런

〈PRE〉반동의 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이가 그렇게 먹고! 결국

〈PRE〉그 경제발전의 과실로 유력 정치인까지 해먹었으면 하다못해 김문수처럼

〈PRE〉자기반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재오가 그런 적 있는가? 잘해봐야 김영삼 정도의 역사의식 수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PRE〉그러니 이재오는 좌파이다!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PRE〉사람이 좌파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사람을 오른팔로 생각하는 이명박

〈PRE〉대통령의 이념에 대해서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게 내 잘못인가? 아직까지 이명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어찌됐던 이명박이 성공

〈PRE〉해 야 한국 우파가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는

〈PRE〉자신에 대한 교만부터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자칭 경제 대통령이라는 환상에서

〈PRE〉먼저 깨어나야 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PRE〉수있는 강만수 같은 사람에게 모든 경제정책을 맡기는 과오를 피할 것이다 또한 그의 빈곤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채워줄 우파인사를 옆에 두어야 한다,

〈PRE〉이재오 같은 인물이 옆에서 날뛰면 그렇지 않아도 흐리멍텅한 이명박의

〈PRE〉국가관만 더 흐려질 뿐이다 이명박에게서 박 정희를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런 영웅이 어디 그렇게

〈PRE〉쉽게 나오겠는가! 이제 환상은 깨졌지만 앞으로 나라를 망쳐먹기 바라지 않는

〈PRE〉마음이 가득하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라면 너무

〈PRE〉대통령을 무시하는 생각인가? 하지만 그가 똑바로 서길 바라고 고대하는

〈PRE〉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이다 그러면서도 이명박에게서 박정희를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마음 때문이었는지

〈PRE〉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일수록 나의 마음 한켠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PRE〉마음이 자꾸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9]

best

공감 10

차인태 아나운서 하면 예전에 인기 프로인 장학 퀴즈가 생각난답니다~

얼마나 똑소리나게 진행을 잘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선하네요!

일요일 아침이면 온 식구들이 모여앉아 퀴즈를 풀던 정겹던 시절이었구요.

지금은 뭘 하시는지 전혀 모습을 보기가 힘드네요?

암튼 똑소리나는 분이 인정하신 박대통령님은 정말이지 이나라의 진정한 국부시랍니다.

그래서 이 글엔 아낌없는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2009.11.14 21:37:12

공감 신고

공감 10

차인태 아나운서 하면 예전에 인기 프로인 장학 퀴즈가 생각난답니다~

얼마나 똑소리나게 진행을 잘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선하네요!

일요일 아침이면 온 식구들이 모여앉아 퀴즈를 풀던 정겹던 시절이었구요.

지금은 뭘 하시는지 전혀 모습을 보기가 힘드네요?

암튼 똑소리나는 분이 인정하신 박대통령님은 정말이지 이나라의 진정한 국부시랍니다.

그래서 이 글엔 아낌없는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2009.11.14 21:37:12

공감 신고

공감 0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결코 힘들지 않다.

대한민국 과거 노뭇현 시대까지와는 달리 매우 평탄한 것이다.

북한이 서해해전을 벌렸지만, 결코 전쟁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점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시국은 평탄하다 할수 있다.

노무현 시대만 하여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전 우리는 떨었다.

대한민국이 핵전쟁에 휘둘리지 않나~~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핵 사용은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는 것이다.

다 죽는
그러한 짓 북한도 할수 없는 짓이며, 우리도 할수 없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휘둘릴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좀 도발을 하여도 과거와 같이 라면을 사러 들지않는다는 것이다.
2009.11.14 21:58:07

공감 신고

공감 1
본글은 이곳에서 좀 삼가하여야 할 짓
박정희를 찬양하는 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제 박정희를 찬양한다고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로 훼기 할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는 대한민국에 절대 올수 없음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2009.11.14 21:59:53

공감 신고

공감 3
나도 주체사상파출신으로서, 시간이 지나고서 이런 글을 퍼갈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9.11.14 22:21:59

공감 신고

공감 3
아나운서중 가장 두뇌가 샤프하다는 왕년의 명아나운서, 차인태씨가 드디어 입을 열다.
나라를 위한 충정우국의 용기있는 소리에 존경을 표한다.
나도 유신반대 데모를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 생각하니 차인태씨 처럼
"박정희가 옳았다"는 말에 전적 공감한다.
2009.11.14 23:09:30

공감 신고

공감 1

유신시대 전부터
남산이나 남영동.서빙고동
그리고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지금 살아 있음을 감사하는 나도
박정희를 이제는 이해한다.

지도자가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진심으로국민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제일 뛰어난 사람 알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을 보라
그에게 국가관이 있는가?역사관이 있는가?
지하형이 말하는 국토관이 있는가?

우리는 바로 재앙의 앞에 놓여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09.11.15 00:12:12

공감 신고

2009.11.15 00:12:14

공감 2
차인태 이사람 못 쓰겠구만
2009.11.15 00:30:02

공감 신고

공감 2
차인태님의 박정희에 대한 이명박에 대한
엣세이를 어찌 그리 일목요연하게 잘도 평했는지 잘도 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입니다.
신남례님이 올려 주셔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11.15 00:47:49

공감 신고

공감 0

산남례 님 !! 정말 수고 하셧읍니다 !!! 차인태 님이 그롷케 생각하고 글로 쓴는다는것은 상당히 용기 잇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정치인이 되지안는다 는것은 현명한 처신입니다 건강하십시요 !!!! 신남례 님 의 노고 정말 감사하구요 계속 건필 당부 드립 니다 !!!

2009.11.15 04:26:25

공감 신고

[chosun]

신이 선택한 재즈 피아니스트 '티그랑 하마시안' 내한 공연

11월 14일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 내한 공연 열려

[유니온프레스=윤성혜 기자] 재즈 피아노계의 빅뱅이라 불리며 한번 연주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연주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지닌 재즈 피아니스트 티그랑 하마시안이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2002년 15살의 나이부터 수많은 재즈 피아노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각종 대회를 석권하다시피 한 티그랑 하마시안은 테크닉은 물론 재즈에 대한 이해와 아르메니아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까지 가미돼 독창적인 재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사 측은 "티그랑 하마시안이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며 "하지만 유투브 등을 통해 검증된 실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그의 무대는 국내 재즈 팬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라며 공연에 대한 자부심을 들어냈다.

기존의 재즈 피아노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빅뱅과 같은 티그랑 하마시안의 첫 내한 연주회는 11월 14일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upculture@unionpress.co.kr (문화팀)

〈 저작권자© 1995 데일리 문화종합 '유니온프레스' 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의혹 너무 짙다 [13]

최진무(citiangel) [2009-11-08 07:35:10]

조회 1378 | 찬성 141 | 반대 7 | 스크랩 0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 의혹 너무 짙다

만주신문의 혈서설 기사를 사실(fact)로 인정하기에는 의심을 넘어 조작의 냄새가 너무 도 짙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사실이라는 과핵(core)을 둘러싼 해석이라는 과육(pulp)이라고 하지만, 만주신문 기사가 박정희 개인사의 과핵이 되기에는 해석이라는 과육에서 너무 정치적이고 목적론적인 구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주신문의 기사는 박정희의 동료라는 유증선의 증언과 박정희의 군관학교 입학일자를 억지로 꿰어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료도 아닌 종이 자료인 만주신문이 박정희 혈서설이 제기된 몇십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느닷없이 등장한 점입니다.
둘째, 민족문제연구소는 신문 사본만을 제시할 뿐 그 신문이 현재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1939년 3월 31일자 만을 사본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자의 신문과 같이 철해진 상태
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료 조작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주신문 기사에서 혈서 편지를 받았다는 일자는 3월 29일인데 군관학교 1기 합격자가 발표된 2월
24일 이후입니다.그 당시 만주까지 편지가 가는 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가 발표된 뒤에 지원 자격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군관학교 모집 요강은 9월에 공고되는데, 38년 5월에 공고되지도 않은 모집요강을 받들어 읽고
혈서를 썼다는 유증선의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의 기사에서는 두번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유증선의 38년 5월설은 위와 같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박정희는 1937년 4월 10일 문경
공립 심상소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자 마자 1차 지원 편지를 보냈거나, 그도 아니면 38년 9월에 모집
요강이 공고된 뒤에 연거푸 두번에 걸쳐 편지를 보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만, 수많은 박정희
전기나 폭로물 어디에서도 그런 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사실은 만주신문의 기사대로라면 박정희는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신경군관학교에 지원
하려고 혈서를 썼다는 소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책에서 신경군관학교는 1939년 4월1일에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주국군간행위원회(滿洲國軍刊行委員會)와 난성회(蘭星會)가 1970년에 발간한 〈滿洲國軍〉 910
페이지에는 1939년 3월 10일 육군군관학교령이 재가, 공포되고 4월에 신경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합참의장 장창국의 〈육사졸업생〉 18 페이지에는 “만주군관학교는 1939년 장춘(신경)에 세워진
4년제 사관학교다.” 라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친일 추적에 전력 투구했던 오마이뉴스 정운현 기자의 책 〈실록 군인 박정희〉의 88페이지
에도 “신경군관학교는 봉천군관학교의 후신으로 1939년 수도인 신경에 세워진 정식 4년제 사관
학교였다.” 라 요지부동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상천의 〈알몸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군관학교가 ‘勅令 第50號陸軍軍官學校令, 滿洲國 政府公報 1470’ 에 의거 1939년 3월 10일에
정식 개교한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주신문은 설립되지도 않은 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박정희가 두번이나 편지를, 그것도 혈서까지 동봉해서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박정희가 혈서를 썼다는 만주신문의 기사는 조작의 의혹이 너무도 짙습니다. 조작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사필귀정, 시간문제입니다.

[추가] 무명씨의 글에서 펌 : 박정희가 혈서를 썼다는 1938년 9월 무렵 만주 봉천의 중앙육군훈련처
의 군관후보생 모집공고를 보면 치안부 군형과(軍衡課)에서 채용을 공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출한 신문기사의 진위가 또 한번 의심된다 할 수 있겠다.
징모과라는
부서는 있지도 않은 유령부서이며, 징병제를 실시할 무렵에 征募課라는 부서가 존재했지만 이 또한 징모과와는 엄연히 다른 부서다.

[추가] 만주신문 혈서 기사는 박정희가 설립되지도 않은 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만주국 치안부에는 있지도 않은 유령부서 징모과에 혈서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주신문의 혈서 기사가 조작임이 밝혀지는 일은 거의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출처 : 데안토에서〉

TAG 박정희혈서 민족문제연구소 만주군관학교 만주신문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3]

best

최진무

citiangel

공감 18

요즘 분통이 터져 매일 밤 잠을 설치다가 위의 자료를 어제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박정희 대통령님 폄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빼앗긴 10년의 세월 동안 득세한 OOO 세력들이 조작한 것이므로 응징해야 합니다.
읽어 보신 후 여러 곳으로 퍼나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8 08:00:26

공감 신고

최진무

citiangel

공감 18

요즘 분통이 터져 매일 밤 잠을 설치다가 위의 자료를 어제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박정희 대통령님 폄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빼앗긴 10년의 세월 동안 득세한 OOO 세력들이 조작한 것이므로 응징해야 합니다.
읽어 보신 후 여러 곳으로 퍼나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8 08:00:26

공감 신고

김보경

guide2012

공감 13

어떤 쓰레기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한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영웅일 뿐입니다
2009.11.08 08:10:28

공감 신고

김봉섭

nshkbs1123

공감 12

매우 시사성을 겸비한 옳은 논조입니다.
지난 좌익 정권은 극히 불순한 기도 하에 좌파 성향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영웅 박통의 흠집내기에 진력하였습니다. 특히 지탄받는 과거사 위원회나 인권 위원회는 노골적인 종북과 反 대한민국의 정체을 드러냈는 바,
故 박대통령의 친일파 거론은 좌익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국민들의 단호한 배척과 아울러 심대한 규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여, 惡名 높은 좌익들의 전위대인 민족 연구소와 과거사위를 즉각 해체하고
불순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겠습니다.

2009.11.08 08:22:04

공감 신고

김희성

sa2sa2ya

공감 7

최진무님 밤잠을설치셨다니 그공분 이해합니다

허나 어쩝니까 주변에 개떼와 쥐떼가 들끓은것을.

세상에는 참으로 별별놈들 이루 탓하며 살수 없으나 사필귀정 결국 의법처단 됩니다.

공성진 뇌물 수수혐의 로 검찰에 출두 된다지요? 그저 우리는 보기나 하십시다.

2009.11.08 09:28:41

공감 신고

이기선

pado002

공감 10

탈북자들의 5.18 광주사태 북한군 참여 증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반만년 역사상 최고의 영웅인 박 정희 대통령을 매도하려는 그들의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신문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보도할 것이 없었는지, 어떻게 시골 평교사가 군관학교 입학하겠다고 혈서 쓴게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신문의 1면이면 톱뉴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그 당시는 혈서쓰는게 어지간하면 다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코메디같은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9.11.08 10:37:48

공감 신고

김규용

jamesk4811

공감 7

내 일 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휘호는 반드시 보존하여 나중 에 박통기념관 정문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휘호이지요 !!! 사심없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 하는마 l 음 은 가슴 깊이 세겨야 합니다 그분 이후의 많은 대통들 박 통앞에 서면 얼굴이 저절로 숙여 질터인데 어쩐일 인지 전들 외면들 만하거나 매도 왜곡 폄하들만 해대니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2009.11.08 11:00:42

공감 신고

김규용

jamesk4811

공감 8

이기선 님 !! 그들이 어느분을 추종하는인간들인지는 안보아도 너무 뻔한 사실 아닙니까 ??? 더욱 한심한것은 이런한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판사라는 위대한분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 밖에 !!! 지난 10 년간 전부 이름도 희한한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이 사법부를 장악 하고있다는 사실이지요 !!!

2009.11.08 11:05:00

공감 신고

김규용

jamesk4811

공감 6

최 진 무 님 !! 진정 님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 바로 바르게 밝혀주시니 !! 앞으로도 자주 보엇으면 합니다 건강도 반드시 챙기셔서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2009.11.08 11:08:17

공감 신고

심정섭

bubsan

공감 4

조작한 냄새가 온 천지에 풍긴다.

그 조작한 신문의 원본을 찾으면 해결된다.

원본 신문이 없는 신문 보도는 모략협잡이다.

위조 달러도 만드는 판에

신문조작이야 누워서 떡먹기 보다 쉽다.

원흉을 가려내면 죄파의 죄악상 흉계

노무현을 비롯한 민주당 열우당 원초적 불법 단체

임이 밝혀지고 그에 동참한 떨거지들 명분 땅에 떨어질 것이다.

2009.11.08 16:33:48

공감 신고

임미성

ms2868

공감 1

만주신문에 수록되었다면 당연히 수구들이 우긴다고해서 친일행적이 미화되고 감쳐지는것은 아니죠 범글로벌적인 문제로 들어가니 ...이미 중국역사가들에 의해서 발견된것이니 괘변들은 작작들 하시길!!

2009.11.09 00:49:55

공감 신고

정윤동

ydchung

공감 2

혈서 원본이 확실한지 엄밀히 정밀한 감별검사와 조작인가 꼭확인이 필료합니다. 조작 위조를 가장한다면 그 수법과 지능적 기술또한 상상을 초월할것이며 위조를 진품으로 보호방법에 로비나 홍보 또한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엄만한 수사기관까지 의심해볼만합니다. 남민전출신에 어찌 막중한 역사를 맞기나 친북좌빨에게는 역사를 맞기는것은 고양이에 생선맞긴바다. 빨가이소장을 강아치우고 다시조사해야한다 우린 절대 밎을수없다 반론을 걸어야한다.

2009.11.09 05:07:26

공감 신고

문경오

nix2074

공감 1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니 아직도 과거를청산못했냐? 무려70년전일을 들추다못해 꿰맞춰서 뭘할려고할까? 야비하다못해 구역질나는구나 무슨이익을보려고 저발광하는 저집단들은 누구일까

2009.11.09 09:48:31

공감 신고

채수원

ultramankorea

공감 1

이란 학생이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미국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의

미를 이해하지 못한 글이라 본다. 사관학교란 해당국에서도 가장 애국심이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음은 한국 사관학교생들을 보면 쉽게 알수있다. 일본에 충성이 없다면 입학이 가능한게 아니기 때문에 친일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지도자의 자격이란 미래의 안목이 필수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관된 사상이 필요한데 박통은 친일, 국군, 공산당, 공산당 반역, 재입대, 구테타, 혁명동지를 반혁명으로 몰지 않았던가? 사상의 일관성 결여다. 창녀란 정조를 파는거고, 사상을 파는 것이 이와 다를까?

2009.11.09 13:11:27

공감 신고

임소정

50what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11.09 17:55:46

[chosun]

88

박정희 친일 매도의 본질 [21]

최영창(cotobot001) [2009-11-06 21:26:59] 조회 4715 | 찬성 207 | 반대 22 | 스크랩 4

노무현 정권서부터 광풍처럼 몰아친 친일파 논란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가 과연 있겠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며 어떤 세력이란 말입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 볼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 '팔갱이'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만큼 폭넓게 퍼져 있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부역한 사람의 사위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팔갱이'가 없지 않아 있듯이 친일파도 있기는 하겠지요. 또 마땅히 환수되어야 하겠지만,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 먹은 자들의 후손이 매국의 댓가로 얻은 부를 누리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뚱맞게 반공을 내세워 전 국민을 상대로 '팔갱이' 사냥을 하지 않듯이 친일파 문제도 정말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안 별로 대처해 가면 되는 것이지 사회를 통틀어 소란을 떨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반공이란 이념이 지나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 국민을 통제하는데 악용되었듯이 지금 친일파 제거를 내세우는 의도도 결국은 좌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파 정치 세력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친일파'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여서는 곤란하고 일본을 이롭게 하고 한국을 해롭게 한다는 의미여야 하지요.
그래야 친일파는 국가를 해치는 매국노이니 당연하고 시급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선전술이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조국을 해치면서까지 일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시대에 일본에 이익되고 한국에는 해가 되는 경쟁적인 사안이라면 독도 문제 정도나 될까요.
나아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친일파가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하겠습니까.
어떤 한국인이 한국 기업의 비밀을 빼내 일본에 제공했다고 해서 그를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개인의 범죄 행위일 뿐이죠.
산업 기밀을 훔쳐 일본에 넘기는 것은 친일 매국이고 중국이나 미국에 넘기면 괜찮은 것이 아니지요.
그건 친일파니 친미파는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범죄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주 로켓을 러시아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일본 기술을 이용해 만들자고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까.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마치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친일파가 넘쳐 나는 것처럼 시대적 착각을 일으키며 친일파 제거를 외치 것은 단순히 역사 바로 세우기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캐내어 현재를 도려내려는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선동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과거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현재의 조선일보가 친일 언론이니 파괴시켜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미 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난 것은 물론 역사적 진실을 찾는 작업의 순수성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공산당이 출신 성분과 과거 행적을 따져 인민의 계급을 자의적으로 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조선일보가 일제 36년 동안 일관되게 친일 행위만 했다는 겁니까. 만일 그랬다면 해방 후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좌파 정치 세력이 친일파를 화두로 삼고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논쟁의 총부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창업한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승만 정권을 친일 내각, 친미 위성국가로 색칠하면 결국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였다면 대한해협의 어업 경계선을 그렇게 그렸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재일 동포를 귀국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포로를 유엔사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방면했겠습니까.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친일 잔재를 모두 파괴해야 한다면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는 물론 경부선 철도, 항구, 도로, 교량까지 다 파괴하고 산업은행도 없애고 공장도 허물고 심지어 일본 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지식인과 그 후손들을 아오지 탄광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만 인도 국민이 '간디'를 매국노로 부른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년 2010 년이면 '한일합방(을사늑약)'이 발생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부관참시라도 할 듯 과거를 들어 현재를 치는 사회가 제 정신이 온전한 사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아마 100 년 전의 역사를 꺼내 정적을 제거할 생각은 차마 하지 못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착란 같은 광풍이요 파시스트들의 광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를 진심으로 청산하려 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더 자세히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으며 일본이란 상대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날까지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일제시대 청산이란 식민지 사관처럼 아직까지 우리 정신 문화에 남아 있는 잔재를 극복해 가는 것이어야 하지 100년 전 역사를 꺼내 서로를 도륙하는 자해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 군관학교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동작동에 있는 박정희의 묘라도 파헤치자는 겁니까. 인간이 완전할 수 없으니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오류도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뿐 아니라 그 당시 선각자들 중에서도 조선이 멸망해 더 이상 자신을 지켜 줄 국가가 사라지고 서양과 동양의 격차에 놀란 나머지 일본의 근대화 세력을 이용해 볼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이 다 친일파란 것입니까.
일제시대 박정희 군이 일왕에 혈서를 쓰고 입학했다고 하니 그 시대의 참상에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를 친일파라 할 수 없고 그들 이제와서 친일파라 하면 너무도 잔인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주 군관 학교 출신 소위였기에 친일파라 하며 친일파라 지칭하는 뜻이 매국노를 가르키는 것이라면 결국 그 소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반공과 산업화 세력의 상징인 '박정희'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까.
친일파 척결이란 게 이런 식이라면 조선시대에 '조의제문'을 핑게 삼아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상대 당을 도륙한 '무오사화'를 일으킨 패륜의 당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일제시대의 극복은 정신적인 극복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역사의 연구는 이념이 개입되지 않은 냉정하고 균형있는 사실 규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시대의 질곡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 과거를 치유해야 하지 이렇게 파시스트처럼 단편적인 사실만 꼬투리 잡아 부관참시하듯 과거를 계급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진정한 친일청산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한국의 좌파 색히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아마도 일본은 비웃고 있을 겁니다.
경부선 철로는 왜 몽땅 떼어내지 않는가 하면서.
//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1]

best

정해중

jhj7194

공감 10

일목요연하게 잘 쓰셨습니다..최영창님의 글을 즐겨 읽습니다..건필하세요 추천~

2009.11.06 21:38:25

공감 신고

정해중

jhj7194

공감 10

일목요연하게 잘 쓰셨습니다..최영창님의 글을 즐겨 읽습니다..건필하세요 추천~

2009.11.06 21:38:25

공감 신고

최영창

cotobot001

공감 3

정해중 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009.11.06 21:40:33

공감 신고

은준기

snowjake

공감 2

추천합니다!!!

2009.11.06 23:24:27

공감 신고

남대우

ndw007

공감 8

좋은글 잘 읽었읍니다 백번 지당한 말씀 이고요 -

다만,한가지

(그넘들 조상은 일제치하 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2009.11.06 23:34:33

공감 신고

변재광

lonestar333

공감 5

속셈은 딱 하나 입니다. 해방후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보수정권을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세력으로 후세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항상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항상 일관됩니다. 반공하며 경제개발한 보수정권은 "친일 기득권 세력", 좌파정권의 멍청한 북한 퍼주기 비판하면 " 반통일세력" ..... 이러항 상투적인 말장난에 어린 새세대가 속지 않도록 교육 잘 시킵시다.

2009.11.08 09:27:49

공감 신고

박병주

bjpark1

공감 5

박정희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 먼저 자기 조상의 행적을 보라!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과연 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의 신에게 고개를 숙이기를 거부하고 감옥을 택했던가? 과연 오늘날 박정희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대는 1942 ~ 1945년 사이에 일본의 신에게 고개를 숙이기 보다 서대문 형무소의 찬 겨울을 택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택했을 사람은 따로 있다. 돌 내려라.

2009.11.08 10:41:39

공감 신고

안명숙

pussycat1307

공감 1

최영창님, 좋은글읽었습니다. 고맙고 속이후련합니다. 계속 좋은글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생님과 똑같은생각 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글로 쓰기가 쉽지않네요.

2009.11.08 11:20:14

공감 신고

심정섭

bubsan

공감 7

최영창님의 민족문제연구소란 정체불명 단체의 행적을

신랄한 비판 질타를 적극 공감 공명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독도 사수는 친일이고,

김대중이가 독도 영해를 일본에 양보한 것은 뭣인가?

이는 半日인가 親日인가?

2009.11.08 14:39:41

공감 신고

남미래

miraenam08

공감 1

진짜 친일파면 미쳤어요 우리나라 근대화에 그토록 목을 매게?

친일파였다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자들처럼

자기 가족들만 모조리 출세시키고 부정부패 실컷 저지르면서

김일성 김정일 개대충처럼 혼자만 잘먹고 잘 살면서

과학기술이니 경제니 그런거 개발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를 도로 일본에 상납했을 겁니다.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상납했나요?

뼛속까지 친일파인 개대충이나 2차대전 전범이자 일본천황 히로히토 앞에 90도로 큰절 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왕년의 일본인 선생한테 달려가서 "센세, 고레와 도요타데스"라고 엠병했지..

2009.11.08 16:36:02

공감 신고

양진석

yjsc21

공감 2

명쾌한 글입니다. 남한좌빨들은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한 정통성있는 유일한 정부라는 북한봉건세습 공산주의 주장을 그대로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위하여 발갱이 정권인 도요와 노청개구리 정권부터 친일를 이슈화하였고 무슨위원회를 만들어 발갱이행위를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복권사면 시키고 정당화하였지요. 일본해운회사의 개노릇을한 도요타의 친일행각과 남노당에 간부를했던 도요타의 발갱이 행적, 노청개구리 부친의 강진에서의 발갱이행적, 장인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모시든 상관과 지역주민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죽인행적등은 조국과 동족에게 천인공노할 죄상이다. 이참에 친북발갱이인명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2009.11.08 17:39:00

공감 신고

송복성

nano1229

공감 0

한국이 가망없는것중에하나는 간과 쓸개에서 재주부린 배운자들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미국에아부하며 살고있다그리고 세월에따라서 변신을거듭할것이다 독립군장준하선생은 중정에서죽이고?/독립군을밀고해서 출세한자는 이후 국군OOO를하다(박상희의동생)군내부 OOO조직도를알려준대가로 현역후에 쿠테타일으키고 그리고 자식들은 호화호식하고??나라가이니지요??

2009.11.08 18:59:58

공감 신고

박마이크

wookook

공감 2

박통을 친일파라 비방하는 자들은 정신이상자들 이거나 배은망덕한 패륜아들 입니다.
한국인으로 감히 그분의 은공을 폄하하고 중상.비방하는 건 천벌을 맞을 짓 이지요.

2009.11.08 19:29:09

공감 신고

박영진

parkyj5507

공감 0

-1.-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적은 좌파이다.즉 이북의 수뇌부이다. 그로 인하여 좌파들은 친일파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이북에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이북의 정권을 잡기위해 정통성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자본가와 지주와 친일파로 잡은 것이고 그 중에 남한보다 점점 경제력에서 뒤지자 남한의 좌익 세력을 앞세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잡기 시작 한 것이다.

진정으로 친일파를 정죄하려고 최신 부터라면 먼저 광주사태를 확실하게 밝히고 또한 좌익들 역시 모두 밝혀야 한다.

꺼꾸로 한다면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 부터 단죄를 시작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2009.11.08 20:50:28

공감 신고

박영진

parkyj5507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11.08 20:50:59

장종국

jangjk1

공감 0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로 모는 사라은 왜 그럴까? 그것은 자명하다. 그가 좌익에서 우익으로 돌아서서 좌익(빨.갱이)을 몰아내는 데 앞장선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이다. 그들의 배신자 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복수로 볼 수 밖에 없다.

2009.11.08 21:10:51

공감 신고

장철희

brightmoon

공감 1

속이 시원하게 잘 파헤쳐주셨습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않고 외면해 버리겠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최선생님

자주 좋은 글 올려주세요.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국민 계도... 어쩌면 선생님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2009.11.08 21:13:17

공감 신고

고준

k4016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11.08 23:19:15

임미성

ms2868

공감 0

조선일보가 일관되게 친일을 칭송하지않고 대한민국이 건립된후에는 대한민국을 칭송해서 친일파라 부르는건 의미가없다고??그런논리가어딨어요?기회주의자도 그런기회주의자가없네 방응모...힘들고 어려울땐 약삭빠르게 친일을 칭송하고 해방후엔 국민에게 두둘겨맞아죽을까봐 변신의귀제도 그런.. 누가 박정희 경제살린공을 논하냐 공은공이고 친일은친일이다!!...빨간혈서묻혀가며 천왕폐하칭송하며 만주군장교 자발적이게 지원했을때 나라구하려고 목숨건 독립투사들은 만주군에 잡혀서 족족 죽음을 당했어요!!! 기회주의자 친일파를 미화시키는 우는 제발 범하지 마시길!! 정말 말같지도 않한말 하시네~

2009.11.09 00:46:12

공감 신고

윤정철

jnickyunkr

공감 0

아주 교묘하게 나름대로 머리쓴다고 물타기 하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도둑놈이 어딨고, 사기꾼이 어딨나? 야비한 논리군.

2009.11.09 04:32:30

공감 신고

김현일

remisgood

공감 0

친북파도공개해야마땅하고그들에게주체사상을가르친자와배운자들을모두공개해야한다.

2009.11.09 05:33:01

공감 신고

이창근

t011511

공감 0

성제박정희,성군세종대왕,성웅이순신,세분의정신을이어받아,동양의신성국으로세계평화를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되자

2009.11.09 06:58:21

공감 신고

김시성

kss4875

공감 0

동시대를 같이 하지 못한 후손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행위 또한 커다란 모순이 아닐까여..?? 시대적 아픔을 지금에 와서 또다른 편가르기의 기준으로 삼는 다면 우리의 역사는 찬란한 영광보다는 모순된 역사로만 남아 있을것입니다.

2009.11.09 10:11:07

공감 신고

이수철

lsc3104

공감 0

그 들이 하도록 놔 두구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압니다.

5000년 역사를 바꾼 5,16을 국경일로 정하여 후손에게 넘겨 줍시다.

역사를 바로 알려 넘겨 주어야 합니다.

[chosun]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 아나? [4]

이승석(leess0987) [2009-11-03 22:18:11]

조회 102 | 찬성 26 | 반대 0 | 스크랩 0

내 나이 70, 41년생으로 나는 어린 시절 6.25를 직접 겪었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나는 6.25때, 내 나이 10살에 내 친구가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막다가 인민군에게 산채로 불태워져 죽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내 친구도 나이가 10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6.25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조금이라도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심지어 북한 김정일 만나고 온 종자들은 모두 공산당 뻘갱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문제는, 그 분이 일본군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것에서 근거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일제시대를 살면서 밥 술깨나 먹고 산 사람 치고 일본에 나쁜 감정 가지고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의혹은 모두 뻘갱이 김대중이 중상모략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끊임없이 뻘갱이로 몰리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모함한 것입니다. 김대중은 젊은 시절 장사로 돈깨나 번 사람입니다. 그 당시 장사 깨나 한 사람들, 모두 친일하지 않은 사람 없고, 해방 후에도 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부인할 지 모르지만, 김대중 같은 것들이 바로 진짜 친일파입니다.
그때 많은 친일파들이 뻘갱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당시 소련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데, 누구도 학위증을 본 자도 없고, 단지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사관학교 졸업했다고 그를 친일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분은 잃어버린 조국에서 어자피 교육 받아봐야, 다 일본놈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차라리 원수들의 진영에 가서 당당히 선진교육 받아 자신을 갈고 닦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그게 좋아서 했다 한들, 그는 대통령이 되어, 당시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지 못한 점인 나약함, 가난, 무기력 같은 단점을 그들이 가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남을 배워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을 두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과학기술을 따라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규정하는 그 무슨 정신나간 위원회인가 하는 놈들, 모두 뻘갱이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합니까?

여러분은 친구가 내 눈앞에서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친일파보다 나쁜 종자가 바로 뻘갱이입니다. 친일파 같은 캐캐묵은 얘기 그만하고, 사회에 쫙 깔려 있는 뻘갱이들이나 잡아 다 처단해야 합니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4]

best

공감 8

조작된 친일 진상은 원천 무효시키고

그무슨 위원들인가 다 사기꾼 직무로 범법자로 처벌해야한다.

군인 위관급을 사회적으로 군수급 서장급 판사급 우위에 친일인사로 법기준한자들 다 빨개이들이라 고의적으로 박통을 매장함으로 김대중을 더 위대한 자로 매도한 수법이다. 민중적 항의가 꼭 요구합니다.

2009.11.03 23:12:01

공감 신고

공감 7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2009.11.03 22:53:21

공감 신고

공감 5

부족한 늙은이 생각에 동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2009.11.03 22:57:58

공감 신고

공감 8

조작된 친일 진상은 원천 무효시키고

그무슨 위원들인가 다 사기꾼 직무로 범법자로 처벌해야한다.

군인 위관급을 사회적으로 군수급 서장급 판사급 우위에 친일인사로 법기준한자들 다 빨개이들이라 고의적으로 박통을 매장함으로 김대중을 더 위대한 자로 매도한 수법이다. 민중적 항의가 꼭 요구합니다.

2009.11.03 23:12:01

공감 신고

공감 0

지적하신대로 박전대통령이 만주구놘학교를 졸업했다는것 이외에 그가 친일을했다는 아무런 흔적이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어떤이는 독립군을 토벌했다고도 하지만 그에게 토벌당했다는 독립군도,고초를 받았다는 독립군도 단 한명도없습니다.만주군관학교를 졸업했다는것만으로 친일을했다고 한다면,그당시에 조석으로 "황국신민의 서"를 읊조렸던 조선팔도 백성 모두가 친일을했다고 하는거와 똑같은거라 생각합니다.악질적인 일본순사를 했다는 어느 야당국회의원의 부모들에대해선 그토록 관대하고 침묵하면서도,친일의 행적이 전무한 이를 온갖 쌍욕으로 음해하는이들이 볼쌍사납네요

2009.11.03 23:51:07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박정희] 인기보다 진실 추구한 지도자 [1]

맹수옥(suok1113) [2009-10-21 17:35:07]

조회 632 | 찬성 52 | 반대 3 | 스크랩 0

인기 영합보다 '진실과 정의' 추구한 위민.애국의 지도자 박정희

그는 국민 의식과 정신적 변화를 위해 국민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판의 만성질환 같은 대중인기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지성인 출신, 최고의 정치가 외교관 군인의 교육을 받은 그답게

진실과 정의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소신과 믿음이 있었다.

진정한 데모크라시란 김영삼. 김대중. 강기갑 부류가 떠드는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타령이 아니다. 데모크라시의 정신과 내용도 모르면서 '민주주의' 잠꼬대로 지저분한 대중추수적 중우정치를 획책하던 자들과 박정희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마르크스적 공산주의의 오류와 밑도끝도 없는 꽃타령 '민주주의'의 허실을

그는 누구보다 심오한 눈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알고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했다.

그런 그의 자세와 삶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를 살아 숨쉬게 할 것이다.

----------김현식님이 올린 글과 자료 '가치있는 사료'로서 퍼올립니다(제목 및 일부 편집)----------

국민을 향해 '거지정신' 비판과 정신적 변화 촉구

1967년 2월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朴대통령은 '생산하는 지도자'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생산이란 용어를 외면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의 잔재로서 남아 있는 관료근성과 낭비의 습성, 무조건 반항하는 부정적 생리, 혼란과 무질서를 틈타 안이한 요령만을 꾀하는 출세주의, 이는 이미 낡은 한국과 함께 사라져버린 '지도사像'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전적인 지도자의 유형은 한 마디로 '생산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올해는 일하는 해' '올해는 더 일하는 해'식의 구호가 '조국 해방의 해'에 비교하면 작고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모든 허위와 가식을 던져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적나라한 진실이 거기에 있었다. 朴正熙의 반골정신은 민주주의의 무오료성에 대한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는 또 국민들을 향해서 아부하지 않은 유일한 정치인이다. 국민들을 겨냥하여 공개석상에서 '거지정신'이란 말을 쓰기도 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은 확실히 못사는 국민이다. 뒤떨어져 있는 국민이다. 후진국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멀지 않는 장래에 다른 선진국가에 못지 않게끔 우리도 自力으로써 自立해서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과 우리의 자신과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든지 '남한테 원조 받아야 되고, 남한테 동냥을 해

야 되고, 남한테 얻어먹어어야 산다'는 그런 거지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자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1965년 5월2일 진해 제4비료공장 기공식 연설).

1960년대 말 朴대통령은 강원도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지사를 상대로 약30분간 숨막히는 일문일답을 한다. 주제는 앙골라 토끼. 왜 이 토기에서 생산되는 털이 줄었는가, 왜 전번 보고와 다른가, 왜 120g이 아니고 130g이 되었나... 이처럼 집요하게 지사를 몰아세우는 대통령! '우리도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인간대우를 받는다'는 절박한 꿈이 대통령의 짜증나고 안타까운 목소리에 담겨져 있었다. 朴대통령은 개혁의 참여층을 전국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냉소자와 방관자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성공했다. 모든 개혁의 성공은 구성원의 참여의식에 달려 있다. '참여정부'라는 盧정권이 국민분열과 계급적 적대감으로 참여의식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朴대통령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 잘 살아 보세'보겠다는 의지의 불씨를 심었다.

.....진실과 정의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정신적 힘이 인류를 지킨다. 하물며 한 국가를 지키지 못하겠는가. 박정희, 진실을 추구했던 그...한국인과 세계인의 가슴에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인기보다 진실한 비판을 추구한 그가 오늘날 가장 존경받고 인기있는 지도자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역설의 아이러니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공감 0

보거래이... 이 얼마나 겸손한 네티즌 들인가를...

이런 글엔 덧글이 필요 없잖는가? 지 짧은 생각을 끄적거려 봐야 글 올린 분의 논지에 누가 되니 그저 찬성 한번 클릭하면 그만이오 이거 아니겠소?

민노당 추종자들 ... 씰데없이 누가 누굴 잡아다 팼다꼬 ... 왁자지껄 떠들지 말고 좀 배우소.. ㅎㅎㅎ

2009.10.25 18:18:04

[chosun]

한국 동물원 100년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기사

100자평(21)

입력 : 2009.10.30 02:25 / 수정 : 2009.10.30 10:27

창경궁→창경원 만든 이토 히로부미는 개장도 못 보고 죽고…
"미군 폭격하면 맹수 탈출" 해방 직전 日帝가 독살
6·25때 사육사 피란간 사이 살아남은 동물없어 戰後 재건
"평양동물원보다 더 크게" 84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

1909년 11월 1일 모닝코트(morning coat)를 걸치고 회색 중절모를 눌러 쓴 30대 중반의 사내가 창경원에 나타났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창경궁 전각을 뜯어내 만든 동·식물원 개원식에 참가하러 온 것이었다. 홍화문(弘化門·창경궁 정문) 밖에는 이 땅의 첫 동물원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입장료는 어른 10전, 어린이 5전이었다.

존엄한 궁궐에 동물원을 들이자는 발상을 한 것은 일제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였다. 하지만 정작 이토 자신은 개원식 닷새 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숨져 그 완성을 보지 못했다.

다음 달 1일이면 일제가 창경궁(昌慶宮)을 창경원(苑)으로 격하시켜 우리나라 첫 근대식 동

물원의 문을 연 지 100주년이 된다. 창경원 동물원은 지난 1984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동물원'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 일제가 만든 창경원에서도 동물들은 순수한 추억만을 남겨줬다. (왼쪽부터) 새 식구가 된 기린은 긴 목을 구부리고 홍화문을 지나느라 애를 먹었고, 코끼리는 노랫말처럼 '과자를 주면 코로 받아먹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좁은 통에 반신욕 하듯 앉아서도 물장구를 잘 치는 북극곰과 새끼를 잘 낳아 '수출' 까지 했던 하마도 유명한 식구였다. 홍학 떼는 궁궐 뜰에서도 늘 기죽지 않고 화려한 날개를 뽐내며 군무를 펼쳤다./조선일보 DB · 서울동물원 제공

◆해방 직전 "맹수들 모두 죽여라"

'반달곰 2마리, 호랑이 1마리, 집토끼 18마리, 진돗개 1마리, 제주말 2마리, 고라니 · 노루 10마리….' 서울시가 1993년 펴낸 '한국동물원 80년사'에 나온 개원 첫해 창경원 동물원의 식구 명단이다. 총 72종 361마리로 우리를 꾸렸다. 동물들은 직접 포획하거나 기증을 받았으며, 일본 · 몽골 등지에서 수입한 동물도 있었다. 서울시내에 마땅한 가족공원이 없던 터라 벚꽃철에는 하루 2만~3만명이 입장할 만큼 나들이 장소로 인기였다.

'백수의 왕' 사자는 1910년 일본 교토(京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한 쌍을 들여왔고, 코끼리는 1912년 독일에서 수입했다. 이때 한국에 들어온 하마 부부는 25년 동안 새끼를 12마리나 낳아 창경원에 '하마동물원'이란 명성을 안겨줬다. 1919년 7월엔 하마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경찰 수백명이 창경원을 포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동물원 식구는 1936년 192종 675마리가 됐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동물이 속출했다. 1945년 7월 25일, 도쿄(東京)에서 무서운 명령이 창경원으로 긴

급 전달됐다. "미군이 창경원을 폭격하면 맹수가 우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으니 미리 죽여 없애라." 사자 · 호랑이 · 곰 등 21종 38마리의 맹수에게 독약을 섞은 먹이를 먹였다. 그날 밤 창경원 일대는 맹수들의 스산한 울부짖음이 밤새도록 가득했다. 동물원 직원들도 모두 함께 따라 울었다.

동물들은 6 · 25 전쟁 통에도 수난을 겪었다. 1951년 1 · 4 후퇴 때 급히 피란을 떠났던 사육사들이 나중에 돌아오자 목숨이 붙어 있는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부엉이 · 여우 · 너구리 · 삵 따위는 굶거나 얼어 죽었고, 낙타 · 사슴 · 얼룩말들은 도살당해 먹을거리가 부족한 사람들의 식량이 됐다.

폐허가 된 창경원 재건은 1954년 시작됐다. 미8군이 동부전선에서 생포한 곰 1마리를 기증했다. 산업 · 조흥 · 상업은행과 경성방직 · 동아상사 등 20여개 기관과 개인이 500~5000달러씩 돈을 내 동물을 사들였다. 사자는 한국은행이 맡았고, 이병철 당시 제일제당 사장이 코끼리를 기증했다. 방일영 당시 조선일보사 사장도 수리부엉이를 기증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수입된 동물이 대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시민이 마중을 나왔다.

▲ 지난 28일 오후 서울동물원에서 먹이주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캥거루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동행은 미래 동물원의 중요한 과제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평양동물원보다 크게 지어라"

1960년대 말이 되자, 동 · 식물원을 이전하고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간 3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면서 궁궐의 훼손도 심해졌고, 새로 동물을 들일 공간도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1977년 이전 계획의 윤곽이 잡혀 경기 과천 막계2리에 24만8000㎡(7만5000평) 부지가 선정됐다. 그런데 1978년 6월 당시 구자춘 서울시장이 "동물원을 평양동물원보다 크게, 국제 수준급으로 지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부지는 당초보다 10배 이상 넓은 290만여㎡(87만8500평)가 됐다. 모의원 서울동물원장은 "시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북한을 다녀온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말을 듣고 그리했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평양엔 우리보다 뭘 잘해놓았든가?"(박 대통령) "평양동물원이 대단합디다."(이 부장) "그래? 그럼 우리도 그보다 크게 짓지."(박 대통령)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서울시장에게 평양동물원(268만㎡ · 81만1000평)보다 크게 지으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마침내 1984년 5월 1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개장하자, 무려 75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흘 뒤인 어린이날에는 100만명을 넘었다.

◆콘크리트 동물사에서 생태동물원으로

1990년대 이후 대형 놀이공원과 테마 동물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인기가 식었던 서울대공원은 2000년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양몰이장 같은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했고 올해 '서울동물원'이란 새 브랜드도 만들었다. 콘크리트로 된 동물 막사를 가능한 한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1일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신유인원관'(新類人猿館), '서울동물원 역사관'도 개관한다. 신유인원관엔 동물의 지적 능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인지연구센터'가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침팬지 우리에는 '먹이 자판기'도 있다. 관람객이 우리 앞 작은 홈통에 떨어뜨려 주는 동전을 침팬지가 집어서 돌처럼 생긴 방사장 내 조형물의 뚫린 구멍에 넣으면 먹이가 나오는 것이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동행하는 곳이자, 사라져가는 생물종과 그 서식처를 연구 · 보전하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물들도 즐거움을 느끼며 산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과천 서울동물원에서 어린이들이 캥거루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있다. /채승

우 기자 rainman@chosun.com

- 고춧가루 흩어진채 목 잘려나간 사슴 사체, 범인 잡고보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30/2009103000023.html

[chosun]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910/h2009102117504323760.htm

과학계, 박 전대통령 기념관 열풍 ②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내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5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한번도 노(No)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만 42세이던 1967년 과학기술처 초대장관에 발탁된 김기형(84) 박사는 최근 "6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이공계 대학원 우수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를 건의했는데 '전체 병력 충원에는 문제없다'며 그 자리에서 승인했다"고 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개발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개발이야말로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인 제도화로 모아진다고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정희 정부는 공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저력을 배양하기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해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과학기술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직접 연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종래의 교육정책적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추진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7월22일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구로서 경제기획원 내에 기술관리국을 우선 설치했고 1964년 2월 1일 정책기구로서 경제과학심의회를 뒀으며 다음 단계로 종합공업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의 장기전망 검토가 시작됐으며 기능인력을 위주로 하는 인력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과학기술처 발족(1967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1967년), 한국과학원(현 KAIST) 설립(197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1973년), 기술용역제정법 제정(1973년), 대덕연구단지 개발 착수(1973년), 한국선박해양연구소 발족(1976년), 자원개발연구소 개편(1976년) 등으로 이어졌다.

1966년 산업기술개발의 핵심체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공업기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KIST 설립으로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후 KIST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다.

KIST는 1960~70년대에 국내 산업 활동의 기초조사와 중화학공업의 정책수립에 공헌했고, 1980년대에 산업 발전의 핵심기술을 모방 · 개량했으며, 1990년대부터 첨단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KIST는 많은 수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배출했고 국내 연구기관의 산파역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KIST의 40년 역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40년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

이 KIST 설립자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이고 이제, 그간 KIST에 몸담았던 4천여 과학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대 박효종(정치학)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근대화의 열매는 따 먹으면서 정작 그 결실을 가능케 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뿌리가 꺾인 채 화병에 놓인 꽃을 보는 참담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박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상은 커녕 기념관조차 없는 데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국가지도자로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했다.

민 이사장은 "오늘날 우리의 번영은 물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자산과 우수 인력이 당시에 그린 국가대계의 결과"라며 "우리 모두는 과학기술이그로부터 40~5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과학기술계의 움직임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hankooki.com]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배경음악 첨부 완료 가사 | 뮤비

박정희,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하다 [2]

정학길(jhg40) [2009-10-21 11:17:28]

조회 255 | 찬성 62 | 반대 2 | 스크랩 0

오늘 조선일보 톱 헤드라인 기사에 올라온 "과학계, 박 전 대통령 기념관 열풍 1~2"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토록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 오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

박 전 대통령이 영애 박근혜를 전자공학도로 기른 이유도 오로지 국가의 백년대계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과학계에서 ' 과학대통령' 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명백한 '사실'(fact)이자 ' 상수'(constant)로 통한다.

2002년 한국대통령 평가위원회가 분야별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 분야를 비롯해 교육과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음은 물론이고, 더욱이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신념은 혁명 직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 전례 없이 과학기술 진흥이란 조문이 신설, 삽입되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과학입국에 대한 신념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축을 이룬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 신념과 결단, 치밀한 과학기술진흥계획' 에 입각해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KIST를 1966년 설립했고, 곧이어 1967년 당시 개도국 최초로 과학기술전담 부서(

과학기술처)를 신설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밀가루 한 포대’가 아쉬웠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 과학기술 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KIST 설립으로 돌렸고, 이후 KIST는 낙후된 한국의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70년대에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며 대덕연구단지 건설 등을 주도했다.

기념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박원훈 KIST 연우회장은 “기념관 건립은 단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한 국가지도자의 정확한 인식이 얼마나 국가발전에 기여했는지,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 세태에서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동문회가 ’KIST 출신의 연구하는 친구들’이란 뜻을 갖는 법인체 ’KIST 연우회’로 공식 발족한 만큼 전 회원들이 나서 기념관 건립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5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한번도 노(No)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만 42세이던 1967년 과학기술처 초대 장관에 발탁된 김기형(84) 박사는 최근 “6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이공계 대학원 우수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를 건의했는데 ’전체 병력충원에는 문제없다’며 그 자리에서 승인했다”고 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개발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인데,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개발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적인 제도화로 모아진다고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정희 정부는 공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저력

을 배양하기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해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과학기술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직접 연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7월22일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구로서 경제기획원 내에 기술관리국을 우선 설치했고 1964년 2월 1일 정책기구로서 경제과학심의회를 뒀으며 다음 단계로 종합공업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의 장기전망 검토가 시작됐으며 기능인력을 위주로 하는 인력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과학기술처 발족(1967년), 과학기술진흥법 제정(1967년), 한국과학원(현 KAIST) 설립(197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1973년), 기술용역제정법 제정(1973년), 대덕연구단지 개발 착수(1973년), 한국선박해양연구소 발족(1976년), 자원개발연구소 개편(1976년) 등으로 이어졌다.
1966년 산업기술개발의 핵심체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공업기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KIST 설립으로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후 KIST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다.

KIST는 1960~70년대에 국내 산업 활동의 기초조사와 중화학공업의 정책수립에 공헌했고, 1980년대에 산업 발전의 핵심기술을 모방 · 개량했으며, 1990년대부터 첨단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KIST는 많은 수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배출했고 국내 연구기관의 산파역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KIST의 40년 역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40년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
이 KIST 설립자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이고 이제, 그간 KIST에 몸담았던 4천여 과학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대 박효종(정치학)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근대화의 열매는 따 먹으면서 정작 그 결실을 가능케 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뿌리가 꺾인 채 화병에 놓인 꽃을 보는 참담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박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상은 커녕 기념관조차 없는 데 대해 질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국가지도자로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했다.
민 이사장은 “오늘날 우리의 번영은 물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자산과 우수 인력이 당시에 그린 국가대계의 결과”라며 “우리 모두는 과학기술이 그로부터 40~5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앞두고 ’과학대통령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단이 공식 출범하고, 100억원 모금 운동도 전개되는 등 과학계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KIST 출신 동문은 23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IST 본원에서 ’KIST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 국제기념관’ 건립 사업단을 공식 발족시키기로 했다.
KIST 연우회는 일단 KIST 안에 2천100㎡(650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330㎡(100평)에는 단층으로 기념관을 짓고, 나머지 공간에는 KIST를 방문한 국제 석학들이 머물 수 있는 4층 규모의 국제 게스트 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기념관은 게스트하우스 부속건물의 성격으로 게스트하우스 출입문을 이용하더라도 기념관 내부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된다. 또 기념관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이 전시된다.

기사는 박정희전 대통령이 김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도 들고 있다
박명림 교수가 발표하는 '한국 근대화의 두가지 모델: 박정희 대 김일성'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1인당 GNP 82달러로 북한의 195달러에 크게 뒤졌던 남한이 1979년 박

대통령 사망 때엔 1640달러 대(對) 1114달러로 역전한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내부 차원에서 남한은 권위주의 체제이긴 했지만 복수 야당과 선거, 이견이 일정하게 허용됐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도전이 가능했고, 박정희 정권은 이런 내부도전과의 경쟁을 통해 북한을 압도하는 역량을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추신 : 하루에 잇따라 세 개의 글을 올려보기는 처음이다. 조토마에 나도는 광빠라는 난도질을 당할만도 하다. 하지만 진실을 이념의 도구나 불순한 어떤 의도에서 감추고 왜곡해서는 나라의 미래나 희망이 없다는 나름의 절박한 심정에서 퍼서 옮긴다. 그것 뿐이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이동우

leedongwoo33

공감 4

가슴이 후련합니다. 어린시절 국민교육헌장을 달달외우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질수있었던 가장 큰이유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이런 지도자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힘들면 다같이 나눌있다는 믿음...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그분...그런 분에 동상하나 없는 내조국에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립니다. 이제 그기념관을 진다하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만 나는군요. 참으로 행복했던 18년 이었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09.10.21 12:35:31

공감 신고

심정섭

bubsan

공감 2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사만 봐도 이야기를 들어도,

흠모와 연민의 정으로 가슴이 저며 옵니다.

그 내외분의 모습이 어찌 돌아가신 부모님 보다 더 보고 싶어질까요...!

2009.10.21 13:33:14

공감 신고

[chosun]

이휘소 박사의 한국 核개발 참여 과정 [1]

김현식(vivacorea) [2009-10-19 22:10:37]

조회 42 | 찬성 15 | 반대 0 | 스크랩 0

이휘소 박사의 한국 核개발 참여 과정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이휘소박사...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계기에 새삼 이휘소박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너무 아까운 인재에 가슴이 아리기도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이 휘소박사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교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수석 합격

화공과 2학년 재학중 도미,마이야미대학 물리과로 편입,
피츠퍽대학 석사,펜실바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27세에 프린스톤연구소 위원,그 당시 미국에서 10명에 꼽히는 물리학자가 되었고,
28세에 뉴욕주립대학 정교수,30세에 시카고대학 교수겸 페르미연구소 물리부장으로 취임

명실공히 세계 핵물리학자중 1인자로 부상했다

74년에 방한,서울대에 AID 차관에 의한 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주었으며,
77년 주한미군 철수가 시간문제로 대두되자 조국에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개발원리를 제공하고 같은 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1962년 국제 고에너지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할 정도의
이휘소박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핵 과학자 10명속에 끼이게 되었다

외국인으로 거기에 든 예는 과거에 없었고,
아직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낀 것은 특별한 예외에 속한 것이었다

국제 고에너지회의는 이탈리아의 프리에스트에서 7월 15일부터 45일간 계속되었는데
미국의 핵 과학자 10명이 거의 행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이휘소가 프리스톤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4개가 회의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백 여명의 학자중 이휘소가 가장 젊었다

당시 이휘소는 핵의 이론과 소립자의 단위와 그들의 생명의 기간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강연을 했고,
세계석학전원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끝나자 이휘소는...

저는 미국 국민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가난하고 분단된 국가에서 태어나 미국에 유학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국적을 언제인가 옮길 줄은 모릅니다만,핵을 만들고 핵을 이용하는 것은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을 저개발국가의 복지에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핵을 전쟁무기로 생각하는 인식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휘소의 이 말에 모두 또 감격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기립박수를 하였다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젊은 이휘소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 국내신문에도 이휘소가 국제물리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한 기사가 일제히 나왔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보는 박사학위 시험결과도 전체 평균 93점이었고,
차점 합격자의 평균 71점인 것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차이이다

펜실베니아대학 역사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물리과 지망생 중 미국 전대학 역사에도 없는 점수라고 말한다

고아인쉬타인박사가 일하던 곳의 프리스톤 고등연구소의 프레이즈 박사가 찾아와
대담을 요청할 정도였다

귀하의 성적은 펜실베니아대학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물리과 박사학위 지망생 중에서 역사 이래 가장 뛰어난 성적이라는 게
저희 연구소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귀하의 시험지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이론의 전개나 학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소의 검토결론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으로서 이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는가고 묻는 이휘소와의 대담은 생략하고...

프레이즈박사는 정중히 이휘소를 연구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초빙을 하면서,
귀하를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더구나 저희 연구소에 오시게 된 것도 환영합니다
귀하가 미국에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휘소는 1960년 1월 프리스톤의 정연구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휘소의 담당교수인 크라인교수가 기뻐해 주었다

세계 석학의 집결지인 프리스톤연구소에 30세도 안된 사람이
정회원(당시 25세)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대통령과 이휘소...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던 이 휘소박사,

박대통령이 보낸 편지...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뵈온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박사님의 소식은 이 곳에서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저대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나라는 어지렵고,국방은 허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박사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단계이고,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후면 한국에 남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인도 미국정부측에 몇 번 자제를 호소하고,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더 이상 구걸하는 것도 추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무엇하지만,
그래도 애원해서 들어줄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본인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입니다

이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들어줄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구걸 행각으로 국가의 이미지만 손상을 보는 추한 모습을
또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과학자들을 본국에 초청한 것이나 귀국시킨 것도 이런 저의 뜻을 일부입니다
이박사님을 초대하거나 모시지 못한 것은 박사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중론에 못이기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박사님의 능력을 추앙하고 박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그러나 조국은 위태로와 졌고 사정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이미 카터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여기서 비굴하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굴한 기운만 보이면 깔고 뭉게는 묘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존하던 시대에 종막을 고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자체가 독자적으로 미사일개발,핵무기개발,인공위성개발까지 해서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라린 경험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
우리 백성들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이박사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휘소박사님,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74년엔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이박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박사의 마음에 달리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재미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개발부터 서둘렸고,
또 시험도 해 보았지만,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박사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 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도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상황 앞에서,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희 배상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휘소는 편지를 읽으면서 참담한 심경 속에 사로 잡히었다
암담한 기분이었다

이휘소는 그날 (1977.3.20) 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할 때라는 절박한 내용이었다

내가 핵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처음에는 적성에 맞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나의 목적은 핵연료를 이용한 인류의 구원이었다

핵에너지를 이용한 자원의 개발,자원의 새로운 창조는 무한히 열리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내 생애를 바치었다

또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조국이 공산화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할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아니,지금 조국이 내가 겪은 6.25나 그보다 더한 비극의 문턱에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국은 월남에서 손을 떼었고,또 한국에서도 손을 떼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조국이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철수...조국의 공산화...이런 것을 보면서 핵을 자원의 개발에만
목적을 두었던 나의 신념이 흔들린다면...그것은 잘못된 판단일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조국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핵개발의 원리를
제공한다면...그것이 조국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면...

비록 박대통령이 유신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라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조국의 현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조국을 살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죽어 조국이 조국으로 남고,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면...나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

하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너만이 지금 너의 조국을 구할 수 있다는
명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일까?

조국은 나에게 너는 너의 능력을 이때에 쓰지 않으면 너는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살신성인...견위치명...멸사봉공...진인사대천명...나의 운명...
어머니...아내,아이들,그리고 형제들...하늘이여...무엇이 참다운 삶이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안내하여 주소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박대통령과 이휘소박사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편 계속...

++++
박대통령의 두번째 편지...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편지를 받으셨을 것 입니다

무례한 것 여러가지 용서하십시요
제가 박사님께 편지를 띄운 후 이십 여일 동안 미국은 저나
한국정부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미사일부대 완전철수에 이어
지상군 17000여명을 철수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해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이라도 귀국하여 주십시오

박사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박사님의 귀국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절박하고 상황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다시는 미국측에 비굴할 수도 없고, 비굴하지도 않겠습니다

박사님,다시 청하오니,귀국하여 주십시요

1977년 4월 8일

대한민국대통령 박 정 희 배상

이휘소는 하얗게 밤을 새웠다
그리고 스케줄을 더듬어 보았다

4월 8일 하바드대학특강.
5월 20일 동경제대학술회의 참가등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성단계에 있는 "히고스입자에 미치는 강작용의 영향"이란
방대한 논문도 며칠내로 마쳐야 한다

이휘소는 광적으로 논문에 매달렸다
이 논문은 특히 Dimu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Quigg Thacker와의

관계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한 논문이다
4월 25일 탈고를 끝낸 이휘소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하버드대학에서의 특강을 끝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마음으로 5월의 동경대학에서 있을 학술회의를 기다렸다

1977년 5월 15일,
이휘소는 시카고 변두리에서 외과의 개업을 하고 있는 김박사를 찾아갔다

이휘소는 김박사에게...
"사실은...의논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휘소는 김박사에게 솔직히 그 동안의 상황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까지 설명했다

북한은 소련에서 수입한 사정거리 50Km가 되는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50Km라면 휴전선에서 서울은 물론 수원 인천까지 미치는 거리다

휴전선에서 한강다리 전부를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다
그럴 경우 무기가 없거나 상대에 못 미치는 무기를 가지고 덤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를 이미 시작했고 다시 미국에 사정하고 애걸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도 할 일이 아니며,그런 꼴을 이휘소도 보고 싶지 않다

74년에 귀국했다가 박대통령의 부탁으로 당시 미국내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시정하여 달라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한
나로서도 다시 그럴 수는 없다

이휘소는 대강 이런 설명을 하고 투명용지에 쓴 서류를 내밀었다
가로 10여센티 세로 4센티 정도로 밀봉이 되어 있는 문서였다

그것은 이휘소가 따로 정리한 것을 다시 50분의 1로 축소하여 만든
정밀하고 치밀한 계산서였다

"이것을 다리의 뼈 속에 넣어 주십시오."

"건강에나 몸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

"얼마 동안은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박사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김박사는 침통하게 이휘소를 바라보았다.
김박사가 만류한다고 이휘소가 자기의 결심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것도 평소부터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이휘소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항상 교포사이에는 긍지와 자랑이었다

김박사는 다른 의사와 간호부까지 출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이휘소의 다리에 마취주사를 꽂았다

살이 베어지고...소독이 된 서류를 안치하고...
수술은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휘소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휘소가 발표한"히고스입자에 미치는 강작용의 영향"은 물리학계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었다

살람교수(78년 노벨상수상)는 물리학에 새로운 경지의 논문리라고 극찬했고,
세계의 핵과학자들은 다투어 이휘소의 논문을 구하려고 하였다

1977년 5월 19일 동경에 도착한 이휘소...
다음 날 발표할 학술논문을 정리하고는 한국 청와대에 전문을 쳤다

"5월 21일 PM11시 정각 나리다공항 대기"

나리다공항 KAL 안내소에는 몇 명의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휘소가 비행기에 오르자,바로 출발하였다

한 시간이 좀 지난 후 김포공항에 내리자 바로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기는 청와대정원에 내려 앉았다

박대통령이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소,이박사"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었다

바로 지하실로 내려간 이휘소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사 두 사람의 집도로
수술이 시작되었다.수술은 간단히 끝났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다리 속에서 빼어낸 곁에는 피가 번진 문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박사...고맙소...이박사"

박대통령은 그 피가 뭍어있는 밀봉된 문서를 얼굴에 갖다대고 다시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휘소는 바로 헬기를 탔고,또 지체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다음 날 이휘소는 동경제대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강의를 했다

다음에 계속

1977년 5월 27일,미국에 돌아온 이휘소는 매사에 더 적극성을 보였다
연구소에서의 역할도 더욱 활발했고,대학에서의 강의도 가장 충실한 교수로서,
그는 미국과학계에서 가장 능력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공인되어 있었다

가정에서도 그는 더욱 철저하게 아내 마르안느(중국계 말레이지아 태생인 미국인),
아들 천,딸 안에게 정성을 다 했다

1977년 6월16일 콜로라도주에 있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초청강의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딸을 뒤에 앉히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페르미연구소에는 이휘소에 딸린 전문기사가 있지만
웬만한 일에는 이휘소가 직접 차를 몰았다

시카고교외를 지나 일이노이주에 진입하였을때,
앞에서 오는 트럭이 별안간 중앙선을 넘어 이휘소의 차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운전대에는 어떤 흑인이 타고 있었고,
이휘소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휘소의 차는 주행선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오더라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트럭은 100m나 되는데서부터 정면으로 이휘소의 차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차의 앞머리가 부서지고 이휘소는 쓰러지고...
마르안느,천이 안이는 삽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정신을 잃었다

마리안느는 직갑적으로 아~소리를 지르며 상대방 흑인의 운전솜씨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휘소의 차를 받은 차는 쏜살같이 도망쳐 버리었다
차가 정지하고 경찰이 오고...이휘소를 차에서 끌어내고...

페르미연구소에 비상벨이 을리었다
이휘소의 차에 설치된 긴급벨이었다

FBI,CIA에서 페르미연구소장에게 긴급전화가 걸려왔다

"이휘소 교통사고로 사망...상대는 50대 후반의 흑인...도주했음"

미국무장관실에도 비상벨이 울리었다
'이휘소 사망..."

FBI,CIA 요원이 삽시간에 주위 400km의 도로를 감쌌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범인에 대한 소식은 전연 발표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떻게 부딪쳤으며 어디가 어떻게 손상되어 죽었는지 조차 발표하여
주지 않았다

"이휘소 사망..."UPI,AP,로이터 통
신으로 세계 언론계와 각국
대사관으로 속속 전달되었다

밤 11시 30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긴급 벨이 울리었다
"이휘소 사망..."

박대통령은 전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화통을 창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박대통령은 지난 번 밤 1시에 청와대에서 잠시 이휘소를 만났을 때 이미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의 눈빛을 읽었었다

아! 죽음을 각오하고 말없이 다리 속에 숨겨온 피투성이의 메모지를 넘겨
주던 이휘소...

박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당장에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해,
그리고 국내에 있는 미국놈들을 전원 □아 버려..."

무슨 일이거나 그렇게 해...OOO들...

"이휘소가 죽었습니까? 각하...

"죽은게 아냐 죽였지"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이 그랬지,그 새끼들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지를 않나?"

"이휘소는 미국 CIA에서만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에서도 인공위성으로 이휘소를 24시간 감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휘소 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정보도 있고..."

"어쨌거나...이휘소는 미국에서 죽였어...아니,설령 미국에서 죽이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해야지,OOO들...도덕정치를 한다는 놈들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범인도 안 잡았다는 거야..."

"미국대사께서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쫓아버려...쌍놈의 새끼들...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미국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네"

이튿날 박대통령은 직접 나타나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내외기자를 불러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
마치 한국을 식민지시하고 있다

주권국가로 한국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전정한 우방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시 미국에 애걸하지도 않겠거니와 미국과 국방까지도 협상하지 않겠다"

국방까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미사일부대 완전 철수,
지상군 2만여명 철수...연말까지 전 미국 철수 예정...
이렇게 하는 국가를 믿고 국방을 의논할 수는 없다

미군이나 소련이 가진 무기를 우리도 가지면 된다."라고
청와대국무회의에서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이휘소의 장례식이 끝나고,
물리학자들은 일 년만 더 있다 죽었어도 노벨상을 타고 죽는건데...

이휘소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두 달 후에 박대통령은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수상식에는 이휘소를 대신하여 이휘소의 어머니가 받았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너무 아까운 분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휘소가 박대통령에기 유도탄 및 핵제조개발원리를 넘겨주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를 전후하여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급전환했다

핵관리의 엄격한 체제구축,우방국에 대하여 한국과의 핵협정 파기 등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아니라 카-터는 한 술 더 떠서

"한국은 인권탄압을 중지하고,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독자적인 핵개발추진을 바로 중지하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카-터의 요구에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한 마디 상의도 없이 주한미군을 데려가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카-터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응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거기다가 박대통령은 감정적인 발언마저 서슴없이 해 버렸다

"국가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도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남의 나라 보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패권주의 사상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카-터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카-터는 그런 박대통령에게
"박대통령은 반체제 인사를 즉각 석방하라,그리고 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2억9천2백만달러의 미수출입은행 차관약정을 파기하겠다."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한미간의 대립은 박대통령에게 유도탄개발과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다

박대통령이 하도 야단이니까 한 측근이 핵공장을 비밀리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자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관여하지 말게,곧 돼,그것만 되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고 영남대학에나 내려가 있겠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제작하는 유도탄개발과 핵개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고없이 들리어
연구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대통령의 집념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박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한가할 때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휘소으 영상을 더듬었다
다리를 베고,뼈 속에서 메모지를 내 주던 모습...그 피투성이의 메모지를 받아 들고
감격하였던 대통령 자신의 모습...이휘소가 차에 깔려 죽는 영상...

지금까지도 의문의 죽음에 한 마디 변명도 없는 미국...
박대통은 이제 이휘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휘소가 내어 준 메모지대로는
다 실험을 거쳐야 할 책임을 느끼었다

유도탄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외국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박대통령의 열성에 감격한 과학자들과 600여명 직원의 협조에
의하여 해결되곤 하였다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었지만...
핵분열물질의 생산과 핵탄두의 운반체 개발 등이 문제였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핵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았고
맺었던 핵원료협정도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막막한 며칠이 지나면서,다시 이휘소의 메모를 펼쳐 보았다
〈실험용〉 원자로를 대체해도 좋다는 메모를 보는 순간,

연구실의 분위기는 벼란간 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그 때마다 이휘소의 치밀성에 감탄했다

이휘소는 천만 분의 일도 실수할 수 없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법과,
만약의 경우를 우려한 모든 준비물을 메모지에 준비하여 놓고 있었다

1978년 8월 26일 @@기지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공동제작한 중장거리 유도탄발사 실험이 있었다

과거에 몇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박대통령의 심정이나 과기처장관,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초조와 기대섞인 착잡한 심정이었다

첫 번째 대전차로켓 (3.3인치 로켓을 다시 개발) 실험은 성공이었다

두 번째 다연발로켓 (28연발 사정거리 20km) 실험도 성공이었다

세 번째 중거리로켓 (사정거리 50km) 실험발사도 성공이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기술만으로 개발한 것이다

마지막 관심의 촛점이었던 장거리유도탄발사실험도 성공이었다

사정거리 150km,유효사거리 350km로 북한 전역은 물론 소련과 중공의

일부지역까지 영향권이 미치는 것이었다

이 성능은 미국이 개발한 최신 장거리유도탄 나이키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외국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유도탄 보유국이 된 것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거리유도탄을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마지막 장거리유도탄발사 실험마저 성공하자
너무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바라보던 과기처장관,국방장관,관계 과학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대통령은 임원들의 노고를 일일히 치하하고 차에 올라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박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다시 이휘소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의 영상과 어울려 그의
죽음을 생각했다

이휘소의 희생과 박대통령의 눈물겨운 나라사랑을 새삼 알게 되면서,
그 두분이 살아있다면...경제나 모든 것에 미국에 이끌려다니지 않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
다

다음에 계속...

다음날 미국을 제외한 소련,중국,일본,프랑스,영국,서독은 물론
홍,상가포르등 전세계 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하나같이
〈한국 정거리미사일 발사 성공-한국에서 핵무기개발은 시간문제〉라고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의 〈적성〉지에서는 전면 톱기사로 다루고 사설까지 동원해
염려스런 사태라고 논평하였다

중구,일본,홍콩,프랑스에서도 해설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세계가 경악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다

다만 미국만이 침묵했다
침묵한 것이 아니다.미국정부의 훈령을 받은 미국대사'스나이더'는
과기처장관을 자주 방문했고,박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아예 미국대사와의 면담마저 저절했다
분위기는 냉냉함을 넘어 험악해 지기 시작했다

박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몇 번이고 독백을 다짐했다

"이제,이휘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도 중단할 수 없다.
지금 의존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휘소도 남에게 의존만 하면 눈치만 보는 조국을 볼 수 없어 죽을으로써
자립의 기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휘소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다짐했다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영상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카-터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강렬한 쐐기를 박기 위하여
1970년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에서 있었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온 것이다
2박3일의 예정으로 방문한 카-터는 의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도착성명도 없이
밤8시 56분에 트랙에서 내리자 헬기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사단병영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 날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는 걸맞지 않게 팬티바람으로 미군사병들과
조깅을 했다

이것은 박대통령이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였다

6월 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카-터는 인권탄압완화,긴급조치해제,
한국의 핵개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카-터의 요구를 즉각 거절,일축해 버리었다
양국관계는 파국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벌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은 세계 핵확산금지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국가,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패권주의 발상이 아닌가?"

박대통령과 회담을 끝내고 미대사관에 도착한 카-터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15분 이상이나 차 속에서 보좌관들과 회담을 했다

극비의 긴박한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국철수도 일시 중단되었다
표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쟁도발억제,소련의 태평양군사력증강 등을 들었으나,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추진을 포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해,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청와대별실 궁정동
지하에서 죽었다

김재규는 정말 미국 CIA요원이였을까?
한국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김재규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일까?

당시 건설부장관은 ...
"박대통령이 핵개발에 대한 집념은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념 때문에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휘소의 죽음과 박대통령의 죽음이 다 미궁 속에 빠진 채,
누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역사의 격류 속에 묻혀져 갔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원자력연구소와 핵개발공단은 〈에너지 연구소〉로
과학원과 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새로 부임한 전두환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새로 당선된 레이건을 찾아가
한국핵무기개발중단을 약속하고 댓가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약속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은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이휘소의 이름도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혀 버리었다

글을 마치면서...

제가 이휘소박사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지극히 우연한 계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전공이 다른 면에서_이라고 생각하였다가

한두 사람에게서 반복하여 듣는 동안 점점 흥미를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 미국을 방문하고,이휘소박사의 어머님을 10여차례 방문하고,
국립도서실로,서울대학교도서실로 자료를 찾아 쏘다니며 일년여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었습니다
누구라도 이휘소박사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 놓아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휘소박사에 대하여 쓴다고 생각하니,
우선 물리나 핵,원자력 등에 대하여 완전한 문외한이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다가 몇 번 중단했었습니다
어떤 월간지에 연재하다가 중단한 이유도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전공적인 것은 핵을 전공한 분들이 어느 때인가 정리한다 할지라도
이박사의 생활에 주로 착안한 글은 일단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필생활을 30여년이나 하면서 이처럼 책임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능력이나마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휘소박사는 말할 것도 없이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요,
누구도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의심스로울 만큼 철저한 애국자요.

그러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휘소박사가 죽었는가?
누가 죽이었는가?

항의 한 마디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휘소박사는 말로 애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이휘소박사는 이론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는 실천하지 않는 것도 없었고,
성공하지 않은 실험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되새겨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몇 번이나 흥분도 했었고,
몇 번은 비애도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한 조사로 보충할 것을 약속 드리며,
내용이 미비한 것이나 미숙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이 책의 인세 전액은 이휘소박사추모기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 기금으로 쓸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 호응을 부탁합니다

1989년 11월

편저자 공 석 하 드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박대통령 욕을 했으면 하는 마음과 오직 사명감으로 사심없이 오직 가난한 나라와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수 밖에 없어,
박대통령이 일군 많은 업적과 육여사의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독에 방문했을때,
고생하는 우리나라 간호사와 광부들을 붙잡고 박대통령과 육여사가 조금만 더 고생하라 면서
같이 울었던 글들을 읽다보면 같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근혜를 사랑할 수 밖에 없음이라...

1년만 더 살았어도 우리나라도 핵 보유국으로 ...

+++
박대통령의 일화 한가지...

때는 한국군 육군 맹호부대의 파병으로
월남전의 열기가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였다.

월남전 참전 당시에 전세계가 한국을 비난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였지만
그들은 그런 한국을 보고 비난만 해대었을 뿐이었지,
누구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쌀한톨, 기름 한방울 원조해주지 않았었다.

그런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의 원조라도 해준 국가가 있었으니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박정희대통령의 과거 남로당의 행적이 미국수뇌부의 의심을 받아,

미정부에서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80%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우리는,
당장 미국이 제공해주는 원조를 중단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 국민이 그야말로 아사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음을 느껴야만 했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정희대통령의 월남전 참전결의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 없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미국이 원조를 재개해준다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옳게 알아야만 할 것이다.

반드시 생각해두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가난한 대한민국,
굶어죽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쌀한톨, 기름 한방울 제공해주지 않았음을..
그러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시도할려고 했다는 것을.

나라가 가난하면 전세계가 그 국가를
자신의 노예로 인식하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는 그 당시의 미국의 유명한 군사무기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사(한국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의 발사때

많은 기술자문과 발사를 도와주었음-돈주고 샀다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됨.)
의
중역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대통령과 나누었던 실화를 공개하는 것이다.

+++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었고,
한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받게 된다.

그 지원중의 하나가 M-16자동소총이었다.

이전의 한국에서 사용하던 무기는 단발식 카빈 소총으로서
M-16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는 그야말로 장난감과 같은 수준의 무기였었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남북대치상황을 견디어 내어야만 했었다.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수출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였다.

미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건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라스 사의 한 중역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도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맥도날드 더글라스사의 중역)는 대통령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대통령의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었다.

커다란 책상위에 어지러이 놓여진 서류더미속에
자신의 몸보다 몇배는 더 커보이는 책상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날씨를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그의 先痔?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리에 걸린 양복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차림으로 집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미국 맥도널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매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게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바람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놀음이 아니겠소.

이보게.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동안 에어컨을 트는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할 수 없을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각하."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각하.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방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오?"
그(박정희대통령)는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흠.. 100만 달러라...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 대해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하! 이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
"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예. 각하." "이 돈 정말 날 주는 것이오?"
"네. 물론입니다. 각하."
"대신 조건이 있소. 들어주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각하."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돈이오.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난 돈 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돈도 아니오.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의 땀과 피와 바꾼 것이오.
그런 돈을 어찌 한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은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각하.
반드시 100만달러의 소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전과는 사뭇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요, 자식들임을 느꼈다.

배웅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보였다.(퍼온글)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신진철
shinchull
공감 2
김현식님 참말로 좋은 자료글 잘 읽었습니다.
맨 밑에 글은 전애도 보았습니다만
다시 읽어도 코등이 시큰 거리네요...

2009.10.19 22:53:23

공감 신고

신진철

shinchull

공감 2

김현식님 참말로 좋은 자료글 잘 읽었습니다.

맨 밑에 글은 전애도 보았습니다만

다시 읽어도 코등이 시큰 거리네요...

2009.10.19 22:53:23

공감 신고

[chosun]

[펌] 박정희, 김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 좌빨교수들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궤변

2009.10.19 14:27

"박정희, 김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 있다"

좌빨교수들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궤변

- 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150)
-
-
-
-
-

"

▲ 고속도로 개통식 1968년 12월 21일 경인 · 경수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정희, 김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 있다"

- 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150)

입력 : 2009.10.19 02:25

박정희와 그의 유산… 서거 30주기 국제학술회의

반대파 허용 · 경제 실용주의…

개방정책 등 펼쳐 北 압도…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문제

'박정희 시대'가 갑자기 막을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공 모델로 손꼽히지만, 그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선명하게 갈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26일)를 앞두고 19일과 20일 연세대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열리는 '박정희와 그의 유산: 30년 후의 재검토' 국제학술회의는 박정희 시대의 공과(功過)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와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함재봉(랜드연구소) 임혁백(고려대) 박명림 · 류석춘 · 김동노(이상 연세대) 교수 등 좌 · 우를 아우르는 국내 연구자와 김형아 · 폴 허치크로프트(Hutchcroft · 이상 호주국립대) 탯 얀 콩(런던대) 등 국외 연구자들이 참가한다.

◆반대 세력 허용한 남한이 북한 압도

박명림 교수가 발표하는 '한국 근대화의 두가지 모델: 박정희 대 김일성'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1인당 GNP 82달러로 북한의 195달러에 크게 뒤졌던 남한이 1979년 박 대통령 사망 때엔 1640달러 대(對) 1114달러로 역전한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내부 차원에서 남한은 권위주의 체제이긴 했지만 복수 야당과 선거, 이견이 일정하게 허용됐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도전이 가능했고, 박정희 정권은 이런 내부도전과의 경쟁을 통해 북한을 압도하는 역량을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남북갈등이 남북한에 각각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부단결과 경쟁을 초래했는데, 박정희는 김일성보다 자원동원과 에너지 결집에서 남북경쟁의 긍정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철학과 관념의 차원에서 항일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매몰된 김

일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실용적 업적을 추구한 박정희와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또 박정희가 '세계로 들어가는' 개방적 · 국제적 발전전략을 택한 데 반해, '세계와의 절연'이라는 폐쇄적 · 독자적 전략을 취한 김일성의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캠페인, 국민성 바꿨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는 '한국인의 국민성 변화: 박정희 시대와 오늘'이라는 발표문에서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자신감 · 효율성 · 견인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성이 박정희의 '할 수 있다'(Can-Do) 캠페인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한 세대 안에 경제기적을 이룩하도록 한 '혁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 국민들의 특성은 오랫동안 의존적이고, 체념적이며 게으른 존재로 알려졌었다"면서 "박정희는 한국인들이 어렵게 성취한 경제적 · 교육적 자유의 배경 아래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평가한다.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필연 아니다

그러나 임혁백 교수는 '박정희 권위주의 정치의 재평가'라는 발표문에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임 교수는 핀란드 · 오스트리아 · 일본은 민주주의 아래서 성공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뤘다고 지적하면서, 박정희는 산업화를 위해 독재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 한국을 산업화했다고 주장한다. 임 교수는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일뿐, 역사적 필연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김동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통적 사회통제의 부활'이라는 발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이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독특한 사회통제 전략을 주목한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민족을 재건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게끔 민족주의 이념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인 지방사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주

장한다.

박정희 사후 30년… 이제 그를 역사화하자

100자평

- 시간순
- 찬성순
- 반대순

전체백자평(150)

황재기(kjazini)

찬성 54

반대 3

우리민족 3대 영웅 한글을 만들어 우리민족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케한 세종대왕...나라를 지켜 한글을지켜낸 이순신 (당시 일본에 지배되었다면? 36년에 초토화 됬는데..) 그리고 세계에 대한민국 이라는 명함을 내밀게 한 박정희..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한국을 실현시켜 또 한명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2009.10.19 04:31:16]

댓글(6) 펼치기

댓글쓰기

박형숙(eagleflight)

찬성 54

반대 3

박정희가 한국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못했다면 왜 이광요도 등소평도 푸틴도 또 지금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박정희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민주화 먼저하고 산업화도 할 수 있었다고? 참 돌머리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봐라. 태국을 봐도되고. 민주화를 추구했었지. 그래서 민주화가됐냐 지금? 주둥이만까고 행동력이없는 네들 수백트럭보다 박정희 혼자 한일이 훨씬 많고 위대하다[2009.10.19 04:14:03]

댓글(5) 펼치기

댓글쓰기

김순룡(nodongjugwidea)

찬성 41

반대 2

5.16혁명 당시, 봄만 되면 보리고개로 죽은 시체가 쌓이고..날마다 빨들이 폭동을 일으키고..온갖 깡패와 흉악범이 날뛰고..간신 모리배가 들끓고..통수권자는 우유부단하게 구경만 하고..미개한 백성은 시도때도없이 노름과 술에 저려 재산을 탕진하고 처자식을 두들겨 패는 무법천지였다. 이 절망의 늪에서 박통은 차근차근 가르치고 질서를 세우고 번영을 가꾸었다. 이게 독재냐? [2009.10.19 07:00:40]

댓글(0)

댓글쓰기

박재희(pjh1583)

찬성 36

반대 1

내나이 27살이지만 이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최빈국에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킨것만으로도 이미 박정희는 민족의 성웅이라고 할수있다..이런저런얘기로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지만..과거의 영웅들은 다 단점은 기록으로 남지 않기때문에 완벽해보이는거다..박정희가 조선시대왕이었다면 아마 세계 제일의 위인으로 될수있었을꺼다[2009.10.19 05:06:05]

댓글(3) 펼치기

댓글쓰기

황재기(kjazini)

찬성 34

반대 1

어슬픈 민주화로 망종한 국가가 되나.....절제된 민주화로 산업화를 이룩하냐.....어느것을 택하느냐는 자유다....그래서 어느것을 택했는가...한국은.....그래서...결과는..... 박정희는 두말할 것 없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다...히어로~ 세계어느나라 영웅도 과는 존재한다..그러나 과를 볼것인가..공을 볼것인가는 그나라 국민들의 마음이다...자 ~ 한국민의 선택은....[2009.10.19 04:36:57]

댓글(0)

댓글쓰기

안기성(kisahn)

찬성 29

반대 1

요사이는 학술연구자들 중에 열등생이 많다. 이 글의 주인공이 연구자라면 그도 열등생임이 틀림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누가 무어라 말해도 매우 능률적인 정부다. 의사결정의 신속화, 정치자원의 적절한 사용 등 남의 나라가 1세기를 걸러 이룩한 사회와 경제 체제를 불과 10여년의 기간에 달성했다. 그 체제를 권위주의로만 매도하는 것은 열등생이나 할 소리다.[2009.10.19 03:06:57]

댓글(0)

댓글쓰기

유인광(ryu1821)

찬성 27

반대 1

김동노라는 사람 교수질로 밥벌어 먹는 사람 맞아?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똑같이 통제를 하고 민심을 결집시켰음에도 그 결과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우?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이나 4대혁명역량 강화노선과 새마을을 비교해할 마당에 웬 핀란드와 일본? 자국산 전투기와 항공모함으로 진주만을 폭격한 일본과의 비교가 말되는 수작?[2009.10.19 02:38:16]

댓글(0)

댓글쓰기

강신구(kang59)

찬성 26

반대 1

이제 솔직해지자. 앨리트와 주변부 인간의 차이다. 박정희는 수재들만 들어갔던 대구사범과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의 우등생출신이다. 포병출신으로 수학에 뛰어나 현대공학에 정통했다. 한만국경서 마적단 똘만이로, 종국엔 로스케 앞잽이 정보장교가 고작인 3류인간이 스탈린공포정치 흉내만 낸 것과 비교가 안된다.[2009.10.19 05:36:28]

댓글(0)

댓글쓰기

양호영(yhyc)

찬성 22

반대 1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놓는 것은 이사람이 학자로서 사고력이 부족하거나 세뇌된 자신의한계를 벗지 못했

기 때문이다..일본이 패전했다고 그일본 사람들이 다죽은 것이 아니다..박정희의 업적을 평하자면 박정희 이전엔 없었던 것을 연구해야한다..산업의 토대, 할수 있다는 조직문화, 빨리 앞서가고자하는 국민성 등을 박정희가 만들어낸 것이다..이런 것들은 박정희의 업적인 것이다.[2009.10.19 03:01:56]

댓글(0)

댓글쓰기

이혜진(lhjiin)

찬성 16

반대 2

위대한 영웅에게는 언제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얄팍한 지식인이라고 자칭한 자들의 평가는 받고 싶지않다 박정희 대통령의평가는 우리가 몸소 체험한 그대로다 그분은 우리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한 어버이다 오직 나라와 민족의살길만을 생각한 그러분을 좌익이니 독재니 이런독설은 그분을 폄훼하기위한 명분뿐이며 설사 좌익이든 독재든 우리민족이 잘사는 길이라면 그것 또한 잘[2009.10.19 06:50:55]

댓글(0)

댓글쓰기

박형숙(eagleflight)

찬성 16

반대 1

임혁백 김동노 네들은 박정희가 없었어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을때 왜 젊은 군인들이 대거 동조했는줄 아냐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하급군인들까지 군수물자 내다 팔아먹고 국민들은 막걸리 한 사발에 표를 바쳤던 그야말로 국부란것도 국민의식이란것도 없을때였다. 일본이 그냥 재건됐냐? 625가 없었어도? 가정은 참 쉽다.[2009.10.19 04:10:04]

댓글(0)

댓글쓰기

성희철(juanstation)

찬성 14

반대 1

하여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100% 동감이다. 그래서 조갑제 언론인이 광화문 시민공원 명칭에 이승만 전 대통령 성명을 집어넣자고 했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명칭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성명을 집어넣자고 제안했잖아. 나는 100% 동감.[2009.10.19 08:47:10]

댓글(0)

댓글쓰기

황재기(kjazini)

찬성 14

반대 1

김동노 임형백 씨 박정희 같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영웅의 과를 먼저보는 그대들의 눈썰미~ 님들은 교수로서 과는 없는가.....만일 과가 있다면 교수직을 내 놓으세요..[2009.10.19 04:39:22]

댓글(0)

댓글쓰기

김순룡(nodongjugwidea)

찬성 13

반대 0

박통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나를 존경하라!"거나 "나에게 복종하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이 땅에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그 때 국민 70%~90%넘게 열열한 지지를 보낸 것은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배워야 산다!"며 절망에서 깨우쳐 주고 잘살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존경한 것이었다. 이게 어째서 권위주의냐?[2009.10.19 06:46:26]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인상(isk3205)

찬성 13

반대 1

서구 국가들이 200년 - 300년에 걸쳐서 국가를 발전시킨 것을 한국은 20-30년에 해냈다. 중국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35만명을 보내고 있고,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 등 국가들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따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나라에는 '박정희'가 없어서 못한다.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시켜 끌고 나간 지도력이 있었다.국민들도 열심히 했다.[2009.10.19 04:21:35]

댓글(0)

댓글쓰기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김순룡(nodongjugwidea)

찬성 10

반대 1

빨교수들 말뒤집는 심보 좀 봐라! 저런 삐딱한 사고방식에 함몰돼 선동질만 하니 나라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일본은 비록 패전국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려는 문명화된 나라였다. 호주도 문명화되긴 마찬가지고...그때 우리는 문맹율이 80%를 넘고 대졸자는 1%도 안되는 미개한 나라였다. 권위주의를 위해 새마을운동을 한 게 아니라 미개한 국민을 깨우쳐 근면,자조,협동하게 한 거다.[2009.10.19 05:56:33]

댓글(0)

댓글쓰기

신동선(ff011)

찬성 9

반대 0

과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의해 좌우된다. 천년 가난에서 벗어나 산업사회의 토대를 이룬 것이 옳다면 과정 역시 옳다.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를 사례로 들어 우리의 발전을 설명하려 들지 마라. 일본과 독일 등은 이미 통제정치하에 산업시대를 열었던 국가들이다. 우리 역시 지금 고꾸라진다고 해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2009.10.19 08:44:35]

댓글(0)

댓글쓰기

강대성(berekorea)

찬성 9

반대 1

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떼중선상이나 골통 무현보다는 몇백배 나신 분인다.. 이것은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무슨 통치차원에서 새마을 운동하고 하는것은 현재 뱃돼지가 불러 하는소리다 그당시 민주화와 같이 하면은 우리나라 현국민성,특히 노동자집단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도약도 못하고 바로 남미화 되었을 것이다 암튼 위대하신 분이고 외국에서는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는 분[2009.10.19 07:46:22]

댓글(0)

댓글쓰기

김정오(jookam)

찬성 9

반대 3

김 뙤중이 추종 세력들만 독재니 뭐니 떠들었지만 나머지 전국민은 영원이 박통을 추앙 할것이다[2009.10.19 07:30:45]

댓글(0)

댓글쓰기

장기붕(mrjkb)

찬성 9

반대 2

단군이래 찌든 가난을 극복한 유일한지도자! 박정희는 신이 우리민족에게 내리신 축복이었다![2009.10.19 07:29:27]

댓글(0)

댓글쓰기

박덕권(dicky48)

찬성 9

반대 1

박통의 권위주의론은 인정되지만 그 시대 그자신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지못한 어쩔 수엄는 제한은 인정해야지요 아무튼 현재까지 기념관하나 못지은 후손들이 부끄럽죠[2009.10.19 03:59:51]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기문(moona38)

찬성 9

반대 1

김일성체재는 산체에 쳐박혀 있는 산적집단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좁은 땅에서는 우물안의 개구리 밖에 될수 없다는걸 간파하고 세계로 나아갔다. 시이저가 세계를 점령한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하하는 사이비 지신인들이 제일 싫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을 지어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것이 4대강 준설보다 더 소중한 일이다.[2009.10.19 03:13:14]

댓글(0)

댓글쓰기

정상식(jeong7321)

찬성 8

반대 1

우리 역사와 국민성을 감안해봐라 시기 질투 이질감...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에서 개발독재는 당연한 선택이다 공연히 흠잡을때가 없는것을 학자라는 이유로 어거지 논리를 펴지마라 그당시 우리가 민주 평화 ...찾고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지리학상 소련 중국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갈수 밖에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大)대통령 각하 그립습니다 [2009.10.19 11:06:20]

댓글(2) 펼치기

댓글쓰기

이혜진(lhjiin)

찬성 8

반대 2

너그떠리 배고픔을 아는가 너그떠리 보리고개를 아는가 너그떠리 쑥버믈을 아는가 그어떤 설움보다 배고픈설움을 아는가 아무리 옳은일 아무리급한일이라도 배가부른후에 일이아닐까 박정희대통령은 우리민족의 주린배를 채워준분이다 설사 좌익을 했고 독재를했고 그어떤 핍박을 했다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민족을 굶주림에서 해결한 우리민족의 어버이시다 그분의 평가는 우리가 지접 체[2009.10.19 07:28:08]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김순룡(nodongjugwidea)

찬성 8

반대 2

가난으로 국민이 죽어가고 깡패와 흉악범이 서민을 못살게 구는데도 김대중과 반역들은 횡령과 도적질로 호의호식하는 등, 첩질이나 일삼으며 북괴를 비호하고 밀통하며 폭동을 선동하였다. 당연히 극형해야 마땅하다. 박통이 진짜 독재했다면 김대중과 반역들이 마음껏 반역질하면서 욕지거리하고도 살아남았겠나? 오히려 너그러운 박통이 야당이라고 엄청 봐 준 것이다.[2009.10.19 07:25:02]

댓글(0)

댓글쓰기

손용호(hl5yho)

찬성 8

반대 1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한 민족의 지도자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 못하다고 했는데 빵이 있어야 민주주가 될 수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박정희대통령을 못잊고 추모하는 발길이 국립현충원에 이어지고 있다 무슨 논쟁이 필요 할까? 박정희대통령 평가에서 분명한것은 국민의 배고픔과 오늘의 선진국 초석을 다져 놓은 민족의 영도자 입니다[2009.10.19 06:34:25]

댓글(1) 펼치기

댓글쓰기

신대수(jjjsss)

찬성 8

반대 1

우리 남한이 대통령 박정희를 만난것이 국운이 융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북한처럼 김일성을 만낫다면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응 것이다[2009.10.19 05:43:57]

댓글(0)

댓글쓰기

이학대(songkang)

찬성 7

반대 2

백기완 曰 "박정희는 우리같은 사람 3만을 못살게 했지만, 다른 정치인은 3000만 국민을 못살게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결론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와 '인권'을 팔아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이간질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처럼 '말'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2009.10.19 09:00:59]

댓글(2) 펼치기

댓글쓰기

홍지선(hongjiseon)

찬성 7

반대 2

임교수의 논리는 밥을 똥구멍으로 먹고 똥을 입으로 싸는 거나 다름없다. 박정희 체제는 극히 제한 적인 국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 그자체다. 임교수는 모든 세상이치를 거꾸로 보고있다. 말작난은 그만해라. [2009.10.19 07:08:35]

댓글(0)

댓글쓰기

곽상운(gstone1)

찬성 7

반대 0

기적을 만들었던 고속도로와 한강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국민의 마음을 담은 박대통령의 기념관이 지어져야 한다.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을 들으면서도 역동적인 세계인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켰고 산림녹화로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바꾸었다. 뭐가 부족한가? [2009.10.19 05:51:14]

[chosun]

[BOOK 깊이읽기] ‘열광과 냉소 사이’ 박정희를 다시 본다

xxx씨 글에 반론이 있어서요 [2]

배동수(b2bomber) [2009-10-17 07:03:29] 조회 262 | 찬성 17 | 반대 2 | 스크랩 0

민주노동당이 뭐하는 집단인진 몰라도 정일창씨 글이 눈에 띄어 정일창씨가 제시한 같은 신문의 오늘자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ㅎㅎ.

----

http://news.joins.com/article/380/3828380.html?ctg=1700&cloc=home|list|list1

[BOOK 깊이읽기] ‘열광과 냉소 사이’ 박정희를 다시 본다

기사 입력시간 : 2009-10-16 오후 7:43:45

박정희 한국의 탄생

조우석 지음, 살림

422쪽, 1만6000원

1968년 9월15일 ‘한·호 정상회담’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행 비행기에 오르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큰딸 근혜. 박근혜 의원은 당시 16세의 나이로 부모와 일정을 함께 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의 특별기를 빌려 타야 했다. [중앙포토]

‘대중의 열광과 지식인의 냉소’.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내려진 ‘저주’를 책은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지나면 열광은 식고 냉소는 더 차가워진다. ‘저주’에서 벗어날 방도는 기껏해야 ‘무관심’일 게다. 그렇게 한 세대가 이뤄낸 역사는 터무니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기가 되는 날이다. 내년은 한국전쟁 발발 60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전쟁(1950)과 박정희의 5·16쿠데타(1961)는 차라리 소설이라 할 만큼 치밀한 인과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박정희의 18년 집권과 암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근대 한국’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한반도 모더니즘 혁명’을 이뤄냈다고 결론 짓는다.

책 제목이 ‘박정희=한국의 탄생’으로 읽힐 만큼 도발적이다. 논란을 각오하며 ‘칠 테면 쳐봐라’는 식의 ‘인파이터’ 기질로 글을 썼다. 저자는 30년 가까운 신문사 생활을 주로 문화부 기자로 지낸 베테랑 언론인이자 문화평론가. 방대한 독서를 바탕으로 박정희에 얽힌 시대적 담론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기발하게 넘나든다.

“‘쿠데타는 헌정사의 훼손’이란 식의 평면적인 정치학 교과서 논리에 집착하면 박정희란 위인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보다 함석헌·장준하 등 재야 인사에 후한 점수를 주는 건) 관전평을 쓰는 아마추어 바둑 해설가를 프로기사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태도”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평한다. 책의 여러 곳에서 박정희에 대한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꼬집는다. ‘박정희=친일파=파시스트’라는 식으로 단선화된 얄팍한 도식의 반(反) 박정희 논리가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한국 지식사회의 사막화를 재촉했다는 비판이다.

역사는 복합적이다. 특히 태동기의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했던 1960, 70년대의 사람들은 원치도 않게 식민지 교육을 받아야 했고, 전쟁과 가난을

겪어야 했다.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면 마치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며 결국 식민지 시대를 긍정하는 것처럼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제가 남긴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책이 인용하는 예를 보자. 일제 36년 동안 배출된 이공계 대학생은 통틀어 400명에 불과했다. 박사 학위자는 고작 6명. 반면 일본은 1940년에 이공계 졸업자가 6만 명이었다. 이 '맨 땅'에서 박정희는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공고를 세우고 기능 올림픽을 독려하며 '산업 역군'을 길러낸 것이다. 2004년 이공계 대학생 수는 우리가 일본보다 27만 명이 많다고 한다.

논쟁적 담론과 별개로 저자 특유의 탄력 있는 문장이 재현해 낸 박정희의 인간적 면모와 일화들도 생생하다. '울보' 박정희, '술꾼' 박정희, '시인' 박정희의 면모가 그 시대적 풍경과 함께 펼쳐진다. '혁명'을 결의하며 쓴 비장한 시가 1964년 트로트 가요로 나왔다가 그 스스로에 의해 '금지곡' 처분이 내려진 사연도 흥미롭다.

대중적으로 쉽게 읽히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배노필 기자〈PENBAE@JOONGANG.CO.KR〉

TAG 박정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공감 2

좋은글입니다...헌데 어려운 말은 그사람 이해못합니다..ㅎㅎ

늘 자신의 견해나 생각보다도,남이 찌끄려놓은글,일반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신빙성도 희박한 글들만 퍼다가 놓는분이라서,어려운글로 상대하시면 그사람 이해못합니다..

2009.10.17 13:32:03

공감 신고

공감 0

백민현님 글 적확

2009.10.19 03:46:03

공감 신고

[chosun]

[박정희 사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7]

맹수옥(suok1113) [2009-10-08 12:59:09] 조회 1319 | 찬성 93 | 반대 2 | 스크랩 1

(임용섭님이 일전에 올린 사진을 퍼서, 저의 감상평과 함께 올립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

박정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랬다....
그의 모습과 그의 미소와 그의 웃음이 바로 이랬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겸허하고, 너무나 소탈하고,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강직하고, 너무나 다재다능했던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감화를 주는 인간적이고 강한 지도자의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다.

김대중 사기조직으로부터 박정희는 '비인간적인 독재자'이며 김대중은 '뛰어난 민주투사'라는
세뇌를 당한 고교시절 이후,
나는 박정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부정했었다.

그러나 직접 겪어보고 당해보면서 그들의 선전 공작이 너무나 허위라는 사실을 하나씩 깨달아갔다.
모든 것이 그들의 말과 반대였고, 뒤집어진 진실이었음을 경험과 시간이 증명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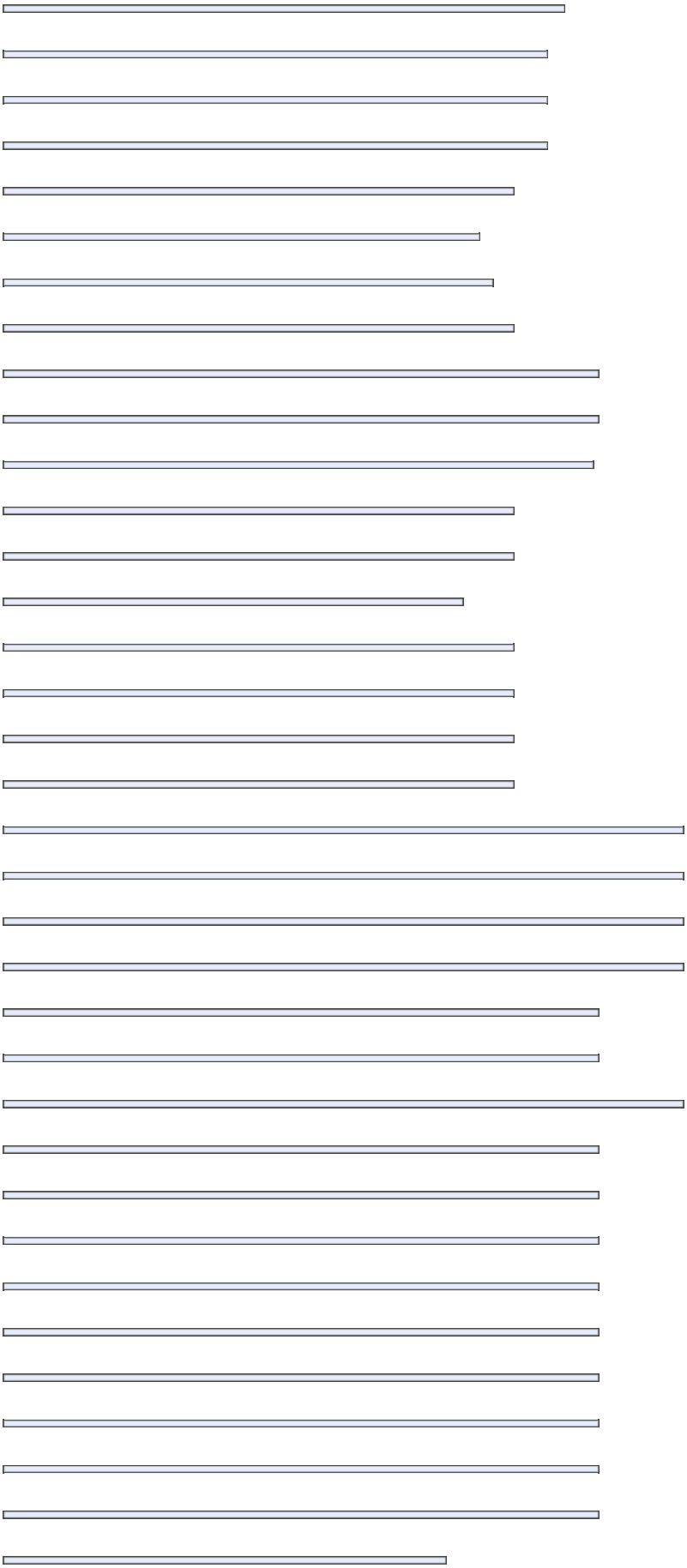
박정희에겐 뛰어난 지적인 실력과, 넘치는 능력과, 숨길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후광 효과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돈과 정치 거래로 얻는 명예박사 학위도, 노벨상도 필요하지 않았다.
누구처럼 속임수와 술수를 통해서 도둑질한 노벨상 따위는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것이었다.
누구처럼 평생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유명인들 옆에 붙어서 그들과 같은 반열인양 사기치기 위해,
온갖 거짓과 술수로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민주.인권투사 흉내내는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다.
누구처럼 학력 콤플렉스를 은폐하기 위해 세계 유명인들과 친한 척하는 쇼쇼쇼를 연출하고
그들 옆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광고하는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남의 힘에 빌붙어 누리는 후광 효과가 필요 없었다.
박정희에게는 '호가호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여우가 호랑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호랑이의 힘과 권위를 마치 제 것인 양 우쭐대는
사기 쇼쇼쇼가 필요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사랑....

그에게는 남의 눈과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의 진실과 충정이 더욱 중요했다.
그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에게는 사랑하는 국민과 국가가 전부였다.
국민에게도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었다.
국민 모두가 박정희와 육영수 두 분을 그리워 함은
두 분을 잃을 준비가 안된 국민들에게서 억지로 강제로 빼앗아가버렸기 때문이다.
두 분을 국민들 가슴에서 강제로 억지로 떼어내려 획책사주했던 숨어 있는 범죄 세력들은
그 두분을 황망하게 잃는 슬픔과 상처를 국민의 가슴에 남긴 그 사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음을 머지않게 깨닫게 되리라.

이제 적화 세력들이 덧칠하고 뒤집어씌운 거짓의 베일을 벗기고
박정희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내 볼 때가 가까왔다.



TAG 박정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7]

best

맹수옥

suok1113

공감 11

이강석, 임광덕, 이찬희 외 몇명

김대중 사기조직과 북한 간첩 공작 선전선동부대 세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네요.

점조직 세포로 활동하는 그대들, 조토마에서도 열심히 도배질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거 때때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북조선 간첩계 사기범죄 조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당신들 조직이 하는 사기 짓거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박정희 암살에 당신들 조직이 배후라는 거 모두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10.08 17:04:47

공감 신고

이강석
tty42
공감 1
박정희 향수를 우매한 군중을 유혹하려는 수법은 북한식 수법인데????

박정희 죽을때 딸같은애들 데리고 맨날 주지육림에 놀다 부하총에 사살 되는 장면은 어찌 없나요^^*
2009.10.08 15:12:32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1
이강석, 임광덕, 이찬희 외 몇명
김대중 사기조직과 북한 간첩 공작 선전선동부대 세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네요.
점조직 세포로 활동하는 그대들, 조토마에서도 열심히 도배질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거 때때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북조선 간첩계 사기범죄 조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당신들 조직이 하는 사기 짓거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박정희 암살에 당신들 조직이 배후라는 거 모두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10.08 17:04:47

공감 신고

백민현
nagoya
공감 3
귀한사진들이네요...

맹수옥님..말같지않은 소리엔 일체 대꾸하여 말 섞지마세요....백날 얘기해야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2009.10.08 21:41:16

공감 신고

이미순

ljk0211

공감 3

이거 보니 눈물이 나네요....

개뭐중이 빨리 파내야 할텐데....

2009.10.09 00:15:04

공감 신고

임광덕

tnrnrhfxhd

공감 0

박정희 본처 사진은 빠졌네...

후처 뒀다는 것이 업적이며 더 자랑거리였남?

2009.10.09 00:25:24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

마누라 죽이고 이대 출신 후처 이희호 들여 놓은 김대중 이야기하는구나.

상고졸 건달이 학력 콤플렉스 못 이기고,

마누라 학벌 덕으로 표 수준 좀 높여 보겠다고,전처를 죽인 살인자가 니들 주군 김다이쪼였느니..

2009.10.09 00:42:53

공감 신고

임광덕

tnrnrhfxhd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10.09 00:47:51

이찬희

netu

공감 1

왜 피날레로 죽은 모습은 없나요?

기생의 치마 폭에서 양주잔에 피를 토하고 죽어간 그 가련한 모습말입니다.

낮에는 저 위선적인 모습으로 민중을 속이고, 남에는 채홍사를 동원하여 젊은 아이들을 양주파티의 안주로 삼아겠죠 ㅎㅎ. 반항하는 자는 모두 고문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또 일부는 죽이고, 북에 김일성이 있었다면, 남은 친일 독재자 그리고 기회주의자 박정희가 있었죠.

2009.10.09 02:30:53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3

임광덕, 그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니 댓글 그대로 둔다. 내가 원래 왠만하면 존칭어 쓰거든. 예외로 한다. 왜 전처럼 ---를 찟어서 제거하겠느니 소리는 안하누. 다신 조선일보 한 자도 안본다더니 자기 말도 씹는 것들의 말을 누가 믿겠냐만...

그 피날레 그대들 수뇌부가 암살계획하고, 부도덕한 권력자 이미지로 낙인찍어 죽이려고 사전 계획해 만든 암살현장이잖소. 그러나 그런들 박통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그런 연출 장면에 속나.

그대들같은 사기꾼 건달들 눈에는 김대중 같은 사기꾼 건달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장교 출신의 박정희의 진실이 보인다.
자기 수준만큼 본다는 사실

2009.10.09 07:22:35

공감 신고

박성규

sgpark8144

공감 0

댓글 다신분들.... 참...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과는 철천지 원수집안일 듯...

2009.10.09 10:22:26

공감 신고

김성복

qhrrlfdl

공감 1

여기 모심기 사진에 저의 사진도 올라왔네요! 40년전,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사심없이 오직 조국의 민족중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신분이 었는데... 후일 역사는 분명 당신을 대한민국의 참된 지도자요! 민족의 큰 영웅이 셨다고 말입니다! 부디 모든 걱정이랑 접으시고 평안히 잠드시옵소서!!!

2009.10.09 17:16:58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

김성복님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제대로 밝혀질 겁니다.

그럼 저 세상에서 행복하실 거구요.

2009.10.09 17:55:49

공감 신고

남대우

ndw007

공감 1

욕하기 싫어 댓글 안달려 했건만 여기서 그냥 지나칠수가 없구나

광덕이 이넘, 발칙한 넘,

니넘에 ㅇ ㅇ ㅇ 나 가랭이 간수 잘 시키거라, 이 고얀넘아 -

2009.10.09 22:38:19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0

남대우님 감사합니다. 토론방에 몇명의 문제 인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듯 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2009.10.10 00:07:02

공감 신고

김장근

kimjk107

공감 0

우리의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도 잊고 지상최고의 가치가 민주로 착각하고 산 세월이 어언 수십년이면 이제 알만도 한 나이가 되었을 텐데...., 철없던 먹물도 아니고 살만큼 살아봤으면 밥을 먹어야 민주를 논할 수 있다는 진리를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지 , 그 편협한 사고와 굴절된 역사의식 진실을 거짖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 몸부림이 측은합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물고 뜯어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민들의 가슴에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각인되어 있읍니다

2009.10.10 08:34:16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0

김장근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마치 절대적 가치인양 오해하고 있는, 철학과 학식이 부족한 자들이 민주주의만 입에 달면 민주주의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자를 어찌 독재자라 욕을 합니까.민주가 절대가치라면 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을 제재하는 것은 민주적 독재이지요.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독재도 필요할 때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지한 저들만 모르고 있네요.

2009.10.11 12:24:07

공감 신고

정양원

jyw129

공감 0

ㅋㅋㅋㅋ 아나 진짜 이런 사진 박정희 밖에 없나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ㅋㅋㅋㅋㅋ

진짜 조선닷컴에는 미친OOO새끼들만 가득해 아나 ㅋㅋㅋㅋㅋ 친일, 독재자 찬양이나 하고 지금이 해방 몇십년이 지난 시기인데도 어디 그런 개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지 아이고 정말 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ㅠㅠㅠㅠ

2009.10.12 19:18:28

공감 신고

김장근

kimjk107

공감 2

입으로는 민주를 외치고 대가리는 지구상에 가장 비민주적인 정치 집단을 옹호.찬양.굴종하며 몸으로 대의 정치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터진 입이라고 민주를 찾는구나,그간 민주팔아 호의 호식하며 많은것을 누렸지 이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아 사회 곳곳을 장악한체 역사를 외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사관을 주입시키는데 혈안이된 이자들을 늦더라도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격리시켜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2009.10.13 04:42:31

공감 신고

[chosun]

배경음악 첨부 완료 가사 | 뮤비

박정희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누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웠는가? [10]

김탁(kimtakk02) [2009-09-20 16:38:51]

조회 918 | 찬성 115 | 반대 1 | 스크랩 0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We are charged with historic mission of nation restoration and were born to two land. Rekindle ancestral bright scratch today, will establish position of independence inside, and contribute in mankind public management outside.

Hereupon, weof then go forward clear and makes by indicator pointer of education .

With sincere mind and healthy body, develop talent of each on-e who learns and le arns, and natural study and a technology because, and makes our situation scaffold of rush on-slaught, foster force of creation and soul of reclamation.

Makes go ahead public benefit and order and honors efficiency and essence, and i nherits upper part premature heritage that root in veneration and faithfulness, urge cheerful and warm cooperation spirit.

Because the country develops, and realizes that prosperity of the country is root of my development with our original idea and cooperation, in freedom and right that p eople mind advance.

There is base that penetrating patriotism children are length of our life, and realize ideal of free world in anti-Communist democracy soul.

Let's as diligent people who looks future of unity motherland that becomes glory to l eave to length descendants, and has belief and dignity, gather nation's intelligence and creates new history by vigorous effort.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누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워 버렸는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우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0]

best

공감 8

김탁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만에 국민교육헌장을 대하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명문이 아닐수 없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국민 총화의 시대..*

무기력한 국민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오늘날 빛나는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했지요.

그 당시 국민을 이끄는 애국의 향도요 등불로서 국민교육헌장이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릴적 국민교육헌장을 끝까지 외우면 아버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요.

밤을 세워서 기를 쓰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위대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함께,

오늘 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창조하신 선배 세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09.20 18:22:07

공감 신고

공감 2

어넌너미지웠나여?

2009.09.20 18:03:50

공감 신고

공감 8

김탁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만에 국민교육헌장을 대하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명문이 아닐수 없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국민 총화의 시대..*

무기력한 국민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오늘날 빛나는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했지요.

그 당시 국민을 이끄는 애국의 향도요 등불로서 국민교육헌장이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릴적 국민교육헌장을 끝까지 외우면 아버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요.

밤을 세워서 기를 쓰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위대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함께,
오늘 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창조하신 선배 세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09.20 18:22:07

공감 신고

공감 4
문학님 훌륭한 아버님 두셨읍니다 이얼마나 국가를사랑는 애국애족의 글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보석은 변하지아니하며 그글을 재확인 시키는 김탁님

같으신분들이 있는한 절대 사장되지 않을겁니다
2009.09.20 19:38:13

공감 신고

공감 4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살아 보자는 의욕이
나라사랑이 부쩍 샘솟는 것 같은 명문(名文)이고
명(名) 격려(激勵) 문 이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 헌장이 바로
나라의 발전의
화합의
부강의
기틀이 되었고 씨앗이 되었으며,
영원히 우리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2009.09.20 23:47:46

공감 신고

김규용
jamesk4811

공감 4

김 탁 님 !! 감사합니다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시는 님의 노고 정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건필 당부드립니다 !! 전문학 님 !! 심정섭님! 박수진님 모두 건강하사구요 !!

2009.09.21 00:14:51

공감 신고

공감 2

새마을정신과 함께 인간을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시킬 복음이요 영약靈藥입니다.

2009.09.21 06:48:30

공감 신고

공감 3

누가 지웠을 가요..아모래도 노가리나,제갈다이쥬가 정신없이 지웟을 것이다,,남에 공덕을 싫어하니 기니..

2009.09.21 11:16:46

공감 신고

공감 2

높으신 국민들을 교육 시킨다는 미명아래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애국애족이 무엇이며,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하며, 우리 국민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이 되길 염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이 좋은 국민교육헌장을 언젠가는 다시 되살려 민족의 슬기를 다시한번 모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나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존경합니다 박 정희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박근혜의원님,,,

2009.09.21 18:48:45

공감 신고

공감 2

정치권부터 새마을운동 새로 시작해야합니다.

2009.09.21 19:37:24

공감 신고

조정웅

herald92

공감 1

아 ——— 그리운 분, 그분의 체취가 너무나 그립다. 이 교육헌장은 비록 한국 민족에 국한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엿보이는 교육 헌장 이지만 세계의 모든 개발 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어필할

수 있는 명문중에 명문이다. 민주화 세력에 의하여 짓밟혀서 흔적도 없었는데 이글을 올리신 님의 덕택에 다시금 음미해 보는 감동이 새롭습니다. 국민들에게 닥아 갈수있는 교훈의 표상으로 재 정립 해야겠습니다.

2009.09.21 23:00:43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새마을 운동 현장 보기 [0]

홍미애(ghdao) B [2009-10-18 09:15:42] 조회 35 | 찬성 9 | 반대 2 | 스크랩 0

새벽부터 괭매대다 울려 퍼지는 새마을 노래를 들으며 괭매길을 쓸던
그 시절 추억이 아련합니다. (영종도농부 고교시절)

퇴비 증산이라면 요즘 젊은 세대는 궁금하겠지요?
퇴비 증산을 위해서 마을마다 퇴비장을 마련해두고 농산물 생산에 사활을 걸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퇴비 모으기 실적에 따라 우수마을 시상도하고 그랬으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퇴비 모으기에 열심이었던 그모습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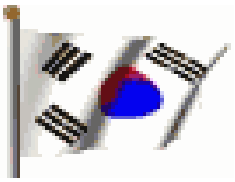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힘을 뭉치는 것입니다.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박정희(朴正熙)의 나무사랑 [2]

전국토의 나무 84%, 박정희 대통령 때 심어..



1. "나무도 사람 같이 대접해야"

1975년 8월 27일. 朴대통령은 이발을 하고 나서 청와대 기자실에 들렀다.
그곳에 있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집에 별 일 없지요”라고 안부를 물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산림녹화 사업에 관한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전에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산들이 모두 기계충에 걸린 것처럼 흙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삭막했었는데,
요즈음은 모두 푸르게 변해 마음도 시원해요.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입산 금지시키는 것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녹화의 비방은 무엇입니까?”

“나무도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도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해요.
등산로 근처의 나무들은 시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데 반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싱싱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

내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삼성의 李秉喆 씨가 용인공원을 만들기 전에 산림에 관계되는 대학 교수들을 만나 산림 녹화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아무런 수식사도 없이 '입산 금지를 시키면 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李秉喆씨는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하고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답니다.

뒤에 李秉喆씨가 일본에 가서 총독부 시절 山林에 관한 일을 한 관리를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시험해 보니 그게 진리더라고 李秉喆씨가 나에게 얘기했어요.
李회장이 그 교수를 찾아가서 감사(謝意)를 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은 장작을 때지 않으니까 산을 자연 그대로 두고
해충약이나 뿌려 주고 비료를 주면 우리 나라도 산림대국이 될 수 있다고 권하더군요.
우리 나라도 조선조 500년 동안 연료로 쓰려고 나무를 자르기만 했지
육성은 하지 않아서 산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설정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대강 짐작으로 줄을 마음대로 긋는 통에
일부 고장에서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집은 반이 그린벨트에 들어가버려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을 넓힐 수도 없어서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장가도 못 보내는 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린벨트는 다시 공중 촬영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산을 푸르게 하고 홍수를 막고자 여러 가지 이점을 생각해서 그은 그린벨트가
이러한 결과를 낳아서야 되겠습니까?
잘 살자고 한 시책이 국민들을 괴롭혀서야 되겠는가 말이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공사가 한창인 중동에 한 번 다녀와요.
여비는 내가 대줄 테니."

(그 후 기자단에서는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일부 기자들이
“사막에는 가서 뭐 할 거야” 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다.)

---

2. 환경보전정책의 최고걸작 - 그린벨트

외국에선 “20세기 각국의 국토 계획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환경보전 정책의 백미”라는 극찬을 받고,
국내에선 “대도시 주민들에게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준
박정희의 최대 걸작” 이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이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수도권 일부를 묶는 것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18일 전남 여천 일부를 지정하기까지
전 국토의 5.4%인 5,397.1km2를 지정하였다.

대선, 총선, 개각 등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1971년 6월 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김 국장.”
노타이에 검정 양복 차림의 박대통령은
김의원(金儀遠) 건설부 국토계획 종합담당관(부국장)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16절지에 그림을 그려가며 양택식 서울시장, 김태경 경기도 도지사, 김용석 건설부 도로국 국장에게
도로 재정비 지시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린벨트란 거 있지, 그린벨트.”
영어로 “Green Belt"라고 쓴 박정희는
자신이 금방 스케치한 수도권 도로망 외곽에 두 줄로 띠를 두른 뒤 말을 이었다.

"이렇게 빙 둘러쳐 봐. 빨리 계획짜서 가져와."
이것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박정희 대통령의 첫 지시였다.

(비밀리에 입안된 그린벨트 계획안)

박정희 대통령의 그린벨트 구상을 누가 건의했는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는 행정, 법률 용어가 아닌 학술 용어에 불과했다.
영국 런던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제도였다.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도시국장 등을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린벨트 업무를 주도했던 김씨는
"이한빈 전 부총리, 주원 전 건설부 장관 등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씨 역시
"주영(駐英)대사들로부터 그린벨트 얘기를 들으시고 관심을 보이신 적은 있다"며
'박정희 아이디어' 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동훈 전 통일원 장관은
"1969년 말인가 1970년 초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에 박대통령으로부터
'수도권 인구 억제 대책을 연구, 보고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의 증언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런던의 사례 등을 참고해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미관과 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 주위에 녹지를 일정한 둘레로 돌리면 좋겠다는 착상이었지요.
그 때 성남이 막 생겨나고 있었는데 서울과 성남 사이에 그린벨트를 설치해 격리함으로써
성남을 위성 도시, 베드타운으로 만들자는 식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한 마디로 OK였습니다.
“그걸 보고한 때가 1970년 가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은 나중에 붙인 것이고 그냥 그린벨트라고 했지요.
박대통령께서 ‘그린벨트, 그거 분명히 영어지’ 하시면서
‘욕 먹더라도 강력한 조치 한번 해보지’ 라고 하데요.”

++++++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로 1971년 7월에 서울 인구가 543만 명에 달하는 등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당시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변두리에 즐비한 판자촌은 안양, 의정부 등으로 마꾸 뻗어나가고 있었다.
일부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나 그린벨트라는 기상천외한 조치로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투기는 가라낮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의원 부국장이 며칠 뒤에 가져온 초안을 퇴짜놓았다.
구파발 검문소와 삼송리 검문소 사이에 북한산을 끼고 흐르는
창릉천 주변, 불광동 기자촌 일대 등 몇 군데를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축척 5만분의 1 지도위에 그린 초안을 훑어본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 유심히 들여다 보고는 돌아 앉아 “여기는 왜 뺐어”라며 일일이
지적했다.

김 부국장이 “집없는 기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터를 닦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포함시키면 난리가 날 겁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래도 포함시켜”
라고 일축했다.

며칠 뒤 2차 초안에서도 창릉천 주변은 빠져 있었다.
“서울이 북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라고 이유를 설명하려는
김 부국장의 말을 가로막은 박정희 대통령은
“참 답답한 친구들이네” 라며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김 부국장이 “탄복하고 물러 나왔다”며 들려 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린벨트 안보관은

이런 것이었다.

“남북이 다시 맞붙어 불행히도 우리가 서울까지 후퇴했다고 치자.
그러면 (인민군) 2,3개 사단을 이 계곡에 몰아넣고 북한산에서 공격하면 섬멸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지를 조성하면 안 돼.”

그린벨트에는 결코 예외가 없었다.
그린벨트 주무 장관인 태완선 당시 건설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작품인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을 날렸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남태령고개 부근의 임야 5,000평이 1차 그린벨트 지정고시에 묶여 버린 것이다.

실무진이 작성해 온 최종안을 보고 나서 그는 “허허, 난 망했군, 망했어”라고 쓴웃음을 짓다가
“그래도 공정해야지”라며 결재했다고 한다.
국세청 내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상태를 손바닥보듯 알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태 장관을 두고 “그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다고
당시 대통령 경제2수석을 지낸 오원철 씨는 증언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그린벨트 관리)

대통령 박정희가 꼬치꼬치 ‘주사 노릇’을 한 분야가 그린벨트다.
그는 건설부령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처음 결재할 때부터 겉표지에
“건설부 장관이 개정할 수 있으되 개정시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득할 것”이라고 써 놓아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둑을 허문다’ 는 소신을 가졌던 그의 그린벨트에 대한 의지는 냉혹할 정도였다. 1977년 여름 문턱으로 접어들던 때의 일이다.

“저, 각하, 참으로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6척 거구에 화통한 성격의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그답지 않게 조심조심 이어나간 얘기는 이러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수리산 기슭에
천주교측이 전국의 수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화성 군청은 1976년 12월 4일 그 곳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자
불도저를 동원해 수영장을 메워 버렸다는 것이다.

“수녀들이 남들처럼 해변에서 수영할 수도 없고.....”

선처를 바라는 신 장관의 조심스런 진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아. 수녀들에게 그렇게 해 주면 스님들은 가만 있나. 종교가 어디 한 두개야?”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자존심이 상했던지 한 국방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대 안 그린벨트는 군이 관리하도록 해 달라” 고 건의했다가
“군인들은 법을 잘 지키나? 건설부 통해서 해!” 라고
한 마디로 거절당했다는 것이 김의원 씨의 증언이다.

1972년부터 79년까지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파면 191면, 감봉 114명, 견책 229명, 직위 해제 2명, 경고 주의 훈계 1,990명이다.
그린벨트 지역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사표를 내놓고 일한다”
“(그린벨트 감사에 비하면) 감사원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는 말이 나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생존시 ‘신성 불가침’ 이었던 그린벨트,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선거철 등 민감한 시기마다 조금씩 느슨해지다가,
1997년 9월 11일 발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건설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예고로
이제는 존립의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일본 국토청 차관을 지낸 시모고베 야츠시는
중국의 실권자 덩샤오핑의 경제 자문관으로 있던 1980년대 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두르는 것이 후일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상세한 것은 한국에 알아 보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3. 초인적 열정을 보인 朴대통령의 나무사랑

조림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방 사업은 당시 산림 녹화의 핵심 사업이었다.

영일지구 사방 사업은 박정희 시대 가장 특기할 만한 국토 개조 사업이다.

1971년 9월 17일 우수 새마을 시찰자 이 곳을 지나면 박정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이 곳”이라며
완전 복구를 지시함에 따라 197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977년까지 총 공사비 38억 2,800만 원, 연인원 360만 명이 투입돼
황폐지 4,538ha를 녹지대로 탈바꿈시켰다.
소요된 묘목만 2,400만 그루, 돌과 뗏장은 각 230만 개에 달했다.
일에 대한 초인적 열정으로 주위를 사로잡았던 박정희의 특징은 여기서도 그대로 발휘됐다.

당시 경북 도청 산림국장을 지낸 박상현 씨의 증언을 들어 보자.
“1975년 4월 17일 그 날은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쳤어요.
그런데 박대통령께서 해병대 지프를 가져오게 해 현지로 가자는 거에요.
영일 군청에서 브리핑 장소까지 헬기로 2-3분이면 되는데 세 시간이나 걸렸지요.
폭 3m 미만의 비포장 도로를 기어가다시피 하는 동안
김수학 경북지사는 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피멍이 들고 난리인데도
굳이 현장을 보시겠다니.....”

(대통령의 ‘산불 담화문’)
박대통령은 곡강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주변 플라타너스 10여 그루가 2-3m 높이로 잘려 나간 것을 발견했다.
전봇대를 세우면서 전깃줄에 닿을 위험이 있다며 잘라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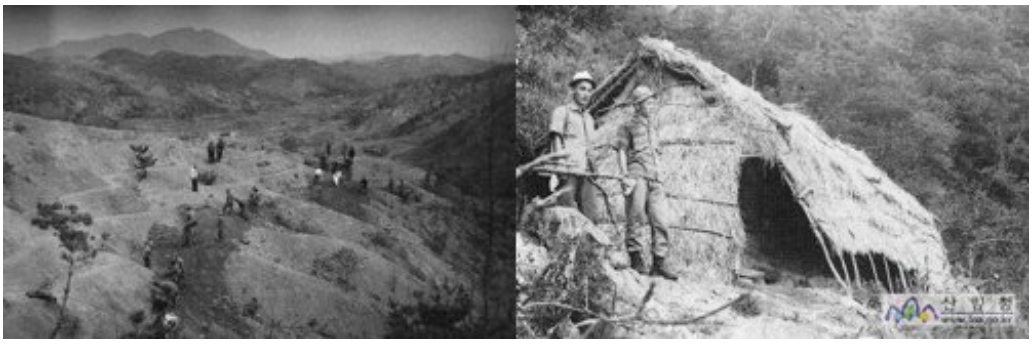
머리를 감싸고 있던 김 지사에게
“저거 누가 잘랐어?
20년-30년 걸려야 저런 나무 하나를 키워 내는데
그래 3만원짜리 전봇대 때문에 그걸 잘라냈단 말이야.
당장 조치해 보고하시오” 라는 불호령이 떨어 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아니었던들 일제가 1907년부터 50차례나 시도했다가 실패

한 것을
성공시킬 수 있었겠느냐” 고 말했다.

화전 정리 사업도 산림 녹화에 한몫 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펼쳐진 이 사업은
공비 소탕 작전 하듯 군용 헬기까지 동원, 강원 경북 충북 등
깊은 산간 지방에 흩어져 있던 30여만 가구를 정리했다.
당시 강원도 철원, 화천군 산림과장을 지낸 김금철씨는
“화전 부락에 들어 갔다가 술 취한 화전민이 낫을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혼비백산해 도망간 적이 있다” 고 회고했다.

전남 승주, 경북 상주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1978년 4월 ‘산불 예방에 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것 역시
박정희의 산림 녹화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산불 담화문의 일부이다.

'... 산불을 낸 사람은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동시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군수 등 각급 행정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며....’



▲ 1960년대 충북진천 나무심기(좌), 1960년대 도벌감시 막사(우)

4. 산림 녹화에 아이디어가 많았던 대통령

어쩌면 이 시기(1962년)에 박대통령의 머리는 수출과 산업화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산림녹화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는지 모른다.
박정희가 산림 녹화에 다소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대목은
1973년 1월 16일 손수익(한국경제사회연구원 회장) 경기지사를
산림청장으로 임명하면서 던진 '당부의 말씀'에서 어렴풋이 확인된다.
"고속도로, 공업화, 새마을 운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치산 녹화가 잘 안되고 있어. 임자가 맡아 치산 녹화를 이룩해 봐."

손 청장은 5년 8개월 간 재임하면서 집무실 입구에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고 써붙여 놓고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1973-82년)을 진두 지휘,
예정보다 4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손씨가 1996년 9월에 산림청이 주관한
' 치산 녹화 현지 순례 '에서 밝힌 회고담이다.

"1975년 박 대통령의 경기, 경북 연두 순시 때
수원에서 대구까지 대통령 전용차에 동승했습니다.
가시는 동안 경부고속도로 양편을 일일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150분 동안 무려 50건, 3분마다 한 건꼴로 지시했습니다.
받아 적느라 손이 저릴 정도였지요."

임도(산불 진화나 병충해 방지 작업 등을 위해 만든 산길)을
횡으로 내도록 한 이른바 '추풍령식 조림'도
"큰비가 올 때 한꺼번에 흘러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볼 때 빽빽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 보기에도 좋다"는 박정희의 아이디어였다.
1977년부터 11월 첫째 토요일이 육림일로 지정된 것 역시
그 해 식목일에 박정희가 " 가을에는 자기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고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

박정희의 산림 보호 열성은 수천 년 이어온 한우들의 식성까지 바꿔놓았다.
농림장관과 초대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보현 씨의 증언이다.
“1972년 여름 경제 동향 보고 회의 때 박 대통령께서
‘소에게 끓인 여물을 먹이느라 땔감이 많이 들어가니 생품을 먹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고 합디다.
실험 결과 끓여 주는 것보다 영양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 때부터 전국적으로 소에게 생풀 먹이기 운동을 벌였지요.”

1973년부터 벌어진 농가 아궁이 개량 사업,
1975년부터 나무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 취해진 낙엽 채취 금지령도 그의 지시였다.
연탄 사용을 장려한 것도 이즈음이다.
당시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을 지낸 김의원씨는
“무연탄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탄광에서 인근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닦았다” 고 회고했다.

▲식목일 나무심기가 끝난후 관계자일행과 식사를 하시며 1974. 4. 5

5. 山河의 나무 84%는 朴正熙 대통령 심은 것.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육성에 대한 열정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지난 1997년 여름 특별기로 북한을 방문한 후

바로 공해를 거쳐 한국 땅에 진입하면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들어왔군” 이라는 탄성을 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가 탄성을 내뱉은 이유는 더욱 주목을 끌었다.
얼핏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한국 영토로 들어왔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남북한 간에 천양지차인 산림 녹화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산하는 온통 붉은 빛을 띤 반면 남한은 녹색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남북한 사정은 정반대였다.
한국의 산이 오늘의 북한처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푸른 옷을 입게 된 것은
불과 20년 안팎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84년 임업 통계 요람’에 따르면
남한 전체 임목 면적의 84%가 20년생 이하,
즉 나무 10그루 중 8그루 이상이 박정희 시대에 심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20세기의 대표적 녹화 사업 성공 국가로 꼽고 있다.

+++++
산림 녹화에 대한 박정희의 의지는 1964년 12월에 서독 방문을 마치고
산림 관계자들에게 한 오기 서린 말 속에 배어 있다.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는 유럽에 안 간다.”

경제 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 잔뜩 기대를 걸었던 서독 방문에게서
기대이하의 차관을 약속받은 이유가 가장 컸지만, 그는 이후 다시는 유럽을 방문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경제 고문으로 서독 방문 때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씨는 “박대통령은 서독의 정돈된 농촌과 푸른 산을 보면

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겠느냐’ 며 안타까워했다” 고 회고했다.

그러나 집권 초의 박정희는 산림 녹화 의욕에 비해 경험이 못미쳤던 듯하다.
녹화 촉진 임시조치법(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의 한시법)을 마련하여
공무원, 학생, 병역 미필자들을 나무심기 사방 사업에 투입하는 등
강력한 산림 보호 시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증산을 위해 개간 촉진법(1962년 2월)을 시행,
산지 야산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

best

이동훈

ldh5881

공감 9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푸른 산하(山河)를 가진 나라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사업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김대중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2009.10.17 22:39:22

공감 신고

이동훈

ldh5881

공감 9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푸른 산하(山河)를 가진 나라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사업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김대중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2009.10.17 22:39:22

공감 신고

박수진

modmoa48

공감 7

박대통령도 훌륭하시고 현식님도훌륭하십니다 그분의숨겨진 보물같은이야기를

발취하여 우리의삶에 영양가를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대통령을

늘 지켜주심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건강하시고 복많이받으세요

2009.10.17 23:14:12

공감 신고

[chosun]

DJ(김대중)에게 십겁한 김상현 [1]

[2009-10-16 18:21:07]

조회 179 | 찬성 15 | 반대 0 | 스크랩 0

김대중은 잔인한 사람이다. 특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위협이 될만한 인물은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이 점은 북의 김일성과 닮은 꼴이다. 대표적 희생양이 김상현, 조연하 전의원이다. 다음은 조연하의 증언이다.

조연하 숙청작업

김대중은 우선 그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김대중 계보를 이끌어 세력이 커진 조연하, 김녹영 의원과 김상현을 숙청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조연하는 이철승의 정치참모로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이 차기에는 이철승을 밀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이철승계 대의원 표를 몰아줘 김대중에게 역전승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 그는 1960년 5대 민의원 선거 때 민주당 공천으로 고향인 전남 승주(나중에 순천 시로 통합됨)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19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전했으나 김대중의 지원 유세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그 후 김대중 계보의 조직 참모로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72년 유신이 선포되었을 때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다. 1985년의 2□12 총선에서는 신민당 조직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로 선거구를 옮겨 당선되었다. 김녹영, 김상현과 더불어 김대중 계 공천을 주도했다.

김녹영은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광주에서 출마, 당선되었다. 신민당이 1973년 신민당과 통일 민주당으로 분열할 때 통일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9대와 10대 총

선에서도 당선되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85년 신한민주당 창당에 김대중 계보로는 조연하와 더불어 적극 참여하였다. 12대 국회가 개원되자 국회 부의장이 되었다.

김상현은 6□7□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김대중의 비서실장으로 선거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김대중을 '형님'으로 모신 그는 1971년 김대중과 공모하여 진산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대중이 미국에 있을 동안 정치 선배로 친한 조연하의 자문을 받으며 김영삼과 더불어 민추협을 결성했다. 미국에 있는 김대중 대신 공동 의장 대행이 되었고, 2□12 총선에서는 신민당 김대중 계 몫의 공천권을 행사했다. 김상현 자신은 정치규제법에 걸려 2□12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했으나 신민당의 김대중계 몫 32개 지역구와 전국구 공천을 주관하고 공천하는 일을 전담했다.

김대중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신생 야당 신민당과 여권의 조종을 받는 제1야당 민한당 중 어느 당이 12대 총선에서 승리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양다리를 걸쳤다. (12대총선에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신민당이 압승을 했으나, 목포에서는 어용야당 민한당 후보가 당선됨)

김대중은 미국에 있는 동안 큰아들 김홍일, 비서 김옥두 등으로부터 조연하, 김녹영, 김상현에 대한 좋지 못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었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한 김대중은 이들을 숙청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김대중이 미국에 있는 동안 이들이 김대중 계 조직을 관리해 와서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1985년 6월 8일 낮 12시 반경 김대중은 여의도 정우빌딩 701호실 '민주 대학'(김상현의 계보 조직)을 갑자기 방문했다. 김은 미국에서 자신의 활동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감상을 마친 국회의원 17명, 신민당 사무국 직원, 민추협 직원 등 2백여 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한 정치 동지며 30여 년간 갖은 고초를 겪으며 나를 도와준 김상현 동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김상현씨는 내가 재미중일 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추협과 신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여당측이 주도해온 호헌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전환하게 만든 신민당을 육성한 공로자입니다. 그는 나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없는 동안 거뜬히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김상현 동지를 이 김대중이의 후계자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은 의외의 칭찬에 상기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진 의원 조연하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이 연설은 김대중이 김상현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김상현과 조연하를 제거하려는 공작의 첫 걸음이었다.

김대중의 '김상현 후계자론'에 '민주대학' 소속 국회의원들과 실무자들은 이날 축배를 들며 환호했으며 김상현은 황태자로 책봉 받은 듯한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일부 의원과 비서진은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이날 김대중은 자신의 정치공백을 메우며 계보를 관리해온 조연하와 김상현의 정치적 유대를 깨기 위해 김상현 후계자론을 들먹인 것이었다. 즉 각개격파의 예비 동작이었다.

김대중은 서서히 조연하를 겨냥하여 각개격파 작전으로 들어갔다. 그 첫 단계는 85년 6

월말 경 국회의사당의 신민당 사무실에서 총재단 회의를 하고 있던 조연하와 김녹영에게 쪽지를 보내 '민주화 추진 협의회 상임 운영위원직을 해임한다'고 통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황을 조연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하루는 여의도의 신민당 사무실에서 총재단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중 여직원이 들어와 김녹영과 나에게 메모를 전해 주었다.
"민추협 상임 운영위원을 해임토록 했으니 양해해 달라!"
메모를 펼쳐본 나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김녹영이 어이가 없는 듯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도 같은 내용이오?"
옆에 있던 이민우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나는 메모를 건네주었다.
"이 미친 놈이, 정신이 제대로 들고 서야…."
우리는 메모를 찢어 버리고 회의를 계속했다.
"이런 일이라면 우리를 직접 불러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만 민추협이나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하라 하지마라' 제 마음내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야! '
김녹영은 불같이 화를 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
(조연하,『세상에 이럴 수가…』서울 : 동춘 서림, 1992)

김녹영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10일 사망했다. 그가 맡고 있던 신민당 부총재 자리와 국회부의장 직은 공석이 되었다.
조연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신민당 부총재직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신민당은 1985년 8월 1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총재단을 대의원들의 투표로 뽑을 예정이었다. 김대중은 김대중 계보 추천 몫의 부총재 후보를 조연하□김녹영에서 양순직□이중재로 교체했다. 그 과정에 얽힌 비화를 조연하는 이렇게 밝혔다.

임시 전당대회를 몇 일 앞두고 김대중은 나를 불렀다.
"춘산, 당신에게 한가지 부탁을 해야겠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춘산은 원내 의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선뜻 말을 못하고 주저하는 눈치였다.
"춘산, 새로운 인사들의 영입도 있었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양순직과 이중재, 두 사람을 부총재로 지명했으면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오."
"뭐요? 부총재직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 부총재는 수석 부총재인 나와 고인이 된 김녹영, 둘이었는데 김녹영의 유고로 한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어 새로운 부총재라면 한자리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부총재로 밀어 달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를 일이었다.
"아-당신이야 다른 일이 있지 않소."
그는 이같이 말했다. 다른 일이란 국회 부의장 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가 보다 하고 '부의장 자리면 됐지 당 수석 부총재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춘산! 반드시 그들을 밀어주셔야 합니다."
"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을 치르자면 아무래도 자금이 들 것 같고…."

김대중은 항상 그랬듯이 돈타령을 하며 넌즈시 쳐다보았다.
"1천만원만 마련해 주시오!"
"아니 이전에도 벌써 1천만원을 마련해 주지 않았소. 지금 형편으로 그만한 돈이 없어요. 이중재와 양순직이 부총재로 나서는데 그들에게 말해 보시오."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보시오."
당시 내 형편으로 1천만원의 여유도 없거니와 빌려볼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정이 그렇다는데 나는 이곳 저곳에서 차용하여 1천만원을 만들어 도합 2천만원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임시 전당대회에서 부총재로 당선되었고 다음 국회의 부의장 지명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조연하, 『세상에 이럴 수가…』 서울 : 동춘 서림, 1992)

조연하 제거를 위한 마지막 공작은 국회 부의장 지명에서 그를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센 파장이 일어났다. 8월 15일 경 김대중 비서실에서 작성한 조연하를 비방하는 문서가 나돌았다.

조연하 의원의 행적보고

(가) 김녹영 부의장의 장례절차 문제 때 선생님은 "사회장이든 국회장이든 가족과 논의 하여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 바. 조의원은 선생님이 "꼭 사회장을 하여 대중 앞에서 추도사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전달함으로써(고의성이 있는 듯)여당 측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게 함.
(나) 2□12 선거 당시 전국구 의원들로부터 동교동 계보 내 헌금 형식으로 갹출된 4억6 천만원을 어렵게 싸우는 계보 내 40여 명의 동지들과 공평히 분배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조의원 개인 몫으로 1억6천만원을 차지하고 계보 내 동지들에게는 2백~3백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분배함.
(다) 선생님이 민추 상임위원 문제로 조의원에게 위로의 친서를 보냈을 때 주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편지를 팽개치며 욕을 하여 최훈 의원으로부터 "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항의를 받고 피함.
(라) 선생님에 대해 "대중이는 끝났어" 등등의 선생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님 - 악질적인 저의가 있음.
(마) 선생님께 부의장이 되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부의장이 되는 것으로 지상(紙上)에 보도하고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함. 이에 대해 선생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으로 신문에 밝히려고 한 바 있음.
(바) 지난 전당대회 전, 선생님은 이택돈 의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고하였는바. 조의원은 이택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선생님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동교동 조직 활동에 혼동을 준 바 있다. (한편 이택돈 의원이 조연하 의원에게 대회 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음) - 거짓말을 불사하는 행위

조연하는 김대중이 다른 의원을 국회 부의장에 지명할 것 같은 공기가 돈다는 귀띔을 이중재, 김상현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그는 8월 19일 오전에 김대중을 방문했다. 대화 내용을 그는 이렇게 전한다.

김대중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대했다.
그때까지도 주위의 이야기를 가볍게 일소에 부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다

른 생각이 있어서였다.
당시 국회 부의장은 비서실장을 비롯 5명의 비서를 채용할 수 있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마땅한 자리가 아쉬운 김대중을 생각해 비서 5명을 그의 사람으로 쓰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인선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대중은 김옥두, 권노갑 등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둘이 앉았다.
"항간에 국회 부의장 지명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아, 그 문제라면 당연히 나와 춘산 둘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지 떠도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기야 남의 말이란 상관할 것이 못되기는 하지만 하도 당치 않은 말이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도 결정한 바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저녁에 춘산 댁으로 전화를 할 테니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 식사나 같이 하면서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아직도 결정한 바가 없다니 아직도 부의장 문제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는 말인가요?"
결정이라는 말에 웃으며 되물었다.
"아니 결정을 했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있질 않겠습니까?"
김대중이 말한 중요 문제란 부의장 지명은 결정이 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조연하,『세상에 이럴 수가…』서울 : 동춘 서림, 1992)

[출처] 김대중의 조연하 숙청 | 작성자 yslee1789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공감 3

조연하 전의원은 정치자금을 챙기기는 커녕 정계은퇴 후 검소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전 모습이 티브에서도 방영된 바가 있다. 악인이 양인을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아니 김대중의 법칙이지..

2009.10.16 19:14:58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김일성과 김대중과 박정희.... [11]

[2009-10-16 09:14:45]　　조회 530 | 찬성 40 | 반대 6 | 스크랩 0

오늘자 역사의 뒤안길을 소개한 매스컴의 기사가 흥미롭다. 북괴의 5.16 지지

계획후 다시 철회란 기사는 머 그리 신기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혁명직 후

그래도 박정희 사상에 희망을 걸고 김일성이 직접 지령해서 좌익성향의 박정

희의 형의 친구였던 월북 남노당원인 황태성을 남파했으니 말이다.

아마도 김일성이 기대를 걸었던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한다면 자신에게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는 우선 그

의 형인 박상희가 남조선 경찰에 사살된 좌익이라는 점, 두번째 그는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의 관련자라는 사실, 그리고 세번째는 그가 미국 오클러호마 포병교육을 마치고 귀국 2군단 포병사령관을 거친 후 3군단 산하 5 사단장으로 부임해 있을 당시 당시 3군단장이었던 송요찬 장군의 대선에 임하며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유리한 선거전략에 참여해 달라는 군단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신익희가 급서하고 다시 정권을 잡은 자유당은 박정희를 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되고 육군 대학으로 교육을 보낸다. 일종의 좌천인 것이었다.

김대중은 이때 다시 인제 주둔 7 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희를 찾아와 자유당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하려 면담을 요청한다.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그는 박정희와는 일면무식의 관계이지만 그를 찾은 것이다. 선거는 민간 정치인의 일이다. 왜 하필 박정희 전투사단장을 찾았을까? 물론

인제가 군사지역이니까, 또 지난번 5 사단 당시 박정희의 전력을 알고 그

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세월

이 흐르면 북괴의 기밀문서에서나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다.

박정희는 외출에서 돌아와 참모로 부터 김대중이란 사람의 방문이 있었다

는 전갈을 받지만 도데체 일면무식의 사람이요 훗날 대통령 선거에서 숙적

이 될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꾸지못했던 인간이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움

직였을까 "하는 대목.....

통일이 되는 날 김대중과 김일성의 커넥션이 잘 밝혀졌으면 한다. 해방후

부터 5.18 폭동까지..... 그러면 지난 정권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에게

휴전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바꾸자고 구걸하던 노무현의 진상도 밝혀지리

라! 역사는 Fact 요 Truth 일뿐 이다. 어떠한 위장도 덧칠도 다 들어나

게 되어있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1]

best

공감 6

김대중이..박정희 기념관을 승인했다는 것은 거짓 기만 술수이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하이에나 짖거리이다..
이회창과 맞붙을때에...박근혜 마음을 흔들과...보수진영 표를 얻어 보려는
그렇고 그런 술수이다....결과..박정희 기념관은 흐지 부지 되었다..
대신에.....김대중 기념관은....도서관 이라는 명칭으로 호화롭게 잘 단장되어서
자라나는 2 세들을 세뇌교육시키고 있다.
2009.10.16 11:02:05

공감 신고

최상은
tennoheika
공감 0
김일성 그 자식은 6,25 말기부터 남로당 숙청에 착수해서 몇 년도 안되어

완전 붕괴시킨 주제에 한번도 연락도 없고 자기 공작금 한푼 받은 적도

없는 남로당 전력자가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었다니 정말 기가 차는 쪼다 아닙니까?
2009.10.16 09:28:06

공감 신고

최상은
tennoheika
공감 0
김일성의 새대가리는 괴뢰군이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남한 도처에서

인민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망상하에 625남침을 일으킨 이래 조금도

나아진 바가 없었으니 박정희가 늘 긴장하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

노력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2009.10.16 09:30:55

공감 신고

최상은

tennoheika

공감 0

반면 모씨는 졸개 구케언이 북한에 기어들어가서 김일성으로부터 받아온

미국 돈중 일부를 받았으니 김부자 녀석들이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2009.10.16 09:34:50

공감 신고

홍종국

ghdwhd

공감 1

박정희와 김일성이 서로를 이용하여 독재를 공고히 했다는 것은 얼마전에도 중앙일보에 나왔지.

김대중 박정희 두분 모두 지하에 있고 김일성도 죽은지 오래됐으니 자네의 이런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쓰시게나.

근데 자네 아버님은 안녕하신가? 거짓을 일삼으면 그 자식에게도 해가 끼친다네....

2009.10.16 10:44:58

공감 신고

이용수

bkw9658

공감 2

농민을 가장한 까막고무신 국회의원...김대중쫄개...그자가 김일성 만나서 공작금 수령하고

오니까....김대중이.....어이 한껀 했구만...햇다지요...그자 이름이 뭐더라..??

인민군 같은 그얼굴은 기억이 삼삼한데...이름이 기억 아나네요..

..김대중 통장되게 도와준...이인제..김OOO필...이인제 김OOO필...OOO된 김OOO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길이 기억될것입니ㅏ.

2009.10.16 10:50:51

공감 신고

홍종국

ghdwhd

공감 1

그런 김대중이 박정희 기념관을 승인햇으니 역사의 승리자는 김대중 임을 부인하지 못하고 김대중과 김종필은 아마도 박정희 지지자에게 영원한 트라우마일 것이다.

2009.10.16 10:54:53

공감 신고

공감 6

김대중이..박정희 기념관을 승인했다는 것은 거짓 기만 술수이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하이에나 짖거리이다..

이회창과 맞붙을때에...박근혜 마음을 흔들과...보수진영 표를 얻어 보려는

그렇고 그런 술수이다....결과..박정희 기념관은 흐지 부지 되었다..

대신에.....김대중 기념관은....도서관 이라는 명칭으로 호화롭게 잘 단장되어서

자라나는 2 세들을 세뇌교육시키고 있다.

2009.10.16 11:02:05

공감 신고

임광덕

deukyoo

공감 1

그래서 안영선생은 김일성 하부조직인 남로당 발치산 군사 담당였던

박정희를 존경하니 당신도 빨/갱/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용수군은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따르는 빨/갱/이고요.. 맞죠?

2009.10.16 11:17:26

공감 신고

최병인

eastern123

공감 0

흘러간 역사속의 누구누구를 탓하지 말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잘하면 되는데도 잘 안하

고 있으니까 누구 탓일까요? 국정이 잘 안돌아가는 책임 말입니다.

2009.10.16 11:19:50

공감 신고

공감 2

안영 님, 이 창가에서 처음 뵙는 것같은데 반갑습니다.

님의 정론 직필 어쩜 그리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감복합니다.

요새 중상모략 글들이 부쩍 늘어 대응뜻에서 저도 가끔 글을 씁니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그러기에 더더욱 정당성을 갖습니다. 다만 현역

제도권 놈들이 기피하는 비겁한 자세에 분노합니다.

2009.10.16 21:08:19

공감 신고

공감 2

/지난번 5 사단 당시 박정희의 전력을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북괴의 기밀문서에서나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다//

//통일이 되는 날 김대중과 김일성의 커넥션이 잘 밝혀졌으면 한다. 해방후 부터 5.18 폭동까지...../

우리 국민이 김대중의 협잡 모략 중에
이것이 가장 의혹이고 의문을 갖습니다.
통일이 되어 김대중과 김일성 김정일과 커넥션이 밝혀지면
호남의 주민들 5,18희생자 유가족들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그런 협잡을 수십 년 간 섬겨왔으니
얼마나 통탄하고 억울할 것입니까?
그것 5,18의 진상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2009.10.17 00:58:24

공감 신고

[chosun]

박정희를 비난하는자 똑바로 들어라

[3]

[2009-09-21 14:47:28] 조회 1004 | 찬성 111 | 반대 9 | 스크랩 0

당신들 제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 하려 발버둥친다 해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지금의 그들, 말 많은 지도자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대한민국 중흥의 시조로써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임을,…….

그는 비록 비명에 갔지만 죽어서 진정 그 가치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높이 평가받게 될 것임을,…….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3]

best

김장근

kimjk107

공감 1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가 무었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충실히 이행한 분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잿더미 밖에 없던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국가 기간산업과 중화학공업육성, 국민의식개혁을 통한 "할수있다"는 자신감 고취, 현재 산림의80%조성.등등

2009.10.12 04:23:17

공감 신고

임유권

lg3945

공감 0

18 년동안 장기집권한 대톨령이자나.그때 총만 안맞았더라면 지금도 할텐데.....

2009.09.23 23:53:00

공감 신고

이정희

gml858585

공감 0

ㅋㅋ 영원한 독재자로 길이 남을 것인가? 나라의 20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2009.09.25 22:35:49

공감 신고

김장근

kimjk107

공감 1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가 무었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충실히 이행한 분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잿더미 밖에 없던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국가 기간산업과 중화학공업육성, 국민의식개혁을 통한 "할수있다"는 자신감 고취, 현재 산림의80%조성.등등

2009.10.12 04:23:17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좋은글]인간 박정희와 그의 남자들 [4]

[2009-10-08 23:01:10] 조회 489 | 찬성 35 | 반대 0 | 스크랩 1

(김현식님이 올린 자료 여기 다시 올립니다. 좋은 자료라서)

==== 인간 박정희와 그의 인재들=======

"남 교수 가족을 돌봐 줘라"

서강대 경제학 교수 남덕우가 중앙청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경제개발계획 평가교수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대통령 앞에 섰다.

"각하, 남 교수는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어 이제 평가교수단 회의에는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 박정희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주 갑니까?"

"아닙니다. 1년 뒤에 돌아옵니다."

남덕우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초청으로 1년간 교환교수로 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럼 나 좀 보고 가시오."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평가교수단 회의는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각부처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덕우는 경제문제를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후진국의 경제개발에는 무엇보다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따로 차를 타고 청와대로 갔다.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통령이 다시 물었다.

"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까?"

"예."

"집안의 처자와 부모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누가 따라 갑니까?"

"그냥 두고 저 혼자 갑니다."

대통령은 '壯途'라고 쓴 봉투를 그에게 주었다. 미리 준비한 금일봉이었다.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연구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남덕우가 없는 동안 그 가족의 생활을 돌봐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는 전혀 뜻밖의 놀라움이었다.

대통령의 뜻을 알게 된 것은 1년간 교환교수로 나가 있다가 돌아온 후였다.

1969년 6월 미국에서 돌아와 그해 가을 식자층(識者層)에 널리 읽힌 저서 〈가격론〉의 수입으로 화곡동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다가 라디오에서 '재무장관 남덕우'가 포함된 개각 발표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다.

청와대에 들어가 얼떨결에 임명장을 받았다. 그리고 신임 장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남 교수, 정부 정책을 많이 비판하던데 이제 맛 좀 보시오."

그 말에 남덕우는 꼼짝없이 사로잡힌 심정이 되었다.

대통령에게 재무장관 남덕우의 임명 사유를 그렇게 건의한 사람이 있었다. 경제부총리 김학렬이었다.

"남덕우 교수가 평가분석회의 때마다 비판을 잘하는데 장관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맡겨서 혼 좀 내십시오."

김학렬의 말에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다.

그해 10월21일, 교수를 천직으로 알던 남덕우에게 관직이 그렇게 씌워졌고, 그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그는 5년간 재무장관직에 머물렀다가 1974년에는 경제부총리에 올라 중화학공업육성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79년에는 청와대 경제담당 특보로 자리를 옮겨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가 박정희 시대와 함께 한 세월은 10년이나 되었다.

대통령이 보낸 쇠고기 통조림

그 시대에는 적지 않은 인재들이 장기 근무를 했다.

대통령 박정희는 이들을 국정의 전면에 포진시켜 맘껏 일할 수 있게 정치 외풍을 막아 주었고, 장기간 중책을 맡기는 인사 정책으로 이들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했다. 이른바 엘리트 관료들의 전성시대였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성공은 우수한 관료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은행 등 외국의 전문기관과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엘리트 공직자들이 놀라운 열정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도록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고위 공직자들을 권력으로 복속시키지 않았다. 그들을 국익 창출의 동반자로 대우했으며, 때로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의 인간적 교감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1972년 인도 총영사로 나가 있던 노신영의 이야기가 있다. (〈노신영 회고록〉)
그해 6월 그는 처음으로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외교행낭 편으로 온 한통의 친서를 받아보니 봉투 겉면에 '서울特別市 朴正熙'라고 적혀 있었고, 서신과 함께 격려금이 들어 있었다. 미수교국인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의 활동비였다.
그는 감사의 답신을 보내면서 소를 높이 여기는 인도 국민의 생활상을 간단히 보고했다.

그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뜻밖의 전문이 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항공편으로 쇠고기 통조림을 보내니 수령하는 대로 회답해 달라는 것이었다.
쇠고기 통조림은 영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여간 고맙고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쇠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정을 살펴주는 대통령의 알뜰한 온정에 모두는 가슴이 뭉클했다.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해 반드시 외교적 과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고, 쇠고기 통조림은 서울에서 오는 손님 식탁에 내놓거나 직원들의 특별한 회식 때에 가끔씩 먹으면서 소중히 아껴 두었다. 노신영이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도 쇠고기 통조림은 꽤 많이 남아 후임 대사에게 인계되었다.
노신영은 재임 기간에 북한이 끈질기게 반대해 오던 인도의 남북한 동시 수교를 이루어냈다.
"조국을 위해 우리는 그저 미친 듯이 일했다."
그가 박정희 시대를 회고하는 말이다.

"오 수석은 국보야"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움직이게 했을까.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발로였을까.

대통령 박정희는 권력에 굴종하는 충성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공직자들을 국익 창출의 전위에 내세우고 그들을 독려했다.

1977년 박정희는 창원기계공단의 방위산업체와 기계공장들을 시찰하고 한국이 현대 공업국가 탈바꿈하는 모습에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한턱 내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매우 기분이 좋아진 대통령에게 푸짐한 저녁을 얻어 먹었다.

그날 술을 한잔 걸친 대통령 박정희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한 경제제2수석 오원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오 수석은 국보야, 국보."

대통령의 공개적인 찬사에 얼굴을 붉어진 오원철은 참석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대통령의 신임은 바로 엘리트 관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부패비리에 대한 역발상의 특별상여금

사명감 높은 공직 사회에도 불명예스런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안동댐 건설 현장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하나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댐건설 등 민생에 직결되는 국토개발의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했다. 한달에 두번씩 들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었으며 직원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의 말을 잊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을 뵐 면목이 없게 된 것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통령에게 비리 보고를 하면서 머리 숙여 사죄했다.

듣고 보니 생계형 비리였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소."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예산담당 장관을 전화로 불러 한국수자원공사 전 직원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한 직원의 작은 허물로 국토개발 일꾼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리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일진대, 단순히 비리를 처벌하는 것과

박봉에 고생이 막심한 그들에게 상여금을 주어 격려하는 것 중 어느 쪽의 효과가 클까.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상여금이야말로 바로 박정희 특유의 인간경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박정희의 분신' 들

그 시대의 공직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밤잠을 설쳤어도 신바람 났었다."

수출 1백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의 상공부 수출 담당관(이동훈)이 하는 말이다.

"황폐했던 우리 국토가 푸르게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먹어도, 잠을 안자도 힘이 솟았다."

내무부 새마을 담당관(고건)의 말이다.

국가가 커가는 것이 보일 때 그들의 성취감과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냉혹했다. 인간경영에 전혀 사심을 개입시키지 않았다. 오직 국익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했다. 그는 이들과 때로 막걸리 마시며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고, 국익 앞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도 벗어 던졌다.

▲좌-빈곤에 허덕이던 한국 경제에 불을 붙인 장기영 제2대 부총리(왼쪽). '왕초' 라는

별명답게 실질 권한을 갖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이끌었다. 1967년 6월 AID차관 조인식 장면.
우-탁월한 이론과 질풍노도의 열정으로 2차5개년계획을 이끈 김학렬 제4대 경제 부총리(오른쪽). 경제기획원 내에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을 두고 포항제철 건설을 지휘했다. 그가 재임중 지병으로 사망하자, 박 대통령은 "내가 그를 죽였다"며 오열했다. 1970년 4월 포항제철 기공식 장면. ⓒ 국가기록원

▲좌-최장수 재무장관(4년11개월), 최장수 부총리(4년3개월)의 대기록을 세우며 박정희 정부의 후반부 9년 1개월간 경제핵심으로 군림한 남덕우 제6대 부총리(오른쪽). 수출 1백억달러, 국민소득 1천달러 돌파와 함께 쌀생산 4천만섬 돌파 등의 업적을 쌓는 데 성공했다. 1975년 10월 주한 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서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중앙),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왼쪽)와 담소를 나누는 장면.
우-1969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최형섭 소장(왼쪽)으로부터 KIST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형섭 소장은 KIST에서 5년, 그리고 7년간 과학기술처장관을 역임하면서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국가기록원

그런 대통령과 더불어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박충훈, 김학렬, 남덕우로 이어지는 경제사령탑과 과학기술연구소장 최형섭, 새마을운동본부장 김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건립에 기여한 대통령 특보 박종홍, 최고지도자의 통치철학을 보필한 비서실장 김정렴 등 인재의 행렬이 조국 근대화의 역정을 동행하였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대통령이 아닌 국가로 향했다. 박정희가 그렇게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고 사명감과 긍지를 높여 주었다.
조국 근대화의 성공을 이끈 인재들은 모두가 박정희의 분신이었다. 부하가 아니라 또 다

른 박정희였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4]

best

백민현

nagoya

공감 5

지금 우리가 누리고있는 이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당연히 주어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쯤 읽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10.09 11:49:30

공감 신고

백민현

nagoya

공감 5

지금 우리가 누리고있는 이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당연히 주어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쯤 읽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10.09 11:49:30

공감 신고

김장근

kimjk107

공감 2

또 한분 포철의 전설 ,분신 박정희! 그분들의 열정,희생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2009.10.10 08:55:26

공감 신고

남훈

nam1184

공감 1

박정희전대통령의 독재를얘기하는사람들은 김정일 의 독제에대해서는 모른체 합니다.

2009.10.11 21:54:51

공감 신고

김대홍

dickroh

공감 0

김학렬 부총리님은 '서거'하신 겁니다. 노무현 따위의 사기꾼은 '뒈진' 거고요.

2009.10.12 18:57:28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5천년 가난은 헛소리"에 대한 답글 [24]

[2009-10-11 00:51:50] 조회 1180 | 찬성 165 | 반대 5 | 스크랩 1

조토마 심재범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 가난을 극복하였다는 평가에 대하여 "헛소리"라 항변하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맞는 논리지만 근본적으로 옳지 못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니 이같은 인식을 갖는 모든 분들은 읽고 깨닫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 보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몇 가지 기술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 가축의 이용, 저수지의 축조와 관개 시설의 건설, 이앙법의 보급 등이 그 굵직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항구적이고 근본적으로 배고픔(가난)을 해결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성 향상의 정도가 백성 전체를 배 불리 먹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소작료, 군역의 의무, 관리의 수탈 등이 더하여 져서 세종 치세 등 극히 일부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홍수와 가뭄이 몇 년간 겹치기라도 할 때는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서양,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류가 배고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산업화 이후입니다. 기계가 인력과 축력을 대체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비약적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 왔고 이는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산업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라 할지라도 과다한 군사비 지출 등의 이유로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소련, 수백만의 아사자를 양산한 북조선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재범류의 사실 인식 -박정희가 5천년 가난을 물리쳤다는 말은 허구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배고픔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문명사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박정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아주 소박하며 표피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의 근본적 해결은 산업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산업화를 세계역사상 최단기간에 성공 시킨 지도자가 박정희이며, 따라서 박정희는 5천년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어느 필객이 대만과 싱가폴의 예를 들며 그들 역시 신생국이지만 우리 이상으로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정희의 공적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그러나 그런 비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만, 싱가폴은 우리처럼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으며,

국제 냉전질서의 최전방에서 극렬한 군사적 대립이 있지도 않았고, 물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깎아 내리는 부류들이 외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폴이 강력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용인한 것. 장개석은 1949 년부터 1975 년까지 대만을 사실상 종신 통치하였고, 싱가폴의 리콴유는 1959년에서 1990년까지 32년을 집권하였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외면하면서 박정희 18년은 독재라 비난합니다.

신생 농업국가가, 그것도 북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 자유와 인권, 노동자의 권익,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강력한 산업 부국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일 장기집권을 통한 국가의 중흥 및 국가안보의 보위와 자유민주의 완전한 보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땅히 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만과 싱가폴의 경우가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의 민주 제도는 당시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낱 교과서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유신에 대하여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박정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성공 시킨 불세출의지도자이며, 그 산업화로 인하여 5천년 가난이 극복된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도 다 같은 핏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지닌 같은 민족임에도 한 쪽은 여전히 기아선상을 헤메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그들은 왜 외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AG 박정희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4]

best

심철주

pascal59

공감 15

서재영님의 글을 오랜만에 대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이 뒷받힘 된 빈틈없고 명쾌한 논조에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역시 서재영님 다운 좋은 글입니다.

오늘 썰렁한 조토마가 한결 차는 느낌입니다.

2009.10.11 01:25:23

공감 신고

전문학

fight777

공감 8

아 거 다떨어진 새빨간 빨개이들 헛쏘리에 뭘 댓거릴하고 그러십네까?

헤이고 차암~~

2009.10.11 01:06:57

공감 신고

심철주

pascal59

공감 15

서재영님의 글을 오랜만에 대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이 뒷받힘 된 빈틈없고 명쾌한 논조에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역시 서재영님 다운 좋은 글입니다.

오늘 썰렁한 조토마가 한결 차는 느낌입니다.

2009.10.11 01:25:23

공감 신고

이찬희

netu

공감 0

헛소리 맞음

조선 경제사 읽어 보면 알겠지만, 순조이전까지는 조선민중은 배곯며 살지 않았다. 공부 않하고 글쓰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2009.10.11 02:02:35

공감 신고

이동훈

ldh5881

공감 6

이찬희 교수님!

순조 이전에 임진왜란도 일어났고, 병자호란, 정묘호란도 일어났는데,

백성이 배를 곯지 않았다구요?

교수님의 정통한 연구를 통한 과거 배불리 살았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에 대한 논문 한 편 읽은 기회를 좀 주시죠?

2009.10.11 03:29:14

공감 신고

서재영

jae1209

공감 3

이찬희님, 산업화 이전에 빈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계적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물론 조선 건국 초기 같은 경우에는 풍족한 삶을 누렸을 것이고, 로마의 융성기, 당태종, 강희제 등의 강성한 나라에서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풍요했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노예를 포함한 백성 전체의 삶은 그다지 풍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적 생산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10.11 08:44:27

공감 신고

서재영

jae1209

공감 3

물론 그런 것을 가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우리 역사에 적용한다면, 풍요롭고 강성하던 시기는 통틀어 5백년을 넘지않으며, 그마저도 근본적으로 풍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등, 강성기가 없지 않으나, 대체로 약소국의 지위를 이어온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몽골제국, 여진의 청나라 등에서 보듯 중원을 정복한 만주족은 민족이 소멸 되었으며, 거대 중국이 존재했던 동양 질서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운 민족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2009.10.11 08:52:21

공감 신고

윤준철

yjc8460

공감 1

이찬희씨가 교수라면?

1.시간강사

2.부교수

3.정교수

어느대학에 몇항에 맞는지가 궁굼 하네요?

가끔은.?

알고싶은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실례가 됐다면은 용서하시구요.

2009.10.11 10:20:54

공감 신고

황의택

moduga

공감 2

교수도 나름입니다. 내가 교수일지언정 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 이겠지만 ..... 심ㅈㅈ. 이ㅊㅊ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서재영님 글 잘 읽고 갑니다.

2009.10.11 11:41:58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09.10.12 00:37:09

공감 신고

이용수

bkw9658

공감 3

심재범..이찬희 빨상들은.....초근목피 라는 말을 모르시는가.??

초근목피 로 연명 했다는 말이.....무슨 말인가..?

저런자가.....교수라니....저런자에게 아이를 맞기고

그 비싼 등록금이.....아깝다....

좌빨 교수 잘못 만나서...아이 버리고..돈버리고....에구 에구

2009.10.12 10:50:26

공감 신고

이인손

inson2

공감 2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유독 좌빨교수들이 많았답니다.

학교재단자체가 기독교재단이라서 그런지, 그런부류의 감성적인간들이 많았지요.

한날에는 제가듣던 자연과환경과학이라는 교양수업시간에 교수님의 박정희비난에

복학생이었던 제가 당당히(?)반론을 재기하기도 하였더랬지요.

그 교수님의 반론은 성적으로 돌아오더군요. 젊은 시기에 참 세상더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과감히(?) 자퇴해버린기억이 나는군요. 6년전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찬희교수님을 보니 그분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2009.10.12 12:46:57

공감 신고

백민현

nagoya

공감 2

교수라...후~후~

돈만 쳐들이면 개나소나 되는게 교수라는게 작금의 세태이고 보면...글쎄요..

저야 뭐 별로 그런 양반들과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만...어느학교 무슨과목을 가르치는분 인지는 모르겠으나..학생들이 무얼보고 무얼 배울려는지.....

2009.10.12 14:35:22

공감 신고

박원규

rook444

공감 1

ㅋㅋ 참.. 제목부터가 가관이군...ㅋㅋ 이양반 대학교수라고?! 동아시아 발전론.. 개론서적만 봐도..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지 않는다.. 5천년 가난을 극복했다..라니..ㅋㅋ

이양반아.. 18세기 산업혁명이 인류전체의 오랜가난을 극복한거지..ㅋ
한국에서의 산업발전기도.. 이러한 공업혁명의 한 부분인거지..
5천년전과 단순비교해서..ㅋㅋ 5천년 가난을 극복했다니..ㅋㅋ

니같은 또.. 라이들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정당한 평가를 욕먹게 하는거야..
생각좀 해라.. 단순 산업생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전체가 급속히 발전한 것이지..
무슨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인것처럼.. 단순비교하냐..ㅠㅠ
2009.10.12 15:27:16

공감 신고

박원규
rook444
공감 0
쓰레기같은 이 글에 가장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만 5천년동안 가난했다...라는
식민지 사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니가 말하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가난" 이었다면...
중세 암흑기를 거친 유럽은 수천년동안 "거지" 였다는 거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 뭔 개같은 논리 들이대면서.. 박정희 욕먹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고.. 근거를 대야지..
뭔 5천년 가난을 극복했다는 개.. 소리들로 욕먹게 만드냐...

이런 정신줄 놓은 또.. 라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나름 옹호한답시고.. 설쳐대니까..
좌빨들이.. 보수를 미친걸루 오해하는거다.. 입닫아라 그냥..
2009.10.12 15:31:01

공감 신고

서재영
jae1209
공감 2
박원규님, 저의 본글과 댓글을 그렇게 이해하시다니 유감입니다. 정밀히 읽지 않은 것 같으며, 이는 저를 교수라 이해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어디를 보아도 제가 교수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에게 언어논술을 가르치는 강사에 불과하지만 허접한 교수, 빛나는 금뱃지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님의 지적처럼, 5천년 가난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역사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관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하여는 제 댓글에 부족하나마 해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10.12 15:44:41

공감 신고

서재영

jae1209

공감 0

다시 부연하면,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만주족과 중국민족(한족)이 세력 다툼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던 바, 고조선, 고구려, 대요, 발해, 원제국, 후금과 청나라 등은 중국과 대등하게 겨루거나 그들을 정복한 경우입니다. 그 외는 대체로 거대 중국의 존재 속에서 그들을 황제국으로 인정하며, 여타의 국가들은 한단계 낮은 왕국의 지위에 만족한 것이 동아시아의 역사입니다. 특히 발해가 망한 이후로는 만주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대중국 관계에서의 열세가 고착화 되는 것이지요.

2009.10.12 16:34:59

공감 신고

서재영

jae1209

공감 0

그 시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베트남 지역을 포함하여 거대 중국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사관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고, 한글을 창제하는 등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음은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점점 약화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2009.10.12 16:41:13

공감 신고

박혜숙

koeafighting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10.12 17:43:27

박양호

pyh04101

공감 1

박정희 비판 하는자 잘 듣거라 무슨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5000년의 가난을 물리 친 분이다. 박00아 니년은 무슨이유로 그렇게 시버리나 개 보다못한 인간스레기들이 너무 많다.

2009.10.12 18:27:09

공감 3

장개석 26년, 리콴유 32년 통치...

//장개석은 1949 년부터 1975 년까지 대만을 사실상 종신 통치하였고,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1959년에서 1990년까지 32년을 집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장기 집권 독재해도

그 정도 밖에 경제를 성장 못시켰으면

박정희와의 대비는 어불성설이고

성과 면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조그마한 도시국가 조그마한 섬나라 이것에

장기 독재를 해가면서 그 정도는

박정희의 치적에는 도저히 못 따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정희가 그 정도로 장기 집권했으면

지금쯤은 세계적 경제대국 5위 이내 들었을 것이고

김영삼 김대중 난동을 잘 해결 하고 국론통합 했으면

2009.10.12 19:21:09

공감 1

일본을 따라 잡았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분단국가에 북이 호시탐탐 침략을 일삼고

적국과 대치는 세계적 안보불안과

미국원조로 국가운영과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고

세계적 최고의 군사비를 들여가던 이 나라에서

이정도 발전의 근간을 만든 치적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박정희를 폄훼하는 무리들 무엇을 알고 탓하라!

2009.10.12 19:22:15

공감 신고

남미래

miraenam08

공감 0

저 사람이 교수입니까? 하하하 무슨 교수가 저래요? 순조 이전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 조선경제사에 나와? 어느 얼빠진 사기꾼이 쓴 책인지 나도 한번 봅시다. 하하하 아 미치겠네. 무슨 교수가 행간도 못 읽고 맞춤법 여기저기 틀리고 저렇게 단무지스럽냐? 교수가 아니라 야바위꾼 아닌가 모르겟네여

2009.10.12 20:21:48

공감 신고

남미래

miraenam08

공감 0

박정희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희망)-고속도로(물류인프라)-포항제철(생산재)-울산공단(산업재)-식량자급자족(통일벼)-조림사업(환경사업)-국학지원(고전읽기+세종대왕과 이충무공 배우기)-과학입국(오늘의 첨단과학 이룩)-기술인력 양성(기능올림픽 수십년동안 1등)-자주국방(국산 신무기 개발)-무형문화재 지원-....
이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사이래로 몇몇 분야에서 특출한 인물들이야 더러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처럼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예지력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례가 있었나?

2009.10.12 20:38:13

공감 신고

남미래

miraenam08

공감 0

1960년대에 박정희가 나타나지 않고
뻔뻔스러운 개대충과 영삼이가 똑같은 기간동안 대통령 해먹었다고 생각해 봐라.
저런 혁신과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을까?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반대하던 근시안들이다.
1960년대에서 40년이나 흐른 2000년대에도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 전근대적인 반동들이다.
노벨상 탐내면서도 국민들 상대로 도청까지 하던 위선자들이다.

오죽하면 당시에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해야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었을까?

그나마 박정희가 통치를 했기에망정이지

저것들이 대통령 했더라면 국론분열에 선전선동에 폭동내전에 가난과 증오와 절망에

우리나라는 캄보디아가 됐을거다

2009.10.12 20:43:24

공감 신고

안희태

htahn59

공감 0

서재영 님! 시원합니다. Gooooooood. Excellent!

2009.10.12 22:01:38

[chosun]

518광주폭동과 북한특수군부대 [7]

[2009-09-30 08:53:27] 조회 682 | 찬성 59 | 반대 3 | 스크랩 1

5.18 광주폭동과 북한특수군부대

1만5천이 넘는 탈북자 중에서 인민군 출신이 결성한 '자유북한군인연합회'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책 속에서 기술한 내용을 필자의 방식으로 간추려 보았다. 우선 탈북자 1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4%가 북한군특수부대가 5.18광주폭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나는 그들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5.18광주사태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나왔던 당시의 간부용 강연 자료를 보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관련해서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고 한다.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철도부문의 궐기운동)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 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광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 혁명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한 발언 중, “광주인민봉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 혁명전사”라는 표현이 바로 5.18광주폭동에 북한군이 파견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탈북자가 직접 듣고 보았던, 5.18광주폭동에서 활동하고 북한에 돌아가 엉뚱한 싸움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을 ‘공화국영웅’ 칭호와 함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묘지의 비문에 적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기술하였다.

“공화국 2중 영웅 고 장중한 동지는 1980년 5월18일, 남조선의 광주인민항쟁을 비롯해서 살아생전 당과 수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젊음을 바친 고 장중한 동지의 투철하고 고귀한 혁명업적은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애석하게 전사한 장중한 동지에게 영광이 있으라!”

북한체제는 광주5.18폭동에서 싸웠던 특수군부대요원들은 살아 돌아 왔건 싸우다 죽었건 모두 ‘공화국영웅’ 칭호를 주고 그 가족들까지 당에서 혁명전사나 조국통일의 본보기로 떠 받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지에 묻힌 사람은 기록에 의해 15년간의 특수훈련을 거친 일당백의 무서운 특수군부대 요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탈북군출신자들은 북한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5.18광주폭동’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질렀던 남조선 해방을 위한 인민봉기였다고 믿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비극적 사태를 모두 ‘민주화운동’이라는 포장으로 씌워 국민들이 김정일 집단의 한결 같은 대남적화야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한탄한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측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기술하면서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 쉽게 예를 들면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의 수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있다.

1) 6차례에 걸친 교도소 습격시도
2) 아시아 자동차 공장 습격 후 장갑차 2대와 수 백대의 트럭을 탈취
3) 훔친 트럭으로 30여 군데의 전남지역의 무기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 무기탈취

이상과 같이 조직적으로 훈련 되고 계획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사건들은 한 마디로 시민군이라는 조직이 고도로 훈련된 특수군인의 지휘가 아니었다면 그 활동들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에 시민군에 섞여 무기고를 털어 무기를 시위대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복면을 한 특수군요원을 이상하게 여긴 한 어느 20대 여성의 뒤를 추적하여 그녀와 같이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모두 권총으로 사살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읽고는 과연 광주의 5.18은 김일성이 철저하게 준비한 남조선해방을 위한 폭동작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발의 흰 복면을 한 국군복장의 북한국특수부대원이라면 당시의 혼란상이 어떠했는지가 짐작이 간다)

광주에서 싸웠던 북한군 모두는 광화국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자손대대로 대우를 받을 것이 약속 되어 있다는데 절대로 남조선에서 주저 앉을 리도 없고 심지어는 총상을 입은 요원들은 동료들이 폭탄을 장치하여 폭사시킴으로써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니 그 가공할 인간병기들의 광란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여성들만을 골라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흉포한 살인과 시체훼손을 저질렀던 그들이 모든 악마적 살상을 진압군인 국군의 살인극으로 덮여 씌우려고 국군의 복장으로 가장했었으니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국군 공수부대를 마치 살인기계로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곳곳에 광주폭동에서 죽었던 특수군부대 요원들의 묘지가 산재해 있다고 하며,

한 증언에는 함경북도 청진시 천마산 마루의 묘지에 다음과 같은 묘비가 있다고 전한다.

"여기 묻혀 있는 동지들은 1980년 5월, 남조선에 파견 되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산화하였다."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광주의 5.18폭동을 단순히 "민주화운동"으로 부름으로써 김일성 집단이 저질렀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파괴 범죄를 묻어 주려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당시에 광주시민 혹은 그 비극적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거나 육신을 다쳐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들을 罵倒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들 모두는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진 폭동의 희생자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임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김일성 김정일 집단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용하였던 광주5.18폭동을 오직 민주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순수한 시위였었다고 주장하려는 억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광주5.18에 북한군이 침투되어 국가혼란을 목적으로 극악무도한 살상행위를 저지르고 그 모든 광란의 殺傷 劇을 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국군이 민주화세력에 반하여 총질을 해댄 살인자쯤으로 각인시키려 했던 흉계는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광주5.18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결국은 그 비극적 사태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하거나 협력했던 대한민국 내의 불순세력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은 저 비극적 광주5.18폭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히 대한민국 最近世 역사의 大 反轉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없는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은 모두 수박 겉핥기라고 봐야 한다. 이상.

TAG 518광주의 진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7]

공감 3
강력추천!!!!!!!!!!
2009.09.30 10:25:40

공감 신고

이강석
tty42
공감 5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09.30 11:08:47

공감 신고

공감 3
삭제된 글입니다.
2009.09.30 14:26:49

공감 3
나의 이 글을 읽고 어떤 자는 "애국지사들은 성정태를 제거하라"고 마치 간첩이나 빨치산이 지령을 내리듯이 글을 써 놓았지요. 그가 말하는 애국지사가 무슨 애국인지 참 궁금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민족, 통일, 민주, 애국, 평화, 공존, 화해, 상생 등 듣기 좋은 말은 온통 입에 달고 사는 불순분자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화부대들이 그 주종이지요. 진실이 밝혀 지는 것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한반도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중이라고 하지요. 월남처럼 사라질 것인지,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중대한 고비길에
2009.09.30 19:39:06

공감 신고

공감 3
접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이라는 몸사리기 발표는 이 땅의 진정한 애국지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앉겨 주었습니다. 5.18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이 확고한 법치주의하에서 이념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는 지도자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향해 목숨을 걸지 않는 지도자에게 바랄 수는 없는 엄청난 역사재조명 과제이니까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민들이 받을 업보는 나라 잃은 보트피플신세 일 것입니다.

2009.09.30 19:47:22

공감 신고

공감 1

애국 지 사가 아니라 !!! 적화통일의전사들은 !! 으로 바꾸어야 하갯지요 !!! 아니면 향우회전사들은 이라고 바꾸든가 참 !! 제목을 보고 읽도 안았는데 역시 성정태 님!! 을 제거 하라는 제목을 보고 한참을 웃엇읍니다 !!! 역시 성정태 님은 진정한 애국자 라는걸 알수있읍니다 ! !!!

2009.10.01 13:56:07

공감 신고

공감 1

김규용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글을 쓰면서 자유북한군인연합희 사람들이 몇번이나 강조했듯이, 추호도 광주5.18비극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들의 명예를 거론하기 위함이 어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진정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선전선동요원들이 5.18 3개월 전에 이미 전남광주 지역에 남파 되어 모든 준비를 사전에 해 두었다가 5.18에 시위를 시작하도록 했고 특수군들은 자신들의 신분탄로에 극도로 경계하였다고 하며 사태가 여의치 않자 신속하게 뒷수습을 하고 바람처럼 북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또 망월동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무덤이 남파군인들일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답니다.

2009.10.01 15:39:40

공감 신고

공감 1

성정태님이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아주 추악하고 위험한 한국 현대사의 문제사입니다. 당시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적절히 대처했던 것을 김대중 집단이 서방을 끌어들여 민주화 운동인양 떠들고 사기친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죽기를 각오하고 밝혀야 성공하고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간첩 세력 잔당들 아직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 위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냉전은 해빙으로 위장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한반도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이라 이명박 정부 코너에 퍼서 올렸습니다.

2009.10.02 01:27:19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김대중은 누구인가? (4) [11]

[2009-09-15 15:16:51] 조회 1796 | 찬성 181 | 반대 7 | 스크랩 0

그가 주장하고 그로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받게한

햇빛 정책은 실패하였다.

핵무기로 돌아 왔으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핵무기 제조 자금 공급책 노릇을 했다..

인민은 굶어 죽고 목숨 걸고 탈출하고

여자들은 이리 저리 팔려 다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민들은 외면하고

억압 받고 고통 당하는 인민들의 인권에는

말한마디 못하고

(김 정일에게는 따뜻한 햇빛이지만

인민들에게는 차가운 바람이었다.)

김 정일에게 퍼주고도 눈치보고 쩔쩔매고

서해에서는 우리의 장병들이 죽어 가는데

적군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군의 죽음을 짓 밟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도 짓밟고

동해에서는 유람선을 보내는 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족들이

나라를 등지고 한을 품고

나라를 떠나게 만든 자,

미 전향 골수 간첩, 경찰관을 죽인 자들을

민주화 투사로 상을 준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이나라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역적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는 왜 그랬는가?

급하고 아쉬운 것은 북한이고

우리는 하등 급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퍼주면서 눈치보고 쩔쩔 맸는가?

붉은 물로 물들은 민주노총, 전교조와 한패가 되어

지금도 이들이 거리를 짓밟고

이 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할 말 다하고 할 짓 별 짓까지 다하고

큰 소리는 다 치면서

독재라고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의 말씀인가?

아니면 어느 치매 노인의 망발인가?

이런 자를 따르는 민주당 놈들의 하는 짓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적 같은 놈들인가?

미국은 이 나라를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의 6,25 남침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막아 주고

지금도 핵무기로 위협하는 가장 호전적인 자들로 부터

우리를 지켜 주고 있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고맙고 고마운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반미 데모 촛불 집회에 앞장 서고

소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미국 쇠고기 반대에 앞장 서고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국가의 큰 수치인데

이를 국민의 수치로 만들더니

이제는 자기들 만의 미디어 법에 목을 매고

국민도 국가도 없이

거리에서 저 발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역적인가?

국회의원들이 등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일인가?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받아 먹고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이들이 바로

김 대중의 후예들이 하는

짓거리이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1]

best

공감 15

김대중 은 누구인가?? 뭐!뻔할뻔자 뻘갱아니요!!!!!!!!!!!

2009.09.16 07:01:30

공감 신고

공감 15

김대중 은 누구인가?? 뭐!뻔할뻔자 뻘갱아니요!!!!!!!!!!!

2009.09.16 07:01:30

공감 신고

공감 10

ㅣ김대중씨는 서민적이고? 국민의 희노애락을 잘알는 훌륭한 서민적 정치인이었다나/ 어떤여배우는 아침먹기로 했는데 다른사람과 더일찍만나서 아침을 먹는바람에 또자기와 아침을또 먹는 그런 순수하고 약속을 지키는분이었다고? 그게 겉과속이 다른인간이지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있다는우리의 속담 틀림이 없습니다. 서해안한국해군과 이북함정간의 교전때 전사하신,전사자가족들에게 한일들. 고 한모중사의부인은 미국에 망명?해서 5년간, 불법체류자로,거지생활하다가 독지가의 도움으로 정권바뀐후에

귀국햇어요. 전사자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게한 김대중을 생각하면,
어눌한행동과 음흉한 인상과,겉과속이 전혀다른 인간,
2009.09.16 11:55:51

공감 신고

정수현
arcady2
공감 1
인권은 말한다고 찾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각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인권을 돈에 비교하면 쉽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돈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서 써야 그 가치를 한층 더 느끼는 것입니다.

인권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돈보다도 더 철저히 자신이 벌어서 쓸수 있어야
자신의 인권을 항상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2009.09.16 15:45:58

공감 신고

공감 6
님이 누구던 정쑤현시 말을 들으면 폐가망신 씨킴니다,,너므효님께서리..뭐든지 정수현씨의
의견과 다른기 정답입니다,,우에 수현씨는 할말이 없은께로 헛소리하는 타자를 쳣군요..
2009.09.16 18:17:15

공감 신고

공감 7
제갈지팡이를 보면 민주당 구케위원이란 늠들이 어떤 늠들인지 다 안다.
2009.09.17 18:59:33

공감 신고

임광덕
tnrnrhfxhd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9.17 23:50:21

공감 4
김 대중은 누구인가? 나타난 것만 3父之子 이요. 더 확실한것은 그 어미가 알고 있겠군요.
2009.09.18 00:25:42

공감 신고

공감 5

한마디로 더러운 ㅌㅌ

2009.09.18 13:16:51

공감 신고

공감 3

뛔중님 이름 막쓰면 고소한데유.....앞으루 뛔중님이라구 쓰셔유...

2009.09.19 09:46:45

공감 신고

공감 1

정수현씨 여전하시군요. 정일창씨나

2009.09.19 14:14:27

공감 신고

공감 3

지금도 그때 그당시가 뇌리에 떠 오릅니다. 배고프고 지친 모습의 노숙자 뒷편에 바람에 나불대던 대중이의 노벨평화상 축하 플랭카드...참으로 역겹습니다. 호남인들의 맹목적인 세 를 등에 업고 이러저러한 갖은 개인의 축적...가만히 한번 따져 보노라면 그치의 인간성을 담박에 알수가 있지요. 아마도 그양반은 적어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씁스럼하지요.....

2009.09.24 15:55:15

공감 신고

공감 2

김대중은 누구인가??? 선동의달인/ 숨쉬는것외는 모두거짓말의달인/앞으로는 안받는것처럼 뒤로는 주는대로 낼름낼름 잘도받아챙기는 천재적인 달인/ 개정일를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우리국민들에게 추겨세우는 달인/지역을 아주 교묘하게이용고 국민을 잘속이는 달인/

2009.09.29 10:45:26

공감 신고

[chosun]

[박정희 사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7]

맹수옥(suok1113) [2009-10-08 12:59:09]

조회 1172 | 찬성 81 | 반대 2 | 스크랩 1

(임용섭님이 일전에 올린 사진을 퍼서, 저의 감상평과 함께 올립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

박정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랬다....
그의 모습과 그의 미소와 그의 웃음이 바로 이랬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겸허하고, 너무나 소탈하고,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강직하고, 너무나 다재다능했던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감화를 주는 인간적이고 강한 지도자의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다.

김대중 사기조직으로부터 박정희는 '비인간적인 독재자'이며 김대중은 '뛰어난 민주투사'라는
세뇌를 당한 고교시절 이후,
나는 박정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부정했었다.

그러나 직접 겪어보고 당해보면서 그들의 선전 공작이 너무나 허위라는 사실을 하나씩 깨달아갔다.
모든 것이 그들의 말과 반대였고, 뒤집어진 진실이었음을 경험과 시간이 증명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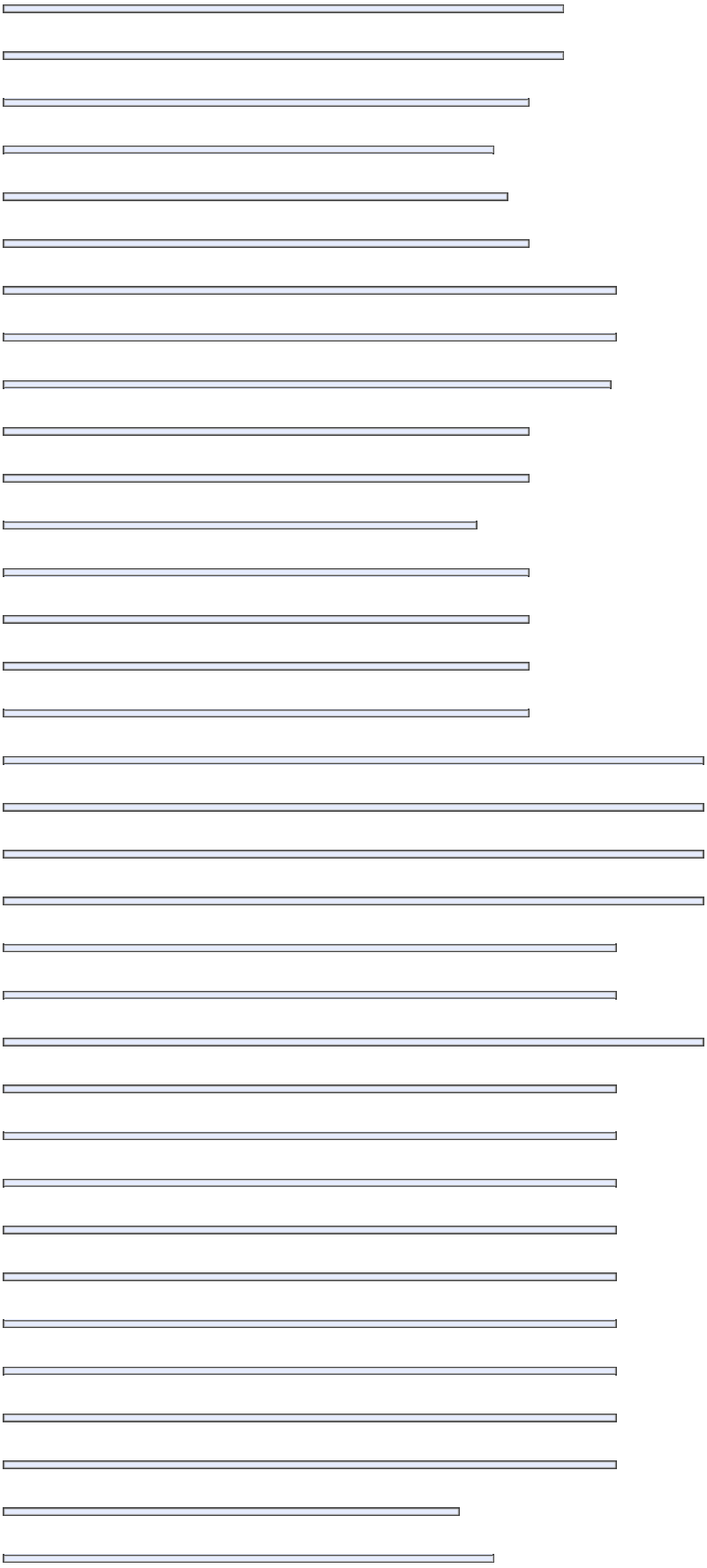
박정희에겐 뛰어난 지적인 실력과, 넘치는 능력과, 숨길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후광 효과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돈과 정치 거래로 얻는 명예박사 학위도, 노벨상도 필요하지 않았다.
누구처럼 속임수와 술수를 통해서 도둑질한 노벨상 따위는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것이었다.
누구처럼 평생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유명인들 옆에 붙어서 그들과 같은 반열인양 사기치기 위해,
온갖 거짓과 술수로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민주.인권투사 흉내내는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다.
누구처럼 학력 콤플렉스를 은폐하기 위해 세계 유명인들과 친한 척하는 쇼쇼쇼를 연출하고
그들 옆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광고하는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남의 힘에 빌붙어 누리는 후광 효과가 필요 없었다.
박정희에게는 '호가호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여우가 호랑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호랑이의 힘과 권위를 마치 제 것인 양 우쭐대는
사기 쇼쇼쇼가 필요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사랑....
그에게는 남의 눈과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의 진실과 충정이 더욱 중요했다.

그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에게는 사랑하는 국민과 국가가 전부였다.
국민에게도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었다.
국민 모두가 박정희와 육영수 두 분을 그리워 함은
두 분을 잃을 준비가 안된 국민들에게서 억지로 강제로 빼앗아가버렸기 때문이다.
두 분을 국민들 가슴에서 강제로 억지로 떼어내려 획책사주했던 숨어 있는 범죄 세력들은
그 두분을 황망하게 잃는 슬픔과 상처를 국민의 가슴에 남긴 그 사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음을 머지않게 깨닫게 되리라.

이제 적화 세력들이 덧칠하고 뒤집어씌운 거짓의 베일을 벗기고
박정희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내 볼 때가 가까왔다.



TAG 박정희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7]

best

맹수옥

suok1113

공감 10

이강석, 임광덕, 이찬희 외 몇명

김대중 사기조직과 북한 간첩 공작 선전선동부대 세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네요.

점조직 세포로 활동하는 그대들, 조토마에서도 열심히 도배질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거 때때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북조선 간첩계 사기범죄 조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당신들 조직이 하는 사기 짓거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박정희 암살에 당신들 조직이 배후라는 거 모두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10.08 17:04:47

공감 신고

이강석

tty42

공감 1

박정희 향수를 우매한 군중을 유혹하려는 수법은 북한식 수법인데????

박정희 죽을때 딸같은애들 데리고 맨날 주지육림에 놀다 부하총에 사살 되는 장면은 어찌 없나요^^*

2009.10.08 15:12:32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0

이강석, 임광덕, 이찬희 외 몇명

김대중 사기조직과 북한 간첩 공작 선전선동부대 세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네요.

점조직 세포로 활동하는 그대들, 조토마에서도 열심히 도배질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거 때때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북조선 간첩계 사기범죄 조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당신들 조직이 하는 사기 짓거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입니다.

조심들하세요.

박정희 암살에 당신들 조직이 배후라는 거 모두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10.08 17:04:47

공감 신고

백민현

nagoya

공감 3

귀한사진들이네요...

맹수옥님..말같지않은 소리엔 일체 대꾸하여 말 섞지마세요....백날 얘기해야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

입니다..

2009.10.08 21:41:16

공감 신고

이미순

ljk0211

공감 3

이거 보니 눈물이 나네요....

개뒈중이 빨리 파내야 할텐데....

2009.10.09 00:15:04

공감 신고

임광덕

tnmrhfxhd

공감 0

박정희 본처 사진은 빠졌네...

후처 뒀다는 것이 업적이며 더 자랑거리였남?

2009.10.09 00:25:24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

마누라 죽이고 이대 출신 후처 이희호 들여 놓은 김대중 이야기하는구나.

상고졸 건달이 학력 콤플렉스 못 이기고,

마누라 학벌 덕으로 표 수준 좀 높여 보겠다고,전처를 죽인 살인자가 니들 주군 김다이쪼였느니..

2009.10.09 00:42:53

공감 신고

임광덕

tnmrhfxhd

공감 0

맹수옥 /미/친/년 은 남의 이름 함부로 들먹이지말고

네/년 가랭이나 잘 간수하거라!

2009.10.09 00:47:51

공감 신고

이찬희

netu

공감 1

왜 피날레로 죽은 모습은 없나요?

기생의 치마 폭에서 양주잔에 피를 토하고 죽어간 그 가련한 모습말입니다.

낮에는 저 위선적인 모습으로 민중을 속이고, 남에는 채홍사를 동원하여 젊은 아이들을 양주파티의 안주로 삼아겠죠 ㅎㅎ. 반항하는 자는 모두 고문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또 일부는 죽이고, 북에 김일성이 있었다면, 남은 친일 독재자 그리고 기회주의자 박정희가 있었죠.

2009.10.09 02:30:53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3

임광덕, 그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니 댓글 그대로 둔다. 내가 원래 왠만하면 존칭어 쓰거든. 예외로 한다. 왜 전처럼 ---를 찟어서 제거하겠느니 소리는 안하누. 다신 조선일보 한 자도 안본다더니 자기 말도 씹는 것들의 말을 누가 믿겠냐만...

그 피날레 그대들 수뇌부가 암살계획하고, 부도덕한 권력자 이미지로 낙인찍어 죽이려고 사전 계획해 만든 암살현장이잖소. 그러나 그런들 박통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그런 연출 장면에 속나.

그대들같은 사기꾼 건달들 눈에는 김대중 같은 사기꾼 건달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장교 출신의 박정희의 진실이 보인다.
자기 수준만큼 본다는 사실

2009.10.09 07:22:35

공감 신고

박성규

sgpark8144

공감 0

댓글 다신분들.... 참...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과는 철천지 원수집안일 듯...

2009.10.09 10:22:26

공감 신고

김성복

qhrrlfdl

공감 1

여기 모심기 사진에 저의 사진도 올라왔네요! 40년전,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사심없이 오직 조국

의 민족중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신분이 었는데... 후일 역사는 분명 당신을 대한민국의 참된 지도자요! 민족의 큰 영웅이 셨다고 말입니다! 부디 모든 걱정이랑 접으시고 평안히 잠드시옵소서!!!

2009.10.09 17:16:58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1

김성복님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제대로 밝혀질 겁니다.

그럼 저 세상에서 행복하실 거구요.

2009.10.09 17:55:49

공감 신고

남대우

ndw007

공감 1

욕하기 싫어 댓글 안달려 했건만 여기서 그냥 지나칠수가 없구나

광덕이 이넘, 발칙한 넘,

니넘에 ㅇ ㅇ ㅇ 나 가랭이 간수 잘 시키거라, 이 고얀넘아 -

2009.10.09 22:38:19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0

남대우님 감사합니다. 토론방에 몇명의 문제 인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듯 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2009.10.10 00:07:02

공감 신고

김장근

kimjk107

공감 0

우리의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도 잊고 지상최고의 가치가 민주로 착각하고 산 세월이 어언 수십년이

면 이제 알만도 한 나이가 되었을 텐데...., 철없던 먹물도 아니고 살만큼 살아봤으면 밥을 먹어야 민주를 논할 수 있다는 진리를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지 , 그 편협한 사고와 굴절된 역사의식 진실을 거짓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 몸부림이 측은합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물고 뜯어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민들의 가슴에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각인되어 있읍니다

2009.10.10 08:34:16

공감 신고

맹수옥

suok1113

공감 0

김장근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마치 절대적 가치인양 오해하고 있는, 철학과 학식이 부족한 자들이 민주주의만 입에 달면 민주주의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자를 어찌 독재자라 욕을 합니까.민주가 절대가치라면 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을 제재하는 것은 민주적 독재이지요.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독재도 필요할 때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지한 저들만 모르고 있네요.

2009.10.11 12:24:07

공감 신고

정양원

jyw129

공감 0

ㅋㅋㅋㅋ 아나 진짜 이런 사진 박정희 밖에 없나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ㅋㅋㅋㅋㅋ

진짜 조선닷컴에는 미친OOO새끼들만 가득해 아나 ㅋㅋㅋㅋㅋ 친일, 독재자 찬양이나 하고 지금이 해방 몇십년이 지난 시기인데도 어디 그런 개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지 아이고 정말 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ㅠㅠㅠㅠ

2009.10.12 19:18:28

공감 신고

[chosun]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2009.10.12 19:57

Sent : Saturday, Dec 20, 2008 03:01 PM
Subject : * * List 0f Latin Musika * * 081220 * * [88] * *

From : 박승진(playa88@empal.com)
To : playa88(playa88@empal.com)
Sent : Sunday, Dec 07, 2008 06:10 PM
Subject : [List 0f Latin Musika] - 081208

LATIN MUSIKA - 081231 - [88]

- - http://www.webcamstube.com/videos/464/self-film.html

- - http://www.submityourflicks.com/videos/1741/mansion-masturbation.html

- - (from 20:45)

- - http://www.moviesand.com/videos/8110/beautiful-agony-hot-blond.html

LATIN MUSIKA - 081220 - [88]

- - http://galleries.nubiles.net/mgpbig/ela/teen-pantyhose/?coupon=794798&e=1&l=1&t=1&n=1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 * List 0f Latin Musika * * 081220 * * [88] * *

- - - - DONG - - http://www.18qt.com/ - - DONG - - - -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AlisonAngel/3/87/1778356

- - http://www.bigtimegals.com/ftv/ftvgirls6/emily/voMTGMxo/

- - - - DONG - - http://www.crocmovies.com/mainpage.shtml - - TOTAL

- - - - DONG - - http://www.crocmovies.com/st/niches/grannies.shtml

- - - - DONG - - http://www.uhfuck.com/main.shtml - - DONG - - - -

- - - - DONG - - http://www.ftvthumbs.com/ - - DONG - - - -

- - - - DONG - - http://www.magicsolos.com/ - - DONG - - - -

- - - - DONG - - http://www.dearerotica.com/masturbation_movies.shtml - -

* * 081128 * *

- - dong - - http://www.maturesl.com/ - - dong - - - - dong - - http://www.sexvideohq.com/ - - dong - - - - dong - - http://www.dailyniches.com/ - - dong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7671/miss-russia-2006-scandal.html

* * 081125 * * - - dong - - http://www.ftvmovs.com/ - - dong - - - -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Lia19/1/61/1778356 - -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11/180/1778356

* * 081120 * *

- - dong - - http://www.hmvideos.com/page=12.php - - dong - - -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3917&p=12

List 0f Latin Musika * * 081101 * * [88]

[List 0f Latin Musika]

[List 0f Latin Musika]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List 0f Latin Musika]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 * 081115 * *

- - dong - - http://freeporncollection.com/ - - dong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1499/webcam-pussy-play.html

- - dong - - http://www.ftvangels.com/ - - dong - -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katelynn/ftv_style_day/6/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jm2/big_ten/4/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amy/milky_wet_orgasm/2/clip3.html

* * 081111 * *

- - - - http://xhamster.com/movies/55664/sleeping.html - - dong - - http://www.littlethumbs.com - - dong - - - - - - - http://www.8teeners.com/ftvgirls/475/overxxxed.html - - - - http://www.8teeners.com/ftvgirls/466/overxxxed.html - - dong - - http://www.myamateursite.net/ - - dong - - - - - - - http://galleries.nubiles.net/mgpbig/ela/lesbian-teens/?coupon=794798&e=1&l=1&t=1&n=1 http://www.littlethumbs.com/mgpbig/paula/female-pics/?coupon=794798&e=1&l=1&t=1&n=1http://galleries.nubiles.net/mgpbig/carry/Nubile-Perfect-Teens/?coupon=794798&e=1&l=1&t=1&n=1;Adorable - - - -

* * 081029 * *

- - dong - - http://www.truepornotube.com/ - - dong - - - - - - http://xhamster.com/movies/18771/young_men_fucked_young_girl.html

* * 081101 * *

- - dong - - http://www.petesthumbs.com/ - - dong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7879/virgin-gets-it-up-there-for-the-first-time.html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2432/motel-lesbo-pussy-play.html
- - - - http://www.submityourflicks.com/videos/3205/-brunette-teen-masturbating.html

- - dong - - http://www.arionmovies.com/ - - dong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 - - - http://xhamster.com/movies/69236/turkish.html

* * 081026 * *

- - dong - - http://freeporncollection.com/ - - dong - - - - - -
http://www.submityourflicks.com/videos/1930/gyno-exam.html - - - -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3752/loving-myself-and-getting-wet.html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1262/tight-blonde-in-the-woods.html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6823/accidental-creampie.html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717/blonde-plays-for-her-webcam.html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5159/mature-brunette-fucks-like-wildfire.html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4669/closeup-clit-masturbating-(part-1).html

* * 081019 * *

- - pics - - http://www.metart-models.com/ - - pics - -
- - dong - - http://www.ftvangels.com/ - - dong - -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shelley/accountant/2/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erika2/not_so_shy/34/index.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carli3/not_a_nude_beach/4/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erika4/summer_sports/4/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meggan/between_the_legs/6/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maria/sexy_squirter/4/clip3.html

- - dong - - http://www.oxotube.com/ - - dong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 * 081025 * *

- - dong - - http://www.homepornlinks.com/ - - dong - -

- - dong - - http://freeporncollection.com/ - - dong best - -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940/tight-mom-playing-with-herself.html

- - - - http://www.moviesand.com/videos/4669/closeup-clit-masturbating-(part-1).html

* * 080928 * *

- - - - http://www.amateursclips.net/ - - - -
- - - - http://videosexart.com/ - - - -
- - - - http://www.thesextubesite.com/ - - - -
- - - - http://www.pornjoy.com/?id=trafficholder.com - - - - - - http://www.pornjoy.com/videos/41/9413/

* * 080921 * *

- - - - http://www.home-made-videos.com/ - - - - - - http://www.home-made-videos.com/263/horny_teen_fingering_her_wet_pussy.html

- - - - http://www.pornorama.com/ - - - - - - http://video.pornorama.com/video10650/Holy_Grail,_Kristy_(Erin_McNish) - - http://video.pornorama.com/video51894/Maria_Hardcore_Fuck_1

* * 080914 * *

- - - - http://www.rudepost.com/ - - - -

- - - - http://www.arionmovies.com/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 * 080913 * *

- - - - http://www.fuckingteenvids.com/ - - - - - - http://galleries.payserve.com/1/36326/11528/index.html

- - - - http://www.teen-series.com/ - - - -

- - - - http://www.6vids.com/ - - - - - - http://galleries.loveminiskirts.com/vids/068/t=1?nats=ODQ6Mjo1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8/369/855002 - - http://galleries.paperstreetcash.com/si/146/?nats=OTIzOjc6Mg,0,0,0,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7/243/855002

* * 080912 * *

- - - - http://www.hornycottage.com/ - -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id=trafficholder.com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29/7679/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02/8223/
- - http://www.xvideos.com/video49666/Two_Nuns_And_A_Priest

- - - - http://www.amateursclips.net/ - - - -

- - - - http://topamateurvideo.com/ - - - -

- - - - http://www.igotmovies.com/ - - - - - - http://www.sticking.com/videos/kinky-lesbians-668.html
- - http://videoxlist.com/movie/t/289/2_b_/2/41289/extremely_hairy_kati.html

* * 080911 * *

- - - - http://www.rawgonzo.com/ - - - -
- - http://www.pornhub.com/view_video.php?viewkey=6b52dab048d5a58c2838
- - http://www.pornhub.com/view_video.php?viewkey=c3c5aa9ec22b89e1af9a

* * 080909 * *

dong - - - - http://www.galls.in/ - - - - dong

dong - - - - http://www.fuckerville.com/?ref=homemadepostings.com - - - - dong

dong - - - - http://only40.com/ - - - - dong - - http://only40.com/movie/t/503/3_b_/9/48503/after_cumming_my_pussy_wideopen.html

dong - - - - http://www.homemadepostings.com/ - - - - dong - - - - http://www.maxporn.com/pornvideos/7339/Sexy_and_Sensual_Babe_Masturbates_for_Us.html - - beauty like SunMae

* * 080906 * *

- - - - http://www.freepornup.com/c/faces/ - - http://www.teendreams.com/tgp/707/naomi/naomi12yev.html - - http://www.teendreams.com/tgp/707/naomi/pics/13.jpg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art_sk_61_270/?pa=994058 - - http://hosted.met-art.com/met-art_sk_61_270//full/met-art_sk_61_14.jpg

dong - - - - http://www.bestmaturewomen.com/ - - - - - - http://www.moms-explorer.net/movie/3010349.eva/index.html/registr - - http://impishgrandma.octopusgalls.com/0105403/index.html/1073144

dong - - - - http://www.miateens.com/ - - - - - - http://galleries1.creampiemodels.com/hosted/mgp/020012/?nats=NjU4MjozOjIz

dong - - - - http://mommiesvids.com/ - - - - - - http://www.mommiesvids.com/store1/Son_Cums_Inside_His_Mother61296.php

dong - - - - http://mummyfuck.net/ - - - - http://mummyfuck.net/

total - - - - http://www.topnudegalleries.com/ - - - - total - - - -

http://www.pichunter.com/movs/hairy.shtml - - http://shadow.atkingdom.com/736/pichunter.htm - - http://shadow.atkingdom.com/746/pichunter.htm

pics - - - - http://www.teenboat.com/st/niches/mature.shtml - - http://www.bravoporn.com/updates/2007-01-08/52e959/ - - pics

- - - - http://www.uhfuck.com/st/archives/archive0.shtml - - - - - - http://www.uhfuck.com/movies/homemade/ - - - - http://www.hostave3.net/hvv/fhg/225gvi/index.html?id=danilax123

* * 080828 * *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cdn.lsgmodels.com/tmpl/fhp2.php?gid=26&w=1675489 - - http://hosted.femjoy.com/galleries/111193_ixs870_ius680/?affid=1006363 - - http://www.mc-nudes.com/fhg2/fhg.php?f=Isabella_hTa&ccid=990554

pics - - http://www.karupsdb.com/tgp.php - - pics - - htt p://private.karupsow.com/karupspc/4ba175882/index.html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art_AF_618_134/?pa=208436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8/anya_daydream/index.htm?affid=584950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7/svetlana_exquisite/index.htm?affid=584950 - - http://hosted.met-art.com/Trial_met-art_AF_509_340/?pa=208436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 - http://hosted.met-art.com/met-art_MKE_49_473/?pa=994058

pics - - http://eros-and-grace.net/ - - pics

http://videoxlist.com/ -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358/3_b_/1/46358/hairy_milf_masturbate.html

http://www.mpggalaxy.com/?id=trafficholder.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hmvideos.com/ -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54 - - - -
http://xhamster.com/movies/37422/mature_woman_showing_her_big_clitoris.html
http://movies-city.com/
http://www.mpegjoy.com/
http://www.madtubeporn.com/?id=clickpod.com
http://www.homevideosblog.com/?id=trafficpod.com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http://18pornmovies.com/ - - - - - -
http://18pornmovies.com/video/e/b/ebf956/interior_perspective__webcam_in_pussy.php (shot with camera in pussy)
- - http://18pornmovies.com/video/4/a/4a7f0e/squirt_woman.php
http://www.sex-hdvd.com/ - - - - - - http://girls.twistys.net/preview/015/?t6/nats=stealth191:revshare:twistys/
http://www.bestmaturewomen.com/
http://www.vip-moms.com/?ref=bestmaturewomen.com
http://www.bestmaturewomen.com/ - - - - - - http://www.boobcontent.com/tgp/cm/116sg/vids/v2-7.php?nats=MjIyOjI6Mg,0,0,0,1401
http://www.thefullvideos.com/
http://www.moms-vids.net/
http://www.moms-vids.net/
http://wetmummy.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31378/sara_pee.html

- - 080817 - -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111/hot_and_horny_teen_plays_like_crazy_on_webcam.html
http://www.arionmovies.com/ - - - - - - http://www.tube8.com/hardcore/anita/33274/
http://www.porn.sc/ - - - - - - http://free.porn.sc/video22279/Nea_in_Bedroom_Toy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31245/Very_cute_Kristina_-_HOT! - -
http://free.porn.sc/video10173/Cam_inside_my_pussy_1_(_european_) (shot with camera in

pussy)

http://www.xnxxmovies.com/ - - - - - - http://xxx.xnxxmovies.com/video6310/Arabian_Kuwati

http://www.easysextv.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29755/best_college_girl.html

http://www.bestmaturewomen.com/ -http://www.sunnygalleries.com/static/sleazymatures/index.php?aid=1717&pid=12&gid=82&c=A - - - - http://galleries.payserve.com/1/38605/17418/index.html

http://www.hmvideos.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655/young_teen_girl_show_masturbating_and_rubing_clitoris_on_cam.html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357 〉〉- - - -

http://xhamster.com/movies/14337/free_clitoris_enlargement.html

- - 〈〈080823 〉〉- -

http://www.bestpornthumbs.com/ - - - - -

http://videoxlist.com/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977/10_b_/3/38977/She_Came.html

http://allrusamateurs.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55536/lesbian_teens_3_-_part_1.html

http://www.mpegjoy.com/?id=allrusamateurs.com _ _ _ _ - -

http://xhamster.com/movies/41826/german_milf_teacher.html

http://www.homesexnews.com/ -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Total - - http://www.uhfuck.com/freepics.shtml - - pics &dong - - - - - - - - -

http://www.uhfuck.com/movies/pussy/ - - - - - -

http://galleries.ocreampies.com/movies/0107_cute_creampie/?nats=MjI2OjExOjU,0,0,0,552 - -
http://galleries.givemepink.com/nina/01/m1/683460/19/9/n/index.html - -
http://galleries.givemepink.com/bambi/05/m1/683460/19/9/n/index.html

Total - - http://www.bravovids.com/tgp.shtml - - pics &dong - - - -

Total - - http://www.lovelyclips.com/ - - pics &dong - - - -

- - - - http://www.nubiles.net/?coupon=822011 - - - - - - http://www.nubiles.net/harmon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el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alett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conn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fiv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franzisk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ashton.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rib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carr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kyr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loren.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kar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melissa.html?coupon=822011
- - - - http://www.porn.sc/ - - - - - -
http://free.porn.sc/video22279/Nea_in_Bedroom_Toy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45639/Paula_Dress_Dildo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18707/Diana_in_Dildo_and_Red_Couch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42241/Janelle_Skirt_and_Toy_at_Nubiles - - Sunmae - - - -
http://free.porn.sc/video27632/Ginger_in_Toy_Fun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8275/Austin_in_White_Vibrator_Video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5115/Virgin_Pussy_Angie - -
http://free.porn.sc/video4986/Brunette_Playing_Silver_Dlldo

- - - - http://www.uhfuck.com/movies/pussy/ - - - - -
http://galleries.ocreampies.com/movies/0107_cute_creampie/?nats=MjI2OjExOjU,0,0,0,552 - -

http://galleries.givemepink.com/nina/01/m1/683460/19/9/n/index.html

* * 080828 * *

http://www.bestpornthumbs.com/

http://www.crocolist.com/main.shtml

http://www.bestfreemovies.net/

http://www.freewifevids.com/

http://www.sexywives.ws/ - - - - - - - http://www.sexywives.ws/movie.php?id=17687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pics - - http://www.purescans.com/bng/?id=purefaces.com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 - - pics

pics - - http://www.basicallybabes.com/ - - pics - -

http://nshoneys.com/hosted1/hh/gals/bella/index.php?id=103767 - - http://nudes.hegre-art.com/gallhit/106815/122/1/2/0 - - http://nshoneys.com/hosted1/hh/gals/katerina-cermakova-2/index.php?id=103767 - - http://banners.toteme.com/galleries-photos/luciana_4/strip/index.php?ids=25173 - - http://hosted.met-art.com/generated_gallery/754095/23467/ - - http://hosted.met-art.com/generated_gallery/754095/34475/ - - pics

pics - - http://www.metart-models.com/ - - pics

pics - - http://www.themetart.com/ - - pics - -

http://www.themetart.com/galleries/2003/af3046b66f/index.html

pics - - http://www.ultimate-erotic.com/tgp.php - - pics

pics - - http://stunningsnatches.com/ - - pics http://www.nshoneys.com/hosted1/hh/gals/marketa-brymova/index.php?id=103767

pics - - http://www.hq-erotica.com - - pics

pics - - http://www.eroticphoto.ws/ - - pics - -

http://hosted.ronharris.com/hosted/sandrablackonbed/sandrablackonbed.htm

pics - - http://www.basicallybabes.com/ - - pics

pics - - http://www.purescans.com/bng/?id=basicallybabes.com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 - - pics

* * 080831 * *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cdn.lsgmodels.com/tmpl/fhp2.php?gid=26&w=1675489 - - http://hosted.femjoy.com/galleries/111193_ixs870_ius680/?affid=1006363 - - http://www.mc-nudes.com/fhg2/fhg.php?f=Isabella_hTa&ccid=990554

pics - - http://www.karupsdb.com/tgp.php - - pics - - htt
p://private.karupsow.com/karupspc/4ba175882/index.html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art_AF_618_134/?pa=208436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8/anya_daydream/index.htm?affid=584950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7/svetlana_exquisite/index.htm?affid=584950 - -
http://hosted.met-art.com/Trial_met-art_AF_509_340/?pa=208436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 - http://hosted.met-art.com/met-art_MKE_49_473/?pa=994058

pics - - http://eros-and-grace.net/ - - pics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List 0f Latin Musika] - 081019 - [88]

[List 0f Latin Musika]

Kimera - Last OperaKimera - Lost Opera

* * 081019 * *

- - pics - - http://www.metart-models.com/ - - pics - - - - dong - -
http://www.ftvangels.com/ - - dong - - -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shelley/accountant/2/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erika2/not_so_shy/34/index.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carli3/not_a_nude_beach/4/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erika4/summer_sports/4/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meggan/between_the_legs/6/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maria/sexy_squirter/4/clip3.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sandy/playful_orgasms/2/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loryn/striptease_to_orgasm/5/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erika7/deep_toysex/2/clip2.html - - - -
http://www.ftvangels.com/videos/sandy/playful_orgasms/2/clip2.html

* * 0810012 * *

- - http://www.bunnyteens.com/ - - - - - - - http://exploitedteens.com/galleries/74qx/index.php?rid=878967&bunny - - - - http://www.amateurallrue.com/free/allure/videos/taylormix/?vids=108bt

- - http://fuckerville.com/ - -

* * 081005 * * - - - - http://www.magicmovies.com/ - - http://sex.magicmovies.com/video32327/internal_vagina_sex (internal ppussy with camera)

* * 080921 * *

- - - - http://www.home-made-videos.com/ - - - - - - http://www.home-made-videos.com/263/horny_teen_fingering_her_wet_pussy.html

- - - - http://www.pornorama.com/ - - - -
- - http://video.pornorama.com/video10650/Holy_Grail,_Kristy_(Erin_McNish)
- - http://video.pornorama.com/video10650/Holy_Grail,_Kristy_(Erin_McNish) - - http://video.pornorama.com/video51894/Maria_Hardcore_Fuck_1

* * 080914 * *

- - - - http://www.rudepost.com/ - - - -

- - - - http://www.arionmovies.com/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 * 080920 * *

- - - - http://movies-city.com/ - - - -

- - http://www.yourmovs.com/view_video.php?viewkey=e65b3610b8ba51229d1f

(shot with camera in pussy)

* * 080914 * *

- - - - http://www.homexfiles.com/?movies-city.com&x=8811.3629.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690/brunette_babe_pee.html

(pee with masterbation)

- - - - http://www.rudepost.com/ - - - -

- - - - http://www.arionmovies.com/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 * 080913 * *

- - - - http://www.fuckingteenvids.com/ - - - - - - http://galleries.payserve.com/1/36326/11528/index.html

- - - - http://www.teen-series.com/ - - - -

- - - - http://www.6vids.com/ - - - - - - http://galleries.loveminiskirts.com/vids/068/t=1?nats=ODQ6Mjo1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8/369/855002 - - http://galleries.paperstreetcash.com/si/146/?nats=OTIzOjc6Mg,0,0,0,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7/243/855002

* * 080912 * *

- - - - http://www.hornycottage.com/ - -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id=trafficholder.com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29/7679/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02/8223/
- - http://www.xvideos.com/video49666/Two_Nuns_And_A_Priest

- - - - http://www.amateursclips.net/ - - - -

- - - - http://topamateurvideo.com/ - - - -

- - - - http://www.igotmovies.com/ - - - - - - http://www.sticking.com/videos/kinky-lesbians-668.html
- - http://videoxlist.com/movie/t/289/2_b_/2/41289/extremely_hairy_kati.html

* * 080911 * *

- - - - http://www.hornycottage.com/ - -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id=trafficholder.com - - - -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29/7679/
- - http://www.bestpornthumbs.com/videos/02/8223/
- - http://www.xvideos.com/video49666/Two_Nuns_And_A_Priest

- - - - http://www.amateursclips.net/ - - - -

- - - - http://topamateurvideo.com/ - - - -

- - - - http://www.igotmovies.com/ - - - - - - http://www.sticking.com/videos/kinky-lesbians-668.html
- - http://videoxlist.com/movie/t/289/2_b_/2/41289/extremely_hairy_kati.html

- - - - http://www.rawgonzo.com/ - - - -
- - http://www.pornhub.com/view_video.php?viewkey=6b52dab048d5a58c2838
- - http://www.pornhub.com/view_video.php?viewkey=c3c5aa9ec22b89e1af9a

* * 080909 * *

dong - - - - http://www.galls.in/ - - - - dong

dong - - - - http://www.fuckerville.com/?ref=homemadepostings.com - - - - dong

dong - - - - http://only40.com/ - - - - dong - - http://only40.com/movie/t/503/3_b_/9/48503/after_cumming_my_pussy_wideopen.html

dong - - - - http://www.homemadepostings.com/ - - - - dong - - - - http://www.maxporn.com/pornvideos/7339/Sexy_and_Sensual_Babe_Masturbates_for_Us.html - - beauty like SunMae

* * 080906 * *
- - - - http://www.freepornup.com/c/faces/ - - http://www.teendreams.com/tgp/707/naomi/naomi12yev.html - - http://www.teendreams.com/tgp/707/naomi/pics/13.jpg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art_sk_61_270/?pa=994058 - - http://hosted.met-art.com/met-art_sk_61_270//full/met-art_sk_61_14.jpg

dong - - - - http://www.bestmaturewomen.com/ - - - - - - http://www.moms-

explorer.net/movie/3010349.eva/index.html/registr - -
http://impishgrandma.octopusgalls.com/0105403/index.html/1073144

dong - - - - http://www.miateens.com/ - - - - - - -
http://galleries1.creampiemodels.com/hosted/mgp/020012/?nats=NjU4MjozOjIz

dong - - - - http://mommiesvids.com/ - - - - - - -
http://www.mommiesvids.com/store1/Son_Cums_Inside_His_Mother61296.php

dong - - - - http://mummyfuck.net/ - - - - http://mummyfuck.net/

total - - - - http://www.topnudegalleries.com/ - - - - total - - - -
http://www.pichunter.com/movs/hairy.shtml - - http://shadow.atkingdom.com/736/pichunter.htm - -
http://shadow.atkingdom.com/746/pichunter.htm

pics - - - - http://www.teenboat.com/st/niches/mature.shtml - -
http://www.bravoporn.com/updates/2007-01-08/52e959/ - - pics

- - - - http://www.uhfuck.com/st/archives/archive0.shtml - - - - - -
http://www.uhfuck.com/movies/homemade/ - - - -
http://www.hostave3.net/hvv/fhg/225gvi/index.html?id=danilax123

* * 080828 * *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cdn.lsgmodels.com/tmpl/fhp2.php?
gid=26&w=1675489 - - http://hosted.femjoy.com/galleries/111193_ixs870_ius680/?affid=1006363 - -
http://www.mc-nudes.com/fhg2/fhg.php?f=Isabella_hTa&ccid=990554
pics - - http://www.karupsdb.com/tgp.php - - pics - - htt
p://private.karupsow.com/karupspc/4ba175882/index.html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
art_AF_618_134/?pa=208436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8/anya_daydream/index.htm?affid=584950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7/svetlana_exquisite/index.htm?affid=584950 - -
http://hosted.met-art.com/Trial_met-art_AF_509_340/?pa=208436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 - http://hosted.met-art.com/met-art_MKE_49_473/?pa=994058
pics - - http://eros-and-grace.net/ - - pics

http://videoxlist.com/ - -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358/3_b_/1/46358/hairy_milf_masturbate.html

http://www.mpggalaxy.com/?id=trafficholder.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hmvideos.com/ -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54 - - - -
http://xhamster.com/movies/37422/mature_woman_showing_her_big_clitoris.html
http://movies-city.com/
http://www.mpegjoy.com/
http://www.madtubeporn.com/?id=clickpod.com
http://www.homevideosblog.com/?id=trafficpod.com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http://18pornmovies.com/ - - - - - - -
http://18pornmovies.com/video/e/b/ebf956/interior_perspective__webcam_in_pussy.php (shot with camera in pussy)
- - http://18pornmovies.com/video/4/a/4a7f0e/squirt_woman.php
http://www.sex-hdvd.com/ - - - - - - - http://girls.twistys.net/preview/015/?t6/nats=stealth191:revshare:twistys/
http://www.bestmaturewomen.com/
http://www.vip-moms.com/?ref=bestmaturewomen.com
http://www.bestmaturewomen.com/ - - - - - - - http://www.boobcontent.com/tgp/cm/116sg/vids/v2-7.php?nats=MjIyOjI6Mg,0,0,0,1401

http://www.thefullvideos.com/

http://www.moms-vids.net/

http://www.moms-vids.net/

http://wetmummy.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31378/sara_pee.html

- - 080817 - -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111/hot_and_horny_teen_plays_like_crazy_on_webcam.html

http://www.arionmovies.com/ - - - - - - - http://www.tube8.com/hardcore/anita/33274/

http://www.porn.sc/ - - - - - - - http://free.porn.sc/video22279/Nea_in_Bedroom_Toy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31245/Very_cute_Kristina_-_HOT! - -

http://free.porn.sc/video10173/Cam_inside_my_pussy_1_(_european_) (shot with camera in pussy)

http://www.xnxxmovies.com/ - - - - - - - http://xxx.xnxxmovies.com/video6310/Arabian_Kuwati

http://www.easysextv.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29755/best_college_girl.html

http://www.bestmaturewomen.com/ -http://www.sunnygalleries.com/static/sleazymatures/index.php?aid=1717&pid=12&gid=82&c=A - - - - http://galleries.payserve.com/1/38605/17418/index.html

http://www.hmvideos.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655/young_teen_girl_show_masturbating_and_rubing_clitoris_on_cam.html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357 》- - - -

http://xhamster.com/movies/14337/free_clitoris_enlargement.html

- - 《080823 》- -

http://www.bestpornthumbs.com/ - - - -

http://videoxlist.com/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977/10_b_/3/38977/She_Came.html

http://allrusamateurs.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55536/lesbian_teens_3_-_part_1.html

http://www.mpegjoy.com/?id=allrusamateurs.com _ _ _ _ - - http://xhamster.com/movies/41826/german_milf_teacher.html

http://www.homesexnews.com/ - - - - - - - http://www.tube8.com/Fetish/Inside-Rachel/7986/

Total - - http://www.uhfuck.com/freepics.shtml - - pics &dong - - - - - - - - - http://www.uhfuck.com/movies/pussy/ - - - - - - - http://galleries.ocreampies.com/movies/0107_cute_creampie/?nats=Mjl2OjExOjU,0,0,0,552 - - http://galleries.givemepink.com/nina/01/m1/683460/19/9/n/index.html - - http://galleries.givemepink.com/bambi/05/m1/683460/19/9/n/index.html

Total - - http://www.bravovids.com/tgp.shtml - - pics &dong - - - -

Total - - http://www.lovelyclips.com/ - - pics &dong - - - -

- - - - http://www.nubiles.net/?coupon=822011 - - - - - - - http://www.nubiles.net/harmon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el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alett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conn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fiv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franzisk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ashton.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rib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carry.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kyr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loren.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kara.html?coupon=822011 - - http://www.nubiles.net/melissa.html?coupon=822011

- - - - http://www.porn.sc/ - - - - - -
http://free.porn.sc/video22279/Nea_in_Bedroom_Toy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45639/Paula_Dress_Dildo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18707/Diana_in_Dildo_and_Red_Couch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42241/Janelle_Skirt_and_Toy_at_Nubiles - - Sunmae - - - -
http://free.porn.sc/video27632/Ginger_in_Toy_Fun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8275/Austin_in_White_Vibrator_Video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5115/Virgin_Pussy_Angie - -
http://free.porn.sc/video4986/Brunette_Playing_Silver_Dlldo

- - - - http://www.uhfuck.com/movies/pussy/ - - - - -
http://galleries.ocreampies.com/movies/0107_cute_creampie/?nats=Mjl2OjExOjU,0,0,0,552 - -
http://galleries.givemepink.com/nina/01/m1/683460/19/9/n/index.html

* * 080828 * *
http://www.bestpornthumbs.com/

http://www.crocolist.com/main.shtml

http://www.bestfreemovies.net/

http://www.freewifevids.com/

http://www.sexywives.ws/ - - - - - - http://www.sexywives.ws/movie.php?id=17687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pics - - http://www.purescans.com/bng/?id=purefaces.com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 - - pics
pics - - http://www.basicallybabes.com/ - - pics - -

http://nshoneys.com/hosted1/hh/gals/bella/index.php?id=103767 - - http://nudes.hegre-art.com/gallhit/106815/122/1/2/0 - - http://nshoneys.com/hosted1/hh/gals/katerina-cermakova-2/index.php?id=103767 - - http://banners.toteme.com/galleries-photos/luciana_4/strip/index.php?ids=25173 - - http://hosted.met-art.com/generated_gallery/754095/23467/ - - http://hosted.met-art.com/generated_gallery/754095/34475/ - - pics

pics - - http://www.metart-models.com/ - - pics

pics - - http://www.themetart.com/ - - pics - - http://www.themetart.com/galleries/2003/af3046b66f/index.html

pics - - http://www.ultimate-erotic.com/tgp.php - - pics

pics - - http://stunningsnatches.com/ - - pics http://www.nshoneys.com/hosted1/hh/gals/marketa-brymova/index.php?id=103767

pics - - http://www.hq-erotica.com - - pics

pics - - http://www.eroticphoto.ws/ - - pics - - http://hosted.ronharris.com/hosted/sandrablackonbed/sandrablackonbed.htm

pics - - http://www.basicallybabes.com/ - - pics

pics - - http://www.purescans.com/bng/?id=basicallybabes.com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pics - - http://nudeartgals.com/ - - pics

* * 080831 * *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cdn.lsgmodels.com/tmpl/fhp2.php?gid=26&w=1675489 - - http://hosted.femjoy.com/galleries/111193_ixs870_ius680/?affid=1006363 - - http://www.mc-nudes.com/fhg2/fhg.php?f=Isabella_hTa&ccid=990554

pics - - http://www.karupsdb.com/tgp.php - - pics - - htt p://private.karupsow.com/karupspc/4ba175882/index.html

pics - - http://www.angelsaddicted.com/ - - pics - - http://hosted.met-art.com/Full_met-art_AF_618_134/?pa=208436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8/anya_daydream/index.htm?affid=584950 - - http://www.hosted.mplstudios.com/galleries/07/svetlana_exquisite/index.htm?affid=584950 - - http://hosted.met-art.com/Trial_met-art_AF_509_340/?pa=208436

pics - - http://nudeartgals.com/metart.shtml - - pics - - http://hosted.met-art.com/met-art_MKE_49_473/?pa=994058

pics - - http://eros-and-grace.net/ - - pics

* pus dong -

http://18pornmovies.com/ - - - - - -

http://18pornmovies.com/video/e/b/ebf956/interior_perspective__webcam_in_pussy.php (shot with camera in pussy)

http://www.sex-hdvd.com/ - - - - - - http://girls.twistys.net/preview/015/?t6/nats=stealth191:revshare:twistys/

http://www.bestmaturewomen.com/

http://www.vip-moms.com/?ref=bestmaturewomen.com

http://www.bestmaturewomen.com/ - - - - - - http://www.boobcontent.com/tgp/cm/116sg/vids/v2-7.php?nats=MjIyOjI6Mg,0,0,0,1401

http://www.thefullvideos.com/

http://www.moms-vids.net/

http://www.moms-vids.net/

http://wetmummy.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31378/sara_pee.html

- - 080817 - -

- - - -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51111/hot_and_horny_teen_plays_like_crazy_on_webcam.html

- - http://xhamster.com/movies/39840/horny_amateur_teen_squirting.html (pee with m/b - 080921)

http://www.arionmovies.com/ - - - - - - http://www.tube8.com/hardcore/anita/33274/

http://www.porn.sc/ - - - - - - http://free.porn.sc/video22279/Nea_in_Bedroom_Toy_at_Nubiles - -

http://free.porn.sc/video31245/Very_cute_Kristina_-_HOT! - -

http://free.porn.sc/video10173/Cam_inside_my_pussy_1_(_european_) (shot with camera in pussy)

http://www.xnxxmovies.com/ - - - - - - http://xxx.xnxxmovies.com/video6310/Arabian_Kuwati

http://www.easysextv.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theamateurtube.com/ - - - - - - -

http://xhamster.com/movies/29755/best_college_girl.html

http://videosreview.com/

http://www.theamateurtube.com/

http://www.sweet-ftvgirls.com/mgals/491/ - - - -

- http://www.sweet-ftvgirls.com/mgals/491/

http://www.ftvmovs.com/ - - -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AlisonAngel/3/87/1778356 -

- http://mov.ftvcash.com/Free-Movies/galleries/FTV/11/180/1778356 -

- http://galleries.nubiles.net/mgpbig/kyra/Free-Nubile-vids/?coupon=977400&l=1&t=1&n=1

- - - - - - - -

http://videoxlist.com/ -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358/3_b_/1/46358/hairy_milf_masturbate.html

http://www.mpggalaxy.com/?id=trafficholder.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hmvideos.com/ -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54 - - - -

http://xhamster.com/movies/37422/mature_woman_showing_her_big_clitoris.html

http://movies-city.com/

http://www.mpegjoy.com/

http://www.madtubeporn.com/?id=clickpod.com

http://www.homevideosblog.com/?id=trafficpod.com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 - -

- - - http://xhamster.com/movies/41826/german_milf_teacher.html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http://videoxlist.com/ - - - - - - - - -

http://videoxlist.com/movie/t/358/3_b_/1/46358/hairy_milf_masturbate.html

http://www.mpggalaxy.com/?id=trafficholder.com

http://www.homemadepostings.com/

http://www.hmvideos.com/ - - - - http://www.hmvideos.com/movie.php?id=1554 - - - -

http://xhamster.com/movies/37422/mature_woman_showing_her_big_clitoris.html

http://movies-city.com/

http://www.mpegjoy.com/

http://www.madtubeporn.com/?id=clickpod.com

http://www.homevideosblog.com/?id=trafficpod.com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http://www.justftv.com/

http://www.theamateurtube.com/ - -

http://xhamster.com/movies/30159/basma_from_lebanon_4.html

http://www.crazygalls.com/?id=delicatemovies.com - -

http://xhamster.com/movies/46295/rychly_prachy_12.html

http://xhamster.com/movies/46978/dildo_in_pussy_hot_blonde_webcam.html

http://www.delicatemovies.com/?ref=trafficholder.com

- - - - - - - - -

http://www.tubaholic.com/video/2965/

http://xhamster.com/movies/34756/masturbates_to_webcam.html

http://xhamster.com/movies/29953/mature_woman_seduces_a_teen_girl.html

http://girl-fists-girl.fistflex.com/_vids/03/?id=irra43

http://xhamster.com/movies/28983/exploring_sleeping_pussy.html

http://www.screwingporn.com/index.shtml

- - - - - - - -

http://xhamster.com/movies/19285/stretching_pussy.html

http://www.homevideocollection.com/?screwingporn.com

http://www.screwingporn.com/index.shtml

- pus dong *

http://www.purefaces.com/

http://www.teensexymodels.com/

http://www.thongdreams.com/ - - - (hard)

http://www.topwebteens.com/

http://www.hotteenpussy.org/ - - - (p &d)

http://www.hotyoungpussy.org/ - - - (p &d)

http://www.petitenympha.com/ - - -

http://www.petitenympha.com/st/niches/piper-fawn.shtml

http://www.sologals.com/

http://www.pussy.org/thumbs/

* dongs *
http://www.worldvideo.us/

http://www.xmoviesengine.com/main.html

http://www.longvideos.net/

http://www.bunnypost.com/ - -
- - http://www.bunnypost.com/st/niches/Petite_movs.shtml

http://www.teenstitsandass.com/ - -
- - http://www.teenstitsandass.com/babe.html

http://www.bigbath.net/index.shtml

http://www.ftvgirlsdb.com/

http://www.worldvideo.us/

멋진여성 http://www.freeadultarchives2.com/fsc/fhg/nicole-kidman/index.php?id=1827&site=24&tr=37 http://www.freeadultarchives2.com/fsc/fhg/angelina-jolie/index.php?id=1827&site=24&tr=37 http://www.uniformgalleries.com/nuns/22pb/tormovie/2/ dong - http://www.davemgalleries.com/galleries/2008/08_02_22/movies/longbucks-spoiledvirgins/01/01/ dong - http://preview.teenpinkvideos.com/1394vidqpf/tpv.html?nats=MjE2OjI6MQ,0 dong - http://preview.teenpinkvideos.com/1147vidjdf/tpv.html?nats=MjE2OjI6MQ,0

[스크랩] 생활을 건강하게!

식초의 지혜로운 변신

리빙센스 / 입력 2009.10.08 15:16 / 수정 2009.10.08 15:21

식초의 산 성분은 기름기와 단백질을 분해해 찌든 때 제거에 더없이 좋은 세제. '식초가 닦여봐야 얼마나 닦이겠어?' 하고 반쯤 의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시도해보자. 탁월한 효과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식초 세제의 열혈 팬이 될 것이다. 이번에 CJ LION에서 출시한 웰빙 주방세제인 '참그린 석류식초 설거지'는 이런 식초의 장점만 모았다.

식초로 깨끗한 주방 환경 만들기

▶ 크리스털 잔 청소하기_ 커팅이 화려한 크리스털 잔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커팅된 무늬 사이에 찌든 때가 낀다. 뜨거운 물에 식초 ½컵과 주방세제를 약간 풀고 크리스털 잔을 담가 두었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고 헹구면 사이사이 작은 먼지까지 제거되고, 건조하면 새것

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 싱크대 찌든 때 완전 정복_ 싱크볼에 세제 찌꺼기가 끼고 기름때 등이 엉겨붙어 색이 탁하면 식초 2큰술에 소금 1작은술을 섞은 세제를 만들어 닦는다. 더러워진 수도꼭지도 같은 방법으로 닦으면 새것처럼 윤이 난다. 얼룩이 남은 싱크대 상판은 식초를 뿌리고 30분 뒤 베이킹 소다를 뿌려 스펀지로 문지른다.

▶ 도마 살균 소독하기_ 도마는 세균이 자라기 가장 쉬운 곳. 일주일에 한 번은 살균 소독이 필요하다. 마른 도마에 베이킹 소다를 적당히 뿌려 문지른 다음 식초를 분무기에 넣고 뿌리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소독이 된다. 5분쯤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헹궈 마무리한다.

▶ 새로 구입한 반찬통과 그릇의 먼지 제거_ 새로 구입한 반찬통과 그릇은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깨끗이 세척해 먼지와 세균을 제거해야 한다.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항균 효과가 탁월해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 주전자 주둥이 씻기_ 티 포트나 주전자의 주둥이는 깨끗이 씻기가 매우 어렵다. 50℃ 정도의 따끈한 물에 식초를 ¼컵 정도 붓고 주둥이를 막은 채 상하좌우로 세게 흔든 뒤 주둥이를 통해 식촛물을 흘려보내면 찌든 때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 가전제품 손자국을 지우기_ 식초와 물을 동량으로 섞어 분무기에 넣고 가전제품에 뿌린 다음 행주로 닦으면 손자국이 말끔히 사라지고 광택이 생긴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등 주방 가전에 사용하는데 살균 효과도 볼 수 있다.

▶ 유리그릇 광택 살리기_ 오래 사용해 색이 탁해진 유리그릇은 설거지를 할 때 뜨거운 물에 식초 ½컵을 부어 마지막에 헹군다. 찌든 때가 말끔히 빠지고 본래의 투명도를 되찾게 된다.

증상에 따라, 쓸모에 따라, 똑똑하게 식초 고르기

▷ 석류식초_ 눈의 피로, 어깨 결림, 근육이나 관절의 염증 억제, 항균 작용 및 항바이러스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새콤하게 입맛을 돋우는 샐러드드레싱을 만들 때도 좋다.

▷ 현미식초_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담백한 양념을 비롯한 어떤 요리에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물에 희석해 음료처럼 마시면 몸의 독소를 빼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매실식초_ 식초 중에서도 신맛이 강한 편이다. 체력 소모가 많아 갈증이 심한 날 물과 희석해서 마시면 피로회복과 갈증 해소에 좋다. 고기나 생선을 요리할 때, 군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식재료의 살균 효과도 뛰어나다.

▷ 감식초_ 비타민 함량이 높은 감을 주성분으로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비만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고 튀김이나 볶음 요리, 생채와 무침에 잘 어울린다.

식초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만들기

▶ 냉장고에 넣어둔 시든 채소_ 오랜 시간 냉장실에 보관해 수분을 잃고 시들어버린 채소를 살려내는 방법. 차가운 물에 식초와 설탕을 약간 풀어 시든 채소를 담가두면 채소가 다시 파릇파릇 싱싱해진다.

▶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먹고 싶은 과일_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때 식초의 살균 효과를 활용해보자. 흐르는 물에 과일과 채소를 씻은 뒤 볼에 물을 받아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헹구면 간단하게 농약 걱정을 덜 수 있다.

▶ 눅눅하게 튀겨진 튀김 요리_ 손님 초대를 위해 푸짐한 상차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튀김이 바삭거리지 않아 걱정이라면 반죽 1컵에 1작은술 비율로 식초를 넣고 고루 섞은 뒤 재료에 옷을 입혀 튀기면 바삭한 튀김이 완성된다. 튀기는 과정에서 시큼한 맛은 날아가니 걱정 끝!

▶ 처치 곤란인 오래된 쌀_ 묵은 쌀로 밥을 했을 때 나는 군내는 식초에게 맡겨라.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밥을 지으면 햅쌀로 지은 듯 포슬포슬 윤기 나는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

▶ 한꺼번에 많이 해버린 밥_ 생각보다 밥을 너무 많이 해 밥이 상하고 냄새가 날까 걱정이라면, 식초의 살균 효과를 이용하자. 갓 지은 밥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고루 섞어두면 장시간 지나도 밥이 쉴 염려가 없다.

▶ 너무 딱딱한 음식 재료_ 딱딱한 재료를 그대로 조리해 먹으면 식감이 좋지 않고 먹기가 불편하다. 뼈째 먹는 생선이나 다시마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 식초를 약간 넣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진다.

출처: 리빙센스

제품 협찬 I CJ LION(080-858-8888)

사진 I 정준택

진행 I 정남영(프리랜서)

〈저작권자(c) (주)서울문화사, 출처: 리빙센스〉 (주)서울문화사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금지

" name=title〉

건강이 최고 포토 · TV

생활을 건강하게! 식초의 지혜로...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 묘약인가...

〈헬스톡톡〉 노화 막는 3가지...

GOT GPT 낯다고 방심하다...

이전페이지 맨위로

[daum / http://issue.media.daum.net/culture/0922_Health/view.html?issueid=3660&newsid=20091008151605964&cp=livingsense]

[펌] 박정희 유신을 제대로 /박정희 유신독재? /민주 민주 하는넘들 보거라

2009.10.08 14:33

朴正熙 維新을 제대로 알자 ! [9]

이종훈(blama) [2009-10-07 19:12:15]

조회 266 | 찬성 62 | 반대 3 | 스크랩 0

그 가치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높이 평가받게 될 것

박정희 유신을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72년 유신이 채택되었다. 사람들은 이때를 "박정희 유신 독재시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37년 전 세계는 어떤 시대였을까?

민주 역사 300년으로 가장 발달된 민주국가 영국에서는 자치구인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연방 선거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조차 가질 수 없도록 법을 제정했

던 때가 1972년, 그 유명했던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이 바로 이 법 제정에 저항하여 평화롭게 행진하는 민간 시위대를 영국군이 무차별 학살했던 때가 바로 37년 전 그때였다.

민주 모범 국가라는 미국은 또 그때 어떠했던가? 비록, 흑인들의 저항과 희생으로 폐지되었지만 반, 민주적이고 반, 인륜적인 인종 차별법이 버젓이 통과되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 나라 대만의 장개석은 정부에 저항하는 인민 수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고 북한의 김일성처럼 대대로 이어 세습통치 40년을 하면서 정적을 숙청하고자 정치적 반대자들을 1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든 때가 바로 그때였다.

대만을 가 보아라. 아직도 곳곳에 서있는 장개석 동상이 김일성 동상처럼 수백 개가 위용을 자랑하며 버티고 서있다. 유신을 마치 대한민국의 나치 정권처럼 떠들며 비판하는 사람들아!! 장개석이 수만 명의 인민을 학살한 "2.28사건" 정도는 알고 좀 떠들어도 떠들어라.

박 대통령 유신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있었는가 하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아!! 1960년대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떠했던가? 북한과 태국이 150달러, 아시아 용들이 4~5백 달러 일 때 남한은 76달러였으며, 정부 일 년 예산의 80%를 미국의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며 춘궁기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도 흔하게 발생해 뉴스거리조차 안 되던 때였다.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빈민국가가 대한민국이었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 아닌가.

자원, 자본, 기술, 그 무엇 하나 없는 불모지 상태에서 근면 성실한 국민을 리더하며 아시

아 "용"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전무후무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가 깜짝 놀랐으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던 때, 가발 팔고 와이셔츠, 스웨터 만들어 팔던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체계로 국력의 조직화를 꾀하던 때, 그때가 바로 37년 전 유신시대였다.

김일성이가 남한에 무장테러를 일으킨 사건만도 600여건 철책선 내무반에서 자고 일어나면 목 없는 전우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을 그때 우리는 총알 하나 만들 줄도 몰랐고 능력도 없었다.

당시, 베트남이 패망하자 김일성의 오판으로 남침이 우려될 때인 1979년, 미국의 방위정책 변경으로 주한 미군을 철수 하겠다 하여 미,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핵으로 무장할 것이다"라고 버티며 힘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통탄 이 나라의 안위를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다 통감한 박정희 대통령은 무수한 방위 산업을 육성 탱크와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국산 장비들을 양산하며 국력의 극대화 을 꾀하고자 유비무환의 대비책으로 자력 국방의 기틀을 이루려 하던 때,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유신시대였다.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밖으로는 공산주의와 싸우며 나라를 지켜야 했고 안으로는 민주와 인권으로 포장한 '정치꾼'들과의 힘겨운 설득 데모 선동꾼들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서도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도 비난하는 사람들아!! 조국을 위해 독재자 오명을 뒤집어쓰고라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온 정력을 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적 뜨거운 가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힘이 없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36년 식민지 시절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않고자 절치부심하며 처절 하리 만큼 비장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오기에 찬 차가왔던 가슴을 한 번만 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자신감, 용기와 희망, 비전을 제시하며 스스로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 하였으며 반공을 국시에 두고 부국강병을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며 근대화된 선진조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는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실상과 고뇌에 찬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유신이라 핏대 세워가며 비난만 하느냐 말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死後, 미국 CIA 보고서는 그를 이렇게 정의했다

.

"독단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반면 카리스마와 서민적 이미지를 함께 갖춘 인물이었다. 직관력과 통찰력을 겸비하면서 추진력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었다. 남한의 실질적 발전은 그로 인해 비롯되었고…. (중략), 그의 일반적 생활은 청렴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박 대통령을 그렇게도 비난하는 사람들아!! 민주화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치던 자들이 원하던 대로 이 나라를 10년 넘게 통치해 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찬사와 부러움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고 하루가 멀다 날아와 가르쳐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국가들이 '용' 이라던 한국을 '지렁이'로 보게 되였으며 한국을 배우자며 전 공무원에게 하루 한 시간씩 박정희 교육을 시키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 가를 배우라며 인민들에게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좌파들에게 묻겠다. 박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곤두 박 치고 있는 이유를 말해 보라!!

인류 역사상 세계사를 통틀어 18년간 집권하면서 국력과 국부를 20배 이상 성장시키고 늘려 논 정치가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박 대통령만치 청렴결백하며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요 리더 자인 애국자가 있었다면 말해 보란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위대한 애국자를 부관참시하려는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를…….

좌파들아!! 그런 정치인이 '시저'냐? '나폴레옹'이냐? 니들이 그토록 존경한다는 '모택동'이더냐?

민주로 포장된 정권이 들어선지 10여 년, 김영삼은 "민주주의 화신" 이란 교언(巧言)으로 미혹(迷惑)하고 김대중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가며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노무현은 "선한 양"으로 행세하면서 사기꾼 김대업을 앞세워 온갖 흑색선전으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휘어잡고선 개혁이니 역사니 하는 당신들…….

공은 빼고 과만 조명하는 "친일파 박정희" 만화책 만들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세뇌시키려는 것이 개혁이고 박 대통령 살인범 김재규를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려 하며 그가 쓴 광화문, 운현각 현판을 뜯어내 부시고 박살낸 것이 진정 당신들이 역사를 똑바로 세우려고 이러는 것이냐 말이다.

똑바로 알아라! 당신들 제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 하려 발버둥 친다 해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지금의 그들, 말 많은 지도자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대한민국 중흥의 시조로써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임을……. 그는 비록 비명에 갔지만 죽어서 진정 그 가치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높이 평가받게 될 것임을…….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9]

best

조정웅

herald92

공감 7

이종훈 씨 ! 역사의 진실을 적나라 하고 진솔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시의 시대적 체험자로서 다시금 당시대에 박대통령의 국리민복에 역점을 두도 경제도약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셨던 그분의 체취에 새롭게 젖어드는 감회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의 인간세상은 모순과 협잡이 너무나 난무하여 진실이 부정으로 호도되고 협잡 정상배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여 자신들의 부패와 위선을 포장하기위하여 그분이 이루어 놓은 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릇된 가치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 이후의 지금까지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퇴임후에 보이는 퇴행과 위선의 극치는 정말 눈뜨고 보기 민망하고, 그 비행의 질타

2009.10.07 20:15:21

공감 신고

공감 5

남의것은 숭상하고 자기것 말살하려는 민주의 허깨비들 너희들이 진정 가난을알고
너희들이 진정 조국사랑을 아느냐? 입만살아 제놈들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 투쟁

을했으면서 누구를위해서 했다고? 씨도안먹히는소리 너히들이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물자 헌옷 속에 이를 아느냐? 너히들이 강냉이죽을 매일먹어 보기를 했느냐?
내가 아직도 아내한테 주면주는데로 고맙게생각하고 반찬투정 안하고 밥먹고 사는

건 그시대를격었고 대통령의 나라사랑을 제데로 보았기때문이다 외국사람들도
그정신을 배워가려는데 정말 호강에받쳐 요강에 똥쌀놈들이로다

종훈님 매일 정의롭고 바른글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필하세요

2009.10.07 20:01:10

공감 신고

이평재

l2183418

공감0

공과 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글에 대하여 긍적적인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들여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독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공은 인정하고 실은 반성하는 점이 있었으면 더 볼은 글이 될 것인데.... 좌파들 주장에도 귀를 귀울이시기를...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저는 동감합니다. 왜? 다수의 국민과 국가 경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2009.10.07 20:05:19

공감 신고

공감 7

이종훈 씨 ! 역사의 진실을 적나라 하고 진솔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시의 시대적 체험자로서 다시금 당시대에 박대통령의 국리민복에 역점을 두도 경제도약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셨던 그분의 체취에 새롭게 젖어드는 감회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의 인간세상은 모순과 협잡이 너무나 난무하여 진실이 부정으로 호도되고 협잡 정상배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여 자신들의 부패와 위선을 포장하기위하여 그분이 이루어 놓은 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릇된 가치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 이후의 지금까지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퇴임후에 보이는 퇴행과 위선의 극치는 정말 눈뜨고 보기 민망하고, 그 비행의 질타

2009.10.07 20:15:21

공감 신고

공감 5

나도 이곳 토론 마당에 몇번 박대통령에 관한 글을 올린바 있지만, 분명히 독재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독재는 했을 망정,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열강에 들도록 만든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분의 좋은 점은 모두 빼버리고 나쁜점만 부각 시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독재화도 겪었고. 민주화도 겪었지만, 역시 박 대통령 같은 위대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과를 진실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2009.10.07 20:16:14

공감 신고

공감 4

에 가책을 느껴 자살한 그릇된 지도자상을, 그 추종자들이 미화하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지도자가 온 나라에 붉은 좌파의 선동으로 흔들어 놓은 이시대는 위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

의 전통 예의지국 사상이 무너저서 촛불시위라는 그릇된 데모 문화를 양산하여 그들의 전투 교육의 도구화된 전교조라는 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쇠뇌시긴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같은 보수성향의 노 인사들에게 시위 현장에서 폭언과 쌍소리로 폐륜의 극치를 보이는 꼴을 보고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정신문화에 너무나 침몰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구나 당시 철의 장막에 차단된 경직된

2009.10.07 20:35:57

공감 신고

공감 4

대치상태와 6,25의 비참하고 참담한 역사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무체험 세대들은 이렇게 잘못된 위선의 정상배들에게 깊이 부화뇌동하여 그릇된 가치관을 양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이들은 독제라는 잘못된 개념을 이념화 하여서 박 대통령의 치적을 비하하고 자신들의 좌파적 선동과 권력적 탐욕에만 야심을 드러내서 스스로를 우상화하려는 추태까지 보여 스스로가 D J 컨벤션 센터, D J 도서관등 자신의 우상화에 걸맞는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독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짓은 스스로가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그 업적을 미화하여 흔적을 남기려는 탐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하기 보다도 한민

2009.10.07 20:43:49

공감 신고

공감 4

족을 4천년의 질곡의 가난에서 국민들을 해방하기위하여 살신 성인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장기 집권이 자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였다면 모르되 그분 스스로가 검소하고 초라한 내핍생활로 모범을 행하면서 오직 국가 발전에 전념하였던 것은 그분의 너무나 큰 업적을 보더라도 그 자체를 질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론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솔한 행동철학 의,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민주화 지도자라는 것들이 불과 5년여의 단임기간에 파생하는 짓거리는 가족을 동원한 부정과 퇴행의 극치이며, 그 비리속에서도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전과

2009.10.07 21:16:40

공감 신고

공감 2

자인 자식을 국회위원에 독려하여 보내고 스스로의 업적을 퇴보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전체 국민의 80%이상이 박대통령의 업적을 흠모하고 그 흠모의 정이 시대가 진행할수록 더욱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견했드시 박대통령은 그 시대에 〈 나의 평가는 먼 훗날 사가들에게서 정당하게

평가 될 것이다.〉 라는 멘트로 반대자들의 선동에 대하여 대응했던 것입니다.

아 —그리운 님, 우리는 박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통해서 오늘의 국민 소득 3만 5천달러에 진입한 싱가폴의 건국의 지도자 이광요 전 수상을 보면서 (그는 집권 26년을 하고 그의 참모 고촉동에 이어 지금은 그의 아들이 수상직에 있음) 그분을 다시 추모해 본다.

2009.10.07 21:32:33

공감 신고

공감 3

조정웅님의 장문인 댓글,

잘 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댓글 올려주신 조정웅님의 나라사랑에 감탄 입니다.

공감해주시는 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박수진님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김성복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2009.10.07 21:52:47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박정희 유신독재? 그래 맞다. [0]

[2009-10-08 00:18:44]

조회 77 | 찬성 9 | 반대 0 | 스크랩 0

반 박정희 좌빨들, 김대중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나라가 발전했을것이다.
박정희가 일군 독재 개발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후를 보라,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

박정희 독재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10년이상 후퇴 시켰다 등등..

이런말 하는자들에게 딱 들어맞는말이 있다.

'물에빠진사람 건져주니 내보따리 내 놔라고 앙탈을 부린다 ' 는 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의해서 과감히 밀어붙인 경재개발은 어느정도 독재가 아니었다면
이루어 질수도 없었던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것 못하는 반 박파들이다.

예를들어 그, 당시 한국 정치나 경제사정으로 봐서
갯뻘을 옥토로 바꾸어 포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민주적으로 국회에서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표결을 붙였다고 치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것 같은가?

온통 국회는 난장판이 되고 멱살을 잡고 OOO발광하는 꼴이 연일 연출되었을것이다.
민주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에 민주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웃기는 소리마라.

경부고속도로 현장에 들어누어 데모를 벌리든 김대중을 기억하는가?

민주가 뭔지도 몰랐던 정치인들, 무능해 빠지고 무식했던 과거 정권들,
박통때 야당총수였던 김대중 김영삼,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을뿐
민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 박통 유신독재때문에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면서 박통 독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었던가?

김대중파들, 김영삼파들, 그당시 야권정치에 몸담고 있었던넘들,
신문에 칼럼이나 쓴다는 글쟁이들, 자칭 유식한 엘리트들,
북한의 사주를 받고 리모트컨트럴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데모 주동만 했던 학생들 이런자들이 독재니 뭐니 하면서 박통을 매도하지 않았던가?

유신 독재라고 했지만 보통 서민들 90 % 이상은 독재로 인한 피해를 받은적 없었다.
다만 마을에서 하루종일 울려퍼졌던 ' 새벽종이 울렸네..' 라는 새마을 노래 때문에
좀 귀가 아팠을지는 몰랐어도...

박통 유신독재도 정식으로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이 결정한것이 아니었던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김대중만 없었어고 박통 경제개발은
10년은 앞당겼을것이다.

요즘의 시대를 옛날에 되돌려 놓고 민주니 독재니 하면서 박통 매도하는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유아적인 수준밖에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것이다.

[chosun]

88

민주 민주 하는넘들 보거라. [0]

[2009-10-08 00:36:34] 조회 59 | 찬성 9 | 반대 0 | 스크랩 0

박통 죽은지 30년이 된 지금도 한국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것 같다.
그들이 민주를 안다면 국회에서 여야끼리 몸싸움하면서 추태를 벌리고
장외투쟁 한다고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는가?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운운 하는사람들아.
아직도 멀었다. 민주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방종과 구분도 못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신념의 민주를 운운 하는가?

지금도 이럴진데, 박통때 유신독재니 하면서
민주적으로 경재개발을 했을수도 있었다고????

누가?? 김대중이 ?? 김영삼이??? 과연 누가 해 낼수 있었을것 같은가?〉
근시안적인 정치꾼들과 박통을 비교선상에 놓고 판단한다는것 부터가 문제다.

박통때부터 김대중은 북의 김일성 정권이 임명한 주한 북한대사이며
대남적화통일 위원장 노릇을 하면서 선동정치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죽을때까지
북에 충성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박통 아무리 씹어봐라. 날이갈수록 빛은 더욱 발할것이다

.

[chosun]

〈 배용준과 유인촌 〉 [14]

심철주(pascal59) [2009-10-04 00:36:24]
조회 3268 | 찬성 118 | 반대 4 | 스크랩 0

(추석연휴 무드라 무거운 정치 사안은 잠간 접고 부담없는 얘기를 나눠보자)

해외에 체류중인 필자는 어느 날 한 아파트에 사는 일본여자 두 명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다. 둘 다 가슴에 인물 뱃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마치 북한사람들이 김일성 뱃지를 단 듯하였다. 유심히 살펴보니 안경 쓴 모습이 배용준 같아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욘사모를 좋아하느나" 고 그랬더니 금새 반색을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 며 나보고 한국인이냐고 되물었다. 일본남자 중에는 욘사마 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이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그 후에도 나를 만나면 예전과 달리 욘사마 나라 사람이라고 반가와 하며 제법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거의 우상화되다시피 하는 배용준씨가 엊그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떠난 여행" 이라는 포토에세이를 발간하여 일주일만에 8만부가 팔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에 추석 연휴도 없이 인쇄가동 중이라 한다. 일본총리 부인 마유키 여사도 예외없이 출판기념회에 욘사마를 만나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짓는 외신 사진을 보았다.

책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배용준씨는 "일본팬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촬영장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보다 체계적인 한국문화관광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준비했다." 작년부터 일시 연예활동을 접고 관련서적 150권을 보고 각 분야 대표적인 장인들을 만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글쓰는 마즈막 3개월 동안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한다. 그 여파로 수척해진 모습과 극심한 과로로 패혈증 증세를 겪기도 하였다.

배용준의 책 내용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중인 여행사들은 이달부터 예약을 받고 11월부터 본격 일본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한다. 벌써부터 일본측 여행사들의 문의가 폭주한다 하니 여행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수입에도 또하나의 대박이 터지는 셈이다.

돈과 인기에 직결되는 연예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고 몸까지 상해 가면서 비전문분야인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격고 공부하며 한국을 알리려는 배용준의 그 열정과 애국심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 연예인에 전례없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와 인기를 한껏 누리는 그가 뭐가 모자라서 연예기간 공백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했겠는가. 손을 부여잡으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울며 말하는 한 일본교포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새겼다 한다.

작년 11월에 같은 탈렌트 출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인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는 말인즉, 자기가 만난 외국인들은 모두 두세번 씩 한국전통 춤과 노래, 공연을 접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문화에 식상해 있다는 너무도 어이없는 망발을 지껄이면서 한류문화 전파에 관심이 없는 듯 완전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여 아연실색케 한 적이 있다. 그때 느낀 인상이 " 저 친구 일하기 싫어하는 날라리 장관이구나. 아! 참 한심하다"고 당시 조토마에 푸념섞인 글을 올린 바 있다.

여기서, 같은 탈렌트 출신인 유인촌과 배용준을 잠간 비교해 보자.
나라의 비싼 녹을 타먹는 문화관광부 장관 유인촌이가 해야 할 일을 배용준이가 대신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국전통 문화관광 안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일찍이 발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당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애국심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한심한 유인촌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민간인 배용준! 그는 한국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민간 외교사절이자, 국익에 공헌하고 해외교포들에게 자긍심과 한국혼을 고양시키는 애국자다.

그러한 배용준이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우리 고위층 인사들은 언제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나. 일도 안하고 복지부동하며 나라 녹만 축내는 쓰레기 장관이 100명 있으면 뭐하나? 배용준 하나만도 못한 데 하는 씁쓰레한 생각이다. 이 기회에 배용준과 같은 한류문화 스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그들이 일궈놓은 한류 붐을 지속시키는 발전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돼야 할 때라고 본다. 일하기 싫어하는 유인촌이가 있는 한 말짱 허사이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유능한 새 장관이 빨리 들어와야 할 것이다.

(추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배용준은 도대체 언제 결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 대답인 즉, "아마 결혼하기 힘들 걸요. 배용준은 매사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라 그에 맞는 배우자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품위있고 참하고 빈틈없는 박근혜의 젊을 때의 모습이 그의 이상형 일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배용준은 장가 가기가 어려울 것이란다. 지나가는 농이지만 서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댓글쓰기 [14]

best

공감 8

심철주 님,
보통은 간과하기 쉬운 조그마한 사안도 놓치지않고 표현해 내는 폭 넓은
안목에 제가 여러번째 감탄을 합니다.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습니까?

2009.10.04 01:48:20

공감 신고

공감 6

멋이있는데 그위에또멋이있음을 철주님으로부터 알게됩니다
정부는 그러한분에게 문화 훈장이라도 내려주십시오
2009.10.04 01:11:45

공감 신고

공감 8

심철주 님,
보통은 간과하기 쉬운 조그마한 사안도 놓치지않고 표현해 내는 폭 넓은
안목에 제가 여러번째 감탄을 합니다.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습니까?

2009.10.04 01:48:20

공감 신고

공감 6

배용준의 또다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감탄하고 있엇는데 철주님이 재빠르게 글을 올리셔서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철주님은 위 황기언님과 김상태님,이종택님,김윤경님 ....등 기라성 같은 논리적인 박지지 논객중의 한분이십니다.

PS) 배용준은 문화부 장관 유인촌과는 비교자체를 거부합니다.

유인촌의 더티한 모습 많이 노출되더군요.

2009.10.04 07:24:03

공감 신고

공감 5

반가운 황기언님, 박수진님, 최영애여사님!

이른 새벽부터 다녀 가셨군요. 추석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요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사실 여러모로 외로운 점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벌써 뵈야할 분들인 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지면으로나마 항상 격려해 주시니 그 힘으로 버팁니다.

늘 고맙습니다.

2009.10.04 08:28:05

공감 신고

공감 5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인촌이 했으면 어디 팔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발간하는 한국홍보책자,,, 실은 그렇게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써 놓을텐데....

2009.10.04 08:32:02

공감 신고

공감 4

요즘 맹활약하시는 이미순님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건필 부탁드립니다.

2009.10.04 08:48:37

공감 신고

공감 5

심철주님

추석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해외에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서도 좋은 글로 박근혜 지지하는 모습

정말 보기에 좋고 현재는 지지하지 않지만 잠재적 지지자들 까지도 공감하는

균형잡힌 시각에 찬사를 보냅니다

유인촌도 여태 후진 양성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인정합니다만

권력에 기웃거리면서 부터 그 빛이 퇴색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배용준에 관한 기사 보질 못했는데 심철주님 글 보니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추석 연후 중에 좋은 글 보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외국에 계시지만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2009.10.04 11:52:25

공감 신고

공감 4

임용섭님! 안녕하십니까.

올곧은 가치관을 가지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해서 궁금했는 데, 몇일 전 댓글을 통해 건강문제로 쉬셨다고 하셨는 데

건강이 많이 좋아 지셨는지요?

부디 쾌차하셔서 좋은 글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10.04 12:01:13

공감 신고

공감 6

다방면으로 해박하신 심철주님글을 볼때마다 티끌만큼도 반론을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같은 연예인이라도 두사람의 사고나 의식, 개념의 차이가 많은걸 느낍니다.

한사람은 공직에 있으면서 이명박의 졸개가되어 아부하기에 급급한데,
또 다른 한사람은 대중적으로 국내외적 인기를 한몸에 갖고 있으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 자세가 다름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유인촌은 권력에 맛들여 이미 더러운 때가 잔뜩 묻어 더 교만해지고
시건방떠는 속물에 지나지 않을뿐입니다.
기본소양부터가 안갖춰진 사람이다보니 갈수록 더 그 본색이 드러날수 밖에요.

2009.10.04 14:04:04

공감 신고

공감 1
윤석원님! 오랜만입니다.
님의 댓글 내용이 제 글의 주제입니다.
"애국자 민간인 배용준! 그리고 개념없는 무능한 속물 유인촌!"
바로 존경의 대상과 경멸의 대상 그 표본입니다.
2009.10.04 16:30:58

공감 신고

공감 2
윤석원님... 본글 게시하시면 더 좋을텐데요
글꼭좀 써주세요 부탁입니다.
님의 글이 여러 눈팅님들과 국민들을 감동 시킬 것입니다.

Welcome 윤석원님~~!!
2009.10.04 19:04:43

공감 신고

공감 1

모든글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심철주 님의 세심함에 또 자상함에 경외를 표합니다. 쓰신 글의 내용도 더할수 없이 좋으시구요, 한데 염려되는것은 혹시 그래도 장관인데 너무 비하 하신걸로 비추어져 글의 내용이 함께 저속하다 남이 이를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기다리겠습니다.

2009.10.05 13:35:14

공감 신고

공감 1

맞습니다.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역대 외무장관, 주일대사, 총영사들을 한보따리에 다 싸도 배용준 씨의 업적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최고위의 외교훈장을 추서해도 아깝지 않을 그와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훈훈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양국을 오가며 일본관련 일을 20여년 하고 있는데 동남아 후진국들과 다름없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겨울연가' 이후로 수직상승하여 지금은 일인들의 우리를 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져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알리는 일은 국가장래의 백,천년에 이르는 대계임을 확신합니다.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영웅을 낳습니다. 존경, 배! 용! 준!!

2009.10.05 14:23:13

공감 신고

공감 0

이재식님! 고맙습니다.
작년 강연 들으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한마디로 전혀 개념도 계획도 없더군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창피한 수준이었어요. 저런 친구가 장관이니 MB정권이 헤매는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그후에도 기자들에게 쌍욕 추태부렸죠. 근본 바탕이 그것밖에
안되는 사람입니다.

안영철님! 일본을 오가시며 사업을 하시니 절감하시겠군요.
유인촌이가 할 일을 배용준씨가 대신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에게 존경심을 갖는 것은 배용준씨가 처음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예요. 두 사람의 근본 바탕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10.05 15:28:36

공감 신고

[chosun]

http://www.nakorean.com/bbs/list.html?table=bbs_1&idxno=75376&total=35200&page=1&sc_area=&sc_word=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 박정희

작성자 : 푸른산 2009-09-20 06:41:46 조회: 261

이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이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 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꽃이 피는건 이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랄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꽃으로 피었네. 이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된다. 눈물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2009-09-20 06:41:46

45 0

[네이션코리아]

http://www.nakorean.com/bbs/list.html?table=bbs_1&idxno=75376&total=35200&page=1&sc_area=&sc_word=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 박정희

작성자 : 푸른산 2009-09-20 06:41:46 조회: 261

이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이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 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꽃이 피는건 이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랄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꽃으로 피었네. 이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된다. 눈물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

2009-09-20 06:41:46

▫ 45 ▫ 0

[네이션코리아]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누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웠는가? [5]

김탁(kimtakk02) [2009-09-20 16:38:51]

조회 253 | 찬성 59 | 반대 1 | 스크랩 0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누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워 버렸는가?

이 훌륭한 국민교육헌장을 지우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5]

best

공감 5

김탁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만에 국민교육헌장을 대하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명문이 아닐수 없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국민 총화의 시대..*

무기력한 국민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오늘날 빛나는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했지요.

그 당시 국민을 이끄는 애국의 향도요 등불로서 국민교육헌장이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릴적 국민교육헌장을 끝까지 외우면 아버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요.

밤을 세워서 기를 쓰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지도력 아래,

오늘 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창조하신 선배 세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09.20 18:22:07

공감 신고

공감 1

어넌너미지웠나여?

2009.09.20 18:03:50

공감 신고

공감 5

김탁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만에 국민교육헌장을 대하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명문이 아닐수 없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국민 총화의 시대..*

무기력한 국민을 각성시키고 깨우쳐 오늘날 빛나는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했지요.

그 당시 국민을 이끄는 애국의 향도요 등불로서 국민교육헌장이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릴적 국민교육헌장을 끝까지 외우면 아버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요.

밤을 세워서 기를 쓰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하신 지도력 아래,

오늘 날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창조하신 선배 세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09.20 18:22:07

공감 신고

공감 2

문학님 훌륭한 아버님 두셨읍니다 이얼마나 국가를사랑는 애국애족의 글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보석은 변하지아니하며 그글을 재확인 시키는 김탁님

같으신분들이 있는한 절대 사장되지 않을겁니다

2009.09.20 19:38:13

공감 신고

공감 2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살아 보자는 의욕이

나라사랑이 부쩍 샘솟는 것 같은 명문(名文)이고

명(名) 격려(激勵) 문 이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 헌장이 바로

나라의 발전의

화합의

부강의

기틀이 되었고 씨앗이 되었으며,

영원히 우리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2009.09.20 23:47:46

공감 2

김 탁 님 !! 감사합니다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시는 님의 노고 정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건필당부드립니다 !! 전문학 님 !! 심정섭님! 박수진님 모두 건강하사구요 !!

2009.09.21 00:14:51

공감 신고

유머: 예수께서 가라사대 "김대중 같은..." [3]

[2009-09-03 00:07:02] 조회 308 | 찬성 29 | 반대 3 | 스크랩 0

김대중이 생전에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물어 보았다: " 정말 김대중이란 자를 보셨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

" 그 놈의 거짓말하는 버릇은 여전한게로구나.
나는 천하에 김대중 만큼 사악하고 간악한 사기꾼은 본 적이 없다.
그는 사탄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다고 내 이름을 도용해 팔고 다닌 것이다.
그가 본 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내 대신 시대의 영웅 박정희를 보내주었는데도,
평생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해치고자 하지 않았나. 그에게 한 짓 모두가 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느니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김대중, 앞으로 너를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완벽하게 해부해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모든 전라도인을 속이고, 일부 한국민을 속이고, 몇 명의 세계인까지 속였는지는 몰라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하늘은 네가 지난 평생동안 저지른 모든 죄악을 알고 있다.

네가 아무리 거짓과 허위와 위선으로 세상을 뒤덮으려 해도 속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건재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 하느(나)님, 부처님, 알라 공동선언 -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3]

best

공감 3

틀린말 하나두 업구만 종씨가 와 열을내노?우리종씨 대부분 착한대 돌연 변이가다있구만 ㅠ~

2009.09.03 01:06:20

공감 신고

공감 1

삭제된 글입니다.

2009.09.03 00:48:09

공감 3

틀린말 하나두 업구만 종씨가 와 열을내노?우리종씨 대부분 착한대 돌연 변이가다있구만 ㅠ~

2009.09.03 01:06:20

공감 신고

공감 1

느그들은 유우머도 모르니??

유우머로도 김대중을 경원시하면 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난분이네!!

2009.09.03 03:59:40

공감 신고

공감 1

하 하 하...

오늘은 즐거운날...

이렇게 코믹한 글을 접하니...

기분좋은날이다...

추천 한트럭분 날립니다...

하하하하.....

2009.09.03 08:33:45

[chosun]

박정희와 한국 [1]

연조(ystone22) [2009-09-02 12:46:55]

조회 169 | 찬성 27 | 반대 3 | 스크랩 0

박정희와 한국

- 민족중흥사상연구소 소장 정재경 -

5.16혁명의 단행

박정희는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을 단행했다. 그날 새벽 3시 혁명군을 이끌고 출동하면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은 금16일 3시를 기하여 해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하여 궐기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민족을 구하고 명일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아직 이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적인 사명감에 일철하여 결사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겨레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서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촌탁(忖度)하시고 쾌히 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민족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간두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완수에 신명을 받힐 것을 다시 한번 맹서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뵈어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여불비재배(餘不備再拜) 5월 16일 소장 박정희」

이 글을 읽어보면 박정희는 순수한 동기에서 민족회생의 대의에 입각하여 혁명을 단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혁명을 하면서도 상사를 깍듯이 모시고 구국혁명의 영도자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랐던 것이므로 의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경제개발의 추진

박정희는 혁명을 단행한 이듬해(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조상전래의 「보릿고개」와 「춘궁기」를 없애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시 한국의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 1백25개 국가중에서 국토면적은 약 10만㎢(남한)로 1백1위, 인구수

는 2천5백만명으로 27위, 인구밀도 3위, 1인당 국민소득 83달러로 98위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거기에다 국토구조를 보면 산지가 68%, 도로 및 하천이 11%, 농경지는 22%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면서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식량까지 1년에 약 2백~3백만t씩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부족한 자원과 기술□자본 등 어느것 하나 가진 것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전쟁위협을 받으며 경제건설을 해야만 했다.

박정희의 정치적 신념은 확고부동했다.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이해서는 경제건설부터 해야 한다. 자립경제의 달성만이 민족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을 먹여놓고 살려놓은 다음에 문화가 있고 복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경제를 확고히 다져놓지 않고 무턱대고 정치적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구두선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처럼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경제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체제경쟁에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경제건설에 주력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지향적인 수출주도의 개발전략을 채택했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40%의 수출 신장률을 보인 결과 1962년 약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1970년에 10억 달러, 1977년에 1백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것이 곧 한국 경제개발의 기적이요 혁명이다.

현대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지칭되는 서독이 10억 달러 수출에서 1백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11년(1950~1961)이 걸렸으며 일본은 16년(1951~1967)이 걸렸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7년박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박정희는 매월 수출 진흥 확대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여 수출목표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계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머리털(가발)하나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데 주력했다. 그의 정치적 인간학은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 1차적인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국민에게 먹고 사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기강을 심어주는 수단이라고도 생각했다.

1962년 당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5세였다. 그것이 1982년에 67세로 늘어났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국민의 평균수명을 12세 연장시켜 놓은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인구억제정책, 의료 및 보건기술의 향상, 의식주생활의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국민생활이 향상됨으로써 그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오래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통하여 한국인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준 것이다.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공간으로 파악

박정희가 5□16혁명을 단행한 것은 정치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소극적으로 수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결의의 표명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1971년 12월5일의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자유와 인권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보장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만 확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못지 않게 민족의 자유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었다. 즉 그는 언제나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공간(政治空間)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남한의 자유와 북한의 자유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른바 사상논쟁(思想論爭)을,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근대화논쟁(近代化論爭)을,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안보논쟁(安保論爭)을 유발시켜 국민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1972년에 이르러 유신정치를 단행하게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려 민족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개혁을 의미한 것이다. 유신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한반도의 내외정세를 한번 살펴보자. ①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미□중공 화해) ②주한미군 철수론(일부 철수) ③동남아의 적화추세 ④석유파동 ⑤1971년 선거에서의 국론분열(영□호남의 지역감정심화) ⑥북한의 남침위협 ⑦남북대화의 시작 ⑧근대화에 따른 갈등과 모순 증폭등 한국사회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정신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이했던 것이므로 새로운 정치적 단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970년대 한반도의 정치공간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당위성(當爲性)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개혁□문예부흥□산업혁명□정치혁명 등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극복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와 같은 혁명적인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부조리가 있고 사회적 병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는 부단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그 속에 사는 국민들은 사회적 질병과 치료라는 양면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고통이 있게 마련이다. 1980년 이래 한국사회가 더욱 병들게 된 것은 유신을 통한 사회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①정치지도자 부재 ②정치□사회적 불신 ③사회기강 해이 ④윤리□도덕 타락 ⑤사치낭비 풍조 만연 ⑥근로의욕 감퇴 ⑦인신매매 ⑧어린이 유괴 ⑨살인□강도 ⑩사기□협잡 ⑪치안 부재 ⑫교통지옥 ⑬교육실종 ⑭수출부진 ⑮경제적 침제등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병든 사회가 되고 말았다. 박정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고자 사회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새마을 운동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를 통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중흥을 기하고자 했던 한국적 근대화운동의 한 유형인 동시에 한국사회 개혁운동의 일환이다.
5□16군사혁명에 의하여 제창된 「조국근대화」의 이념은 그 이념 구현을 위하여 1970년대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기혁신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역사회개발의 자주적 협동을 요구했던 것으로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역사의 단축운동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라고 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이 갖추어야 할 근면□자조□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가 추진해야 할 건설운동이기도 했다. 그리고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화 운동인 동시에 분단국가가 쟁취해야 할 통일에 대비한 국력배양 운동이라는 데서 국민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새마을운동 노래의 가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서로서로 도와서(협동) 땀흘려서 일

하고(근면)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자조)」라고 하였으니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근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도 했다.

적극외교의 전개

외교란 국제적 환경에 적응해 가는 국가적 활동이다.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생물계에 있어서 생존의 기본원칙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가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60년대 이래 전개한 박정희의 외교활동은 한국 외교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즉 1961년 5□16군사혁명 당시 불과 16개국에 불과했던 외교망이 1979년, 그가 서거할 당시에는 1백16개국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한국이 세계정치의 주역이 되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①한일국교정상화 ②한미행정협정 ③월남파병 ④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SPAC)등이다. 그는 1964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독을 방문하여 유럽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한편 1966년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월남지원국 7개국 정상회담」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가 되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965년에 추진했던 한□일관계 정상화는 양국간에 가로놓인 전쟁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두 민족에게 똑같이 승리감을 안겨줘야 하는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육입국의 의지

박정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군인이요, 군인이기 이전에 교육자이다.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출발을 교사로 시작했다. 그러므로 일제 시대의 암울했던 분위기에서 군인으로 변신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평생을 교직에 종사했을 것이다. 그는 남달리 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에 대한 신념 또한 투철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개발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란 인인성사(因人成事)가 그 본질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을 길러 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이 좌우된다. 국가의 발전은 교육의 발전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기도 했다. 가정에 있어서도 완전한 교육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인 것처럼 국가에 있어서도 완전한 교육을 국민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인 것이다.

특히 이렇다 할 부존자원도 없이 뒤늦게 근대화를 표방했던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들과 피나는 경쟁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반포하고 바람직한 한국인상, 국적 있는 교육의 전개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국민의 생활규범이요,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 민족의 양심과 꿈과 희망이 담긴 장전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와 왜곡되고 말았다. 정치지도자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을 마치 일제시대의 교육칙어처럼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한국교육은 준거를 잃고 만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교육에 두고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1978년에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학 및 한국문화 연구의 본산으로 삼았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1963년까지 약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다. 1963년에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민정에 참여했고 제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민선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제6대(1967년), 제7대(1971년)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 국면을 맞이하자 유신정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11월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제8대 대통령(1972.12.27)으로 당선되었으며, 1975년 2월12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및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다시 신임을 얻어 제9대 대통령(1978.12.27)으로 당선되었다.

정치인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돼

통산 18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다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을 맞고 서거함으로써 박정희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말았다.

박정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혁명가이다. 박정희시대는 역사학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 창조의 시대인 동시에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는 분명 한국사회의 개혁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가라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를 단순히 정치인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데서 인식의 괴리현상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민족사회의 개혁을 목적으로 했던 혁명가가 안방 구들장에 누워서 시름시름 병으로 앓다가 죽기를 역사는 거부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심복의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이 혁명가다운 죽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974년 「8□15경축식」 식전에서 문세광의 총탄이 빗나가 박정희가 죽어야 했을 것을 육영수 여사가 대신함으로써 박정희의 이름에 흠집을 내었다는 사실이다. 어떻든 박정희는 한국의 5천년 민족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인물이다.

※이 내용은 1993년 4월호 월간조선에 〈박정희 대통령 약전(略傳)〉으로 계재되기도 했음 .

TAG 한국과 박정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

best

차익조

chaij

공감 3

좋은 자료의 글에 잘못해서 반대를 눌렀군요.

이런 위대한 혁명가를 쪼잔하고 못난 정치 패거리들이 오늘날도 이어지는 구태의연한 정치 선동놀음을 구속했다고, 민주 운운하면서 고인을 매도하고 아직 제 버릇들을 못 고치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없는 정치현실입니다.

2009.09.02 13:26:48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대한민국과 박정희를 보고 [10]

홍종국(ghdwhd) [2009-09-02 13:36:30]

조회 106 | 찬성 2 | 반대 15 | 스크랩 0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라가게한 인물은 맞다. 그가 독재를 하며 국민을 짓밟음으로해서 우리나라는 피터 드러커 같은 세계의 석학에게 "대한민국은 2차대전후 세계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 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박정희같은 희대의 독재자가 없었다면 어찌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 싸운 사람" 이라는 찬사가 있었겠으며 어찌 노벨평화상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영광중의 하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박정희는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다. 낮에는 국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맨날 부르는 심수봉은 인간차별하며 안 건드리며 노래만 시키고 밤마다 연산군의 채홍사를 파견하여 젊고 탱탱한 여자를 즐겼다.

한편에선 나에게 밥굶는 것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위대한 영도자라고 추앙을 받지만 한쪽에선 수많은 사람에게 간첩의 멍에를 조작해 죽이고 군화발로 짓밟은 독재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어느쪽이 옳은가?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둘다 사실이다. 그런데 독재와 여자문제와 부정축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에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오고 배부른 돼지가 되고픈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이 어찌 힘으로 누르는 자에게 굽실거리며 살겠는가?

나는 솔직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지언정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박정희는 그런 면에서 추종자들을 영혼없는 배부른 돼지로 만든 세계 악인 열전에 올라간 악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사실 이미 죽어서 백골이 흙이 되었을 박정희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거늘 죽어도 박정희 아니면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자들 때문에 박정희의 독재와 엽색행각을 밝히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일가족 간첩단의 누명이 벗겨졌지만 고문경찰 이근안이 목사가되어 자신은 애국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그를 옹호하는 자들도 많다. 에효, 새대가리들.....

문제는 그당시 박정희 덕에 배곯은 것을 면하며 빨간 완장차고 위세하던 자들이 그 당시를 그리워 한다는 것이고 개처럼 복종하던 자들도 같은 지역이라고 예예 하며 아직도 긴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박정희추종자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그들에겐 독재자의 개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논리도 허구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 알려진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바꾸자" 삼성 신경영 선언 이후다.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진 것은 삼성애니콜 때문이고 월드컵 4강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확실히 세계인에게 각인되었다.

피터 드러커의 찬사도 2004년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2005년에 비로소 세계13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박정희 추종자들때문에 IMF로 깡통차고 난후인데 이것이 어찌 박정희의 덕이겠는가?

또한 경제발전을 박정희가 했다는 주장은 우리의 발전이 일본식민통치의 덕분이라는 수/구/꼴/통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상을 이분법이나 흑백논리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지들끼리도 안맞는 이론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그 이승만을 귀국하지 못하게 하여 외국에서 죽게 만든 철천지 원수인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논리의 헛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이 했고 박정희는 그 건국을 부정하며 쿠테타를 일으켰고 일본놈들과 짜고 일본돈을 받고 나라를 팔기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외국에서 죽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 일본놈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박정희 때 부터니 그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친일파에 공산당에 반미파의 선봉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찌 애국자이며 반공의 선봉이며 친미파가 될 수 있겠는가? 이승만은 반일 애국자에 반공파에 친미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도 박정희는 절대로 이승만을 따라가지 못하는 버러지에 불과하다.

만약 박정희가 우리역사에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다고 본다. 박정희는 분명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惡役을 잘해냈다. 그가 없었다면 그의 독재와 추한 죽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찬란하게 빛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도 당근없다.

험한 산을 넘으면 드넓은 평야가 나오듯이 박정희는 우리 근대사의 함한 산이었고 우리는 마침내 박정희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박정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박정희에게 고마워하는 관점과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과는 견해차이가 천치차이지만 어쨌튼 박정희는 우리역사의 발전을 촉진한 거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도 역사의 거인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논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텐데 그게 안되니 참으로 아쉽다.

우리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역사의 두거인이 있어 행복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기바란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0]

best

이기룡

ioi2002

공감 3

이럴때 어울리는 웃음이 '히~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웃고자해서 웃는게 아니라 조소를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글이라서 그렇습니다."..어느쪽이 옳은가?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둘다 사실이다.."한 사실이라 함은 그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직접 댁의 눈으로 확인해서 얻은 사실이라는 상황을 말합니까? 어찌해서 안티故박정희들 가운데 3류작가들이 많은지 그것이 때론 의문으로 남을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런 자가 여기 또 있습니다.영화 내용중 베드신이 있으면 배우들을 위한 배려로 감독과 카메라맨 둘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듯 故박정희의 여자들이란 소설 쓰길 어찌 이리 즐기는지 그 종자들 수준 좀 보소

2009.09.02 13:54:22

공감 신고

차익조

chaij

공감 2

그는 일반 국민들을 짓밟은 적이 없다. 그의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하는 정치인들, 우리 사회 파괴를 기도한 자들을 제지시킨 일은 있어도.. 아무대나 국민을 팔지 말기 바란다. 그 글을 읽었다면 일반 정치인과 혁명가를 비교하는 자체가 아둔할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그는 국민들과 겨레, 나라를 위해 일신을 바쳤을 뿐이다.

2009.09.02 13:43:51

공감 신고

홍종국

ghdwhd

공감 1

누구를 위한 혁명과업? 부인을 때리고 밤마다 술쳐 마시고 국민을 위했다고?

다른 사람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했는냐?

2009.09.02 13:50:22

공감 신고

차익조

chaij

공감 1

홍씨 그대의 리플은 "영웅을 몰라보는 하인배들"이나 하는 소리(헤겔)요

2009.09.02 13:52:12

공감 신고

홍종국

ghdwhd

공감 1

윤희복 자네도 2년전 내게서 글 지우고 도망간 자 아닌가?

그글은 정수현님이 다 보관하고계시다. 한번 올려줄까?

자네가 내게 "조승희는 한국인"이라며 건방진 말투를 쓴 것을 생각해보라!

나쁜 것은 본래 되로주고 말로받는 것이다.

2009.09.02 13:53:03

공감 신고

이기룡

ioi2002

공감 3

이럴때 어울리는 웃음이 '히~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웃고자해서 웃는게 아니라 조소를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글이라서 그렇습니다."..어느쪽이 옳은가?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둘다 사실이다.."한 사실이라 함은 그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직접 댁의 눈으로 확인해서 얻은 사실이라는 상황을 말합니까? 어찌해서 안티故박정희들 가운데 3류작가들이 많은지 그것이 때론 의문으로 남을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런 자가 여기 또 있습니다.영화 내용중 베드신이 있으면 배우들을 위한 배려로 감독과 카메라맨 둘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듯 故박정희의 여자들이란 소설 쓰길 어찌 이리 즐기는지 그 종자들 수준 좀 보소

2009.09.02 13:54:22

홍종국

ghdwhd

공감 0

이기룡님 당신 같은 사람은 직접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같은 사람이지요.
그당시 상황은 이미 신문과 책에 자세히 나왔고 박정희의 독재는 몸으로 경험하며 싸운 사람이오.
남은 3류소설가고 박정희를 찬양하면 일류소설가요? 껄껄....

2009.09.02 13:59:48

공감 신고

김효원

acbd1001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9.02 14:00:41

홍종국

ghdwhd

공감 0

윤희복의 입도 상당하구먼...

2009.09.02 14:01:00

홍종국

ghdwhd

공감 0

윤희복은 2년전이나 똑같구먼. 자기는 반말하면서 다른사람은 자기에게 반말하지말라니...

먼저 옳바른 사람이 되시게나...

2009.09.02 14:37:34

공감 신고

조경주

light0315

공감 0

복받기를 바라는 자라면?..아전인수식의 삶을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이다.

2009.09.02 14:56:57

공감 신고

박승진

playa88

공감 0

홍종국씨

소설 써가면서 박정희를 실컷 욕을보이고서는 김대중이와 함께 역사의 두 거인이라??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왜 당신 속내대로 김대중이만 거인이라고 하고 말 것이지

거기에 박정희를 도매금으로 같이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뭔가요???

박정희를 김대중의 선과 악의 비교대상으로 삼자는 꼼숩니까?

아니면 김대중 혼자만 거인이라 하기엔 낯이 간지러운 건가요?

2009.09.02 15:00:19 삭제 | 수정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삼위일체—朴正熙 [0]

김종득(qq1717) B [2009-09-02 14:27:24]

조회 59 | 찬성 10 | 반대 1 | 스크랩 0

박정희장군이 혁명이였든 구테타였든 집권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드리워진 권력의 음과 양을 살피고자 한다면 치우침이 있으면 결코 안된다고 본다.

과오가 너무나 분명한 것은 맞지만 시대적으로 일제압정기 후 불과 15년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했던 것이 국가적으로는 안보요, 국민에게는 쌀" 이였음은 불문가지 아니였던가!

광복후의 국제조류는 좌와 우의 이념 대결속 냉전시대였고 대한민국은 그 정점에 놓인 최전방의 분단국가였다.
국민의 생활수준은 세계 최빈국였고...

식민지시대의 패배,피해의식으로 팽배한 가난한 농업민족과 남북의 군사대치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단조국이라는 시대적 현실속에 배달민족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 슬기롭고 근면성실한 정기를 결집시켜 조국의 근대적 산업화로 매진하게 끔 안보와 경제의 실질적 토대를 쌓은 시대가 갈망한 실질적 지도자"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온 것은 국가 국민 모두의 福 아니 였을까한다.

흔히, 얼마전 서거한 김대중의 민주화투쟁보다 ,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 않을 無의 조국에서 산업근대화라는 有를 창조한 박정희의 시대적 투쟁(?)이 과연 과소평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개인적인人物로 보나 정치적 역량으로보나 박정희만한 지도자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모래알 같은 모습속에 패배의식으로 함몰된 전국민에게 희망이라는 빛줄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박정희의 정치적 역량은 좀 과한 표현을 빌리자면 왕조시대의 聖君으로 비유할 지언정 지나침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는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최단기간 강력한 리더쉽을 얻기위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에 역행되고 反하는 인권문제에 흠"을 주었던 부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 대다수의 일반민중이 바라는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훨씬더 더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모순되지만 필요악"정도로 변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부에서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이력과 사생활이나 재산문제등으로 흠을 내더라도, 아니 그것이 설령 사실과 상당부합 할 지언정 그가 이룩한 그 시대의 통치업적 만큼은 결코 우리가 폄훼시키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않될 것이다.

故박정희대통령은 無에서 有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참 지도자"로 길이 기억될것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인물이였다.

時代"가 부른 祖國"의, 指道者"였다.

[chosun]

가지마루팬다

http://flowermall.co.kr/common/goods_detail.htm?goods_uid=8117&keycode=ff

http://flowerpot.simpol.co.kr/goods_detail.php?goodsIdx=43088&shopid=bender_NLX633_166

생활속의 그린더하기 sk꽃농원

〈제품사이즈〉

가지마루팬다높이: 약 40cm이상

고무나무의 일종으로 공기정화 및 관상식물로 가장 유명한

잎은 광택이 나며 사철 푸르름이 계속되며 뿌리가 예술적인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인삼팬다에 대하여.... 〉

* 식물의 이름은 " 인삼팬다"' 라고 부릅니다

* 대만고무나무 (굵은 줄기가 인삼모양을 닮아 인삼벤자민으로부르기도 함)줄기에

팬다고무나무를 접붙인것입니다

* 식물분류학상 고무나무의 한 종류로 동남아 대만등이 자생지인 열대식물입니다

* 벤자민은 Ficus benjamina 이고요 대만고무나무는 Ficus retusa 로 같은속의

식물로 친척뻘 되는 식물입니다

* 벤자민이나 대만고무나무 (인삼벤자민 - 분재형태로 키운 줄기가 인쌈뿌리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 나 특성이 분갈이를 하거나 기르던 장소를 옮기면
몸살을 아주 심하게 하는데 , 한군데 적응만 잘하면 잘자라는 식물입니다
* 빛에 대해서는 계절적 특성을 타는데
봄 , 가을 볕에는 잎이 타나 성장력이 왕성한 여름에는 강한 직사광에도 잎이 타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맘때 쯤이면 오래 길러 모양이 흉한 나무들을 바짝 잘라
실외에 두어 강한 직사광에서 새 순을 받아 모양을 새로 잡습니다
* 설명하신 것처럼 잎이 떨어질 때는 가능한 햇빛이 잘드는 양지 바른 곳에 두는게
좋구요 물은 내건성 식물로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자주 주시면 안됩니다
화분위의 흙을 만져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세요
* 대개 햇빛이 잘드는 실외는 자연 증발량이 많으므로 맑은 날은 2-3 일에 1 회
베란다는 4-5 일에 1 회 밝은 실내는 주 1 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 여름 한철만 햇빛을잘 받으면 잎도 잘 나오고 건강해 집니다
가을이 되면 밝은 실내로 들이세요
* 동남아 , 대만등이 자생지인 (아) 열대성 식물로
추위에도 어느 정도 강하나 겨울은 10 도 이상으로 월동시키는게 좋습니다
(겨울에 휴면하는 식물이 아니며 너무 추운곳에 두면 새로 나온 잎이
왜곡되어 나옵니다)
* 해충은 새로 나온잎에 진딧물 (대개 새잎을 또르르 말아 그안에 기생) 이나
잎 뒷면이나 잎자루에 깍지벌레 (밀랍으로 무장 딱 붙어 있어 잘 안떨어짐 -
배설물로 꿀물을 배성 만지면 잎이 찐득찐득함) 가 생기는데
해충이 보이면 퐁퐁을 떨어뜨린비눗물을 분무후 면봉이나 칫솔등으로
문질러 떼내세요 (심하면 살충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범 히로히토 일왕에게 절하는 김대중 [6]

[2009-08-25 06:33:57] 조회 305 | 찬성 54 | 반대 1 | 스크랩

전범 히로히토 일왕에게 절하는 김대중

정일창의 '박정희 씹기 공중돌기 묘기' 가 조토마에서 너무 유치찬란해서 정일창의 반응을 보고자 '김대중의 일왕히로히토에게 절하는 모습'을 올려봤다

당신이 그렇게도 물고 늘어지는 '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군 전력'은 젊은 시절 직업적으로 선택한 어쩔수 없는 시대상황이었고

김대중의 일왕 조문은 1989 년이라면 평민당 총재로서 한국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대인데 전범에게 조문을 하는 김대중을 어케 생각하는지 정일창은 답하라~

바다 팔어먹은 김대중 용서할 수 없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댓글쓰기 [6]

best

공감 5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좌파종자들은 김일성을 독립투사로 정하고 보수집단을 향해 독재자.친일파로 매도하려 하고있다.죽어가면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일기장까지 날조하는 좌파들의 악랄한 수작은 역사가 심판하고 김대중의 묘는 곧 부관참시 될것이다.

2009.08.25 07:33:56

공감 신고

공감 5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좌파종자들은 김일성을 독립투사로 정하고 보수집단을 향해 독재자.친일파로 매도하려 하고있다.죽어가면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일기장까지 날조하는 좌파들의 악랄한 수작은 역사가 심판하고 김대중의 묘는 곧 부관참시 될것이다.

2009.08.25 07:33:56

공감 신고

공감 2

나도 꼽사리끼자.

정일창에게 묻는다!!!

김대중이 재임중 일본에 갔을때 소학교시절 은사를 만난 사실이 있나?

그때 김대중이 일본인 은사에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

김대중이라 했나?

긴다이쭈라 했나?

창씨개명된 도요다 아무꺼시라 했나?

김대중에게 한번 도요다는 영원한 도요다인가?

2009.08.25 07:45:53

공감 신고

공감 2

정일창에게 한마디 더 묻자!

김대중은 해방 전 천황폐하 만세를 몇 번이나 외쳤나?

그때 일왕이 바로 히로히도가 맞지?

2009.08.25 07:48:26

공감 신고

공감 1

저 사진이 경향신문사 기자만 찍어 특종으로 보도했다면 김대중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일왕 영전에 절하다가 들킨것 아닌가?

어릴때 일인 은사의 엄한 지시에 좇아 목청껏 만세부르던 지존중의

지존께서 돌아가셨는데 김대중씨의 감회가 어땠을까?

2009.08.25 07:53:55

공감 신고

공감 2

송장 정국 6일을 결산한 dink0726 님의 특종 발굴입니다.

시신과 함께 땅속으로 묻혀버린 김대중의 반역질 죄상을 최영애님과 같은

노력으로 언젠가는 현충원을 더럽힌 붉은 역도의 시신까지 발굴하는 날이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2009.08.25 08:11:40

공감 신고

공감 0

감사합니다.... 이X영, 임X갑, 문X수, 정X창,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구요...

2009.08.25 10:49:27

공감 신고

[chosun]

[포토] 박근혜, 김대중 전 대표 빈소 조문

2009.08.21 11:02

http://www.nbc1tv.com/news/artide.html?no=1341(포토뉴스 보기)

[포토]박근혜, 김대중 전 대표 빈소 조문

친박계 구상찬 이정현 진영 유정복 의원등과 동행

정세희 기자 _shjung@nbc1tv.com

▲ 박근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중앙 분향소를 찾아 친박계인 구상찬 이정현 진영 유정복 의원등과 함께 조문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대문 사진을 고개숙여 묵념하는 사진을 올리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글을 올렸다. NBC-1TV 방송 화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중앙 분향소를 찾아 친박계인 구상

찬 이정현 진영 유정복 의원등과 함께 조문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대문 사진을 고개숙여 묵념하는 사진을 올리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글을 올렸다. [NBC-1TV 정세희 기자]

▲ 박근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중앙 분향소를 찾아 친박계인 구상찬 이정현 진영 유정복 의원등과 함께 조문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대문 사진을 고개숙여 묵념하는 사진을 올리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글을 올렸다. NBC-1TV 방송 화면

▲ 박근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일 오후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 중앙 분향소를 찾아 친박계인 구상찬 이정현 진영 유정복 의원등과 함께 조문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대문 사진을 고개숙여 묵념하는 사진을 올리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글을 올렸다. NBC-1TV 방송 화면

등록일: 2009-08-20 오후 7:38:30

정세희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조문 (09/08/21)
- [정계소식][방송]육영수 여사 35주기 '3천여 추모인파로 북새통' (09/08/15)
- [정계소식][방송]친박연대 '사법부에 전면전 선포' (09/06/17)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여의포럼' 축사 "함축된 뉘앙스 있다" (09/06/04)
- [정계소식][포토]승자에게 박수 보내고 떠나는 박근혜 (09/05/21)
- [정계소식][방송]48년 전 오늘 "박정희가 등장했다" (09/05/16)
- [정계소식]서청원 장남 서동익 "아버지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09/05/15)
- [정계소식]서청원 결백 '대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09/05/14)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귀국 현장 '취재 열기로 후끈' (09/05/11)
- [정계소식]서청원 "현 정권의 장관들은 말조심해야 한다" (09/04/29)
- [포토뉴스]만덕이선비, 제3회 육사모 목련꽃사진전 '금상 수상' (09/04/27)
- [정계소식][방송]제49주년 4.19혁명기념식 (09/04/19)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경주 재보선 논란은 우리 정치의 수치" (09/04/01)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청소년들의 불행은 미연에 방지해야..." (09/02/25)
- [정계소식]박근혜 "촌철살인(寸鐵殺人) 생일 답사" (09/02/02)
- [포토뉴스]악천우 심술 부린 '육영수 여사 숭모제' (08/11/29)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어머니 소망, 눈물 흘리는 이웃 없는 나라" (08/11/29)
- [포토뉴스]정영희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대 했는데..." (08/11/13)
- [정계소식][방송]친박연대 "순항과 좌초?..." (08/11/13)
- [정계소식]박정희 추도식 '2천여 명의 추모 인파로 북새통 ' (08/10/27)
- [포토뉴스]박정희 추모식 '2천여 인파로 북새통' (08/10/26)
- [정계소식][방송]故 육영수 여사 제34주기 추도식 (08/08/15)
- [정계소식]서청원 "단 1전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다" (08/07/31)
- [정계소식]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친정 나들이... (08/07/03)
- [정계소식]"복당은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일.." (08/06/17)
- [정계소식]박근혜 "청와대 행 또 헛걸음" (08/05/10)
- [정계소식]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검찰 출두하던 날' (08/05/08)
- [정계소식]박근혜, 조건부 불출마 선언 (08/04/25)
- [포토뉴스]친박연대 '안산지청장 항의방문' (08/04/23)
- [정계소식]"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08/04/11)
- [정계소식]김무성 "영혼을 팔지 말라니 박근혜가 죽었나?.." (08/04/03)
- [정계소식]박정희 생가 침통 '국민들 경악' (08/03/27)
- [정계소식]박근혜 "너무 안타깝다" (08/01/27)
- [포토뉴스]박근혜 전 대표 "맛있게 드세요" (08/01/27)
- [정계소식]李. 朴 회동 "급한 불은 껐지만.." (08/01/24)
- [정계소식]박근혜 중국특사 "왜 반대하는가?" (08/01/06)
- [정계소식]박근혜 "공천은 당규와 당론대로.." (07/12/28)
- [정계소식]박근혜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인 되겠다" (07/12/27)

- [정계소식]박근혜 출두에 '통행 마비된 화원시장' (07/12/11)
- [정계소식]'박근혜의 아름다운 승복에 감동의 박수..' (07/12/10)
- [정계소식]곽성문, 옥천에서 박 전 대표 만나.. (07/11/29)
- [정계소식]박정희 추모식 3천여 명의 인파.. (07/10/26)
- [정계소식]박근혜 "본인 신상명세 국민 앞에 공개 하겠다" (07/07/18)
- [정계소식]박근혜 "나는 부모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 (07/07/12)
- [정계소식]박근혜 "부모님 유지를 받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 (07/07/12)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전 대표, 11일 인천공항 환송식 (07/02/12)
- [정계소식]박근혜 전 대표 "옥천 외갓집 방문' (06/12/21)
- [정계소식][방송]박근혜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씨 면담' (06/03/26)

[박사모/nbc]

[펌] 이한구"4대강강행,정치적위기 초래할 것"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임

2009.08.14 14:18

이한구의원 국책사업 반대에 찬성 [0]

[2009-08-13 22:57:49]

조회 84 | 찬성 14 | 반대 2 | 스크랩 0

이한구의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대통령 공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다.

지난 5년을 봐라. 단돈 5조만 들이면 대전 충남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지방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선동가로 인해서 얼마나 국가재정에 무리가 왔는가 생각해야 한다. 건설비까지 5조가 든다던 선동가 집권기에 보상비로만 5조가 더 들었고 본격 공사를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 선동가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에는 뭐 없냐고 하니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등을 유치한다고 난리를 쳤다. 이미 수십조의 돈이 보상비로만 뿌려쳤고 국가재정에 엄청난 생쳐기는 이미 생겼다. 그리고 이돈은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확실히 부어 전국이 투기장이 되버렸다.

이 선동가는 돈 아낀다고 예를 들어 중요한 soc사업 민자로 돌리는 것을 서슴치않고 해버렸다.
예를 들어 거가대교를 봐라. 거제에서 부산까지 통행료가 만원이 넘는다면 누가 이용을 하는가.

홍수기 시간당 강수량 확대가능성으로 인해 각 댐들의 여수로 확충이 시급했건만 이것도 뒤로 미뤘다. 2008년의 가뭄 수자원공사에서 여수로공사가 완료된 댐을 활용했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야 한다.

전면적인 4대강 투입은 조금 자제해야 한다. 선동가가 뒤로 미뤄버린 댐 별 여수로 공사 정도만 긴급 추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로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국가 경제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위기는 더 이상 와서는 안된다. 지난 외환위기가 좌파정권 10년을 열어준 것 처럼 좌경사상은 경제위기를 먹고 자란다...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더 소중한것은 건전한 국가재정이다.

3류 선동가나 건전한 국가재정을 자신의 득표와 바꾸는 법이다.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이한구"4대강강행,정치적위기 초래할 것" [6]

[2009-08-13 23:37:16] 조회 250 | 찬성 32 | 반대 7 | 스크랩 0

이한구 "4대강 강행, 정치적 위기 초래할 것"

"권력자가 추진한다고 대충 넘어가선 안돼", "재정파탄 불보듯"

2009-08-13 09:34:46

한나라당 지도부의 4대강 사업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3일에도 거듭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재정이 완전 파탄 나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계속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거듭되는 함구령에 대해 "옛날 케이스를 보면 권력자가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심사할 때 내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때 심사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당도 대충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당이 철저히 따져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연일 함구령을 남발하는 당 지도부를 정조준, "당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당이 리드를 해야지, 정부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생-지역SOC예산을 잠식하는 4대강 예산이 야당에게 정치공세 빌미를 주기에는 아주 적절한 소재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내 판단으로는 위험한, 정치적으로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적극적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다가 재정이 파탄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 그렇다. 그건 아주 각오를 하고 한다"며 파국적 재정파탄이 불가피함을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정 포퓰리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재정은 공짜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뭐 인심 쓸 때는 다 재정에서 다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다.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엄격한 규제가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거듭 **현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이한구 의원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어서, **항명 파동**은 계속 확대재생산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6]

best

공감 8

4 대강 사업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33.6% 삭감', '기초생활보장 2589억원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502억원 축소' 등을 통하여 'MB 반서민 예산' 이라고 규정할수 밖에 없다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복지예산등을 줄여 서민을 다 죽이는 것이다.

2009.08.13 23:40:21

공감 8

4 대강 사업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33.6% 삭감', '기초생활보장 2589억원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502억원 축소' 등을 통하여 'MB 반서민 예산' 이라고 규정할수 밖에 없다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복지예산등을 줄여 서민을 다 죽이는 것이다.

2009.08.13 23:40:21

공감 신고

공감 2

4대강유역 정비사업 절찬리에 성공거두면 최여사도 좋아진다

뭘 알고 반대하는 펌질하시지 딱보니 너무하시네

석학들이 국가시책 중점사업이다 이 정도면 믿어도된다.....

2009.08.13 23:51:06

공감 신고

공감 7

당내에 저런 의원이 있다는게 신통방통하구나

다른 기회주의 의원은 세비만축내는 개털이냐

2009.08.13 23:52:56

공감 신고

공감 5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요즈음의 중국,타이완 일본, 한국등등의 사태를 볼때, 홍수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

4대강 정비문제는 필수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1세기 앞을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크나큰 재난과 재앙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예산이 몹니까?

돈이 몹니까?

종이에 인쇄한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것 입니다.

2009.08.13 23:56:39

공감 신고

공감 6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는 순수한 물살리기로 1.충분한 수자원 확보==2. 수해예방 ==3.수질개선 오염방지====〉요기까지로 전국의 모든 담수를 살려내야 한다.

***그외 4.복합공간확보===5. 관광등 지방경제 활성화=====〉요 2가지가 문제요 말썽이요!! 돈먹는 하마다!! 아니 돈먹는 악어

다.====〉요 2가지에 지자체장들이 뽕 가서 제정신이 아니다.
요 2가지가 모든 부정/부페/나눠쓰기의 원인이다!!!

****고로 정부는 물만 살려라!! 위의 맨 위줄에 있는 3가지 물만 살려!!==〉제발!!
나머지는 다 끝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른 필요/수요대로
민자/민영으로!!==〉제발!
##젯밥 생각 말고 염불 만 하라!!
2009.08.14 00:33:06

공감 신고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MB, '위장 대운하' 때문에 몰락할 것" [13]

[2009-08-14 05:30:56] 조회 321 | 찬성 45 | 반대 7 | 스크랩 0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가 정권재창출에 직결된다'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발언했다고 한다

참으로 근거없고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성조의원이 정책위원장이 되더니 민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친이들의 4대강사업에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는 듯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누가 김성조 정책의장을 보고 친박이라고 했던가? 그는 친박이 아니다 친박국회의원이라면 그따위 발언을 할수가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모당의 대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권은 위장된 대운하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을 것 같다"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MB, '위장 대운하' 때문에 몰락할 것"

"4대강 사업은 서민예산 블랙홀" // 기사제목 인용

한나라당 지도부의 4대강 사업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4대강 강행, 정치적 위기 초래할 것" " 권력자가 추진한다고 대충넘어가선 안돼다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작심한듯 이한구의원의 항명성 발언이 13일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친이 국회의원들마저 동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생과 서민복지에 쓸 돈을 모조리 4대강에 쏟아 붓겠다는 서민예산 블랙홀이고 아이들 급식비를 빼돌려 환경 파괴의 주범 백해무익한 대운하의 전단계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33.6% 삭감’ , ‘기초생활보장 2589억원 감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502억원 축소’ 된다고 하니 4대강사업이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마저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숫가락을 빼앗아 4대강 사업을 하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최근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의 항명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4대강 사업일을 강행하고 있으니 급기야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도 항명, 반발하는 분위기가 크게 감지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고 그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될수도 있기에 당은 제동을 걸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당정분리를 당헌당규에 정했는데 이것을 한나라당 친이들이 장애가 되기에 당헌마저 바꾸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일을 어거지로 추진하려니 비난과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모르긴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원성에 지쳐,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한다고 항명을 넘처 아우성 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민의와 어긋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한번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길 바라고 즉각적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건국이래 최고의 돈이 들어간다는 대운하 전단게 4대강 사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별로 없을때는 중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3]

best

공감 7

하여간 대통의 거짓말은 끝이없구나 정부돈 안쓴다고했잖아
그리고 10조내로 한다구했고 시간이 갈수록 왜 자꾸 액수가
올라가냐말이야 국민여론조사두 안하고 이게 민주주의야

4대강 중요한거 알아 허지만 그거때문에 다른거 망쳐도 되는
거냐구 김성조 정책의장 전후좀 가려서 정책펴 이래두 되나

권력의 껌딱지는 되지말아야지 소신이라면 할수없지만...
2009.08.14 06:38:15

공감 신고

공감 1

최여사님 또 아침부터 시작하신다 4대강은 국가주요시책사업
나라 국민 후손을위해 옳은일
개인견해 존중하다만 왜 그렇게 반대하는가 굉장히 의문이다 ...
2009.08.14 05:57:17

공감 신고

공감 4

최영애님과 나는 한편이라기 보다는 우리리고 칭함이 옳겠지요.
죄송합니다 님의 의중도 없이 친한척해서
나는 일단 대선에서 정동영에게 줄 수 없는 표로 인하여
이명박을 지지한 원죄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건 이 정권이 잘 마무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좀 아니다 싶은 행동들을 대통령이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명박 지지라는 원죄 때문에 내 얼굴에 가끔 홍조가 뜹니다.
우리 명박이 각하 좀 살살 해주세요.....^^
2009.08.14 06:26:30

공감 신고

공감 7

하여간 대통의 거짓말은 끝이없구나 정부돈 안쓴다고했잖아
그리고 10조내로 한다구했고 시간이 갈수록 왜 자꾸 액수가
올라가냐말이야 국민여론조사두 안하고 이게 민주주의야

4대강 중요한거 알아 허지만 그거때문에 다른거 망쳐도 되는
거냐구 김성조 정책의장 전후좀 가려서 정책펴 이래두 되나

권력의 껌딱지는 되지말아야지 소신이라면 할수없지만...
2009.08.14 06:38:15

공감 신고

공감 1

난 4대강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대통령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한강을 정비하니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졌는지~~
4대강이 모두 이렇게 정돈된다면 홍수도 줄이고 물도 맑아질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2009.08.14 06:58:36

공감 신고

공감 1

이정숙님 최고집은 말이 안통합니다 옛날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두가지연유로 반대했죠
하나는 국가재정없어 혈세낭비다 논밭농사방해마라
여기에 땅값보상 많이받을려고 포크레인앞 드러눕고아시죠...이유달라도

2009.08.14 07:23:36

공감 신고

공감 1

세계도처에서 홍수의 재난을 보십시요?
가까운 나라들의 산사태나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십시요?
남의 일이라고 보기엔.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도 준비 즉 유비무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열대성 폭우로 인한 재난을....
2009.08.14 07:52:34

공감 신고

공감 5

홍수 방지할려면.. 필요하 곳에 댐을 설치하면 되지..
무슨 [서민복지예산]을 줄이고..재정적자 늘이면서..
4대강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과한것은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빚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필히 탈이 나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2009.08.14 08:07:15

공감 신고

공감 4

윤준철님 ,이정숙님// 4대강 본류에 홍수 났다는 소리 최근들어 들어 봤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정부가 제대로 강을 준설하지 않아 사라호의 악몽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의 준설을 해서 지금은 거의 4대강 본류쪽에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는 것은 4대강이 시작되는 지류 쪽이지요 같은 말을 몇번이나 되풀이 해야 ....
2009.08.14 08:40:51

공감 신고

공감 3

이영옥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우리라고 해도 좋고 ...
M B를 찍은 사람들이 대게 님과 같이 후회를 하고 있더군요.
님의 글 읽고 내공 높음을 알아 보았지요.
2009.08.14 08:46:31

공감 신고

공감 1

4대강 정비는 운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에
강할 경우 역사적 이명박은 역적에 버금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누구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2009.08.14 11:00:20

공감 신고

공감 0
최여사를 보면..마치 박통 시절 경부 고속도로 반대한다고..약을 쓰던 도요타가 생각이 난다.님은 아무런 대안없이 무조건 주군의 낙마에 대한 상대방인 이명박 국민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 같소..자중합시다..최여사..
2009.08.14 11:39:36

공감 신고

공감 0
최영애여사님!
안녕하십니까. 휴가에서 돌아와보니 여전히 맹활약하시고 계시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복지,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4대강 사업은 그렇게 서둘러 밀어부칠 만큼의
시급성도 없는 것이기에 곧 사리사욕이 개재된 사업이기에 필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에 살고(청계천) 물에 죽는 (4대강) 운명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009.08.14 11:47:04

공감 신고

공감 0
제가 정치마당(45619,45555)에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2009.08.14 11:48:01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 맞다. [0]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이 맞다. 이것은 나의 견해이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논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서로 충돌하는 수많은 가치 중에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전혀 무가치하거나 혹은 절대 가치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혹은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은 내가 우선하는 가치, 생명존중, 자연존중, 인본주의, 경제적 최적성 등 어느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차선 혹은 차차선 혹은 그 만큼도 못되는 현저히 가치가 뒤지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의 캣치프레이즈인 경제적 효율성, 녹색성장, 서민행보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그 가치가 뒤처지는 사업이기에 더욱 잘못되었다고 감히 단언한다.

흔히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효과로 소위 삽질(노가다)에 의한 고용효과, 관광사업에 의한 경제적 효과라 하는데, 이는 실로 조개껍질 하나를 줍자고 중장비 동원하여 갯벌을 마구 뒤집는 꼴이다. 노가다에 의한 고용효과가 얼마나 할 것이며, 4대강 구석구석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인지.... 생각하고, 다음에 처박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미래산업이나 우주항공산업에 쏟아 부었을 때의 기회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래야 이명박 대통이 좋아하는 효율성이 계산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 아니올시다 이다. 남은 달나라 가는데 우리는 4대강에 삽질이나 하고 있다니...

또한 강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생태계를 모두 뒤집고 시멘트를 쎄리 발라 놓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파괴가 어찌 이명박 대통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녹색성장하고 맞아 떨어지겠는가? 녹색성장이 생명존중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녹색성장이란 말 자체가 거짓이요,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흙과 자갈과 모래 그리고 풀을 뒤집어 시멘트로 대체하는 것은 전혀 생명존중이 아니라 생명파괴에 해당한다. 그러니 어찌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성장이 서로 맞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4대강에 처박는 돈 때문에 서민에게 들어가야 할 각종 예산이 깍이고 대패질되고 하였다 한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니, 이것이 어찌 이명박 대통이 최근 역설하고 있는 서민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명박 대통이 서민행보를 역설하고 서민들에 섞여 오뎅을 먹거나 시장통에서 국밥을 먹으면서도 4대강에 돈을 처박는 것은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해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의 서민행보 속에 노인, 장애우, 불치병환자 등과 같은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악수를 하였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이런데 소요될 예산을 끌고 온 모양인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의 서민행보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의 가장 중점적인 가치아 비교해 보아도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가치를 대입하여 왈가왈부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이 4대강 사업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면서도 효율성이니 녹색성장이니 서민행보니 한다면 이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대국민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4대강 사업은 이쯤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지적하여 박근혜가 직접 나서라!! (요렇게 말했다가, 몰매 맞은 적이 있는데....^^)

[chosun]

4대강정비 눈먼돈, 지자체탐욕 100조요구 [4]

[2009-08-09 18:36:10] 조회 164 | 찬성 36 | 반대 5 | 스

'탐욕' 지자체들, 4개강 사업비 100조 요구

"4대강 사업비는 눈먼 돈?", 최악의 '망국적 부작용' 예고

2009-08-08 19:33:57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비로 무려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있다.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비가
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위클리경향〉 최신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각 지자체가 요구한 4대
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지자체들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98조2932억원.

이 가운데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려 20조1564억원을 요청해 요구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
가 18조239억원, 전남도가 12조65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10조700억원)와 경남도(10억4474억원)는
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밖에 광주시 6조9409억원, 충북도 6조1113억원, 충남도 4조7362억원, 부산시 4조966억원, 전북도 2조69
원, 강원도 1조3175억원, 대전시 1조501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막가파식 요구를 거쳐 지난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확
사업 규모는 22조원2002억원이다. 본 사업에 16조9498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2504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

다. 요구액의 4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의 절반 이상은 낙동강이 흐르는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본사업의 16조 억원 중 낙동강이 9조787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었다. 나머지 세 강의 사업비는 한강 2조435억 금강 2조4727억원, 영산강 2조6461억원 등으로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선후보때 한반도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도 10조원을 간 넘는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권후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바 동시에, 총 사업비 22조원을 100% 국민돈으로 재임기간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관부처 예산 빠져있어 실제 사업비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4대강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탐욕까지 가세, 요구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 등의 탐욕과 맞물리면서 사업 이들 요구대로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앞서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 대형국책사업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 실제 소요비용이 당초 예산의 3~4배로 불어났었다.

22조 예산의 4대강 사업조차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토목공사'다. 여기에다가 실제 사업과정에 사업비가 이처럼 늘어난다면 이는 가뜩이나 급속 악화되는 재정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게 보듯 훤하다.

벌써부터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 민생예산,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한나라당 의 조차 "이러다간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골적 '항명'을 할 정도로 4대강 업의 부작용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탐욕스런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의 농간으로 과거 국책사업 사업비가 폭증한다면 4대강 사업이 몰고올 후폭풍은 예측불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박태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댓글쓰기 [4]

best

공감 5

요거 완전히 국고 바닥내고 파산신청할려고 작정을 했네 그려.....

2009.08.09 20:52:25

공감 신고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8.09 18:55:21

공감 5

한나라당의원은 한나라 당 만 문제냐
국가의 재정을 와전 초토화시키는 "

망국적결과 "를초래 바로그거지 아마
이정부의최고 골치거리 가 될것이고

최고의 부정과연계될 가능성 이며 이
북 놈은 핵 미사일로 국가재정 바닥
내더니 명박대통 강바닥에 망국의길로

정일이가 쌍수들어 환호할일이다

2009.08.09 19:09:41

공감 신고

공감 1

MB가 멍청이 바보라 망하는게 뻔히 보이는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까요? 도대체 박의원이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바보한테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B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투기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지요. 세종신도시, 혁신도시에 보상금이 얼마나 풀려 나갔다 확인해보시지요. 그러나 4대강사업은 보상금이 거의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투자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도 않지요. 일자리가 부자한테 가는것이 아니라 서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지요. 세계적인 금융공항을 해쳐나가기 위해 미국도 대단위 토목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08.09 19:39:49

공감 신고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8.09 19:49:02

공감 5

요거 완전히 국고 바닥내고 파산신청할려고 작정을 했네 그려.....

2009.08.09 20:52:25

공감 신고

공감 0

아들이 나올지 딸이나올지 두고보시면 알겠지요

짧은 지 생각에는 옥동자 나올성 한데 기실

반대하시는쪽이 제일 겁내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ㅎㅎㅎ

옥동자가 나온다면 ㅎㅎㅎ

2009.08.10 02:39:53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이러다간 다죽는다 의원들 항명사태 [1]

[2009-08-09 18:46:44] 조회 147 | 찬성 29 | 반대 3 | 스

한나라 의원들, 사실상 '항명' 사태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질타, "이러다간 다 죽는다"

2009-08-08 10:37:15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마침내 대폭발했다.

한나라 의원들 초계파적으로 '4대강 사업' 질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편성 당정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다. 당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나라당 정조위원장들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대거 석을 원하면서 회의 규모가 확대됐고, 여기에 무려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시국회후 다수 의원들 휴가를 떠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참가율이었다.

단순히 참가는 한 게 아니었다. 16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과도한 '4대강 사업비' 때문에 지역 SOC
, 민생예산이 초토화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질타했다. 성토 대상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나
용상으론 4대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 성격이 짙었다.

더욱 의원들 사이에선 친이, 친박, 중립파 등 구분도 없었고 지역 구분도 없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
질타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지역민심의 대규모 이반으로 향후 치러질 재보선, 지방선거는 말할
도 없고 차기 총선도 대패할 것이란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안국포럼 출신의 핵심측근인 정태근 의원은 회의에서 "낙동강
역사업은 4년차(2012년 목표연도)가 아닌 5~7년, 10년식으로 더욱더 긴 연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대신 10조원이면 할 수 있는 영산강 등 나머지 사업부터 예정대로 빨리 끝내면 성공할 수 있다"며, 이
통령이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끝내려 하는 조급함을 질타했다.

정진섭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다른 예산에 구름을 가져온다"면서 "내년, 내후년 예산에 집중
하지 말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정태근 의원 주장에
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친박 이경재 의원은 " '사회간접자본(SOC)과 4대강은 별도' 라더니 지난 정부 때부터
년 증가해온 전국 도시철도 사업 예산 상한액이 이번에 50% 이상 삭감됐다"며 "재정부 스스로 'SOC
도사업' 으로 선정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마저 깎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의원은 "섬진강변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191억원을 책정했는데 정작
지역에 필요한 국도19호선 예산은 줄었다"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신상진 5정조위원장은 "복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조원이나 줄었다"며 "기초수
상자 수도 줄고, 기초수급 지원액 인상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복지가 급감하는
제점을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이철우 의원도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선 안된다"며 "지역에서는 '작년 100억
던 예산이 올해는 왜 90억원이냐. 4대강 때문이 아니냐' 는 얘기가 나온다"고 가세했다.

◀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한나라

▫ 당 의원들의 울분이 봇물 터진 듯 폭발했다. ⓒ연합뉴스

'부자 감세' 놓고도 충돌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놓고도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서울 관악의 김성식 의원은 "내년에 세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 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며 2차 인하 유보를 촉구했다.

서울 강서의 김성태 의원 역시 “작년부터의 무리한 감세정책 결과가 세수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서 책 관련 일들이 많이 늘었는데,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되겠느냐”면서 “내년도 법인세 · 소 ,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2차 감세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가 감세'에 관한 한 '언터처블'이란 입장을 했다. 자신들 힘만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문제의 최종해결자는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항명성 반발은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대단하며,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이런 우려가 실로 나타날 경우 2차, 3차의 항명 사태는 계속 벌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댓글쓰기 [1]

best

공감 2

그 강때문에 대통이죽느냐? 국민이죽느냐?

찬바람은 불어올거고 주머니는 텅텅비고

강가에 홀로앉자 깊은 시름 하게 생겼네

2009.08.09 19:48:06

공감 신고

[chosun]

88

4대강 사업비 지자체 눈먼돈100조 요구 [3]

[2009-08-10 09:26:41] 조회 80 | 찬성 10 | 반대 3 | 스:

탐욕' 지자체들, 4개강 사업비 100조 요구

최악의 '망국적 부작용' 예고

2009-08-08 19:33:57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비로 무려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있다.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비가 는 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위클리경향〉 최신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각 지자체가 요구한 4대
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지자체들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98조2932억원.

이 가운데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려 20조1564억원을 요청해 요구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
가 18조239억원, 전남도가 12조65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10조700억원)와 경남도(10억4474억원)는
슷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밖에 광주시 6조9409억원, 충북도 6조1113억원, 충남도 4조7362억원, 부산시 4조966억원, 전북도 2조691
원, 강원도 1조3175억원, 대전시 1조501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막가파식 요구를 거쳐 지난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확
사업 규모는 22조원2002억원이다. 본 사업에 16조9498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2504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
다. 요구액의 4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의 절반 이상은 낙동감이 흐르는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본사업의 16조9
억원 중 낙동강이 9조787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었다. 나머지 세 강의 사업비는 한강 2조435억
금강 2조4727억원, 영산강 2조6461억원 등으로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선후보때 한반도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도 10조원을
간 넘는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집권후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바꾸는 동시에, 총 사업비 22조원을 100
국민돈으로 재임기간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관부처 예산이 빠져있어 실제 사업비는 30조원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4대강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탐욕까지 가세, 요구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태가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 등의 탐욕과 맞물리면서 사업비가 이들 요구대로 눈덩이처
부풀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앞서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 등 대형국책사업들도 비슷
과정을 겪어 실제 소요비용이 당초 예산의 3~4배로 불어났었다.

22조 예산의 4대강 사업조차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토목공사'다. 여기에다가 실제 사업과정에 사업비가 눈
이처럼 늘어난다면 이는 가뜩이나 급속 악화되는 재정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게 불
보듯 훤하다.

벌써부터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 민생예산, SOC예산을 대폭 삭감해 한나라당 의원
조차 "이러다간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골적 '항명'을 할 정도로 4대강
업의 부작용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탐욕스런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의 농간으로 과거 국책사업처럼 사업비가 폭증한다면 4대강
업이 몰고올 후폭풍은 예측불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

4대강 사업하다가 국민이 죽게 생겼다 .100 조가 어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습니까?

눈먼돈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다. 김대중시절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라고 하더니...

먼저 먹는넘이 임자인 모양이다.

가정이나 국가가 급한곳에 돈을 먼저 쓰야 하는데 당장 급하지도 않는 홍수대비 4대강 정비를 한다고 하기가 찰노릇이디.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

말이 좋아 4대강 정비이지 대운하 전초 작업임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M B집권초기 수출장려한다고 고환율 정책고수하여 가만히 앉아 수백억불을 까먹고 이제 대운하에 연계업 하겠다고 지자체마저 눈먼돈 100 억을 요구한다니

국민은 눈물 콧물 ....

관리들은 흥청망청...

니돈이가 내돈이가 눈먼돈 막쓰고 나면 될대로 되겠지 ??

리더 하나를 잘 만나면 그 나라는 흥하고 잘못 만나면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댓글쓰기 [3]

공감 0

명박지지자님들//할말 좀 해보소... 이러나가 나라가 결단 납니다.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하고 돈을 엉뚱한 곳에 쓰면 나라는 망합니다.
노조의 등쌀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와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단속하라는 불법노조 활동은 단속을 안하고 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고 말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2009.08.10 09:41:54

공감 신고

공감 0

인터넷 좌파 찌라시[viewsnnews]에서 통째로 퍼 올리느라 애쓴다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면 원문출처를 밝히는것이 최소의 예의라고 본다
글밑에 붙은 기자이름은 왜 빼먹었는고...? 혹시 기자가 골수 좌파...?

(박태견.기자)
2001년 프레시안 창간, 이사 겸 편집국장 역임

2006년 뷰스앤뉴스 창간, 대표 겸 편집국장

http://www.viewsnnews.com/common/company_man.jsp

2009.08.10 09:45:38

공감 신고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8.10 09:50:31

공감 0

참고로 조오기 위에 서정에 씨의 글을 읽어보고 아 거기도 퍼온 글 이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글을 읽어야 스트레스도 안받고 죽지도 않지

일 못하는 놈은 남 비판만 할줄 아는데 그런애들 과 놀면 인생이 늘 그렇지 스트레스에 뭐 답답

2009.08.10 09:54:26

[chosun]

http://news.nate.com/view/20090803n05487?mid=s1000

[이영미] 친절한 찬호씨에 매료되다

이영미 기사전송 2009-08-03 10:42

관심지수

39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 기사를 올린 백차승을 시작으로 추신수, 최향남, 박찬호와 그리고 재활 중인 류제국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원정 경기차 애리조나를 방문한 박찬호(36)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려 합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홈구장인 체이스필드에서 만난 박찬호는 45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하긴 체이스필드는 돔구장인데다 에어컨을 틀어 나 경기장 안에선 더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추울 정도였습니다). 첫 날은 훈련하는 장면과 7회 등판해 공 4개로 이닝을 깔끔히 마무리 짓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걸로 만족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는 다음 날 경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전날 약속한 대로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박찬호를 태운 뒤 같이 경기장으로 향했고 훈련 전과 후, 더그아웃과 라커룸에서 약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박찬호는 이전의 미디어를 향한 날선 시선 대신 한층 여유있고 인간미 물씬한 '친절한 찬호 씨'가 되어 기자한테 깊은 여운을 전해줬습니다.

다음은 박찬호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제 경기 전 관중석에 있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어린아이와 캐치볼을 하는 등 팬들과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필라델피아 팬들 사이에서 '친절한 찬호 씨'로 불린다고 들었다.

▲내가 만약 선발투수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펜은 선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가능하다. 더욱이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커진다. 팬들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느낀다고나 할까. 미국 팬들 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찾는 한국 팬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갖는다. 이전처럼 규모가 크거나 많은 팬들이 오진 않지만 적으니까 더 소중하고 되새기게 된다.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사인을 해주려고 한다. 선수 입장에선 그냥 지나가는 어린 팬들이 되겠지만 그 아이들은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사인을 받는 게 굉장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박찬호하면 '영웅' '특급선수' 등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거리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기자들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지난 번 귀국 때 촬영했던 1박2일이란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야구선수 박찬호가 아닌 인간 박찬호를 보게 된 것 같다. 박찬호는 슈퍼스타이고 특별한 스타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그 방송을 통해 일부 사라진 걸 느꼈다. 미국에서 많은 교포들이 그 방송을 보신 후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느껴서 반가웠다'는 반응을 나타내셨다. 내가 한창 야구를 잘했을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벽'을 만들었다는 것도 절감했다. 사실 내가 벽을 만든 것도 있지만 내가 벽을 만들게 한 부분도 있다. 영웅이니, 리더니 하면서 날 자꾸 깎아 내리고 흠집내기에 열을 냈던 시기도 있었다.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야구 외에 다른 부

분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지금도 선발투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나? 앞으로 선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내가 야구하는 목적은 선발투수였다. 그러나 나이와 팀 사정상 불펜투수를 맡아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야구 인생을 연장시키기 위해선 그 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영영 선발 기회가 없을 진 몰라도 언젠간 선발 기회를 다시 잡아서 과거처럼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어쩌면 그건 욕망이면서 집착일 수도 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무리하다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몸 상태로 다시 한 번 내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 박찬호하면 야구선수이듯 야구선수 박찬호는 선발투수이다.

—김병현도 선발 투수를 고집하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잠시 야구장을 떠나 있다.

▲성인이라면 때론 사회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내가 선발만 고집한다면 지금의 난 버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것도 채워가야 한다. 팀에서 원한다면 말이다. 세월이 흐르면 타협할 줄도 알고 적응해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게 아마 나이가 주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그아웃에서 한창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팀 훈련이 시작되자 박찬호가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가 당황스런 표정을 짓자 훈련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계속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다. 친한 기자 외엔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진 박찬호의 색다른 모습이었다. 다음은 라커룸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지금 선발투수로 120승을 기록하고 있다. 123승이면 노모가 이룬 동양인 최다승을 깬다. 욕심이 생기나.

▲기록이란 단어 자체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 후배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다승이란 큰 의미가 없다. 그래도 은퇴하

기 전에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된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다.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로 6500만 달러를 받았던 선수가 2008년 LA다저스에선 25인 로스터에 포함될 경우 연봉 5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것도 친정팀인 LA다저스에서. 당시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런티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나 가능했던 계약이다. 나한테는 마지막 도전의 기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들이 날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운 것도 사실이다. 사실 다른 팀도 아닌 친정팀인 다저스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곳엔 날 기억하는 많은 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조건이 크게 와 닿진 않았다.

—잘 나갈 때는 팀이 날 필요로 했던 선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턴 내가 팀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 부분을.

▲마이너리그든 메이저리그든 야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야구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계속 도전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여기서 안 되면 한국에서 야구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바람도 있었다. 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 앞에서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해왔던 야구를 한국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펼쳐 보이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큰 두려움은 없었다.

—팀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굳이 야구 생명을 연장시키는 걸 보고 일부에선 이미 벌 만큼 벌었는데 비참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단 깔끔하게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있었다. 알고 있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지저분하게 미련두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다. 사실 지금도 야구를 하는 건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설계한 야구인생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런 거 아는지 모르겠다. 가진 사람이 더 힘들고 참혹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부족한 사람은 희망이라도 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은 그걸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2002년 LA다저스에서 텍사스로 갔을 때 많은 부와 명예를 챙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걸 미리 두려워했던 모양이다. 밑으로 떨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다. 결국은 용기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어느 순간엔 과감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하루에 수십 번도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난 할 수 있다고 세뇌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날 괴롭힌 건 한결같았던 팬들이 나한테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순간들이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낸 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맞섰던 또 다른 팬들이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장에 박찬호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

▲어휴, 나도 공인인데다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또 많은 걸 이루고 가진 사람으로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처음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구만 못했을 뿐인데, 그게 마치 죄인인양 비난을 하고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게 억울했다. 내가 항상 힘을 얻었던 팬들로부터, 그리고 미디어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게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변함없이 날 지켜주는 가족들, 날 변함없이 지지하는 팬들, 그리고 조국이었다.

—박찬호란 선수를 떠올릴 때마다 한국인이란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과거에 날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코리언' 이었다. 여기 선수들이나 구단 관계자들은 신인 시절 내 이름대신 '코리언' 이라고 불렀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나거나 실수를 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코리언' 으로 호칭했다. 당시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싫게 느껴질 정도로 '코리언' 이란 호칭이 내 자신을 힘들게 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의사 소통도 되고 용기도 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하겠

지만 그땐 영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분이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해졌겠다. 어느 누구도 박찬호란 선수를 이름 대신 '코리언'이라곤 부르진 못하지 않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이곳 선수들과 '같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 (때마침 타월을 두르고 지나가는 동료 선수들을 쳐다보며) 백인, 흑인들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난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해 가는 게 야구 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었다.

—지난 번 WBC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당시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그건 괜히 '마지막'이라는 기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야구를 그만둔다면 아마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 하는 기분이 들었다. 가끔 야구 선수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분이 궁금했었다. 아쉬울지, 슬플지, 시원섭섭할지…, 떠난다는 마음이 들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지….

—좀 전에 한국 프로팀에서 야구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한국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대학 때처럼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동지애를 주고받으면서 경쟁도 하고 정을 나누는 생활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지금 몸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있다면 한국 프로야구에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힘 떨어지고 던질 수 없는 몸 상태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욕심내진 않겠다는 사실이다.

(박찬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필리스의 매니저가 다가와선 경기 전에 미디어가 라커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귀띔을 하자, 이번엔 박찬호가 의자를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

온다. 자긴 괜찮으니까 인터뷰를 계속 하자고 말하면서 말이다^^. 화제가 메이저리그의 주전 타자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추신수에 대한 얘기로 옮겨갔다.)

—요즘 한국에선 추신수의 병역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역과 관련해선 예민한 국민들도 추신수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애국심이 생긴다. 더욱이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전으로 뛰는 건 대단한 국위선양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알아야 한다. WBC에서 준우승을 했다면 해당 선수들한테는 병역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대변인의 역할이 정부가 할 일이다.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얽매여서 뒤로 가는 행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수가 야구 인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참으로 서글프고 답답한 현실이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월드시리즈 챔피언팀인 데다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다. 올시즌 또 한 차례의 우승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야구하면서 동부 쪽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다 필리스는 정말 잘 나가는 팀이었고 선수들도 이때까지 있어 본 팀들 중 가장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웃음). 여기 팬들은 마치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팬들처럼 굉장히 열정적이다. 무엇보다 구단주의 마인드가 대단하다. 여기 구단주랑 전 LA다저스 구단주이자 나의 '가드 파더' 역할을 맡았던 피터 오말리 씨와 절친하다. 내가 이곳에 입단하자 구단주가 오말리 씨한테 편지를 받았다며 반가워해 주더라. 잘 나가는 팀은 선수만 잘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성적도 좋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인터뷰 말미에 박찬호한테 은퇴 얘기를 꺼냈다. 야구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하루하루, 매 시즌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 같았다. 박찬호는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육체가 그만해야 된다고 말해 줄 때가 야구를 그만두는 날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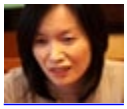
박찬호는 어떤 질문에도 흔쾌히 대응했다. 다소 까칠하고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반응했다. 야구 선후배들보다 연예인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거나 정치인과 재계 쪽에 인맥이 두텁고 발이 넓다고 알려져 혹시 야구 그만두고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연예인과의 인맥은 그들이 유명인이라 부각되는 것일 뿐 실제로 많은 연예인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요즘엔 직접 만나서 사인 받고 싶은 연예인이 많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정치는 전혀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 미국에서 야구한 선수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는 게 박찬호의 '정답'이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만나러 가는 미국 여정 중 가장 걱정했던 인터뷰가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린 된 듯한 느낌이다. 한 꺼풀 벗고 다가온 박찬호한테선 '1박2일'에서 봤던 인간미 물씬한 '친절한 찬호 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영미

일요신문 스포츠기자

리얼토크, 취중토크 시리즈



미들맨으로 부활한 박찬호

[이영미] 친절한 찬호씨에 매료되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 기사를 올린 백차승을 시작으로 추신수, 최향남, 박찬호와 그리고 재활 중인 류제국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 이영미*2009-08-03*

- 박찬호, 1이닝 1피안타 '6경기 연속 무자책점' 마이데일리*2009-08-03*
- [박정환] 박찬호는 '은행에 맡긴 돈' 박정환*2009-07-31*
- [송재우] 마무리 박찬호를 보게 되나? 송재우*2009-07-27*
- [송민구] 데이터로 본 전반기의 박찬호 송민구*2009-07-22*
- 박찬호 "내 꿈은 선발투수, 결코 변하지 않아" 조이뉴스24*2009-07-27*
- 박찬호, 컵스전 3이닝 5K '퍼펙트' 피칭 뉴시스*2009-07-22*
- 박찬호 초구는 직구, 결정구는 커브 SPN*2009-07-22*
- [김식] 박찬호 이승엽, 그리고 슈퍼맨 콤플렉스 김식*2009-07-21*
- [이종률] 박찬호, 우승 반지 낄 수 있나 이종률*2009-07-21*
- 美 언론 "박찬호 불펜 전환 성공적" 서울경제*2009-07-17*

- 박찬호 2이닝 1실점..7번째 홀드(종합) 연합뉴스*2009-07-18*
- [장윤호] 박찬호를 둘러싼 바람과 풍운의 도사열전 (1) 장윤호*2009-07-06*

미니홈피 가기

추천

73

반대

9

베플 되면 신수형 대신 군대 한번 더 갔다올 수 있음. (08.03 12:51)

댓글의 댓글 22개

추천

52

반대

0

추신수좀 어떻게해줘...

찬호형님도 안타까워하자나...

병역문제해결되면 맘편하게 메이저리그에서 날라다닐껀데.. (08.03 11:41)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1

반대

0

후반기에 구원승이라도 딱 4승만 더.. (08.03 11:2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순 | 반대순 | 작성일순

일반 댓글

추천

73

반대

9

베플 되면 신수형 대신 군대 한번 더 갔다올 수 있음. (08.03 12:51)

댓글의 댓글 22개

추천

52

반대

0

추신수좀 어떻게해줘...

찬호형님도 안타까워하자나...

병역문제해결되면 맘편하게 메이저리그에서 날라다닐껀데.. (08.03 11:41)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1

반대

0

후반기에 구원승이라도 딱 4승만 더.. (08.03 11:2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6

반대

0

역시 찬호형님은 국민대인배 (08.03 12:30)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6

반대

0

말이필요해? 코리안특급 찬호횽인데 (08.03 12:1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6

반대

0

내 마음속의 영원한 메이저리거이자 국가대표 박.찬.호 (08.03 11:32)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5

반대

0

항상 느끼지만 마인드도 국가대표. (08.03 14:25) N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5

반대

0

찬호형은 그냥 대한민국 자제다...물론 기록도 중요하지만..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로써 대

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그런 사람이다... 지금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있는 선수들 혹은 뛰었던 선수들도 다 찬호형의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출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다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찬호형이 직접적으로 가르친건 아니지만 모든것이 시작이 중요하듯 찬호형이 있었기에...지금의 메이저리그에서 대한민국선수들이 있을수 있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었슴다~ 욕은 하지 말아주세염

ㅎㅎ (08.03 13:28)

댓글의 댓글 1개

추천

5

반대

5

호♡ (08.03 12:03)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4

반대

0

코리안특급 박찬호 (08.03 15:51) N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4

반대

0

다..... 읽어버렸어... (08.03 14:19) N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4

반대

0

박찬호 선수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끈기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으니까요.

언제어디서나 화이팅입니다. (08.03 13:20)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4

반대

0

인터뷰도 역쉬 코리안특급이시내요,,, 한때 안좋은감정가지고있었는데 어려운시절보내시면서 이겨내려고하셨던것들이 감동적이십니다찬호형 빨리 한국서 오래뵐날기대하면서 올해도 고고씽 127승 화이팅 (08.03 11:14)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멋지다.. (08.03 15:42)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아무튼 최고 맘에 든다니까~~ 박찬호 화이팅!!! (08.03 15:01)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 (08.03 14:56)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박찬호 선수를 보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08.03 14:56)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항상 목표를 갖고 있고 변함없는 마인드..
LA시절부터 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자랑스러운 코리안 특급^^ (08.03 14:48)

댓글의 댓글 0개

추천순 | 반대순 | 작성일순

일반 댓글

오상민

추천

3

반대

0

박찬호를 안좋아 할수가 없다...^^ (08.03 14:34)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내 영원한 야구 영웅... 정신자세... 훌륭한 인품... 가끔은 박씨가 부러운적도 잇다...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

99년도 첨으로 문자중계가 시작됏을때, 수업시간에 나두 모르게 악!!! 하구 소리지르며 응원햇던 기억이 생생... 박찬호선수 홧팅!!!! (08.03 13:26)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ㅋㅋㅋ멋잇다

다 읽은사람 추천? (08.03 12:24)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언제나 최고! (08.03 12:0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3

반대

0

"박찬호" 이름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08.03 12:00)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역시 박찬호 (08.03 16:22) N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역시 발로 뛰는 이기자님...

티비보고 인터넷보다 글쓰는 기자님들은 좀 배워라 . (08.03 15:13) N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와아.. 내용이 긴데도 재밌게 끝까지 읽었다. 정말 이런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08.03 14:58)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G랄하지말고 이런기사나보고 생각이나좀... (08.03 13:5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역시 찬호박형님

언제나 진솔하고 진지한 선수..

그만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한국인..

앞으로 더좋은소식 기대합니다..^^ (08.03 13:26)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추신수선수....참으로 훌륭하다. 코리언이라는 수식어를 듣었을텐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빛을 발휘하니....실력도 최고.....ps:이승엽선수도 언능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모든 해외파 선수들 화이팅.~! (08.03 13:14)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0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애국심이 생긴다. 더욱이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전으로 뛰는 건 대단한 국위선양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알아야 한다. WBC에서 준우승을 했다면 해당 선수들한테는 병역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대변인의 역할이 정부가 할 일이다.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얽매여서 뒤로 가는 행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수가 야구 인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참으로 서글프고 답답한 현실이다.

찬호형님 말씀이 정답이다 이 쥐새끼들아!! (08.03 12:51)

댓글의 댓글 0개

김영신

추천

2

반대

0

오올~ 찬호형이 추신수 병역특혜 달라는 이야기는 처음하는 것 같은데... 역시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거구나. ^^ 찬호형 앞으로의 성적도 그 마음처럼 쭉쭉 더 커가시기를...^^ (08.03 12:24)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2

반대

1

많이 편안해 지신것 같아 보기 좋네요 ^^ IMF 때 정말 박찬호 선수 경기와 박세리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꼬... 후에 박찬호 선수 보다 더 훌륭한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레전드는 당신입니다~! (08.03 12:05)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1

반대

0

박찬호!!! 우린 영원히 당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08.03 16:50)

댓글의 댓글 0개

추동협

추천

1

반대

0

부활하소서 ! (08.03 16:43)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1

반대

0

박찬호는 국민영웅이다~ (08.03 16:29)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1

반대

0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변함없이 날 지켜주는 가족들, 날 변함없이 지지하는 팬들, 그리고 조국이었다.

(08.03 16:01)

댓글의 댓글 0개

추천

1

반대

0

한화에서 찬호형 뛰는게 보고싶은데 이건 욕심고 메이저리그에서 더 쩔어주고 멋지게 은퇴하시길

(08.03 15:59)

댓글의 댓글

0개

[nate]

[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것에 대한 진실과 토론

2009.08.03 11:25

xxx님의 글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7-29	조회수 : 186

저는 박사모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해서.... 시간은 별로 없으나 인터넷의 장점이 시간고 공간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
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진지하게 비교/분석하여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토론하려 합니다.

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 토론했으면 합니다.

토론 방식은 (1) 님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과
(2) 저의 문제제기를 공평하게 하나씩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우선 님이 제기하신 박정희의 친일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논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특히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 잡았다는 데에 대한 반론입니다.

박정희는 지지하르에서 화북지방(華北地方)의 열하성(熱河省)에 있던 만주군 보병 제 8 단이
다.
이 제 8 단의 주요 임무는 모택동(毛澤東)의 팔로군(八路軍)을 토벌하는 부대였습니다.

님의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가 근무했던 만주군 보병 8사단 근처에는 님의 주장처럼 때려집
었습니다.
중국 팔로군 근처에서 활동할 만큼 우리나라 독립군이 정신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은 미군과의 연합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김구와 장개석 총통의 합의)
나머지 소수의 단체들은 연해주(블라딕보스톡) 쪽으로 이동해서 독립군은 근처에 없었어요.

때려잡을 독립군도 없는 거기서 무슨 독립군을 때려 잡습니까?
최근 나도는 박정희의 친일론이 누구에게서 재생산 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으로 이득을 봐야 하는 부류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면 님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멸사봉공 진충보국 부분에 대하여 :
(물론 한자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의 뜻은 개인보다는 공공을 위하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은한다는 뜻입니다.

식민지의 젊은이가 나라를 언급할 때,

이 "나라(국)"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조국일 수 있고, 하나는 일본일 수 있겠지요.
님은 젊은 박정희의 가슴 속에 있었던 저 '나라(국)'가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짓밟힌 조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는 문인, 시인들도 잃어버린 조국을 직접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죽음을 의미하니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어 보셨습니까?

여기서 〈님〉이 누구입니까? 연애하는(사랑하는) 여인입니까?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조국입니다. 그러나 〈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가 왜 하고 많은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서
멸사봉공 진충보국 .... 을 썼을까요.
차라리 〈덴노 헤이까 반자이(천황폐하만세)〉를 쓰지요. 그러면 더욱 환영받을 일 아니겠습니

(저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 독도 우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독도에 대해...

그러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냐구요?
결론만 말하죠. 독도의 인근 해역의 반은 이미 우리 땅(바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독도는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에 한일공동 어로수역의 중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은 이미 그 조약에 의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그리고, 일본은 동해상에 적의 실효적 점령하에 있는 섬의 탈환이라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하이드브레이트라는 제 3의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는 독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발언.
내 마누라... 자꾸 이야기 할 필요없다.
이야기할 필요없다고 하는 다른 쪽 당사자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권,
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었더군요.
설마... 여러분이 직접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검색창에 쳐 보십시오.
그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 2002년 1월 22일,
3년째 효력이 상실될 기회가 왔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그냥 또 넘어 가 버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매국노라 합니다.
더구나 일본에다 팔아먹으면 친일매국노, 친일 민족반역자라 합니다.
이완용, 송병준.....

박정희가 만주군으로 근무했던 그 경력만으로 친일파가 되어야 합니까.
독도의 반을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들을 매국노라 불러야 합니까.
(질문 끝)

임인수 님의 성실한 답변과 진지하고도 알찬 토론을 기원합니다.

http://cafe.daum.net/parkgunhye?t__nil_cafemy=item

민족사관 정립한 박정희대통령

글쓴이 : 김현식 등록일 : 2009-07-29 조회수 : 61

민족사관 정립한 박정희대통령

박대통령,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창달

(문화재보호와 민족문화창달**
이 글은 2000년 6월 8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鄭在훈 교수의 증언 녹취록임.)

- 필자 정재훈 -

저는 전통문화(傳統文化) 부분을 담당하는 문화재관리국의 공무원으로서
1963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현충사(顯忠祠)를 보수 확장하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유적을 정화(淨化)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화재 관련사업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 처음 지시한 것을 보면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정신(精神)을 고취(鼓吹)할 수 있는
민족교육(民族敎育)의 도장(道場)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 때의 항일유적(抗日遺蹟) 그리고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의 유적,
예를 들면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유적이라든지, 3.1 운동의 유적 등
이런 유적의 현장을 잘 정비하라는 지시들이

1966, 67, 68, 69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려면 일본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의식(意識)을 가지고 일본을 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사상 일본과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임진왜란 관련 여러 지역의 정화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閑山大捷)을 비롯하여
해전(海戰)에서 이긴 여러 지역의 유적으로서,
그 중에 아산 현충사가 서울에서 가깝고 일제시대 동아일보사가 거기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자” 하여 사당을 지어주고 정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아산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의 외갓집이고 가묘(家廟)가 있었던 곳인데
가묘는 집안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곳(현충사)을 크게 확장을 했고
성역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제식민지(日帝植民地) 사관(史觀)의 치욕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국민정신(國民精神) 함양(涵養)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기계를 사온다거나
서로 교역을 해야 하고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각(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
그 뒤 70년대 초반부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민족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상가(思想家)의 유적을 현창(顯彰)하는 데 주력합니다.

불교 쪽에서는 원효(元曉), 그리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려의 대외 항쟁(對外抗爭)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재인 동시에 인쇄문화의 기본적인 틀이며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는 불교와 접합된
정신문화(精神文化)의 구심점(求心點)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주자학(朱子學)을 조선의 성리학(性理學)으로
그리고 조선의 철학(哲學)으로 발전시킨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 또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 등을 기리기 위하여
도산서원(陶山書院), 오죽헌(烏竹軒), 자운서원(紫雲書院),
원래 해주의 석담구곡에 은병정사를 지었던 유적인 율곡 선생의 서원이 있는데
이북에 있으니까 보수정비사업을 못하고….
그리고 필암서원(筆巖書院:전남 장성, 하서 김인후 선생) 등 정신사에 중요한 위인이나
사상적 체계를 유학적(儒學的), 성리학(性理學)으로 계승하는 유적이라든지
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의 실학(實學), 추사의 글씨체라든지
한국(韓國)의 자주적(自主的)인 예술문화(藝術文化)의 근본(根本)이 되는
그런 유적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화를 제대로 계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1971년 '경주 개발(慶州開發)'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경주의 신라 문화 유적을 총괄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한 겁니다.
1971년부터 5개년 계획, 그 다음 5개년 계획, 1차 5개년, 2차 5개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경주의 유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 정보비서관 권상하 씨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사범에 다닐 때, 대구사범은 일제 때 관비(官費)를 주었기 때문에 여행비를 적립해서

일본의 경도(京都)나 나라(奈良)에 꼭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안 가고,
한국의 학생들만 빠져 가지고 경주의 유적을 쭉 답사하고 신라 문화 유적에 대한 체득과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경주 유적을 답사했던 사진을 보여준 일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각반(脚絆)도 치고 학생모를 쓰고
김유신(金庾信) 장군묘 앞에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문화 유적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의 정신문화나 문화 유적의 그 뿌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아마 그 사진도 남아 있을 겁니다. 구미나 대통령 유족의 집안에….

박 대통령은 경주의 문화 유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경주 문화 유적 개발을 담당하여 입안하는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13개 지역에 대한 경주의 유적을 설명하면 박 대통령께서는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경주하고 대구가 가깝기도 하고….

박 대통령은 고고미술이나 고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
일제시대 때 일본사관(日本史觀)으로 쓴 신라사나 한국의 전통미술사나 고고학에 대해서,
실지로 경주의 천마총(天馬塚), 98호고분, 안압지(雁鴨池), 월성(月城), 왕경지(王京地),
황룡사지(皇龍寺址) 등을 발굴하게 해서 전부 다시 쓰게 하여
자주적인 사관(史觀)으로 우리의 문화사(文化史)를 새로 정립하게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신라 금관의 경우,
외관(外冠), 내관(內冠), 조익형 관식(鳥翼型 冠式)의 3가지를
금관총의 금관을 발굴하고 난 뒤에 꿰맞췄습니다.
유물들은 일본 경찰관이 들어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그 발굴은 학술적인 계획 발굴이 아니고
집 짓다가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히 수습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 후 1926년 서봉총 금관을 발굴할 때는 계획 발굴을 한 것입니다.
서봉총 금관은 금관 위에 십자로 투구처럼 돼 가지고 그 위에 봉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 금관은 조익형 관식과 내관이 들어가는 금관이 아니라는 것을
서봉총 발굴결과로 이미 알았어요.
그런 것을 1926년 일제시대 때 발굴하고 난 이후
우리가 1973년 천마총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신라 금관의 형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신라 금관의 잘못된 형태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바로잡게 된 것은 경주의 유적에 대하여
고고학적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발굴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유적, 발굴물)에 대한 보고서를 세계에 다 내놓았습니다.
천마총 발굴 과정의 영화는 불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온 세계에 상세하게
각 나라의 말로 더빙(dubbing)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지금 소련 국립박물관이나 평양 박물관에도 천마총 발굴 과정의 (기록)영화는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종합 정리해서 한국 미술 5000년 전(展)을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전 구라파에서 개최하여 한국문화가 일본문화 그리고 중국문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실증적(實證的)인 유물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선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굴유물 전시사업은
경제적 교역활동을 함에 있어 한국 상품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술, 예술, 학술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기보다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교육이 대단히 완벽한 교육(전인교육)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역사의식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0년대에 고속도로(高速道路)를 낼 때,
대구에서 경주 구간에 고분(古墳)이 많이 걸렸습니다.
‘방내리에 고분’ 이 64기를 발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 쪽의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고속도로뿐이고
그날 그날의 사업 진척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건설부 쪽 사람들은 그대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문화재를 담당하는 계장(문화재관리국)인데,
대통령께 그대로 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한림(李翰林) 건설부장관한테
“다 발굴하여 조사하고 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 고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깜짝 놀랬어요.
그 당시 제일 우선 순위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京釜高速道路)를 만드는 것인데,
그보다 더 귀중한 우선 순위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나 그 공기(工期)가 지연되었어요.
경주에서 대구간의 고속도로 공사가 그 당시에 6개월을 지연할 경우
그때 건설부가 계산한 것을 보면,
중기 손료(重機損料)만 하루 4,000만 원이라고 계산돼 있었어요.
그 구간에 투입된 모든 중장비라든지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가 놀게 된다 말이죠.
발굴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6개월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개정하여
고속도로나 모든 국토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있으면
시공자가 부담을 하여 모두 발굴한 다음 공사를 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제일 높은 가치)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두었습니다.
즉 민족문화사업(民族文化事業)은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정립한 겁니다.

+++

그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창원 공업단지를 만들 때입니다.
거기에 성산 패총(貝塚)이라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패총(조개무지), 옛날에 그게 초기 철기 시대의 쓰레기통입니다.
그걸 발굴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칼도 많이 나오고 성곽(城郭) 유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서 '창원 공업단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보고,
그 산을 깎아 뭉개지 말고 그 산을 사적(史蹟)으로 지정해서 잘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매립하려고 했던 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른 곳에서 흙을 갖다가 메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원 공업단지의 조성이 1년 이상 늦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패총)을 보존했습니다.
지금도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안압지(雁鴨池), 불국사, 월성(月城), 천마총(天馬塚), 98호고분(古墳), 이런 발굴 현장은 물론
성산 패총 발굴 현장에도 오셔서 우리를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대통령이면 누구나 발굴 현장에 와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여러 대통령을 모시게 되면서 발굴 현장에 대통령이 와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고고학이나 미술사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 대통령은 역사의식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했어요.

+++

197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모든 문화유산을 조사해라,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행정의 체계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 유적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청의 모든 관리행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전국 유적 총람(全國遺蹟總覽)’ 입니다.

그걸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예요.

그때 보면 대통령은 그런 일을 그냥 자기가 책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공사투시도(工事透視圖)를 가지고

여러 번 보고하러 간 그때의 실무자인데,

집무실에 가면 컴컴한 방에 아주 지방학교의 교장선생님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방이… 그 방에 깔린 마루가 있는데 디디면 삐걱삐걱했어요.

그게… 못이 오래 돼 가지고 사람이 디디면 푹 내려가고 올라오고….

대통령 집무실은 그저 한 8평 정도? 내 눈짐작으로는….

그리고 옆의 벽에 서가가 있는데 한 벽에 보니까

우리 나라 문화유산, 문화재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걸 늘 빼 보시기 때문에 거기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우리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 문화유산에 관한 책을 읽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삐걱삐걱하는 그 마루를 안 고치고 있더라구요.

저는 1973년부터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경주에 있는 문화 유적의 발굴과 정비하는 때에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때도 경주 오시면 저는 소장이니까 점심시간에 끼여 들어 멤버가 돼 가지고

점심을 먹기도 했는데, 보면 굉장히 검소합니다.

꼬리곰탕 같은 것 좋아하시고, 그리고 번거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번은 대통령께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경복궁의 지금 박물관이
중앙박물관으로 건립된 거요.
그때 투시도를 그려 가지고 가서 공사계획을 설명하니까
그 투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면서 집무실에 못을 박고 걸라고 하시더라구요.
집무실에 못을 박고 걸었어요. 그 뒤에 떼어 왔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투시도를 대통령 집무실에 거느냐 하지만,
물론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거는 기준으로 볼 때 투시도를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은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할 국립박물관의 건립공사 투시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 화가의 그림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대통령의 정책적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 건축양식으로 좀 지으라는 말씀도 있어서
그 뒤에 박물관을 우리 나라 건축양식으로 짓다보니까 기둥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조경(傳統造景), 그때는 조경하라는 지시가 많았어요.
산이 헐벗어 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
사적지 정비사업은, 처음에 많이 추진한 사업은
현충사(顯忠祠), 제승당(制勝堂), 임진왜란(壬辰倭亂)의 3대첩지인 진주성(晋州城),
행주산성(幸州山城) 등 이런 유적지들입니다.
서울성(城)도 75년에 복원 정비한 겁니다.
서울성이 다 허물어졌던 거지요. 위의 여담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대통령은 꼭 자기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도를 보자고 그러신다고요. 간단한 설계도를….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를 30장, 40장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의 투시도를 그립니다.
그때 내가 그 시대를 '투시도 시대'라고 했는데,
투시도를 가지고 가면 그게 단면, 측면, 평면… 군대에서 지도를 읽는다든지
도면을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딱 알아요.
아, 이게 길이가 얼마구나, 넓이가 얼마구나, 어떤 집을 짓는구나, 성을 어떻게 쌓는구나.
투시도를 쭉 보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검증을 해요.
그 다음 공사하는 과정에 현장을 꼭 보십니다.
아니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도 꼭 내보내요.
현장에 가서 공사진행사항이 원래 설계도대로 잘 되는지?
그 일을 하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걸 전부 해결해 줍니다.

++++++++++
70년대 언젠가 한번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대통령께 최종보고를 하였는데
경제기획원장관한테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조정하게 하였어요.
그때 우리 문화재관리국의 총 예산이 100억 원이 안 될 때인데,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수십억 원의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한 일이 있어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경주의 많은 들판을 1973년부터 사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년 동안 사들인 게 26억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수십만 평을 사들였는데도 말이죠.
지금 황룡사지 그런 데가 다 그때 도시였습니다.
지금 100여 동의 민가를 철거하고 그것을 다 사들이려면 몇 조 원이 들 거예요.
민족유산의 보존을 위해 사적지로 지정된 유적지를 가장 많이 국유지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민족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정책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강화유적(江華遺蹟)과 같이
국난 극복이나 대외 항쟁, 이런 것은 군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황바두리성’ 같은 것을
삼별초의 대몽(對蒙) 항쟁(抗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한다든지,
고려궁지(高麗宮址) 이런 것도 우리가 몽고(蒙古)하고 싸웠다.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전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의 군대하고 싸웠다.
그런 기백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사상적 체계를 세운다든지
또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을 만든다든지,
문화유산 보존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문화원(精神文化院)’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민족문화백과사전(民族文化百科事典)이,
지금 사실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업입니다.
그게 만일 없었다면 정말 지금 세계화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왔을 거예요.
그런 측면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장관들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이선근(李瑄根) 박사한테 그때 문화재 위원장인데,
맨날(항상)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한 시간씩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문화사하고 역사를….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김재원(金載元) 박사라고 국립박물관장한테
한국미술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대통령 내외께서….
그런 것을 듣고 5대궁(五大宮)의 비원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겁니다. 처음에… 5대궁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한 해 예산이, 내가 1963년에 문화재관리국에 들어가니까
전국 문화재에 대한 연간 보수비가 총 1,300만 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안 한다거나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드는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6.25 전란이 일어난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61년, 62년에 고친 것이
강진의 ‘무의사 극락전’이고 두 번째 고친 게 서울의 ‘남대문(南大門)’이에요.
6.25 때 부서진 남대문을 언제 고쳤느냐 하면 60년대 초에 고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석굴암(石窟庵)’을 보수했어요. 1962년, 1963년에….
그러니까 1967년부터 문화 유적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화하라고 지시한) 이러한 항일(抗日) 유적이나 문화 유적을 보면
어떤 전통의 정신이 있어요.
도산서원에 가면 ‘퇴계 선생’을 제사 지내는 ‘상덕사’라는 사당이 제일 중심입니다.
서원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칠백의총(義塚) 하면 중봉(重峯) 조헌(趙憲) 선생이나
영규(靈圭) 대사(大師)의 항일 의병 정신이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종교는
‘국가(國家)’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하면 사당에 고개를 숙인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충무공의 현충사 사당에 가서 대통령이 절을 한다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사상가인 퇴계 도산서원의 상덕사에 가서 절을 한다든
지….
오죽헌에도 율곡 사당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가서 절을 한다 말이죠.
그런 곳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문화 유적으로서
국가라는 개념의 정신적인 실체를 구성(형성)하고 있어요.
그러한 유적이 1개 도 단위 거의 하나씩 있어요. 어떤 곳은 1개 도에 두 곳도 있지만….
부산을 보면 충열사(忠烈祠)가 있고,
경상남도에는 진주성, 의령에는 ‘곽재우(郭再祐)’ 장군의 의병 유적,
경상북도에는 통일전의 ‘신라 화랑정신(新羅 花郞精神)’을 구현하는 곳,
충남의 현충사, 칠백의총,
전라남도에는 포충사(褒忠祠)의 고경명(高敬命) 선생의 유적,
광주에는 충장사(忠壯祠)의 김덕령(金德齡) 장군,

경기도의 강화 전적지(江華 戰跡地),
충청북도에는 충민사(忠敏祠)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대외 항쟁,
강원도에는 오죽헌(烏竹軒)의 율곡 선생 등.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의 대외 항쟁사라든지,
우리 민족 문화사라든지 어떤 실체의 정신적 주체를 중심으로
아주 철저한 고증(考證)을 통해서 국민교육(國民敎育)의 장(場)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정보문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화하더라도
세계화 전략상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외환위기, IMF 위기가 오듯이
문화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적으로 공허한 것이 되고
아무 것도 아닌 사이버 공간 속에 헤매다가 마는 것이 된다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력이 상실됨).

+++

전통문화는 정체성(正體性) 확인, 사회통합(社會統合)의 기능,
문화창조력(文化創造力)을 제고하고
한국문화로 하여금 계속 개성적인 면을 지니게 하고,
국제화 시대에 '이미지 제고'의 중추적 역할, 남북한 통일에 대비
양측 문화간의 이질화된 부분을 극복하고 문화융합 등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반,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세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지만….
자주(自主),
자립(自立),
자존(自尊)….

새마을운동에도 그러한 정신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정신이 있는 곳을 정비 정화함으로써,
예를 들어 포충사의 고경명 선생 경우를 보면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씨족적인 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정신이… 굉장히… 자기 혈통, 혈관에 스며들게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어요.

그 뒤에 여러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비교해 보면,
그때 한 일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것을 재발견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 현충사 이 충무공의 제사를 4월 28일 지내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른 일이 없어요. 그 제사에….
대통령은 외국 대사도 만나야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에 철저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도 다 그러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너무 자유 방임상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체제 구축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한번은 일본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노력을 했어요.
광복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화문(光化門)'을 복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지시로 광화문을 복원했어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문화유산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에요.
조선총독부 건물을 못 뜯어내니까, 예산 관계로….
우선 광화문을 건립하여 극일(克日)하고자 하는,
일본으로 인한 우리 역사의 상처와 치욕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굉장한 의지였다구요.

돈도 없는 그때에….
1969년 그때, 광화문을 복원하라는 지시에 의해 복원을 했거든요.
지금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것을 콘크리트로 했느냐? 나무로 하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군사적인 것도 아니에요. 광화문 하나 복원하는 것은….
그러나 그게 일제가 1916년에 조선의 정궁(正宮)을 허물고
조선총독부를 건립한 것에 대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의식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국어교과서에서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 속에 있는 사실 등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가 지시한 것은 설계도를 검토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준공식에는 꼭 본인이 참석하고 종결까지 확인하고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수석비서관을 보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책(사료)에 정리되게 하는 등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장관이라든지, 계급(지위)을 중시하지 않고
아주 전문가(專門家)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와서도 그때 발굴을 하는데 김정기(金正基)라는 사람이 경주 발굴의 단장인데,
한번은 "내가 맨날 김정기(金正基)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때는 따님 두 분하고 아들하고 다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평상시에도 저 어디 유적을 발굴하는 한 자연인의 이름까지도 가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영수(陸英修) 여사는 한번은 진해 갔다 오시면서
우리가 불국사를 복원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진해의 별장에 갔다가 오실 때면

경주를 꼭 들리세요.
육영수 여사는 불국사 복원한 것이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자기 마음에 들고
제일 위대한 일 하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불국사를….
우리는 불국사를 복원하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한 종교의 터전인 절을 복원하는 데 끝나지 않고
불국사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의 절로서 호국불교 정신의 구심점이면서
문화적으로 제일 정교하고 잘된 절이라는 것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보탑(多寶塔:국보20號), 석가탑(釋迦塔:국보21號)이 있고
국보(國寶)로 지정된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국보23號), 연화교(蓮花橋),
칠보교(七寶橋:국보22號), 불국사 금동비로사나불좌상(佛國寺金銅毘盧舍那佛坐像:국보26號),
조각예술을 보면 금동아미타여래좌상(金銅阿彌陀如來坐像:국보27號)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게 조경(造景)을 보면 구품연지(九品蓮池)에 그림자가 연못 속에 드리워져 가지고
2배로 보이게 하는 조영(照影)의 효과라든지,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이라든지….
그런 계단의 잘된 것을 건설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하철 계단 조성에 원용하게도 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을 본떠서 만들게 한다든지….

지금 서울 지하철의 내려가는 계단은 대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딛고 걸어가는 데
보폭이 한 자 정도의 길이가 된다든지….
불국사의 청운교 높이가 19cm인데 지금 계단의 높이가 18cm 정도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늘(항상) 그런 것을 절대로 함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정교하거나 우리의 정신이 들어 있는 문물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재활용, 재창조하는 데 철저하게 대통령이 이용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네(원로)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보면 박종홍(朴鍾鴻) 특보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

도산서원(陶山書院)이나 율곡의 유적을 정리하는 것은…
철학을 전공한 박종홍(朴鍾鴻) 특보(교수)가 대통령에게 잘 설명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교육받은 거예요.
청와대 안에 대통령의 선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보면 박 대통령이 박종홍 교수 보고
"선생님은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홍 교수는 옆에서 듣고 있고.
그 다음 동주(東洲 李用熙) 선생, 이갑성(李甲成) 선생의 아들, 국제정치학 교수도
나중에 대통령 특보를 했잖아요.
그분은 추사(秋史)나 한국의 글씨나 미술사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동주 선생은….
그런 걸 대통령에게 늘 교육한다 말이죠.
그 안에서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더 어른, 원로를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술을 먹어도 이은상(李殷相) 선생이나 이선근(李瑄根) 박사 이런 사람들,
문화재 위원이나 원로들하고 자리를 같이합니다.
공식적으로 점심 한끼 먹자고 해서 와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선근 박사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는 누가, 대통령하고 저녁을 먹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어디가 막히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이고 전문가의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자기는 들은 것을 행정적으로 다시 물어본다구요.
법률적, 현실적, 국가예산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시하기 때문에 지시한 것은

법률보다 무서운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자기의 노트에 적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노트나 수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시를 받아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나 기술자가 모든 사람이 전문인이 되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길고 통치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가능했는지 몰라도 좌우간 전문가가 아니면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도 공부한 상태이고 행정(실무자)도 그러한 상태이고
그냥 잠시 자리를 맡았다든지 아무나 데려다 놓고 일을 했다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가경영에 굉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 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예술이나 일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맡고 있는 전통문화의 분야에는….
그래서 저는 전통 조경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조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챙기고 하시니까…
그때 하버드 대학이나 일본 동경 대학 등에는 조경학과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대학에는 조경학과가 없었어요.
대통령한테 전문적인 조경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하니까
일반조경이론을 다 번역해 가지고 마스터한 전문가가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대통령은 그림을 쪽지에 잘 그려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그림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불국사의 담〔墻垣:장원〕을 사고석 담(궁담)으로 하라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자연석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담부터 일본의 담, 우리 나라의 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있는 옛 건축법을 다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시정을 해서 추진할 때는
그 사람을 훨씬 몇 배의 전문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크게 지시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마찰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대통령이 감안한다 말이죠.
"괜찮다. 그게 좋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사람이 상당한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안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을 길렀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면의 전문가를 길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난 극복을 위한 대외 항쟁의 유적을 잘 정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형성해서 자주, 자립하는 정신으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입장 같이 그런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당을 지어 놓고 고개를 숙이듯이
그런 것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제일 앞장서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사상사(思想史)를 정립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터전으로 하자.
예를 들면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등의 성리학 그리고 실학까지 다 정리해서….

실학의 대표적인 고대 도시가 화성(華城)이요, 수원성(水原城)….
수원성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새로 다 쌓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지시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한 사업들은
칠백의총(1970년), 제승당(制勝堂, 1975년), 현충사(1967년 4월),
강감찬(姜邯贊) 장군의 서울의 낙성대(1973년), 광주의 충장사(김덕령 장군, 1974년),
항일 투쟁을 했던 윤봉길 의사의 유적(1972년), 행주산성(1969년 ~ 1970년),
진주성(晋州城), 강화유적(江華遺蹟, 1969년 ~ 1970년), 강화의 초지진(草芝鎭),

갑곶진(甲串鎭), 광성보(廣城堡), 고려궁지(高麗宮址), 강화행궁, 정족산성(鼎足山城),
마니산 참성단(摩尼山 塹星壇), 남한산성(南韓山城, 1970년), 서울성(1975~1978년),
수원성(水原城, 1975년), 고창읍성(高敞邑城), 홍성의 홍주성(洪州城),
서산시(瑞山市) 해미읍성, 문경관문(聞慶關門), 추사 고택(秋史古宅, 1976년).
그 다음 새로 건립한 국립박물관(1966)이나 경주 박물관(1975), 공주 박물관, 광주 박물관 등….
그리고 전통문화의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소위 전시해 가지고….
그때 보면 1개 도에 국립박물관을 하나 정도 둔다는 원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군사 유적(軍事遺蹟)만 관리해 나간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경주 유적의 발굴도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민족사관(民族史觀)의 정립(定立)과 사상사적(思想史的)인 체계(體系)를
완전히 자주적(自主的)으로 쓰게 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한국 미술 5000년 전(展) 그리고 경주 천마총이나 능(陵)에서 발굴한 유물을 정리해서
전부 우리의 문화사를 새로 쓰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한국사에 대해서 다 새롭게 쓰게 해서 교과서도 다 고치고
그런 후에 그것을 전세계에 알리고 구라파, 미국, 일본 등에 전시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와 일본문화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렸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한 아류(亞流)
또는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는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정립시켜주고….
그때에 미술사, 고고학, 한국 조경학 등 이런 학과가 많이 만들어지고
교육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도록 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같은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처음 제정되면서
우리 나라의 춤, 노래, 의식(儀式) 이런 게 문화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신적 문화유산이라고 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을 무형문화재라고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분들,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소위 말하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 공예기술의 장인 등….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층계급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분야를 숭상하고 보존해 나갔습니다.

서울 음대 안에 전통음악인 국악과가 설치된다든지,
무용학과에 한국의 전통무용학과가 생긴다든지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敎育課程) 중에 우리 문화를, 우리 예술을 강조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만일에 보존 조치가 안 되었다면 서양화 물결 속에서
우리 음악이나 그런 게 설자리가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통문화재인 인간문화재가 한 180~200명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1962년부터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일본, 대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 문화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지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냐?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국가의 운영체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제가 문화재관리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라는
일본법(日本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존 관리하는 체제인
중앙의 '국(局)' 단위가 만들어진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국립박물관 유물과(고고과)'의 한 사람이 전국의 유적을 관리할 정도였으며
또는 문교부 문화과 안의 '문화보존계(文化保存係)'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문화재청(文化財廳)까지 승격했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금강산이나 백두산은 천연보호구역이나 명승지가 되어
문화재로 관리되야 하거든요.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산림청이 무슨 임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제는 우리가 지금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관리하는 게
국보나 보물의 동산문화재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문에도 설악산, 한라산, 홍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또는 명승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업적으로서
총체적,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우리 국토의 원 모습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녹화(山林綠化)하는 정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맥이 단절되고 나지(裸地)가 되면(산이 헐벗으면) 해당 군수를 불러서,

“왜, 산림녹화를 안 하느냐? 왜, 산이 저렇게 깎여 있느냐?” 추궁하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후 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창달의 정책과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건과 책자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61年 10月 2日, 舊皇室財産事務總局을 폐지하고 文化財管理局을 文敎部外局으로 新設하여 民族文化遺産의 保存, 硏究, 창달의 전담 정부 기구를 만듦.
2.1962年 1月 10日, 文化財保護法을 제정 공포하여 文化財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확립함(1933년 日帝가 만든 朝鮮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폐지됨).
文化財保護法에 처음으로 無形文化財(음악, 연극, 춤, 놀이, 의식 등)와 民俗文化財(의, 식, 주)가 文化財의 범주에 들게 되어 민족 고유의 예술과 공예기술과 살림집과 음식과 옷이 문화재로 지정, 보호 받게 됨.
3.1966年, 정부는 古典國譯事業과 국학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民族文化推進會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4.1971年, 大統領 祕書室에 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團 구성 운영
5.1974年 4月 17日, 文化財管理局 산하에 文化財硏究所를 新設하였다.
6.1978年 12月 5日,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제정 공포,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이 설립되었다.
7.1979年, 韓國文化의 海外 선양 보급을 위해서 海外 公報館 산하 海外 韓國文化院 설치(日本 東京, 美國 뉴욕, 로스엔젤레스, 프랑스 파리).

책 자

1. □慶州觀光綜合開發計劃□ 1971年 靑瓦臺觀光開發計劃團 발행

The Kyongju Development Planning Group,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영문 책자도 있음)

2.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 1973年 靑瓦臺觀光開發計劃團 발행(국어, 일본어판 있음)

3. □도산서원중수지□ 1970年 12月 8日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발행

4. □행주산성보수정화지□ 1970年 11月 10日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발행

5. □아산 현충사 연혁지□ 1969年 4月 28日 문화공보부 발행

6. □칠백의총 보수 정화지□ 1976年 12月 31日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발행

7. □강화 전사 유적 보수 정화지□ 1978年 5月 25日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발행

8. □護國先賢의 遺蹟□ 1977年 12月 문화공보부 1판 발행

9. □護國先賢의 遺蹟□ 1978年 12月 문화공보부 증보판 발행

10. □護國先賢의 遺蹟□ 1979年 12月 문화공보부 재증보판 발행

해 설

1.護國先賢遺蹟과 傳統文化遺蹟의 保存繼承에 對하여, 문화재 1과장 鄭在□, □文化財□ 第11號 1977年 12月 30日, 文化財管理局 發行

2.“文化財委員會 略史” 文化財企劃官 鄭在□, □文化財□ 第18號 1985年 12月 23日, 文化財管理局 發行

略 歷

약 력

□ 생년월일 : 1938. 3. 3

□ 학 력 : 1957 진주사범학교 졸업

1964 단국대 졸업

1991 한양대 환경대학원 졸업

□ 경 력 : 1973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소장

1977 문공부 문화재 1과장

1978 국립중앙박물관 보급과장

1979 해외공보관 지원과장

1981 문공부 문화재 2과장

1983 同문화재기획관

1986 同문화재관리국장

1990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장

1993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장

1995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장

1996 同사무국장

1997 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단장

1998 문화재위원(현)

1998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현)

2000 한국전통문화학교(4년제 국립대학) 석좌교수(현)

□ 훈 장 :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임인수님께 드리는 토론 자료 (2) 광복군 박정희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7-30	조회수 : 88

지금부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말을 쓰겠습니다...

영웅 박 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본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었다.
훗날 광복군 중대장으로 편입된 것만 보아도 영웅 박 정희의 생각은 남 달랐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1940 년 만주군관학교 입학
1942 년 만주군관학교 예과 수석 졸업
1942 년 일본육사 본과 특전 입학
1944 년 일본육사 본과 졸업

박정희는 1944년에 일본육군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곧 소만 국경지대인 지지하르에 있는 관동군 635부 대에 배속되었다.
이때부터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만주에 산재해 있던 공비토벌작전 (共匪討伐作戰:공산당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그가 왜 군인의 길을 택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일본정부의 관료체제하에서는 자기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장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큰 삶에 도전해 보기 위해서는 군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름길이었고, 군인이 자신의 적성에도 맞았던 것이다.

만주군 소위가 된 박정희는 지지하르에서 화북지방(華北地方)의 열하성(熱河省)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그리하여 만주군 보병 제 8 단에서 근무했다.
이 제 8 단의 주요 임무는 모택동(毛澤東)의 팔로군(八路軍)을 토벌하는 부대였다.

그 당시 만주군 제 8 단에서 〈팔로군〉을 상대로 같이 싸웠던 중국인 친구 고인경(高印慶)은 박정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박정희 소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한 것 같았으나 내심은 퍽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우리가 평천진(平泉鎭)이란 곳에 있을 때 어느 날 조선인과 중국인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일본과 공비(共匪)들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
언젠가 이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광복을 맞이하다.
박정희는 만주군 소위로 임관된 지 1년 남짓하여 8. 15 조국광복을 맞이했다.
그가 속해 있던 만주군 제 8 단이 주둔하고 있던 본부는 열하성(熱河省)의 반벽산(半壁山)이다.
이곳은 북경(北京)의 동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로서 만리장성(萬里長城)의 북쪽 변경이다.

제 8 단의 병력은 약 3천 명으로 연대규모의 편대를 유지하면서 공산게릴라들과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인 사병과
현지 중국농민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전투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제 8 단의 단장은 당제영(唐際榮) 상교(대령)가 맡아 있었던 것인데 사병은 전원 중국인이고,
장교도 대부분 중국인이며 일본인 20여 명, 조선인이 4명이었다.

그 4명의 조선인 장교가 신현준(申鉉俊), 이주일(李周一), 방원철(方圓哲), 박정희(朴正熙)로서 박정희는 당시 단장의 부관이었다.

그 무렵 중국 내부의 사정은 어떠하였는가. 장개석(將介石)이 이끄는 국민당(國民黨)과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共産黨)이 천하의 명운을 걸고 사상전을 전개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이라고 하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거대한 중국대륙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일본군 제 8 단은 종전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산악지대를 헤매고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군 탈영, 마침내 광복군으로)

방원철 중위가 지휘하는 부대가 구산즈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 중위로부터 유선전화가 걸려 왔다.

"형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말을 쓰겠습니다.
소련군이 침공, 전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제 8 단은 명령에 따라 외몽고의 다륜(多倫)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중지하시고 장비를 최대한 가볍게 하여 내일 새벽까지 본부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철은 박정희의 전화를 받고 반벽산으로 되돌아 갈 작정이었다.

행군로는 험하여 여러 계곡과 절벽을 지나야 했다.
15일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비에 젖은 인마(人馬)는 무겁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5년 동안에 걸친 제 2 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14년 동안에 걸친 일본의 중국침략 전쟁도 끝이 났다.
그리고 36년 동안에 걸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도 끝나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했다.

광복군 제 2 중대장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만주와 북중국 및 조선반도에 이르기까지 힘의 진공상태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만주에는 소련군, 일본군, 만주군, 장개석군, 모택동군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살벌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만주군 제 8 단의 조선인 장교 4명도 무장해제 당한 채 부대 안에 서 손님 대접을 받으며 며칠 동안 지냈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위로 승진한 지 한달 만에 박정희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조선인 네 사람에게 부닥친 당장의 시급한 과제는 〈고향으로의 무사 귀한〉이었다.
철도가 마비되고 대중 교통수단 이라고는 전무한 중국 벌판에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힘의 논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 이외에는 모두가 적으로 간주되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잡다한 무장집단들이 언제 어디에서 총질을 해댈지 모르기 때문에
귀환은 또 하나의 전투를 방불케 했다.

방원철은 아내가 기다리는 봉천(奉天)으로 가고 박정희, 이주일, 신현준은 북경(北京)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하여 8월 29일 북경에 도착하여 맨 먼저 덕경루(德慶累)를 찾아갔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북경 동북쪽에 위치한 제지공장 자리로 옮겼다.

임시정부가 보낸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이곳을 숙영지로 마련한 것이다.
그는 중국 공군소장으로 장개석의 전용기를 조종했던 사람이다.

그때 임시정부에서는 조선의 독립에 대비하여 군대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개석군, 팔로군을 포함하여 학병으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들, 일본군, 만주군

에서 근무했던
젊은 장교나 하사관들 모두 광복군으로 편성하여 고국에 돌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약 400명의 청년들을 김학규(金學奎)가 지휘하는 광복군 제 3 지대에 편입시킨 것인데 이들은 제 1 대대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 1 대대장은 신현준(申鉉俊)이 맡고 그 아래 제 1 중대장은 이주일(李周一), 제 2 중대장은 박정희(朴正熙), 제 3 중대장은 학병출신의 윤영구(尹暎九)가 맡아 중대를 통솔했다.

그들은 소총, 기관총 등의 기본무장을 갖추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대의 현안은 먹는 문제였다.
간부들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고 심지어 광복군채(光復軍債)를 발행하여 그곳 동포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미처 식량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굶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무렵 박정희 중대장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조팝 깡다리에
소금국만 먹어도
광복군 정신만은
씩씩하게 살아있다."

박정희의 상관으로 광복군의 대대장을 했던 신현준에 의하면 그 당시의 혼란상은 말로써는 다할 수 없다.
일본이 망해버리니 만주군 제 8 단도 장개석에 붙어야 할지 모택동에 붙어야 할지 갈팡질팡이고,

우리 광복군 안에도 부대원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상문제로 밤새워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정희는 부대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어갔다.
만주군관학교 1등 졸업, 일본육사 졸업이라고 하는 군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경력이나 나이도 그들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말이 없으면서도 두주불사(斗酒不辭)하는 호방한 성품인 데다가 사사로운 욕심을 갖지 않았다.
여운형(呂運亨)을 줏대 있는 지도자라고 했으며, 어느 사람이 박정희에게 〈중대장 동무〉라고 하자
"동무가 뭔가? 내가 자네 동무란 말인가!"하고 핀잔을 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다.

고향에 돌아와서

박정희가 속해 있던 광복군 제3지대 대원들도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중국정부와 미 군정당국에 대하여 교섭을 활발히 벌였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뿐이고
특히 부대단위의 집단 입국이나 〈광복군〉의 명칭을 띠고는 입국할 수 없다고 했다.

전승국가도 패잔병도 아닌 묘한 입장에서 10개월 동안을 허송세월 하다가 1946년 5월 6일 미 해군 수송함을 타고
천진(天眞)을 떠나 5월 8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박정희와 신현준은 다시 기차편으로 서울까지 올라와 피난민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고향인 선산으로 내려갔다.

그의 고향집에서는 생사를 몰라 궁금해했다. 다만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북경에 있으면서도 우편, 전보, 교통 등의 통신수단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다.
박정희의 귀국에 대하여 어머니만은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 왔구나!"하고 눈물을 흘

리며 반가와 하였으나
형제들로부터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동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의 형 상희(相熙)까지도
"그냥 선생질이나 하고 있었으면 됐을 것인데 제 고집대로 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사실 박정희의 귀국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
검정 물감을 들인 군복에다가 낡아빠진 군화를 신고 땡전 한푼 없는 빈털터리였다.
지휘봉으로 보이는 두어 뼘 남짓한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러나 그는 노상 지휘봉을 휘휘 돌리며 잠시도 집에 붙어 있지는 않았다.
형들이나 누님들의 집을 들락거리며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하다가 심심하면 대구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기 일쑤였다.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퍼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樂)이었다.
박정희가 언제 술을 마다 했을까마는 그때처럼 술이 그를 위로해 준 적은 없다.

술기운이 거나해지면 그는 하나의 습관처럼 학창시절에 배웠던
한시(漢詩)를 읊어보며 울적한 심사를 달래는 것이었다.

원상한산 석경사 (遠上寒山 石徑斜) 멀리가을산 돌밭길 오르니
백운생처 유인가 (白雲生處 有人家) 흰구름 이는 곳에 사람의 집 있도다
정거좌애 풍림만 (停車坐愛 楓林晩) 수레 멈추고 마음껏 단풍을 사랑하니
상엽홍어 이월화 (霜葉紅於 二月花) 서리 맞은 잎새가 복사꽃보다 붉도다

하며 호기를 잃지 않으려고 짐짓 큰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임인수님께 드리는 토론자료 (3) 박정희의 좌익경력은 왜 무죄인가?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7-30	조회수 : 139

박정희의 좌익경력은 왜 무죄인가?

몇몇 악의적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해방직후 박정희의 짧은 남로당경력(1946~1948)을 들어 박정희가 공산당 프락치였다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정말 박정희는 잠시나마 공산주의자였을까요?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우리의 공산당(빨갱이) 혐오사상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직후(1946~1948) 조선민중 대부분은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오히려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그것은 일제가 공산주의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항일투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반공성향의 독립운동가인 김구선생도 해방직후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만나 협상하여 공산당을 포함하는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하려 했습니다.이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순수하고 무지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산당 혐오사상은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요? 공산당들과 전쟁을 한적이 없는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공산당에 대한 혐오감이 약합니다.6.25전쟁은 우리가 공산당의 악랄함을 유별나게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산당의 실체를 확실히 느끼고 공산당을 증오하게 되는 공산당 혐오사상은 6.25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그 때부터 공산당에 대한 우리국민의 증오심은 형성되었고 그후 월남전과 북괴의 무수한 대남테러로 공산당 혐오감정은 더욱 강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6.25전 여순 반란사건(1948년)때만 해도 국민들은 공산당의 실체를 잘알지 못했고 그결과 수많은 양민들이 공산당활동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주 4.3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4.3사건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전 좌익과 6.25후 좌익을 달리 취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박정희가 6.25전에 남로당 당원을 잠시 하였다고 하여 박정희는 공산당프락치였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6.25전 국민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반공사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김구선생의 6.25직전 행동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그 때의 대다수 민중(국민)들은 공산당 특히 김일성의 실체에 대해 무지했고 순수했습니다.그러므로 6.25전 좌익들과 6.25후 좌익들은 그 죄의 경중을 달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전과 그후의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방직후 김구선생의 애매한 정치적

행보를 근거로 김구선생을 용공으로 몰아부치기도 합니다.참 안타까운 일입니다.6.25전 사람들은 비록 그가 반공성향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중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6.25전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시대구분을 할줄 모르는 백치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25이후에 친북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또 김일성과 공산당의 악랄함을 알고도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이므로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 박정희의 좌익경력(남로당 경력)은 국가보안법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해방직후 남한은 이념적으로 매우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용광로였고 물론 공산당도 합법적이었습니다.즉 그 당시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반국가적 범죄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당과 좌익이 반국가적 단체로 분류되는 것은 국가보안법(1948.12)이 만들어진 후부터입니다.그리고 국민들의 반공사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1950년 6.25이후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연히 남로당 당적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남아 있던 박정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던 것입니다.

-아래글 참조-

퍼옴

만주육사 시절 박정희는 중도좌파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선생을 '줏대있는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이말은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해방후 정국에서 좌우 통합을 주장한 민족주의자로 공산주의자 박헌영과는 노선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미군정기에 이념적으로 오해를 받아 암살을 당합니다.

이러한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박정희가 여순반란때 오해를 받아 체포되는 이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박정희의 형 박상희도 여운형의 민족주의 사상을 신봉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빨갱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한국내 다수 학자들의 중론입니다.여운형은 해방직후 미군정기(45~48년)에 합법적 정치활동을 통해 좌우합작 운동을 합니다.무력 폭력혁명을 외치는 극좌 공산주의와는 다른 사상을 가졌던 사랍입니다.

우리는 5~80년대 남북의 이념적 극한 대립시기를 거치면서 좌익을 다 공산주의자로 보는 버릇이 생겼지만 온건좌익(중도좌파)과 공산주의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온건좌익은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상으로서 현재의 프랑스 사회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방후 미군정기(45~48년)는 정부수립(헌법제정) 전이라 공산주의도 합법적이었는데 이때 박정희가 잠시 2년정도 남로당원이었던 것을 트집잡아 박정희를 공산주의 경력자로 몰아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은 여운형의 인민당,박헌영의 공산당,신민당 등이 합당하여 생긴 당으로 그 안에는 중도좌파 인사들도 많았습니다.그래서 미군정 관리도 남로당 창당때 참석하여 축하를 해준 것입니다.실제로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남로당에 당적을 두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이었다고 해도 그는 좌익신분으로 실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직명단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박정희는 남로당 입당원서를 쓴적이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보아 형이나 친구들이 가입을 주선한 것 같습니다.

여순반란(1948년)은 남로당내 일부 극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군경과 반란자 측 모두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 끝납니다.이후 좌익들에 대한 당국의 검거열풍은 정말 대단했고 박정희는 조직명단에 있었으므로 당연 체포대상이었습니다.그 사건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결코 잠시라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그가 만주육사시절 공산게릴라(빨갱이)와 일본을 모두 적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만주육사 시절 친구들과의 친분 때문이지 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좌익인 형 박상희와 사상이 달라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이렇게 박정희는 좌익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박정희는 여순반란때 체포된후 깨끗하게 우익으로 전향을 합니다.전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황장엽씨는 수십년 동안 공산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전향하

여 대한민국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겨우 2년간 남로당 당원이었고 그것도 그가 실제 사상적으로 좌파였는지 불분명합니다.그런데 그것을 왜 이제 문제삼는 것입니까? 전향한 사람인데...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다고 모 방송사가 보도했지만 박정희는 여순반란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 군사총책도 있습니까?

체포되자 박정희가 군내 좌익명단을 말하고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여순사건으로 당시 국군의 10%정도 되는 9천명 정도의 인원이 검거 처벌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 입에서 좌익조직 명단이 않나오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모략입니다. 조직명단을 말해야 당국이 전향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가 군내 좌익명단을 말해서 당국이 군내 좌익들을 고구마캐듯이 체포할수 있었다고 오마이뉴스등이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입니다. 그럼 박정희는 누구의 실토로 체포되었다는 말입니까?

만주군 시절 박정희는 여운형의 독립군(광복군) 비밀조직과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이것이 박정희의 남로당 가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박정희의 형 박상희도 여운형의 건국동맹 간부였습니다.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연결된 만주 군관학교 출신 박승환(朴承煥)이 만주군에 군적을 둔 조선 출신 장교를 상당수 규합, 만주 일대에 산재한 독립전쟁의 연계를 도모하고 인근 주재 부대와 통합하여 1개 사단의 병력으로 국내 진공을 계획하였고, 바로 이 국내 진공계획에 박정희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로 보아 당시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주의자인 여운형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공산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친일파->공산주의자->반공주의자로 변신을 자주 한 사람이라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박정희는 중도좌파 민족주의자->우익 민족주의자로 변신한 정도에 불과합니다.앞에서도 밝혔듯이 박정희는 친일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방전 만주군 제 8단에서 팔로군을 상대로 같이 싸웠던 중국인 친구 고인경은 박정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 하였습니다.

/박정희 소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한 것 같았으나 내심은 퍽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우리가 평천진(平泉鎭)이란 곳에 있을 때 어느날 조선인과 중국인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일본과 공비(共匪)들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언젠가 이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기대하기 어렵다 " 라고 말했습니다/
*공비=공산당 게릴라

이 증언에서 박정희는 김구의 사상과 비슷한 측면이 발견됩니다.박정희는 만주군 시절 독립군을 도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중도좌파였던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년은 우익이었습니다.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전향한 사람인데...

박정희는 우익으로 전향한후 10년쯤 지나서 5.16 반공혁명을 일으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는데 그가 공산주의 경력자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를 공산주의 경력자로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논리는 매우 빈약하며 그 속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글을 맺고자 합니다.

출처 : 동아닷컴

5000년의 원시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

글쓴이 : 김휘	등록일 : 2009-07-30	조회수 : 49

5000년의 원시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

젊은 시절 런던에 잠시 머무르면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일반 가정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은 70 여세의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아는 것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식견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과 때때로 영어 공부도 겸해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주로 말을 하는 쪽은 노인이었고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노인이라 그런지 노인은 능변에 다변가였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정치 경제 체육 문화는 물론 주식투자 분야에 까지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제게 훌륭한 영어 선생 노릇을 해 주었지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당연히 영국인입니다-을 언제나 세계 최고의 인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저도 대개는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영국인의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 영웅적인 인물이라 소개를 하더군요. 그외의 관련 인물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러면서, 코리아에는 아직 그런 인물이 나온 적이 없지 하는식으로 살살 부아를 돋구더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대화를 슬슬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별걸 아닌 걸 가지고 영웅이니 뭐니 허튼 소리 지껄이는 노파를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무시해 버렸지요.

그러나, 그 당시 자기 중심의 인물관에 사로잡힌 나라는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이태리나 독일도 모두 자국 중심의 인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이나 소련도 자기 중심의 영웅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극동에서도 그런 유럽식 풍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있는데 물론 일본입니다. 세계의 강국은 모두 자기들의 자랑할만한 인물을 발굴하고 자국의 인물을 최고의 인물로 부각시키면서 나라의 자존심을 키워나갑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인물 경쟁도 다른 부문의 경쟁 못지 않게 치열하다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론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로서도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로서도 국론을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영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영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 많이 올려지는 인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의 명성과 국위가 크게 신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에게는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물이 될 법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키워 세상에 자랑할만한 인물로 키우기 보다 제 나라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곤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지는 인물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 나라는 영웅을 만들고 키우기는 커녕 있는 인물마저 죽이기 일쑤인 나라라는 자조섞인 한탄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이지요. 모두가 다 고만고만하게 다 잘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촌이 논

을 사면 배아파 하는 더러운 심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인물은 우리가 영웅으로 삼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인물입니다. 그는 영웅적 자질과 풍모를 타고 난 분이며 그가 이룩한 위업도 영웅적인 것으로 삼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 분은 빅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분은 우리가 영웅만들기 운동을 해서라도 그를 영웅으로 삼고 그를 위인의 반열에 올려도 하등의 누추함이 없을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참으로 밴뎅이 젖갈 같이 비좁은 소갈머리를 가지고 사는 한국인이라도 그를 역사의 인물, 위대한 인물, 영용한 인물로 삼는데 한 점의 주저함이 없을 만한 인물입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전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삼아도 한 점 부족함이 없을 인물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며 우리가 세계에 보란 듯이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단지 여러분의 한 세대를 먼저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는 길이만 길지 역사의 년수에 걸맞는 웅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상고시대의 우리나라는 강역이 동북아 만주 일대에 미친 대국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확증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 위대한 역사가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는 옹졸하고 궁색하고 빈핍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 해도기록하지 않고 위대한 영웅적 인물이 있었다해도 그 때도 난도질하여 죽여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박정희 같은 오천 년 역사에 보지 못하던 인물조차 파렴치한 악인으로 몰아 죽이려는 나라에서 어찌 영웅적 인물이 기록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봉건 왕조의 시대에서.

나는 생각컨대 우리의 역사는 영웅을 만들지 못한 옹색한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빈핍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강한 국가, 배부른 국가였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5천년을 늘 핍박받고 외침을 당하고 수난을 받은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만 찌들고 궁색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실하니 국민이 겪는 고난도 당연히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층 민중은 옹색한 나라의 짐을 오롯이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세 까지도 그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5천년의 모습은 최근 삼사십년 전까지만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 까지만 해도 우리 5천년전의 생활 모습은 그대로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누추하고 불건전한 생활 방식과 생활 모습이 5천년 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존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모두 그 5천년간 지속되어 온 가난과 찌든 생활을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한 세대 앞서 살아온 사람들은 한 세대만에 원시와 근대, 현대 3개의 시대를 한꺼번에 살아온 사람들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만, 우리는 서까래가 다 내려앉고 처마마다에는 제비가 둥지를 치고 살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안 벽지는 신문지를 더덕더덕 붙인 정도면 좋은 수준에 속했고 비가 오면 양철통을 받쳐놓고 밤새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날이 갠 날이면 비 대신에 쥐새끼들이 천장 위에서 운동 경기를 벌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야했습니다.

그래도, 네 기둥이 있고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허름한 지붕이라도 얹혀진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쥐와 비가 날을 따라 잠무대를 괴롭히는 집이라도 그나마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호사였지요. 움집 오두막집 판자집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길을 달릴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도 오천년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마차가 달리던 길 위로 털털 버스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버스가 달릴 때마다 희뿌연 흙먼지를 일으켜 주변의 모든 것을 부옇게 덮어버렸습니다. 도로 옆 시골 촌락은 모조리 흙먼지를 잔뜩 덮어쓴 채 움집 같은 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도로는 포장된 길이 하나 없었습니다. 도로는 천연의 길 그대로인 황토길이었고 보수를 해도 황토를 메꾸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황토길은 진창길이 되었고 비가 그치면 황토길은 굴곡많은 어드밴쳐 모험의 길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움푹 팬 곳을 피하여 요리조리 곡예 운행을 하고 그래도 너무 많은 요철 지역을 피하지 못해 늘상 덜커덩거리기 일수였습니다. 승객은 버스의 상태에 따라 요리조리 몸이 흔들거리고 버스가 상하 요철이 심한 곳을 통과할 때는 머리를 찧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먹는 것은 어땠겠습니까. 집과 길의 상태가 그런 형펀인데 먹는 것이라고 변변했겠습니까. 저는 초등 6년 동안 한번도 도시락을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강냉이 옥수수빵으로 대신을 했지요. 그러나, 그 빵조차 얻지 못해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특별히 기억 나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 학교 가는길에 오징어를 파는 노점이 있었습니다. 오징어래야 살집이 붙어있는 오징어가 아니고 오징어 등껍질을 벗겨 놓은 것입니다. 그걸 구워서 팔기도 하고 생것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 굽은 것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구운 것은 생 것보다 약간 비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동무들 중 아무도 그걸 사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입성은 어땠겠습니까. 입는 것인들 때깔이 고울 수 있었겠습니까. 겨울이 아닌 봄 여름 가을은 푸른 색 운동복 반바지에 런닝 셔츠 하나만 걸치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때때옷 한가지 새 신발 하나 사주실 명절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곱고 고운 댕기는 내가 들이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라고 부르는 설날 노래는 그 때 그 시절 그대로랍니다.

집과 도로는 사람 사는 환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의식주는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원시의 수준, 전근대적인 수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우

리의 생활은 5천년 전이나 이조 시대나 일제 치하 보다 더 나아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쟁 후의 궁핍 상황이 우리를 더 어려운 상태에 몰아 넣고 있었을 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은 5천년 동안 거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거론한 이야기는 1960대의 생활상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1960대 초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80불 수준이었다 합니다. 세계의 최빈곤국 수준이었습니다.

1961년 5.16일 박정희 장군에 의한 군사 구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그 후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후 19년간에 걸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부흥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치세하에서 우리나라는 20배의 국부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치세하에서 대한민국은 5천년의 가난을 헤쳐나왔습니다. 그의 치세하에 우리는 전세계가 경이롭게 여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최빈곤국의 대열에서 벗어나 일약 중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천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두 손 두 발을 쳐들고 반대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박정희를 헐뜯어 천하의 영웅을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폄훼하는데 목을 매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정희는 구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므로 민주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유신 헙법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한 사람이므로 민주 대통령이 아니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가수를 초대해 술자리를 가진 일을 들춰내어 욕질을 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의 만군 장교 경력을 문제 삼아 친일파로 몰아넣는 자들도 있습니다. 5천년의 영웅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도 그 영웅됨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영웅을 죽이는데 목을 매달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이고 성격 파탄자이고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약 20배의 국부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국도가 신설 포장되고 고속도로가 준설되고 항만 부두 기간 산업이 확장되었습니다. 판자촌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30km 대의 털털이 버스가 시속 70hm를 넘어 100km를 고속질주하는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속도 계기판이 시속 70km에 육박하는 버스를 타 보고는 버스가 날라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박정희는 80년 대 초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희망을 주었지만 그는 그 시대가 오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마이카 시대 운운이 유신 독재를 끌고 가려는 정치적 최면약이라고 반발한 민주 운동꾼들에게 그의 예언을 증명해주지 못한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마이카 시대는 곧장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 치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5천년의 빈곤과 가난을 물리친 경제의 대통령, 영웅입니다. 그는 이 나라에 5천년의 전근대적 원시 생활을 끝내고 현대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케 한 영웅입니다. 그는 한 시기의 통치를 통해서 5천년의 원시성 전근대성을 뛰어 넘은 영웅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5천년의 원시성을 개혁한 진정한 진보 진정한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경제 치적이 어찌 박정희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박정희가 고속도로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겠습니까. 박정희가 경제의 모든 영역에 직접 간여를 하고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지휘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박정희의 치적을 흠내는 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 일들은 거의 모두 그 일을 직접 담당한 기업과 개인, 국민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 달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들 하지요. 박정희가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전세계적인 동반 발전 추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아니라도 누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도 국민의 우수성을 이용하여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의 시동을 걸기는 더 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뱅이 거지가 하나의 볼만한 기업을 일구어내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가능하며 그런 일이 일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80 불 국민총소득이 고작 30억 불에 불과한 가난뱅이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성장 모델국으로 성장한 일이 가난뱅이 거지가 하나의 볼만한 기업을 일구어내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일로 보입니까. 수중에 단 한 푼의 돈도 없는 알거지가 무슨 재주로 돈버는 일을 시작하기라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그런 꿈같은 꿈을 꾸어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유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뭣 하겠습니까. 일을 시작할 돈이 없는데 그가 아무리 유능한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국민소득 일인당 80 불 국민총소득 30억 불의 나라는 거지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거지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경제 성장을 꿈꾸며 어디서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누구라도 경제쯤 일으켜 세우는 정도야 별일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세상에는 왜 알거지 같은 사람이 있으며 세상에는 왜 부자가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에는 왜 부자도 있고 알거지도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거지는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되었겠습니까.

5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럼 왜 그동안 경제의 부흥이 없었는지 물어 보십시오. 박정희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5천년의 역사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물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인물들은 다 바보같은 놈들 다 천치 같은 자들이라 그랬다는 결론 밖에 더 나옵니까.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데도 수 대를 기다리면서 집안을 부흥시킬 인물이 탄생되기를 기다립니다. 집안도 그 때가 이르고 그 인물이 나와야 흥하게 됩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에 대해서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대나무 밭에 자라는 죽순처럼 시도 때도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는 나라의 강성을 위해 하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경제 영웅입니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이나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물의 역할과 그 인물만이 떠안는 시대의 역할을 인식하시고 그가 시대와 역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던가를 바르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마다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무슨 독재를 했습니까. 박정희가 북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종신 독재를 했습니까.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독재를 했습니까. 소련의 스탈린 같은 독재를 했습니까. 박정희가 수천명의 인명을 학살하기라도 했습니까. 박정희가 총칼로 선거민의 자유를 압박하기라도 했습니까. 박정희가 국부를 훔쳐 일신의 호사를누리기라도 했습니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은 자칭 민주 운동꾼들입니다. 이 자들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데 입을 맞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민주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의 탄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말하는 민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민주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민주주의란 참으로 정의를 내리기 혼란스러운 용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빕니다. 민주란 참으로 이현령 비현령의 모호한 용어이며 그럼으로써 이 용어는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남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젠가는 설명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라는 용어는 거의 제멋대로식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민주라는 말을 쓰고 북한 곤산주의도 민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점에 유의하시면 민주라는 말이 얼마나 경계가 모호한 용어인지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의 본 뜻은 각 개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 충돌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의 본 뜻은 토론에 가장 많이 닿아 있습니다. 민주란 의견이 다른 다수가 말싸움을 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문화를 말합니다. 자유 토론 문화가 민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을 한답시고 날을 새워 토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토론 참여자가 다수이거나 대중 전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론은 중구난방에 끝없는 토론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의 문제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고, 대의제이고 선거제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으로 종결지을 수 없을 때 수의 크기로 토론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고, 대의제는 어떤 일정 분야에 있어서 다수결의 의사를 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가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이며, 선거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법과 사회 규약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법과 규약도 참여자의 직접 참여에 의해 만들든지 대의원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정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법도 입법의 의사를 대신한 국회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이 바로 민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가 법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민주 운동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국가보안법을 어겨 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를 짓고서도 법을 법대로 집행한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독재자는 법을 준행하지 않아야 하는 자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민주를 핑계삼아 민주를 파괴하는 자들이야 말로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민주를 핑계삼아 민주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민주 운동꾼들이야말로 독재자이고 악랄한 민주 파괴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주를 운운하는 자들 중에 민주를 말할 자격을 갖춘 자는 하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란 무엇인지를 물어 보십시오. 그들은 대번에 말할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자유가 민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민주 의식이라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되돌아 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만 말할 자유, 그들이 원하는대로 북의 김정일도 한 민족이니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과 통합하자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면,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적국이며 그를 지지하는 놈들은 불순 분자이며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파괴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말하는 자유도 자유이며, 그럼으로 이 두개의 말할 자유가 충돌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북의 김정일을 두둔하는 짓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은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할 민주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지키는 일과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일은 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때는 박대통령의 유신 헌법에 반대를 하느라 데모를 밥 먹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날이 새면 최루탄 가스에 대항해서 보도 블록을 깨뜨려 던지고는 했었습니다. 운동꾼은 암조직처럼 어린 신입생을 유혹해서 지하 운동권으로 끌어 갔습니다. 모임마다에서는 박대통령 까대기가 단골 메뉴였습니다. 술을 먹다 박대통령 욕했다고 붙잡혀 간 사람도 있었고 그 일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지요.

밤 12시면 통금 사이렌이 불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는 거리 통행이 금지 됩니다. 술을 먹다가도 시계를 흠칫흠칫 쳐다 보면서 먹습니다. 자리를 떠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기는 했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낭만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해서 낭만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술먹다가 숨 취한 김에 박정희 욕해서 경찰에 끌려갈 염려와 통행 금지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빼고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상습적인 노조 데모나 지역간의 충돌, 삐끗하면 촛불 난동을 부리겠다는 촛불 난동족의 위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때 그 시절 대한민국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대체로 평온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운동꾼 지하 세력들만이 어둠 속을 분주하게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주 운동꾼은 밤이면 쥐처럼 숨었다가 아침이면 올빼미처럼 목을 쑤욱 빼어 들고 대한민국 정부 때려 부수기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에게는 평화스럽고 민주적인 나라였지만 이 극소수의 반정부 세력에게는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고 민주가 아닌 독재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보안법을 지킬 의사가 없고 반공법을 무산시키기를 학수고대한 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숨쉴 공간도 없는 답답한 세상 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를 기도한 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독재의 왕국으로 비쳐졌습니다. 박정희에게 쏟아진 독재자 모함은 이 국가 파괴세력과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의 협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고 축약된 정의를 내려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기완 선생을 아시지요? 그는 재야 반정부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같은 사람 3만 명을 못살게 했지만 김대중 김영삼이는 삼천만명을 못살게 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음미하면서 박정희가 독재재였던가에 대한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박정희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본들 제가 얼마나 알아서 올바르게 소개를 할 수 있겠으며 얼마쯤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이 하신 일은 한 나라의 5천년의 누더기를 걷어내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방대하며 얼마나 복잡할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하신 일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낳은 5천년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고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5천년 원시 가난을 걷어낸

박정희 대통령이 한 때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약동시킨 최대의 걸물이며 영용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박정희의 하신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시고 박정희가 좋은 시대를 만나 순풍에 돛단듯이 국운을 개척해나갔다고 생각하신다면 약간이라도 생각을 고쳐 먹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영웅이 동시대를 사는 역사속에서 조차 폄하를 받고 오해를 받고 바르게 인정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의 정신적 황폐 이 시대의 더러운 풍조 이 시대의 못난 조선족의 근성에 화가 나서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젊은이 여러분이 때묻지 않은 감성과 지성으로 박정희를 바르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할 것이지만 동시대를 사는 젊은 지성들이 역사의 저울추를 바로 달아주는 역할 쯤은 수행해 주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의에 가득한 자들의 말은 맹신하고 진실에는 눈을 감아 버리는 젊은이들만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임인수 님께 드리는 토론자료 (4)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7-31	조회수 : 139

님의 글 〈정권찬탈과 독재를 위한 수많은 양심세력에 가한 악행들(반공의 이름으로-민족

의 정기를 말살,부패세력의 득세),경제성적표의 허상 의견들에 대해서도 반박글을 기대합니다.〉 는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른바 양심세력들에 가한 악행(님의 표현)에 대하여 잠시 글을 쓸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념은 오로지 조국 근대화 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많습니다.
그 당시의 가난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잘 모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는 많은 인구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5천년 역사를 통하여 임금이든 지방 수령이든 이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독선적인 해석으로 비춰지겠지만 개발독재 시절, 지도자의 신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를 이어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부나 막노동을 위하여 조국을 떠나는 필리피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쿠바의 카스트로는 어떻습니까. 쿠바인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독재자들과 박정희 대통령을 감히 같은 잣대로 비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뚫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김영삼, 김대중은 몸을 철사줄로 묶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겠다고 결심했을 때, 대학 경제학 교수들은 나라 말아 먹을 짓(?)이라고 했고,
이 교수들의 이야기를 믿은 학생은 무조건 박정희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옳았구나.... 하고 되돌아 보고 젊은 시절 운동권에서 목숨을 걸었던 시절을 회환하는 고백을 하신 분이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 반론 제기해 주시면 언제라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념의 사나이에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셨던 분이 김영삼, 김대중....들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님의 반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실증적으로 반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시대 때, 김영삼, 김대중은 이러이러한 점을 반대했었는데, 맞지않나...라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도 재반론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5천년 가난을 떨쳐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저는 조갑제 류의 글은 싫어 하지만 이 문장은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는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 하부조직에서 일어난 과잉충성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정희는 나같은 인간 3만명 정도 못 살게하고 일반 국민은 그래도 등 따시고 배 부르

게는 했는데
지금 양김 대통령은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 어찌된 나라가 전두환부터는
대통령만 되면 지 뱃속 차리기만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의 비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운동권의 대부 백기완 선생의 고백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질문이고, 임인수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7-31	조회수 : 134

(저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 독도 우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독도에 대해...
그러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냐구요?
결론만 말하죠. 독도의 인근 해역의 반은 이미 우리 땅(바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독도는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에 한일공동 어로수역의 중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은 이미 그 조약에 의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해상에 적의 실효적 점령하에 있는 섬의 탈환이라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하이드브레이트라는 제 3의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는 독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발언.
내 마누라... 자꾸 이야기 할 필요없다.
이야기할 필요없다고 하는 다른 쪽 당사자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권,
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었더군요.
설마... 여러분이 직접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검색창에 쳐 보십시오.
그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 2002년 1월 22일,
3년째 효력이 상실될 기회가 왔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그냥 또 넘어 가 버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매국노라 합니다.
더구나 일본에다 팔아먹으면 친일매국노, 친일 민족반역자라 합니다.
이완용, 송병준.....

박정희가 만주군으로 근무했던 그 경력만으로 친일파가 되어야 합니까.
독도의 반을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들을 매국노라 불러야 합니까.
(질문 끝)

임인수 님께... (5) 체급론과 토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8-02	조회수 : 34

우선 답변이 늦은 점을 해량바랍니다.
(이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 , 앞으로도 종종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님께서 그동안 쓰신 글을 읽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번호 407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선 제가 님께 토론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 2009.07.29 박사모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글(글번호 365949)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입니다.

〈김재원의 아침저널 청취자게시판을 도배하고있는 노사모의 임인수란 자가
온통 박정희 대통령을.....
회장님 께서 대적해주셨으면 어떨까해서요.
김재원님이 예전에 박근혜님의 사람이었다는이유로 엄청 .....
이런자들을 어찌제도해야하는지 .
감당이안되어 도움청합니다.〉

위 글을 읽고 본 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물론 김재원 전의원님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이유가 되었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임인수 님은 (글번호 407번)에서 감자기 체급론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토론조차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서 본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야기인지,
체급이 다르니까 토론의 질이 떨어져도 무방하다 자위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
갑자기 허탈해 지는 심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고 토론의 결과에 아름답게 승복하는 멋진 문화를 공
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토론의 결과와 무관하게
승복해야 할 결과에도 불구하고 님은 체급론을 내밀면서 끝까지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음을 임인수 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 또한 저는 님에 제안하신 토론방식....
즉 제 3 자(다음 아고라)의 훈수까지 허용해 달라는 제안까지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체급론을 꺼내시니 어찌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저 역시 이 토론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에
모쪼록 서로의 귀중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님께 다시 한 번 진지한 토론 태도를 촉구합

감사합니다.

임인수 님께.... (6) 박근혜 대표님과 미디어법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8-02	조회수 : 47

이번 미디어법을 두고 국민은 여야에게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히 성숙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는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 또한
니다.

혹시 임인수 님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표님은 독재자의 딸이라고 욕을 먹어도, (국보법 투쟁 당시) 지지율이 떨어지
일시적인 국면전환을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은 국보법 폐지 반대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녀는 국보법을 지
또한 지지율도 상승하였습니다.

미디어법.
그녀는 이런 상태로는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
몇 차례 산고를 거치고 나서 수정안이 받아들여 지자, 그녀는 이 정도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
들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요구할 것을 요구했고,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자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
박근혜가 언제 말을 바꾸었습니까? 신념을 굽혔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 신념을 밀어 붙였습니다.

친박이든 친이든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뿐, 박근혜가 변한 것

다.
역풍이 불든, 돌맹이가 날아오든 변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표님은 야당을 대신하여 중재안을 내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습니다.
홀로 외로이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이 할 일을 대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커녕,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에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에 10%의 족쇄를 채운 것도,
2012년 말까지 경영권 행사도 못 하도록 막은 것도,
종편, 보도 채널의 30%의 규제를 만든 것도,
시청점유율 30%가 넘으면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사후 규제가 박근혜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니까.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누더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박근혜 대표님을 위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는 법안인데....
한나라당 당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목숨을 걸고 쟁취한 양보안인데....
민주당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현자의 멱살만 잡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비판하고 자성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민주당이
자신들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성동격서의 전략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표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추태에 대하여 한심한 생각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

박근혜 대표님은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말을 바꾼 적도 없고, 신념을 굽힌 적도 없습니다.
여의도 참새가 입방아를 찧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님께.... (7) 경제대통령 박정희

글쓴이 : 정광용	등록일 : 2009-08-02	조회수 : 27

임인수 님께.... (7) 경제대통령 박정희

님의 글 393번, 〈박정희경제발전과 같은 시기의 대만,홍콩,싱가폴,일본은? - 조중동이 만든 의 허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한국의 경제도약과 일본,홍콩,대만,싱가폴의 경제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글 393번의 6번항을 읽고, 터져 나오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소설을 썼든, 과장이 있었든, 님이 인용한 자료와 필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엉터
입니다.

우선 일본을 한 번 봅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망했을 때, 원자폭탄을 잿더미가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빼고는
거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생산시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였냐구요?

비록 전쟁에서는 졌다고 하지만, 세계 최대의 거함 야마또 호를 제조하는 조선 기술이 그대
제로 전투기를 만들던 항공 기술이 그대로 있었고,
각종 군수품을 만들던 경공업 장비와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초, 최고의 잠수함 U보트를 만들던 나라, 세계 최초의 미사일을 만들어 쏘던 나라기
니다.
탱크나 뭐 이런 거는 기본이었지요.

전쟁에서 잠시 졌다고는 하지만, 기술력과 장비, 인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다시 일어 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홍콩, 대만, 싱가폴이야 전쟁을 제대로 겪지도 않았으니,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떠했었나요?

2.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폐허... 그것 뿐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수탈당하고 해방이 된지 고작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차례 쓸고 내려오고, 한 차례 쓸고 올라가고, 또 한 차례 쓸고 내려오고, 또 한 차례 쓸고
고....
함포에다 미국기의 포격에 북한군의 포탄에 남한군의 반격에 아무 것도 남아 나지 않았습니
전 국토가 말 그대로 폐허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전기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죠?
그래도 북한에는 수력발전소라도 몇 개 있었습니다.
서울은 남, 북한이 교대로 점거하면서 모든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발전소라니요? 사치
한강 당인리 앞 물 위에 미군 발전선이 한 척 떠서 전기를 공급할 뿐이었습니다.

멀쩡한 건물도, 집도, 도로도, 학교도, ...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의 판자촌도 그래서 생겼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까? 기술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인프라가 있었습니까? 시설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과 비교하자구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을 따라잡자.... 였습니다. 격세지감이고 호랑이
절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4.19 혁명이 터지고 국회는 날마다 싸움만 했습니다.
강기갑의 공중부양 정도는 새발의 피였습니다.

데모대가 국회를 점거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서 날마다 거리를 점거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간혹 굴러 다녔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3. 경제 수치 하나만 비교해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연간 총수출액 3,300만 달러. 외환보유고 2,300만 달러... 이걸 가지
했습니다.

1977년 11월 30일.... 박정희 대통령 집권 16년 차....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액 100억달러,

16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2배, 수출액 460배.... 이것이 정확한 통계자료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님이 인용하신 수치와 비교해 볼까요?

물가상승율?
경제개발 국가의 특징이 물가상승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출로 인하여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니, 자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볼까요? 식품의 경우 연 평균 22%, 육류의 경우 47.9% 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박정희 시대의 인플레가 어쨌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食品价格	上□22.1%
肉禽及其制品	上□47.9%

임인수 님의 월급이 월 300만원이라치고, 이 월급이 12배로 올라 월 3600만원이라면 씀씀이
죠?
그러면 점점 더 고급품을 찾게 되고, 임인수 님의 동네사람 모두가 월급이 12배로 오르면 물
가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국가의 수출이 늘고 돈이 들어오니 땅 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로 인한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너무 잘 되면 외국에 투자도 하고, 수입 사치품도 늘어나고 국제 원자재도 확
면서 외화를 일부러 쓰기도 합니다.

일제 36년과 3년에 걸친 6.25 전쟁....
멀쩡한 건물도, 집도, 도로도, 학교도, ... 아무 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기술도, 기술자도, 돈도, 인프라도, 시설도....
산에 불 땔 나무조차 없었던 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도약했습니다.

이 정도면 임인수님이 인용한 자료가 얼마나 허상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펌] 중국은 위구르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 알카에다 "중국에 복수하겠다

2009.07.15 18: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11/2009071100078.html

아시아

[오늘의 세상]

"중(中)은 위구르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

-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4)
- 입력 : 2009.07.11 03:04

▲ 카디르 회장은 위구르의 독립이냐 자치냐를 위구르인이 투표로 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이하원 특파원

'위구르의 어머니' 카디르 인터뷰
"한족(漢族) 폭력배의 위구르 여성 폭행
경찰이 수수방관한게 사태 원인
'소수민족의 성공적인 모델'로
중국(中國)은 나를 이용하려 했다"

미국위구르협회 사무실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 있다. 9일 이곳에서 만난 레비야 카디르(Kadeer · 61) 세계위구르회의(WUC) 회장은 반쯤 목이 쉬어 있었다. 위구르족의 전통 4각모자인 '돕바'를 쓴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표정부터 달라지며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사태 초기에 위구르족 여성들이 한족 폭력배들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한족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죠. 이게 계속 위구르인을 자극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카디르 회장을 지목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이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이를 11명이나 둔 엄마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카디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때나 작년 티베트 라싸(拉薩)에서 유혈 시위가 일어났을 때를 보세요. 중국 정부는 늘 사태의 책임을 다른 데 돌리지 않았나요?"

카디르 회장은 "중국 정부는 '안정과 민족 간 화합'을 얘기하지만, 위구르인에 대해 사실상 문화적 인종 말살(cultural genocide)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문명의 요람인 카스(喀什)와 위구르 불교의 성지인 투루판(吐魯蕃)에서 수천년 된 위구르 유적을 부수고 중국 절을 세운 뒤 '이게 수천년 전부터 여기 있었다'며 위구르인의 정체성을 모두 없애려 합니다." 그는 "있던 유적을 파괴하고 없던 유적을 만드는 것은 역사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며 "만주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가난한 위구르 가정에서 태어난 카디르 회장은 세탁소에서 출발해,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이름을 떨쳤다. 1992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이 되었고, 평생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1997년 신장위구르 자치구 이닝(伊寧)에서 발생한 위구르인의 시위를 중국군이 유혈진압한 것을 계기로 180도 달라졌다. "중국 정부는 나를 '소수민족의 성공 모델'로 대내외에 이용하고 싶었겠지만 그 사건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협 회의에서 그는 시위와 유혈진압, 위구르인의 가난, 열악한 교육환경, 정치범에 대한 학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협 위원자격을 박탈당했고 모든 재산을 뺏겼다.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되어 8년간 모진 옥살이 끝에 2005년 석방되었다. 그 직후 카디르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2006년 세계 위구르 대표대회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제 '위구르의 어머니'라 불린다.

그는 위구르 문제의 해법은 "위구르인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 투표를 통해 위구르인이 독립을 원하면 독립을 허용하고 진정한 자치를 원하면 자치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펴낸 자서전 '드래건 파이터(Dragon Fighter)'에는 '중국과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 여인의 서사시'라는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그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중국을 적(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만약 진지하게 위구르의 문제를 다룬다면 언제든지 마주 앉아서 위구르의 미래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위구르로 돌아가 여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도 했다. "내가 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 김치를 비롯해 한국 음식을 사러 한인 식품점에 자주 들릅니다." 카디르 회장은 "내 피부색은 한국인인 당신과 똑같다"며 웃었다.

- 알카에다의 분노 "중국에 복수하겠다"
- 카디르 "알카에다 보복공격설은 중국의 게임"
- 잘 나가던 위구르 당서기 '흔들'…시민 2명 사망

- "한족의 폭행, 경찰은 보고도 못 본 척해"
- "위구르 폭도들, 어린아이 · 노인까지 폭행"
- 시장 · 백화점 문열어 우루무치 질서 회복
- 위구르족은 변방 밀려 불만 팽배

박승진(playa88)

찬성 0

반대 0

레비얀카디르(Kadeer)여사는 성장과정은 달라도 위구르인들에게는 달라이라마와 같은 존재이시군요. 카사와 투르판에서 민족과 문화말살을 자행하는 뗏놈들의 야만행위를 더 이상 볼수 없어 조직한 미국위구르협회는 한국에 비춰보면 상해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핍박과 차별에서 해방에서 벗어나 위구르인들의 독립을 간절히 기도 드립니[2009.07.15 15:24:33]

댓글(0)

댓글쓰기

도주평(djpg)

찬성 0

반대 0

그 ㅇㅔㅆ날 고구려 와 백제 땅은 지금의 중국 영토 절반이 우리 땅인데 어쩌다 조상님들이 지금의 땅덩이에 그것도 반족이니 개탄하고 싶지만 그나마 언어와 문자가 다르니까 국가있지 아니면 한족 즉 짱개 들에게 믹스가되어 민족도 없고 국가가 없을것인데 세종대왕님 을 새삼 감사드리고 싶다. 언젠가 그옛날 영화가 다시 돌아 올것이다 대륙이 우리땅이 될것을.[2009.07.11 16:24:03]

댓글(0)

댓글쓰기

도주평(djpg)

찬성 0

반대 0

그 ㅇㅔㅆ날 고구려 와 백제 땅은 지금의 중국 영토 절반이 우리 땅인데 어쩌다 조상님들이 지금의 땅덩이에 그것도 반족이니 개탄하고 싶지만 그나마 언어와 문자가 다르니까 국가있지 아니면 한족 즉 짱개 들에게 믹스가되어 민족도 없고 국가가 없을것인데 세종대왕님 을 새삼 감사드리고 싶다. 언젠가 그옛날 영화가 다시 돌아 올것이다 대륙이 우리땅이 될것을.[2009.07.11 16:23:18]

댓글(0)

댓글쓰기

강신구(kang59)

찬성 1

반대 0

우리의 자칫하면 위구르인과 같은 운명이 될 뻔 했다.임오군란후 袁世凱가 진주하여 중국의 속방상태로 굳어졌다고 생각해 보라. 앗찔하다. 18C이래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대. 힘의 균형선을 한반도 허리 아닌 滿州로 밀어올릴 때 민족統一도 가능하다. 위구르人이여, 빈라덴과 손 잡아라. 진짜 제국주의자는 중국공산당이다.중국민주화가 세계평화의 지름길이다.[2009.07.11 09:20:27]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15/2009071500319.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카디르 "알카에다 보복공격설은 중국의 게임"

- 연합뉴스
- 기사
- 100자평(0)
-

입력 : 2009.07.15 08:47

“한국 정부.국민도 위구르 문제 도와야”

레비야 카디르 세계위구르회의(WUC) 의장은 14일 “위구르 사태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위구르 사태에 개입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디르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미국위구르협회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대해 위구르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디르 의장은 또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구르 사태에 개입, 중국과 대화를 갖고 위구르인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유엔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면서 “만일 국제사회가 이런 잔혹상에 눈을 감고 있는다면 과연 국제사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

다.

그는 국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우루무치 유혈 시위사태와 관련해 북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중국기업의 작업장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위구르인들을 테러리스트와 연계시키려는 중국이 벌이는 게임의 일환(part of game)”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구르인 시위가 티베트 사태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위구르인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중국의 대대적인 ‘선전활동(propaganda)’때문이라고 말했다.

카디르 의장은 중국 경찰이 최근 위구르인 2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도 한족들이 위구르인을 살해하는 등의 많은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디르 의장은 “시위에 참가한 위구르인들은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롭게 집회를 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타하고 진압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강압적으로 ‘위구르에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터키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신의 터키방문과 관련, “지금은 워싱턴에서 해야할 일이 많아서 가까운 장래에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방문을 허락해준 터키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카디르 의장은 “중국이 이번 위구르 사태의 배후로 나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중국의 강경진압에 의해 벌어진 것이지 나와는 무관하다”며 “나는 오직 위구르인들을 위해 활동할뿐”이라고 말했다.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15/2009071500007.html

알카에다 "중국에 복수하겠다"

- 홍콩=이항수 특파원 hangs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
- 100자평(29)
- 이슈
- 中文
- 日文
-

입력 : 2009.07.15 03:02 / 수정 : 2009.07.15 09:10

위구르 유혈사태에 분노 중국인 · 기업 공격 명령

중(中) "한족이 더 많이 희생"

최소 184명이 숨진 '신장(新疆)위구르 유혈 사태'로 인한 반중(反中) 분위기가 전 이슬람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부분 무슬림(이슬람 신자)인 위구르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고통에 이슬람 국가의 국민이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일 위구르족의 유혈 시위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사마 빈 라덴(bin Laden)이 이끄는 국제테러집단 '알카에다'가 중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선언하고 나섰다.

런던에 본부를 둔 위기관리 정보업체인 스털링 어신트(Stirling Assynt)사는 최근 고객 기업들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알카에다 분파인 '이슬람 북아프리카 알카에다(AQIM)'가 북아프리카의 중국인 작업장이나 현장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돌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이 보고서는 AQIM의 지시문을 직접 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작성됐다"고 전했다. AQIM은 3주 전 중국인 기술자들을 호송하던 알제리의 경호 부대를 습격해 2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알카에다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인 테러 목표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스털링 어신트사의 보고서는 다른 알카에다 조직들도 AQIM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내 무슬림이 처한 상황에 국제 지하드(성전 · 聖戰 의미)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알카에다의 예멘 조직이 친중(親中)적인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기업들의 현장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 국제 테러문제 전문가는 "최근 이슬람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에 알카에다의 공격 명령이 놀라운 것도 아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지난 5일 사태 발생 이후 터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13일) 등 세계 각국의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수십~수백명씩의 무슬림들이 몰려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성토하고 지하드(성전)를 다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가만히 있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루무치 유혈사태를 '대량학살'로 묘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Erdogan) 터키 총리의 지난 10일 발언에 발끈하고 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 중 대부분이 한족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걸 학살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체 사망자 중 137명이 한족이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본질을 증명하고도 남는다"며 에르도안 총리를 향해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는 (학살)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hosun]

[펌] 독도를 지킨 박정희.독도를 팔아 먹은 김대중

2009.07.06 20:24

http://www.nakorean.com/bbs/list.html?table=bbs_1&idxno=72381&total=33522&page=1&sc_area=&sc_word=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아나운서의 뉴스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도를 지킨 박정희.독도를 팔아 먹은 김대중 [5]

[2009-07-05 09:20:03]

조회 1002 | 찬성 83 | 반대

SBS뉴스입니다.

이승만: 1952.1.18.에 리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선 안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1.29.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며 웃스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정희: 1965.6.22. 소위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또 독도를 거론했습니다.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미 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적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지하라 종용했습 정희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부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 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 전복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수사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노대제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벌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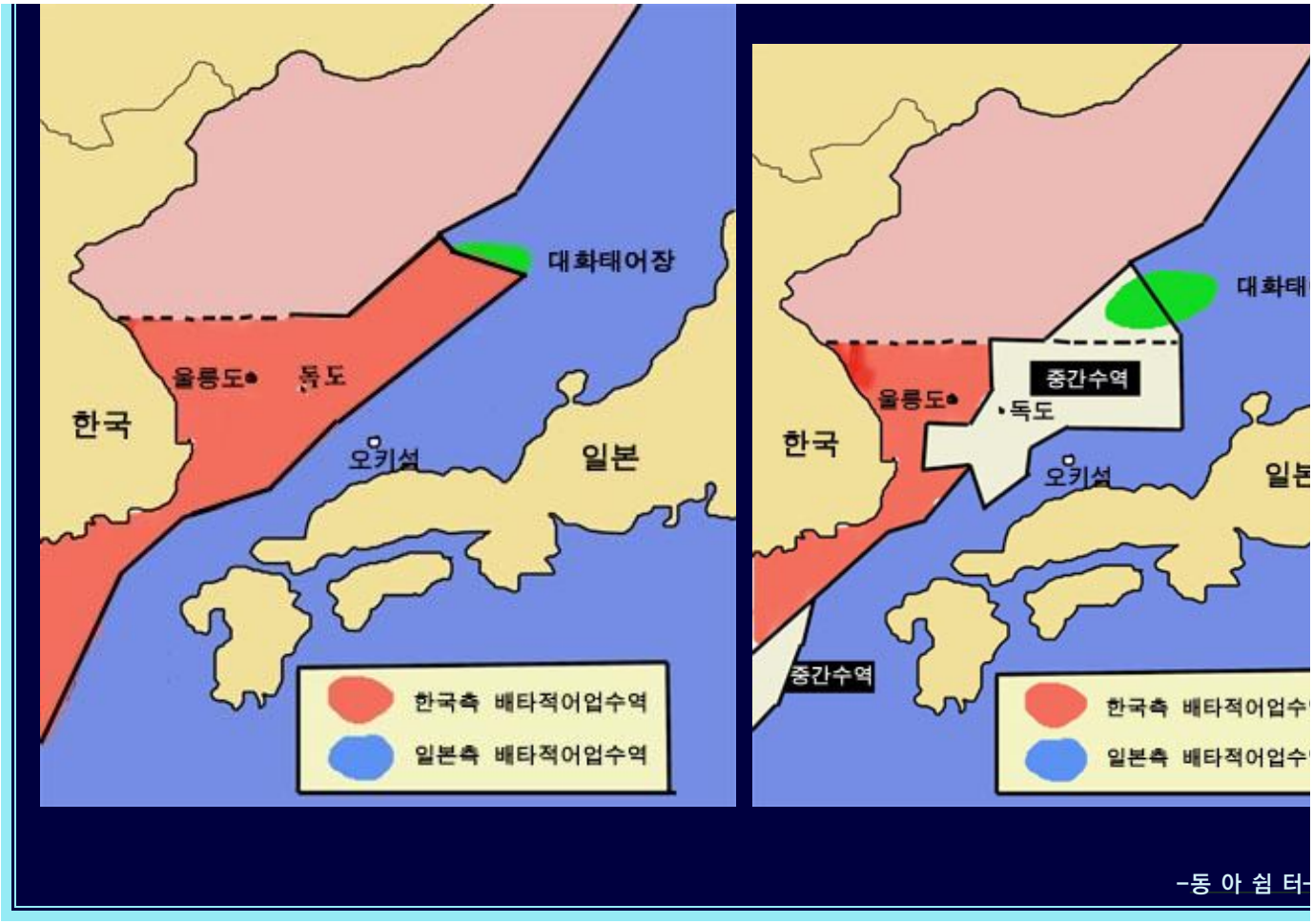
노무현: 그는 여당 부총재를 거쳐 2000.8.7.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 이에 당시 야당 의원들은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 이렇게 화를 낸 바 있었습니다. 반 덕주. 이정빈도 이들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2004.7.21.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케시마 문 해서는 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자리에서 재론할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재론하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일본 지사통신은 7.22일 "일본과 한국의 수상이 점예하게 대립하고 토문제에서 한국대통령이 일본의 견해를 용인?"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무슨 생각 했겠습니 묵한 데가 있다,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안했을까요?

정동영: 1999년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협정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면서 이를 적극 논평을 연일 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덧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1. 박정희대통령 때 한일협정 해역도

2. 김대중 때 한일협정 해역도



이몸이 죽어 한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 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꽃이 피는건 이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라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랄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꽃으로 피었네. 이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된다. 눈물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TAG 박정희와 독도 독도를 판 김대중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댓글쓰기 [5]

best

공감 14

독도를 지키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그립습니다.그때는 철이 없어 그의 위대함을 몰랐고
그저 방앗간 참새마냥 재잘 거리고 지낸 젊은날이 었지요.

그러나 철이 들어 지난세월 뒤돌아 보니 친일 행각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내 줌으로 국민의 밥상을 지키지 못한 중죄인 김대중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배타적 수역이 너무 좁아 고기 잡을 곳이 없다는 어부들의 하소연으로
멀쩡한 배를 부수어 보상한 일이 김대중시절에 있었지요
생각하면 이빨 갈리는 짓을 김대중이 한 것입니다.

김대중의 바다 팔아먹은 죄과는 그가 죽어서도 국민의 입에 회자 될 것입니다.
2009.07.05 09:48:38

공감 신고

xxx

공감 1

박근혜는 도요다.김을 절대로 비난.비판하지 않고 한적도 없는대
친박 인사가 이런 도요다의 과거 매국적행적을 퍼나르기 한다면
주군의 역린을 건드리는 행사가 아닌가?

퍼온 글이라 그냥 물어 함 보는거여...

2009.07.05 09:41:30

공감 신고

공감 14

독도를 지키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그립습니다.그때는 철이 없어 그의 위대함을 몰랐고
그저 방앗간 참새마냥 재잘 거리고 지낸 젊은날이 었지요.

그러나 철이 들어 지난세월 뒤돌아 보니 친일 행각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내 줌으로 국민의 밥상을 지키지 못한 중죄인 김대중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배타적 수역이 너무 좁아 고기 잡을 곳이 없다는 어부들의 하소연으로
멀쩡한 배를 부수어 보상한 일이 김대중시절에 있었지요
생각하면 이빨 갈리는 짓을 김대중이 한 것입니다.

김대중의 바다 팔아먹은 죄과는 그가 죽어서도 국민의 입에 회자 될 것입니다.

2009.07.05 09:48:38

공감 신고

공감 10

xxx씨~
주군의 역린을 건드린다?? 言中有骨입니까?
김대중을 나무라는 글을 펌했다고요?
그래서 박근혜를 좌파로 몰아 가려구요?
박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은 자유민주주의 지킴이입니다.

아래부분 무궁화 가사는 내가 편집해서 끼워 넣은 것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언처럼 들리는 저 무궁화의 노래 가사가
나의 심금을 울려서 동지님들깨 소개하는 것입니다.
벌써 30년 전의 가사가 오늘을 예고한듯 보이네요

//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포기하면 안된다. 눈물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

2009.07.05 09:55:17

공감 신고

공감 2

도요타 다이쥬.

부관참시당해도 모자랄 작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작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걸까요.

2009.07.06 09:07:01

공감 신고

[chosun]

DMSO(Dimethyl Sulfoxide)와 DMS(Dimethyl Sulfide)

槪　　要

DMSO (Dimethyl Sulfoxide)

- 디메틸설폭시드는(DMSO)는 많은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을 잘 녹일수 있는 非프로톤계의 극성용제 (Aprotic polar solvent)로서, 안정성이 높은 용제이다.

- DMSO의 화학구조

  CH3 □ S - CH3
  ‖
  O

  DMS의 화학구조

  CH3 □ S - CH3

- DMSO의 用度例

  ⑴ 박리제□세정제 : 높은 용해력과 침투 특성을 활용하여 박리제□세정제로서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① 전자부품세정제

  ② 박리제 (Remover)

  ③ 플랜트 세정제

  ④ 자동차 부품 성형 이형제

  ⑵ 유기 합성 용제 : 의약□농약 등의 반응 용매 또는 원료로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① 의약□농약의 합성용제

  ② 식품첨가물 합성용제

  ⑶ 기타의 용도 : 우수한 용해력과 높은 안정성을 활용하여 화학공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① 중합방사용제

  ② 추출용제

  ③ 염료□안료 용해제

- DMSO의 회수 : 고품질의 DMSO를 안정공급함과 함께 고객의 요망에 대응해 사용이 끝난 DMSO를 회수□정제(精製)해서 再자원화하여 자연보호와 환경대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DMS의 특성 : DMS는 의약이나 농약 등의 각종 유기유황화합물의 출발원료 또는 부취제 (付臭劑 ; Odorant) 등으로서 쓰이고 있다.

CATALOGUE

● 一般 Grade

QUALITY SPECIFICATIONS

DMSO (DIMETHYL SULFOXIDE)

Molecular Weight : 78.13

O　　CAS NO. : 67-68-5

‖　　EINECS : 200-664-3

CH3 □ S □ CH3　　TSCA : Registered

項 目	規 格
외 관	무색투명
비 중 (25℃)	1.0930이상
수 분 (KF)	0.1%이하

순 도 (GC area %)	99.9%이상
환원성 물질 (포말 알데히드 환산으로)	0.01%이하
산 도	6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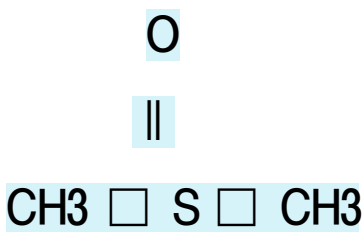
Toray Fine Chemical은 분석표를 첨부하여 납입하는 상기의 제품이 귀사가 지정하는 납입 시점에 따라서 상기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귀사가 의도하는 용도에의 적합성을 포함해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일절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Low Metal Grade

QUALITY SPECIFICATIONS

DMSO (DIMETHYL SULFOXIDE)

Molecular Weight : 78.13



CAS NO. : 67-68-5

EINECS : 200-664-3

TSCA : Registered

項 目	規 格
외 관	무색투명
비 중 (25℃)	1.093이상
수 분 (KF)	0.1%이하
순 도 (GC area %)	99.9%이상
환원성 물질 (포말 알데히드 환산으로)	0.01%이하
산 도	6 ~ 8
Fe	50ppb이하
Na	50ppb이하

※ 他 금속원소에 관하여는 별도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Toray Fine Chemical은 분석표를 첨부하여 납입하는 상기의 제품이 귀사가 지정하는 납입 시점에 따라서 상기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귀사가 의도하는 용도에의 적합성을 포함해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일절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S

QUALITY SPECIFICATIONS

DMS (DIMETHYL SULFIDE)

Molecular Weight : 62.13

CAS NO. : 75-18-3

EINECS : 200-846-2

CH3 □ S □ CH3

TSCA : Registered

UN NO. : 1164 3/1

項 目	規 格
외 관	무색투명
순 도 (GC area %)	99.9%이상
수 분 (KF)	0.1%이하

Toray Fine Chemical은 분석표를 첨부하여 납입하는 상기의 제품이 귀사가

지정하는 납입 시점에 따라서 상기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귀사가 의도하는 용도에의 적합성을
포함해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일절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SO의 포장

포 장	재 질	수 량
폴리에틸렌 캔	폴리에틸렌	24kg
케미칼 드럼 *1	폴리에틸렌	210kg
링 드럼 *2	스테인레스	210kg
크린 드럼	폴리에틸렌	210kg
1m³ IBC콘테이너	폴리에틸렌	1,000kg
탱크 로리	스테인레스	10,000kg
ISO 콘테이너	스테인레스	20,000kg

* 1 : 내장은 폴리에틸렌, 외장은 철로 되어 있음

* 2 : 빈 용기를 사용 실시하고 있음 (상세한 것은 상담요망)

他 용기는 한 가지로만 사용하고 있음

● DMS의 포장

포 장	재 질	수 량
스테인레스 캔	스테인레스	24kg
철 드럼	철	170kg
탱크 로리	스테인레스	6,000kg

* 용기에 관해서는 한 가지로만 사용하고 있음

****

주 식 회 사 **지 성 무 역**

Homepage : http://www.js-trading.co.kr

E-mail : jst@js-trading.co.kr

Js-trade@hanmail.net

Telephone : (02)558-6888

Facmile : (02)558-6708

Address : Rm No.1108 Sungji-Heights, 702-1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135-280 Kore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108호

****

과소평가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18]

김선종(adada62) [2009-06-20 12:21:27]

조회 741 | 찬성 124 | 반대 4 | 스크랩 0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상전벽해 같이 바꿔놓은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하늘의 축복 이었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시위로 날이 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가난하기로는 아프리가의 빈국들이 무시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 이었다!! 필리핀이 우리에게 잘사는 선진국으로 보였으니 더 이상 말해서 무엇 하랴!!

아무것도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된 뒤에 나라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냐?!” 어찌 재정뿐이랴 일본넘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뒤에 자전거 공장에서 자전거 바퀴인 “림” 조차 만들지 못하던 기술력은 해방 후 16년이 지난 혁명 정부 시절에도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다!!

자전거야 겨우겨우 만들게 되었지만 미군이 월남전에서 M16소총을 쓰기 시작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뒤에도 카빈총의 복제품을 만들려다가 양질의 쇠를 만들 제련기술과 정밀공업의 낙후로 그것마저 실패했었다!! 법정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법전과 미군정 시절의 군정청령 그리고 우리가 제정한 법률이 혼재하며 재판관은 일본어 영어를 두루두루 읽어가

며 판결을 내리던 시절 이었다!!

민주 정부라고 하는 장면 정권은 아무 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무능한 정권이었고 국민들은 이승만의 독재만 없으면 민주주의도 실현되고 배고픔도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가 서서히 현실을 깨달으며 아무런 득도 없는 민주주의 타령을 지긋지긋해 하기 시작했다!! 얻는 것 없는 혼란이 계속되면 민중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혼란이 진정되기를 바라기 시작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혼란 뒤의 정권은 항상 독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도 그랬다!!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가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애국과 애민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성실하고 유능한 독재자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이었다!!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경제에 우선을 두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상존하는 김일성의 남침 위협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힘을 아끼고 그것을 경제 발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 시집을 읽는 소녀야 너의 하얀 손이 나는 밉구나...!!"라는 시를 쓰고 경제와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장발과 통기타를 단속하고 미니스커트에 자를 들이댄 것은 ” 베짱이 노릇은 너의 자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너희들은 개미가 되어주기 바란다!! “는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그런 많은 희생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일구어 냈고 쓰디쓴 희생을 바친 당사자들이 자식들과 함께 그 달콤한 열매를 당대에 맛보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일 협정으로 얻어온 돈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벌어들인 돈 중동에서 벌어들인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달러 등을 거론하며 "당시의 국제 정세로는 최규하가 했어도 일만 불의 소득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글을 올렸다!! 역사나 세계 정세를 보는 그 눈의 협소함과 짧은 식견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대하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은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하다!!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글을 비난하는 것은 정일창이나 이광희 정수현씨 같은 분들이 올리는 글에서 처럼 나름의 논리나 조금은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그저 박정희 대통령을 욕보이고 싶어 하는 글로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5억 달러의 거금을 받아올 때 김종필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짜내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당신은 8천만 달러로 합의해도 일본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고 나는 80억 달러를 가져가도 우리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오오히라를 설득했다!! 그 돈이 포항제철 등의 우리나라 기간 사업에 투자되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의 피해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지 못하여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커지면서 그들의 자손들이나마 배불리 먹고 살빼러다니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분들도 저승에서라도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월남 파병은 우리나라에게는 참으로 호재였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피를 흘리기는 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우리를 적화통일의 마수에서 구해준 미국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던데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참전이었다!! 상존하는 남침의 위협에서 미국의 힘에 기대고 있는 현실과 함께 미국의 신무기를 지원 받으며 군인들은 미군과 같은 액수의 봉급을 받았었다!! 물론 상당부분을 나라에서 떼내어 경제 발전에 쓰기는 했지만 말이다!! 미국이 월남에서 풀어대는 달러는 건설업이나 운수업 등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었고 후일 중동으로 진출한 건설회사나 한진 같은 운수회사가 규모를 키우고 안목을 넓히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인들이 실제로 전투경험을 쌓는 좋은 학습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일파동으로 나라가 휘청일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위기를 바로 그 오일파동으로 돈을 번넘들에게서 돈을 벌어오자는 기발한 생각으로 훌륭하게 돌파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밤에도 횃불을 켜고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서 어떤 미국의 시인은 "세

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알려진 일본인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민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 피땀 어린 돈을 박정희 대통령은 한 푼도 허투르게 쓰지 않았다!! 집무실의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가끔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침략해오는 파리를 향해 파리채를 내려치는 "파리 잡는 대통령!!"이기도 했었다!!

군인정신이 함유된 투철한 애국심과 과감한 행동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잠시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그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그토록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나 중공업육성으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현실에서는 물론 사후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걷다가 먹는 욕이라면 달게 받겠다며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씀까지 하신 분이다!!

누가 했더라도 박정희 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최규하가 했어도 일만 달러의 소득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발상이지만 무척이나 치기어린 말"이 어찌 그리도 쉽게 나오는가?! 그 "좋은 국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은 어찌 모르는가?! 그 국제 환경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오히려 월남전이나 오일파동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후계자를 자임하던 전두환을 비롯한 모든 정권에서 축소되고 폄하되어 왔다!! 그 이유는 별 것이 아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과 그대로 비교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혹은 조금 혹은 많이 끌어내리며 "애써 과소평가하고 불가피 피했던 독재의 폐해만을 부각시키는 데에 힘을 쏟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18]

best

공감 19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결단이 독재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족해야 염치를 알고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일본보다도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던 필리핀은 경제의 쇠퇴와 함께 거꾸로 가고 있지요!! 미국의 통치를 받으며 배운 그들의 민주주의는 가난 속에 정착되기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있는 것도 말아먹은 마르코스의 독재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009.06.20 12:42:21

공감 신고

공감 1

어떻게 불가피했던 독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궁금하다.

2009.06.20 12:26:22

공감 신고

공감 15

일례로 산에 나무 심어 놓은 것 좀 보시요..

정말 수십년 앞을 내다 본 "국가개조사업"의 위대한 창시자라고 할수 밖에 없다..

본문글 강력한 추천!!

2009.06.20 12:39:26

공감 신고

공감 2

가능하면 실명은 삼가 해주세요

좌빨들의 행위는 예측불가 입네다

2009.06.20 12:39:35

공감 신고

공감 13

조왕희씨, 제가 갈쳐드릴가요.

옛날에 보면 무지 가난하고 식구는 엄청 많은 집 잇죠.

그래 가장이 식구들 배 안 곯게 하고 자식들 공부 제대로 시킬라고 하는데,

꼭 못된 것들이 한둘은 잇거든요.

집안 분란 일으키고 공부 대신 돈 삥당쳐서 놀려나 다니고...

그래 가장이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그걸 바로 불가피한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2009.06.20 12:41:00

공감 19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결단이 독재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족해야 염치를 알고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일본보다도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던 필리핀은 경제의 쇠퇴와 함께 거꾸로 가고 있지요!! 미국의 통치를 받으며 배운 그들의 민주주의는 가난 속에 정착되기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있는 것도 말아먹은 마르코스의 독재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009.06.20 12:42:21

공감 신고

공감 9

최문태님!! 통일전망대에 가보면 남북한의 경계는 철조망이 없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곳은 우리나라고 황토 빛의 벌건 곳은 북한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정명숙님!! 이광희 정수현 두 분은 나와 많이도 글을 나누었지요!! 조금은 일리가 있고 조금은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어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답니다!!

박종효님의 쉽고 명료한 풀이에 추천 한 방!! 몰라서 저런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니 눈꼴이 시어서 이겠지요!! ㅎㅎ

2009.06.20 12:49:36

공감 신고

공감 11

김선종님!! 긴 글 잘 읽었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추!!

2009.06.20 13:09:00

공감 신고

공감 8

글 잘 보았습니다.

故,박대통령의 先見之明,

대통령 임기4년으로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기집권,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16년이란 집권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봅니다.

김선종님,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2009.06.20 14:38:15

공감 신고

공감 1

참 노예근성이 가득합니다. 맞아야 정신차린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군요.

2009.06.20 16:51:29

공감 신고

공감 4

김선종님의 독수리 발톱이 화나 단단히 났군요.ㅎ

아직도 한심한 인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종일토록 비님이 오시네요.

나처럼 게으른 사람에겐 뒹굴거릴 핑계로 딱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 즐겁게 지내세요.

2009.06.20 18:06:46

공감 신고

공감 0

짜집기 소설 쓴다고 욕좀 봤겠구나....

2009.06.21 00:06:08

공감 신고

공감 2

김선종님의글 잘읽었습니다 서민들의 보릿고개를 없애기위해 쌀농사양산에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쌀농사연구와병행해서 해마다찾아오는 풍수해막기위해 산에나무심기 나무땔감으로못하게할려고 강원도탄광개발 부엌난방용무연탄으로대체 산악도로 전방군사도로 제주도한라산도로 정치깡패소탕해 국토건설대만들어 활용 산업발전의기반까지 병행운용 말로는 시간부족어찌할꼬싶네요

2009.06.21 02:42:30

공감 신고

공감 1

그런 대단한 분이.... 힘든 대통령직 10년정도만 하시지.... 뭐가 그리 좋아서 몇십년 해처먹으실려고 법을 바꾸고 18년간 집권하시다가 결국엔 종신집권도 못하시고 경제계발 구상을 하고 가족을 돌봐도 모자랄시간에 심수봉 비롯한 여자들 끼고 술잔치벌이다가.... 그것도 일반 민중도아닌 직속부하한테 헤드샷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이제는 딸년이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ㅠㅠ 그나마 집권기간중 집어먹으신 정수장학회, 영남대나 자식들이 싸움하지말고 나라에 바쳤으면 좋겠네....

2009.06.21 05:57:31

공감 신고

공감 0

더 욕만 쳐먹을 사실들만 나열했구먼.

2009.06.21 11:38:35

공감 신고

공감 1

목욕탕가는 사람잡아다가 OOO라고 고문하고 바로 재판해서 사형선거 내리고 몇시간만에 바로 죽였지요(전 세계적으로 찾아볼수 없는 사건임).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OOO라고 잡아가다 고문해서 OOO 만들었지요. 대통령 계속할려고 부정선거 했지요. 연예인 불러다가 술 시중 들게 했지요. 그럼 박근혜님이 정권 잡으면 장동건 불러다가 술 시중들게 하겠네요. 젊은 국인들 월남전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지요. 총칼로 죄없는 수많은 사람 죽였지요. 서거 이후에도 계속 군사독재 시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게 바로 업적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업적은 이럴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2009.06.21 13:08:13

공감 신고

공감 1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의 폐해를 10년 겪고 나니까,, 성진씨 말대로 박정희가 고문하고 재판해서 그들 좌파 정권의 득세를 몇 년 늦춰 주었던 것이 얼마나 잘 한 일이었는지 몰라,,, 1970년대에 김대중이 정권 잡았다면, 벌써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흡수되어부렀겠지,

2009.06.21 21:17:24

공감 신고

공감 1

박정희가 술 시중을 들게 했더라도 그는 국민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어주었어,, 그런데 떼중씨와 무횬씨도 국가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면 그들이 술 시중 들게 했어도 용서할거야,, 커녕, 그들은 국민들을 김정일의 술 시중 들게 만들었어

2009.06.21 21:20:48

공감 신고

공감 1

조왕희, 박영도, 김홍석, 김성진 님은

장하준 교수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좀 읽어보시길 바래. 박정희 대통령이 구사하신 그 방법이 바로 선진국 혹은 부자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독재라고? 장기집권이라고?

우주삼라만상의 기본 진리 중에 "역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실제적인 변화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이상의 강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박정희가 없었다면(혹은 박정희에 의해 가해진 것 이상의 강한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이는 진리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정신작용의 산물이다.

2009.06.21 21:41:05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거인 박정희의 지독한 사랑 [20]

김상태(klg10) [2009-06-21 13:10:48] 조회 1618 | 찬성 176 | 반대 1 | 스크랩 0

1970년 11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색다른 대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전국농어민 소득증대 경진대회'.
대통령 박정희까지 참석한 객석엔 3천명이 넘는 각계대표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가 양복정장을 하고 있는 앞자리에, 유독 점퍼와, 스웨트차림으로 앉아있는 시골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그농부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원고를 만지작거리며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자신의 성공사례를 발표할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작정한듯 , 줄곳 만지작거리던 원고를 자리에 두고 연단으로 올라갔다. 자신의 성공사례를 발표해야하는 그 원고는 지역공무원
들이 며칠을 밤세워 써준 원고였고, 그내용은 사실과 다른 과장과 부풀림이 많았던 것이다.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에서 온 '하사용' 입니다"

그는 공무원이 대신 써준 원고를 버리고, 꾸밈없이 자신의 가난탈출기와 자신만의 농법을 어눌하지만 진지하게 소개하였다.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이야기할때는 설움이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지만, 이농부의 진솔한 체험사례에 객석에선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 2층특별석에서
내려와 그 농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증인입니다."

그농부에게 산업훈장을 걸어준 박정희 대통령은 연단으로 올라가, 비서가 준비해준 원고를 옆으로 밀치며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치사문은 인쇄된 것이니 가지고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민 하사용씨의 성공사례가 너무 감명이 깊어, 오늘은 본인의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사용씨는 우리 농민들의 위대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을 '근면과 자조와 협동'으로 해결해 냈습니다.
우리농촌의 가난도 하사용씨와 같은 정신자세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한 농민의 원고 없는 진솔한 성공사례발표에, 박정희 대통령도 즉흥연설로 화답하였고,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고민해오던 5천년 우리농촌의 빈곤을 해결할수 있는 자신감과 방법을, 한 농부의 성공사례에서 운명처럼 발견한 것이었다.

그시절 ... 한국의 농촌을 아는가?
당시 남한의 농가는 250만 가구였다.
마을의 80%는 초가지붕이었고, 80%가 등잔불이었다.
수도는 고사하고 펌프도 없어, 두레박으로 퍼올린 우물물에 의존했고, 그나마 비가오면 빗물에 뿌옇게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때였다. 목이마른 어린아이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우물에 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북한이 천리마운동으로 '이밥에 고기국' 타령을 하고 있을때, 우리는 제사상에 올릴 달걀 두어 개를 구하러 온 동네를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척박하고 고단한 현실이었다.
북한이 '천삽뜨고 허리펴기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을때, 남한의 농촌은 그때까지 수백년 이어온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외신은 한국 농민들을 가리켜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지게를 지고 논두렁을 기어다니는 동물」로 묘사했다. 실제 그대로였다.
70년대 한국 농촌은, 몇백년전 조선시대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지방고을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촌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농촌의 풍경이었다.

5천년동안 숙명처럼, 등짝에 가난이란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국의 농촌을, 기적처럼 변모시킨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이처럼 한 농부의 '소득증대 성공사례발표'에서 점화가 되었다.
71년 대통령의 기치아래 마침내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점화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1만6천개의 마을에 300여 포의 시멘트를 무조건 나누어 주었다. 마을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외에 어떤 지침도 조건도 없었다. 의외로 절반이 넘는 마을에서, 정부에서 준 시멘트로 우물가도 고치고, 빨래터도 바꾸며, 서서히 자발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다음해에 시멘트 500포와 철근 1t씩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마을주민의 참여도와 의욕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분류를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자연스레 이웃마을과 경쟁이 되자, 정부지원을 더 받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하였다. 이장과 면장과 조합장등 지역유지들이 발벗고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5천년동안 자물쇠에 꽁꽁 잠겨져있던 농촌의 분위기가, 점점 생동감으로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지게지고 겨우 다니던 농로는 경운기가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비가오면 자전거도 못끌고 나서던 마을앞 신작로는 버스가 들어올만큼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을길을 넓히기위해 땅 지주들은 기꺼이 자기땅을 희사하고, 주민들은 기꺼이 삽과 괭이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2년에 한번씩, 동네 품앗이로 초가지붕 이엉질을했던 집들은 하나둘씩 알록달록 스레트와, 기와지붕으로 바뀌면서 농촌은 점점 흥이나고 신이났다. '지붕개량'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새벽이면 수탉이 울기도전에 마을회관에서 '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라는 노래가 확성기를 타고 온마을의 기상나팔역할을 하였다. '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라는 새마을 노래는 마침내 수천년을 잠자고 있던 민초들의 어두운 의식을 일깨웠고, ' 순종과 억압 '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던 농촌이, ' 자율과 자조 '라는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민초들의 신바람은,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뭉쳐졌다.
청년들은 4H를 조직하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밤새워 토론하고 동네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구상했다. 어른도 청년도, 그리고 부녀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마을회관은 자연스레 '민주주의 토론'의 실천도량이 되었다. '마을 민주주의'가 실천되면서 수천년 전통처럼 내려오던 가부장적 농촌의 모습도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빨래터, 놀이터, 우물개선, 변소개량등 생활개선에 중점이 맞춰지자 마침내 부녀자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남녀평등의 바탕위에 민주적인 역할분담을 인정하게
되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에게도 한참 뒤지고 있던 남한의 경제력은 75년을 기점으로 반전에 성공하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이 점점 탄력이 붙으면서, 60년대 수공업은 경공업중심으로 넘어가고, 마침내 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꿈에 그리던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의 틀을 바꿈으로서 국가백년대계의 경제플랜을 가동한다. 수출은 꿈도꾸지 못하던 시절에서, 불과 15년만에 수출100억불 달성했다.
그게 77년이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30년 또는 반세기만에 이루어냈다고 극찬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강의 기적은 오로지 박정희 시대가 15년만에 이루어낸 기적인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 기적의, 중추이자 모태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던 것이다.

공까지,
'우리도 할수있다' '잘살아 보자' 는 한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때는 정말 신바람 나게 일했다.

신바람 정신을 일깨워서,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만든 그 지도력의 원천이 무엇일까?

별이 새겨진 제복에 짧은 지휘봉과
마인가?
힘없고 나약한 민초들에게 철권통치를 통해 억압과 굴종을 강요한 리더쉽인가?
아직도 인간박정희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부질없고 부질없다.

그것은 소박하고 서민적인 리더쉽이자, 부드러우면서 순수한 심성이 발휘한 지도력이었다.
우리 민족성과 가장 가깝고 보편적인
국인....
진흙길
과 가시밭길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선각자였다. 민초들과 함께 막걸리를 주고받으며, 헤진 양말을 기워서 신었으며, 장마가 지면 수해를 걱정하고, 가뭄이들면 농사를 걱정하는 순수농심으로 정치를 했다.
오랫동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발사는 박대통령의 낡은 셔츠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커진 낡은 가죽혁대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박정희는 그런 지도자였다.

새마을 운동의 중심에 서있었던 핵심인사는 이런 박정희대통령을 보
사랑' 이라는 표현을 썼다.
혼돈의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는, 일념과 신념이 없었다면, 그가 목숨을 걸고 한강다리를 넘을수 있었을까? 수백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혁명으로 최고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구중궁궐 에 뭍혀, 호가호위했다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을까?
지도자의 결단과 소신은, 반드시 올바른 신념이 있어야 성공을 담보하는 법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리콴유 싱가폴수상은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중국의 덩 샤오핑,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싶다고 회고하였다.
리콴유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덩 샤오평 역시 "나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우리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자"며,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을 한국으로 새마을 연수를 보낼 정도였다.
세계의 지식인들과 경제학자들은
바로 '박정희모델' 을 제시하였다.

몇년전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이 중국의 덩 샤오핑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바로 그 덩샤오핑이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대통령을 꼽았다는 걸 몰랐을까?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대통령.. .
자신의 전부를 민족의 재단에 바친지 30년만에,우여곡절이 많고 많았던 '박정희 기념관' 이 이

제 건립될 모양이다. 거인 박정희의, 업적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감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박정희시대를 제대로 알리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

박근혜가 단국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의 한 귀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맺음을 대신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거나 새로 탄생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5개국입니다.
그러면 이 85개국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쟁까지 겪고, 나라가 분단까지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취직 걱정을 해야 하고, 좌절을 겪어야만 합니까?
문제는 딱 하나, 결국 국가 리더
국가의 리더십이 이런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풍운-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20]

best

공감 23

(김선종님 글을 댓글로 가름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결단이

독재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족해야 염치를 알고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일본보다도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던 필리핀은 경제의 쇠퇴와 함께 거꾸로 가고 있지요!!

미국의 통치를 받으며 배운 그들의 민주주의는

가난 속에 정착되기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2009.06.21 13:19:11

공감 신고

공감 23

(김선종님 글을 댓글로 가름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결단이
독재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족해야 염치를 알고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일본보다도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던 필리핀은 경제의 쇠퇴와 함께 거꾸로 가고 있지요!!

미국의 통치를 받으며 배운 그들의 민주주의는
가난 속에 정착되기에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2009.06.21 13:19:11

공감 신고

공감 13

사람이 먹고 살만 해지면 곧잘 어려웠던 때를 잊고 사는게 인지상정이라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구가하며 살기위해선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피와 눈물없이는 결코 불가능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고 가꾸던 자의 수고로움은 내 알바 아니고 난 지금의 풍요로운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것으로 족하다..그게 작금의 세태인것 같아 인간적인 비애감이 듭니다

2009.06.21 13:39:48

공감 신고

공감 10

노무현이는 중국에가 모택동도 존경한다고 했다. 모택동 군대 쳐들어와 남북통일이 무산됐는데 노무현이는 모택동을 존경한다했을때 전국민은 엄청난충격을 받았다.

2009.06.21 14:29:11

공감 신고

공감 8

글 잘 읽엇읍니다.

매주마다 근면자조협동 환경대청소 등등 왼 가슴에 리본달고 등교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좋은 글 잘 읽엇읍니다.

최 첨단시대가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극심하고 치열한 국제적경쟁의 글로벌시대 임에도 국민을 통합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국가적 비젼,모토하나 정립못 한 채 재임 2년이 다되가는 지금의 정권, 내우외환을 자초하는 대한만국의 정치실종, ..

온고이지신하는 실용정치가 필요 합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요 ―.

2009.06.21 14:59:54

공감 신고

공감 9

작년 11월 박대통령 탄신기념일에 즈음해서 쓴글이었는데..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된 기념관을 반드시 건립해야겠다는 각오로 글을 올립니다.
김윤숙님 글이나, 김선종님 글 너무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백민현님 .. 옛말에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했는데,, 어째 의식이 넘치는 요즘 예절은 땅으로 떨어져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는 법이지요.

2009.06.21 15:27:52

공감 신고

공감 13

이성근님,, 노무현이 이야기야 해서 무엇허겠습니까?
좌, 우를 떠나 그나라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온몸을 바치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의 립서비스정도로 봐주지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박정희는 도저히 어찌해볼수없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국민의 눈높이는 박정희대통령수준에 마추어져 있는데, 박정희를 도저히 이길수없으니 그저 교묘히 폄훼할수 밖에요. 김영삼,김대중,노무현뿐아니라 그이전 전두환도 노태우도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린 장본인들입니다.
2009.06.21 15:37:08

공감 신고

공감 2

김종득님..근면 자조 협동 리본,,ㅎㅎ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요.
휴일 잘 보내시고 제가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시죠?
2009.06.21 15:40:24

공감 신고

공감 12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사랑은 접할 때마다 감동을 자아낸다.
올바른 신념이 없이는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가 더욱 부각되고
강조되는 요즘이다.

좋은 글 준비하신 김상태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제명을 "거인 박정희의 지독한 국민 사랑"으로 하면 더욱 내용에 부합되리라
생각합니다.
2009.06.21 15:44:25

공감 신고

공감 9

너무도 자상하게말씀하신글 감사합니다 가슴이설레입니다 박정희대통령님의업적이야말로 하루종일해도 다못할것같습니다 박대통령님 아까운서거후 들어선전두환쿠데타정권독재때문에 우리의위대한

지도자의업적이 많이희석이되어 젊은사람들에게 독재자로만인식되게된게 너무안타깝습니다
2009.06.21 15:51:30

공감 신고

공감 8
글을 읽으니 그시절이 새록새록 어제일 같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리산 자락 가난하고 척박한 시골동네에도 시멘트가 배정됐지요
사실 시멘트를 마을사람들은 처음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동네 어른들이 합심하여 길을 넓히는데 사용하여 산골 동네에 자동차도
들어올수 있을정도로 도로가 확장되었는데 도로옆 지주들은 아까운 땅을
기께히 제공하기도 했었지요.

다시 추가로 배정된 세면트로 도랑물을 식수로 쓰던 동네에 처음으로
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깊은 산 속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을 먹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집집마다 분배하여 장독대도 부엌도 새롭게 고쳤던 그집에 아직도
그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2009.06.21 15:52:05

공감 신고

공감 9
구심점이 없고 비젼이 안 보이는 국가! 리더쉽이 결여된 국가!
희망을 상실한 국민! 분열만 초래하는 국가!
마치 돛대 꺾여 향방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못먹고 못 살아도 희망을 보여주며 이끌어 주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은 용기내어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진자의 여유로움은 흥청망청으로 소일하고...
없는 자는 행여나 내일은 기적을 바라며 살아 갑니다.

이거다 저거다 구분이 확실하고 흐리멍텅 하지 않는 확고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2009.06.21 15:57:47

공감 신고

공감 6

심철주님,, 휴일인데도 토론방에서 뵙는군요.

사실 이글의 원제목은 '거인박정희의 지독한 국민사랑'으로 썼던 글입니다.

김민아님,김현석님,이종만님..

저처럼,,모두 비슷한 세대인가 봅니다.

그옛날 새마을운동의 기억을 새록새록 더듬을수록 그리워지는군요.

지금생각해보면 불편하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때는 희망이있고 자긍심이있었죠.

동네청년,노인,부녀자 할것없이 정말 신바람나게 일했고, 변해가는 마을을 보며 정말

뿌듯해 했었지요. 저는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2009.06.21 18:31:00

공감 신고

공감 2

역시 우리 김상태님은 품격높은 최고의 박파 논객이십니다..

한 편의 파노라마같은 주옥같은 문장..*

괜시리 정론에 사족을 다는게 불필요할것 같아 추천만 힘차게 눌러 드립니다..

강추!!!

2009.06.21 20:49:11

공감 신고

공감 1

내가박파를고집할수있고 자랑스러움을느낄있는것은 여기에계신훌륭한논객님들덕분이다

2009.06.22 03:53:38

공감 신고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9.06.22 11:35:32

공감 2

전문학님, 정의의 애국용사님 과분한 말씀에 몸둘바를,,
언제나 토론방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전문학님의 글도 잘 읽고있습니다.

박수진님,, 박정희 가문의 최고의 DNA를 이어받은 혈육이자 박정희 육영수정신의
계승자는 역시 박근혜겠지요. 대표님을 대하면 두분의 정신과 두분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듯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온유하고, 온유하면서도
국가관이 철두 철미한 전형적 외유내강이면서도, 내강외유형이기도 하구요.
박파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떳떳할수 있는 힘은 대표님과 선대어른들의 반듯한
나라사랑 정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2009.06.22 11:38:12

공감 신고

공감 0

이런 글이 베스트 글이라니...조선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ㅋㅋㅋ
이 글 이외에 베스트 글이랍시고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말 실소를 금치못한다....ㅋㅋㅋ
논리도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조차 확인 안된 사실들을 자기에게 달면 삼켜 확장시키고 쓰면 뱉어 지지 밟는 모습은 정말 우스운 사실이다...

한가지 다행인점은 대개 노인들이라는것.....젊은 사람들은 조, 중, 동을 최소한 돈내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이다....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이 배우다보니 편향적으로 내보내는 쏘스만 보구 판단하지 않는 사리분별력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사익보다 공익과 대중을 위할 줄 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기반이라는 점이다...

2009.06.22 13:27:37

공감 신고

공감 0

도데체 박통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물론 실례겠지만... 분명 30대 40대

되는 아저씨들일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는 영웅시되고있지만 훗날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바꿀것이다. 시대를 잘만나 영웅된 '더러운 독재자'라고. 아 그놈 영구 집권 끝까지 막으려고 희생됐던 사람이 몇인가. 그들의 죽음은 누가 보상할것인가.

2009.06.22 14:56:55

공감 신고

공감 1

마을들 마다 경쟁이 붙고 지주는 스스로 마을길이 될 땅을 기부하고....(어릴적 시골에서 본모습입니다) 얼마전 원룸으로 변해가는 당진 어느 시골길 입구에 누군가 놓아둔 커다란돌에 5톤이상은 못단니다는 경고와 한참 건축중이 마을 이장과 다툼. 박정희대통령 이후 한탕주의 지도자들의 경제발전에 맞춘 지금의 모습입니다.

2009.06.22 15:24:42

공감 신고

공감 0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에서 민초들이 굶주리지 않구 살았던 때가 있었던겨? 박정희 시절부터국민을 위허는 국가였지 사실 그 이전의 이땅의 국가들은 민초들의 삶을 돌보지 못했구 단지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겼다구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겨! 얼빵헌 인사들이 박정희를 독재자라 허지만 당시 국민의 과반 이상이 문맹이었던 시절에 박정희 말구 정치인 누가 교육과 경제 부흥에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이나 있었던겨? 만일 XX가 그 당시 대통령 이었다면 경부 고속도로는 훨씬 뒤에 건설 됐을거구 우리 경제두 필립핀수준을 넘기 어려웠을겨!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초석인겨! 초석을 흔들구 부실화 허면 나라가 흔들리구 부실해지는게 이치인겨!

2009.06.22 16:38:48

공감 신고

공감 0

어느분 말씀처럼 그 당시 협소헌 마을길을 넓힐때 면서기들이 부재 지주들을 찾아 전국 각지를 몇번이구 찾아 다녀 동의서를 받아 도로를 냈는디 당시 쪼끔 앞을 내다보는 군이나 면에서는 토지등기까지 정리를 했었구 개념이 없는 군에선 그냥 도로를 만들어 놨으니 됐다구 생각 했을겨유!세월이 흘려 동의한 지주들은 대부분이 사망했구 상속자들이 이를 인정허기에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게지유..당시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들을 많이 했지만 깔끔허게 뒷처리를 못혀서 지금에 마을

길이 내땅이라구 길막는 일이 생기는거지유! 당시 내무부에서두 이런 문제를 생각 못했을겨유!

2009.06.22 16:57:22

[chosun]

[펌] 매실액기스를 만드는 법 .

2009.06.20 14:40

매실액기스를 만드는 법 .

지난 여름에 제가 직접 매실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매실액기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것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였죠.^^;;

매실액기스를 몇 번 담가보긴 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손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일인줄은 몰랐습니다. 액기스를 만들고 나온 매실로 장아찌를 만들고, 그리고 남은 매실로 쨈을 만들고.....그리고 나온 씨로는 베개를 만드는 과정까지....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것이 매실인만큼 손도 엄청 가는 것이 매실이더군요.

▣ 매실액기스 만들기

사진에 보여지는 매실의 양은 총 15kg입니다. 설탕과 1 : 1로 맞추어야 하니까 설탕 15kg까지 하면 항아리는 최소한 30리터가 넘어야겠죠.

천연유약을 발라만든 항아리예요.
용량은 40ℓ 짜리구요.
항아리는 씻어서 안까지 바싹 말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씻어서 물기를 빼고 깨끗이 말려둡니다.
적은 양의 매실액기스를 만들 때 보통 유리병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항아리를 구입해서 쓰시는게 발효도 잘 되고, 나중에 먹어보면 액기스 맛도 한결 좋아요.

한살림에서 매실

을 샀어요. 6월 22일에

양은 15kg.

우선은 매실에 상처가 있나 없나 잘 살펴서 상처가 있는 매실은 골라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바닥에 떨어지거나 부딪혀서 금이라도 가 있는 것은 액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르거나 상하지는 않구요. 그냥 단단한 매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상처가 난 매실을 다 골라낸 다음, 깨끗이 씻었어요.

이제는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잘 말려야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액기스를 담게 되면 곰팡이가 날 수도 있구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물기는 잘 말려야 됩니다.

바닥에 무명천을 깔고 매실을 말리는 모습이예요.

매실에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이번에는 분무통에 소주를 넣어서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냥 씻어 말려서 액기스를 담가도 되지만 이렇게 소주를 한 번 뿌려서 말린 다음 액기스를 만들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발효가 잘 된다고 하네요.

매실을 뒤적여가며 고루 소주를 뿌린다음 역시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설탕은 마트에서 황설탕으로 15kg을 샀어요.

흑설탕을 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서재골농원의 주인장님께서 '흑설탕은 향이 강해서 매실 고유의 향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우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황설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kg짜리를 15봉지 샀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실담그기에 들어갑니다.
항아리 속에서 바닥을 찍은 사진입니다.
매실을 적당히 넣고, 설탕을 한 번 뿌려주고, 매실을 적당히 넣고 설탕을 한 번 뿌려주고.....를 반복합니다.

매실과 설탕을 번갈아 넣었습니다.
거의 항아리가 꽉 찰만큼의 양이 되었죠?
이 상태로 그냥 뚜껑을 닫으면 안됩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매실이 보이면 안되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설탕을 쏟아부어서 왼쪽 사진처럼 설탕으로 덮개를 만들어 주세요. 매실이 위로 떠오르면 곰팡이가 나거나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매실과 설탕을 1 : 1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옆의 사진처럼 매실과 설탕을 채우는 과정에 설탕은 매실의 1/2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설탕이 15봉지였는데, 7봉지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께요.

마지막으로 설탕덮개까지 만들면 끝!!입니다.
면보자기나 비닐등으로 덮어서 항아리 뚜껑을 덮어주면 끝!!!!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면 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항아리를 흔들어 버리면 설탕이 아래로

아래로.....

그러면 매실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안되겠죠?

조심해서 옮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리배치를 완전히 끝낸 후에 매실과 설탕을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 잠깐!!!

왼쪽 사진에 까맣게 매실 꼭지가 보이시죠?

꼭지는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떨어져요.

지난 매실액기스 담그는 방법을 정리할 때는 매실액기스를 담그기 전에 이쑤시개 등으로 살짝 건드려 떼어내고 액기스를 담그든가, 아니면 나중에 액기스를 거를 때 면보자기 등으로 받쳐서 거르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 꼭지가 단순히 지저분해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액기스를 담그기 전에 일일이 꼭지는 따서 버리고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액기스의 맛도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잼을 만들 때도 쓴맛이 없는 맛있는 잼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매실액기스 만들기-- 사진 ②

매실과 설탕을 넣고 봉한뒤 서늘한 곳에 보관한지가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맨 위에 설탕을 가득 부어 덮개를 만들어 두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열어보면 왼쪽 사진처럼 변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탕을 매실의 1/2만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남은 설탕을 조금씩 넣을겁니다.

설탕을 한봉지(1kg)을 뜯어서 매실이 보이는 자리에 고루 뿌려서 다시 덮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매실이 위로 떠오르지 않겠죠?

설탕을 뿌려주면 다시 왼쪽의 사진처럼 설탕덮개가 만들어져서 매실이 숨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한 3일정도 두었다가 다시 열어보면 또 위의 사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일 간격으로 항아리를 열어서 남은 설탕을 하나씩 꺼내서 계속 설탕덮개를 만들어주는거죠. 남은 설탕이 다 없어질 때까지요.

저는 설탕이 8개 남아 있었으니까 2~3일 간격으로 8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덮개를 만들어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뚜껑을 연 모습입니다. 설탕이 완전히 다 녹은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녹다 남은 설탕이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넣어서 덮개를 만들어줄 설탕이 없으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녹여줘야 해요.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잘 말리구요.

항아리 바닥까지 손을 넣어 굳어 있는 설탕을 긁어서 잘 흔들어 녹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까지 잘 저어준 다음 다시 일주일.

한 번 더 저어주려고 손을 넣었더니 설탕이 완전히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일주일을 더 발효시켰어요.

매실액기스 담그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 설탕과 매실을 켜켜이 넣어준다음 밀봉해서 1~2개월정도 발효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담글 때는 수시로 뚜껑을 열고 설탕을 더 보충해주고, 저어주고.....

제 경험으로는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설탕도 처음에 바로 1 : 1 동량으로 다 넣어주는 것보다 매실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설탕뚜껑을 만들어 덮어주니까 따로 접시나 그릇 등으로 눌러주지 않아도 매실이 떠오를 걱정하지 않아서 좋구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의 양도 훨씬 적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완성된 매실액기스를 걸러내는 과정, 잼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실액기스 만들기-- 사진 ③

두달여 가까이 정성을 들인 매실액기스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실을 건져 내고, 잘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남은 매실과 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매실액기스 거르기

완성된 매실액기스의 모습입니다.

자잘하게 거품이 일어있고 매실도 적당히 쪼글쪼글해졌죠?

항아리에서 건져낸 매실들입니다.
건져낸 매실을 바로 먹어도 아주 맛나요^^
바구니 밑에다 커다란 그릇을 놓고 그 위에 바구니를 걸친 다음 매실을 건져 담아야 남은 액기스가 바닥에 흐르지 않고 체에 받쳐집니다.

매실을 건져내고, 이젠 매실액기스만 항아리에 남았군요. 작은 병에 옮겨 담아서 냉장보관을 할 공간이 적당하지 않다면 그냥 항아리에서 장기간 숙성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매실액기스는 완성된 후 적어도 2~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설탕의 해가 중화되고 오롯이 좋은 성분만 남는다고 하니까 오래 숙성시킬수록 더욱 좋은 매실액기스가 된답니다.
하지만 거의가 아파트 생활인 주거환경이라 해가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먹을양만큼만 만들었다면 적당한 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고 오래 오래 두고 드시면 됩니다.

매실액기스를 체를 받쳐서 걸러서 유리병에 담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유리병이 대략 6.5ℓ 정도인데요. 저 병으로 4개가 조

금 안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매실꼭지를 따 주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로 걸러서 담아야 합니다.

매실원액 만들기

1. 매실을 손으로 문질러 씻기보다는 채반에 담아 흐르는 물에 씻는다.

2. 물기를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어시간 정도 둔다.

3. 냉동실에 넣어 3-4일간 얼린다. 이렇게 얼리는 이유는...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매실속에 있는 수분도 얼면 부피가 늘어나겠지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세포막이
파괴되어 원액의 추출이 훨씬 잘 됩니다. 속까지 꽁꽁 얼게 3-4일간 두시는 것이 좋다.
(적당한 양일때는 이방법도 좋을듯 싶네요)

4. 용기로는 유리나 사기, 또는 옹기(항아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옹기항아리이지만
권장할 만한 것은 과실주용으로 나오는 유리항아리. 이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 가능한 한
플라스틱이나 스텐레스 재질의 통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여기에 얼린 매실을 한겹 깔고 이것이 덮일 정도로 설탕을 넣은 다음 다시 매실 한겹... 이런 식으로
반복해 준다. 설탕은 흰설탕을 쓰시는 것이 좋다.
(흑설탕,황설탕은 설탕자체에 향이 있기때문에 매실의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흰설탕으로 해보세요)
(설탕량은 동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내요.아님 7:3정도 해도 된답니다)

5. 끝까지 차면 입구를 봉하고 그늘지고 선선한 곳에 놓아둔다. 빨리 드시려면 그대로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되고, 일반냉장고나 김치냉장고등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것이 더 좋다.아무리 설탕에 절였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아시다시피 저온숙성이 여러모로 더 낫기 때문이다.
유리항아리인 경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봉인절차가 필요없지만 항아리의 경우는 입구를 비닐이나 랩으로 덮은 후 고무줄로 동여매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틈새를 촛농등으로 매우는 방법도 있다.

6. 며칠후면 원액이 서서히 빠져나와 갈색의 액체가 바닥에 고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액에 묻어 덜 녹은 설탕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 따라서 며칠에 한번 정도 뒤집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리항아리가 가장 편리하다는 거죠.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이 있으니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7. 매실이 쪼글쪼글하게 되어 떠오르면 거의 추출이 다 된 것. 상온에서는 빠르면 40-50 일 정도면 드실 수 있지만 냉장고의 경우는 두달 이상은 둔다.(100일 정도면 가장 좋구요) 완료되면 원액만 따라서 별도의 용기에 넣어 두고 필요할때 마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매실은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둔 채로 소주 사다가 부어 놓으면 매실주도 드실 수 있어요. 일종의 재탕(?) 이지요.
그리고 매실주까지 우려먹고 남은 매실은 목욕하실 때 포크로 구멍 송송 뚫어서 욕조에 열댓개 정도 던져 놓으면 피로회복과 피부에 좋아요. 이건 삼탕!!!. 이 단계까지 우려 먹었으면 미련없이 버리세요.

항아리를 땅에 묻고는, 잘씻어 물기를 말린 매실을 항아리에 넣고는 꼭꼭 눌러준다 합니다.
설탕은 넣지 않아요.

두어달 뒤부터 먹을 수 있는데 한뼘정도는 곰팡이등이 핍니다. 그걸 잘 걷어주고
발효된 액체를 거두고 짜고 ..
이렇게 만든 매실원액이 진짜라 합니다.
저도 올해는 이방법으로 한 항아리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설탕없이 이렇게 만든 매실원액은 두어달뒤에 매실씨와 육질이 절로 분리가 된다 하네요.

매실씨는 물에 헹구고 삶고 햇볕에 말려 베게속으로 만들고요. 육질은 장아찌를 만드세요.

우메보시는 매실에 소금을 뿌리고 차조기잎으로 색을 낸 것입니다.
차조기잎은 깻잎처럼 생겼는데 색이 자주빛 비스무리 합니다.

매실을 좋아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mesilholic

원액 만드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해드릴께요.

1. 씨가 여물어지기 전에 청매실일 때 참기름 짜는 방앗간 같은 곳에 가지고 가면 매실을 고추가는 기계에 넣어 빻은 후 참기름 짜는 기계에 넣어서 매실 액을 짜 준답니다. (20KG정도면 매실 액이 12L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스텐 다라이에 짜온 매실액을 부은 후 불위에 올려 놓은 후 뚜껑을 덮지 말고 아주 약한 불에서 김만 날 정도로 아주 서서히 김을 날려준답니다. 하루 정도면 많이 액기스가 되어가지만 양이 적어지면 끓기 쉬우니까 가스렌지위에 벽돌등을 올려 놓고 더 높이 그릇을 올려야되요(이때 그릇은 더 작은 그릇으로 옮겨야 바닥에깔려서 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저어보아 줄줄흐르지 않고 흐를정도면 물에 희석하기도 두고 드시기에도 아주 좋아요.(꿀을 섞어 드시면 맛이 기가막히답니다)

2. 청매실이든 익은 매실이든 상관없이 매실은 잘 씻어 물기를 뺀 후 항아리에 넣은 후 입구를 비닐로 덮고 고무줄로 꽁꽁 묶어 밀봉하세요. 6월에 담그면 추석무렵에 열어보시면 곰팡이 같은 거 전혀 끼지 않고 매실에 물이 나와 있는데 매실에 비해 양이 얼마 나오지 않아요. 이때 물을 따라내어 귀하게 쓰시면 됩니다.
물이 나오는 과정을 보고 싶은 분은 요즘 나오는 생수통같은 통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 두면 투명해서 매실에서 물방울처럼 밖으로 방울방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매실이 아까운데 또 귀하게 쓰는 방법이 있읍니다.

바구리에 매실을 건져 속에 면장갑끼고 위에 고무장갑낀 후에 씨와 살을 발라냅니다.

1) 씨는 잘 씻어 물에 삶아 잘 말리기를 3회 정도 하면 씨가 맑은 쇠소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워져요.(삶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말려도 나중에 벌레가 생기고 무겁고 베고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느거 같아요.

2) 살(할 수 있다면 고추가는 기계에 한번 갈은 다음에)은 설탕과 매실을 같은 비율로 잘 섞어 다시 옹기에 담아 두었다가 몇 달 후 열어보면 아주 맛있는 매실 쨈이 되어 있을 거예요.(익은 매실은 익은 매실대로 향이 있고 청매실은 청매실대로 맛이 다르답니다.)

불에 팍팍 끓인것이 아닌 그대로 의 쨈이라 더 좋아요.

http://cafe.daum.net/travel7788 [daum/cafe/여행과친구들]

[펌] 아고라에서의 노무현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2009.05.28 00:5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E6F29CB1BC0224DB1B016ECFFF35F174?bbsId=D003&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2617091&TOKEN=839f8ee768501bba1eac82a

- 자유토론 **글이 계속 삭제 되고 있어요** [144]
- ywowc mousew****
- 번호 2617091 | 09.05.27 07:31 IP 59.10.***.109
- 조회 5824 주소복사

이 글을 제가 10분 전에 아고라 방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삭제될까봐 2615884 글번호를 종이에 적어놨어요 .

그런데 다시 와서 방금 보니까 그 번호 밑에 적힌 리플글까지 다 삭제 되어 있어요

계속 퍼트려서 국민들이 밝혀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요 .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의심쩍은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니까요

이 글이 자꾸 삭제되는데
저는 절대 삭제하지 않을 테니까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이라고 나오면
지우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 글 올립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퍼온 글입니다.]

2009.05.23 토 20:53
역시 나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군!
친필유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유서.
그것도 서거 당일날 몇시간 전에 작성.
내용은 급조한 것이 확연히 들어나도록 짧고,조잡한데 제목은 길기도 하지!
파일명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
영혼에 베인 습관은 변할 수 없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인터넷을 좋아했어도 나이가 육십이 넘은 할아버지가 유서를 한글타자로 남겼다는건

월드컵 경기를 본 날 야구 꿈을 꿨다는 얘기만큼 독특하군!
내가 범죄심리학에는 일가견이 있거든
죽기 바로 직전 유서를 남기는 자살자들은 99.9% 손목을 긋거나,목을 메지!
음독자살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유서를 당일날 작성하지 않아!
왜냐하면 음독과 투신이란 방법에는 사전준비(약,장소)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뛰어내리는 것 같지?
그건 나이아가라 폭포나 금문교 같이 물이 끌어당길 때의 얘기이고
사람은 점찍어 두었던 익숙한 장소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
결국 음독과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사전에 계획했단 얘기이고 유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는 뜻이지!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가장 긴 유서제목이 되겠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르나?
만약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자살하러 나가기 전에 급히 작성한 유서의 제목이라면
그 제목은 분명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였을거야!
유서제목이 신기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바람을 대변해주는군!
정말 신기한 일이지!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는데 왜 유서제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까?
세상은 속여도 나는 못속이지!

2009.05.23 토 12:45
그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이유가 무엇이건,죽음으로 무엇을 말하고,이루려 했건 자살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자살이란 선택을 한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건 더욱 더 옳지 못한 행동인 것이다.
무슨 일이건 일어날 수 있으니 세상이다.
충격받을 일도 아니고,감싸고 이해해줄 일은 더더욱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짜 자살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으며,책임감이 결여된 비겁한 도피일 뿐이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발표를 믿지 않는다.
차분히 유서까지 남기고 준비된 자살을 할 사람이
조용히 집에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뒤로 한 채
하필 단 한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뒷산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마치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어 바로 앞에 있는 물병뒤에 숨어있던 간장을 마셨다는 얘기처럼 비논리적이다.
물론 목이 마를 때에도 물대신 콜라나 우유를 선택할 수는 있다.
두명의 경호원을 대동했다거나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 뛰어 내렸다면 자살발표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일기가 경호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내 머리가 지금보다 조금 나쁘다면 그렇게 의심하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동한 단 한명의 경호원] 이란 정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상상을 사전에 불식시킬 역 알리바이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얼마전 헬기를 거부했다.
노무현은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함께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달전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났다.
어떤 방향으로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불행을 예감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아침먹고 멀쩡히 출근했던 가장이 들어올 때는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어제 웃으며 안부 전화를 했던 아들이 오늘 사망했다는 전화가 걸려오던 시절이었다.

다시 역사가 되돌려지고 조만간 최루탄이 컴백하신단다.
그때처럼 의문의 죽음이 생겨나는 것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
'노무현 죽이기' 를 하더니 진짜 죽인 것일까?
그런 귀여운 질문은 하지 말아라!
답은 나도 모른다 이니...

분명한건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으려면 강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영원히 둘로 갈라져 둘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할 운명인가 보다.
불행한 나라에 태어난 국민에게 불행을 헤쳐나갈 용기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2009.05.24 일 16:08
역시나 의학적 정황들도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네요!
올해 63세의 당신은 일명 자살바위라 일컬어지는 30미터 높이 70도 경사각의 암벽에서 추락했어요!
그곳은 30대인 내가 떨어진다 해도 즉사할만큼 위험한 장소이죠!
암벽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뛰어 내리지 않아요!
인간은 암벽을 보면 반사작용으로 주춤하게 되기 때문에
자살자는 무의식적으로 먼곳을 보면서 최대한 멀리 뛰어 내리죠!
그렇게 뛰어내려 바위에 닿는 1차 충격으로 뼈가 부서지면서 장기가 파열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직접 사인은 두개골 골절 등 두부의 손상 이예요!
즉 당신은 떨어져서 구른게 아니라 구르면서 떨어진 것이죠!
스스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쳤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분명 평소의 트레이드 마크대로 양팔을 위로 들고 손을 흔들다가
뒤에서 미는 충격으로 푸쉬업의 자세로 암벽을 짚으며 굴렀어요!
그 충격으로 양팔이 골절된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이 당신을 살게 했지요!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즉사했을텐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암벽으로 부터 최대한 자신을 방어했죠!
경호원은 분명 거짓증언을 하는게 아니예요!
처음 떨어졌을때 당신은 분명 살아있었어요!
의식이 분명했고,경호원과의 대화도 가능했어요!
당신의 정확한 투신 시간은 23일 오전 6시 45분이었어요!
당신은 멀쩡했고,경호원은 당신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기에
경호원은 초인적인 일념으로 당신을 들쳐업고 달려 자동차를 이용해 30분만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문제는 병원을 옮기는 과정이죠!
당신은 처음 도착한 세영병원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직후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23일 오전 7시 34분 까지 당신은 경호원 한명이 부축해 병원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멀쩡한 상태였어요!
김해의 세영병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골병원이 아니예요!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이죠!
그런데 당신은 이상하게도 조금의 의논도 없이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그곳이 당신이 죽어야 할 장소인 것처럼...
결국 당신은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부산대 병원 도착 1시간만에 숨을 거두었죠!
정말 신기하죠?
젊은 사람이 실족을 해도 즉사를 할 만한 암벽에서 63세의 노인이 자살을 하려 뛰어 내렸는데
척추등 모든게 멀쩡해서 경호원 한명이 살릴려고 번개처럼 날라다 병원에 모셔다 놓았더니
죽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로 보고부터 하고 당신은 도토리 키재기같이 비슷한 병원으로
응급처치 기능도 없는 조그만 앰블런스에 실려 느릿느릿 옮겨져
마치 죽을 장소에 도착한 사람처럼 쓸쓸히 눈을 감았죠!
그 나이에 자살하려고 암벽에서 뛰어 내렸는데 어떻게 몇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었나요?
그래요! 당신은 옛날부터 초인이었으니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 죽으면서 어이가 없어 웃었군요!
요즘 대한민국에 쓸만한 조폭이 없어요!
특A급들은 다 연희동으로 갔거든요!
대통령씩이나 지냈으면서 당신은 왜 세상을 몰랐나요?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갔을 때는 사설경호부대를 운영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경호원은 분명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만 기억의 퍼즐조각들을 잃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최면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타살일 가능성이 90% 를 넘어요!
타살이 아니라 해도 이건 분명 의문사라고 봐야죠!

당신이 죽어서 누가 이득이냐구요?
그럼 당신이 살아있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김해세영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40분동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맘먹고 투신자살을 하는 사람이 암벽에 머리를 부딪히면 절대 3시간이나 살아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당장의 치료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말이죠!
풀밭에 떨어졌다 해도 피가 흥건해서 혈흔을 일부러 고생해 찾을 일도 없거니와
투신자살을 한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옮기면 옮긴 사람의 옷에 피가 가득 베이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이 품고 있는 블랙박스를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먼저였습니까?
암벽에서 굴러 떨어져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있던 당신.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이 나중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머리를 둔기로 맞고 떨어진건가요?
두정부는 검도를 한 조폭들이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를때 많이 노리는 곳이죠!
암벽에서 구른 사람이 왜 하필 머리 위쪽 부분에 11cm 정도의 찢어진 상처를 남겼나요?
머리가 찢어지는건 각목으로 맞았을 때이죠!
먼저 때리고 암벽에서 굴리는건 조폭들에겐 이미 고전이 된 살해 방법입니다.

2009.05.24 일 05:41
후후후~ 왕거니가 하나 걸렸군!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문사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줄 증거는 바로 경호원이 증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몽고인이 아닌 이상 300미터 밖의 사람을 보고 사람이 지나간다라 말하지는 않지!
산에는 나무가 있고,5월은 나뭇잎의 무성함이 절정에 달할 때.
아무리 높은 산정상에 서있다 하여도 사람을 보는 것은 바로 밑의 코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 바로 아래쪽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뜻!
첫째 부엉이 바위의 구조는 뒷편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한쪽면으로만 투신이 가능한 구조.
결국 그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래를 보며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라고 말을 하면
경호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자 여기선 두가지 상황이 성립되지!
먼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 가까이로 걸어가면 직책상 요인보다 뒷편에 서있는 경호원은 직분상
"각하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하게 되고 (뛰어내리는 것이 불가능 해짐.)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호원이 발걸음으로 이동없이 바로 뛰어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것이라면
이는 100% 경호과실인 것이지!
즉 한눈을 파는 사이 뛰어 내렸다는 증언은 전혀 말이 안된다는 것.(경호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뒷쪽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 앉아 책한권을 읽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야!
경호원은 분명 바로 뛰어내렸다고 증언했지!
부엉이 바위의 높이는 30미터.
30미터 절벽위에서 성인남자가 떨어지는데 저기 지나간다던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리가 없지!
봉화산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남산이었다면 저기 지나가던 그 사람은 겁많은 도시청년일 수도 있지!
무서운 생각에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경남 김해의 가파른 암벽 및을 꼭두새벽부터 혼자 걸어가던 그 사람이 소심한 여고생일리는 없는 것!
30미터 절벽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건 전혀 설득력이 없어!
정리하자면
한눈을 파는 사이 뛰어내렸다는 경호원의 증언은 100% 거짓이며,
이 경호원이 인생을 종칠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혼자서 노 전대통령을 수행하며 초긴장을 했을 텐데
그런 경호원이 달음박질 없이 바로 뛰어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건 경호원이 노 전대통령을 죽였다는 얘기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것!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목격자부터 찾는 것은 수사의 기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서거 직전 전직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언급한 "저기 지나가던 그 사람(목격자)은 왜 수소문해 찾지 않나?"
어째 일제시대부터 우매한 대한민국 국민들 쉽게 속여가며 권력을 유지해오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닭대가리로 보이던가?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나?
가끔은 돌연변이로 대한민국에 나같은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거든
차라리 "저기 비행접시가 날아가네!" 라 말하고 경호원을 따돌렸다 주장해라!

2009.05.25 월 15:50
이놈들이 전직 대통령을 폭행 살해하고서 대국민 사기극을 꾸미고 있네!
그러나 트릭은 아무리 치밀해도 결국 깨어지게 마련이지!
김해 세영병원 손과장이 말한 세영병원의 도착시간은 오전 7시경.
경남지방경찰청이 24일 오전 2차 브리핑을 통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투신시간은 오전 6시 45분.
양쪽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결국 거짓말은 경호과장이 하고 있는 것이지!
부엉이 바위 위에서 세영병원까지 단 20분만에 도착했다는 얘기인데
경호과장도 부엉이 바위에서 굴러 내려왔나?
부엉이 바위에서 내려오는 시간 + 노 전 대통령을 업고 차로 가는 시간 + 차로 세영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 20분? 절대 불가능 하지!
노전대통령이 오전 7시 35분에 김해 세영병원을 출발해 양산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13분이야!
엠블런스에 싣고 도로를 달려가도 40분이 걸리는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며,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사고가 안나면 다행인 상황에
부엉이 바위 위에서 세영병원까지 도착하는데 그 절반인 20분이 걸렸다고
니가 무슨 슈퍼부엉이냐? 아니면 본래부터 죽일 계획이라 심장이 평온했던 것이냐?
혹시 너도 고향이 봉하마을이라 세영병원 가는 길을 통달했던 것이냐?
아니면 범행전에 미리 동선 코스를 답사해놨던 것이냐?
봉하마을 택시기사가 가도 니보다는 느리겠다.
결국 답은 하나.
최종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장소가 부엉이 바위 아래가 아닌 세영병원에서 가까운 장소였다는 뜻이지!
더 간이 오그라들게 만들어 줄께!
거기에 세영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과장과 노전대통령만 왔던 것이 아니라
경호실 차량에 비서진과 경호팀이 동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건 무엇을 증명할까?
이동시간이 플러스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사저를 나갈 때는 둘이서만 나갔는데 비서진과 경호팀이 동승해서 세영병원에 왔다는 말은
결국 이과장이 노전대통령을 싣고 사저에 들러 비서진과 경호팀을 태웠던지,
아니면 이과장이 무전을 해서 비서진과 경호팀이 사고장소로 왔다는 뜻이지!
어때? 부엉이 바위 꼭대기에서 세영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이 시간만 해도 20분은 걸리지!
결국 답은 하나.
틀린 그림을 찾았나?
그렇지 바로 그거지!
노전대통령과 이모과장은 차를 타고 나오지 않았어!
즉 이모과장이 무전을 해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뜻이지!
다음 과정을 볼까?
심장이 멈추도록 만들어 주지!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렇게 발표했지!
"수행 경호과장이 사고 직후 무전 등으로 문모 비서관에게 연락했고 문 비서관으로부터 다시 연락받은 박모 비서관이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유서를 처음 발견했다."
유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동행한 이과장으로부터 무전을 받은 문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저의 박모비서관 이었어!
이거 완전한 그림이 나오잖아?
이과장은 현장에,박모 비서관은 사저에,그럼 문 비서관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이동시간이 빨랐던 것!)
그리고 노전대통령이 추락했다는 무전을 받고 노전대통령의 컴퓨터 바탕화면부터 확인한 박 비서관은 뭐하는 새낀데?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닌가?
세상에 어떤 상식있는 인간이 전직 대통령이 암벽에서 추락했다는 무전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부터 확인하나?

상식적으로 경호원이라면 추락했다는 무전을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거 아닌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권여사에게 먼저 알렸어야지!
처음부터 컴퓨터 조작하는게 임무가 아니라면 어떤 미친놈이 추락했다는 무전받고 노전대통령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부터 확인해?
이건 완전히 책을 나눈 조폭들이야!
현장(행동대원)조,운송대기조,마무리조.
다시 현장으로 이동해 볼까?
너희들은 한가지 사실을 간과했지!
거기엔 노전대통령을 진짜 지켜주려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경비3초소에 있던 순진한 전경 1명이 오전 6시 20분 경호상황실에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 있다'고 보고했어!
25분 전에 부엉이 바위 위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전경,
그리고 25분 전에 부엉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경호실 요원들이 모두
200미터 뒤 30미터 암벽에서 성인남자가 추락하는 것을 보지도,듣지도 못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며느리 들인가?
세영병원으로 가보지!
세영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노전대통령은 피범벅 이었어!
게다가 피가 많이 묻은 노전대통령의 상의 또한 발견됐지!
어머! 그런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노전대통령은 피범벅이 되어 세영병원에 실려오고,노전대통령의 피묻은 상의는 발견이 되었는데
어째 현장에서 노전대통령의 혈흔은 하루가 지나도록 발견을 못한거야!
아직까지도 어디서 얼마만큼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정통한 소식이 없네!
참 신기하기도 하지?
피범벅이 된 사람,피묻은 상의가 벗겨진 사람이 왜 현장엔 그토록 혈흔찾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답은 하나.
노전대통령은 그곳에서 살해된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후후후~ 범인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릴줄 아는 놈이었지만 법의학 상식이 부족한 놈이었어!
암벽에서 추락을 해도 상의는 벗겨지지 않는 단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
멍청한 범인은 노전대통령이 이곳에서 굴렀다는 증거를 꾸미기 위해
상의와 등산화 한짝을 이용했지!
그런데 바보같은 놈이 상의의 위치를 잘못 잡은 거야!
상의는 낙하지점으로부터 1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
나무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상의가 벗겨져 11미터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왜 11미터 일까?
답은 두개야!
하나는 부엉이 바위 위에서 상의를 던진 것이지!
둘은 다른 곳에서 급하게 그 지점에 상의를 갖다 놓느라고 아무데나 놔버린 것이지!
경찰은 상의가 이과장이 노전대통령을 업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졌을 것이라 말했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결국 경찰도 추락하는 동안은 상의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추락하는 동안에도 벗겨지지 않던 상의가 업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져?
그렇다면 그것은 떨어진게 아니라 일부러 벗긴 것이지!
범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이유는 단하나.
피해자가 항상 품에 간직하고 다니던 물건을 노릴 때이지!
여태까지 내가 올렸던 모든 추론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을 대충대충 넘겨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미리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고 사건의 진행동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어긋나고 있는게 분명해!
먼저 노전대통령을 수행한 경호과장의 진술은 100% 신빙성이 없으며
그에 따라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23일 오전 6시 45분에 뛰어 내렸다는 부분부터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해!
일단 떨어진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밀려 떨어진 것인지,아니면 위협을 피해 뛰어 내린 것인지도 분명치가 않아!
분명한건 단 한가지 사실 뿐이야!
노전대통령과 이모경호과장이 단둘이 사저를 나갔다는 것!
그게 산책이었는지,그 방향이 부엉이 바위였는지,둘이서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무 것도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개판

수사법이 바뀌어야 해!
사건이 일어나면 지방경찰은 국과수가 올 때 까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체의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해!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동네경찰이 수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
정말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다면 사저의 경호원들은 바로 통제에 들어가야지!
23일 오전 6시 45분 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들락거리고 사건현장을 오갔나?
무개념.
그 자체가 이미 범행인거야!

2009.05.25 월 08:32
난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과 양심은 믿지만 실력은 인정할 수가 없어!
노력이고 양심이고 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지능이고,실력인거야!
미국이나 영국의 수사팀이 와서 조사후 자살발표를 하기 전에는
내 홈피에서 만큼은 타살로 잠정 결론 내리겠다.
추리는 상상이 아니라 검증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인과론이야!
추론을 음모론이라 칭하는 무식한 나라는 미개한 후진국 한국이 유일하지!
내가 가진 최고의 의문점은
63세의 노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30미터 높이 70도 경사각의 암벽 위에서 뛰어 내렸는데
과연 3시간 동안이나 특별한 조치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게 가능할만큼 살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그것도 사인이 두부손상인데 말이야)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추락했으면 척추를 비롯 온몸의 뼈가 다 절단이 났을텐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경호원 혼자 업고 가서 승용차로 병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야!
즉 척추도 온몸의 뼈도 멀쩡했다는 뜻이지!
추락해서 절단난 사람을 어떻게 혼자 업고 갔느냐? 가 아니라 멀쩡했으니 혼자 데리고 간 것이지!
여기선 두가지 결론이 성립되는 거야!
하나는 자살하려고 뛰어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몸을 보호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암벽에서 추락한게 아니라는 것이지!
봉화산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시골산이지만
부엉이 바위는 사저에서 2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알잖아? 당시 사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특종거리와 볼거리를 노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30미터 높이에서 먼지가 아닌 성인남자가 추락하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어!
시골마을 고요한 아침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져도 그 소리는 상당한 파장력을 소유하지!
사람은 자살을 한다 해도 긴 비명은 아니라도 충격으로 인한 단말마의 소리라도 내지르게 되어 있어!
아무도 보지 못했고,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덧붙여 새로운 사실 하나가 나왔지!
권양숙 여사도 산행에 동행하려 했어!
분명 혼자 올라간 남편이 궁금해서 봉화산 쪽을 수시로 쳐다봤을 거야!
아니 일부러 쳐다보진 않았다 해도 신경이 봉화산 쪽으로 쏠려 있었겠지!
왜 암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머리가 깨져야지 하필 정수리 부분에 찢어진 상처를 남기나?
궁금하면 머리통을 바위에 박아 보라고 과연 정수리가 찢어지나?
박은게 아니라 맞은 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것은 어떤 분야로도 논리적인 설명이 안돼!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 몇주전부터 계속 우울한 기미를 보였다고들 증언했어!
그런데 유서를 자살하러 나가기 20분전에 남기나?
법의학적으로 살펴 볼까? 3백미터 암벽에서 추락해도 점퍼는 벗겨지지 않아!
점퍼가 벗겨지려면 팔을 벌려야 하는데 추락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웅크린다고
성인남자가 떨어지는데 나뭇가지 정도에 걸릴 거 같나?
걸리더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점퍼가 찢어지지!
나무에 걸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았어야지!
나무에 걸려 살아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점퍼를 벗어 버리고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각목으로 후려쳤다면 말이 되지!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론이 나오면 소설을 쓴다고 빈정대는 거야!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이번 사건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그려 원래 계획대로 죽었어야 하는데 안죽었으니 어쩌겠나?
범인은 목표가 어긋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후회가 밀려 오는거야!
죽일 사람이 멀쩡하니 최선을 다해 살리는 수 밖에
그런데 살아있던 사람이 진짜 죽었어! 언제?
청와대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이동해서 도착하는 동안에
40분전엔 가망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데
40분뒤엔 이미 심폐소생술도 못할만큼 저승사람이 되어 버리나?
누굴 바보로 아나?
그건 니들같은 닭대가리들이나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죽을 사람이면 세영병원에서 죽게 내비두고 사저의 권양숙 여사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게 순서이고
옮겨서 살 사람이 40분만에 송장이 됐다는건 옮기는 40분동안 죽였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세영병원은 예정에 없던 돌발수였지!
암벽에서 추락해도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변수였으니까
원래 계획은 암벽에서 추락. 즉사하거나 의식이 없었다면 바로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니가 바보인 것이지!
청와대에 중간 보고는 왜 하나?
그러니까 니가 똥줄타는 아마추어인 거야!
봐라!
청와대에 보고를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서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아니고 그토록 급하게 먼저 해야 했다면 떨어지자 마자 했어야지!
세영병원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다는건 뭔가?
일이 틀어졌단 얘기 아닌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다 싸인하나 해주지!
난 이모과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3 의 인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임무를 완수하면 니놈은 살 수 있을 것 같나?
니놈도 삼년안에 죽을테니 두고 보라고
그리고 집착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
내가 아무리 베플을 즐겨한다 해도 이런 내용을 공론화 시키지는 않으니까
중요한건 어떤 글이냐 하는 것이지,어디에 쓰면 어떠한가?
내가 쓴 글은 돌고 도는 동안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엔 들어갈 사람 귀에 다 들어가더라고

2009.05.25 월 03:54
많은 사람들이 고 안재환 씨의 누나를 욕했지만
난 안재환 씨의 누나와 타고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기에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이 동생의 불행과 의문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를 아직까지 응원하고 있다.
무기력하고 무지하며 가증스런 인간들.
그게 한국인들의 공통점이다.
국장? 꼴값떨고 있네!
자살한 전직 대통령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국장을 치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살로 끝나면 노무현의 명예는 없는 것이다.
노무현이 죽음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고?
노무현이 자살을 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노무현 자신이다.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측은하고,불쌍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명예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분향소를 찾아가지만
그 눈물과 발걸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국민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발걸음이 아닌 것
이다.
노무현의 죽음이 서거가 되고 노무현의 명예가 지켜지기 위해선 그의 죽음의 본질적 원인 자체가 격
상 되어야지
장례형식 따위가 격상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명복은 무슨 얼어죽을
허구한 날 명복을 빌면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눈물 흘리고,아쉬워 하고,명복 빌고 다 부질없고 가증스런 짓거리들이다.
진짜 애정은 그런게 아니다.
진짜 애정은 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진짜 애정은 떠난 자의 영혼이 잘됨을 비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의 이름이 잘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다.
진짜 애정은 잊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 하는 것이다.
진짜 애정은 분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루트를 답사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먹으로 발로 심장으로 하는 것이지! 세치 혀로 하는게 아니다.
장난하나?
노무현이 담배 못피워 한맺힌 사람인가?
유시민이 대표로 한대 피게 했으면 됐지!
뭘 줄나라비를 서서 담뱃불을 붙여놓나?
한국인들은 그저 모든게 형식. 오직 같잖은 형식일 뿐이다.
모든 추측을 미루고서 라도 본래 경찰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다.
지금이야 공식발표가 나왔지만
이 나라는 어찌된게 경찰의 공식발표가 나오기도 전까지 사람이 죽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자살이다.
야 이거 진짜 죽어도 한국에서는 죽지 말아야지!
나처럼 자살을 혐오하는 사람이 어느날 죽어도 이 나라에선 바로 자살로 종결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절대 자살을 안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그건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알려두어라!
그래야 당신이 죽었을때 주변 사람들이 자살이 아님을 알거 아닌가?
이 나라에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다간 어느날 억울하게 죽어도 당신은 분명 자살자로 처리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죽어도 이토록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지는 않는다.
언제 제대로 된 수사라도 한번 해보았는가?
이건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이다.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처럼,이미 죽어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지자들 마저 집단최면에 홀린 듯이 총체적 무지에 빠져 깊은 영혼의 웅덩이를 헤메고 있다.
무기력한거 착한거 아니다.
대가리 나쁜거 자랑 아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거 올바르게 사는거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새끼들,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새끼들이 바로 음모론을 펴지 말라는 놈들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주자] 는 놈들을 전부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한다.
역사는 증명한다.
"대대로 입다무는 것들 치고 죄없는 놈 없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머리가 좋은 죄 뿐!
무식한 인간들이 내글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글이 틀린 글이 되는 것은 아니요,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년 뒤에 이민갈 계획인가?
한나라당은 3년 뒤에 대통령 후보 내세우지 않을 작정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죽음엔 한점 의혹도 없는 객관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건 타살이 아니라도 의문사이다.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물어보라!
예순 넘은 우리 어머니도 노무현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 했다.
이 나라엔 젊어도 늙은 놈들,무기력하고 무식하고 착한척 하는 역겨운 위선자들로 가득차 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라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 줍시다."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주자는 놈들 글과 내글은 이미 문장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
사람들이 니놈보다 할일이 없어서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대충 대충 좋은게 좋은거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을 전부 쓸어내야 이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걱정마라!
니가 죽었을 때는 닥치고 명복이나 빌어줄 테니...

2009.05.26 화 05:21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아마추어가 노전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제 무덤을 파고 있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5일 발표하기를
노전대통령이 서거 당일(23일) 정토원에 갔었다고 말을 했네!
대한민국엔 범죄심리학자가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그냥 자살로 처리하고 화장을 해?

봐라!
정토원이란 곳은 노전대통령이 뛰어 내렸다는 부엉이 바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야!
그리고 노전대통령과 경호과장이 정토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6시 30분.
그런데 내가 앞선 글에서 분명히 언급했었지!
경비3초소에 있던 전경 1명이 오전 6시 20분 경호상황실에 '현재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그렇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일단 부엉이 바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정토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엉이바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푸하하하~ 플로리다에서는 그렇게 증언하면 정신병동행이다.
자살하는 63세의 전직대통령이 혼자도 아니라 경호원을 대동하고 일단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전경에게 자신이 부엉이 바위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200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정토원으로 내려가서 "저 자살하는거 맞습니다." 하고 흔적을 남겨주고
또 다시 200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뛰어 내렸다고?
천만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첫째 자살자가 자살할 장소에 왔다가 그곳을 벗어나 다시 그곳을 찾아와 자살을 했다는건 범죄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얘기이고,
둘째 무슨 유격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도 안좋았다는 63세의 노인이 험한 산길을 25분안에 왕복했다는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
봐라!
오전 6시 20분에 부엉이바위 -> 오전 6시 30분에 정토원 -> 오전 6시 45분에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컨디션도 안좋은 63세의 할아버지가 무슨 바쁘게 자살할 일이 있었나?
만약 진짜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까지 올라왔다 내려가 정토원에 들러 다시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자 말했다면
그순간 바보가 아닌 정상적인 경호원이라면 모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거야!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노전대통령을 그대로 절벽가까이 가도록 놔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중대한 경호과실이지!
이 트릭을 깨주지!
너희들은 언제나 한명이야!
대동한 경호원도 한명,부엉이 바위위에 있는 노전대통령을 목격한 전경도 한명.
내가 저번글에 언급한대로 노전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노전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 가지 않았어!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위에 가지 않았다면 경호원이 부엉이 바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없어지기 때문에
세영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6시45분에 투신을 했는데 세영병원 도착시간은 7시라는건 도저히 말이 안되지만
6시40분에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세영병원 도착시간이 7시라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것이지!
처음 계획은 노전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 버리는 것이었지!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전경 한명이 목격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
자신의 위험을 직감한 노전대통령이 갑자기 정토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린거야!
확실한 공포가 엄습해 올 때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위험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 피해자는 싸인을 남기는 법이지!
정토원은 노전대통령이 남긴 표식이야!
어떡하나? 따라가는 수 밖에!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의 도움이 계셨지!
선진규 정토원장은 경호원과 눈이 마주치자 마자 이렇게 물었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이 정토원에 찾아오면 그 첫인사를 "무슨 일이 있으시냐?" 로 하는 원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만큼 무슨 일이 있어보였던거야!
그런데 재밌는건 선원장은 자살하려던 노전대통령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던게 아니라
따라온 경호원과 눈을 마주친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
왜 그랬을까? 경호원이 자살하려고 맘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경호원의 눈에서 뭘 느꼈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경호원의 대답이 해답을 말해주지!
무슨 일이 있냐는 선원장의 질문에 경호원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경호원의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네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였겠지!
아무 것도 아니다란 대답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갑자기 "너 뭐하냐?" 라고 물어오면 "아무 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많은 말을 걸어오지 않기를 바랄 때,빨리 이 상황이 끝나주기를 바랄 때
바로 아무 것도 아니란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어디까지 연결되고 누구까지 엮여있니?
24일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에선 노전대통령이 정토원에 들렀다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
경찰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스스로 은폐한거니?
그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왜 25일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가 나왔을까?
목격자인 정토원 원장님은 매수를 못했기 때문이지!
게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 정토원에 들렀다고 발표를 하는게 자살의 당위성을 높여줄거라 착각했던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대한민국에도 나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
여기가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뒤집어질 일이야!
한국에서 권력을 누리는걸 하늘에 감사하고 겸허하게들 살아라!
내가 왜 이런 글을 자꾸 올리냐고?
자존심이지!
내 머리에 대한 자존심.
난 내가 억울하게 죽는건 용서해도,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는건 절대로 용서못해!
뭘 고개를 갸우뚱 거리니? 미련한 놈아!
나를 죽이는 남은 용서해도,속아 넘어가는 내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2009.05.27 수 00:27
하하하~ 어떠니? 핏덩이들아^^
몸에 힘좀 있으니 사람 죽이는게 쉬워 보였지?
*만한 핏덩이들이 이 넓은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깝치고 있네!
나원 같잖아서
내가 얘기했지?
위협을 직감한 노전대통령이 발길을 정토원으로 돌렸다고
거기서 니가 정토원장이랑 눈마주쳐서 버벅대는 사이에 노전대통령이 자살하러 부엉이 바위로 혼자간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을 친 것이지!
놓쳐? 뭘 놓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작당을 한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전을 왜 치나?
노전대통령이 자살할 거란걸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잖아!
니가 무전을 칠 그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 였어!
그런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무전을 왜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
넌 깜짝놀라 무전을 쳤지?
왜 쳤을까?
바로 유서를 맡은 놈 때문이었지!
난 처음부터 왜 유서가 바탕화면에 떠 있었을까? 생각했어!
바로 이제 그 이유를 알게됐지!
사저에 남아있던 공범은 노전대통령의 컴퓨터가 있던 방에 두번을 들어간거야!
한번은 유서를 작성하러,그리고 또 한번은 놓쳤다는 무전을 받고 유서를 삭제하러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자 미쳐 유서를 삭제못하고 급하게 컴퓨터도 못끈채 방을 나와버렸지!
무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
넌 형사가 아니라 경호원이야!
전직 대통령이 무슨 범죄자니?
니가 쫓아가서 뭔가를 해야할 입장이 아니라면 놓쳤다란 무전은 맞지가 않지!
폭행치사가 아니라면 노전대통령의 시신을 일본인 의사에게 정밀검사 하도록 맡겨봐!
한국은 독립할 지능이 안되는 나라.
난 일본인 만큼은 믿는다.
그래!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 고 치자!
그리고 노전대통령이 널 따돌리고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고 치자!

그럼 너는 정말 용한 점쟁이로구나!
부엉이바위는 정토원 바로 옆에 있는 바위가 아니야!
아무리 봉화산이 뒷산이라도 거긴 서울이 아니지!
녹음이 우거진 5월의 시골산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부엉이바위 아래 노전대통령이 쓰러져 있을 줄
넌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것이니?
내가 치명타를 날려 줄께!
너희들은 한놈이 아니었던 것이지!
도망치던 노전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다른 놈과 마주쳤던 거야!
바로 등산객이 만났다던 혼자 거닐던 경호원은 니가 아니라 그놈이었지!
정토원에서 놓쳤다고 무전을 치던 니가 부엉이바위 아래 쓰러져 있던 노전대통령을 찾았다는건 말
이 안돼!
넌 뒤에서 쫓아가고 한놈은 부엉이 바위 아래 숨어 대기하고 있었지!
왜?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버리는게 애초 계획이었으니까 그놈이 거기 있었던건 본래의 위치를 지키
고 있었던거야!
만약 노전대통령이 정토원에 들렀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겠지!
그런데 도착해야 할 시간에 도착을 안하니 궁금해서 숨어있다 나온 것이지!
그래서 등산객을 만나게 된거야!
너더러 사람들이 순간이동 했냐고 하더라!
어떻게 부엉이 바위에서 세영병원까지 20분만에 노전대통령을 옮기며 도착했는지
이젠 답이 나오잖아!
처음부터 부엉이 바위에서 내려올 일이 없었고,너흰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분명 세영병원에 도착했을때 너희들은 한명이 아니었다고 증언이 나왔지!
먼저 각목으로 두정부를 내리쳤니?
정신을 잃고 쓰러진 노전대통령의 양발을 붙잡고 배쪽으로 내리 눌렀니?
그래서 등산화를 양쪽다 벗겼다가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한쪽은 다시 신겼니?
노전대통령이 도망치는 사이 메모라도 남겼을까봐 주머니를 뒤지려고 상의를 벗겨니?
직접사인은 두부손상,그리고 뼈들은 이곳저곳 부러졌는데 신기하게도 장이 파열됐다는 소견은 듣
지 못했거든!
난 처음부터 의심을 했었지!
암벽에서 자살하려 한 63세의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으며,혈흔 찾기
가 힘이 들었을까?
니가 한번 30미터 암벽에서 죽기로 마음먹고 뛰어내려 볼래?
니몸이 어떻게 되고 추락장소에 혈흔이 얼마나 남나?
그래서 니들은 아마추어.
폭행으로 추락사를 꾸미려니 대충 모양새는 유지했는데 장들 파열을 못시키고,뼈들을 분산시키지
못하고,피를 많이 뽑지 못했던거야!
하지만 의사들이 바보는 아니야!
언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정밀검사라도 할 여유가 있었니?
그대로 세영병원에 남아 있었다면 의사들도 의문을 제기했을 거야!
그런데 병원을 옮겼지!
왜?
세영병원은 애초에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왜 세영병원으로 갔을까?
엔딩타임 오전 7시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이지!
원래 계획은 오전 6시 30분에 노전대통령을 부엉이바위에서 밀어버리고
곧장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지!
그런데 도망친 노전대통령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니까 일단 세영병원으로 갔던 것이지!

592

7

ywowc님의 다른글보기

흑수선이좋아 imse****

저도 이글 제가 링크까지 해서 퍼갔는데 끝번호가 4였습니다. 이제 그 글은 없고 이 글만 남았네요 09.05.28 00:39 IP 125.129.***.172

아크엔젤 200****

산에 짱박혀있던 수많은 기자새끼들은.. 밥처먹으러 갔었나... 왜 단 한명도 사진을 못찍었을까? 09.05.28 00:06 IP 121.169.***.192

코아 skzh****

사람들한테 말만 들었는데 직접 글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군요.솔직히 자살이라는 기사를 메스컴에서 일제히 보도할때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빨리 재수사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09.05.27 21:57 IP 119.66.***.42

광명군 sj***

정말 아마추어 같아요..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는데..사고처리 방식이 너무.. 만약 이 글처럼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면 왜, 누가, 죽였을까요..? 청렴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명예가 땅에 떨어져 사는게 사는게 아닐텐데.. 09.05.27 20:32 IP 115.95.***.141

Armand re***

578 글에 동감해요 09.05.27 20:31 IP 116.33.***.198

봉봉쇼콜라 619****

아... 오그라든다... 09.05.27 20:24 IP 124.59.***.25

깨어나라 10ru****

574-7 09.05.27 20:05 IP 221.150.***.144

Christina onlyhaley4****

568-7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으면 손해보는 건 이명박 정부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배후세력으로 추측되는 건 도대체 누구인건가요? 09.05.27 19:43 IP 121.135.***.225

테츠 wan***

한가지더 의문점.. 전대통령 사저에는 주치의도 없었나? 09.05.27 19:34 IP 114.202.***.68

하이에나 hyen****

와 무섭다 09.05.27 19:25 IP 219.195.***.166

준수상태 tvfx****

558-7 왜 반대가 하나 늘었죠? 09.05.27 19:11 IP 122.38.***.15

탈무드 michin_seun****

최종수사결론 나왔는데 30분정도 가량 경호를 못받았다고 말하면서 결론은 자살로 판정해버리네...30분간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부터 캐봐야 정상아닌가...ㅠㅠ 09.05.27 18:55 IP 125.131.***.216

가영이 yu-****

타살일가능성이있다고생각했는데이글을읽으니깐진짜인것같네요제발의혹이풀리길빌어요 09.05.27 18:55 IP 121.189.***.9

woqhdthsu woqhd****

555 | 6 비록 추측이라하지만, 이 글은 정말 매우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네요. 그 어떤 수사해명보다도 더 신뢰가 갑니다. 09.05.27 18:46 IP 64.119.***.55

꼬닭 6-_-blue****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만 닳고 아픕니다.. 불교방송에 경호원이 정토원에가서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사가 떴는데 그것도 삭제되려나요.. 09.05.27 18:29 IP 203.246.***.250

성호 sungho****

헐... 경호관이 말을 바꿨던 것 까지 맞혔어.. 100퍼센트다. 글쓴이 말대로 적어도 의문사로 남는다.. 두렵습니다. 09.05.27 18:20 IP 58.148.***.25

dew jschild****

537-6 09.05.27 18:16 IP 114.200.***.123

쿠우가이 se***

5172, 533-6 납득이 가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지는군요. 09.05.27 18:12 IP 210.116.***.236

야랑v yh3***

531-6입니다~ 09.05.27 18:09 IP 118.36.***.110

치토스 opk****

조회 5124 찬성527 네티즌 댓글 118개 09.05.27 18:01 IP 210.210.***.67

박정희의 공과(功過) [5]

연조(ystone22) [2009-05-13 11:59:58]

조회 233 | 찬성 15 | 반대 2 | 스크랩 1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박통의 따님 박 근혜 의원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고조되고 있는 즈음에, 어떤 관계성을 강조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삼국시대, 고려, 조선 왕조 등을 거쳐, 왕위를 세습해 왔지만...선왕 밑에 악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 밑에 선왕도 나왔었다. 현왕 밑에 우둔한 왕도 있었고, 우둔한 왕의 후손으로 현왕도 있었기에... DNA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큰 마음을 갖고, 포용하며... 고 박통이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그 당시 전쟁 후,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한국민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선진조국,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와 열망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고, 한번 현재를 살펴볼 가치가 있는 글이라 사료되어, “밖

에서 본 고국” 이란 책을 발췌한 글을 소개한다.

==========

박정희의 공과(功過)
글쓴이: 김상기

〈편집자 주〉 본 내용은 [밖에서 본 고국] – 정우사 출판에서 발췌하여 옮긴 것입니다.

하인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주인은 없다"는 격언이 있다.
주인을 가까이 모시고 시중드는 하인에게 있어, 그는 여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 헤겔은 특유의 해학으로 여기에 한마디 거든다.

"하인에게 영웅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영웅이 영웅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인이 한갓 하인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은 그의 시대가 뜻하고 갈망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그는 가장 훌륭한 공론조차도 별의별 허위를 그 속에 품고 있음을 간파하여 모든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초를 겪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는 성질이 모질고 독하며 개인적 야심과 명예욕이 남달리 강하다. 그는 한마디로 '자존 망대 유아독존'의 화신이므로 성인군자와는 거리가 멀고, 장자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그의 죽음이 흔히 비극적인 비명횡사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영웅의 개인적 야심과 인간적 약점을 들어 그의 불순한 동기를 과장하여 그의 업적을 폄척(貶斥)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헤겔은 영웅의 심리분석과 증상에 골몰하는 고매한 도도가 아니다.

헤겔은 영웅의 심리분석과 중상에 골몰하는 고매 한 도덕군자를 맹렬히 공격하여 이 도덕의식을 비열한 하인배의 의식이라고 멸시해 마지않았다. 역사의 심판대에서 가장 순결한 도덕의식이 가장 비열한 위선으로 전도하는 대목은 그의『정신현상학』에서 섬뜩한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영웅이 많지 않은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는 풍운아요 영웅이었다.
그의 독재 밑에서 고초를 겪은 수많은 민주인사와 의인이 아직도 상처의 아픔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하기 괴롭다. 특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선배와 친구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할 때,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필자의 펜 끝이 비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순결한 도덕의식도 없으면서 하인배의 의식수준으로 자꾸 내려가는 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다. 5.16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너무 가깝다. 5.16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한국의 민주화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독재에 항거한 의인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 그를 용서하는 때가 와야 제대로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의인들의 도덕성과 함께 박정희의 개발독재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아니 먼 훗날 의인들이 까맣게 잊혀지고 마는 때가 와도 박정희는 찬연히 빛나는 큰 별이 되어 계속 추앙을 받을 것이다.

세계, 특히 제3세계를 보면 의인이 많은데 박정희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들의 희생이 알찬 발전의 물질적 기반을 얻지 못한 결과 도로에 그치고 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산업화의 토대 없이 앞질러간 정치투쟁은 산업화마저 어렵게 하여 쟁취한 민주와 자유 그 자체를 망가뜨리는 비극적 결말도 흔히 가지고 온다.

박정희를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마음의 바닥에는 그에게 허심탄회하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는 그가 5.16을 일으킨 때부터 시해 당한 그날까지 그를 미워했고 지금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이룩한 업적에 대한 평가와는 당연히 무관해야 마땅하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나 같은 책방서생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가며 했기에 큰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굳게 믿은 일들을 무서운 집념으로 추진하여 번번이 성공시킴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했다. 교과서 읽고 원칙론을 맹신하는 선비, 수신제가 좋아하는 군자, 서구식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좌파이론에 중독되어 무아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모두 철저히 무시하고, 그는 오로지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철두철미 권력의 논리만을 따라 통치권을 극대화하여 경제 개발을 박력 있게 이끌어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지금 나라 밖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그의 위상이 높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나라들이 그의 성공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산업화를 추구하는 후진국에서 그가 누리는 존경은 대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는 3공, 4공 그리고 연속이었던 5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박정희는 멜로드라마의 부역, 비화의 주인공 처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나 간단한 상식에 속하는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아는 뻔 한 사실마저 분위기에 눌려 은폐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기기만의 족 쇄로 묶어두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른바 대권주의자 한 분이 어느 잡지에 박정희를 평가하여 경제개발에 약간의 공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할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던 것이리라는 뜻의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어떤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암담한 생각이 든다. 국민이 모두 열심히 일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이들의 얘기를 뒤집어보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 된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것은 박정희 때문이라기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라는 주장은 '북한경제가 낙후한 것은 김일성 부자의 위대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가 게으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는 주장과 꼭 같은 낮은 수준의 오류이다.

문제는 어떤 지도자의 어떠한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가이다. 여기서 박정희는 성공했고 김일성은 실패했다. 경제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부 통제의 효율성이 내려가고 심지어 역기능까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첫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일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잘된 일은 국민의 공이라는 것이 유치한 발상이다. 3공, 4공 때의 탄압과 인권유린이 정부, 특히 박정희와 무관하며 우리의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하는 어리석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인권유린은 박정희의 책임이요, 경제개발의 동인 창출은 그의 업적이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람시는 공산당의 조직을 논하면서 이를 군대와 장군의 관계로 비유했다. 그는 군대를 창군하는 일은 유능한 장군을 양성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장군들을 잃어버리면 군대가 와해하지만, 한 무리의 유능한 장군들이 군 수뇌부를 이루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힘을 모으면 없던 군대가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엘리트주의는 공산당 조직뿐 아니라 후진국 개발 독재체제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공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그가 오직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는 물론 권력욕이 남달리 강한 패도의 정치인이었고 권모술수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경제개발을 위하여 장기집권을 했는지 장기집권을 위하여 경제개발에 힘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한 후진국의 지도자가 박정희만큼 경제개발을 세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겠다. 개발독재가 오늘의 한국에서 백해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그 역사적 중요성을 망각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는 불행한 일이었다. 그는 무리수를 너무 극단으로 밀고 나가 결국 비명에 가고 말았다. 그러나 유신체제가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나쁜 것인지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 원컨대 북한이 하루속히 유신체제를 채택하여 일인독재와 효율적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남한과 북한이 국가 연합체를 배격하고 완전한 단일 통일국가를 추구하면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통합 이외의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의 남북화해에도 제일 큰 걸림돌은 남북한의 경제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공연히 1995년에 조국을 통일한다고 인민을 우롱하지 말고 북한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채택하여 10년 정도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정희를 폄하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절대빈곤을 없앤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가? 그까짓 것을 하려고 장기 독재를 했는가 하는 비판이다. 젊은 학생들이 주로 하는 주장인데 절대빈곤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그런데 제3세계의 절대빈곤을 얘기해보면 미국 학생들이 오히려 더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인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국학생과 미국학생이 다르지 않은데 한국학생이 더 참지 못하는 것은 절대빈곤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기 때문이리라. 이것은 졸부의 아이들이 부모가 고생하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너희는 복에 겨운 줄 알라고 하며 공치사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더구나 배곯은 자랑 다음에는 현실영합까지 강요하려 드니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화에 따르는 계급모순의 첨예화에서 이들이 정치화는 그 사실이 바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릿고개 이야기는 궁상떠는 기성세대의 푸념 정도로 무시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결코 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는 것은 딱하게 보인다.

굶주림은 간디 옹처럼 한 달 넘게 단식하다가 숨을 거두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의 삶, 동물적 생존 그 자체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타락과 별리현상의 전체를 포괄하는 무서운 진실을 뜻하는 것이다. 배고픔을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남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배고픔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단 한 세대 전의 체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50억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의 삶으로부터도 차단되어 있음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절대빈곤의 극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까짓 것'이 될 수 없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해마다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해외에

서 살아왔다. 한국의 학생들이 이념서적을 200권씩 독파한다는 소문이 퍼져서가 아니다. 이념서적 독파 정도가 아니라 그 책들을 써내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각고에 찬 노력과 성공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으며 박정희라는 개인의 지도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후진국 인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성공의 모범이요, 전형인 것이다.

개발에 힘쓰는 정치지도자, 그 이론가들은 박정희가 다른 저개발국에 나타난다고 해도 한국같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교육수준, 가족윤리, 노동규율은 제3 세계에서 예외였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으며, 1970~80년대의 국제 경제 환경이 한국 상품의 해외진출을 크게 도왔음을 모르지 않는단다.

그러나 절대빈곤 속에서 질식 상태.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한 인민이 강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큰 생산적 에너지로 동원될 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하다는 확신을 박정희는 이들에게 심어주었다. 한국은 세계 속의 희망의 나라가 되었고 박정희는 이 신화의 주인공이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시절의 행적, 즉 일본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일제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 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원수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박정희는 친일분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대일굴욕 외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굴욕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도 민족자존의 길임이 입증된 것이다. 젊을 때 만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무력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리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무모한 일임

을 알 수 있다.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은 거짓말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누구를 위하게 되는가? 아직도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박정희를 칭찬하는가? 이 글에 대하여 분개하고 필자를 욕할 독자가 많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하여 내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3공, 4공 세력에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설사 약간의 도움이 된들 나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는 흑과 백, 선과 악을 명확히 가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흑과 백을 포괄하여 파악하는 정치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더 높은 단계로 왔다.

지난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양심인사들이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보여 온 치졸 무쌍한 작태도 볼만큼 봤고, 독재자들의 큰 업적들이 새삼 돋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이 독재로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우리는 자기기만 속을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 글로 두고두고 욕을 먹겠다.

TAG 박정희의 공적과 과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5]

공감 5

왕추천합니다...이런글은 재독 삼독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본문내용중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굳게 믿은 일들을 무서운 집념으로 추진하여
번번이 성공시킴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했다.
교과서 읽고 원칙론을 맹신하는 선비, 수신제가 좋아하는 군자,
서구식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좌파이론에 중독되어 무아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모두 철저히 무시하고,
그는 오로지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철두철미 권력의 논리만을 따라
통치권을 극대화하여 경제 개발을 박력 있게 이끌어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다.》》

이부문은 그냥 암기해야 될듯....

2009.05.13 13:23:51

공감 4

심도 있는 글 잘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로 옮겨 갑니다.

2009.05.13 12:42:43

공감 신고

공감 5

왕추천합니다...이런글은 재독 삼독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본문내용중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굳게 믿은 일들을 무서운 집념으로 추진하여
번번이 성공시킴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했다.
교과서 읽고 원칙론을 맹신하는 선비, 수신제가 좋아하는 군자,
서구식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좌파이론에 중독되어 무아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모두 철저히 무시하고,
그는 오로지 마키아벨리의 군주처럼 철두철미 권력의 논리만을 따라
통치권을 극대화하여 경제 개발을 박력 있게 이끌어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다.》》

이부문은 그냥 암기해야 될듯....

2009.05.13 13:23:51

공감 신고

공감 0

연조님의 좋은글 박사모계시판으로 좀 가져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슴 드리고 가져가야 할지 모르겟어 이렇게 댓글로 인사 드립니다

양해구합니다 좋은글 박사모회원분들이랑 같이 볼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2009.05.13 22:03:09

[chosun]

조갑제-박정희가 진짜 민주 투사 였다 [10]

조회 280 | 찬성 47 | 반대 3 | 스크랩 0

박정희가 진짜 민주 鬪士 였다!

◦ 북한노동당 세력, 남한의 수구세력과 싸워
국가를 근대화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趙甲濟

朴正熙 서거 30주년, 역사적 再評價 메모

1. 박정희는 민주주의 건설자이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守舊세력을 상대로 국가를 근대화하고 민주주의를 키우고 자본주의 체제를 싸워서 지켜낸 진정한 민주투사이다.

2. 박정희는 애국자이고 열린 국가주의자였다. 민주주의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본 이다. 국가와 民主의 가치가 충돌하면 國益을 선택한다. 이게 右派정신이다.

-김대중은 國益과 私益이 충돌할 때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國益을 희생시켰다. 가짜 민주주의자이다. 일본인 납치범(신광수)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 보낸 가짜 인권운동가였다.

-박정희는 國權이 있어야 人權이 유지된다고 봤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 신장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정희는 군사문화를 건설과 개방, 근대화로 연결시켜 승화시킨 尙武정신의 수호자였다.

3. 박정희는 진정한 여성해방운동가였다. 여성을 농촌에서 도시로, 집안에서 일터로,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로 만들었다. 한국의 고달픈 여성들에게 부엌 개량으로 건강을, 연료 개량으로 가스 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을 선물한 사람이다.

4. 박정희는 최고의 知性人이고 교양인이었다. 知行合一을 이룬 사람이다.

5. 박정희는 고독하였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박정희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비난만 하였다. 그는 지식인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유신체제에 참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썼다. 함병춘 같은 소수 先覺者들의 참여가 있었을 뿐이다. 어용지식인과 반발지식인만 발호할 뿐, 생산적, 건설적 지식인의 참여가 적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으나 고향에서 핍박 받은 先知者이다.

6. 박정희를 死後에 살려 낸 것은 생활인이었다. 학자들이 뒤늦게, 좌익들은 요사이 무슨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그의 위대성에 놀란다.

7. 박정희는 大戰略家였다. 自助정신-自立경제-自主국방 건설의 3自 전략을 기초로 하여 先경제건설-後민주 및 後통일 정책을 폈다.

8. 그는 역사와 전통의 힘을 믿는 溫故知新의 보수적 개혁파였다.
9. 관중-등소평-이광요와 맥을 같이 하는 동양적 실용주의자였다.

10. 그는 자주적 관점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개발계획과 민족문화 진흥 등 每事에 투영하는 진정한 주체사상 실천가였다. 김일성은 가짜 주체사상가이고 실상은 사대주의자이다.

11. 그는 정신력과 말의 힘을 믿는 이였다.
12. 그는 말년에 부인을 잃고, 측근 관리에 실패하였다.

13. 그는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둔 이다. 자신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세력화엔 실패하였다.

14. 그는 민족사의 10大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 왕건, 이성계, 이순신, 세종대왕 등. 20세기 세계 10대 지도자의 班列에 들 사람이다.

15. 그는 회고록을 경멸하였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기록이고 회고록이라고 보았다.

16. 그는 이승만과 함께 생산과 건설, 그리고 진정한 진보세력의 챔피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은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깽판, 건달, 위선, 반역, 守舊세력으로 한 묶음이 될지 모른다.

17. 朴正熙를 읽고 전하는 것은 開發年代의 傳說과 神話를 가꾸는 일이다. 다행히 많은 분들(오원철, 김정렴, 고병우, 서영택, 남덕우)이 회고록을 썼다. 박정희 관련 책들을 학교, 도서관 등에 보내서 미래 세대가 읽게 해야 한다. 박정희의 傳說 속에 溫故知新할 유산들이 많다.

18. 박정희가 남긴 遺産-열린 자주, 전통의 발전적 수용, 실용정신, 군사문화의 생산적 이용, 국가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 시스템 관리-등을 건설적으로, 비판적으로 계승하면 자유통일과 一流국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

박정희의 민주주의觀

"제주도 밀감나무를 서울의 영하 20도가 되는 데다 그냥 갖다 놓았다면 당장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아래 글은 1975년1월14일 朴正熙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일부이다. 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그 토양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朴 대통령은 경제력, 제도, 국민 수준을 그런 토양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역사적 역할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박정희를 요사이는 '자유주의 지향적 권위주의자'(Liberal Authoritarian)라고 분류한다.

〈무슨 외국 언론 기관에, 미국 국회 의원들한테, 어느 학자들한테, 무슨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사실을 사실대로 써서 보내면 좋겠는데 전혀 허위 날조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마치 무슨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서 외국에서 어떤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석방시키겠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는데 대해서 나는 지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솔직이 말하면 이것은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 우리 나라가 하나의 자주 독립 국가로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뻗어 나가자면, 우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을 뽑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몇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후 이 지구상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기에도 한국 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이 한 50여 개 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130여 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 공산주의 국가를 빼놓고 기타 서방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를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 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직수입해서 성공해 가지고 지금 잘 해 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되느냐, 여러분들 한 번 꼽아 보셔요. 지도를 내놓고 보십시오.

동남 아시아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씩 다 홍역을 치르고 중병을 앓았어요.지금도 민주주의 소화 불량증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잘 해 나가는 나라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자기 나라의 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실정에 알맞게끔 이것을 잘 조화해 나간 나라는 비교적 잘 하고, 그렇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직수입을 한 나라는 열이면 열 전부 다 민주주의 병에 한 번씩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자라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갖다 심어 가지고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우리 한국 내에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 밀감나무를 서울 근처에 심어 보아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국내라도, 서울에 갖다 놓고 밀감나무가 자라나게 하려면 특별히 防風을 잘 한다든지, 온실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제주도하고 비슷한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지, 서울의 영하 20도가 되는 데다 그냥 갖다 놓았다면 당장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지금도 목장 우유라든지 끓이지 않은 우유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깡보리밥에 깍두기를 먹고 자란 뱃속이 되어서 그런지 목장 우유라든지 생 우유는 맞지 않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집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해방 후에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별별 것을 다해 보았습니다.

자유당 때 헌법, 민주당 때 헌법, 또 5 · 16후에 민정 이후 제3공화국 헌법, 다 해 보았지만 우리 나라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의 풍토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라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옛날 헌법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스

럽게 잘 살 수 있겠느냐…, 몇몇 정치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옛날 그런 헌법 체제로 돌아가면 정치인 만능 시대가 되고 그들이 활개를 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이 되고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즈음 그 사람들은 우리 나라 건국 이후에 어느 헌법이 제일 좋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2공화국 헌법이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즉 민주당 때의 헌법이지요.
그것이 자유 황금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기록을 보십시오. 내가 본 어떤 기록에는, 어떤 날은 하루에 전국에서 데모가 1천 여 건이나 일어났어요.

국민 학교 아동들까지도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러한 무질서, 자유를 빙자한 방종, 혼란, 비능률, 또 선거 때만 하더라도 과거의 그 선거 제도를 우리가 다 여러 번 겪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사회적인 혼란, 국민 도의의 타락, 또 그 병폐라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열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지금 체제를 철폐해 버리고 그런 낭비와 혼란을 되풀이하면서도 자주 국방도 잘 되고, 자립 경제도 잘 되고, 민주주의도 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병폐를 깨끗이 일소하고 국민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국력의 가속화를 해 보자는 것이 유신 체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도 서서히, 착실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은 고쳐서는 안 되겠다, 유신 헌법을 철폐하고 옛날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하고 싶습니다〉

[2009-04-13, 11:37] 조회수 : 483

best

공감 5

좋은 글을 보게 하여주신 ooo님의 건승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2009.04.13 22:23:03

공감 신고

공감 3

박정희는 國權이 있어야 人權이 유지된다고 봤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 신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정치철학을 작금의 위정者들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봐서도 그의 정치의 통치철학은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어느 통치권者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시대가 언제 입니까?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 하는 것은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조갑제씨의 지난 언급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군요,

요즘 조갑제씨의 정치적 언급을 비교한다면 너무도 상반된 글이라 안타깝습니다.

좋은 ㄱ

2009.04.13 22:20:40

공감 신고

공감 5

좋은 글을 보게 하여주신 ooo님의 건승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2009.04.13 22:23:03

공감 신고

공감 2

태권도 유단자가 되기전에 먼저 체력을 키워라 했지요

2009.04.13 22:26:44

공감 신고

공감 3

글내용을 다음에 치고

ooo님의 글을 누구나 글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4.13 22:29:14

공감 신고

공감 3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신헌법과 박대통령 각하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이 혼란도 그분의 위대한 업적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절하 하고 매도하는데 따른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지향했던 훌륭한 가치관을 계승하고 발전 시켰다면 오늘의 이혼란 없었다고 감히 자신 합니다

2009.04.13 22:37:26

공감 신고

공감 2

222님, 888님, 777님, 333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555님은 너무 과찬 이십니다.

2009.04.13 22:46:08

공감 신고

공감 1

444님의 댓글에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2009.04.13 22:52:27

공감 신고

공감 2

좋은글 읽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건필 하시길~~~~~~~~~~~~

2009.04.13 22:54:44

공감 신고

공감 3

조갑제님, 진작 대각하셨스면,

아니 이미 깨우친 것을 그대로 이행만 했다면

무례 집단에 정권이 넘어 가는 것은 없었을 터인데!!!

2009.04.13 22:58:10

공감 신고

[chosun]

박근혜 대표가 30년전에 찾아가 참석한 곳/ 박정희대통령 최후일터 기념비

2009.03.10 15:13

www.worldnews.or.kr

박근혜 전 대표가 30년전에 찾아가 참석한 곳

- 박정희 대통령 최후일터 기념비

이장춘 칼럼니스트, 2009-03-10 오전 2:59:12

▲ 박정희 대통령 최후일터 기념비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198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업무를 수행했던 KBS당진송신소!
이곳에 최후의 일터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다. 세상을 떠나신지 6개월이 지나,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 박정희 대통령 최후일터 기념비 제막식

당시 박정희 대통령 큰 따님 근혜양과 KBS최세경사장, 이치순감사,당진송신소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막식은 조용히 치뤄졌다. 사진 찍는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느냐고요? 그때 당진송신소에 근무하던 필자의 친지가 비밀리에 찍어 간직하던사진을 필자에게 건네준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진은 없고 제막식 모습도 뒷 모습만 보인다.

▲ 당진송신소 사원 가족들과 함께

허허벌판의 당진송신소 부근에는 민가가 없다.오직 직원들이 사는 사택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막 이사와 자리잡은 당진송신소 가족들이 박근혜님과 자리를 함께했다.

그 시절 박근혜님은 국회의원도, 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 최후의 일터가 여기라는 것을 알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왔고, 당진송신소 직원들과 가족들이 정겨운 자리를 마련했다.

격세지감이 있다. 30년전의 이 사진을 보며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다.

▲ 당시의 당진송신소 전경

2009-03-10 오전 2:59:12 □ worldnews.or.kr

이장춘 칼럼니스트의 다른 기사보기

[다음기사] : 북,우리측이 촉구한 군사분계선 통과 허용
[이전기사] : "2009 WBC 한국 vs 일본 9회말 대한민국 승리

위대한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2008.11.17 14:29

1.

더욱 잘 새기자!!! 그 분을 ... [3]

[2008-11-16 21:36:12]

조회 158 | 찬성 40 | 반대 1 | 스크랩 0

사실 "박정희 논쟁"은 중단되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한다..

안티들이 고인이신 경제한국의 국부를 역사의 진실과 동떨어지게
모함, 폄하함으로서 논쟁이 발단되었다고 본다.

그분 인간 자체보다도, 그분의 애족,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항상 되새겨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나라보단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근래의 위정자들을 볼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끔 한다.

"어차피 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라면 그리고 대선이 그들만의 게임이라면,
정치적으로 독재를 해도 좋으니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를 일으키는 유능한 지도자, 제2의 박정희가 그립다."고...

솔직히 그분의 화신을 애타고 찾고 싶은 마음뿐이다.

best

공감 2

박정희 논쟁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박정희 전대통령은 정열적이고 과학적으로 논쟁이 되어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후세를 위한 귀감이 되어야 한다. 누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논쟁을 기피하는가. 누가 박정희 전대통령이 무대에 올려지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부리는가? 얼마나 훌륭한 역사적 논쟁의 자료인데, 이를 무시하는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과정이고, 이 만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없다는 점도 주목하면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논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8.11.17 11:08:02

공감 2

선생님 오랫만입니다.

솔직히 내애마음이 그러합니다.

2008.11.17 09:38:30

공감 신고

공감 2

제 심정을 잘 대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008.11.17 10:34:37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11,14 박정희 탄신일 즈음 그분의 행적대한 단상. [5]

[2008-11-15 11:54:44] 조회 218 | 찬성 36 | 반대 1 | 스크랩 1

네이션코리아에서 오유지족 글을 펌 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백기완의 발언은 저주의 끝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백기완이 지금

77세의 노령에서 박정희와 유신에 대하여 자신이 새로운 고백을 오늘 어느 언론사 게시판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펌한 것이 있어 읽어 볼 기회가 되었다.

과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백기완인 것 같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잠재된 고정 관념의 탈을 벗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그 대칭면의 진실을 깨우쳐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가장 쉽게 가장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상인의 보통의 관점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다.

좌우의 이념적 개념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바라보는 시각의 괴리가 좁혀질 수 없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백기완 재야 운동가의 최근 고백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 같이 보이는 애국애족, 자유대한의 굳건한 재건을 위한 통치철학이 위대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기리는 많은 국민들이 감성적 향수가 아니라 어려운 난국에 대한 돌파구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이 나라에 그분과 같은 화신이 나타나기를 냉정한 이성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 그와 같은 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다행히도 이 시대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박근혜전대표 그분에게서 바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재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분명 박 전대표에게는 아버님의 통치철학을 바탕으로 다음 일백년을 풍요롭게할 지혜가 있을 것이다.

//
아래는 펌글입니다.

- 박정희의 유신과 백기완 선생의 고백 -
1972년 유신이 채택됐었고 사람들은 '유신독재'라 불렀었다.
그 시대는 세계적으로 어떤 시절 이었는가?
그 당시는 이미 민주주의 역사가 300년 되었다는
영국도 자치구인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연방선거권을 주지 않았을 뿐 만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을 구속할 때 재판받을 권리조차
가질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기도 했었다.

1972년. 그 유명했던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이
바로 이 불평등한 법의 통과에 저항하여 평화롭게 행진하는
시위대 민간인들을 향하여 영국군들이 무차별 학살했던 날이었던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미국은 어떠 했는가?
비록 흑인들의 저항과 희생으로 폐지되었지만 불과 30여년전만 해도
반민주적이고, 반인류적인 '분리주의정책' 이라는 '인종차별법'이
버젓이 통과되고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멀리 갈것도 없다.
당시 아시아에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한 국가라도 있었던가.
대만은 장개석이 국민당정부에 저항하는 대만인들을
수만명 무차별 학살했었고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아들까지 대대로 약 40년간
세습통치를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피의 숙청으로 100만명이상을 죽게 만들었다.

여타 다른 아시아국가도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던 시절이었다.
대만에 가 본적 있었더냐.
그렇게 많이 허물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곳곳에 서있는
'장개석' 동상은 마치 김일성' 동상처럼 수백 군데 버티고 서있다.

유신을 마치 대한민국의 나치정권처럼 떠드는 사람들이라면
장개석이 수 만명의 대만인들을 학살한
대만의 '2.28 사건' 정도는 알고 떠들어야 한다.

박정희의 유신시절.

당시 전세계 어느 나라도
그때와 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없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이 굶어죽는
쥐 보다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것 해결하는 것도 솔직히 막막했을 것이다.

박정희 집권시절.
김일성이 남한에 무장테러를 일으킨 사건만도 600 여건이 넘는다.
철책선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목없는 전우의 시체가
나딩굴고 있음을 흔히 볼 때였다.

밖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우며 나라를 지켜내야 했고
안으로는 '민주주의' 와 '인권' 으로 포장한
당신들과 같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사회 혼란 속에서 오로지
국력을 극대화 시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자...

힘이 없어 나라를 그냥 빼앗겼던 식민지 시절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절치부심하며 처절하리만치 비장했던
박정희의 차가왔던 가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더냐.

60년대 초의 대한민국 상황이란 어떠 했는가?
일년 정부예산의 80% 를 미국이 지원해 주었고
춘궁기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각 동네마다 흔하게 발생했었지만
뉴스거리 조차 안되었던 나라였었다.

어딜가나 영양실조로 인하여 얼굴에 '버짐'피운 얼굴들이 가득했었다.
현재 아시아 4대 작은 용이라 불리는 싱가폴, 대만, 한국, 홍콩...
그 당시 이북과 태국의 GNP가 150 불일 때,
다른 아시아의 용들이 약 400~500$ 일 때, 남한은 76$이었다.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잘 살아보세' 라고 외치면서
자본, 자원, 기술 어느것 하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그 3대 용들과 견줄만큼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것에 세계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 때가 그대들이 거품물고 독재였다고 말했던 『유신』 시절이었다.
일컬어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 이라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만 없다.' 하며
자주국방을 외치며
흔한 총탄 한알 만들지 못했던 상황에서 국산탱크와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국산 장비들을 양산하고 있었다.

가발 팔고 와이셔츠 팔고 쉐타 만들어 팔던 경공업 시대에서 지금 껏
한국인이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중화학 공업체계로 바꿔놓고 있었다.
이 때가 '국력의 조직화'를 꾀하자던 『유신』 이었다.

베트남이 패망하자
김일성의 오판이 심히 우려되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1979년 미국의 방위정책 변경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며
방한한 당시 미 대통령 '지미 카터' 와 언성을 높이면서
'철수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핵으로 무장할 것이다,' 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온몸으로 지켜내면서,
민족의 힘 없음이 서러워 그 힘을 키워내고자 했던
'국력의 극대화' 라는 것이 바로 『유신』 이었다.

전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오로지! 나라만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며 조국의 영광을 보고 싶어 근대화한 선진조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유신』 이었다.

1979년 박정희 死후, 미국 'CIA보고서'는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
독단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반면 카리스마와
서민적 이미지를 함께 갖춘 인물이었며
직관력과 통찰력을 겸비하면서 추진력이 강했던 인물이었다.
남한의 실질적 발전은 그로 인해 비롯되었고 ...(중략)

그의 일반적 생활은 청렴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민주화'를 외치던자들이 집권하여
그들끼리만의 잔치판을 벌이며 희희낙락대고 있을 때
우리는 안 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12년째 GNP 10,000 달러선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싱가폴은 GNP 32,000달러, 홍콩 22,000달러, 대만 19,000달러로 멀리멀리
날아가고 있었고 부러움과 찬사로 대한민국을 배우겠다고 하루 멀다하고
날아와 가르쳐 달라 머리를 조아리던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목덜미를 끌어 내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을 배우자 하며 전 공무원들에게 하루 한시간씩
박정희 교육을 시키던 중국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배워라' 하며
인민들에게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유신독재를 비난하기전에
유신이후 우리나라가 무슨 이유로 무너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인류사 및 세계사 통틀어서
18년간 집권하며 국부를 20배 이상 불려놓은 정치가가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
HT: 21px;

* * *

"과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백기완인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은 70세 넘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했나?
호랑이도 죽을 때는 굴(제집)로 찾아 와서 죽는 다고 했다.

인간은 70넘어야 세상에 이치를 깨닫는 다고 했던가?

백기완씨는
"박정희는 3만 국민에 못살게 굴었지만,
김대중은 4천만 국민을 못 살게 한 장본인이다."

님이 올려주신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글이나,
다시 읽어도 다시 그때의 그리움으로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비록 나만의 감정일까? 회심의 눈물일까?
그님 그 시대가 그리워지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사의 그리움일까요?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얼마간 승록님의 거취가 걱정이 되었답니다.

다시 講壇 해주셔서 이 정국을 매섭게 여지없는
질타를 속이 시원 하게하는 님이 십니다.

제발 계속해서 님의 글을 읽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인지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진심어린 업적을
질타하는 자에 마음 갈피 못 잡고 안타까운 회심의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진실한 님을 왜들 그리도 못 잡아 먹어 안달인지요!
이래서 못된 인간은 구원을 못 받는가 봐요?

암요, 암요! 우리나라의 청사에 영원히 길이길이 빛날 세계사적 영웅입니다.
우리 다함께 갈고 다듬어서 더더욱 빛날 우리의 국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8.11.15 12:48:37

공감 신고

공감 6
심정섭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필하십시오

어떤 놈들이 개나발불어도 박정희대통령의 그 위대한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은
더욱 더 우리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빛날 것입니다
2008.11.15 12:32:12

공감 신고

공감 7
얼마간 승록님의 거취가 걱정이 되었답니다.

다시 講壇 해주셔서 이 정국을 매섭게 여지없는
질타를 속이 시원 하게하는 님이 십니다.

제발 계속해서 님의 글을 읽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인지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진심어린 업적을
질타하는 자에 마음 갈피 못 잡고 안타까운 회심의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진실한 님을 왜들 그리도 못 잡아 먹어 안달인지요!
이래서 못된 인간은 구원을 못 받는가 봐요?

암요, 암요! 우리나라의 청사에 영원히 길이길이 빛날 세계사적 영웅입니다.
우리 다함께 갈고 다듬어서 더더욱 빛날 우리의 국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8.11.15 12:48:37

공감 신고

공감 2
심선배님 손선배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항상건강 유의 하십시요

뜨거우신 조으신글 만이들이 보고 또보고 항상가슴벅차오릅니다

감사 또감사 건강유의하십시요....
2008.11.15 20:32:21

공감 신고

공감 0
....
2008.11.15 20:33:02

공감 신고

공감 0
심선생님 좋은 글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 전대통령의 더할나위없는 애국애족에 새삼 가슴이 찡합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난,폄하하는 자들은 자기 부모를 죽이는 패륜아나
똑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죠.
건필하십시오.
2008.11.15 21:26:07

배경음악 첨부 완료 가사 | 뮤비

죽은 박정희와 살아있는 김대중 [22]

[2008-11-15 18:09:19] 조회 470 | 찬성 68 | 반대 7 | 스크랩 0

이미 이 세상을 떠난지 오랜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는
전라도 인간들의 어리석은 몸부림을 보면서 그 영혼까지
피폐시킨 그들의 우상인 김대중을 생각한다.

거짓과 사술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자가 제 일생의 영달을
이루기위해 전라도와 전라도인을 볼모로 삼았던 사악한
흉계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보고있다.

온갖 마타도어와 음해공작으로 탈취했던 정권이 10년만에
도로 넘어간 허망함과, 이제는 두번다시 집권의 기회가
오지않는 다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추종자들의 정신적
공황이 애처럽다.

살아 있어도 죽은 자는 김대중이다.
일찌기 붉은 사상에 젖어 일생을 살아온 매국노의 더러운
몸둥아리가 이제는 단지 생물학적 생존의 연명일 뿐이다.
추종자들의 지역을 제외한 거국적 멸시의 대상인 김대중은
이미 죽었다.

그러나 죽은지 30년인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있다.
이 세상을 떠난지 숫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영웅인 그는 이 나라 국민들 가슴속에서 불사조와 같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김대중은 죽었고 죽은 박정희는 살아있는 불가사의한
이 현실이 죽은 박정희를 저주해야하는 전라도 인간들의 비극이다.

찬성 | 반대 글쓰기 | 스크랩 | 목록

best

공감 9

ㅊㅊㅊ씨!! 그만하소...
녹음기 틀어놓듯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는건 이 토론마당에서 한인간으로 족합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황기언님의 말 어디 하나 틀린데도 없구만요..
30년 전에 박정희는 죽었어도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살아있고,구차한 목숨 부지하고있는 김대중은 이미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지 오래 아니오..
되도록이면 이런글엔 끼지 마시지요...그래서 욕 한번 더 먹으면 더 낫습니까?ㅠㅠ
2008.11.15 20:33:58

공감 신고

공감 7

우리 hhh님 오랬만에 뵙습니다...
정의로운 님의 글을 읽으니 역시나 민의는 살아 있구나를 느낍니다.
늘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008.11.15 18:15:33

공감 신고

공감 0

삭제된 글입니다.
2008.11.15 18:19:24

공감 2

왜.전설의 대쥬이와 죽어서 진토된 박통과 비교하나요?혹시 박정희귀신이 씌어서 오늘 낼 하능가?

2008.11.15 18:21:19

공감 신고

공감 4

대중의코딱찌만 못한것들이 지우상받드느라 연일 수고

피땀 코피 흘리는지알수가없소이다..

가만있으면 더올라가는 위신을 갸들은 왜까는지 하~~ㅎ~

그들이 멀리바라본 신세계는 우주도아니요 ..

상상하는 개정일이 품이 그리워 그리워 하는것이아니우..

2008.11.15 18:47:50

공감 신고

ppp

공감 6

한국 정치사의 명언 !

"죽은 박정희는 영원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김대중은 이미 죽었다"

이 명언이 두 지도자의 모든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2008.11.15 19:36:52

공감 신고

lll

공감 6

옳습니다.!! 맞습니다!! 강 강추!!

2008.11.15 19:49:56

공감 신고

ㅊㅊㅊ

공감 0

맹신주의자 모두 모이셨군요.

이래서 나는 한마디 하여야 한다.

박정희는 김형욱, 이후락, 정일권, 김재규, 박종규, 차지철, 전두환

이런자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려

결국

김형욱으로 인하여 박정희의 치부를 들어내는 많은 증언을 들을수 있었으며.

김재규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으며

박종규에 의하여 육영수가 죽었다는 카더라가 존재하며

전두환에 의하여 천문학적으로 나라가 도륙 당하고도 30만원 뿐이라던가!!! 허참!!!

아쉽게도 이정숙 이모님이 끼였군요.
조금 빠르게 제글이 적혔으면 이정숙 이모님은 끼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2008.11.15 19:55:51

공감 신고

공감 9
정수현씨!! 그만하소...
녹음기 틀어놓듯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는건 이 토론마당에서 한인간으로 족합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황기언님의 말 어디 하나 틀린데도 없구만요..
30년 전에 박정희는 죽었어도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살아있고,구차한 목숨 부지하고있는 김대중은 이미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지 오래 아니오..
되도록이면 이런글엔 끼지 마시지요...그래서 욕 한번 더 먹으면 더 낫습니까?ㅠㅠ
2008.11.15 20:33:58

공감 신고

ㅊㅊㅊ

공감 0
bbb님!! 그만하소...
녹음기 고장좀 내보시요.
고장을 내야(잘못을 지적해야) 다른 녹음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 xxx의 녹음기는 내가 고장내는 중입니다. 아셨오!!!
다른 글이 나오라고 말입니다.
2008.11.15 20:40:40

공감 신고

공감 8
맹신주의자가 다 모였다고 했나?
나이 환갑이라는 넘이 늙다리 노빠노릇하느라 주접떠는
너를 보고 내가 맹신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노무현이가 한국의 간디로 우뚝 섰다는 희한한
소리를 했으니 그 놈이 간디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만난김에 대답 좀 듣자.
2008.11.15 20:57:58

공감 신고

공감 0
ggg은 딴 소리 하지 말고
--
박정희는 김형욱, 이후락, 정일권, 김재규, 박종규, 차지철, 전두환

이런자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려

결국
김형욱으로 인하여 박정희의 치부를 들어내는 많은 증언을 들을수 있었으며.
김재규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으며
박종규에 의하여 육영수가 죽었다는 카더라가 존재하며
전두환에 의하여 천문학적으로 나라가 도륙 당하고도 30만원 뿐이라던가!!! 허참!

위 요대목 부터 부정글을 제대로 써보게,
그래야 나와 토론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정확한 반론을 제기 한다면 당신 소원 하나 들어 주지!

박정희의 위와 같은 것이 사실인데 무슨
황기언의 위 본문글이 가당한가
2008.11.15 21:08:54

공감 신고

공감 7
나는 니가 주절데는 소리에 애시당초 관심없다는 것 알지?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노무현이가 어째서 한국의 간디로 우뚝 섰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 무저항 단식투쟁을 했던 인도의 간디와
청와대에 죽치고 앉아 385 주사파 쫄개들과 나라 망치는데 골몰했던 그 놈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대답 좀 해봐라.
2008.11.15 21:22:10

공감 신고

공감 6
cc..내말잘들어봐..박정희 부하들이 그래서 뭐어쨌다는거야??세상에 그 어느보스도 부하들한테 배신은 다 당해..노무현이는..지금의 지를 있게한 김영삼이 배신한거는 왜빼먹어??..호남을 기반삼아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되구 이제와서 민주당에게 호남정치에서 벗어나라구 외쳐대는 그 노무현..민주당 배신하구 자기 지지세력규합해서 열린우리당 만든건 또 어떻구??..어째서 넌 눈깔이 그리두 사시냐??..이승복 사건 육영수 여사사건 다 자작극이라구 말하고픈가본데..북한과 관계된 그 사건들을 왜 자작극이라 하는지...증거를 대바..그리두 북한과 공조하고픈거냐??
2008.11.15 22:01:09

공감 신고

공감 5
조토마의 푼수 지킴이 hhh님

죽은 (돌아가신) 박정희가

산 대중이를 잡듯

한 줄 촌철로

우리 수현이 아제 열 잡설을 잠재우는 필력

단연 돋보입니다

기립 박수 보냅니다

필~~~~~씅 !!
2008.11.15 22:24:47

공감 신고

공감 0
그리고 눈깔이 사시니 어쩌니 인신공격성 발언은 토론마당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글은 나를 비하하는 발언인데 내글에 대하여 완곡히 반론을 제기하여 제압하심이
옳코 정당할 것입니다.
나역시 ooo님의 신체를 가지고 비하할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아셨오.
2008.11.15 22:46:27

공감 신고

공감 0
대글이 떨어졌오, 한마디만 할랍니다.
다른 글은 댓구의 가치가 없고 오세훈의 글에 한마디 할랍니다.

박정희가 배신을 당한거 인정하였으면 되었오.
그러나 정작 박정희가 배신 당한것 보다는 그들에게 결국은 당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김형욱에게 당했고, 김재규에게 당했고.
2008.11.15 22:47:07

공감 신고

공감 0
그리고 lll님께서는 정말 한심하오.
황기언의 글을 잘 지켜 보시요.
내글을 쫓아 다니다가 얼마나 지워지는 가를~~~
그런 자를 두둔하는 임용섭 인격이 매우 돋보이오이다.

계속 그렇게 하시요.

fff의 깨진 녹음기는 그 수명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볼일이다.
2008.11.15 22:51:44

공감 신고

공감 6
이제 아제 대신 조카가 나왔구나

그래 cc아

젊어서 나쁜 친구 만나 마약도 입에 대고 할 수도 잇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 지난날 뉘우치며 회개하고 그러잖냐 ?

나이 들어서도 그 버릇 못 고치면
아니지 그게 왜 나쁜지도 모른다면

푼수 소리 듣고 그리 한단다

알앗찌?

그라고

자기가 쓴 글에 지 입맛에 안맞다고 토론장 아저씨게 전화해서
남의 글 지우고 하는 짓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파렴치한 짓이란다

지선아

ucc 알지

앞 뒤 꽉 맥힌 사람 되지 말거라

요번 수능은 잘 봤니 ?
2008.11.15 23:16:54

공감 신고

공감 5
부녀 등장인가?

어떤 넘이 나왔던 너 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니 잘 듣도록해라.

너 지금까지 내가 글 지워지고 정지 당하는데 주눅들어 할말 안하는 것 봤나?
그 따위 등신같은 짓은 너나하는 것이다. 이넘아, 지워질줄 알면서도 쓴 것이니 너만 보았다면 된 것이다. 이제 아셨나?

2008.11.15 23:38:53

공감 신고

공감 3
아놔...박정희가 지 부하한테 당한게 토론할만한 주제라도 돼나??토론을 하구싶으면 제대로된 의제를 들고 나오던지...이건 무조건 이미 죽은사람을 끄집어내서 별 논할가치도 없는 말만 하구...한가지만 묻지요...박정희가 부하들에게 당해서 뭐 어쨌다고???
2008.11.16 01:18:30

공감 신고

공감 3
hhh님께 찬사를 올립니다.
2008.11.16 07:31:49

공감 신고

공감 3
에구 불쌍혀라 우리 cc이 어린 조카가 이런데 와서 욕본다
2008.11.16 08:20:20

공감 신고

공감 3
이제 지욕쳐먹기싫다고 딸래미 이름가지고팔고있네.
조금있으면 아주팔아먹을라나...
사위보았다 소문뜨던데...
어찌된거여~~~
딸래미 id이제는 않되는거아녀~~~
2008.11.16 16:20:35

[chosun]

박정희대통령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5]

[2008-11-06 09:40:33]

조회 253 | 찬성 36 | 반대 2 | 스크랩 0

박정희대통령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를 실천한 지도자가 있을까?
전두환은 7년간 수천억을 꼬불치고 동생 등 친인척들에게
온갖 이권을 나누어 주었고,

노태우 역시 5년간 대기업에서 수천억을 뜯어내고 재벌가와
사돈을 맺은 후 특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김영삼은 그 아들이
수많은 비리에 개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역시 그의 자식들이 비리로 감옥을 제집같이
들락거렸으며 자신은 부귀영달을 위해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다.

내 주변엔 문제될 사람이 없다고 장담했던 노무현대통령은
그의 사돈이 653억 원 펀드모금 의혹에 관련되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가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 졌다.

그럼 박정희대통령은 어떨까?

그가 사망 이후 그의 정적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의 비리를 찾아 보려 했으나 단 한 건도 발견된 것이
없고 또, 자식들을 위해 그 어떤 특혜도 베푼 것이 없다.

인간은 자식을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망은 그 끝이 없음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물 시계를 팔에 차고 있었을 뿐,
단 한푼의 재산도 자식을 위해 물려 준 것이 없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도
팔자를 고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연 인간 박정희가 얼마나

청렴결백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 안이겠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살았던 修身(수신)
그리고 '정(正)', 이것이 바로 인간 박정희였다.

그런 그가 齊家(제가)는 어떠했을까?

육영수여사 친정조카가 군에 입대하여 면회를 갔는데
훈련중이라 안된다고 부대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육영수가 분개하여 박대통령에게 하소연하자,
그는 부대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포상까지 했다고 한다.

어느 날이었다.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아침,
초등학교 6학년인 장녀 근혜양을 운전병이 지프차로
등교를 시켜 준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 사실을 알게 된 박대통령은 근혜 양을 불러 꿇어 앉혀놓고,
'그 차가 니차냐, 아버지 차냐?'하고 힐책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차는 나라 차야, 나라 차를 니가 감히 등교용으로
쓸 수 있느냐 말이다! '

이렇게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엄격한 교육으로 자식들을 교육했다.

그럼 자신의 누님에겐 어떻게 대하였을까?

그가 대통령이 되였을 당시 누님은 무척이나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동생에게 좀 도와 달라고 어려운 부탁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그만두면 그때 잘 모시겠다며 외면해
결국, 대구에서 우유 배달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 등에 업고 다니며 극진히 돌봐 주시던 누님!!
그것도 딱 한 분인 누님이 그렇게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토록 냉정하게 뿌리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분명 총을 들고 혁명을 일으킨 진정 메마른 눈물을 가진
감정 없는 그런 차가운 인간 이였기에 그랬을까?

피를 나눈 혈육의 정까지 마다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며
사리사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관이 확실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 4,000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요 리더자인
박정희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라!!
부정부패,
온갖 비리로 국민에게 실망과 분통만을 안겨주었던 후임 지도자들을….
박정희대통령을 폄훼하려 발버둥치는 좌파들, 이들을 보란 말이다.

장관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제 자식 취직자리부터 먼저 챙기는
썩어빠진 것 들이 개혁을 외치며 박정희대통령을 매도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후임 지도자들을 보면 그의 위대함은 더욱더 빛날 뿐이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이를 실천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기사화 회고록 전기로 발표되어
모두가 일반이 다 아는 사안이라도 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라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체험 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박정희 행적 통치철학을 계속 올려 주시면
자라는 세대에 올바른 귀감이 될 것입니다.

님이 올린 지난 10년의 좌파들의 집권으로 진실이 사술로 뒤덮여
자라는 동량들이 왜곡된 오해를 불식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2008.11.06 11:54:17

공감 신고

공감 0

본글에 딴지,
박정희의 수신제가 평천하라는 말은 자신의 허물을 절대 모르고 적은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아내에게 재떠리를 던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본다. 박정희가 육영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육영수에 의하여 박정희가 다스려 진 것이라 본다.

나는 박정희의 아내 육영수를 존중한다. 그 분은 청와대 내 야당이라 했던가!!

당시 대한민국에

박정희를 거스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육영수 이분이 박정희를 거스르다 박정희가 던지는 재떠리로 이마를 맞았다.

거스른다는 표현은 박정희를 위주로 쓰면 맞다.
2008.11.06 10:01:55

공감 신고

공감 0
육영수 위주로 쓰면 박정희의 못된짓을 깨우쳐 주다 못된 박정희에게 이마를 맞은 사건이다.
그것도 여당은 감히 이며, 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육영수가 박정희에게 깨우쳐 주다 생긴사건이다.

요즘은 개도, 돼지도, 소도, 말도 대통령을 거스리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므로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거스리지 말고 협조하여야 된다고 본다.

노태우 이후 국민은 대통령을 협조하였어야 한다.
나는 이런 글을 올렸다

대통령은 남편, 국민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덕으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박정희(남편)는 국민(아내)을 덕으로 이끌었는가
그는 폭력(삼선이후)으로 이끌었다.
2008.11.06 10:05:58

공감 신고

공감 7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기사화 회고록 전기로 발표되어
모두가 일반이 다 아는 사안이라도 님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라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체험 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박정희 행적 통치철학을 계속 올려 주시면
자라는 세대에 올바른 귀감이 될 것입니다.

님이 올린 지난 10년의 좌파들의 집권으로 진실이 사술로 뒤덮여
자라는 동량들이 왜곡된 오해를 불식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2008.11.06 11:54:17

공감 신고

공감 2

삭제된 글입니다.
2008.11.06 13:04:46

2008.11.06 13:05:36

공감 0
하며 진행중이었는데 쿠데타를 통해 들어선 무지한 군사정권이니...분명 돈이 궁할 것은 뻔한 이치 일본의 간교한 술책에 휘말려 끌어 들어온 돈이...5억불의 차관(오늘날 물가지수등등고려시 지금 안고 있는 빚이라고 볼수있음),그리고 3억불의 무상원조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일본의 기계로 소니등등 받다보니...결국 기계의 잦은 고장때마다 부품을 수입하고 기술진을 모셔오다 보니
ㅎㅎ 1997년 IMF올때까지도 일본의 경제식민지가 된 것을 당신님이 어찌 알수 있을까요..더욱이 피해보상을 가까운 필리핀,태국,버마(지금은 미얀마),말레이시아,중국등은 무상으로 식민지배 부로가 1-3년에 불과함에도 3억불에서 15불까지 무상으로
2008.11.06 13:16:00

공감 신고

공감 0
원조를 받았는데...우린 뭐야 기술로 기계로 받았으니...3억불이 아니라 따지면 그의 1/10밖에 몬 받았다는 것을 님은 알기가 하는지..게다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술국치로 부터 친다면 36년이지만 실제 불평등조약인 1876병자수호조약 부터 친다면...71년간이가...식민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3억불에 1/10밖에 안되는 기계원조와 차관 5억불을 받아 놓은 것은 ㅎㅎ
참으로 웃기는 졸렬한 협상이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불합리한 한일국교회담을 반대하여 데모를 하신분이 이명박 이재오 김문수 손학규란 분들임을 촌녀가 과연 알기나 하고 이런 글을 쓰는가?
2008.11.06 13:23:17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박대통령은 친형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배경음악 첨부 완료 가사 | 뮤비

? [2]

[2008-11-06 09:18:17]

조회 394 | 찬성 36 | 반대 2 | 스크랩 0

박대통령은 친형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봉하마을 인근
에 9조 6600억 원을 들여 무더기 개발'이란 기사를 보니
참여정부가 그렇게도 비난하던 박정희대통령이 생각났다.

박정희대통령 친형인 박동희씨는 동생이 대통령 되었으니,
힘든 농사 그만 짓고 서울에 올라가 편히 살라고 친구들이 권유하자,

동생이 대통령이지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끝내 청와대 한번
가지 않고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꾼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고한다.

그런 형을 박대통령은 어떻게 대하였을까?

형 박상희씨의 무덤에 진입로가 없어 차가 들어가기 어려웠단다.
당시의 위세로 보아 말 한 마디면 형의 묘를 왕릉처럼도
만들 수 가 있었지만,

가정의 일인지라 시키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그 형의 외아들이 공사를 해서 길을 좀 넓혀 놓았는데
그 소식을 비서로부터 전해 듣고는 그리도 좋아하더란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각 고을마다 마을 길을 넓히라고
철근과 시멘트를 마구 퍼주면서도

막상 자신이 존경하는 친형의 무덤가는 길은 공사를 못 하던
대통령을 보면서 요즘 사돈의 팔촌에 학교 선후배만 되도
막강한 이권과 자리를 주는 위정자들,…….

어찌 과거사 중, 제 가슴에 아픈 것만 보이고,
이러한 통치자의 덕은 배우지 못하는지.
그저 소태를 씹은 듯 입이 쓰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5
참으로 가슴이 쓰린 글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사로움을 척결할 통치자가 나와야,
그런 측근들 위한 정치를 발본색원할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하는 정치의 진실입니다.
2008.11.06 11:39:00

공감 신고

공감 0
위와 같은 글이 박정희 장기집권 19년에 의하여 국민이 언론에 권력에 세뇌되어 나온 글임을 간파하여야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7곱명의 간신을 곁에 두고 정치를 하였다는 것이 박정희를 단적으로 평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명 중에 한분은 대통령을 죽인 분이고, 한분은 대통령이 되어 천문학적으로 대한민국을 도륙낸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하도 많이 거론하여 7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 궁굼하면 내 글에 많이 표현 되어 있으니 찾아 읽어 보세요.
2008.11.06 10:00:00

공감 신고

공감 5
참으로 가슴이 쓰린 글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사로움을 척결할 통치자가 나와야,
그런 측근들 위한 정치를 발본색원할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하는 정치의 진실입니다.
2008.11.06 11:39:00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박정희가 왜? [8]

[2008-11-05 21:24:23] 조회 411 | 찬성 60 | 반대 2 | 스크랩 1

건국과 함께 선진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만든 이승만정권은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한 조국의 현실과 헌법과의 괴리를 부정선거로 메우려다 하야 한다. 이승만의 카리스마가 실종된 정치풍토에서 장면정부의 내각제 실험은 민주당의 분열로 지도력의 약화를 불러와, 이는 4.19로 촉발된 민주화를 내세운 좌익의 준동으로 이어지고 이들 좌익에 대한 통제 실패는 사회불안과 민심이반으로 결국 군부의 등장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4.19학생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다." 박정희는 1963년에 낸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은 군사문화가 가진 실용성과 효율성. 자주성.부국강병이라는 뚜렷

한 목표와 이념은 군사문화의 필연적인 획일성의 부정적인면을 압도하여 근대화라는 국가개조를 가능케한 주체세력이된다. 당시 군부의 장교단은 외무부 직원들보다 많은 10% 이상이 미국유학 경험자들로 한국의 최선진 개혁집단으로 부상한다.

박정희정권의 근대화를 위한 국가개조론의 핵심은 기업인,군인,관료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여 이들이 근대화 혁명의 주체세력이 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한 실사구시의 실용이다. 민주주의는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토대위에 가능하다는 그의 자주적 민주주의관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된다. 빵 다음에 자유라는 그의 한국적 민주주의론은 후발 개도국의 개발전략을 뒷받침하는 국가지도이념의 한 모델이 되어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한 박정희의 리더십은 정신적(자조),경제적(자립), 국방과 정치(자주)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하에 경쟁개념을 도입한 발전론으로 집약된다. 박정희식 세계화 전략으로 수출입국 정책,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파병, 중동건설 시장 진출로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대시킨다. 그의 수출입국 전략은 6 · 25전쟁 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온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공업화 발전전략을 굳혀 수출입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64년 1억불수출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제정할 당시 이웃인 일본이 수출 54억달러였고, 필리핀 ·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가가 5억~6억달러, 심지어 북한이 2억달러가 넘었다.

72년 유신을 계기로 국력의 조직화와 효율의 극대화에 성공한 박정희는 중화학 및 자주국방에 매진한다. 73년 불어닥친 석유파동 극복과 중화학공업 추진은 유신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유신7년간 고도성장의 발판으로 필리핀,말레이시아등 을 추월하여 질적으로 다른 국가로 승격하기에 성공한다. 군의 현대화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축적과 국책 연구기관의 창설등으로 근대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한다. 이시기에 언론 및 정치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기도 했으나 정치의 코스트가 최소화 되면서 공직자 부패도 역시 최소화 되었던 시기이다.

5.16혁명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60달러 내외였다. 70년 포항제철을 건설할 당시도 북

한의 370달러 보다 뒤진 250달러 내외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13위의 경제.통상대국과 민주화를 함께 성취했지만 북한의 현재 생활 수준은 어떤가? 조선조 500년에서도 최악으로 기록된 철종 고종 시절보다 못한 삶을 살고있다. 그래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박정희는 3만의 반체제인사들에게 독재를 하였을지언정, 3천만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었다.” 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랑스런 성취 위에서 좌파에게도 10년간의 집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라의 근간(根幹)을 부정하는 패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권력의 단맛을 잊지못해 몸부림이다.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은 현재 중국 지도부의 이상적 국가발전 모델로 가치를 인정받고있다. 중국은 지난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세계질서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려는 장대한 꿈에 부풀어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주석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과 "선부론(先富論)"을 변형시킨 "조화경제론"을 주창하고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조화사회 건설은 부의 양극화를 차단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척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후진타오는 조화경제의 이상적 모델을 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정신에서 그 가치와 정신을 찾은것이다.

등소평 생전에 수시로 한국의 박정희 정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듯이, 리콴류 전 싱가포르 수상도 21세기 리더십의 요건으로 "박정희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RAND 연구소의 오버홀트 박사도 1989년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책에서 등소평의 실용정책은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언급한바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한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협약을 체결해 중국 전국의 농업공무원 35만 명을 차례로 한국에 보내 새마을운동 연수훈련을 받게 하고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전략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자랑스러워 할 박정희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류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인양 행세하고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미국의 글로벌 CEO들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박정희정신을 유신잔재, 권위주의 시대 폐기물, 독재와 인권

탄압의 도구, 군사 정부의 집단문화 유산으로 치부하고 초.중 .고 학생들에게 까지도 "박정희는 나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혈안인 부류가 지금도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군 창조적 정신과 발전적 역사의 가치마저 철저히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신의 파괴를 도모하고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자는 애국애민정신은 과거 독재시대의 망발이라고 호도하며 다른 나라들이 애써 배워가는 박정희 정신은 좌파정권 10년동안 정치권, 교육계, 산업계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결같이 외면했다. 오히려 이를 용도 폐기시키는 것이 민주요 인권이라고 떠벌리면서 정치와 권력, 노동과 인권, 환경과 교육 현장 곳곳에 반미와 친북의 도구로 이용한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그런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가?

TAG 한심한 인간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애국애족의 참된 글이다.
이를 부정하는 자는 나는 단연코 빨/갱/이로 간주하겠다 !

붉은 무리가 아니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2008.11.05 21:44:58

공감 신고

공감 0

김윤경님,

님의 글은 〈전형적인 박정희 신화론〉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를 제공하신 듯 합니다.
김윤경님은 크게 두가지 주장을 하신 듯 합니다.

1. 유신체제였기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석유파동도 넘길 수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의 현재 경제위기도 유신체제로 가면 극복될 수 있습니까?

2.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박정희 체제가 널리 인정받는다.
---〉그런 나라들은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등 후진국이 아닌지요.

보다 자세한 반박글은 나중에 써 올리겠습니다.추천 한방 누르고 갑니다.

.
2008.11.05 21:38:00

공감 신고

공감 7
애국애족의 참된 글이다.
이를 부정하는 자는 나는 단연코 빨/갱/이로 간주하겠다 !

붉은 무리가 아니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2008.11.05 21:44:58

공감 신고

공감 3
심철주님 안녕하세요?
며칠만에 들어왔는데 변함없이 박정희전대통령이 인기입니다.

임충섭님도 여전하시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8.11.05 22:04:33

공감 신고

공감 0
역사공부 다시하세요. 마치 일본 극우파 논객들이 하는 말 듣는 것 같군요. ㅠㅠㅠ
2008.11.05 22:48:38

공감 신고

공감 1
삭제된 글입니다.
2008.11.05 23:53:49

공감 0

김윤경님,

보면 볼수록 님의 글은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중인데, 님의 글을 발췌해도 되겠는지요.

아, 그리고 저를 너무 미워 마세요.
참고로, 지난 총선때 제게 가장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지지자였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제가 친박 무소속인줄 알았다고들 하더군요. ㅠㅠ

/
2008.11.06 03:52:06

공감 신고

공감 1
좋아 그러면, 임충섭님은 친박의 한 흐름으로 인정함. 친박이라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지 말라는 법은 없음. 사실 사천의 강기갑도 친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이제 이들 모두 범박으로 분류하고... 위기가 닥치면 구국의 전사들로 재무장하시도록 .... 휴전선은요? 라는 명언을 (이를 부정하는 인사들도 더러 있더라만) 항상 명념하면서.... ^*^
2008.11.06 09:17:47

공감 신고

공감 1
김유경님,
박정희의 시대의 총체적 상황을
박정희의 시대의 국내 현황을
박정희의 시대의 해외 상황을
박정희의 이념 사상을 바로 전달해 주신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국가, 국민, 부국위한 유신이
필요했던 절박한 사항이었습니다.
2008.11.06 11:13:39

공감 신고

공감 0
황동욱님 심정섭님 감사합니다.
역사 왜곡에 열심인 자들이 오늘도 바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찬희님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것이 맞겠지요?

저는 이찬희님이 안타깝습니다.

2008.11.06 13:38:36

[chosun]

[펌] 박정희와 김대중 /니들이 박정희와 노무현을 비교해?

2008.11.08 13:03

박정희와 김대중 [10]

[2008-11-06 12:22:52]

조회 435 | 찬성 64 | 반대 2 | 스크랩 0

며칠 토론방을 들여다보니 박정희대통령과 김대중을 비교하며 박정희대통령을 주구장창 씹어대는 놈들이 있었다

박정희와 김대중
김대중이 종이비행기라면 박정희는 스텔스전투기
김대중이 노점상이라면 박정희는 대형마트
김대중이 리어카라면 박정희는 제네시스승용차
아니 이렇게 비교하는것만도 박정희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기에 그만둔다

아니 어떻게 박정희대통령을 김대중같은 인간하고 비교하는가

그분의 그 위대한 애국심은 세계 어느위인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로지 사심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온 박정희대통령
정말 역사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살다간 이나라의 청백사 박정희대통령

평생을 거짓과 위선으로... 검은돈에 의혹으로 살아온 김대중

하기사 김대중이 정치하는 동안 검은돈에 연루 안된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말바꾸기를 지적하면 원칙을 어긴적은 없다고 괴변늘어놓고
거짓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거짓말 한적이 없다고
천하의 사기꾼들도 울고 갈 소리 해대던 김대중

이제 박정희대통령과 김대중의 비교를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 해보겠다

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인 지만이는 육사에 다니던 시절 술집에서 수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 것을 안 박정희대통령이 박종규를 불러 수표를 지만에게 건넨 기업가를 알아보라고 해서
그 기업가를 혼쭐나게 만들었다 아들이 용돈정도로 받은 돈에도 공사를 구분하며 가혹하게
처신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이어 운명하신뒤 심성이 다소 심약했던 박지만은 여러차례
마약에 손을 대었고 거기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뤘다

이제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아이까지 있는 가장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
비록 마약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루고 했지만 박지만이 남의 돈 사기쳤다는 소리 못들어봤고
남에게 못할 짓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박근혜는 더 말해 뭐하랴
아버지의 서거소식에 혼절할 것을 대비하여 사람들을 대동하고 간 비서관에게

휴전선은 요?

하고 되물어서 비서관을 당황하게 만든 당시 27살의 저 처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인
이명박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서거소식에 울어지쳐도 시원치않는 20대의 저 처녀가 먼저 나라걱정을 했다는 것은 박정희의
위대한 애국심을 보고 자라지 않았다면 감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의 그 빛나는 애국심을 보고 자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 방법을 보고 자랐고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혁대와 다 헤어진 와이셔츠소매끝을 보고 아버지의 검소함을 배우고
자랐다

정치를 하고 부터는 우리국민의 어려움을 더 아파했고 자신을 지지하다 공천에서
탈락하는등 자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다 더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치하는 놈들중에 우리가 어디 저런 진솔한 눈물을 본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김대중의 아들들은 어떠했는가

아버지 대통령되자말자 온갖 검은 곳에 연루되었고 돈받아 처먹다가 모조리 감옥에 갔다
아버지를 닮아서 인지 남을 믿지못하는 의심병이 심한 둘째 홍걸이는 받아 처먹은 돈
자기집 베란다에 쌓아놓고 쓰다가 들통나서 감옥에 갔다

그놈의 뻔뻔함 극치는 감옥에 갔다와서 명예회복운운하며 보궐선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들의 자숙을 권해야하는 김대중마누라는 아예 선거운동전면에 나서서 활동했다

명예회복...나는 도적놈이 감옥갔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명예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놈이 명예가 있다면 뇌물받아서 처먹고 감옥에 있는 놈들도 모두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오늘 문득 박근혜를 생각하면 그 자식에 그 아버지라는 말이 떠올려진다

2012년에 박근혜대통령탄생을 두손모아 기원해 본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시원 한 소리를 하시는 손승록님 !
오늘도 한소리 하셨군!ㅎㅎㅎ 이럴때 시원하다고 큰소리로 웃어야지요! ㅎㅎㅎㅎ
2008.11.06 12:31:50

공감 신고

공감 3
손승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 다녀오시기라도 한 겁니까. 혹시 건강이라도...어쨌든 참 반갑군요. 건필하기기 바랍니다.
2008.11.06 12:28:49

공감 신고

공감 7
시원 한 소리를 하시는 손승록님 !
오늘도 한소리 하셨군!ㅎㅎㅎ 이럴때 시원하다고 큰소리로 웃어야지요! ㅎㅎㅎㅎ
2008.11.06 12:31:50

공감 신고

공감 2

손승록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님의 글을 봅니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2008.11.06 12:40:48

공감 신고

공감 5

안녕 하세요?
손 선생님.

정말 차기지도자에 朴의원이 선출되어 흔들림과 혼란없는 민주주의정치의 재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보수같잖은 사이비보수들의 혹세무민하는 간교한 혀 놀림에 그 들을 지지하였던 많은 세월을 고생한 민초들의 열매는 오간데 없어졌고 더욱 같잖은 또다른 사이비의 등장을 허락함으로 자괴감을 갖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비젼을 제시하는 朴槿惠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싶고 갈망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필하세요.
글 잘 읽엇읍니다.

coffee" 한 잔 올립니다.**
2008.11.06 12:47:05

공감 신고

공감 2

손승록 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2008.11.06 12:47:48

공감 신고

공감 3

손승록님 참으로 오래간 만입니다.
혹이나 건강상 무슨 문제가 아닌 가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다시 날카롭고 정의로운 님의 글을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 하시고 우리 공동 목표위해 매진합시다.

질타하신 글이 매우 공감되며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중이란 백만 명을 때려 모아도

박정히 하나 못 당하고도 오히려 해만
더 끼칠 인간인 것은 만천하가 다 압니다.
2008.11.06 13:45:21

공감 신고

공감 2
지금 여러분들의 염려해주신 글을 보았습니다

이지균님 박국치님 김윤경님 김종득님 황기언님 심정섭님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모든 애국논객님들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08.11.06 14:26:19

공감 신고

공감 2
돌아온 속사수,조토마의 호걸 손승록님 참으로 오래만이외다.
소생도 정일창이 맞글쓰다 한번 짤렸다 글 모두 삭제당하고 박대통령 관한 몇편만 살어있는 형편이외다.
자주 나타나 주시구려 ㅎㅎㅎㅎ
2008.11.06 20:56:38

공감 신고

공감 1
아이구머니나~~이분이 누구더라?? ㅋㅋ
기다리다 목 빠졌습니다.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어 고속도로같은 글~~
내는 마 다른 곳에 펌합니다. 저작권법으로 잡아가던지 말던지 승록씨 니마음대로 하이소
2008.11.07 00:42:28

공감 신고

공감 1
통쾌하고 화끈한 정의의 사자후, 손승록님 드디어 돌아 오다! "경축!"

아니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요?
너무 궁금해서 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이제 애간장 태우지 마시고
종종 뵙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죽마고우 만난 듯 매우 반갑습니다.
2008.11.07 00:53:57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니들이 박정희와 노무현을 비교해? [2]

[2008-11-06 13:11:40] 조회 448 | 찬성 90 | 반대 2 | 스크랩 0

니들이 박정희와 노무현을 비교해?

참여정부 때 이백만 홍보처 차장이 인터넷 국정 홍보
사이트에 박정희가 〈자동차, 고등학교 교장 〉이라고
한다면

노무현은 〈비행기, 대학교 총장 〉격이 된다며
박정희대통령을 비교, 비난 비하하였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을 홍보하는데 까지, 박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랬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만만해서일까?

역대 대통령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왜 하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냐 이 말이다.

하기야 전생에 무슨 철천 지 원한이라도 있는지
박 대통령이 쓴 광화문 현판도 뜯어내고,

그 시절에 심어 젓다 해서 나무까지 뽑아 내 그의
흔적까지 지워버리려 발버둥치는 것 보면
알만도 하겠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
청와대 홍보수석 팀까지 발벗고 나서서 이랬을까?

참여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려 태어난 정권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보자!
과연 박 대통령과 노 대통령, 비교될 수 있을지?
우선 나이 차이가 몇 년인가?

박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90세,
노 대통령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그러니 웃기지 않는가?

또, 사범학교를 나온 육사 출신과 상고 출신을 비교하고
육군 장성 출신과 상병 출신을 비교하니
진짜 웃기지 않느냐 말이다.

이뿐인가?
총을 들고 구국에 일념으로 목숨 걸었던 지도자와
노란 돼지 저금통에 촛불 든 젊은이들 선동하여
대통령이 된 지도자와 비교하니 말이나 되는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직책으로 알고 코피 터지게 일했던 지도자와

대통령이 되였다고 '맛 좀 볼래' 권위 세우는 지도자와
비교하니 참으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근대화된 선진조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데 도와 주진 못할망정
훼방만 일삼아 스트레스 열 받쳐 막걸리 먹은 대통령과,

출세했다 좋아서 상어 지느러미 탕에 쌱스핀 먹고 춤추고
장구 친 대통령과 비교가 되겠는가? 비교가?, 이 한심한 것들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 온 정력을 다했던 애국 애족의
지도자와 모든 것 다 깽판 쳐도 좋다는 지도자와 비교하니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냐 말이다.

어디 또 이뿐인가?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축농증 수술 빨리 하고자
마취도 없이 한 지도자와,

북한 핵 문제로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인데 얼굴 표정을
위해 눈 쌍꺼풀 수술로 일주일 만에 나타난 지도자,

태풍 매미로 가옥이 침수되어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데도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한가하게 동부인해
오페라를 관람한 지도자와 비교하니 어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냐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행기도 없어 빌려 타고 수천만 리 이국땅 서독에
돈 빌리려 내 나라 국민을 담보로 잡혀 놓고
눈물 흘리고 온 대통령과

서독 교민들조차 흉볼 정도로 호화롭게 방문하고
전용 비행기로 동부인해 웃으며 돌아온 대통령과
비교하니 이 사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말이다.

또 있다.
변기에 벽돌 넣고, 에어컨 끄고, 파리채 들고, 점심은
냄비 우동으로 소박하고 근검절약한 대통령과,

국가 재정 펑펑 쓰고 모자라면 허기지고 고달픈 국민들
세금 폭탄으로 쥐어 짜고 있는 대통령과 뭐? 어쩌고 저째?

당신들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느 냐구? 열 받게 말야!!
제발 울화통 터지게 하지 말라!! 참말로 속 터저 환장하겠다.

속 터질 일이 이뿐만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불우 청소년을 돕고자 봉급마저도
육영수 여사와 함께 사회사업에 썼지만,

노무현은 자기 편이라는 언론사에 1,000만 원을
공짜로 주고 주식도 사고, 노후를 생각해서인지
열심히 저축도 하고…….

국민들에게 저축심을 심어 주기 위한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것인지? 언론사까지도 네 편 내 편으로 편 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고 그런 것인지?
진짜 참말로 속 터진다. 아니지 열 받친다.

또 있다. 열받을 일이....
일국의 대통령 집무실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야전군 사령실 같은 청와대에서 밤잠도 안 자고
국민들이 사는 것은 어떤지 민정시찰,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대통령과,

에어컨 냉 난방 호화로운 집무실 푹신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컴퓨터 자판기나 한가롭게 두드리며 채팅이나 하고
자기 칭찬 잘했다고 댓글이나 달고 있는 대통령과 뭐? 어째?

진짜 이 사람 완전히 맛이 갔구먼.!

아니 도대체 비꼴 해도 비꼴 할 만한 곳에 갔다 대고
비꼴 해야 할 것 아닌가? 감히 어디다 대고 비꼴 하느냐 말이다?
어디다 대고? 진짜 열 받게 하지 마라!! 참말로 미치것다.

기막힌 것도 부지기수다.
반공을 국시에 두고 조국 건설에 온 정력을 다했던 지도자와
국가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오늘의 지도자.

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애국적 백지계획이었지만

출세하는데 '재미 좀 봤다'고 한 지도자.

협동과 단합,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솔선수범한 모범을 보였던 역사상 가장 청렴결백한 지도자와

단합은커녕 갈기갈기 찢고 쪼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엉망인 경제, 걱정하지 말라, 입만 나불거린 지도자.

선조에 훌륭한 기개와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세종대왕을 비롯해
수많은 위인을 성역화하여 높이 숭상하였으며,
노인을 공경했던 동방예의지국에 진정한 지도자와

세대 간 네 편 내 편으로 편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별 '놈'의
보수라며 노인을 향해 냅다 욕을 해 댄 지도자.

남다른 카리스마에 지도력으로 이 나라 경제를 20배 이상
신장시키고 늘려 놓고 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와

임기 5년이 길다고 투덜대더니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하는 허약하고 자신 없는 한심한 지도자.

과묵하고 정제된 품위 있는 말로 리더십을 보여
국민들이 믿고 따른 인품 있는 지도자와

뒷골목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막말로 직설적이고 극단적이며
자극적인 말만 하여 도대체 어떻게 될지 도통 알 수 없어
청개구리 별명 붙은 지도자.

자!! 어떤가?
이런데도 홍보처 차장이 지금 뭐라 하였느냐?
교장? 총장? 이라 했느냐? 기가 막혀!!

참말로 기가 막혀, 진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왕창 출세한 높은 것들아!

후손들에게 선진 조국을 물려 주고야 말겠다는 오기로
미래만을 생각한 지도자와 과거만 돌아보는 지도자와
진짜, 비교가 되겠는가. 비교가……? 진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울화통 터지고
속 터지니 진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다.

도대체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고 비교도 비골 할 데가 있지,
감히 어디다 대고 비교하느냐 말이다. 어디다 대고???....

박정희가 항공모함이라면, 노무현은 돛단배 격도 안 되겠구먼!
어쭈구리! 자동차? 비행기? 어이구야! 속 터져!!

아첨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구나!
우주선이라 했으면 더 높이 출세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진짜 아쉽게 되었다.

아첨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살짝 해라! 칠칠 맛 게도 못난 짓 하지 말고……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세금으로 니들
봉급 주는 이유가 도대체 머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 근심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정치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자빠 젓느냐 말이다.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청와대 홍보 책임자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현직 대통령이나 추켜 세우고
민족중흥에 시조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 비하해?

오죽하면 홍보 수석실, 홍보처는 폐지해야 옳다고 하겠는가?
이러고도 출세했다고 어깨 힘주겠지! 한심한 것들…….

제발 부탁한다.
더 이상 국민들 속 터지고 울화통 터지게 하지 말라!!
진짜 스트레스 열받아 미치고 환장하겠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재미있죠?유신시절에 판사까지 지내신분이 자신이 몸담았던 그 유신을 단죄하고 심판한다고 날뛰는 모습이..열린당 소속의 여당의원으로서 온갖 호사를 누리던 者들이 그 失政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앞다투어 쏟아져나와 국민의소리라며 자신들이 몸담았던 열린당의 失政을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者들...그들이 바로 열린당,민주당쪽 사람들입니다.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 했던가요?그래서 人間史가 재미있다 하나봅니다...잘 보고갑니다

2008.11.06 13:38:47

공감 신고

공감 7

재미있죠?유신시절에 판사까지 지내신분이 자신이 몸담았던 그 유신을 단죄하고 심판한다고 날뛰는 모습이..열린당 소속의 여당의원으로서 온갖 호사를 누리던 者들이 그 失政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앞다투어 쏟아져나와 국민의소리라며 자신들이 몸담았던 열린당의 失政을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者들...그들이 바로 열린당,민주당쪽 사람들입니다.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 했던가요?그래서 人間史가 재미있다 하나봅니다...잘 보고갑니다

2008.11.06 13:38:47

공감 신고

공감 4

어느날, 혜성같이 나타난 장옥희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그냥 어께가 들썩여 집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하였던 심정이 글로서 표현되고 있어서 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따위를 어디 감히 박정희 대통령에다가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정신병동을 뛰쳐 나온 놈이 아니고선 그런 해괴한 짓을 하지도 해서도 안되는 짓을 ...!

한마디로 박정희와 노무현은 태양과 반딧불 정도로 비유하면 될런지요?
아니, 한 낮과 한 밤중으로 비교가 되어야 할 듯..!
꼭 있었어야 할 지도자와 있어서는 안되었을 인간과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11.06 22:31:52

[chosun]

[펌] 위대한 박정희 리더쉽/ 불쌍한 좌파 박정희가 존립의 근거인가

2008.11.08 12:37

위대한 박정희 리더쉽 [2]

[2008-11-06 18:50:45]

조회 216 | 찬성 41 | 반대 1 | 스크랩 0

기록에 의하면 516혁명 이전의 시대상은 한마다로 개판5분전이었음을 짐작할수 있다..부정부패로 날세는 공무원과 부패에 찌든 민주당 정치꾼들은 경제발전 보다는 권력투쟁.당파싸움에 치중했고 국민은 419로 얻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마땅히 지켜야할 국민적의무 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반정부시위.파업등으로 인해 실물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무려 30%에 육박했으며 식량자급도 어려워 전적으로 미국이나 UN의 원조에 의존했다. 거기다 부존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함에도 주요 수출품이라고는 고작 1차 가공품이 전부였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국과 UN의 원조를 더 많이 받아챙길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시대는 무능한 정부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시작해 부정부패로 날세는 정치인.공무원할것없이 온 나라가 붕괴.파탄직전이었다..

.

그래서 516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혁명 지도자는 이 모든 낡은 관습과 제도.반목과 불신 증오로 얼룩진 낙후된 시민의식과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려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이 혁명정신 부합되기 때문이다. 혁명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확고한 국가개입을 통한 경제부흥책, 즉.한국판 뉴딜정책이었던 것이다. 식량원조국에서 자급자족체제.. ODA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책.수출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화폐개혁을 통해 장롱에 숨은 돈을 산업자본으로 활용. .직선제 개헌.그리고 전국토의 1일 생활권등의 플랜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수출입국.경제개발5개년계획.새마을 운동.치산녹화.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이다

.

.박정희정부의 이러한 원대한 정책들은 나태한 장면정부가 식량원조에만 의지하려 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없는 위대한 지도력이자 최고의 선지적 결단이었던 것이다..한치앞도 내다볼수 없었던 풍전등화와 같았던 위기에서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와 역사의 축복이 아닐까싶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비젼과 정책이 있어도.여기에 소요되는 외자.인력.설비.기술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해서 박정희정부는 돈을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외자를 얻을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고 어디든 갈수있었다.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차관을 요청했지만 거절의 쓴잔을 마시자, 다시 독일로 건너가 리프케에게 차관지원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다시 재협상을 하여 차관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또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나온 배상금도 있었다. ..케네디 이후에 등장한 존슨과의 협상을 통해 얻은 소중한 달러차관도 이끌어 냈다.
발에 불이 나도록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얻어낸 소중한 종자돈을 모아 . 포항제철.도로.항만.철도.항공등 산업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치뤄야 했다. 파독근로자.월남파병.6.3운동등 수많은 사회적.저항과 동시에 국민참여 고통분담이 함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쉽과 이를 지지했던 국민적 신뢰와 헌신등이 없

었다면 고도 산업화는 없었을 것이기에 그시대를 주도했던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화의 주역으로써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는것이다...

TAG 박정희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공감 3

박정희의 모든 공적을 적나라하게 기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 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실감할 것입니다.
항차 유치원 생도 대모를 하지 않으면 이름을 내기 힘이 들었으니깐요...
2008.11.06 19:59:21

공감 신고

공감 2

안녕 하세요?

과연 그러했읍니다.

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추천하고 갑니다.

coffee" 한 잔 드세여^^
2008.11.06 19:55:00

공감 신고

공감 3

박정희의 모든 공적을 적나라하게 기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 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실감할 것입니다.
항차 유치원 생도 대모를 하지 않으면 이름을 내기 힘이 들었으니깐요...
2008.11.06 19:59:21

[chosun]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불쌍한 좌파 박정희가 존립의 근거인가 [6]

[2008-11-06 21:56:35]

조회 384 | 찬성 74 | 반대 3 | 스크랩 1

죽은지 30년도 더 되 백골마저 흙이 된 박정희를 아직도 악으로 매도해야 비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좌파들 한없이 불쌍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박정희냐 아니냐의 20세기 구닥다리 논쟁을 되새김질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반박정희 반독재로 먹고 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박정희이었기에 대한민국이 최빈국을 벗어나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도약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결론냈다.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얼마든지라는 소위 운동권과 좌파들의 가설과 상상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겐 약발이 없다.

박정희이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뻔뻔함은 좌파들이 하늘이 내린 주체의 위대한 영도자로 믿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조차도 견지하지 못한다. 그들도 박정희처럼 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음을 박정희만큼 하지 못해 울화를 안고 살고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내의 좌파들은 이미 북조선에서조차 박멸된 박정희를 씹어 대는 20세기적 반동을 존립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목불인견의 불쌍함이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조선의 핵심 세력 누구도불쌍한 좌파 박정희가 존립의 근거인가 남조선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내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키워낸 인간 박정희를 폄하하지 않는다. 그들은 박정희처럼 북조선을 자유화로부터 지켜내면서 남조선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박정희를 닮으려 아둥바둥대고 있는 중이다.

박정희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은 부질없다.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었음을 대한민국 국민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통해 학습하고 또 학습했기 때문이다. 설사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 민주 질서를 피괴하고 장기 독재로 민주 정치 시스템에 역행했다 하더라도 세종도 광개토왕도 못한 오천년 가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는 역사의 절대 선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가능케 준 겨례의 은인이있다면 그 은인이 세종 이순신 김구가 아니라 바로 박정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인 것이다. 시간이 더 흘러 대한민국이 견고해지면 해질 수록 박정희 업적은 훼손하고 싶어도 훼손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 되버릴 게 틀림없다.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말고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치 테제가 없는 대한민국 내의 좌파들의 한계가 너무 안스러워 보인다. 한 인간의 인격을 매도하는 배설과 욕설을 존립 기반으로 삼는 그들에게 침을 뱉는 것도 이젠 너무 수준 떨어지는 일이 되버려 하고 싶지도 않다. 좌파가 똥뚜간에 산다고 같이 똥밭에 몸을 내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반 박정희를 목놓아 외치는 좌파들이어 정말 그대들도 살아 있는 역사 실체로서 대한민국 정치 논쟁의 장에 끼어들고 싶다면 이제 박정희로부터 독립하라! 좌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한 인간에 대한 집요한 복수와 원한에 매달리지 않는 거대 담론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임을 각인하고 있어야 좌파다운 것임을 각성하는 지능조차 없는 좌파는 그저 똥일 뿐이다.

찬성 반대 신고 글쓰기 답글 스크랩 목록

best

공감 7

임충섭 선생께서 가고자 하니, 그 길을 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겠지요. 그렇다면 서시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도 또한 삶과 인식의 방법 아니겠어요? 위험하네 뭐네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지금 좌파의 꼬락서니를 한 번 둘러보시지요. 방향을 잃고, 나아갈 수 있는 수단조차 잃어 버리고 우와좌왕 하는 모습을..... 무엇이 남아 있나요? 지

난 15년간 민주화 주체세력들이 나라를 통치하였으면서도 아직도 박정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님의 표현을 빌려 오히려 부활하도록 만들고 있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 보시구려. 그래도 스스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선생께서는 박정희를 논할 자격이 없소.

2008.11.06 22:36:10

공감 신고

공감 4

허~허 이좋은글에 반대라니..

박정희가 없었으면 저쪽사람들은 아마도 사는 樂이없었을겁니다..그걸 씹는 재미로 연명하는거지요..

2008.11.06 22:11:00

공감 신고

공감 0

서시원님,

참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박정희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08.11.06 22:11:39

공감 신고

공감 5

친북 좌파들이 고자 거시기(?)세우드키 내세운것이 바로 민주와 반미 였는데요~

민주는 먹튀슨상 쩐모으는 구호로 이미 판명났고요

반미는 김정일이 곧 미국 만세를 부르게 생겼으니...

앞으로 좌파들에게 반미도 영양가 없기는 민주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길은 친일과 박정희 밖에는 뜻어먹을 구호가 더 없겠지요~~

서시원님

친북좌파를 완전히 박멸하고 우리모두 복 받읍시다^^

추천.

2008.11.06 22:20:15

공감 신고

공감 5

GH가 두려워 사전 예방 차 우회공작 하는 것 입니다.

덤으로 dj 옹호도 되겠고...

2008.11.06 22:27:07

공감 신고

공감 7

임충섭 선생께서 가고자 하니, 그 길을 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겠지요. 그렇다면 서시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도 또한 삶과 인식의 방법 아니겠어요? 위험하네 뭐네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지금 좌파의 꼬락서니를 한 번 둘러보시지요. 방향을 잃고, 나아갈 수 있는 수단조차 잃어 버리고 우와좌왕 하는 모습을..... 무엇이 남아 있나요? 지난 15년간 민주화 주체세력들이 나라를 통치하였으면서도 아직도 박정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님의 표현을 빌려 오히려 부활하도록 만들고 있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 보시구려. 그래도 스스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선생께서는 박정희를 논할 자격이 없소.

2008.11.06 22:36:10

공감 신고

공감 0

황동욱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 10년간 진정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정권을 빼앗겼지요. 박정희주의가 살아서 현실 정치에 나쁜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정권 바뀐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정작 이명박이나 일부 우파 인사들이 박정희주의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지요.

.

2008.11.06 23:48:00

[chosun]

[펌] 박정희 덕분에 거품무는 당신들도 있다네 / 5.16과 유신

2008.11.08 12:20

박정희 덕분에 거품무는 당신들도 있다네! [5]

[2008-11-08 09:33:19]

조회 126 | 찬성 26 | 반대 1 | 스크랩 0

요즘 따라 고 박정희대통령에 대해 때 아닌 갑론을박이 심하다.
여러 논객분들이 박 전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해왔으므로 새삼 반복하진 않겠다.
상황이 복잡하고 싸움이 격렬할수록,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매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쉽게 생각해 보자.

한 가정이 있다. 아버지는 무능하여 돈벌이도 없이 매일 술에 절어 지낸다. 아들은 아들
대로 공부도 안하고 폭행을 일삼는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혔고, 딸은 딸대로 바람이 나서
간혹 외박까지 한다.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부모, 자식간에 질서와 통제가 망가진
콩가루 집안인 것이다. 가장으로서 능력과 신뢰, 권위가 무너진 데서 오는 총체적인
부실 가정인 셈이다.

또 한 가정이 있다. 본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안은 아버지가 청빈 검소하고 “하면 된다”
는 신념으로 근면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식들에게 엄격하기 이를 데 없어 조금도 허튼 짓,
비뚤어진 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무 엄격하여 독재형 가장이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가정을 반듯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끈다. 그리고 주위 이웃들로부터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칭송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자보다는 단연코 후자의 가정을 택하게 된다.
나라도 크게 다를게 없다.

지도자는 부패하고 무능하여 사회는 혼란스럽고 빈곤에 허덕이는 파탄 직전의 나라가
있다. 이 희망없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무
에서 유를 창조한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출현은 그 나라의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범사에 감사하라” 는 성경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재앙으로 여기는 자들은 둘 중의 하나가 틀림없다. 바로 미친 사람이거나 골수

빨/갱/이/ 이다.

당시 나라 상황 하에서 독재적 통치는 불가피한 필요악이었다. 지금과 같은 선진 국민 의식과 민주주의는 커녕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최빈국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민주 통치의 주장은 너무나 사치스런 말 장난이오, 현실을 이론으로만 겉포장한 칼마르크스의 허구일 뿐이다. 좌파가 비판하는 그 독재 통치가 그 때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없다. 대신, 좌파들이 염원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세상이 됐을 것이다.
물론, 지금 거품 물고있는 오늘의 당신들도 이렇게 온전히 존재치 못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히 현실적이고 색다른 주문을 한 적이 있다.
"수천억 아니 수 조원을 축재해도 좋으니 대선 공약대로 제발 나라 경제만을 살려 달라" 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삼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절감한 적이 있다.

오로지 민족과 나라만을 생각한 청빈 검소하기 이를 데 없는 박정희 대통령!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의 아버지" 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을 막아낸 "민주주의 수호신" 으로도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세계인들도 공감하는 바라, 굳이 영어로 옮겨 본다)
"Former President, Mr. Park is the guardian of democracy as well as the father of the national wealth for the Republic of Korea.", we never forget forever.

****

****

5.16과 유신 [9]

박정희대통령의 5.16혁명과 70년에 단행한 유신을 두고 가짜 민주팔이 좌파무리들이
5.16군사쿠데타니 유신독재정치니 하면서 끊임없이 박정희를 중상모략질하고 있다

5.16혁명은 그 시대의 민주당의 무능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 데모로 날이새고
데모로 날이 지는 극심한 사회혼란 이런 진부한 이야기는 거두겠다

유신은 자원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그저 사람손이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도약할려는 시대상황이었으니까 하는 이야기도 거두겠다

5.16혁명은 박정희대통령이 세계속의 비렁뱅이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오천년
지긋지긋한 가난의 질곡속에서 헤메던 우리국민들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 할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붇돋아 주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부흥을 낳았다

유신은 박정희대통령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황량한 포항만에 세계 제일가는 제철소를 세웠고 울산의 조그만 어촌마을에 세계에서
제일가는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을 이루었고 한국의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만들었다

사흘에 피죽도 한그릇 못먹고 춘궁기에 여기저기서 굶었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이제 꿈의 연봉인 1억이 넘는다는 사람들을 포항과 울산에서도
심심찮게 볼수있도록 박정희대통령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것이다

반대로 불그스럼한 단체만들어 끊임없이 나라 뒤집어 엎어려던 좌파무리들의
성경이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급기야는 북한동포 수백만을 굶어죽이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하나같은 사실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그렇게 욕해대던 김대중,노무현과
이 가짜민주팔이 좌파놈들이 김일성이나 아직도 수많은 동포들을 굶어 죽이고 있는
김정일 이 세습독재자들 놈에게 욕은 커녕 한마디 입도 뻥끗 안한다는거다

김대중같은 인간은 오히려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한다

무슨식견? 식견같은 소리하고 있네
김일성은 6.25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김정일은
수많은 동포를 굶어죽게 만드는 사람죽이는 식견말이냐

이제 한심하고 가련한 얼치기 좌파무리들에게 묻는다

박정희대통령을 그렇게 독재자로 부르고 싶다면 세상어디에 나라와 국민만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있더냐

그래 박정희대통령이 독재자라면
자기와 반대의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비인간적인 짓 일쌈고
동족상잔일으켜 수없는 국민들을 죽이고 수백만 백성 굶어죽이는 저 천인공노할 짓거리
일쌈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너거들이 말하는 민주투사냐 이 싸말노무 새키들아

best

공감 9
이글을 읽고
그래 인간이면 좀 느껴라.
깨우쳐라
박정희를 씹기전에 일성이와 정일이의 핏자욱부터 지우고 다녀라.
고정산첩 뻘개이를 색출해야 이정부가 바로 선다.

2008.11.07 13:09:13

공감 신고

공감 5
그 시대가 그립네요
대다수 국민들은 희망을 주던 그시대가 그리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주팔이들 뭐 말라죽은 민주요, 당시 일반 국민들이
비 민주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소.

아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그때가 그립소.

2008.11.07 12:47:49

공감 신고

공감 4

예 내생각과 꼭 같은 말슴 하셨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대통령만큼 경제부흥을 이르킨 지도자가 있다면 어디 나서보라고 하시요 군사독재니 암울한시절이니 하는것들 전부다 사촌이 논사면 배아픈 족속들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땅에 없었다면 오늘과같은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못했으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2008.11.07 12:49:50

공감 신고

공감 9

이글을 읽고

그래 인간이면 좀 느껴라.

깨우쳐라

박정희를 씹기전에 일성이와 정일이의 핏자욱부터 지우고 다녀라.

고정산첩 뻘개이를 색출해야 이정부가 바로 선다.

2008.11.07 13:09:13

공감 신고

공감 0

절도죄를 저지른 자 말하길, 제가 신창원처럼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까?

김정일은 김정일이요, 박정희는 박정희라.

2008.11.07 14:02:13

공감 신고

공감 2

동감100%에 추천 1개를 올립니다^^

2008.11.07 14:59:57

공감 신고

공감 5

"씨말노무 새키틀아"

역사의 진실을 왜곡 호도하려는 무리들!

욕 먹어도 싸다. 싸.

2008.11.07 18:00:15

공감 신고

공감 4

다시 그때 좌파 인간들 운동권 인간들,
싹쓰리 청소 못한 만시탄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글이 었습니다.
승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나라의 기강이 이정도도 유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11.07 21:52:33

공감 신고

공감 1
씨원합니다...."싸말노무 새키들아"..하하하하하하.....론리로든...감성이로든.....말이 되지안지요.
2008.11.07 22:58:54

공감 신고

공감 1
이 좌파 놈들아, 김일성 김정일 주구들아!
유신이 없었으면 5,16도 성공 못했을 것이고

유신이 없었으면 나라부강 산업혁명도,
니들의 오늘의 富를 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여천 화학 공단도 없었을 것이고,
호남평야 바둑판 농경지도,
무등산 싱그러운 푸른 산도 구경 못했을 것이다.

2008.11.08 01:24:15

[chosun]

[펌] 진짜 민주 투사는 박정희다/하면 된다는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

2008.10.14 15:27

진짜 민주 투사는 박정희다-- 가짜 박파는 물러가라! [7]

[2008-10-13 21:51:33]

조회 392 | 찬성 80 | 반대 4

아직도 박정희를 군사 독재자로만 규정하고 박정희를 타도하고 부정해야만 민주주의가 산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박정희가 과연 군사 독재자일가? 박정희가 일으킨 5.16 이 혁명이든 구데타든 정변이든 역사가 증명한 것은 단 한명의 피도 흐르지 않는 무혈의 성공이었고 까탈스럽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박수를 쳤다는 사실이다. 박정희가 끌고 온 군대는 솔직히 보잘 것 없었다. 정말 진압군이 등장하면 쏠 수 있었던 무기라봐야 박정희가 차고 있던 권총정도였다. 단 한방의 총성도 없이 서울이 장악되고 4.19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국민의 저항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누구도 심지어는 바로 일년 전 4.19란 거대한 민주주의의 폭풍을 몰고온 학생, 지식인 중 단 한명도 박정희의 지프를 가로막아 민주당 정부를 사수하려 나서지 않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맞다면 민심이 천심이 소위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에 대해 레드 카드를 든 것이고 박정희의 까만 썬그라스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 것이다.

가난으로 찌든 나라 중 민주주의하는 나라는 없다. 잘 살다가도 못 살게 되면 처음엔 사회주의자라며 자신을 분장한 이들이 득세하고 그 중 누군가가 헥에모니를 장악하면 평등의 공동체 운운하는 공산 독재자가 나라를 수십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법칙임을 현대사는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꽃 피운 모든 나라는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투사는 입으로 민주주의를 조잘거리는 자가 아니다. 국민이 배불러 먹을 것 걱정없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스스로를 나라의 주인으로 자부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한다. 오늘 하루의 양식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판국에 민주주의는 무슨 개뿔? 공산 독재자들이 강성 대군을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인민이 배부른 풍요에 무관심한 이유는 인민이 먹는 걱정을 하지 않는 순간 민주주의를 막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독재자 축에 끼지 못한다. 자신을 지켜줄 군대를 양성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가 고뇌한 그들은 독재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국민은 배고파 굶어 죽어도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수억 달러를 비축해 놓아야 독재자지 집 한 채도 제대로 없어 자식들이 빌붙어 살 수밖에 없게 만든 박정희같은 무능아가 자기 한 몸 의탁할 곳 없어 천리 타향에서 행려병자처럼 죽어간 이승만이 어떻게 독재자란 말인가?

지금 박정희를 부정하고 박근혜를 박정희 딸이라고 저주하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작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마치 박파인 양 위장했던 이들이다. 그들이 과거에 올린 글을 추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박파인 것처럼 대중을 속였는지 어이가 없다. 그런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깽판을 쳐도 박근혜가 존재하는 한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이긴다는 꿈조자 싹트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이 그들에게 가면을 벗고 죽은 지 30년도 더 된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민주 타령에 전력하라고 지령한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국민소득 백불도 안되던 지지리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국이 주는 잉여농산물 소나 돼지에게 주는 사료급 곡식으로 연명하던 꿀꿀죽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주주의 나라로 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준 이는 함석헌도 아니고 김영삼 김대중은 더욱 아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뇌세포가 자라나게 해준 진짜 민주 투

사는 바로 박정희이다. IMF에 버금가는 경제 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이명박이 못하면 박근혜가 하면 되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하면 된다는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 꿈틀대고 믿기 때문이다.

best

공감 14

국민이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도 있기 때문이리라.
-이 하이라이트에 공감합니다-

결국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8.10.13 22:28:20

공감 신고

공감 14

국민이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도 있기 때문이리라.
-이 하이라이트에 공감합니다-

결국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8.10.13 22:28:20

공감 신고

공감 7

18년간 통치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국민의 돈을 10원도 축적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時空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우러름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시원님의 힘찬글을 다시금 접하는군요...
2008.10.13 22:55:57

공감 신고

공감 3

서시원님! 저역시 박전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호도하면 안되지요?단한명의 희생자도 없는 무혈쿠테타라 하셨나요?
그럼 5.16일 새벽 한강인도교를 방어하던 경비대를 해병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입경한건 무엇입니까? 인도교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지가
발생했는지 실제 작전에 참여했던 분까지 있는데 어찌 그렇게.....
혼란한 정국을 바로 잡고자 구국의 결단으로 혁명의 당위성이 충분한것도
사실이고 가난에 찌든 이나라를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한 위대한 업적은
이나라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기억되어야겠지요.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2008.10.13 23:40:11

공감 신고

공감 2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역사를 왜곡시켜서 미화한들 무엇이달라집니까?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게 정도며 18년통치기간중
유신독재,민주인사탄압같은 "과"도 많았지만 그를 덮고도 남을 "공"이 크다
생각하기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는겁니다. -이상-
2008.10.13 23:55:30

공감 신고

공감 11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그 지독한 유전자가 박근혜 그녀에게 꿈틀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정희 유전자의 승계한 박근혜의원이 있는 이상은
천지가 개벽되고 태산이 문어지는 한이 아니면
과거 한나라당의 滅失의 위기를 구한 그 솜씨가 아직은 건재하기에,
우리는 이명박이 나라를 망처도 그렇게 절망은 안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살리듯 박근혜가 있기에 걱정을 접어 두기로 하렵니다.

민주의 기초는 국민재건운동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의 이 나라의 민주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놈현의 좌파들의 독재국의 지원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서 현재의 경제 불실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2008.10.14 01:13:39

공감 5

공감 3

왕추천!!....학창시절 그어떤 교수가 이런 강의를 나에게 해주었던가요??? 조토마에서 일류논객들이 쓴 명문을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2008.10.14 11:22:29

공감 신고

[chosun]

박정희는 혁명을 했습니다

2008.10.01 00:08

박정희는 혁명을 했습니다. [3]

박영언f [2008-09-29 20:51:05] 조회 229 | 찬성 34 | 반대 3 | 스크랩 2

김성미님글

1)박정희는 혁명을 했습니다.(2005.8.1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연히 들어왔다가 이관일 백성주 등등의 사람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반론도 보았습니다. 이-백 둘의 글이나 이에 대한 반론이나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연에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경제라는 것도 있고 정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습니다. 물론 영역이 겹치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에서 물을 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처럼 역사를 경제라고 우길 수 없고 정치를 문학이라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을 볼 때 드러나는 명백한 실체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얼핏보니 백성주라는 인간이 박정희를 반역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지 않았다고 그러는가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낫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의 무식에 강아지가 아랫도리를 내 놓고 있는 것과 같이 부끄러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종류라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뒤엎은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도 그렇고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4.19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4.19는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합법적인) 이승만정부를 뒤엎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경쟁후보는 유세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승만은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러나라고 했고 그는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4.19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불법적인 폭력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도대상이 된 정부보다 폭력을 수반했지만 새로 수립되는 정부나 권력이 보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가 그것입니다. 인류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넘어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체제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온 것이지요. 역사적 사건이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에는 비록 불법적인 폭력을 수반해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정치학 관련 책들을 읽어 본 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4.19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4.19는 불법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킨 혁명으로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 비록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체제 보다 4.19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이념이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4.19는 폭력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뒤엎은 후에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의에 따른 새 정부의 출범이 4.19가 혁명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4.19만 있었고 (이승만만 물러나게 했고) 새 헌법에 따른 새 정부의 수립이 없었다던가 또는 새 정부를 수립했는데 민주당이 아닌 과거 이

승만체제를 받치던 자유당이 승리를 했다면 4.19의 정당성은 그 만큼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희가 주도한 5.16을 봅시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합법적인 정부를 뒤엎었다는 점에서는 4.19하고 똑 같습니다. 한쪽은 군인이 했고 한쪽은 학생이 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박정희는 5.16거사 직후에 바로 혁명을 했다고 내외에 공표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장면정부를 뒤엎은 후 조금이라도 거사 사실을 숨기거나 우물쭈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아주 명확하게 자기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혁명을 했다고 공표를 했고 동시에 또 혁명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을 확정시켰고 그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경쟁후보는 박정희 때문에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윤보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혁명을 했다고 공표를 했고 박정희 때문에 윤보선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 헌법을 확정시키고 그 헌법에 따라 박정희와 윤보선이 다시 붙어 박정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의미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박정희의 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5.16은 박정희가 선거에 출마하여 윤보선을 물리침으로서 혁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윤보선은 박정희와 두번 붙어서 두번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민선 3기까지 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고 그 시대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은 당시의 헌법을 봐도 확인됩니다.

1960년대 3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지금의 헌법 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입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 임기 4년의 연임가능이었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임할 수 없는 정통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식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헌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총리하는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물론 70년대 들어가면서 유신체제가 나오고 긴급초치 시대가 나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경제성장과 유신체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경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면 유신체제는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고 못살아도 좋다 하면 유신체제는 비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고 박정희 시대는 동시대의 미국보다 민주주의의 정도가 더 높은 시절

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미국이라고 해서 출발 때 부터 지금같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미국 민주주의도 워싱톤 시절과 링컨 시절과 케네디 시절과 레이건 시절과 지금이 다 다릅니다.

박정희 시대는 그 시대의 발전상황에 맞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박정희 시대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발전의 단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식한 인간들의 소리입니다.

조선시대 5백년 동안 사람을 잡아다 곤장을 치던 것이 합법적이던 시절을 거쳐서 일제의 군국주의를 경험한 신생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 시절을 독재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다는 인간들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케네디 시절의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과 분명 다르지만 케네디 시절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런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자기 조국을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반역입니다. 솔제니친은 자기 조국의 체제에 저항했지만 그걸 아무도 반역이라 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을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은 애국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조국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박정희는 혁명을 했고 자신이 내 세운 혁명과업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의 번영은 바로 박정희의 성공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박정희를 반역으로 매도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씻을 수 없는 자기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2)외환위기에 대하여(2005.8.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글에 대해 반응을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보아왔습니다만 글을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시간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

이었습니다.

언젠가 김경숙님 민족이란 확률분포적 개념이라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것 처럼 명확하게 민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몇 분의 반응을 보니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빼 먹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이나 백과사전 들고 와서 사회과학을 논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백과사전에서 한 가지 빼 오는 것은 그것 잘못하면 인간 말종이 되고 이미 말종이 된 인간은 더 나쁜 말종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은 사회과학의 암흑지대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선후진국이 판가름나는 것은 자연과학 보다는 사회과학에서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술에서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하는 데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과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대학을 나온 인간이 박정희는 반역자다 하고 백주대로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이론보다 현실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만 5.16 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하는 문제 조금 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5.16이 혁명이라는 것은 이론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론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혁명과 쿠데타는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교과서에 이론이 먼저 설명되고 현실 속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온갖 형태의 권력이동 현상이 무수히 관찰된 후에 이론적인 설명이 나온 것입니다.

현실 속의 모습이란 것은 다 다릅니다. 왕건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과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같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는 과정과 박정희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 다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같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시민혁명의 모습이 같지 않고 미국의 독립혁명도 역시 그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많은 차이 속에서 유사점을 찾아내서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이쪽은 혁명이다 저쪽은 쿠데타다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결정변수는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지배계층의 참여없이 지배계급 내부에서만 권력교체가 일어나면 쿠데타로 분류합니다. 피지배계층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으면 그건 혁명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게 혁명이냐 아니냐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학혁명의 경우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혁명에 가깝지만 혁명세력들이 권력장악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걸 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5.16이 왜 혁명이냐 하면 그게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963년 윤보선과 박정희가 맞붙은 대선은 5.16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까? 1963년 대선이 5.16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하면 그래 5.16은 쿠데타다 하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1963년 대선이 5.16에 대한 국민의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5.16이 혁명이라는 것은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교과서에 설명되고 있는 이론으로 맞추어 봐도 5.16이 민중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혁명의 정의 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백성주가 인터넷에서 뽑아올린 혁명에 대한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큰 변화 또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건 혁명이 결과적으로 대변혁을 야기한 것이지 그런 대변혁을 야기 해야만 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 보지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충분히 있으면 백과사전에 나오는 짧은 설명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배경지식이 없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주제를 바꿔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론 보다 현실을 먼저 확인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997년 한국경제를 강타했던 외환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체제, 재벌지배구조,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유산 등등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수 없이 지적되어 왔고 또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나 주장에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을 생각하기 전에 현실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1997년의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위기입니다. 외국돈 보다 분명히 말하면 달러가 없어서 일어난 위기입니다. 한국 땅 안에서 달러가 왜 없어졌습니까? 외국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다 빼서 갖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는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투자했던 자신들의 돈을 다 회수해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어냐 하면 한국에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해간 그 투자자들 한테 '당신들이 왜 한국에서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정경유착이다 관치금융이다 뭐다 떠들기 이전에 먼저 외국투자가들이 왜 한국에서 돈을 회수해 갔는가를 알아야 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행위를 이해해야 외환위기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투자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유 돈이 좀 있어서 어디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고려대상이 될까요?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이고 또 돈이 떼일 염려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반쯤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그 당시 한국이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둘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외국투자자들 한테는 매우 불안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그 많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설 수 있을까요?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몽땅 돌아선다는 것은 돈이 떼일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못받더라도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면 그 많은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 겁니다. 원금을 떼일 지경이 되니까 그런 야단법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도무지 불안하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찾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외국투자자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국경제가 그렇게 불안하게 보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이 한국경제의 불안감을 갑자기 증폭시켰습니까? 아니면 선단경영과 문어발식 확장 지배구조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갑자기 불안하게 하였습니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7년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전개된 일련의 경제적 상황이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위기로 가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일련의 경제적 상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아부도사태입니다. 당시 한국경제는 한보부도를 시작으로 일련의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아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게 7-8월(?) 경이었을 겁니다.

기아의 부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라는 거함이 쓰려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충격이었고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한국경제에 커다란 다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기아가 부도가 난 것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당시 사회는 더 큰 혼란과 갈등과 위기를 야기시켰습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노조는 파업을 했습니다. 기업이 파산한 것은 선악이나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자인수로 회생을 시켜서 근로자들도 살리고 경제가 계속 순환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고 사라지게 하느냐 하는 것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당시 사회에서는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파산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이런 기형적인 모습은 누구에게서도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노조원들 앞에서 기아차의 회생을 약속하기 바빴고 국민들 사이에는 기아차 살리기 국민운동과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부도기업이란 것이 정치인들이 회생약속하면 회생 될 수 있고 국민운동 하면 국민기업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업을 운영하려면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을 대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냥 시민운동과 여론 만으로 기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아 같이 큰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몇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자인수 아니면 기아차는 해법 자체가 없고 국민기업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겠다는 것과 같이 황당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발상이 황당한 발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까지 한국은 몇년을 허비했습니다.

기아를 인수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상이 수백 수천이 있었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라는 것이 (대우를 제외시키면) 불과 둘 밖에 안되고 이미 그 둘에 대해서는 알만큼은 다 알려진 상태에서 왜 몇년씩을 끌어야 했을까요? 정치인들이 개입되고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가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국민정서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아부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처음부터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대로만 했다면 외환위기 같은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쯤 한국경제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지리멸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회사가 하나 더 있고 없고가 국가경제 전체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부지기수 이고 당시 기아부도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모습과 반기업적인 국민정서가 경제를 얼마나 말아먹었었는가 아직도 한국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논하려면 선단경영이나 정경유착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1997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 외환이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차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아시아경제 전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한국은 기아부도 사태를 놓고 끝모를 혼란과 갈등만 벌이다가 결국 경제가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니 글의 제목들이 나라를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이 보이는 군요. 자기 나라 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아차 살리기 국민운도을 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은 나라를 말어먹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야 나라를 위한다고 했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제 나라를 말아먹은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아차 파업현장을 방문하고 회생을 약속했던 그 정치인들 기아의 3자인수를 반대하고 국민기업화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론보다 현실을 먼저 봐라고 말씀드렸고 또 현실적인 흐름을 볼 때 가치를 배제시켜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만 선단경영 관치금융 정경유착 차입경영 등등의 문제를 한국은 경제현상이 아닌 사회정의나 선과 악과 같은 가치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도 경제현실을 무시한 사회정의의 잣대로만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한국적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경제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각 때문에 경제가 지금도 어렵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쓰나미 같은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천이던 수만이던 어린 아이이던 착한 사람이던 가리지 않고 모두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쓰나미의 비극으로 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연현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쓰나미가 언제 어느 부분을 강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회현상 경제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공부하고 규명하고 해서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면 삶의 행복과 안락이 보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극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좌파가 문제다고 야단들입니다만 문제는 좌파가 아니고 무지입니다. 모르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들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찬성 반대 글쓰기 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3]

best

박영언

공감 5

김성미님은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글이 처음 쓴 글인 것 같고 joins 토론방이 출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올 2월 28일로 안쓰시는 것 같고요. 엔파람이란 곳엔 7월 29일자까지 쓰셨고, everkorea.net이란 곳엔 9월 28일자로 미 금융위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군요. 이분은 한곳을 정해놓고 쓰는 것 같진 않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엔 이은노님께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빠의 개념을 떠나 김성미님의 글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쓰신 분 대신 칭찬을 받은 것 같아 계면쩍네요 ^^ 감사합니다.

2008.09.30 01:50:45

공감 신고

이은노

공감 2

3년전에 이 글을 쓰신 김성미님의 해박하고 논리적인 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박영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있다면 김성미님의 깊고 폭넓은 지식과 그 정연한 논리로 요즈음의 어려운 시국과 현안에 대해서도 가끔이라도 언급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2008.09.29 23:11:00

공감 신고

박영언

공감 5

김성미님은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글이 처음 쓴 글인 것 같고 joins 토론방이 출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올 2월 28일로 안쓰시는 것 같고요. 엔파람이란 곳엔 7월 29일자까지 쓰셨고, everkorea.net이란 곳엔 9월 28일자로 미 금융위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군요. 이분은 한곳을 정해놓고 쓰는 것 같진 않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엔 이은노님께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빠의 개념을 떠나 김성미님의 글을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쓰신 분 대신 칭찬을 받은 것 같아 계면쩍네요 ^^ 감사합니다.

2008.09.30 01:50:45

공감 신고

이은노

공감 1

나의 댓글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영언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젊었을때에는 박정희전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형님들과 밤새워 언쟁을 할 정도로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만 박전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후임대통령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현정치인 중에는 그나마 박근혜의원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일 할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지하는 편입니다.그렇다고 박빠니 박사모니 하는데 가입한 사람은 아니구요! 혹시나 박영언님께서 오해를 하실까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9.30 16:31:44

[펌] 저푸른 산맥의맥박을 들으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석 생가 풍경

2008.09.19 13:56

저푸른 산맥의맥박을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5]

전상윤(kyky7774) [2008-09-19 10:32:37]

조회 62 | 찬성 12 | 반대 1

산넘어 그산을보고 까막득이숨어있는 점 점 희 저산을 바라보노라면

숨도차 차오르던 세속의 삶 들의 어지러움이 안개처럼흐트러지고

아룡 아롱 피어오르던 푸른나무들의 흐느러진 춤사이속에 피어나는 정기속에

고 박정희 지도자의모습이 그러지고있읍니다

언재부터 이산야에 푸른물결의파도가 넘실거러읍니까../../

가도 가도 끝업이 이어지는 민등산 나라을이르커세울 정기라곤

찾아볼수조차업서고

펄 펄 희날리는 황토흑 모래먼지만이 온산야을 디덮허

백두대간의 태백산줄기마저 가뿐숨소리을 고르지못하면

풍여러운 산소을품어내는

푸른 나무들의 춤사이을 그리워했겠읍니까

님들이여 가픔 숨을 어깨에들처매고

온육신을 땀방울료 적시면 저태산의 정상애올라 저산들 슾속의노래소리을

들어보면 바라본적이잇으십니까

저울창한슾속의 산맥의맥박속에 고 박정희 지도자의 숨결이

느꺼지지않읍니까

푸른산야의나무들의 춤들이 나의춤이되고

저푸른나무들의 한업이넚은마음이 나의마음이되어

저산줄기 사이사이에 피어오르는 힘찬 정기을 나의가숨에 한업이 품어

나라을위한 충성심이 어찌아니피어나갰읍니까

저울창한 산맥의 정기가 굿세게흐르는한 이나라애어떠한어지러움이

몰려온다하더라도 저산맥의맑은정기가 막아줄거시라 믿읍니다

님들이여

헐벗은 산야을생각하면 헐벗고 배고품 먼 과거의 우리들이생각나고

풀한포기 아궁이에 지피울 불꽃조차찾아볼수없을때

엄동설한 추이에떨던 우리들의가난했던 지난날이생각나지않으십니까

이헐벗은산야을 발을 동동 구르면 봄이되면 온산야을뛰어다니면

이산야에나무가없으면 물이흐르지않고 물이흐르지않으면

우리의 먹거리 양식을 구할수없다고 정책을만들고힘써 외처되던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여읍니까

님들이여

저 산야을 보십시요

봄이면 나무끝 사이에 움트는 정기가느꺼지고 여름이면 힘찬 기운이

느꺼지고

가울이면 온산야을 물들여놓으듯 우리들의 두 눈동자가

황홀에빠질때

우리는 온산야을 푸른옷 잎희자고 앞장서 주장하신 지도자을 희상하면

그분이 미처 이루지못한 조금만한홈결이라도 찾아 완성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산야 울창한슢속을

물러줌이 어떠하신지요

어떠한 촌부가 충청도와충청북도의 경개지점인 곤룡터널 정상에서

울창한슢속의 마음을 님들에 보내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님들에개 평화로움을.....

무식자

[chosun]

****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석 생가 풍경.!! [15]

김중기(equus88) [2008-09-16 21:19:13] 조회 966 | 찬성 109 | 반대 2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석 생가 풍경.!!

먼저 조토마를 즐겨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지난 한가위에 가족 친지들과 화목하게 조상님 잘 모셨으리라는 안부의 인사를 올립니다
.

저는 평시에 구미를 지날때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서 저 나름데로의 예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나 부산 등을 갈때에, 가는 시간이 넉넉하면 구미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생가를 뵙고 남구미 톨게이트로 올려서 가거나, 아니면 올때의 시간이
넉넉하면, 남구미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생가를 뵙고 구미 톨게이트로 올려서, 아무튼 경부 고속도로를 오갈 적에 가뭄에 콩 나듯이 고 박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뵙는 사람입니다
.

이번 추석에도 찾아 뵙고, 생가를 한바퀴 둘러 본 후에 향에 불을 붙히고 큰 절을 드린 후에,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님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평시 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분향소내에서 서성이며 뵈었습니다.

찾아 뵐때마다 느끼지만, 고 박대통령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좀 차갑게도 보일 수도 있지

만, 한참을 뵙고 있노라면, 좀 매섭다 싶은 눈에는 결의에 찬 큰힘과 기를 느낄수 있고, 굳게 다문 입에는 무언가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보이고, 얼굴에 비해 큰 귀는 큰 지도자의 덕목으로 그 당시의 먹을 것이 없으니, 배고파서 굶는 수많은 국민들과 한글도 모르는 국민들과 농민들의 가슴속 한의 소리들을 논두렁에 직접 나가셔서 많이 들어 셨을 귀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지만, 그 가슴속에는 따뜻한 정을 깊고 넓게 많이 가진 분은 틀림이 없으시며...

고 육영수 여사님은 타고난 인자함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가지런한 하얀이가, 우리네 집의 다정하시고 정많고 조신하신 어머님, 큰누님, 고모님 같으신 모습에 바라 뵐수록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끼며, 분명 훌륭한 국모님 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조신하시든 저의 조모님과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큰소리 한번 내시지 않고 사신 분들인데, 고 육여사님 서거에는 몇일을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는 00지방의 00시에서 00김가의 000님의 21대 손으로 태어나서, 조부님 윗대의 조상님들은 제가 뵌적이 없지만, 조부님은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좀 알려진 유림의 한학자셨고, 집 또한 농토가 많아서 그 일대에서는 부자였으므로, 저는 사실 배고픔을 전혀 모르고 뭐든 풍족하게 살았고, 제가 중학교에
다닐적까지 000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으며, 또 그에 비해서 가정 교육등은 엄하게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적 철없든 저는 조부님께서 일찍 돌아 가시기를 바랬든 적도 있었고, 가족들과
집안의 식솔들이 많은 것이 싫어서, 우리집이 가난해 지기를 바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6.25후라서 왜 그렇게도 다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한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손에 헝겊을 둘둘 감은 00병 환자들과 6.25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0000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친 팔다리에 헝겊을 둘둘 감고 먹을 것을 찾아서 동냥을 하러 전국을 헤메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은 멀리서 쳐

다 봐서, 일단 기와집으로 지붕이 큰집을 우선으로 찾았고, 해질 저녁 무렵이나 아침 무렵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솟아 나는 집을 우선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도 농토도 없고 큰 소와 달구지도 귀했는지, 소를 하루 빌려가서 하루내내 논밭을 갈고는, 그 댓가로 일을 해주는 분들도 많았고, 먹을 것이 그 얼마나 없었으면, 저와 같은 반의 친구들도 5월 쯤부터 인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새파란 감을 새벽에 주워다가 홍시가 되면 먹거나 삭혀서 먹었습니다. 술도가의 술찌개미를 먹고 등교를 했으니,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얼굴이 벌겋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애들도 여럿이 있었으니, 아!! 가난해서 배고픈 나라의 국민과 그 자식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실때마다, 저의 조모님과 어머님께서는 겨울에는 항상 그 분들을 방에 들게 하시고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서 드린 후에, 맛있게 드시는 그분들 옆에서 항상 조부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사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빠짐없이 하시고, 옷가지를 싸주시며 대문까지 배웅을 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안마당에 큰 마루 여러개를 펴거나 큰 멍석을 여러개 깔고 많은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머슴(그때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머슴이라 했슴)들과 그 가족들도 같이, 결혼을 한 머슴들도 우리집 담내에 있는 집에 다 같이 살면서, 식사도 꼭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했었습니다. 물론 조부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하셨고...

밥을 먹을 끼니때마다, 그분들이 어김없이 찾아 오시면, 조부님은 손에 피고름이 흐르고 치료는 커녕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그분들과 조부님과 겸상을 차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럴때면, 철없든 아이들은 밥이 넘어 갈리가 없었으나 솥가락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부님의 불호령이 겁이 나서, 그런데도
조부님께서는 그분들께 편하게 많이 드시라며, 당신의 맛있는 반찬과 밥을 덜어서 드리

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하니 저의 조모님께서는 생전에 조부님과 겸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고로 저는 비록 00로 살지만, 나이가 들 수록, 살아 갈 수록 저의 조부님께 감사함을 새삼 느끼며, 존경심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든, 나라를 고 박정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서 부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 했습니다. 쌀이 모자라니, 쌀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농한기에 도박을 못하게 하고,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경조사에 헛소비를 없게 하고, 없는 쌀이지만 아낙들이 밥을 지을때에 한줌씩의 쌀을 저축하게 하고, 혼분식을 장려하고, 농지 경지정리를 하고, 수확이 많이 나는 통일벼를 짓게 하고,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시면서 농민들과 풋고추를 안주로 막걸리를 드시면서, 농민들의 손을 잡고 지독하게 배고픈 가난과 무학의 설움도 벗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이 것만은 물려 주지 말자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 절망의 한을, 큰 해와 보름달같은 희망을 솔선수범하시고 열변을 토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여, 우리네 할머님 어머님 누님들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가발공장의 가발수출부터 시작하여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쭉 뻗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굴뚝이 높다란 수천개의 공장 등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누리며 살게 되었으며, 올림픽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분명 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큰 지도자가 계셨기에, 그 혜택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산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절에 5.16 혁명으로 어지러운 국가를 바로 세운 후에, 민정 이양의 약속을 하셨지만,
의장 신분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은 후에, 그데로 민정이양을 하면 또 나라가 어지럽고 도태가 될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민족중흥의 큰 뜻을 품고 직접 대통령이 되셔서, 통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높은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집에 간혹 오시면, 조부님께 한문도 배우시고 간혹 조부님께서는 꾸중을 하시는 모습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민정 이양의 약속을 어기는 데는
분명, 우매한 국민이 모르는 그 깊고 큰 뜻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하니,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깨끗하고 바른 국정의 통치를 하며", "나라가 가난해서 힘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못 배우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하여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셨을 것이라 기억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우리집의 지난 일까지, 들먹이며 이 글을 등재하는 가 하면, 이번 추석에도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뵙습니다. 그런데 찾아 오시는 분들이 남여 노소없이 갈 수록 많아 지고, 어린 자식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자료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올리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올리고 남은 소주 한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주병을 보는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벅차고 웬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 소주 한병을 추석 명절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님께 올리신 분은 과연, 어떤 신분의 국민일까요? 저는 그 소주 한병을 올리신 그분께 한없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보다 더 배풀며 부지런히 살아야 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생가를 나와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구미 국가 산업단지를 보며, 담배 한대를 시원하게 피우며, 흘러 내린 눈물 자국을 지우고...생가를 떠나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조토마를 즐겨 찾으시는 여러분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족 중흥을 위해서 그분은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 조차 내지 못하는 큰 업적을 남기 셨습니다. 그러하니, 너무 그렇게 잘못된 쪽만 들추어 내어, 지독한 독재자라는 표현과 그러한 마음들은 이제 좀 너그럽게 풀고 삼가 해주시기를
바라며,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 놓은 튼튼한 기반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전진을 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등재 했다고, 항변하거나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고 하는 분들에게 한말씀을 드리자면, 등산을 하다보면 무연고 묘들도 많습니다. 그런 묘들을 보면, 어느 누군가가 벌초도 해드리고 술을 한잔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그러 할진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중흥에 큰 업적을 남기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추석 명절에 찾아 뵙고 술한잔 올렸다는 것과, 그 풍경의 글을
읽고, 기분을 더럽도록 나쁘게 가질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 두서없고 문장력이 없는 글로 그 당시의 국민들의 형편을 기억을 더듬어 글로 써려니까,
저의 집안까지 자랑처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chosun]

재일동포 일본프로야구 선수 / 이휘소박사에게 보낸 박정희대통령의 편지

2008.09.15 12:53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581756E6EDFE8EE873ADFC00F15DF45674A3&outKey=V129262688a806d83fd73600d8f7c80d4cfd91f507f06bb8e5c22600d8f7c80d4cfd9ㅍㅍㅍ

이런 대통령을 어찌 존경치 않으리오?　　글쓴이　李苔栢 (12488403)

번호　331123　날짜　2008-09-14 12:53:10　조회수　918　추천　13

이휘소박사님,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뵈온 지 벌써 4년이

나 되었습니다...그 동안 박사님의 소식은 이 곳에서도 자

주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

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저대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

은....모든 것은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나라는 어지렵고,국방은 허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없게 되었

습니다.

이박사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

이 이미 미군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단계이고...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

니다....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

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이제 얼마후면 한국에 남

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인도 미국정부측에 몇 번 자제를 호소하고,부탁도 하여

보았지만..더 이상 구걸하는 것도 추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무엇하지만..그래도

애원해서 들어줄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본인은 어떠한 일이

라도 할 각오입니다.

이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한국정부가 요구해서 들

어줄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가능성도 없는 구걸 행각으

로 국가의 이미지만 손상을 보는 추한 모습을 또 보이고 싶

지는 않습니다...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

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과학자들을 본국에 초청한 것이나 귀국시킨 것도 이런

저의 뜻을 일부입니다...이박사님을 초대하거나 모시지 못

한 것은 박사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미국에..선전포고를 하

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중론에 못이기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박사님의 능력을 추앙하고 박사님이 한국 사

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그러나 조국은 위태로와 졌고 사정은 급박하여 졌습

니다...이미 카-터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여기서 비굴

하지 않고도....우리는 승리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굴한 기운만 보이면 깔고 뭉게는 묘한 도덕정

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이제는 의존하던 시대에 종

막을 고할 때라고 사료됩니다..우리자체가 독자적으로 미

사일개발,핵무기개발,인공위성개발까지 해서...감히 누구

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라린 경험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우리

백성들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이박

사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이휘소박사님,조국을 건져 주

십시오...74년엔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이박사

를 보호하기 위하여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

습니다..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박사의 마

음에 달리어 있습니다...그 동안 재미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개발부터 서둘렸고...또 시험도 해 보았지만,하

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지금은 이박사님의 힘이 필

요할 때입니다...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 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박사님께서도 조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계시지만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상황 앞에서,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 정 희 배상

1971년 6월 - 핵개발 15년 계획 수립 작정함.

개발팀 200여명중 과학자 50%

극비리 추진중 애국심 만발함

1972년 5월 프랑스로 부터 재처리 기술 확답 받음

샹고방사와 불순물 함량 문제로 격론 .

1975년 4월 프랑스 샹고방사와 4,600만불,서커사

와 2,600만불 재처리 시설 도입계약 체결

연구용 원자로는 케네다에 별도 구입키로

1975년 6월 박통,W 포스트지와 회견 도중 미국의

핵우산 보호 없으면 우리도 자체개발 !!

1975년 8월 주한 미대사 리쳐드 슈나이더 과기부

최형섭 장관 방문 개발 포기 압력 시사함

1975년 8월 25일 ~28일 제임스 슬레진져 미 국무

장관 방한 핵무기 포기각서 요구함.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및 재정차관 중단

1976년 1월 미 국무부 부관 한국 파견 최종 통보함

1976년 1월 22일~23일 미대사관으로 부터 개발팀

소환되어 협상 벌이나 범죄자 취급

1976년 1월 말 핵재처리 사업은 화학처리 대체

사업으로 미국의 예봉을 일단 피해감

1976년 12월 미국의 감시를 피해 일부러 서울

서 멀리 떨어진 대전에 대덕공단을 건설함

1979년 5월 우라늄 전환 시설 기공식 대덕공단에

박통 방문 일일이 악수하며 눈물의 격려

1979년 10월 26일 역도 김재규 박대통령을 시해함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소장 쿠테타 성공

핵연료 개발공단 과 원자력 연구소 통폐합 조치

에너지 연구소로 개명후 핵연구는 물론 원자력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음, 개발팀 완전 해체 시킴

1991년 11월 노태우 한반도 비핵선언 핵주권 포기

李苔栢(12488403) 2008-09-14 12:56:04

그러나 박대통령도 의문의 시해를 당해 돌아가셨고..
이휘소 박사님 역시 디트로티이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건너편 도로에서 튕겨져 나온 자동차 타이어에 맞아 말이다..

李苔栢(12488403) 2008-09-14 12:59:40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역도 감재규의 흉탄에 사망
1977년 6월 16일 이휘소 박사님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사망 (당시 43세)

뒷짐지고(akdrudckdvk) 2008-09-14 18:52:12

명절인대 좋은 덕담이나 한번 하시지요..^

백천(cyy4599) 2008-09-14 20:52:59

대한민국 비극의 1막1장 [역도 김재규의 흉탄]편을 보는듯 지금도 피가 역류합니다.

李苔栢(12488403) 2008-09-15 10:40:31

인사가 늦어습니다.
뒷짐지고님 ..백천님..늦게나마 풍성한 한가위 맞으십시요.

[donga]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2008.09.04 08:53

-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K-b-jung님
- 조회 30801 답변 15 2008-08-29 11:52
-

질문기간이 1일 남았습니다. (09월 05일 자정 마감) 신고

지금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음식을 먹고 오면,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룸메이트가 이야기하기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사는 처지에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는게 좋잖아요~
마늘 입냄새는 양치질 해도 잘 빠지지 않고;;; 오래가더라구요..
심지어 저녁에 삼겹살을 먹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냄새가 지속;;;
제가 원체 생마늘을 좋아해서 많이 먹기도 하구요.. ;ㅁ;
그래서..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느린 컴터 붙잡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ㅁ;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5를 드립니다.
회원님이 작성하신 답변이 채택되면, 질문자가 건 지식머니 10과 평점별 추가지식머니를 드립니다. 답변하기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朋友-용희님
- 2008-09-03 20:05
-

질문자평

스크랩 3 | 신고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
마늘은 하나만 빼고 백가지가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한가지가 냄새라고 하네요^^

저도 마늘을 좋아하는지라, 마늘 먹은 다음의 입냄새가 신경쓰인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저야 뭐, 한국사람끼리~ 이러고 말테지만, 외국인에게는 쵸큼;; ㅋㅋㅋ

아무튼, 마늘냄새를 줄이는 방법 중, 다음 세가지를 추천하고 싶네요~

1) 우유를 마신다.

우유를 단숨에 마시지 말고 씹듯이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성분과 결합하여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늘 특유의 냄새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2) 껌을 씹는다.

껌을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 타액속의 단백질이 마늘냄새 성분과 결합해서
위장으로 흘려보내 주기 때문에 냄새가 빨리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껌은 엽록소가 함유된 것이 보다 효과적이래요.

3) 자스민차를 마신다.

중국요리에도 마늘은 자주 등장하지만,
중국인이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향이 진한 자스민차에는 냄새 제거효과가 있습니다.
홍차, 우롱차, 민트 등의 허브차 등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구요^^
이들 차를 마실 때는 약간 진하게 타서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삼키면 좋아요.

중국에 계신다니, 자스민차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뭐.. 이 세가지가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것 같아서.. 답변달아드립니다.^^

채택부탁 ㅋㅋㅋ
내용출처 : http://cafe.daum.net/meeting38/4ABi/191

의견쓰기 8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친절한키드님 1:1질문하기

- 2008-08-29 12:04
-

스크랩 0 | 신고

음....
제가 좀 이거 본지 오래 됐는데요...
스펀지에서 나왔더군요...
보통 외국사람들은 냄새가 강한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스펀지에서 알려준 내용으로는
한지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만든 한지 말고
완전 오리지날 한국산 이어야 된다는군요....
근데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분이
마늘 때문에 한지 구하러 한국에 가야 한다니 좀...
그렇기두 하구요...ㅋ

사실 저도 마늘은 냄새가 나서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늘을 좋아하신다니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안그러면 껌 씹어 보세요..
근데 원래 마늘이 냄새가 강하다보니까
아무리 깨끗이 할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겁니다.

마늘을 조금만 먹으려고해도
내가 좋아하는데 할 수 없죠...
좀 부족하지만...
마늘 특징이 그런데

할수 없는거 아닐까요...??

가글도 냄새 좀 강한거 해 보시던지요..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멋진쟁이그넘님
- 2008-08-29 17:45
-

스크랩 0 | 신고

마늘 입냄새가 심하게 날 땐 녹차를 끓여 마시고,

남은 녹차잎을 입안에서 잘게 씹은뒤,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녹차 안의 후라보노라이드라는 물질이 마늘 냄새를 흡수해 주기 때문이죠.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2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미셸조님
- 2008-09-03 12:17
-

스크랩 0 | 신고

오렌지를 식사후에 까 드세요.
오렌지 한조각 이렇게 말구요.. 주먹보다 큰 오렌지 하나를 그냥 손으로 까서
하나 다 드세요. 오렌지가 입안 상쾌하게 만들어요.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 같구요.
* 오렌지 쥬스는 별 도움 없구요.

그래도 안좋으면
양치질 하실때 치아도 중요하지만 혀를 더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위장과 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거니까.

녹차는 입냄새 제거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이용하시구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사지사기자가님 1:1질문하기
- 2008-09-03 14:29
-

스크랩 0 | 신고

우리나라 전통 창호지를 씹으면 냄새가
제거 됩니다. 스펀지 에서 봤어요,
(전통 창호지 만드는 방법)
한지의활용법-창호지로 사용
 한지의 우수성은 창문용으로 사용되는 창호지의 열적 성능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옥에서 사용하는 창호지와 현대 기술의 산물인 창유리와의 역적 성능을 비교하니 에너지 파동이래 많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비싼 이중 창문(피어글라스)보다 한지(창호지)를 사용한 이중 창호지 문의 열적 효과가 높았다.

창호지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 문명 기술이 만들어 낸 어떤 종류의 창문 재료보다 실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창호지는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온돌에 장판을 발라 생활했던 우리의 주생활은 방안에 습기가 많은 것이 문제점이었으니 이습기를 창호지로 자연 배출되도록 유도해 쾌적한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습기가 많으면 그것을 빨아들여 공기를 건조하게 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호지를 '살아 있는 종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창호지가 자연 현상에 이처럼 순응하는 성질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지의 제작과정-한지의 원료는 닥나무 입니다.

1. 닥나무 삶기
 흑피와 청피를 제거한 백피를 맑은 물에서 하루 정도 잘 불린 후 잿물에 넣어 4~5시간 푹 삶는다. 잿물은 주로 콩대, 메밀대, 짚 등을 태운 재를 따뜻한 물에 우려 걸러서 사용한다. 잿물을 내릴 때는 밑에 구망을 낸 항아리 안에 나무와 망을 걸쳐놓고 재를 넣은 뒤 40~50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잿물을 내리며 이때 구멍

앞에 망을쳐서 불순물을 걸러 내어 쓴다. 이 알칼리성 잿물로 인해 한지를 PH9.5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적 성질은 종이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2. 씻기 및 쐬우기(일광표백)

잘 삶아진 닥은 7~8시간 정도 솥에서 뜸을 들인 후 흐르는 맑은 물에 3~4일 정도 담가둔다. 이때 줄낫 등으로 잘 추스려주면 좋다. 이 과정에서 섬유질 이외에 당분, 회분, 기름기 등을 다시 한번 없애준다. 특히 물속에 담그고 햇볕을 쐬우는 경우는 흐르는 물속에 백피를 펼쳐놓고 원료 전체에 햇볕이 골고루 내려 쬐도록 자주 고르게 섞어 뒤집어 주면 백피가 더욱 하얗게 된다. 이 과정은 물속에서 햇빛의 작용으로 오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여 산화 표백하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섬유가 손상받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씻기와 햇볕 쐬우기는 주로 물의 온도가 낮은 겨울에 이루어 진다.

3. 티고르기

원료를 두드리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표피에 남아 있는 티를 일일이 골라 제거한다. 표백약품을 이용하여 티를 제거할 수 있으나 표백약품 사용이 섬유에 손상을 입히므로 전통한지 제조시에는 반드시 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루종일 티를 골라내더라도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닥의 양은 얼마되지 않으므로 이과정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영세한 한지공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닥을 삶을 때 가성소다를 넣어 잡티를 표백해 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종이는 강하고 질긴 한지 특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4. 두드리기

원료를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2~3시간 두드려 섬유가 풀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한지와 서양지의 차이가 있다. 서양지에는 아마(亞麻)섬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2~3일 밤낮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섬유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 공정에서 섬유가 많이 손상되고 섬유사이의 접척력도 닥종이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닥섬유는 물에 젖으면 유연성이 커지고 섬유 혹은 종이끼리의 접착력이 우수해 다른 종류의 종이와도 잘 접착한다. 한편 좀 더 고급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리 하는 과정에서 섬유를 조금씩 물에 풀어 여러번 잘 흔들어 다시 한번 더 티를 제거한다.
티 제거시 섬유의 표백도 같이 해주는데 원료를 흐르는 물에 치어망을 놓고 계속해서 풀어 나가면 섬유속에 남아 있는 잿물성분과 리그닌이 서서히 제거되어 발색이 더욱더 희게 된다. 이런 과정을 2~3회 반복한

다.

5. 뜨기와 물빼기

닥섬유와 닥풀을 수조에 넣고 막대기로 저어 섬유의 엉킴을 풀어준 뒤 부유하는 섬유를 발로 건져내는 것을 수초(手抄)라 하는데 수초법에는 전통기법인 흘림뜨기(외발뜨기)와 개량기법인 가둠뜨기(쌍발뜨기)가 있다. 흘림뜨기는 섬유를 자유롭게 흘려보내면서 탈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수평적인 탈수를 하는 특징이 있고 가둠뜨기는 섬유를 틀 안에 채워 수직 방향으로 탈수를 한다. 흘림뜨기로 제조한 종이는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지해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데 섬유가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돼 종횡으로의 강도 차이가 적어 가둠뜨기로 만든 종이에 바해 질기다.
수초한 종이를 나무판 위에 포개어 쌓고 그 위에 나무판을 얹은 후 무거운 돌을 올려 놓거나 지렛대로 눌러 하룻밤 동안 물기를 빼준다.

6. 말리기(건조)

한지의 전통적인 건조법은 습지를 온돌방 방바닥에 펴서 비로 쓸어 가면서 말리거나, 아니면 벽에다 부쳐서 말리거나 나무판에 붙여서 일광건조를 시켰다. 비가 올 때는 장판이나 흙벽에 붙여서 건조시키기도 했는데 현재는 철판에 열을 가해 건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철분 오염의 우려가 있고 건조 온도가 높아 빨리 건조되므로 목판건조에 비해 신축률이 떨어지며 수분함량이 낮아 종이가 딱딱해진다. 또한 건조시에 베어나오는 철판의 녹 때문에 종이 산화 촉진의 원인이 된다.

7. 다듬이질(도침질)

디딜방아 모양의 도침기에 덜 마른 한지를 여러 겹 포개놓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치밀하고 매끈한 종이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침질을 하지 않은 종이의 1/2~1/3정도로 두께가 줄어드는데 자연 사이징(Sizing)효과를 얻을 수 있어 먹의 번짐을 조절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침을 실시하는 곳이 드물다. 도침을 하지 않은 닥종이의 먹의 발색이나 발묵이 좋지 않아 작품의 재료로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처럼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babara(pbr***) 1:1질문하기
- 2008-09-03 15:38
-

스크랩 0 | 신고

우리나라 녹차을 마시고 녹차물로 입을 가그린하시고 녹차의 생 잎을 조금 입안에 넣고 ㅁ버물고 계시든지 아님 생녹차잎을 살짝 싶고계시면 약간은 떱고 씁쓰럼해도 조금있으면 입안 가득히 차향이 배어져서 말씀하실 때 마다 그윽한 차향이 배어나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김이 좋다는 애긴 들었는데...
- −
-
- 우상봉님
- 2008-09-03 16:36
-

스크랩 2 | 신고

어디선가 김이 좋다는 애기 들었습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3

- 들국화님
  저도 파김치나 마늘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특히 제가 강의를 하는사람이라서 양치를 많이해도 가시질 않아 여간 신경쓰이질 않았는데 누군가 김이 좋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효과가 탁월했어요. 맨 김을 구워서 맨입에 먹어보세요. 정말 냄새가 가시더라구요 2008-09-03 22:07 답글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공사들어간다님
- 2008-09-03 17:38
-

스크랩 0 | 신고

같이 마늘을 먹어요~~~~

삼겹살에 마늘 같이 먹어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3

- songsj님

당신이 최오 !! ㅋㅋ 2008-09-03 17:51 답글

- 스미레님

  우하하하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재밌네 !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08-09-04 06:23 답글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진(lido********) 1:1질문하기
- 2008-09-03 17:40
-

스크랩 0 | 신고

생강을 씹으세요

효과가 좋을겁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0

- 전지현언니ㅋ님

  그럼 생강냄새 날거 아니예요ㅋㅋㅋㅋ 2008-09-03 18:16 답글

- 스미레님

  계속 재밌다 !!! ㅎㅎ 2008-09-04 06:33

-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아이큐550님 1:1질문하기
- 2008-09-03 18:16
-

스크랩 0 | 신고

스펀지에서봣는데요 전통창호지를 입에다 넣고씹으면 마늘냄새가 사라져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0

- 창호지 강력추천합니다~
- −
-
- ㅂi누방울♡님 1:1질문하기
- 2008-09-03 19:00
-

스크랩 0 | 신고

스펀지에서 나온바, 창호지가 좋다고 합니다.

창호지를 씹으면 마늘냄새가 없어진다고 하군요...

저도 마늘을 먹고 너무 냄새가 심해서

우유도 먹고, 녹차도 먹고 해봤는데,
스펀지에서 나온데로 창호지를 씹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없어지더라구요..
전통적인 창호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shangri-la님
  모두 조으신 정보입니다 저는 외국사람들 상대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사람으로써 .....저에 경험을 .....접시에 레몬 스라이스 인스탄트커피.설탕을 준비하셔서 레몬슬아이스에.커피.설탕.을 찍어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냄새제거100%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정말 효과 있읍니다 사람마다 땀구멍이 있기에 땀을 많이 흘리 2008-09-04 00:48 답글
- 스미레님
  참말 ? !! 2008-09-04 06:24
-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하드모아님
- 2008-09-04 00:40
-

스크랩 0 | 신고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0

- 해원정님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김을 굽지말고 생김으로 몇 장 씹어드세요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효과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08-09-04 00:52 답글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개선문(jhyu*****) 1:1질문하기
- 2008-09-04 02:53
-

스크랩 0 | 신고

밑에 분 들 보니 창호지 도 있고 , 뭐 딴것도 있는데 ..그외에도..
식빵 을 먹어요 ..입에서 한참씹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 한결 좋아질것입니다.
평소 입냄새가 나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0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imag1114님

- 2008-09-04 03:09
-

스크랩 0 | 신고

생마늘 먹지 말고 굽거나 익혀 먹고 /칫솔질을 꼼꼼히 두 번 하고 녹차 가그린을 입안에 넣고 1분 이상 가글링하세요.
잇사이에 스민 마늘즙이 계속 냄새 풍깁니다. 트림하면 아마 맞을 수도...^^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 Re: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 -
-
- 루이스(e-***) 1:1질문하기
- 2008-09-04 05:13
-

스크랩 0 | 신고

초코릿을 드시면 냄새가 안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효과 끝내줍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의견쓰기 1

(0) ?

엮인글 주소 : http://k.daum.net/qna/trackback.html?qid=3clm8 주소복사

인쇄 | 목록

지금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음식을 먹고 오면,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룸메이트가 이야기하기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사는 처지에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는게 좋잖아요~
마늘 입냄새는 양치질 해도 잘 빠지지 않고;;; 오래가더라구요..
심지어 저녁에 삼겹살을 먹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냄새가 지속;;;
제가 원체 생마늘을 좋아해서 많이 먹기도 하구요.. ;ㅁ;
그래서..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느린 컴터 붙잡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ㅁ;

마늘은 하나만 빼고 백가지가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한가지가 냄새라고 하네요^^

저도 마늘을 좋아하는지라, 마늘 먹은 다음의 입냄새가 신경쓰인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저야 뭐, 한국사람끼리~ 이러고 말테지만, 외국인에게는 쵸큼;; ㅋㅋㅋ

아무튼, 마늘냄새를 줄이는 방법 중, 다음 세가지를 추천하고 싶네요~

1) 우유를 마신다.
우유를 단숨에 마시지 말고 씹듯이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마늘의 냄새성분과 결합하여
위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늘 특유의 냄새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2) 껌을 씹는다.
껌을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 타액속의 단백질이 마늘냄새 성분과 결합해서
위장으로 흘려보내 주기 때문에 냄새가 빨리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껌은 엽록소가 함유된 것이 보다 효과적이래요.

3) 자스민차를 마신다.
중국요리에도 마늘은 자주 등장하지만,
중국인이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향이 진한 자스민차에는 냄새 제거효과가 있습니다.
홍차, 우롱차, 민트 등의 허브차 등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구요^^
이들 차를 마실 때는 약간 진하게 타서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삼키면 좋아요.

중국에 계신다니, 자스민차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뭐.. 이 세가지가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것 같아서.. 답변달아드립니다.^^

채택부탁 ㅋㅋㅋ

음....

제가 좀 이거 본지 오래 됐는데요...

스펀지에서 나왔더군요...

보통 외국사람들은 냄새가 강한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스펀지에서 알려준 내용으로는

한지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만든 한지 말고

완전 오리지날 한국산 이어야 된다는군요....

근데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분이

마늘 때문에 한지 구하러 한국에 가야 한다니 좀...

그렇기두 하구요...ㅋ

사실 저도 마늘은 냄새가 나서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늘을 좋아하신다니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안그러면 껌 씹어 보세요..

근데 원래 마늘이 냄새가 강하다보니까

아무리 깨끗이 할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겁니다.

마늘을 조금만 먹으려고해도

내가 좋아하는데 할 수 없죠...

좀 부족하지만...

마늘 특징이 그런데

할수 없는거 아닐까요...??

가글도 냄새 좀 강한거 해 보시던지요..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마늘 입냄새가 심하게 날 땐 녹차를 끓여 마시고,

남은 녹차잎을 입안에서 잘게 씹은뒤,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녹차 안의 후라보노라이드라는 물질이 마늘 냄새를 흡수해 주기 때문이죠.

오렌지를 식사후에 까 드세요.

오렌지 한조각 이렇게 말구요.. 주먹보다 큰 오렌지 하나를 그냥 손으로 까서
하나 다 드세요. 오렌지가 입안 상쾌하게 만들어요.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 같구요.
* 오렌지 쥬스는 별 도움 없구요.

그래도 안좋으면
양치질 하실때 치아도 중요하지만 혀를 더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위장과 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거니까.

녹차는 입냄새 제거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이용하시구요.
' name=str〉

'마늘 냄새' 검색결과

더보기

- 음식,요리

  손에서 마늘냄새가 나는데 어떻게하죠?

  조회 : 189

- 상식

  마늘 입냄새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조회 : 25,309

- 한식

  입에서 마늘냄새 없애는 법?

  조회 : 571

- 예절,에티켓

  마늘냄새 없애는 방법 있나요?

  조회 : 6,318

- 상식

  마늘냄새에는 창호지가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조회 : 126

- 절약,알뜰살림

마늘입냄새 없에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조회 : 4,351

- 음식,요리

  반찬그릇에 배인 마늘냄새——; 없애는 방법 없나여?

  조회 : 604

- 음식,요리

  마늘의 냄새가 강할수록 수은해독작용이 강한가요?

  조회 : 139

- 음식,요리

  마늘 먹은 후 입냄새 제거 방법은??

  조회 : 11,352

- 음식,요리

  다진마늘 냄새가 이상한데 먹어도 될까요 ?

  조회 : 77

상식 인기지식

더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복분자와 산딸기 같은건지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먹다가 남은 과자 눅눅해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좀 알...

유전에 불이 붙으면 폭탄으로 불 끈다는데 오히려 불이 ...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르다?????

사회,문화 인기지식

더보기

구미호는 왜 하필 꼬리가 9개일까요?

위장탈북한 여간첩 검거 사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남자들은 힘들때 동굴로 들어간다??

술을 섞어 마시면 진짜로 빨리 취하나요??

[키작은 사람이 오래산다는 말이 있는데 왜그런거에요?]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 구별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연일 뉴스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 유통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 유통업체에서도 미리 수입해 둔 냉동 미국산 쇠고기를 5월부터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이 기사의 이미지 촬영을 위해 필요한 미국산 쇠고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형 마트는 물론 일반 식육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었던 것.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모 식육점에 작년 12월에 들여온 냉동 미국산 쇠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 겨우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식육점에서도 판매용은 아니었고, 기자에게 촬영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미국산 쇠고기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 하나가 터졌다. 광주의 모 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것.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비뼈에 덧붙여 한우와 호주산 양념갈비로 속여서 미국산 쇠고기 500kg 정도를 보름에 걸쳐 판매했고, 20kg 정도가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 식약청의 단속에 걸린 것이다.

본격적으로 수입 · 유통이 되기 전부터 이런 사건이 터지니, 장관 고시가 발표된 후 어떻게 될까 무서울 따름이다. 혹시나 나 자신도 모르게 광우병 고기를 먹게 될지도 모를 일.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라도 숙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을 알아두고,
유심히 살펴보면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색깔_한우는 선홍색이지만, 미국산은 암적색이다. 정육점에서는 진열대에 빨간 등을 켜 놓아 구별하기 힘들므로 반드시 꺼내서 색을 확인할 것.
지방_미국산과 한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항목. 한우는 지방이 흰색이고 가늘고 고르게 분포돼 마블링이 섬세한 반면, 미국산은 지방이 많고 두꺼워 마블링이 섬세하지 않고 뚝뚝 끊겨 있다.
지육 상태_한우는 냉장육, 미국산은 냉동육이다.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한우에 비해 얼었다 녹은 미국산이 훨씬 물이 많이 나온다. 또한 부위별로도 구별법이 따로 있다.
갈비_한우는 짝갈비(큰 덩어리) 형태로 유통되고 덧살이 붙어 두껍지만 미국산은 한 덩어리에 3~5대의 갈비가 붙어 있고 본살만 있어 얇다.

꼬리_한우는 꼬리에 엉덩이 살까지 붙어 있고 꼬리 자체가 가늘고 짧지만, 미국산은 꼬리만 있고 길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잘라서 판매하는 것의 경우 미국산은 지방을 제거한 흔적이 있다.

아무리 유심히 살펴도, 작정하고 속여 파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말, 진짜로 안전하다고 해도 민심이 이렇게 돌아설 정도로 반대하는 일이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었을까.

취재 : 이경은 기자 / 사진: 선지형(studio lamp)

출처 : [여성중앙]

[스크랩] MB프로젝트...이름풀이... 넘 웃겨요... ㅎㅎ

[퍼옴]

MOUSE BUSTERS
PROJECT

38. 이름풀이

Baryshnikov
IGHOST.TISTORY.COM

朴正熙

十八卜 권력을 잡은 지 십 하고도
팔년 후의
점괘가

一止 일인 독재가
그칠 운명이었으니,

臣己灬 부리고 있던 신하와
자신의 몸에
총알 4발을 맞을 것이다.

李盲博

十八子 亡目 十市、二一丿、

십
팔
새X

망할
눈빛 이로구나

노가다 십장과
시의
윗대가리 노릇을 하다가
두 개 다 말아먹고,
일인 독재는
갈고리에 걸려
한 방에 사라질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철학관 공길

해 뜨면 일하고, 달 뜨면 주무시게나!
밤 낮 없이 사고치지 말고…

출처 :부산맘 아기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 손소희(강태희)

[박사모]

[펌]대학의 등록금이 갑자기 비싸졌을까요/미국 CEO 연봉 근로자 임금의

2008.05.21 10:50

광고 - 야후! 코리아 에서 'Inuit'님의 블로그를 지원합니다.

Biz

승자독식 관점으로 본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

2008/05/18 오후 1:44 | Biz

몇 가지 간단한 화두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1. 왜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갑자기 비싸졌을까요?

2. 일본의 맥주 명인 에비하라 씨와 Alex Rodriguez는 자기 분야의 기예를 최고로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평생 고생 끝에 은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연봉이 하위 구단 전체 연봉에 필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3. 영화 마케팅과 서울대 유명세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미국 CEO의 연봉이 (우리나라 등과는 달리) 평균 근로자 임금의 150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일류대'라는 딱지가 사회적으로 후생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앞 포스팅에서 말했듯,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Frank씨와 Cook씨의 '승자독식사회'를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결실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위의 질문도 책을 읽으며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생각거리인데, 승자독식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더군요.

Some answers, WTA view

1. 내재적인 인상요인이 있지만 유학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올랐습니다. 20년간 6배가 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브랜드 향상을 위해 스타교수를 영입하고 행정직을 확충하며 대학 스포츠 단 운영비용에 막대한 돈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경향이 제일 심하고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대상이 올라가니 우리나라도 옳다꾸나 오르게 됩니다.

2. 에비하라씨는 물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scalability가 없고 그 혜택의 범위가 물리적 공간으로 제한됩니다. A-rod는 그 플레이를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MLB 팬이 봅니다.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 등 거대한 시장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3. 한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positive feedback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광고를 통해 알려져 관객이 많이 들면 계속 관객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명대학은 유명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대거 입학하고, 그들이 졸업해서 각지에서 명성을 떨쳐 계속 우수한 학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비용을 들이든.

4. 미국에는 CEO의 외부 영입 문화가 발달해있고, 공급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승진을 통한 CEO 평균 봉급이라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0배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5. 둘 다 가능합니다. 후생의 감소는 일류대를 가기 위한 과당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경쟁자간 상쇄되는 투자는 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대학서열과 같은 scoring agency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생성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감소시키므로, 결과적으로 후생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conomic divide in Korea, Inuit view

복잡하기만 한 경제를 단순하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양극화의 근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의 편재와 사회적 비용증가

Rocket-rising real estate

최근 5년간 부동산 급등은 부의 분배상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부동산의 급등은 저이자율에 따른 세계적 추세인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대책없이 부동산 급등이 방치된 점은 통탄할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빚 얻어 전세끼고 집을 매입한 사람'이 그냥 저축하며 전세 살았던 사람에 비해 투자이익률(ROI)이 몇십%도 아닌 몇백% 차이로 갈라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창업해서 큰 돈 번 사람은 존경합니다. 나쁜 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위험(risk)을 감수했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통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통한 과대한 보상은 투입과 산출의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존재는 인정하되, 만연하면 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됩니다.

All study at any cost

지식사회로 진입해서인지, 살림살이가 나아진 탓인지, 모두가 학벌경쟁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만 되어도 학원 다니느라 서로 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초등고학년 또는 중학교에 가면 분당 아이들은 새벽 한시까지 학원수업을 한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비싼 과외선생을 쓰지 않아도 한 아이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쉽게 나갑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10년 열심히 저축하면, 대출끼고 집

살 수 있다는게 통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연봉 6000만원이면 웬만한 기업의 간부급 정도 될겁니다. 이 연봉에서 1년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세금떼고 아이 교육시키고도 천만원 저축하면 기록적인 저축률 아닐까요. 그래봤자 10년 모아봐야 1억5천도 못됩니다. 이 돈으로 원하는 곳 집산다는게 무리도 보통 무리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GDP 상승률이 5% 미만이고, 생산성 개선도 그 수준이라면 임금의 상승 폭이 뻔합니다. 지탱하지 못하는 집값이라는 결론입니다.

Winner-take-all viewpoint
승자독식 관점에서 위의 두 현상이 설명가능합니다.

Entrapment game
함정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1위와 2위는 자신이 부른 입찰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1위만 받습니다. 이 게임에 관여되면 파국을 맞는 치명적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2위는 1위만 이기면 보상을 (나중에는 주어진 보상을 넘어서 베팅하므로 손실 감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은 죽을때까지 베팅을 올립니다.
집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가격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결국 실물경제가 받치는 수준이 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가 있는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람만 못 빠져나오는 함정게임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뺀 나머지가 수요층을 형성하여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Brand of School, the game
학벌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류대라 일컬어지는 학교를 나왔을 때 그 효과가 매우 차이난다면 모두가 일류대를 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그 상대적 차이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이지요. 결국 게임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뒤쳐지는게 두려워 같이 베팅하고 레이스하는.
이는 군비경쟁과 유사한 양상을 띕니다. 아무런 후생의 증가 없이도 지지 않으려 무의미한 투자를 해야 하는.

더 문제는 과당경쟁의 문제는 부의 편재와 맞물려 부의 차이에 따라 게임의 우위가 정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지요. 이는 부의 세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일은 점점 요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은 정부로 넘어갑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로 집권을 했으나, 광우병이나 대운하 등 한심스러운 이슈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대선때 지지율이 상징했던 공감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분배개념이 아닌 하부구조의 개편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요.

'Biz' 폴더의 다른 글

- Open IPTV의 출범과 Inuit... (0)
- 꿈의 미디어 (0)
- 1분 스피치의 마법, PREP (51)
- 이메일 관련 신간과 추천사, 그리고 ... (1)
- 동아 비즈니스 리뷰, 벗어야 할 애매... (0)

오늘의 Top Blog !!

- 김밥할머니 폭행 안타까운 영상
- 한우사골 맛있게 끓이는 방법!

추천수 (3) 답글 (17) 참조글 (0) 스크랩 (16)

http://kr.blog.yahoo.com/inuit_blogged/368

인쇄 | 추천 | 스크랩

답글쓰기 (17)

에휴~~~~~블로그도 영양가 없는거구만.....서울대든 지랄이든 우짜라고.....이런사고방식으로 사는게 좋은가? ㅠㅠㅠㅠㅠㅠ

08/05/20 (화) 오후 3:53 [i'm sam(teacher)] from 58.231.198.50

i'm sam(teacher) <- he is probably a retard. dont mind this bitch. i bet he didnt even graduate four years university.

08/05/20 (화) 오후 4:47 [wtf] from 75.62.159.18

알긴 알겠는데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08/05/20 (화) 오후 5:11 [진] from 124.28.164.151

나는 샘 (교사) <- 그 사람은 아마 등신합니다. 이 계집 신경쓰지 마. 틀림없이 그는 대학 4 년 졸업도하지 않았다
http://kr.blog.yahoo.com/v5767845

08/05/20 (화) 오후 5:29 [커피자판기]

승자독식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겠지요.
사회모순의 해소는 정부나 정치인의 노력도 있어야 겠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문제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는 안아야 겠지요.
정부나 정치인의 나팔수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08/05/20 (화) 오후 7:07 [허참] from 203.232.46.147

아직도 우린 막걸리만 안 먹었을 뿐 옆사람 말듣고 투표하고 있어요. 또 방송 연설의 한자락 끝에 서죠. 글고 이런글에 쉽게 글자락에 욕설하는자 자기 자기이득엔 상대방 죽이겠다고 덤비는 놈야(100%장담 가슴에 손 얹고 생가해봐 인간아) 누군 입없고 힘없는줄알아 한번 감싸주고 싶은거야!

08/05/20 (화) 오후 8:39 [안중근 의사가] from 116.122.93.184

근대 나대진마 투표엔 빠져 국민아니라고 할테니, 아마 투표도 안했을껄! 짜식이... 난 돈없어 국졸이며 에 에야....positive feedback 얼마나 좋아. 위글을 한다디로 해석하자면 random보다sque nce 하는게 났다는 얘기지! 다시말하자면 뺀질거리면서 세치기하는 자보다 줄서서 순서적으로 처리하는게 good이란 말이고 요즘 정황엔 계획되었던 일들 /.

08/05/20 (화) 오후 8:40 [안중근 의사-2] from 116.122.93.184

즉 5*11대=장인(옛)and 계획이 맞다는 뜻이며 보이는게진실 이란 말이기도 하단 뜻인 건가봐 (입보다 눈이 옳은일이지=최소한 말장난은 아니란말이지요. 남대문 불여일견)알죠! 글을 올리는 사람에겐 심한 욕설은 삼가자는 거입니다

08/05/20 (화) 오후 8:41 [안중-이순신] from 116.122.93.184

-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stack(위에다 엊어서 쌈-저장)되어가는것 아세요(디지탈 시데는 저장이 쉬워 정보랍시고 악용 하죠). 혹 메모리 폼(모양을 기억하는 스폰지(베게및 모형 카피용 알죠!) 지속적으로 정보를 비교하고 검색 해서 축소하며 개개인의 방에 저축되죠.....앞으로 숙제는 이걸 깨야합니다다.....

08/05/20 (화) 오후 8:52 [세종님] from 116.122.93.184

- 이걸 부쉬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결국 전 개인의 정조는 물건 건너 다니게 되면 혼란입니다. 핸드폰만 움직임을 감지 할수있다 생각합니까? memory stack은 습성도 파악 되어 축소 비교 검색 되어 개개인의 정보 는 가자 개인방을 찾아 저장될수 있읍니다.(현재 일반적으로 작업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08/05/20 (화) 오후 9:00 [당신은 대박] from 116.122.93.184

- memory stack 이건 제개인적 생각의 용어정의 입니다. 대용량저장장치인 서버를 깨자! 필요없는 즉 내가 승인하지않은 정보(썩이자-아님 부스러기로 만들자. 이걸 개발 하면 대박....(오래 잠깐 선진국-세계특허 가는 =지적 재산권됨) 생각해본건데 방법도 생각이 났읍니다.---전 바질테니 정말 부자 되세요(가능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너무 너무 많아요.2족이든 4족이든 기본 적으로 만드는것은 잊지않으면 1개의 답이 거의.....

08/05/20 (화) 오후 9:10 [장영실님] from 116.122.93.184

- 휴...대학비는 소나기 쏟아지듯 오르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없고, 다 올라가네...
  제발 뭐든지 가격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08/05/20 (화) 오후 9:22 [주둥이]

- 답을 공개하면 안되는데 젤쉽고 좋은 방법을.....외국인만 모르면 되죠. 그죠. 대신 여러분이 알고 개발 안하면 큰이이죠. 당합니다.

08/05/20 (화) 오후 9:24 [대박 공개] from 116.122.93.184

- 그럼 살짝 공개 낙타가 바는 구멍을 통과하면 되지요(즉 부실의 메모리 벽돌이 생산 되면 됩니다-타이며 내장.....아겠죠! --여러분은 꼭해보세요. 돈벌이요 왕대박에 나라가 부자됩니다.(중국

이+사람인+인인인....+인도인인인.....) 이름표 하나파 주는데 1원만 받아도 대박 (전 손으로 생각하는 기업(꿈)입니다) 대박하신분 방송에서 만날때까지 뉴스로 불러줘요 커피나 한잔....

08/05/20 (화) 오후 9:25 [대박 공개-2] from 116.122.93.184

- 일본맥주 애비하라라고 있는가요? 첨 듣는데.....
  에비스는 들어봤고 마셔봤는데 에비하라라는 맥주는 금시초문이네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08/05/21 (수) 오전 1:15 [나뭇꾼]

- 에비하라《《이분은 맥주상표가 아니라 맥주따르기 명인일꺼에요 아마 어디서 본거 같은데 하여간 그방면에 명인으로 소문난 분인듯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고객들이 만류 해서 은퇴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ㅎㅎ

08/05/21 (수) 오전 2:03 [dd] from 117.58.134.189

- 부동산 을 1~2위 함정 겜으로 단정하는건 아니라고 보내요 물론 그런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순한 되는겁니다 부동산이 노후화 되면 재건축으로 새로운 부동산이 등장 하는거구요 수요 와 공급의 문제이지 님 같이 함정 게임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

08/05/21 (수) 오전 3:45 [광교산마루]

[yahoo]

가

김대중 왜 박근혜에 떼쓰나(조선일보에 게시)

글쓴이: 옥천사 조회수 : 524 08.05.07 17:08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317924

김대중 왜 박근혜에 떼쓰나 [1]

옥천사 [2008-05-05 14:36:30] 조회 449 | 찬성 100 | 반대 3

김대중씨 어떻게 박전대표를 공주라고 입에 담는지 철부지도 아니고 보수 유력신문의 대기자라는 양반 입에서 쉽게 내뱉는지 김씨와 조선에 실망이 말이 아니다. 김씨는 박근혜와 무슨 원수지간 인가? 설사 원수지간이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한 인간의 인격과 명예를 짓발는 양아치 수준의 모독을 자행하는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자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골통좌파와 경선 때 명빠들이 박근혜를 음해 하기위해 줄창 쓰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꼴이 영락 없는 기득권에 빌 붙어 기생하는 사이비 저질의 보수면모와 그 인간 됨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가!! 그대는 명빠인가???????/

청와대와 집권당의 정치적 패착과 국민의 저항을 초래케 한 원인이 정작 누구 때문이요? 초딩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찌 당신이 인간답지 않게 주절이냐 말이요. 김씨 입이

삐뚤어 지지도 않았구만 말을 똑바로 진솔하게 하지않는 이유가 대체 뭐요. 작금의 현 정권에 대한 촛불시위와 탄핵열풍이 박근혜의 침묵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것이 당신의 정치적 도덕적인 안목의 수준이요. 아니면 당신도 국민을 향해 허빵치는 거짓말을 하는거요.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향해 선동과 박근혜에 공갈을 치는 거요?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국민 뒷통수를 보기좋게 친사람 때문 아니요.
경제 살린다고 허빵치는 솜씨를 국민이 다 뻥으로 알아 차렸는데
국민 신경질 나게 하고!!!
국민 돌게 만든자가 누구인가?
박전대표가 한나라당의 리더이며 정당의 실질적 주인인가?
박근혜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 없다.
공당으로서 친박연대, 무소속 복당문제를 당의 공식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라 했잖아
박근혜를 조수석에 갖다붙이는 감각도 좋지만,
박근혜에겐 그대가 말하는 조수석에 관심 없습니다 .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강재섭과 안상수 아닌가
강재섭이 앉아 알냥방구 놓고 있잖아,

소고기 수입과 FTA비준, 노조의 파업예고, 좌파세력에 발목 잡혀있는 상태가 박근혜 때문인가?
좌파세력이 아니라 대다수 건전한 양식의 국민의사의 의지를 폄하하고 모독 하는 당신의 구태적인 의식구조는?,,,,,,,,한당 초선은 무주공산이라?
이 역시 초선의원 인격과 그 지역구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를 어떻게 해석하나.
거짓말과 변명 한탕주의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기 올인하여 전과자 정권을 잉태한 것이 민심이반의 본질적 책임이고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조선일보의 일것이다.

박근혜에게 뭘 열심히 토하라는건지,,,,,,,,,,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김씨 대승적 자세가 필요한 사람이 명박이 정당〈한나라당〉 과 청와대 명박이 아닌가?

그걸 박근혜에게 애걸, 복걸에 공갈치나?

국내 경쟁자가 없다고 오만과 방자함을 다 떨던 명박이와 그 아류들이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남발에 기인한 문제를 그들과 조동이 대가리 맞대어 풀어야지

밥처먹고 빵구끼고 낮잠만 처 자겠다는거야? !!!!

비전동신사

저는 오늘 조선일보 절독 했습니다. NEW 17:10

답글

↳ 여름 사냥

추카드림니다. 아주 잘하셧습니다. NEW 17:26

woodam

이인간은 사이비 언론인의 표상을 보여주는인간 입니다

요리조리 시류에 편승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NEW 17:15

답글

은채

때가되었으면 조용히 가십시오 느그아들하곤 하늘과땅사이요~~ NEW 17:23

답글

여름 사냥

옥천사님! 속 시원하게 글을 참 잘 쓰신것 같습니다. 감사함니다. NEW 17:27

답글

뺑기인생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데 큰일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왜 언론을 양아치 대우을 했는지 알것 같네여 더러운 것들... NEW 17:29

답글

산처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인수위 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워 빚어진 결과인데

이제와서 박근혜에게 덮어씌우다니 정말 사기꾼 같은 넘들이야~~~ NEW 17:50

답글

반야

통쾌한 일갈이네요! 특히 조'동"과 그 측근들 같은 부류들은 거의 하나같이 그들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한계를 느낄때면 어김없이 염치불구하고 (SOS)를 치곤 했었지요... 딱해서 달려가 도와줘서 살겠다 싶으면...또 언제 봤던가?하고 외면 "철면피'로 돌아서는 짓'을 되풀이 했는데...이젠 됐네요"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더이상 당하지 말아야겠져" ??? NEW 18:13

답글

싸리비

어떻게 김대중이 입에서 저속한 말이 나오는지, 무슨공주, 무슨조수석 .. 다 내놓은 사람에게 무얼 자꾸 내놓아라고 그러는건지, 쇠고기파동이 나니까 이제서야 박근혜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냐. 김대중이 노망이들어도 대단히 들었구나. NEW 18:49

답글

장팔사모

또라이세끼~~벼락맞을놈~~맛간 또라이~븅신~~ NEW 18:56

[박사모]

색기(色氣)있는 女子" 보는 방법

2008.05.06 19:08

배경음악 첨부 완료 가사 | 뮤비

"색기(色氣)있는 女子" 보는 방법..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목표로 하라?!...

색녀(色女)의 조건이 되는 관상? [나이스피아비즈를 시작페이지로]

남자들의 경우 길에서건 집에서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를 보면 평을 내리곤 한다. 다 도죽놈들이라서..
운전할 때나, TV를 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머리속에선 그 여자에 대해서 평을 내리고 있다.
요즘 말로 쉽게 주는? 여자 , 헤픈 여자 , 밝히는 여자...를 관상학에서 말하는 판별법을 알아보자.
즉 성(性)대해서 색녀(色女)의 조건이 되는 관상이라 할 수 있다. 定末怒 罪悚合尼多 !!...

① 눈썹

"일자 , 수평선의 눈썹보다는 반달형의 눈썹이 색녀의 조건이 된다."
눈썹이 일자와 수평이 아닌 둥글고 반달의 모양의 여자일수록 질(膣:여성의 내성기(內性器)의 하나를 뜻하는 말)의 굴곡이 멋져 강한 섹시함으로 쾌감을 불러들인다.
반면 눈썹의 모양이 일자 즉 일직선의 경우 섹스에서 기교가 없고 , 너무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형이라 좋은 며느리의 상이 아니었다. 요즘은 눈썹을 뽑거나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판별하기에 무리가 있다.

② 눈

"눈꼬리가 올라갈수록 처녀막의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요즘 화장을 하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 눈꼬리를 올려서 그린다.
통계에 따르면 눈이 크면서 눈꼬리가 올라간 여성의 경우 섹스를 즐기고 , 밝히는 타입이라 한다.
눈꼬리에 주름이 있고 흰자위가 많은 여성의 경우 남자를 순간적으로 바꾸려는 편력이 심한 경우에 속한다.
이런 여성의 경우 즐기기에는 적당하지만 사이가 깊어질수록 피곤한 타입의 여성이다.

혁신적인 사고&획기적인 실행. 서민 창업정보 Web Site : www.Nicepia.Biz

③ 귀

"귓볼이 크거나 귓볼이 붉은 색의 여성은 유혹에 많이 약하다."
최고의 성감대 중 하나가 바로 귀다. 얼굴형에 비해서 귓볼의 색이 붉은 여성의 경우 섹스를 엄청 밝히는 타입의 여성으로 남성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온다. 이 경우 성격이 너무 좋아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 상대방에게 이끌려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귀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귓구멍이 큰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변덕도 심할뿐더러 이성 문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귓볼이 크면 남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④ 코

"콧등이 필요 이상으로 낮으면 정조가 부족하다."
콧등이 낮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는 타겟이 1순위이다.
이런 형의 경우 남성에 유혹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지조 없이 쉽게 넘어오는 타입의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넘어오는 여성의 경우 그 만남의 시간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이 가련한 신세가 되기 쉽다.
섹스의 만족도에서는 코에 윤기가 흐르고, 오똑한 콧날을 가진 여성을 택하는 것이 좋다.

⑤ 입술

"세로로 주름이 많이 있고 도톰하면 성감이 매우 예민하다."
여성의 성감을 대변하는 부분이 바로 입술이다. 입술의 모양과 탄력은 질내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입술 모양을 가진 여성을 놓친다면 후회한다.

-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말을 할 때 부분적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입술의 여성이라면 성적 욕구가 매우 강한 편이다.
-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아랫입술이 역삼각형이면 섹스를 많이 밝히는 타입이다.
- 윗입술 중앙이 꼭지처럼 볼록하면 섹스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더 넓고 탄력적이면 성감이 매우 풍부하다.

《其他事項》

❖남자가 신선이 되는 비법(중국고서 "소녀경" 일부 발췌)

"소녀경"에서 중국 고대 황제와 소녀의 대화 내용으로 현세에 와서는 한 例로 많이 사용하며, 특히 한약방에 가보시면 많이 사용한다. 황제는 중국고대의 전설적 제왕인 삼황오제(三皇五帝)중 삼황의 한사람이다. 삼황이란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황제를 말한다. 복희씨(伏羲氏)는 사서(史書)에 의하면 팔괘(八卦)의 창시자로서 음양설의 연구에 몰두하여 혼례를 정해 놓은 제왕이라 한다.

@.음양설: 남자와여자 하늘과땅이 각기 음과양의 한 이치를 이루고 있다는 설

남자가 신선이 되는 비법은!.. 무언가? 황제가 소녀에게 물었다.
"사정하고 싶어져도 그것을 참고 사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한번 사정하고 싶어질 때 이를 억제해서 사정하지 않으면 기력이 왕성해집니다.
- 두번 사정하려 할 때 이를 억제하면 귀와 눈이 밝아 집니다.
- 세 차례 그렇게 하면 만병이 없어집니다.
- 네 차례 그렇게 하면 오장의 상태가 모두 안정됩니다.
- 다섯 차례 그렇게 하면 혈맥이 충만해서 신장(伸長) 됩니다.
- 여섯 차례 그렇게 하면 허리와 등이 강인해 집니다.
- 일곱번 그렇게 하면 엉덩이와 가랑이에 더 힘이 붙게됩니다.
- 여덟 차례 그렇게 하면 몸에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 아홉 차례 그렇게 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 열 차례 그렇게 하면 이윽고 신선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서민 남자들은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열번 참아 봅시다.. 신선이 되게~..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는 방법

- ●사우나 시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갔다 한다(냉→온→냉→온→냉으로 끝남 순서 주의)
- ●엄지발톱 뿌리의 경혈을 수시로 자극시켜 준다.(수시로 발톱밑을 눌러 준다)
- ●자전거 타기(실내,실외)를 하여 회음부를 마사지한다(또는 안마기로)
- ●잠자기전에 반드시 발바닥(중앙)을 마사지한다
- ●허리부분 지압 및 좌우 비틀기를 한다.(서서 원으로, 누어서 좌우로)
- ●옆으로 누워서 복부 마찰을 자주 한다.(특히 배꼽 밑도 눌러 준다)

..자료 출처:어느 방송사 설문조사에 의함 ..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킨 어느 중년男子(어느 쌀집 아자씨) 경험담

- ●현미밥(현미쌀+현미찹쌀+검정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 ●외식은 멀리하고 압력솥으로 현미밥(현미쌀+현미찹쌀+검정콩or쌀)을 먹습니다.(밥솥으로 하시면 검정쌀이 잘 익지 않음) 반찬은 된장,파,양배추 等의 채소와 발효식품으로, 또한 항상 소식하시고 생선회는 좋고 기타 육식은 피하거나 월1회 이내로 줄이고 단맛(빵,과자,아이스크림,설탕)피하기. 이러 하시면 二週日 이내에 정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항상 커피 대신에 진한 녹차를 마십니다.이것은 피를 맑게 해줍니다. 커피,담배,술은 끊어야 합니다. 술은 소주한잔 이면 족합니다. 대개 술을 마시면 남자는 거시기가 빨리 시들고(죽고), 여자는 성욕이 강열해 집니다..
- ●아침에 거시기 수축운동 10회 실시하며,또한 매일10분씩 슬로우~퀵퀵 달리기 함. 달릴때 숨을 길게 마시고 멈추고 내쉼.
- ●보약은 년1회 (개소주 1회) 정도 해 먹고요. 지금은 40대 중반에 20대 처럼 xx한데요.

@20대는 2x9=18, 즉 1週에 8番 우와!.. @보통 40대는 4x9=36, 즉 3週에 6番인데...에고 쯧쯧

☞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나네요...나중에 알려드리겠음. 일단 한번 해시고요...
이 글을 쓴 본인도 힘들게 기록했지만 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여!.. 定末怒 罪悚合尼多 !!...

위로이동

Menu-☞ 손금&얼굴 관상법 색기있는 여자 보는법 기타 관상법

사이버상의"멋있는 천국".서민들의 新정보.나이스피아비즈!..

新사고와 획기적인 행동으로 서민정보 전문Site를 추진하는(Home/Office Automation)

Internet 사이버 공간에서의 www.Nicepia.Biz입니다!.(운영자:金熙生)

[http://www.nicepia.com/mains/gita/yoga/saegfind.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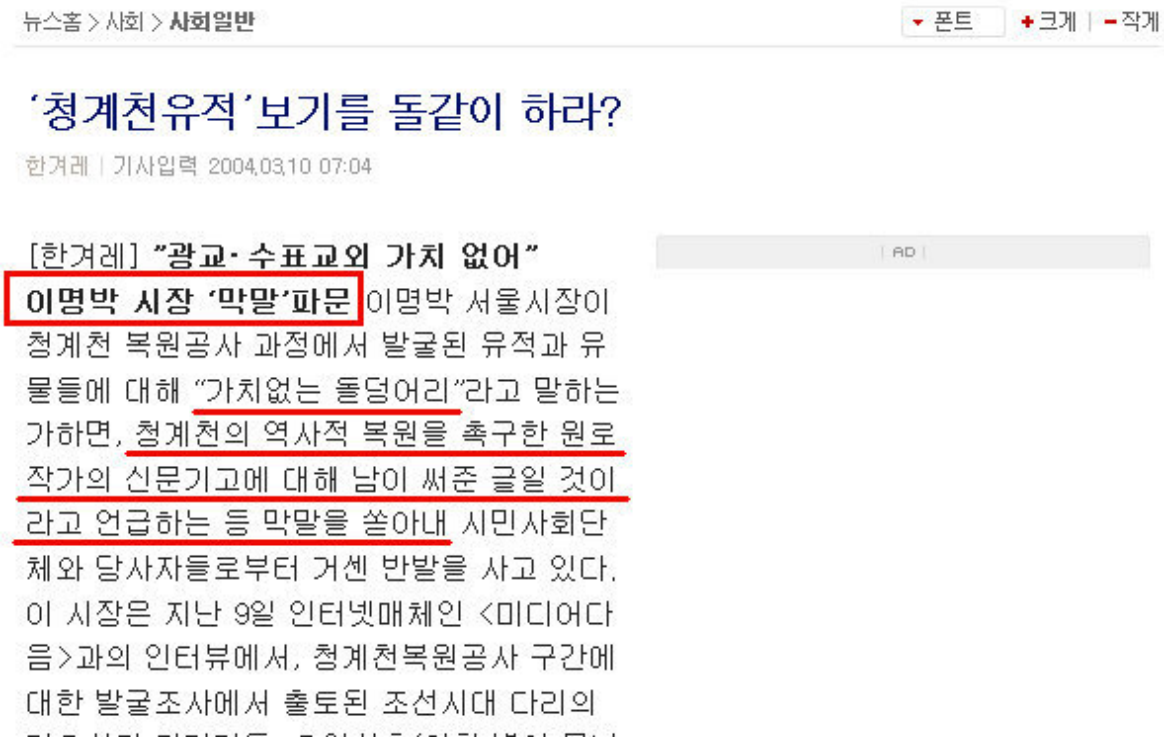
[펌]박경리님에게 이명박이 한 망언/ 박경리씨 특별기고 청계천, 개발이었

2008.05.05 19:0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29972

★필독★ **박경리님에게 이명박이 한 망언** [114]

- 번호 529972 | 2008.05.05
- 조회 4341 주소복사



뉴스홈 > 사회 > 사회일반 폰트 +크게 | -작게

'청계천유적'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한겨레 | 기사입력 2004.03.10 07:04

[한겨레] "광교·수표교외 가치 없어"

이명박 시장 '막말'파문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에 대해 "가치없는 돌덩어리"라고 말하는 가하면, 청계천의 역사적 복원을 촉구한 원로 작가의 신문기고에 대해 남이 써준 글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막말을 쏟아내 시민사회단체와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인터넷매체인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청계천복원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다리의

AD

기초석과 다리기둥, 호안석축(하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석축) 등에 대해 "땅에 묻혀 있는 돌덩어리 자체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에서 문화재로서 비중있는 것은 수표교(서울시 유형문화재 18호)와 광교(1410년 축조)뿐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의 한 위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청계천에서 나온 유구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였던 준설(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을 퍼 내는 것)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반박했다. 또 정영화 문화재위 매장분과위원장도 "돌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오간수문(청계6가 네거리, 조선시대 성곽이 지나가던 다리)의 경우, 이번에 기초석이 발견된 덕분에 문헌에 나온 사진을 참고하면 원형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지난 6일치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지금 시가 벌이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는 조경만 강조했을 뿐이고 역사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박 선생이 쓴 것 같지도 않더라, 요즘 신문에 기사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날 밤 <미디어다음>은 서울시쪽의 요청으로 이 시장의 인터뷰 내용 중 박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고, 박씨의 가족들은 "평생 글을 쓰며 살아온 원로작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이 시장의 문화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불쾌해 했다. 이 시장은 또 인터넷 사이트의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문화재 복원을 외면한 지금의 서울시 복원안을 반대한 결과를 두고는 "전문가가 아닌 네티즌이 신문에 난 것만 봐서 그런 것이고, (시민의) 80~90% 이상이 서울시 안에 동의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뒤로 물러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문학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공동으로 '이 시장 망언 규탄' 항의 집회을 열 계획이다. 윤진 길윤형 기자 mindle@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리님 안타까운 타계 소식에 슬퍼 하던 중에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보고 옛날 기사 찾아서 캡쳐했습니다.

기사 주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0070416613&cp=hani

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청계천이건 대운하건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들 말은 귀담아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식도 없는 인간 말종 이명박..

이런 실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추천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추가))

박경리님이 안타까워 하며 쓰신 동아일보 기고문을 찾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처럼 천박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먹을 사려 깊은 글입니다.

☞ 소설가 박경리씨 특별기고/청계천, 개발이었나!

493

2

하얀나비님의 다른글보기

네티즌 댓글 116개

야미

ㅋㅋㅋ 우와, 할 말이 없다. 이런 인간을 뽑았지? 18:53

happydna5

그 인간은 영국이 인도와 세익스피어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모를겁니다. 평생아마 추측은 할겁니다.세익스피어가 인도보다 큰나라인가보다라고. 18:51

열심히 살자

개념없는 걸로 당신이 킹왕짱이요. 18:47

happydna5

그때도 우겼구만, 조작이라고 참 어이없는인간이다 18:47

-__-

미친 놈 이명박 새끼...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 지랄교...근본도 없는 뉴라이트 개놈... 18:45

Korean Guy

정말 미친 놈이 따로 없네요 사람도 아니네요 18:36

↳ | 🔔

안녕

역시 이병박 18:33

↳ | 🔔

dlfnal

한미다로 막되먹은넘이 천것이 아주 쌍것이 모든것이 지맘대로 하고싶은 천한것이 개념없이 일저지르고 불도져같다고 하는것같아서..원...무식한것이그져 일저지르고 지생각대로 막대하면서 하면 되는것인양..노가다도 이런무식한경우는 없다..ㅋㅋㅋㅋ 18:27

↳ | 🔔

별별

답답해서 미치겠다 진짜..그러니까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나라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나!!!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18:21

↳ | 🔔

Lucy-ㅅ-ㅎ

어휴...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니.. 18:17

↳ | 🔔

손지훈

아놔.. 인간이 되길 거부한거냐?? 개념은 이소연 우주보낼때 같이 보내고 온듯 싶구나. 18:11

↳ | 🔔

피키피키피키

난 내가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태 착각하며 살았다. 이 시대를 사는 건 그야말로 재앙이다. 18:06

↳ | 🔔

숄더슈미

,,요즘 낮낮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과거에 치가 떨리네,,, 18:06

↳ | 🔔

냥이

저 기사 읽었던 것 기억난다...돌덩어리라면서 결국은 다 갖다 버렸다지? 17:49

↳ | 🔔

mum mum

말그대로 '상놈', 욕이 아닌 '배운 것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있는' 상놈,교양, 문화,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것은 배운바도 가진바도 없는 천한 상놈의 자식이다 17:29

↳ | 🔔

꿈지기

청계천... 언젠가는 손 봐야 했던 거지만... 한번 잘못 손대면 다시 바로잡기가 어려운 거죠.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거 말고... 생태, 문화 등등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서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임기내에 밀어붙이겠다고... 그렇게 공사해놓은 거.. 참 가슴 아파요. 이명박 개인으로 보면 청계천 덕분에 대통령까지 됐지만... 참... 씁쓸해요. 17:28

↳ | 🔔

sexycute

저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인가?????ㅠㅠㅠㅠㅠㅠㅠㅠㅠ작년부터 할머니와 재혼하신 할아버지랑 나는 사이가 너무 않좋다..이명박때문에...내가 버릇없다고 모라고 하시지만 일본찬양 명박찬양하는거 몇분씩듣고있으면 미칠것 같았다..하지만 아직도 찬양하신다...왜??일본 혼혈 이시거든... 17:22

↳ | 🔔

오직gogo

정말 명박 스럽네... 저런게 대통령이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작년 12월로 돌아가자!!! 17:20

↳ | 🔔

함해보자

"땅속에 묻혀있는 돌덩어리는 문화제로서 가치가없다" 고대 나온사람맞아? 어처구니가 없다 17:17

↳ | 🔔

배부른 또또

명박스럽다.. 17:17

↳ | 🔔

[daum/아고라]

소설가 박경리씨 특별기고/청계천, 개발이었나!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4.03.05 10:02

[동아일보] ‘청계천 복원, 역사의 복원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은 개발이었습니까?’ 생계수단을 내어놓고 협조한 청계천 노점상 대표의 성난 목소리다. 이들 민초의 충정과 분노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에 다소나마 관여한 만큼 나는 민망하고 부끄럽다. 청계천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은 맹세코 정치적 목적을 떠나 이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겨울밤 가등 밑에 웅크리던 노점상들이 그 빈한한 생계수단마저 내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 희생에 등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본부장 역시 이해와 상관없이 복원공사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렇다 한다면 그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지식인의 양심은 이 시대의 등불이니까. 참, 말을 해놓고 보니 멋쩍고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다. 어쨌거나 그 숱한 개발과는 달리 청계천의 복원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를 살리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 의도 때문에 업적에 연연하여 공기를 앞당긴다면, 결과가 복원 아닌 개발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시장의 정치적 역정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 만일, 추호라도 이해라는 굴레에 매달려 방향을 개발 쪽으로 튼다면 본부장 역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다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원 전문도, 토목 전문도 아닌 조경전문가가 어찌 총책임을 맡았는가 하는 점이다. 옛날, 큰 건축공사를 총괄하는 도편수(도목수)는 재상감이라 했다. 나라에 바치는 정성과 사물을 보는 안목을 따졌던 것이리라. 두 번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청계천 복원 사업 설계보고' 에 관한 것이다.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하천 분야가 7페이지, 하수도 분야가 3페이지, 유지용수 분야가 4페이지, 도로 분야가 5페이지, 교량 분야가 22페이지, 다음 조경 분야는 압도적으로 27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조경전문가인 본부장은 아전인수를 일삼은 것일까. 조경의 예산이 도시 얼마인지 궁금해진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넉넉지 못할 경우 조경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겉치레일 수도 있고, 청계천과 비슷한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나는 조경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화면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여러 나라 수도를 끼고 흐르는 유명한 강들도 그러하다. 강변은 탁 트여 있을 뿐, 기억에 남은 것은 라인강의 인어상 정도다. 물길을 잡아주고 홍수에 대비하는 하천 분야, 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하수도 분야,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교량 분야, 그런 것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거지, 조경은 세월 따라 자연이 만들어 주게 되어 있다. 앞서 도편수의 안목을 말했는데 우리 문화의 진수는 생략이다. 생략은 저 광활한 지평선 수평선, 우주와 지구가 맞닿은 곳의 균형과 강건함에 다가가고자 하는 정서이며 소망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단히 높은 우리민족의 감성인 것이다. 그리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공간인 청계천에 덧붙이고 꾸미고 구조물이 들어앉을 조경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복잡하고 어지럽고 규격화에 지친 도시인들은 단조로운 여백 속에서 쉬어야 한다. 야하게 분바르고 장식을 주렁주렁 매단 여인보다 소박하고 품위 있는 어머니의 품을 생각해 보라. 시냇물에 분수가 가당키나 한가. 설계를 보아하니 요란스러운 교량도 몇 개 있던데 청계천이 잡탕이 될까 두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원 문제다. 단적으로 말해서 조경 때문에 복원이 희생되고 있는 것 같다. 복원한다는 풍선은 띄워놓고 수표교 복원은 유야무야,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수표교 복원이 결정될 때 진행 중인 공사는 뜯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복원을 하게 되면 뜯어내야 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원은 안 하겠다는 속셈이며 그 속셈을 감추기 위한 술책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수표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다. 문화재나 유적의 복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신중하고 철저하며 복원인력 양성에도 막대하게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이다. 결국 청계천은 30여년 전에 첫 개발에 의해 매장되었고 이번에 또다시 개발에 의해 모든 유적은 파괴되고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처음, 청계천 복원을 꿈꾸던 몇몇 학자들이 십년 후에나 가능할까, 이십년 후에나, 하면서 토지문화관에 모여 두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어쨌거나 그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이 된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미력이나마 보태게 된 내 처지가 한탄스럽다. 발등을 찧고 싶을 만치

후회와 분노를 느낀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훗날 슬기로운 인물이 나타나 청계천을 명실 공히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몇 년은 더 벌어먹고 살았을 텐데. 노점상인들이 안타깝다.

- 기사제공|동아일보
- 동아일보 최신기사
- 동아일보 인기기사

[donga]

[펌] 사정을 위한 섹스는 하지 말라

2008.04.28 21:12

이여명 **‘멀티 오르가즘 연습’** (1)

[섹시토크] 사정을 위한 섹스는 하지 말라

“사정을 위해 섹스하지 마라!”

뚱딴지처럼 난데없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코를 간질이며 재채기를 하지 말라는 말처럼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섹스를 사정을 통하여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는 충전된 성 에너지를 방출하여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단지 10초 정도 지속되는 짜릿한 쾌감이 중요할 뿐이다.
사정을 통한 성욕 해소의 섹스는 남성 자신은 물론 여성에게도 크나큰 문제를 안겨 준다.

요즘 이혼율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 원인의 30% 이상이 부부간 성적 부조화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성 문제로 이야기기하던 중 이혼녀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남편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술에 취해 달려들어 바쁘게
사정하고는 돌아누워 바로 잠에 곯아떨어지곤 했어요.
홀로 그의 등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부아가 치밀어오르는지….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더군요.
마치 찌꺼기를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 불만을 가진 아내는 남성의 처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성은 일단 사정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의 고갈과 심리적 상실감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의 성적 · 감정적 욕구에 좀더 충실하고 싶어도 몸은
어쩔 수 없이 잠만을 원할 때가 많다. 오죽하면 사정한 후에는
베개가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인다는 농담까지 생겼을까?

중국의 성 고전서 '소녀경'은 사정이 남성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갈파하고 있다.
황제의 성 자문인 팽조는 "사정하지 않고 어떻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황제의 물음에 "정액을 사정하면 남성은 곧장 피곤에 떨어집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이 무거워져 졸음이 쏟아지고,
갈증이 나고 사지가 약해지고 뻣뻣해집니다. 사정하는 순간의 짧은 쾌감 때문에
오랜 시간 상실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라고 답한다.

무분별한 사정 위주의 섹스는 남성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성적 조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또 새로운 여자를 찾는 빌미가 된다.
사정을 통한 성욕 해소의 섹스에서 관계 위주의 섹스,
즉 성욕 승화의 섹스로 전환해야 한다. 성욕 승화의 섹스는 남성의 경우 되도록
사정을 지연시켜 여성과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성적 교감을 얻고,
때로는 사정하지 않는 섹스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인내와 테크닉이 필요하다.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잠시 미룬 아이들이 성인이 돼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마시멜로 이야기의 교훈을 떠올려 보자. 남성이 사정을 연장하면 할수록,
사정하지 않을수록 남녀의 성적 만족과 건강은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녀경'을 한 번 더 인용해 본다. "교접만 하고 사정하지 않으면 기력이 남아돌아
몸이 가볍고 귀와 눈이 밝아지게 된다. 억제하고 사정하지 않아 늘 부족한 듯하지만
은근히 더 강렬해진다. 이러할진대 어찌 쾌락을 얻지 못하겠는가?"

남녀의 숨막히는 조화경 속에서 참다운 건강과 행복을 활짝 꽃피우는 성욕 승화의 섹스가
우리 시대의 성애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그 신비스럽고 심오한 성 에너지와 멀티 오르가슴의 비밀을 한 꺼풀씩 벗겨 나갈 것이다.

이여명은?
한국힐링타오협회(www.healingtao.co.kr · 02-765-3270) 회장. 방중 양생학의
세계적 전문가로서 한국 최초로 멀티 오르가슴 이론을 전개했다.
한국 남녀의 성 의식 · 성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멀티 오르가슴 엑서사이즈을 전문 지도하고 있다.

※새해부터 이여명 한국힐링타오협회 회장이 섹시 토크 집필진에 합류,
신비한 성 에너지의 세계를 밝힐 '멀티 오르가슴'을 매주 금요일치에 소개합니다.

그동안 ‘고추박사 상담기’를 집필해 온 이윤수 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2008.01.03 13:53 수정]

http://www.healingtao.co.kr/tao/data/data.htm?r_file=read.html&bbs_id=data&b_idx=25&page=2&search=&search_mode=

[힐링러브]

Charry의 기분 좋은 날

블로그 charry의 블로그 http://blog.daum.net/golondrina

저자 charry

발행일 2015.10.23 15:44:34

Daum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